





YTN타워와 주변(왼쪽: 서울역)



YTN타워와 주변(밤)



YTN타워(정면)



01



02



03

- 01_ 로비 전시물
- 02_ 로비 모니터 트리(장식물)
- 03_ 로비조형물



01



02



03

01_ 위성 안테나(옥상)

02_ YTN 옥상(초저녁)

03_ 옥상 공원

YTN 윤리강령

YTN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알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충족시킴으로써 공명정 대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출범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24시간 뉴스전문방송사인 YTN은 이 같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개국이후 전 직원이 쉽 없이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한다.

YTN의 모든 임직원은 짧은 기간에 이룩한 YTN의 위상과 성과가 시청자의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 되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언론기관임을 자부하는 YTN은 공익적 매체로 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따라 YTN은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회사의 도덕성과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YTN 윤리강령'을 새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요강'을 만들어 실행하기로 한다.

1. 언론자유 수호

- 1)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수호하는 것은 YTN에서 일하는 모두의 의무이다.
- 2)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권력·금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를 배격한다.

2. 공정 보도

우리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하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3. 개인의 명예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품위유지

우리는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특히 보도·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5. 윤리위원회의 운영

윤리강령의 유권해석 및 판단,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YTN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YTN 윤리강령 10대 실천요강

1.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취재원으로부터 촌지나 전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취재원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유가증권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향응이나 접대, 그리고 무료여행, 시설물의 무료이용 등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취재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실·국장에 보고한다.
4. 우리는 취재를 위한 편의는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제공받는다. 취재원과의 식사나 간단한 선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5. 우리는 국내외 출장을 비롯해 취재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경비 지원에 따른 취재활동은 윤리강령의 정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6. 우리는 회사의 영업이나 광고문제와 관련해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언론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며,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8. 우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 친분관계를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적인 이익을 위한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는다. 사적인 이익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청탁은 하지 않는다.
9. 우리는 사내 인사발령이나 사원 채용 등 인사상의 문제와 관련해 회사 안팎의 어떠한 부당한 청탁이나 개입도 배격한다.
10. 우리는 언론인의 윤리를 훼손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



표완수 대표이사 사장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YTN100년사의 머릿돌'을 놓습니다

이 땅의 방송사에 새 장을 연 YTN이 여기 10년의 궤적을 책자에 담습니다. YTN은 1995년 3월 1일 정오 3·1 독립선언 76주년을 기리는 보신각 타종을 생중계하면서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시청가구가 10만도 되지 않는 초라한 여건에서 첫 방송을 했지만 YTN은 우리나라 방송사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커다란 획을 그어 놓았습니다.

개국 석달만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때 YTN은 39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쪽에 내려온 북한대표단은 맨 먼저 숙소에 YTN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권력기관에서도, 기업체에서도 YTN을 24시간 켜 놔줍니다. YTN은 어느덧 우리 사회의 눈과 귀가 된 것입니다.

큰 시련도 겪었습니다. 초기 자본금 300억원은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IMF 사태」이후 은행차입금에 의존해온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굳건히 회사를 지켰습니다.

기적적으로 1200억원 증자가 이뤄졌습니다. 24시간뉴스 채널인 YTN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차츰 경영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파를 제치고 서울의 상징물인 남산 서울 타워를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가입자도 14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개국 당시부터 입주해 있던 수송동 사옥은 YTN이 비상하기에는 비좁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20층짜리 A급 인텔리전트 신사옥을 마련했습니다. 제2창사를 선언했습니다. 마침내 「승례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YTN 뉴스를 5대양 6대주에 실어 나를 YTN 인터내셔널도 출범했습니다. 지구촌 어디에서나 안테나만 있으면 YTN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합연예정보채널인 YTN 미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뉴스전문채널에서 연예정보를 아우르는 복수채널로 올라선 것입니다.

올해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상파 DMB 사업자가 됐습니다. 미래 미디어의 주역을 놓고 지상파 3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YTN을 지켜준 시청자의 힘,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낸 임직원의 노력이 뭉쳐진 결실입니다.

10년전 이 땅에 케이블 방송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YTN이 이제 뉴미디어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려 합니다. YTN 임직원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지나간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여기에 YTN 100년사의 머릿돌을 놓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바랍니다.

「YTN 10년사」를 펴내며

2005년 10월 사장



허가번호 제 1993-1 호

프로그램 공급업 허가장

법 인 명	주식회사 연합텔레비전 뉴스	전화번호	(02)3983-114
대 표 자	현 소 환	주민등록번호	370801-1047928
최 다 출 자 자	주식회사 연합통신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02-81-23273
소 재 지	주스튜디오설치장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연합통신 빌딩	
	주 된 사 무 소	상 동	
공 급 분 야	보도(종합보도)		
1일 공급시간	최 소	5 시 간	최 대 24 시 간
부 관 사 항	“뒷면기재”		

종합유선방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프로그램공급업을 허가합니다.

1993 년 9 월 28 일

공 보 처 장



YTN 로고

역대 사장



현소환 대표이사
(1993. 9. 14~1996. 9. 12)



정주년 대표이사
(1996. 9. 12~1998. 8. 25)



장명국 대표이사
(1998. 9. 14~1999. 8. 3)



백인호 대표이사
(1999. 8. 3~2003. 5. 23)

화보 |

YTN 오늘

임원 · 국실장



김희중 상임감사



이두표 전무이사



고광남 상무이사



진상욱 기획조정실장



유종선 경영관리국장



강갑출 보도국장



박찬중 기술국장



김관상 미디어국장



임원 · 국실장 옥상공원서 한자리에(앞에 있는 사람 가운데가 표완수 사장)



표완수 사장(가운데) 주재 임원 · 국실장회의







01_ 보도국 간부회의

02_ 국제부

03_ 그래픽실



01



02



03

01_ 뉴스편집팀

02_ 사회부

03_ 사회2부



문화과학부 기상팀



영상취재팀



기술국 제작기술부



기술국 중계부



- 01_ 기획조정실
- 02_ 마케팅국
- 03_ 경영관리국
- 04_ 미디어국

국내 지국



01



02



03

- 01_ 부산지국
- 02_ 대전지국
- 03_ 청주지국

해외 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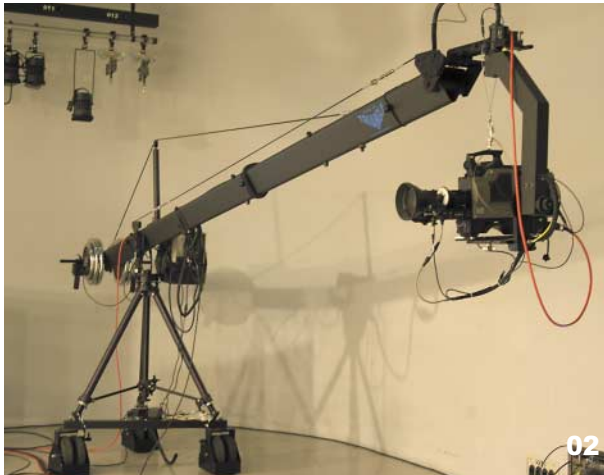


01_ 워싱턴지국 정영근 특파원

02_ 북경지국 김태현 특파원

03_ 동경지국 윤경민 특파원

방송장비



- 01_ 파라볼라(극초단파 중계 안테나)
- 02_ 지미 지프(부감 무빙 카메라 크레인)
- 03_ SNG(휴대용 위성송수신 장치, 시프린스호 침몰 때 SNG로 취재)
- 04_ 중계차

주·부 조정실



주조정실



신호분배실



제1 부조정실 (2005. 5. 7, 경제와이드 제작 중)



제 3 부조정실(2005. 5. 17, 세계 세계인 제작 중)



제 2 부조정실



제 1 스튜디오



제 2 스튜디오





앵커팀 : 왼쪽부터 박신윤 김미선 노종면 김선영 김영수 윤재희 유석현 정애숙 전현무 박영진 유투권 유현주 이승민

프로그램



굿모닝 코리아(05:30~06:00)



뉴스 7/9(07:00~09:00)



뉴스와이드



뉴스 퍼레이드(12:00)



뉴스 큐(16:00)



경제와이드(17:00)



박주현의 시사 업클로스



사이언스 플러스



라이프 앤 조이



뉴스 퍼레이드(12:00)



글로벌 코리아



「돌발영상」 노종면 PD

취재 보도 현장



01_ 교황서거 명동성당 미사취재(2005. 4. 3)

02_ 날씨 스케치(2005. 3. 25, 남대문로)

03_ 송례문공원 개장 이명박 서울시장 인터뷰(2005. 5. 27)





01



02



03



04

01_ 실내체육관 경기 중계

02_ 김대중 전대통령 인터뷰(2005. 6. 8)

03_ 중계차 내부(2005. 5. 25)

04_ 법조 취재

DMB 추진



01



02



03



04

01_ 표원수 사장(앞줄 두번째), YTN DMB 사업계획서에 날인(2005. 2. 14)


02_ 방송위원회에 DMB 사업계획서 제출(2005. 2. 14 황명수 DMB추진팀장·왼쪽)

03_ DMB 설명회(2005. 5. 29)

04_ YTN DMB 표원수 대표이사 선임(2005. 6. 9 임시주총, 이사회)



YTN DMB 지상파 방송국 허가증을 받는 고광남 상무이사. 오른쪽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2005. 7. 18)

허가번호 11-2005-07-0002495호					
방 송 국 허 가 증					
허 가 일 자	2005. 7. 18	허가유효기간	준공검사완료후부일 ~ 3년		
준 공 기 한	2005. 11.30				
시험전과발사기 및 내용	허가일자 ~ 준공검사일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시설자명(법인등록번호)	(주)와이티엔디엠비(110111-3121756)				
방 송 국 의 명 칭	YTN DMB 지상파 DMB 방송국				
방 송 국 의 목 적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업무				
설 치 장 소	송신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3-1(관악산)			
	연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번지 YTN타워			
방 송 사 랑	YTN 플러스 : 텔레비전방송(종합편성), TBN 한국교통방송 : 라디오 방송(교통전문), Satio+ : 라디오방송(음악전문), YTN 프리미엄 : 데이터 방송(종합편성)				
장 치	호출부호	주 파 수 (MHz, MHz)	공 중 선 전 력 (실효복사전력)	공중선 형식·구성 및 이득	
주	HLMA-TDMB	1M54G7WWF	183.008MHz	2KW(14.7KW)	Turnstile(수직편파), Tilt 1°, 9.92dB (60°, 150°, 240°, 330°)
예비	"	"	"	"	2-DIPOLE(수직편파) 2단4면, Tilt 1°, 4.99dB
방 송 구 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운 용 허 용 시 간	00:00 ~ 24:00				
무 선 종 사 자 의 자 격 과 정 원	구 분	무선설비 기사	무선설비 산업기사	무선설비 기능사	비 고
	송신소	1	-	-	
	연주소	-	-	2	
부 관 사 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국제 및 국내 주파수이용정책 및 디지털방송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부 정책을 따라야 함 o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채널구성, 방송운용계획 및 방송시설 설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o 방송구역내의 유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계소(방송보조국)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o 방송국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기술기준과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따라야 함 o 방송국 허가증 교부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는 시험전과를 상시적으로 발사하고, 준공검사 후 허가신청서의 방송운용개시 예정일까지는 방송운용에 준하는 전과를 상시적으로 발사하여야 함 o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전과법 제21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방송국을 허가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정보통신부장 					

수도권 지상파 DMB 「방송국 허가증」

자회사



YTN미디어 사옥



YTN미디어 사무실



YTN미디어 간부진(앞줄 가운데 배석규 전무·오른쪽 박윤순 상무)



YTN미디어 앵커팀



DIGI YTN 간부·사원



DIGI YTN 사무실



01



02



03

01_ YTN 7기 노조 출범식

02_ YTN 3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앞줄 앉은 사람 (왼쪽부터) 임재경 황우석 조동성 김상준. 뒷줄 선 사람 변대규 남윤인 순 양삼승 유재홍 김영석 이영남

03_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왼쪽부터) 민병호 김천석 황보선 전병모 전용화 이한상 설명수 조봉환 강철원 이재희 최수호 강홍식 조용원

동호회



야구동호회(2005. 3. 26 고양시 농협구장)



HAM 동호회(2005. 7. 2)



낚시동호회(2005. 5. 14 선재도 선착장)



사진동호회 「YTN PIONEER」(2005. 7. 9 선유도공원)



음악동호회「T_music」(2005. 5. 26 연습실)



산악회(2005. 2. 13 관악산)

제1편 : 통사

시련 이겨내고 사세 키우다

제1장 출범 원년에 방송4사 대열에

제1절 : 국내 첫 24시간뉴스 채널

1. CNN 편성·보도기법 벤치 마킹

한국의 시청자들은 이제 TV뉴스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24시간뉴스 채널 YTN이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차량이나 지하철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YTN을 통해 TV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YTN이 '한국의 24시간뉴스 전문채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YTN이 케이블TV 채널로 출범한 1995년 말 시청 가능한 가입자가 55만6000명, 2004년 말 케이블TV 가입자는 1277만 명으로 집계됐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165만 명으로 국내에서 YTN을 시청하는 총가구 수는 1442만에 이르렀다. 9년 만에 가입자 수가 26배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CNN'. 이것은 YTN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대내외에 표방한 목표다. 24시간뉴스 전문채널이라는 점에서 YTN과 CNN은 같다. YTN은 24시간방송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CNN의 편성과 보도 방식을 도입했다. 뉴스현장에 중계차를 보내 생방송을 크게 강화하고 대형사고 발생 때는 과감히 정규편성을 깨고 특보체제로 전환했다. 이 같은 보도방식은 「대구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9·11테러」 「이라크전」 등등 국내외의 굵직한 뉴스를 보도하면서 YTN의 성가를 높였다.

시청자들은 YTN 출범으로 매시 정각 또는 30분에 상정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YTN으로 우리나라 뉴스시청 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YTN의 현장중시 전략은 YTN을 '한국의 CNN'으로 시청자에게 각인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2.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

YTN 위상의 약진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04년 12월 1일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결과 YTN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5위'를 차지했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YTN은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음 순서였다. 개국 10년의 뉴스 전문 채널 YTN이 신문방송을 통틀어 5위를 차지한 것은 대단한 약진이 아닐 수 없다.

2003년 8월 시청률 전문조사기관인 TNS(테일러 넬슨 소프레스)미디어 코리아 조사에서도 YTN은 오피니언 그룹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로 선정됐다. 조사 대상 오피니언 리더의 73.4%가 YTN을 즐겨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은 출범 원년에 KBS MBC SBS로 대변되는 지상파의 아성에 끼어들어 '방송4사'로서의 자리를 확보했다.

2003년 3월 1일 개국 8년째를 맞아 YTN은 '글로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전 세계를 방송권역으로 위성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YTN의 위상이 전 세계 해외동포·해외공관에까지 확산되었다.

2005년 6월 말 현재 YTN을 시청하는 해외동포는 50만 가구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포사회 외에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 남극 세종과학기지, 5대양을 누비는 원양어선에서도 YTN을 통해 고국 소식을 접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YTN 영향력은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 때도 입증됐다. 노 대통령을 수행한 한 비서관은 뉴욕 숙소에서 YTN을 위성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한 뒤 "해외에서는 YTN이 기간방송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YTN은 2004년 3월 18일 세계 곳곳의 통신원을 통해 동포사회의 소식을 전해 주는 「YTN인터내셔널」을 출범시켰다. '세계속의 YTN'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3. 디지털 시대 멀티 미디어 그룹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가 열리면서 '미디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신문과 방송으로 양분돼 온 미디어 시장에 케이블TV가 뛰어들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2005년 5월부터는 신규 미디어인 위성DMB가 본방송을 시작했다.

지상파DMB는 2005년 11월부터 본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며 IPTV(인터넷 TV)도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방송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은 더 많은 채널,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케 해 방송시장은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다.



YTN 수송동 사옥 : YTN이 남대문 새 사옥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입주해 있던 종로구 수송동 연합통신(현 연합뉴스) 사옥. YTN은 이 건물 8~12층을 썼다

2004년 3월 YTN은 수송동 시대를 접고 승례문 시대를 열었다. 남대문 사옥에서 첫 방송을 하면서 ‘제2창사’ 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제2창사’ 선언의 핵심은 기존의 YTN을 종합미디어그룹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계획의 골자는 우선 DMB 시대에서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위해 매체 다각화와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두고 모바일 매체환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은 YTN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YTN은 2005년 3월 ‘손안의 TV’ 로 일컬어지는 지상파DMB 사업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11월에 시험방송을 거쳐 12월부터 본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YTN DMB」는 2005년 12월 비디오 1개 오디오 2개 데이터 1개 등 모두 4개 채널을 시청자에게 선보이게 된다.

YTN은 디지털시대 도래를 내다보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MPP(복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전략도 함께 추진해 왔다. 2004년 6월 코오롱이 운영하던 ‘월드 와이드 넷’ 을 인수해 「YTN 미디어」라는 자회사로 출범시켰다. YTN 미디어는 연예정보 채널인 「YTN스타」와 코미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YTN은 또 수도권 지역 FM라디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제2절 : 방송제도 개혁으로 태동

1. ‘CATV 도입’ 노태우 후보 대선공약

YTN이 탄생한 것은 방송구조 개편정책에서 비롯됐다. 지상파 중심의 기존 방송구조를 다매체 다채널 구조로 바꾸면서 도입된 것이 케이블TV제도였다.

케이블TV 도입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7년 하반기.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정치권이 민주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때였다.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즈음 ‘민간 종합유선방송 허용’ 을 선거공약으로 처음 내놓았다. 노 후보의 공약 발표는 우리나라에 뉴미디어인 케이블TV를 도입해 방송환경을 일대 개혁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우리나라에 케이블TV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4가지가 제시됐다. 우선 방

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세계 추세에 더 이상 낙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상파 방송의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다양한 전문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채널 활용이 가능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도입이 필연적이고, 셋째 향후 필요 불가결한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케이블TV가 그 중추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넷째 우리나라에 침투하고 있는 외국 위성방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송 환경적 이유 외에 정치적 고려로 케이블TV 도입이 공약으로 채택됐다는 분석도 있다. 1986년 권력 편향적인 불공정 보도에 분노한 국민들은 KBS에 대한 대대적인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였다. 이 같은 국민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며 정치 민주화에 불을 붙여 '6·29선언'을 이끌어내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실현시켰다. 1987년 11월에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으로 방송법이 제정되는 등 방송환경과 방송구조에 새 바람, 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설명이다.

2. '3분할 체제'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 여 뒤인 1990년 4월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를 공보처에 설치했다. 자신의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첫 후속조치였다. 199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인 활동을 한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는 13차례 회의를 통해 케이블TV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했다. 이때 결정된 사항이 케이블TV제도의 기본 계획안, 시범방송 시행 방침, 시범지역 선정, 케이블TV 관련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였다.

공보처는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케이블TV 도입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0년 12월 24일 제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모두 27차례 공청회가 열려 각계 의견이 수렴됐다. 이 같은 강행군 끝에 탄생한 것이 「종합유선방송법안」이다. 이 법은 1991년 10월 국회에 제출돼 12월 31일 법률 제4494호로 공포됐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될 케이블TV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종합유선방송법 중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케이블TV를 3분할 체제로 운영하고 보도채널의 참여자격을 제한하며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다. '3분할 체제'란 케이블TV를 SO(중

합유선방송국: System Operator) PP(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NO(전송망사업자: Network Operator)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보처는 케이블TV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각 분야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육성하기 위해 3분할 체제를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 '1995년 초 본 방송' 공보처 추진 구체화

1992년 8월 14일 제1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여석기 전 문예진흥원장)가 구성됐지만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케이블TV의 추진 움직임이 다시 활기를 찾았다. 실무부서인 공보처의 손길이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바빠진 것이다.

공보처는 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케이블TV 본격 추진'에 대한 후속대책을 취임 첫 업무보고 사항에 넣었다. 1993년 4월 1일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1995년 초 우리나라에 케이블TV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뉴미디어 시대를 여는 케이블TV 방송 출범 시기를 처음 언급한 것이다. 오 장관은 1993년 안에 케이블TV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동안 드러난 쟁점사항을 종합 점검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케이블TV 출범 시점이 정부 주무부처 장관의 입을 통해 공식 거론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YTN을 탄생시킨 연합통신(현재 연합뉴스)이 케이블TV 사업 진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였다. 공보처는 이후 케이블TV 출범 일정을 1995년 초에 맞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케이블TV 본방송 실시 일정이 1995년 3월 1일로 최종 확정 발표된 때는 1994년 6월 22일이었다. 우리나라에 뉴미디어시대를 연 새 방송제도, 케이블TV는 정치권서 공식 거론된 지 8년여 만에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제3절 : 연합통신 뉴스전문채널 떠나다

1. 전재료 의존 불안 수입 다각화 모색

뉴스전문 채널 YTN은 연합통신을 모체로 태어났다. 연합통신이 케이블TV 사

업에 뛰어든 이유는 이 사업을 통해 경영의 안정을 확보하고 매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1990년대 들어 방송구조 재편과 전파매체의 영향력 확대로 신문은 물론 우리나라 유일의 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생존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강요받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의 방송정책으로 민간방송 SBS가 1991년 12월 9일 개국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송환경은 KBS MBC 양방 공영체제가 무너지고 공·민영체제로 개편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광고시장도 방송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였다.

당시 연합뉴스는 방송과 달리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전채로 외의 다른 수입을 올리는 방안, 즉 수익 다변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즈음 AP, 로이터 등 세계 유수 통신사도 프린트 서비스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영상사업에 새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2. 연구위·기획단 설치 외국 사례 조사

1992년 3월 케이블TV방송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맡을 「방송연구위원회」가 연합뉴스 내에 설치됐다. 방송연구위원회는 아직 국내에서는 그 개념이 생소한 케이블TV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조사하는 일에 착수했다.

1992년 말 방송연구위원회는 해체되고 케이블TV 사업 추진 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로 「방송기획단」이 설립됐다. 기획단은 종합보도분야 프로그램공급 사업허가 신청에 들어갔다. 1993년 5월에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 허가 신청 일정과 신청요령이 발표됐고 기획단은 2권으로 된 400여 쪽 분량의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7월 15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친 방송사업 계획, 편성, 인사, 조직, 기술 분야의 구체적 내용은 심사위원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93년 8월 31일 「연합TV뉴스(YTN)」는 종합유선방송 종합보도 분야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YTN을 포함해 11개 분야 20개 업체였다. 9월 28일에는 종합뉴스 프로그램 공급업 법인 설립 허가장을 공보처로부터 받았다. 허가장 번호는 케이블TV 선두주자답게 제 1993-1호였다.



개국 초기 YTN로고

진열된 도입 장비 : 장비대에 진열된 카메라 등 취재장비(1994. 11. 28)



1993년 7월 2일 창립 컨소시엄 참여업체와 지분율이 확정됐다. 12개 기업과 개인이 자본금 150억 원을 납입하기로 했으며 7월 7일에는 연합TV뉴스(YTN) 창립총회가 열렸다. 12개 컨소시엄 참여자와 지분율, 출자액은 다음과 같다.

- ▶ 연합통신(30%, 45억 원, 지배주주)
- ▶ (주) 쌍방울 제일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상업은행 (각 10%, 각 15억 원)
- ▶ 민중병원 (7%, 10.5억 원)
- ▶ 성원토건, 장규찬 씨, 전남일보 (각 5%, 각 7.5억 원)
- ▶ 일동제약 한림제약 (각 3%, 각 4.5억 원)
- ▶ 보성주택 (2%, 3억 원)

3. 채널 정체성을 현장성·신속성에

YTN 설립 당시의 경영전략은 투자를 최소화하고 연합통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지상파 수준의 방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지상파와 경쟁하기보다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의도였다. 이는 TV뉴스 제작비를 적게 투입하면서 뉴스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제출된 '허가신청서'를 보면 "뉴스 포장보다는 '신속보도'와 '상세보도'에 역점을 두겠다"고 제작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 "그림중심의 기사선정이 아닌 기사가치를 판단해 방송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지방뉴스는 지방 방송 화면을, 국내 스포츠 뉴스는 국내 스포츠 채널의 화면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주요장비 일람표에는 주종 카메라로 AG-3 캠코더(일본 파나소닉사 제품) 2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VJ(Video Journalist)시스템을 도입해 취재기자가 취재는 물론 AG-3로 촬영하고 편집을 혼자 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VJ시스템은 미국 뉴욕의 Channel One이란 지역 케이블방송국을 시찰하고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YTN은 실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초유의 24시간 TV뉴스채널로서 초기에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종합보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출범할 때부터 '제대로 된 TV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채널의 정체성을 '현장보도'와 '신속보도'로 삼아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았다. 24시간 보도의 틀을 창조해 낸 당시의 편성이나 프로그램 사이사이 채널을 홍보하는 ID 등에서 '현장성'과 '신속성'이 일관되게 강조됐다.



이대섭 초대 보도국장

- 1944년 생
- 명지대 졸
- KBS TV편집부장(81) 보도본부 부국장 겸 편집실장(83) KBS 부산 보도국장(85) 보도본부 수석부주간 TV편집부국장(86~87) KBS 청주방송총국장(88) 방송심의위원(91) 보도국장(92)
- YTN 보도국장(94~98), 상무
- 대구프로축구단 단장(2005)

제4절 : 창사 준비... 전문 인력 확보 · 장비 도입

1. '지상파 경쟁자' 틀로 체제 · 진용 짜다

YTN은 TV뉴스제작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보도채널 출범 준비를 맡겼다. 1994년 1월 1일 초대 보도국장으로 이대섭 전 KBS 보도국장이 합류했다. YTN이 종합보도부문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선정된 지 4개월이 지난 뒤였고 본격적인 케이블TV 출범 1년 2개월 전이었다.

이 국장은 보도국장에 임명된 뒤 우선 연합통신 경영진을 설득해 YTN을 '동네방송' 수준에서 '지상파 방송의 경쟁자'로 기본 틀을 바꿨다. 이 국장은 기본 설계도를 바꾼 후 본격적으로 보도국 간부 사원 영입에 나서는 등 보도국 진용 구축에 착수했다. 1994년 1월 3일 우선 방송뉴스 취재와 보도 실무를 잘 아는 표철수 KBS 지방부 차장이 YTN보도국 뉴스총괄부장으로, MBC 카메라기자 출신 박윤순이 편성운영팀 차장으로 영입됐다.

2월 1일에는 KBS 강갑출 기자와 황성규 영상취재부 차장이 합류했다. 강 기자는 뉴스총괄부 차장, 황 차장은 영상취재부장으로 임명됐다. 개국을 위해 필요한

보도·기술·영상취재 경력사원들의 영입은 이후 표철수 강진이 황성규 3인에 의해 이뤄졌다. 2월 14일에는 전병모 허창재 등 12명의 방송기술직 사원이, 3월 1일에는 곽중철 차장과 강철원 김상우 등 보도국 경력사원 17명, 김재동 임찬식 차장대우 등 영상취재부 경력사원 5명, 김해중 등 총무부 사원 5명이 합류했다.

3월에는 이한상 영상취재부 차장대우 이계성 방송기술국 차장 등 34명, 4월에는 배석규 뉴스총괄부 부장대우 김사모 차장 등 10명, 7월에는 이동근 보도국 부장 등 25명, 8월에는 김관상 기동취재부장 고희남 편성부 차장 진상옥 기동취재부 차장 등 9명, 12월에는 조봉환 보도국 부장 박중훈 네트워크기술부 차장대우 등 17명이 영입되는 등 보도국과 기술국의 부장급 간부와 차장급 간부들이 속속 YTN에 참여했다.

경력사원에 대한 스카우트의 손길은 주로 KBS 본사와 지방KBS 지방MBC에 근무하는 TV뉴스 제작 경험자에게 중점적으로 뻗어졌다. 기자출신이 아니더라도 PD로서 제작경험이 있는 인재도 영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영어 통역 등 특수 분야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 방송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신문기자도 영입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연합통신 경력기자 29명이 1차로 1994년 6월 1일자 YTN 파견근무 명령을 받아 합류했다. 부장급 간부에 대한 영입은 출범 후에도 이어져 1995년 3월에는 KBS에서 이재희 부장, SBS에서 주동원 부장이 합류했다.

공채 신입사원 2기는 99명이나

공채 1기 신입사원은 1994년 2월 12일 입사했다. 인원은 29명으로 방송경영 4명 방송기자 9명 촬영기자 10명 그래픽 2명 전산 2명 방송기술 2명. 1994년 9월 9일에는 99명의 신입사원이 대거 입사했다. 공채 2기인 이들은 방송출범을 앞두고 뽑은 YTN의 주력부대였다. 직종별로는 방송기자 48명(서울과 수도권 36명 지방 12명) 여성앵커 8명 기상기자 4명 촬영기자 17명 방송기술 22명이다.

방송기자의 경우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오디션과 최종적으로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여성 앵커의 경우는 1차 서류전형 대신 오디션이 부과돼 합격을 위해서는 두 차례의 오디션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어 1·2기 신입 공채사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직무훈련이 시작됐다. 신입 인턴사원에 대한 교육·연수는 방송경력이 있는 부서장과 중간 경력사원들이 맡았다. 간부·경력사원의 영입과 신

인터뷰

강진이 이사대우

- 초기 기술 분야 책임자로서 기술 인력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초기 기술 인력은 어떻게 확보했는지요

몸 담았던 KBS 3~4명과 신입사원 가르쳐

▲ 기존 지상파 인력으로 세팅해 가야 하는데, 신생 매체인 케이블 TV는 수익성이나 대우 면에서 보장이 불투명해서인지 선뜻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KBS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일한 네댓 명 정도를 기본 축으로 해서 일을 해냈습니다. 나머지 기술사원들은 신입사원을 1차 2차 3차에 걸쳐 뽑아 한쪽으로는 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시설공사를 병행해 가는 식으로 초기 인력을 운용했습니다.

- 24시간 뉴스방송은 세계적으로 CNN 외에는 유례가 없는 방송인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 24시간 뉴스 생방송을 한다는 것은 다른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안정성 확보가 생명인데 그 안정성을 확보해 주

는 것은 디지털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시작했지만 성공적으로 잘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 YTN 기술분야 책임자로서 보람은?

▲ 우리는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쓰는 송신보다는 중계망을 같이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독과점하고 있던 KT 외에 대안으로 한전을 선택해 중계망 구축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광케이블을 구석구석 다 깔게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는데 기초가 됐다는 데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현 디지캐스트 사장)

입사원 공채, 연합통신 사원의 파견으로 YTN 구성원은 1995년 1월 말 358명에 이르렀다. 신입사원 128명 연합통신 파견사원 64명 간부·경력사원 166명이다.

보도국 직제 '팀'에서 '부'로... 부장 인사

1994년 8월 2일 개국 7개월여를 앞두고 YTN 보도국의 직제가 확정되고 각 부서장이 임명됐다. 그동안 임시로 운영해 오던 팀제가 정규 조직으로 개편된 것이다. 부서장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부장 표철수 ▲ 경제부장 정평국 ▲ 사회부장 이동근 ▲ 뉴스총괄부장 직

무대행 배석규 부장대우 ▲기획총괄부장 직무대행 김사모 차장 ▲월드뉴스부장 김갑생 ▲문화체육부장 직무대행 김정연 부장대우 ▲네트워크부장 직무대행 강갑출 차장 ▲방송전산부장 직무대행 박정한 차장 ▲편성운영부 편성운영팀장 박윤순 차장

2. 24시간 보도방송 시스템 구축

YTN 개국을 위해 제일 먼저 전문인력 확보를 서두른 분야가 방송기술이었다. TV방송 경험이 없는 연합통신으로서는 제일 걱정되는 분야가 방송설비와 장비, 취재장비 구축이었다. 방송사업에서 장비,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1993년 10월부터 기획단 고문으로 참여한 김무기 기술고문은 KBS 기술본부 근무 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강진이 보도기술부 차장에게 함께 일하자고 권유했다. 강 차장과는 과거 TBC(동양방송)에서도 함께 일해 본 적이 있었다.

강 차장은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박찬중 정명렬 두 사람과 상의해 YTN 창사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1993년 11월 12일 강 차장을 비롯한 3인의 KBS 보도기술국 사원은 새로 출항을 준비 중인 YTN호에 경력사원으로는 제일 먼저 승선하게 됐다. 강 차장은 방송기술국 부장에, 박찬중은 차장에, 정명렬은 차장대우로 임명됐다. 이들은 기획단이 이미 마련한 방송시설계획안을 대거 보완, 국내 최초의 24시간 보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국 준비에 나선다.

‘공간 최대활용·동선 최단화’ 설계

개국 준비 방송기술팀은 1994년 3월 13일 제작 송출용 주조정실과 부조정실, 스튜디오 등 방송시설공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YTN 개국 선발대로서 먼저 24시간 뉴스방송에 적합한 시설 구축을 위해 설계도를 마련했다. 설계도의 주안점은 ‘공간의 최대 활용’ ‘동선의 최단화’ ‘효율적 24시간 뉴스 방송시스템 구축’에 두어졌다.

방송시설의 설계와 장비선정은 YTN 방송 기술팀이 직접 맡았고 시공은 전문 회사에 맡겼다. 스튜디오·공조·내장공사는 (주)우원, 연주시설 설치는 신광전기통신, 조명공사는 중앙무대조명, 동력설비는 88전기통신과 이화전기, 안테나 시설은 영남통신과 씨앤씨코리아가 각각 맡았다. 200억 원에 이르는 장비발주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그 종류는 205종 2600여 점에 이르렀다. 방송 시설



설치 끝낸 부조정실 : 개국을 앞두고 설
치를 마친 부조정실 방송장비(1994. 11. 28)

공사는 공사 개시 8개월 만인 1994년 11월 30일 완료됐다.

개국을 위해 연합통신 건물 12층에 마련된 방송 시설은 주조정실 1부조정실 2부조정실 3부조정실 등록실 신호분배실 스튜디오 등이며 옥상에는 위성수신과 마이크로웨이브 수신용 대형 안테나 8개가 설치됐다.

이미 지어져 있는 사무실 공간을 방송용 시설로 바꾸는 작업은 새로 방송국을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건물의 층간 높이와 바닥 강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 조명 등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우선 건물의 층고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연합통신 건물은 사무실용으로 지은 구조여서 층고가 낮고 방송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뜯어고쳐야 할 곳도 많았다.

스튜디오 조명은 층고가 낮아 할로겐 램프를 설치하지 못하고 HMI 램프로 대체했다. 또 방송 송출의 핵심시설이 들어서는 연합통신 건물 12층의 공간이 좁아 주·부조에 설치되는 TV모니터는 통상 14인치 크기가 아닌 8인치로 줄여야 했다.

기술팀을 더욱 당황하게 한 것은 12층 바닥이 견고하지 않아 흔들리는 점이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잡지 않으면 그대로 스튜디오 카메라에도 영향을 미쳐 화면의 흔들림 현상으로 이어진다. 건물 바닥의 진동을 잡기 위해 기술팀은 스튜디오 타일공사에 진동흡수력이 강한 플로팅 플로어를 구성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방송 테이프의 신속한 전달과 불필요한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 10층 영상편집실에서 12층 방송스튜디오까지 3개 층을 연결하는 나선형 철제계단이 바로 그것이다. 이 나선형 계단은 개국 후 YTN이 화면 특종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제작·송출 시스템은 첨단 디지털로

24시간 쉬지 않고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방송 제작송출장비로는 어느 것이 적절할까? 24시간 방송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기술팀의 고민은 컸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첫 시도여서 참고할 만한 검증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팀은 곧 도래할 디지털시대를 겨냥해 첨단 디지털방식의 제작송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도입한 것이 「Full Digital Component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방송체제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제작·송출과정의 영상신호를 일관되게 디지털신호로 처리함으로써 아날로그방식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질손상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멀티미디어시스템을 채용해 편집과 제작에 활용했다. 이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핵심 장비는 Airplay와 Digistore 였다. 녹화등록실 장비인 Airplay는 뉴스 소스를 하드디스크에 등록해 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쓸 수 있는 VCR 대체장비였다. Digistore는 주조정실에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홍보물이나 예고를 입력시켰다가 방송시간에 맞춰 끄집어내 쓸 수 있는, 당시로서는 첨단장비였다. 주조정실에는 자동송출시스템 TAS(Total Automation System)도 설치했다.

다른 방송들이 부러워한 BASYS

개국 당시 타 방송사의 부러움을 많이 산 것은 베이스스 (BASYS: 보도전산시스템)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YTN은 개국 후 국내외 긴급뉴스 처리에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 보도전산 시스템은 컴퓨터로 작성한 기사가 전산망으로 사내에 연결돼 동시에 열람 편집 교정이 가능하며 뉴스진행자가 생방송 진행도중에도 속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개발된 베이스스는 미국 CNN이 개국 때부터 도입해 사용하면서 그

우수성이 입증된 방송체제였다. 한국에서는 YTN이 처음 도입했다. 한글로 시스템을 호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베이스는 YTN이 24시간 뉴스방송을 중단 없이 처리하는 데 효자노릇을 했다. YTN의 위상을 또 높여준 첨단기기로 기상그래픽 전문장비 'Triton i7'이 있다. 미국 카바로스(Kavouras)사의 제품인 이 장비는 구름의 이동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3D 입체 그래픽 처리가 가능해 다양하고도 생동감 있는 기상 정보를 제작해냈다. YTN이 이 장비로 한 단계 높은 품질의 기상정보를 내보내자 지상파도 뒤따라 이와 비슷한 장비를 구입하는 등 '기상뉴스'에 새바람이 일기도 했다.

3. 새내기들 연습방송 3개월 전부터

1995년 3월 1일 역사적인 케이블TV 출범을 앞두고 YTN의 연습방송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됐다. 본방송을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연습방송은 1부조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3부조에서 하루 1~2시간 실시됐다. 앵커가 단신 기사를 읽고 화면과 자막을 넣는 수준의 아주 초보적인 뉴스방송 연습이었다. 리포트가 본격적으로 제작되지 않을 때여서 연습방송에서는 리포트 멘트만 앵커가 말하는 정도였다.

연습방송에 참여한 앵커들은 1995년 9월 9일 입사한 공채 2기 김정아 김선희 김경아 등 여성앵커 8명과 유석현 최수호 우장균 편상욱 강성웅 등 5명의 남성 앵커였다. 입사 전 방송경험이 있는 앵커는 최수호 김정아 앵커뿐이고 나머지는 방송경험이 없는 새내기였다. 이 때문에 최수호 김정아 앵커는 각각 남녀 앵커의 모델이 됐다. 김정아 앵커의 연습방송이 녹화된 테이프는 다른 새내기 여성앵커들에게는 좋은 참고서였다.

한달 여 동안 자체적으로 사내 연습방송을 하다가 1995년 1월 5일부터 케이블 TV협회 차원의 외부 송출 시험방송이 시작됐다. 협회 실시 시험방송은 1995년 3월 1일 본방송 출범을 앞두고 사전에 문제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1995년 1월 5일 오전 10시 YTN을 비롯한 21개 채널은 일제히 시험방송에 참여했다.

시험방송의 수신대상은 39개 SO(지역 케이블방송국) 가입자 9600여 가구였다. YTN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하루 4시간씩 시험방송에 참여했다. YTN은 시험방송 기간동안 뉴스와 화면조정용 컬러바에 YTN 자막을 넣은 화면을 시험 송출했다. 다른 채널들도 대부분 컬러바·자료화면 또는 프로그램 안내를 내보

인터뷰

류희립 개국 당시 편집팀장

- YTN이 1995년 3월 1일 본방송을 앞두고 2월 25일 24시간 연습방송을 처음 했는데 편집팀장으로서 24시간 시험방송을 실제로 해 보고 느낀 점은?



도 났습니다.

커 옆에 나와야 하는데 카메라를 옆으로 움직이기 전에 넣는 바람에 앵커 얼굴에 탁 박힌 다든지 하는 사고

24시간 연습 방송을 처음 해보고 느낀 점은...

시간 메울 콘텐츠 절대 부족... 제일 큰 어려움

▲ 저는 아침 뉴스팀장으로 3시간 생방송 뉴스를 맡고 있었습니다. 특파원도 없었고 지방 기사도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3시간을 채울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교육책으로 경찰서 소방서 고속버스 철도 지하철 상황실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기술스태프들이 주조나 부조 장비를 다루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아 갖가지 방송사고가 잦았고, 셋째는 뉴스 진행 기술이 숙달 안 되고 보니, 예를 들면 어깨걸이가 앵

- 뉴스진행 요원들은 그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 24시간 뉴스 전문채널 YTN에서 중요한 부서가 편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집파트에 인력을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뉴스진행 연습도 비교적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뉴스진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뉴스진행 요원들이 모두 한번 해보자 하는 열의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현 편집운영팀장)

냈다. 시험방송 결과 화질과 음질 등 기술적인 면에서 양호하다는 평이 나왔다.

4일전 24시간 연습방송 '종합 점검'

이 같은 시험방송을 거쳐 24시간 연습 방송을 처음 실시한 때는 1995년 2월 25일이었다. 본방송 시작 나흘을 앞두고서였다. 이때는 카메라 편집 장비를 비롯해 위성수신 장비 등 YTN의 각종 방송 장비 설치가 90%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다. 또 1994년 10월부터 정치부 사회부 등 주요 출입처에 배치된 취재기자들이 노트북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송고하는 등 기사작성 훈련도 상당 수준 진전된 때였다. 케이블 방송 출범을 앞두고 실시된 이날의 '24시간 연습방송'은 그 동안 준비하고 훈련해 온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었다.

제2장 3·1절 보신각 타종 뉴스로 개국

제1절 : 케이블 TV시대 열리다

1. “안녕하십니까. YTN이 오늘부터…”

1995년 3월 1일 오전 11시 55분.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YTN 12층 1부조 안. 좁은 1부조 통로에는 현소환 사장을 비롯해 김동성 상무, 이대섭 국장 등 10여 명의 간부가 숨소리를 죽인 채 세계 초침의 움직임을 응시하고 있었다. 개국 방송을 진행할 PD 최수호 차장, 박찬중 기술총괄부장 등 기술스태프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드디어 오전 11시 58분.

“애국가 스타트!”

뉴스 진행 PD 최수호 차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현소환 사장이 방송개시 의식으로 기술 감독을 대신해 스위처 레버를 올렸다.

애국가 화면이 모니터에 떴다. 1분여 동안 애국가 1절이 나가고 「YTN 24」 뉴스 타이틀이 이어졌다.

“앵커! 스탠드 바이!”

“큐!”

우장균 김소영 두 앵커의 활기찬 모습이 화면에 등장했다.

우장균 앵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뉴스채널 YTN이 오늘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케이블TV라는 새로운 방송의 장을 여는 YTN은 이 시각 이후 중단 없는 방송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 안팎의 각종 정보를 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김소영 앵커 “YTN은 선정주의나 폭로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의 뉴스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전하고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우장균 앵커 “광복 50년 YTN 원년의 문을 여는 이 순간 서울 종묘 보신각에서



케이블TV시대 개막 : 케이블TV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YTN 개국방송 화면, 앵커는 김소영(1995. 3. 1 정오 정시 뉴스)

인터뷰

김소영 전 앵커



앵커가 되어 전문가 또는 기자들과 대담도 하고 그날의 이슈가 되는 아이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

- YTN 개국 방송을 한 소감은?

▲ 저는 1994년 9월 입사했습니다. 개국하기 전 연습 방송 참 많이 했습니다. 연습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방송할

었는데 저로서는 처음 해 보는 장르였어요. 물론 질문지는 작성돼 있지만 듣고 싶은 답변을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어

1995년 3월 1일 정오 개국방송한 소감은...

너무 긴장... “폭력”을 “폭폭 폭력...”으로 멘트

때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개국 방송을 제가 하기로 결정됐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1995년 3월 1일 낮 12시 개국 방송을 해야 하는데 아침에 좀 늦잠을 잤어요. 할레벌떡 갔지만 제가 안 온다고 모두 찾아나서 법석을 떨었죠. 스튜디오에 들어가 스태바이를 할 때까지 긴장하지 않았는데...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본방송이 시작되니까 그동안 없던 긴장이 엄습하는 거예요.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하는 멘트가 “YTN은 앞으로 선정주의와 폭력주의를 지양한다”였는데 너무 썩 나머지 이 멘트를 더듬었어요. “...선정주의와 폭폭 폭력주의...” 이렇게요. 첫 방송에서 실수한 것이 우선 기억납니다.

- 재직 기간 중 어려웠던 일은?

▲ 몇년도인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1년 반 쯤 「뉴스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송경철 앵커와 진행했어요. 그야말로

려웠고 뒤에 모니터해 보면 정말 이견 아닌데 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렇지만 1년 반 동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도 한 것 같아요.

- 방송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가벼운 것으로는 제가 마이크를 차지 않고 깔고 앉았던 일이 있어요. 뉴스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거예요. 오디오가 들리지 않아 많은 분들을 당황시켰던 경험이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는 평소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선배인 변덕수 기자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호준석 기자로 기억합니다. 호 기자의 추모 리포트 앵커 멘트를 제가 해야 하는데 자제했지만 울어버렸어요. 이 때문에제 음성으로 뉴스를 전달하지 못하고 스태프들이 나머지 뉴스를 서둘러 마쳐버린 경우도 있었습니

(현 프리랜서 MC)

인터뷰

우장균 개국 12시뉴스 진행



- 1995년 3월 1일 개국방송을 맡았는데 첫 방송을 한 소감은?

개국방송 이후 계속 앵커 했는데 어려운 점이라면

메모지만으로 방송할 때 순발력 있는 처리 힘들어

▲ 대한민국 최초의 뉴스전문 채널 YTN의 개국 방송을 한 것은 영광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30~40분 동안 진행된 방송이 어떻게 끝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무척 긴장해서 방송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YTN 출범을 알리는 뉴스앵커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영광과 함께 24시간 뉴스의 최초 진행자로서 더 매끄럽게 신속하고 정확한 방송을 해야겠다는 소명의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 계속 앵커를 했는데 앵커로서 어려웠던 점은?

▲ 방송이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시시각각으로 사건 사고 등

을 속보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메모지 한 장만 뉴스앵커에게 전달될 때도 있는데 이것을 순발력 있게 처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후배 기자, 후배 앵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저도 아직 기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배기자들에게 할 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 방송이 지상파 뉴스와는 다르게 매 시각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속보로 전달하는 매체이고 우리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기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는 76년 전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되새기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YTN의 첫 뉴스는 3·1절 기념 보신각 타종 현장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낮 12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보신각 타종 현장이 연결됐다.

딩-딩-딩-

종소리가 작아지면서 황성수 기자의 현장 리포트가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YTN이 첫 아이টে็ม으로 전한 보신각 타종 현장 생중계는 SNG(위성 뉴스취재시

스텝)를 통해 전국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됐다. 보신각 타종 현장 연결에 이어 3·1절 관련 기사와 김영삼 대통령의 기념사가 이어지고 「케이블TV시대 출범」 기획 리포트 3개가 뒤를 이었다. 방송은 깔끔하게 진행됐다. YTN의 개국을 1부조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임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감돌았다. 그동안 개국을 준비하면서 쌓인 긴장과 피로가 성공적인 개국으로 말끔히 달아났다.

2. 24시간 뉴스방송에 시청패턴 변해

1995년 3월 1일 낮 12시를 기해 우리나라에는 케이블TV 시대가 열렸다. 이날을 기해 방송을 개시한 케이블TV채널은 YTN을 비롯 21개였다. 30개 채널이 개국할 예정이었으나 준비부족으로 동참하지 못했다. YTN 출범은 우리나라 방송사에 새 역사를 기록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YTN이 첫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송사에는 24시간 뉴스방송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YTN이 24시간 뉴스를 중단 없이 내보냄으로써 시청자들의 뉴스시청 패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뉴스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매시 정각 또는 30분대에 TV 뉴스를 손쉽게 접하게 된 것이다.

3. 13명의 YTN 새내기 앵커들

YTN이 개국 이후 「24시간 뉴스 방송」을 큰 무리 없이 해내자 국내언론과 시청자의 관심은 곧 YTN 새내기 앵커들에게 쏠렸다. ‘참신함’과 ‘생동감’이 이들에게서 질게 물어났기 때문이다. 세련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신인다운 ‘푹푹함’이 신선하게 시청자에게 파고들었다.

개국 때 투입된 YTN 앵커는 모두 13명. 여성 앵커 8명 남성 앵커 5명이다. 연령 층으로는 20대 9명, 30대 4명으로 이들은 YTN의 이미지인 ‘젊은 방송’에 잘 맞았다. 여성 앵커들은 모두 1994년 9월 높은 경쟁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이다. 남성 앵커들은 취재기자 가운데 ‘얼굴과 목소리’를 고려해 5명이 선발됐다.

두 달에 걸친 ‘치열하고도 긴 시험’을 거쳐 선발된 여성 앵커들 중 방송경험이 있는 사람은 광주 MBC에서 아나운서로 1년간 일했던 김정아 앵커(25) 한 명뿐이었다. 김선희 앵커(25)는 고등학교 영어교사, 김경아 앵커(25)는 외국상사 출신이며 이현정(25) 이지은(25) 김소영 앵커(24)는 졸업 후 첫 직장으로 YTN을 선택했다. 김지윤(23) 이선령 앵커(24)는 1995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다.



강갑출

- ▲ 1952년 생
- ▲ 부산대 철학과 졸,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 ▲ TBC(1979) KBS(1980) 전

국부

- ▲ YTN 네트워크부장(1994) 문화스포츠부장(1999) 부국장대우 국제부장 부국장 미디어국장직대(2000) 국장대우 타워사업국장(2001)
- ▲ YTN 보도국장(2003~)

이들은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그동안 개국을 앞두고 두 달간 ‘발성법’ ‘기사 작성 교육’ ‘현장취재’ 등 혹독한 실무훈련을 잘 이겨냈다. 시험방송 때는 「YTN24」와 「뉴스메모」를 통해 하루 3~4차례 뉴스진행 연습을 했다. 이들은 앵커훈련에 앞서 한 달간 기자 훈련도 쌓았다. 경찰서를 출입하고 사건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밤샘근무도 경험했다.

남성 앵커 5명 중 2명은 차장이고 나머지는 평기자다. 유석현 차장은 정치부, 최수호 차장(37)과 우장균 기자(32)는 뉴스총괄부에서 근무했고 강성웅 기자(31)와 편상욱 기자(27)는 공채1기 출신이다.

제2절 :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CNN같이 ‘뉴스 휠’ 편성방식 채택

YTN이 개국과 함께 제시한 편성 슬로건은 ‘살아 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이다. 개국 이후 지금까지 이 편성 슬로건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슬로건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보도국 정치부 천형석 기자(2000년 2월 퇴사 후 현재 KBS 근무)였다. 이 속에는 24시간 뉴스 전문채널 YTN의 정체성과 목표가 함축돼 있다. ‘살아 있는 뉴스’란 속도감·현장감이 있는 뉴스를 의미한다. ‘깨어 있는 방송’이란 24시간 쉬지 않고 국내외 뉴스를 전달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뉴스채널 YTN이 개국 때 추구한 편성원칙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차별성 강화다. 지상파와의 차별성은 ‘뉴스시간 최대한 확대’ ‘뉴스 휠 (News Wheel: 누적경신방송) 방식 채택’ ‘월드뉴스 강화’ ‘기상정보 중시’ ‘편성의 탄력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종합뉴스 월드뉴스 특화뉴스 일기예보 4개축 편성

개국 당시 YTN 편성은 종합뉴스 월드뉴스 특화뉴스 일기예보 4개 축으로 짜여졌다. 종합뉴스 프로그램인 「YTN 24」는 매시 정각에 최근작 뉴스를 중심으로 종합보도하며 매시 30분에는 종합뉴스를 요약한 「뉴스메모」가 편성됐다. 「뉴스메모」는 정시 뉴스를 놓친 시청자를 위한 뉴스로 앞 뉴스를 요약하고 새로 들어온 뉴스를 첨가하는 이른바 미국 CNN의 「헤드라인 뉴스」를 본뜬 뉴스형식이다.

그날의 뉴스를 총망라해 보도하는 「YTN 프라임뉴스」도 매일 정오, 오후 5시, 오후 8시, 밤 10시 4차례 편성했다. 「YTN 24」는 15분, 「뉴스메모」는 5분, 「YTN 프라임뉴스」는 30분 길이였다. YTN의 이 같은 뉴스형식은 기존의 지상파 종합뉴스와는 달랐다. YTN은 출발 때부터 미국의 CNN과 같이 뉴스 휠(Newspire Wheel)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 방식은 기획뉴스를 제외한 모든 뉴스에서 새로운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전뉴스와 즉각 대체할 수 있어 뉴스전문채널 YTN의 정체성인 속보성·현장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YTN 인터내셔널」이란 타이틀로 대표되는 월드뉴스도 YTN 개국 편성의 중요한 축이었다. 「월드 24」 「세계·세계인」 「아시아·아시아」 「뉴스매거진」 4개의 소타이틀로 나뉘어 하루 8회 방송됐다. 「월드24」는 그날그날 들어온 외신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세계·세계인」 등 그 밖의 프로그램은 세계 주요 방송사나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시사물 중 우수한 것을 골라 재제작한 것이다. 특화뉴스 프로그램은 각 분야별 뉴스를 한데 묶어 그날의 뉴스흐름과 의미까지 심층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이다. 개국 때 선보인 특화뉴스 프로그램은 「정치광장」 「경제생활」 「문화마당」 「스포츠」 「네트워크」 「통일로」 「건강정보」 등이다.

파격의 포맷과 내용 「기상 센터」

편성의 마지막 축인 「일기 예보」는 YTN이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포맷과 내용도 종래의 틀을 깨는 파격을 단행했다. 구름의 이동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빨래지수' '알레르기 지수'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일기 예보는 「YTN 기상센터」란 이름으로 매시간 25분과 55분대에 2회, 하루 48회 편성했다. 이 밖에 시사 토크프로그램 「집중조명」과 그날그날의 국내외 역

사를 요약 정리해주는 「오늘의 역사」가 편성됐다.

개국 당시 편성에서 YTN의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일반뉴스' (「YTN 프라임뉴스」 「YTN24」 「뉴스메모」 「YTN 뉴스출발」)는 468분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그 뒤는 「SB(Station Break : 회사홍보 영상물)등 기타」 「YTN인터내셔널」 「YTN 스페셜」 「기상센터」 「채널24 집중조명」 「오늘의 역사」 순이었다. 「SB 등 기타」가 25.0%를 차지한 것은 개국 초기 광고시간이 적은 것이 원인이었다.

1995년 3월 YTN 프로그램과 세부 편성비율은 표와 같다.

YTN의 프로그램과 세부편성비율 (1995년 3월)

분야별	프로그램	시간	비율	비고
일반뉴스	YTN 24 뉴스메모 YTN프라임뉴스 YTN뉴스출발	468분	32.5%	
YTN스페셜 (분야별특화뉴스)	통일로 네트워크 경제생활 정치광장 문화마당 스포츠	166분 11.6%		
YTN인터내셔널	아시아·아시아 세계·세계인 뉴스매거진 위성통역실 월드24	243분 16.9%		
CH24집중조명		90분	5.8%	
오늘의 역사		24분	1.7%	
SB등 기타		360분	25.0%	
기상센터		89분	6.1%	
총계		24시간	100.0%	

2. 개국 특집 「YTN 테마기획」 2편 제작

YTN이 개국 초부터 시청자의 눈과 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뉴스 외에 다른 볼거리의 특집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래서 개국 전에 해외취재에 들어간 특집이 「YTN 테마기획」이다.

창사 특집용으로는 동서독 통일 5주년의 통독현장을 밀착 취재한 「라인에서 엘베까지」가, 6·27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 테마기획으로 「세계의 지방자치」가 선정됐다. 2편의 시사 다큐멘터리는 YTN의 채널 이미지를 고려해 결정됐다.



「통독현장-라인에서 엘베까지」: 창사특집 YTN 테마기획 20분짜리 14부작 「라인에서 엘베까지」의 프로그램. 사진 왼쪽부터 경제회생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라이프치히는 다시 선다', 아이 양육도 힘겨움을 은유한 '흔들리는 동독여성', 동독 민주화의 견인차였던 '루터의 후예들'의 한 장면

창사특집 「라인에서 엘베까지」

창사 특집은 개국 5개월 전부터 아이디어를 사내에서 수렴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 창사특집 아이디어는 기동취재부 강철원 기자가 냈다. 창사특집 YTN 테마기획 「통독현장-라인에서 엘베까지」의 기획 의도는 통일독일의 현장르포를 통해 우리가 통일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통일 후 우리가 어떻게 민족적 통합을 이뤄 나갈 것인지의 해법을 찾는 데 있었다.

취재팀은 강 기자를 포함해 홍성보 기자, 영상취재부 조성룡 기자 3명으로 구성됐다. 취재팀은 한달여 자료 수집을 거쳐 1994년 11월 중순부터 독일 현지취재에 들어가 50여 일 동안 통독현장을 살살이 뒤진 뒤 1995년 1월 초 귀국했다. 독일취재팀은 20분짜리 14부작을 제작했다. 제1편 「농촌도 경쟁시대」는 1995년 3월 4일 방송됐다. 「라인에서 엘베까지」의 메인 타이틀에서 '라인'은 통일 전의 서독을 관통해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강줄기로 옛 서독을 상징했다. '엘베'는 통일 전의 동독을 가로지르는 강으로 옛 동독을 의미했다.

특집은 토·일요일 편성돼 1주일 2편씩 7주에 걸쳐 방송됐다. 이 창사특집은 정책관계자와 일반 시청자는 물론,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테마기획 「세계의 지방자치」

테마기획 「세계의 지방자치」는 1995년 6·27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한 특집이다. 이 특집의 취재는 정치부 추은호 기자, 편성운영부 박철원 기자, 영상취재부 박정근 차장이 맡았다. 이들은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일본 미국 영국 3개국을 1995년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40여 일 동안 중점 취재했다. 취재팀이 일본을 취재하는 동안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고베시 취재 내용이



「세계의 지방자치」 : 6·27 지방자치를 앞두고 제작된 테마기획 「세계의 지방자치」. 화면은 20분짜리 14부작의 제12편 「지방자치는 여성의 손으로」에 소개된 미국 뉴 베드포드 시의 로즈 마리 시장 (왼쪽)

현지에서 수정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취재스케줄이 현지에서 변경돼 취재팀은 고베 대지진을 피할 수 있었다. 특집은 20분짜리 14부작으로 제작돼 1995년 4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방영됐다.

창사특집 「통독현장- 라인에서 엘베까지」와 테마기획 「세계의 지방자치」의 편별 제목과 간추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인에서 엘베까지」	「세계의 지방자치」
제1편 「농촌도 경쟁시대」 국영이던 협동농장이 민영화되자 구동독 농촌의 많은 농민이 몰락한 현실을 담았다.	제1편 「자치인가, 정치인가」 95년 2월 무소속 후보들이 정책 대결하는 일본 기타큐슈시의 시장선거 운동과정을 중점 소개.
제2편 「50년후의 토지 반환청구」 통일로 인해 새로운 소유권법이 제정돼 파생된 문제를 다뤘다.	제2편 「주민자치로 새 도시를」 영국 북 잉글랜드 지역 뉴 캐슬시 주민들의 도시 활성화 운동인 시티챌린지 운동과 지역활성화 전략, 미국 데이비스시의 환경 자치 사례를 살펴본다.
제3편 「라이프치히는 다시 선다」 통일의 출발은 힘겨웠지만 이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소개했다.	제3편 「지역개발은 아이디어」 일본 구마모토현의 작은 마을이 지역특성을 살려 부유한 마을로 탈바꿈한 사례를 둘러본다.
제4편 「미래의 자본 드레스덴」 동독지역의 젓줄인 엘베강변에 자리한 도시 드레스덴이 미래의 자산인 바로크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재했다.	제4편 「최첨단 서비스회사 이즈모시」 일본 이즈모시의 행정서비스 제도와 종합 복지카드, 쓰레기 수거 유료제를 알아본다.

<p>제5편 「동독비밀경찰 슈타지의 반란」 독일 통일 후 동독 출신에 대한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은 전 동독 비밀경찰들의 반발을 소개했다.</p>	<p>제5편 「기업을 유지하라」 미국 델라웨어 주와 영국의 북 잉글랜드,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사이언스 파크 등을 취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유치의 장·단점을 부각.</p>
<p>제6편 「흔들리는 동독여성」 동독출신의 고급 여성인력이 대량 실직당하는 현실을 전했다.</p>	<p>제6편 「최소경비로 최대의 복지」 일본 도쿄도 나가노구의 노인복지시책을 중점 소개.</p>
<p>제7편 「되살아나는 물데 강」 구동독 시절 환경보호에 무지했다가 동독 후 환경보전에 눈뜨기 시작한 모습을 담았다.</p>	<p>제7편 「파산한 도시의 교훈」 미국의 오렌지카운티와 켈시시의 파산사례와 그 이후의 모습을 취재. 지자체가 반드시 주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점을 일깨운다.</p>
<p>제8편 「통일비용 조성해법」 통일 이후 독일연방정부가 구동독 지역에 지원한 금액은 375조 원, 엄청난 통일세로 겪는 경제후유증을 소개했다.</p>	<p>제8편 「주민이 왕이다」 일본의 마쓰도시 이즈모시 구마모토 현청과 영국의 「ONE STOP」제도를 취재. 지방자치제 하에서 자치단체들이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살펴봄.</p>
<p>제9편 「동독 스포츠의 변신」 통일 이후의 동독 스포츠계에 몰아친 변화 모습.</p>	<p>제9편 「집과 일자리를 드립니다」 각종 복지대책을 중심으로 보스턴시, 일본 구마모토현 무사시노시의 의료 복지제도를 알아본다.</p>
<p>제10편 「루터의 후예들」 독일 통일 당시 동독 민주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개혁 기수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취재했다.</p>	<p>제10편 「주민이 지키는 지방자치」 일본의 가와사키시 무사시노시, 미국 델라웨어 주의 주민이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 소개.</p>
<p>제11편 「동독시장 투자전략」 동독시장에 뛰어난 한국기업들의 세계경영 전략.</p>	<p>제11편 「21세기 도시를 꿈꾼다」 미국 볼티모어시가 해양과학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노력과 일본 기타큐슈 시의 첨단과학 유치를 알아봄.</p>
<p>제12편 「동독 기업의 활로 찾기」 독일 통일 이후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산했지만 일부 기업은 재기에 성공했다.</p>	<p>제12편 「지방자치는 여성의 손으로」 일본 최초의 여성시장인 아시아시 기타무라 시장과 미국매사추세츠 주 뉴 베드포드시의 로즈메리 시장을 취재, 여성시장들의 활약상을 전한다.</p>
<p>제13편 「기रो에 선 훔볼트대학」 명문 훔볼트 대학이 통일이후 자금 부족으로 파산위기에 내몰렸다가 학과 통폐합과 같은 개혁으로 거듭나고 있는 노력을 취재.</p>	<p>제13편 「세계로 뻗는 지방의 꿈」 일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협회,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소, 한국 지방자치 국제화협회 사무소를 취재하고 강원도가 개최한 일본 중국 러시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과의 공동회의를 소개.</p>
<p>제14편 「방황하는 동독 청소년」 동독 출신 청소년들의 방황을 통해 남북한 통일 이후 있을 수 있는 청소년 문제를 미리 검토.</p>	<p>제14편 「알뜰 자치로 가는 길」 세계 각국의 시장들이 한국 지방자치에 대해 말하는 충고와 기대의 말을 전달.</p>

3. 개국 4개월 지나서야 조직 안정

개국 당시 YTN 조직의 틀은 완비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인원과 장비만 갖춘 상태였다. 24시간 종일 방송을 해나가자 곳곳에서 부족한 요소가 드러났다. 개국 후 2~3개월은 24시간방송 하라, 모자라는 인적 물적 자원 보충하라, 정신이 없었다. 연합통신에서 파견된 정평국 경제부장과 김정연 문화스포츠부장 2명이 출범 한 달이 안 돼 되돌아갔다. 그 빈자리를 지상파 경력사원으로 보충하는 등 YTN조직 변화는 계속 이어졌다. 초창기 조직의 혼란이 대체로 수습된 시점은 개국 4개월이 지난 7월초였다.

1995년 7월 3일자 YTN임직원 현황은 임원진으로 현소환 대표이사 김영일 전 무이사 이대섭 상무이사(보도국장 겸임) 양재홍·김무기 이사대우 5명에 총사원은 정규직 497명 계약직 73명 등 570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용역직 33명이 근무했다. 정규직 사원을 직종별로 분류하면 기자직이 321명으로 가장 많고 기술직 101명 행정직 48명 컴퓨터 그래픽직 17명 방송전산직 10명 순이다. 국별로는 보도국이 357명 방송기술국 101명 총무부 39명이었다.

보도국 (13개 부서 357명)

13개 부서명과 인원수, 부서장은 다음과 같다.

▲편성운영부(11명): 고광남 부장 ▲뉴스총괄부(51명): 배석규 부장 ▲기획제작부(19명): 이재희 부장 ▲기동취재부(11명): 김관상 부장 ▲정치부(18명): 표철수 부장 ▲경제부(10명): 주동원 부장 ▲사회부(33명): 이동근 부장 ▲네트워크부(서울 8명, 지역 73명): 강갑출 부장 ▲문화스포츠부(11명): 이재희 부장 ▲월드뉴스부(21명): 김갑생 부장 ▲영상취재부(62명): 황성규 부장 ▲방송전산부(10명): 박정한 부장 ▲기획홍보부(9명): 박운순 차장

문화스포츠부는 연합통신 파견간부가 되돌아감에 따라 이재희 부장이 겸직했다. 보도국의 취재부서는 연합통신 건물 11층, 편성운영부 영상취재부 방송전산부는 10층, 뉴스총괄부는 12층에 각각 배치됐다.

방송기술국 (3개부 101명)

방송기술국 총인원은 101명으로 제작기술총괄부(부장 박찬중) 68명 네트워크 기술부(부장 강진이) 23명 기술관리부(부장 유원용) 10명이었다.



개국초기 보도국 정치부(1995. 3)

개국 당시 방송기술국은 기본운영 목표로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능력 확보 ▲ 안정적인 방송 송출 유지 ▲ 중계망 다원화로 신속성·현장성 제일 추구 ▲ 방송기술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 지속적인 교육으로 방송기술 전문인 육성을 내세웠다.

총무부 (2개팀 34명)

총무부(부장 유종신)는 경리팀(팀장 윤명기 차장)과 총무팀(팀장 백동범 차장) 2개팀으로 구성됐다. 총무부 인원은 34명으로 연합통신 파견사원은 12명이었다.

제3절 : 큰 사고 보도에서 차별성 드러내

「'대구 가스폭발' 최신장비로 신속보도 - YTN, 뉴스채널 진가발휘」(스포츠서울 1995년 4월 29일)

「대구참사 특종보도 - 새내기 YTN '진가」(문화일보 5월 8일)

「YTN, 삼풍보도 탁월 - 케이블TV 저력발휘」(조선일보 7월 7일)

「'삼풍' 붕괴보도 분초 다툼 전쟁」(중앙일보 7월 1일)

「YTN '삼풍' 보도 "뭔가 보여줬다"」(조선일보 7월 16일)

「삼풍참사 1보 특종·매일 생중계 - YTN 뉴스전문채널 자리 잡아」(한겨레신문 7월 6일)

1995년 당시 각 신문이 뽑은 제목들이다. 새내기인 YTN이 신속한 보도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출범 두 달여가 지난 뒤부터였다. 스포츠서울 문화일보의 보도처럼 YTN은 1995년 4월 28일 101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도시 가스 폭발사고에서 개국 후 첫 특종을 신고했다. 그로부터 두 달여 뒤 YTN은 전 대미문의 대형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1보를 또 다시 특종보도했다.

두 건의 대형 사고는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YTN의 존재를 강력하게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빠르고 정확하고 생생하게' 시청자에게 보도함으로써 24시간뉴스 채널의 정체성이 크게 부각됐다. 미국의 CNN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 1991년 걸프전 실황 생중계로 세계 방송계의 제왕으로 등극했다. 걸음마 단계에 있던 한국의 YTN은 개국 초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보도를



강철원

▲ 1956년 생
▲ 서울대 외교학과 졸

▲ 조선일보 사회부(1982) 한겨레신문 정치부(1988) 사회부

▲ YTN 입사(1994) 사회부차장 기획취재부차장(1998) 정치부차장(1999) 정치부장(2000) 국제부장(2001) 동경특파원(2002)

▲ YTN 부국장대우 시사편찬위원

신생 매체인 연합텔레비전뉴스(YTN)가 삼풍백화점 참사 보도를 계기로 뉴스전문 채널로서 자리를 확실히 잡아가고 있다.

YTN은 사고발생 8분 만인 지난 29일 오후 6시3분께 제1보와 함께 시민의 제보증언을 특종보도한 것을 비롯해 하루평균 12시간씩 붕괴현장을 생중계함으로써 공중과의 다른 매체 차별성을 뚜렷하게 발휘하고 있다.

또 이튿날인 30일 오후 1시께 연합텔레비전 기자가 생존자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백화점 B동 지하 3층에 들어가 홍성태(40·대 원외고 영어교사)씨의 신음소리를 취재해 그의 생존 소식을 생생히 전하기도 했다.

특히 사건발생 이후 사흘 동안

삼풍참사 1보특종·매일 생중계 YTN 뉴스전문채널 자리잡아

다른 뉴스를 모두 제쳐두고 이 소식만을 전한 YTN은 1일 오후 1시부터 이날 밤 10시까지 매몰된 환경미화원 24명의 구출과정을 9시간에 걸쳐 연속생중계해 실종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공중과 3사가 사고 다음날 저녁 참사 생중계를 중단하자 YTN을 시청할 수 있도록 케이블텔레비전 설치를 당국에 강력히 요청해 케이블텔레비전 관계자들을 고무시켰다.

YTN은 이번 사고현장에 중계차 4대, 로봇카메라 1대 등 중계장비와 함께 기자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30분 단위로 현장을 중계하거나 상황 발생시 즉각 현장을 연결하는 기동성을 과시했다.

YTN의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시간 뉴스채널의 위력을 알렸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YTN 역시 다른 공중과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참사

를 단순히 취재보도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일단을 드러내 체계적인 재난방송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구조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보도진의 붕괴현장 접근을 통제하자 이를 강력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YTN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대형사고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전문 재난구조방송으로서의 행동방식을 마련해 통합재난구조체계 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가족 및 시청자 모두에게 필요한 현장정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보도를 계기로 신생매체인 YTN이 뉴스 전문채널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1995년 7월 6일 방송면 기사

계기로 한국 방송계의 떠오르는 샛별로 부상한 것이다.

“세계의 뉴스현장에 CNN이 있다면, 한국의 뉴스현장에는 YTN이 있다.”

‘삼풍사고’ 이후 YTN의 달라진 위상을 두고 언론계에 나돈 말이다.

1. 첫 특종 :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

YTN은 1995년 4월 28일 대구시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발생 30분 후인 오전 8시 21분 국내 TV로서는 가장 먼저 특종 보도했다.

오전 8시 「뉴스출발 6부」 진행도중 자막과 함께 현장화면 없이 MC멘트로 첫 보도한 것이다. 이 가스 폭발사고는 101명의 사망자를 냈다. 아침 출근길에 발생해 버스와 승용차가 지하철 공사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희생자가 컸다.

YTN은 1보에 이어 8시 40분에는 사망자 5명에 대한 신원을 최초로 확인 보도했고 사고 현장에 중계차를 신속히 출동시켜 SNG를 통해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국에 방송했다. YTN의 1보 방송에 이어 KBS가 5분 뒤인 8시 25분에, MBC와 SBS는 KBS보다 3~5분 늦게 각각 자막 처리를 했다.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사고 직후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이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지상과 방송이 생중계를 외면했지만 YTN은 하루 종일 중계차를 이용해 늘어나는 사상자와 구조 상황 속보를 계속 방송, 대조를 보였다. YTN의 속보 방송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의 사고상황 파악과 대책수립에 큰 도움을 줬다.

YTN은 이 사고 취재를 위해 대구주재기자 3명을 포함, 서울 3명 부산 2명 창원 4명 대전 2명 등 취재기자 14명과 카메라기자 5명 등 모두 19명으로 특별취재팀을 구성했다.

시민제보 → 파출소 확인 → 본사 보고

YTN이 대구 폭발사고를 특종하게 된 것은 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고 당일 아침 대구지국 사무실에 있던 손재호 기자에게 전화로 제보한 사람은 대구시의원 입후보자 선거사무실 홍경황 사무국장이었다. 홍 국장은 사무실 앞 상인동 네거리에서 발생한 엄청난 폭음을 듣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당사자였다. ‘땡’ 하는 굉음으로 귀는 아직 얼얼하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지하철 사고현장에는 철제 복공판이 보이지 않는 곳이 군데군데 있었고 지면이 폭삭 내려앉은 곳도 있었다. 자세히 보니 복공판은 지하에 처박혀 있고 철제 빔 옆에는 곤두박질한 시내버스와 승용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폭발사고 현장은 삼시간에 아

수라장이 돼 있었다. 사고현장에서 그나마 좀 떨어져 있던 덕에 다치지 않은 사실이 감사하고 신기할 정도였다. 홍 국장은 사무실 안에 별다른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고소식을 빨리 언론기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책상 귀퉁이의 한 우편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루 전에 도착된 이 유인물은 YTN이 6·27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 신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에 일제히 내려보낸 것이었다. 그는 이 우편물에서 YTN 대구지사 전화번호를 찾아내 다이얼을 돌렸다. 사고 발생 10여 분이 지난 오전 8시쯤이었다.

홍 국장의 제보전화를 받은 손 기자는 우선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4 안내 전화를 통해 상인동에 사는 한 아파트 주민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손 기자가 이 주민과의 통화로 폭발사고 발생 사실을 1차 확인하는 데는 2~3분 걸렸다. 손 기자는 이어 파출소로 다시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이 틀림없음을 2차 확인하고 서울 본사에 보고했다.

본사 네트워크부에 보고된 시각은 사고 발생 20여 분이 지난 오전 8시 13분쯤. 이어 8분 뒤인 8시 21분 「뉴스출발 6부」 진행도중 '대구 상인동 대폭발 사고' 라는 자막과 사고 1보가 화면 없이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보도됐다. 이때 1보로 전한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폭발사고로 인근에 있는 현대아파트 수백 가구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폭발사고 당시 40~50m의 먼지기둥이 솟았으며 주변건물의 유리창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AP 등 주요 외신 YTN인용 타전

사고발생 1보를 서울로 전송한 손 기자는 곧 폭발사고 현장에 영상취재기자를 출동시키기 위해 대구 그랜드호텔에 '한총련 관련 대학총장 대책회의' 를 취재 중인 박태근 영상취재기자를 무선호출기로 불렀다. 박 기자는 단신기사용 화면을 찍고 호텔 문을 막 나오다 손 기자의 출동호출을 받았다. 박 기자는 취재차를 타고 15분 만에 상인동 폭발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YTN 취재차가 출근길에 이처럼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가는 도중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 대한 TV방송사의 취재·보도경쟁은 구조활동만큼이나 분초를 다투는 치열한 「전쟁」이었다. 사고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곳은 케이블TV 뉴스채널인 YTN. 오후 6시 정규뉴스를 시작한 YTN은 방송시작 3분만에 앵커의 멘트로 사고소식을 보도했다. YTN은 이어 4분쯤 사고현장 인근 삼호가든아파트 주민의 제보전화를 연결, 사고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YTN의 사고보도에 이어 SBS가 오후 6시 4분 만화영화 『설특 하운드』 방송도중 자막으로 사고소식을 전했으며 KBS·MBC가 6시 5분과 10분에 각각 사고발생을 보도했다.

「삼풍」보도 전쟁 : TV 방송사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취재·보도 경쟁을 다룬 중앙일보 1995년 7월 1일자 방송면 머리 기사 앞글. '사고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곳은 케이블TV뉴스채널인 YTN으로 주민 제보전화를 연결, 오후 6시 정규뉴스에서 사고소식을 상세히 전했다'고 보도했다

「삼풍」 생방송 :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 구조작업을 생방송하고 있는 YTN 특별취재팀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현장으로 가는 경찰차를 만났기 때문이다. 박 기자는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셔터를 누르기 시작해 이수라장이 된 현장 초기화면을 5분 정도 찍어 운전기사 편에 지국으로 보냈다.

YTN은 1보를 특종한 데 이어 사망자 5명의 신원을 제일 먼저 내보내는 등 그 후에도 속보와 현장중계를 주도했다. AP, 로이터, AFP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YTN 보도 내용을 인용해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1보와 속보를 전 세계에 타전했다.

2. 역량 발휘 · 위상 높인 '삼풍' 보도

뉴스채널 YTN의 진가와 역량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보도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YTN을 모르던 상당수 국민들은 삼풍사고를 계기로 YTN을 알고 호감을 갖게 됐다. YTN은 '삼풍백화점 대참사'를 가장 먼저 보도하고 피해자 가족 편에서 방송했으며 생존자 구조에도 앞장섰다.

새내기 YTN은 이 같은 보도태도로 시청자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격려를 받았다. '삼풍사고'를 YTN이 인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케이블 TV 전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케이블TV 시청가입 가구가 느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컸다.

“삼풍 백화점 반쪽이 없어졌어요”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 직전 YTN 보도국 사회부에 긴급한 전화벨이 울렸다. “저 사회부 이상순 기잔데요. 삼풍백화점 건물의 반이 없어졌어요.”

이 기자의 전화로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뉴스는 제일 먼저 YTN 전파를 타게 됐다. 이 기자는 삼풍백화점 근처 서울지방법원 법원장실에서 판결문을 체크하다 복도에서 웅성대는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 기자는 급히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법원직원들이 몰려 있는 복도 끝 창가로 달려갔다.

이 기자는 밖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상시 잘 보이던 삼풍백화점 건물 가운데 반쪽이 안 보였기 때문이다. ‘큰 사고’라고 직감한 이 기자는 즉시 법원사무실로 달려가 이 사실을 사회부 데스크에 보고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보는 곧 간단한 한 줄짜리 기사와 자막으로 작성돼 전화보고 5분여 뒤인 오후 6시 3분 정규 뉴스 진행 도중에 방송됐다. ‘삼풍사고’ 특종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 기자의 기지와 직감력이 돋보이는 대특종이었다. KBS는 6시 10분에 그 뒤를 이었고 SBS와 MBC가 1보 자막을 띄웠다.

오후 6시 4분 목격자인 삼호가든 아파트 10층에 사는 이현숙 씨의 전화인터뷰가 YTN을 통해 처음 방송됐다. 목격자 이 씨는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 있던 백화점 건물이 반쯤 무너지면서 연기가 자욱하다. 평소에는 백화점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사법연수원 건물이 보인다”고 전화인터뷰에서 말했다. 곧 이어 목격자 박경규 씨의 전화인터뷰가 이어졌다. 목격자들은 거대한 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백화점 건물 반쪽이 무너져 내린 사고 당시 상황과 참사현장을 생생히 전달했다. 1보 처리에 이어 목격자 인터뷰도 YTN이 타 방송사를 압도했다.

생생한 현장화면 39시간 생중계

속보성에서 지상파를 앞지른 YTN은 즉시 정규 뉴스 편성을 깨고 특보체제로 전환했다. SNG 2대와 중계차 4대를 긴급히 현장에 출동시켰다. 오후 6시 40분부터는 생생한 현장화면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사회부기자 30여 명, 타부서 기자 20명 등 취재기자만 50여 명이 투입되고 기술진도 50여 명 동원됐다. 100여 명의 특별취재팀은 구조상황과 지휘본부의 움직임, 현장 분위기, 병원 소식을 현장중계차를 통해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사고발생 19시간이 지난 6월 30일 오후 1시부터 지상파방송이 모두 정규방송 체제로 돌아갔다. 하지만 YTN은 계속 특보체제를 유지했다. YTN은 지상파가 정규방송으로 돌아간 뒤에도 20시간이나 더 현장중계 중심의 특보체제를 계속 했다. 장장 39시간 특보방송을 한 것이다.

매몰현장 신음 녹음… 한 생명 살려내

아직 300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대책본부는 생존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구조대를 철수시켰다. 하지만 YTN은 생존자를 살려내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현장 생중계를 계속했다. 지상파가 정규방송으로 돌아간 그때 YTN 카메라에 또 다른 특종이 포착됐다.

6월 30일 오후 1시 지하 3층 매장 매몰현장에서 한 생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신음소리를 카메라 화면에 담은 사람은 영상취재부 차규남 기자였다. 생존자의 음성은 YTN 전파를 탔다. 곧 구조대가 투입되고 한 고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조활동이 벌어졌다. 대원외국어고 홍성태 교사(당시 40세)는 사고 발생 27시간 만에 YTN에 의해 드디어 새 생명을 얻었다.

기자협회는 1995년 7월 15일 발행한 협회보 특집기사 「‘삼풍참사’ 서 빛난 재난보도 일꾼들」에 YTN 차규남 영상취재부 기자의 헌신적인 취재활동 사례를 인터뷰해 실었다. (다음은 인터뷰기사 내용)

“물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홍성태입니다. 살려주세요.”

차규남 기자 (YTN 영상취재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단독취재 보도한 (이 육성은) 삼풍백화점 B동 지하3층 붕괴현장에 매몰된 대원외국어고 영어교사 홍성태 씨의 삶을 향한 외침이다.

차 기자는 당시 붕괴 위험이 있다며 구조대원까지 철수한 지하현장에서 “15m의 콘크리트더미 사이로 포클레인 소리와 함께 희미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며 “오디오맨 이규환 씨와 함께 한 사람이 온전하게 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틈새를 머리 무릎 팔목이 까지면서 들어갔다”고 그때 상황을 회상한다. 하지만 12m를 “누구 없어요”라고 외치며 들어갔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잘못 들어왔다는 생각에 통로로 나가려는 순간 홍 씨의 살려 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 왔다고.

홍 씨의 경우는 “콘크리트 기둥이 통로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



‘삼풍’ 생명의 인연 : 「삼풍」 지하 3층 매물 현장의 생존자 신음소리를 녹음 방송하여 한 생명을 구한 YTN 차규남 기자(오른쪽)와 구조된 홍성태 교사(대원의 국어교사), 구조 후 홍 교사가 입원한 병실에서 만났다

장의 상관을 지탱하고 있어 119 구조대도 구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며 “보도를 한다면 구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고 생존 음성을 녹취하기까지 통로에서의 짧은 순간을 되새긴다.

“구조되는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좁은 통로 앞에서 기다리다 카메라를 안고 2시간 정도 눈을 붙이기도 했다”는 그는 현장투입 27시간 만에 구조대원이 건네준 방진마스크를 처음 쓸 수 있었다. “완쾌되면 홍씨와 소주나 한잔하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한다.

“안전을 위한 헬멧이나 방진마스크도 없이 취재한 ‘생존’ 뉴스를 내보내고 구조가 되는 시간까지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는 차 기자는 “홍 씨가 구조되는 순간 눈을 껌벅이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고.

“특종을 해야 한다거나 취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떠나 한 사람의 생존뉴스를 내보냄으로써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차 기자는 처음 현장에 도착해 지하로 내려갔을 때 천장과 벽 등에 널린 시신들을 보면서 구토를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메스꺼운 석면 타는 냄새와 유리 가루에 의한 피부 가려움은 느끼지 못했다. 당시는 “시체가 널려 있는 지옥 같은 장면을 보니 긴장이 돼서 감각을 잃은 것 같다”고.

“모두의 문제지만 헬멧, 안전화, 카메라 보호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 지원이 부족했다”며 “현장이 정리된 지금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밝힌 그는 황성규 영상취재부장을 비롯한 부서의 팀워크가 이번 취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눈요기 자원봉사나 지원대책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언론도 눈요기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지막 말과 함께 ENG카메라를 들고 삼풍 현장으로 달려갔다.(한국기자협회보 7월 15일, 이천수 기자)

실종자 가족들 “YTN 보게 해달라”

홍 씨의 구조사실이 보도된 직후 PC통신 하이텔에 홍 씨의 구조과정과 보도내용을 알리는 메시지가 등장해 수천 명이 열람했고 이후 실종자를 찾아 달라는 가족들의 전화가 보도국으로 빗발쳤다. 7월 1일에는 환경미화원 24명의 구출과정을 9시간에 걸쳐 생중계해 실종자 가족은 물론,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7월 11일 오후 1시 50분쯤 YTN은 사고 발생 286시간 만에 기적처럼 구조된 유지환양의 생환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

YTN은 또한 방송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사상자 수와 신원을 파악·보도해 뉴스채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YTN의 진가는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서울 교대 체육관에서도 드러났다. 당초 서울교대에는 케이블 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3일 후인 7월 2일 실종자 가족들이 YTN 시청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관할 서초케이블TV가 주변 전봇대에서 케이블을 빼내 TV 10대를 임시로 가설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후 이곳에서 24시간 방송되는 YTN을 보며 실종자 구조소식과 사체발굴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 10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최명석 군의 어머니 전인자 씨가 아들의 생존소식을 알게 된 곳도 교대 체육관에서였다. 전 씨는 아들의 구조 후 인터뷰에서 “YTN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YTN은 특보체제 기간동안 광고방송을 중단하고 생방송에만 전념해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격려와 찬사를 받았다. 아쉬운 점은 아직 케이블TV를 정상적으로 보는 가입자가 20여만 가구에 불과해 많은 사람이 생생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고광남

- ▲ 1954년 생
- ▲ 서울대 철학과 졸
- ▲ KBS 기자(1979) 뉴스파노라마 정치부 뉴스편집부

- ▲ YTN 편성운영부장(1994) 정치부장(1997) 보도국장(2001) 이사대우 보도국장(2002) 타워사업국장 전략기획국장(2004)
- ▲ YTN 상무이사(2005~)

삼풍사고 관련 주요 일간지 보도 내용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보도로 YTN은 신문매체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한겨레 신문 7월 6일]

『삼풍참사 1보 특종, 매일 생중계』

신생매체인 YTN이 삼풍백화점 참사보도를 계기로 뉴스전문 채널로서 자리를 확실히 잡아가고 있다.

YTN은 사고 발생 8분 만인 지난 29일 오후 6시 3분께 제1보와 함께 시민의 제 보증언을 특종보도한 것을 비롯해 하루 평균 12시간씩 붕괴현장을 생중계함으로써 공중파와는 다르게 매체 차별성을 뚜렷하게 발휘하고 있다.

[조선일보 7월 7일]

『YTN, 삼풍보도 탁월- 케이블TV 저력발휘』

YTN은 사고발생 8분 만인 29일 저녁 6시 3분쯤 제1보와 함께 목격자의 증언을 방송했다. 이를 시작으로 4일 정오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보도함으로써 YTN은 케이블TV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중앙일보 7월 11일]

『‘삼풍’ 붕괴보도 분초 다툰 전쟁』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 대한 TV방송사의 취재, 보도경쟁은 구조활동만큼이나 분초를 다투는 치열한 ‘전쟁’ 이었다. 사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곳은 케이블TV 뉴스채널인 YTN. 오후 정규뉴스를 시작한 YTN은 방송시작 3분 만에 앵커의 멘트로 사고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 7월 13일]

『YTN 24시간 생생한 현장중계 “인기”』

지난 3월 개국된 뉴스 케이블방송인 연합TV뉴스(YTN)가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24시간 뉴스채널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서울교대 체육관에 설치한 점보트론 1대와 대형TV 13대로 YTN을 온종일 시청하며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인터뷰

이상순 기자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보를 가장 빨리 회사에 알렸는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여서 매주 한 번씩 법원 장실에 들러 판결문을 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사고가 난 때는 법원출입기

한 채는 없어지고 한 채만 보였습니다. 보통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회부에 전화했지요. 삼풍백화점 건물 중 한 채가 날아갔다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물 한쪽이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폭발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붕괴될

'삼풍 붕괴' 제1보를 회사에 제일 빨리 보고했는데 건물 두채 중 하나 없어져 "폭발사고로 추정" 보고

자들이 판결문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전후였던 것 같은데요. 판결문을 볼 때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도 무너지는 소리나 폭발음은 듣지 못했어요. 밖이 소란스럽더니 누

군가가 들어와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판결문을 보던 기자 서너 명이 급히 법원장실을 나와 복도 끝 창문으로 달려갔지요. 창문에서 보니 삼풍백화점이 원래 큰 건물 2개였는데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서 폭발사고로 추정된다고 1보를 보고했습니다. 입사한지 두 달이 채 안 되는 때였고 경험도 없어서 그 즉시 생방송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현장을 취재했는데

차규남 전 영상취재부 기자

주실까요?

▲ 사고 다음날이었습니다

'삼풍' 참사 때 취재하면서 매몰된 사람 구했는데 사람소리 들려 잔해제거 작업 중단시키고 구조해내

그때 상황은?
▲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폭격 맞은 듯 삼풍백화점 절반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옆쪽에 사람들이 살려달라며 신음하고 있었고 수시로 사람들, 여직원

들이 무너진 백화점에서 뛰어나오는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취재하면서 매몰된 사람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설명해

다. 지하에서 구조작업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갔죠. 구조대원들이 굴 안에서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장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잔해 제거작업 하는데 위험하니까 기자들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생존자 육성 녹취를 하고 생존자

가 있다는 소식을 YTN 뉴스에 내보내고, 구조대원들과 서울시청 관계자 뿐 아니라 모든 시청자에게 아직 사람이 이 안에 있는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여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그 사람을 구조하는 작업까지도 취재를 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현 iTV 기자)

- '삼풍' 사고가 났을 때 YTN이 1보를 특종보도하고 현장 생방송위주로 오랫동안 방송하여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시청자들로부터도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시경 출입 기자로 현장을 지휘했는데

문중선 '삼풍' 때 경찰팀장



이라도 있습니까?
▲ 특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남들이 밝히기 싫어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취재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취재원들이 도와줬고 선후배 동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다

**'삼풍' 붕괴사고 때 어떤 점에 취재 역점 두었는지
유족에 도움되는 소식 가장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어떤 점에 역점을 뒀 취재에 임했습니까?

▲ '삼풍' 사고 때 YTN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사고 관련 소식을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 사고·구조 관련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애태우던 유가족들에게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또 가장 많은 양을 전달하여 가장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유가족들이 모여 있던 서울교대 체육관에 YTN 방송이 나오지 않자 YTN 방송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정부에서 긴급 케이블을 깔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면 유가족들이나 구조원들이 YTN기자를 제일 먼저 찾을 정도였지요.

- 취재 일선에서 특종을 많이 했는데 특종 비결

같이 '협업' 하여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한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팩트가 있을 때 그런 다양한 팩트들을 적절하게 배합해 시대 흐름에 맞고 진실에 부합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 좋은 기사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 기동취재부장)

[조선일보 7월 16일]

『YTN 삼풍보도 “뭔가 보여줬다”』

케이블TV 24시간뉴스 채널 YTN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보도를 통해 ‘한국의 CNN’이라는 별칭을 확고히 하는 등 뉴스전문 채널로서의 성가를 높이고 있다. AFP 등 각국 주요 통신사들과 미국의 CNN ABC CBS APTV, 영국의 BBC ITN 로이터TV, 중국의 CCTV, 일본의 TBS 등도 YTN으로부터 뉴스화면을 제공받았다.

케이블TV 우수 프로그램 대상 수상

한국케이블TV협회는 1995년 12월 11일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케이블TV 우수 프로그램 시상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케이블TV 원년 우수 프로그램 대상’을 ‘YTN’에 수여했다. 협회는 ‘YTN이 뉴스전문 채널로서 전문성을 돋보이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공중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한 점’을 선정이유로 밝혔다.

시상식에서 현소환 YTN사장은 “24시간 보도방송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이었지만 대형 사고를 생생히 보도하는 것을 보며 국내외 언론들이 감탄했다”며 “한국의 CNN으로 그 성과를 착실히 쌓아 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삼풍’ 취재팀 대한언론상 수상

1995년 12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이해복)는 송년의 밤 행사에서 「YTN 삼풍 특별취재팀」에 대해 제6회 대한언론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 이 회장은 “YTN 특별취재팀은 지난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참사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는 물론, 인명 구조에도 큰 도움을 줬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뉴스방송이라는 새 분야를 개척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삼풍사고가 발생한 이후 특별취재팀은 언론사 가운데 첫 현장 방송을 하는 신속함을 보였고 땅 속 깊이 무인 특수 카메라를 투입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구조활동을 돕는 한편, 콘크리트 더미에 묻힌 생존자의 가냘픈 신음소리를 녹음해 소중한 인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취재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특별취재팀을 대표해 수상한 보도국 사회부 문중선 기자는 “개국하기 전부터

인터뷰

현소환 초대 사장



통신사에서 TV 뉴스채널 운영할 생각은 어떻게 24시간 방송과 통신보도는 성격이 같기 때문에

- 1995년대 초반 당시 연합통신 사장으로 YTN을 구상하신 결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케이블TV 뉴스 전문 채널을 운영한다는 발상은 쉽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통신매체는 세계적으로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방송과 융합체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적자를 면할 뿐만 아니라 방송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 뉴미디어 정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24시간 마감 없는 뉴스보도 체제인 통신사와 24시간 뉴스 방송은 그 성격상 일치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성공하는 언론 매체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뛰어들게 됐습니다.

- 초기 자본금 300억 원이 너무 적어 경영압박이 빨리 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공부에 제출한 계획서에도 있지만 맨 처음에는 150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는데 몇 달 안가 100% 증자해 300억 원, 또 몇 달 후 100% 증자해 600억 원으로 출발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등이 YTN의 준비과정을 보니까 미국의 CNN처럼 앞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YTN 사장에 그 전해 12월 개각으로 물러난 인사를 앉히기로 결정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했지요. 내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니까 관계당국을 시켜 증자를 못하게 방해했지요. 그래서 증자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 왜 YTN 대주주를 포기하셨는지요?

▲YTN 설립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YTN 대주주를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증자계획을 갖고 있었고 사원들을 설득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철 씨의 입김에 따른 정부의 견제로 대주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 초창기 기획단에서는 1인 취재 시스템을 구상하신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개국 전에 지상파 취재 시스템으로 바꿨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획단에서 만든 1인 취재시스템은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경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집행하려 하니 세계 어디에서도 실현한 나라가 없고, 나아가서 통신기자를 방송기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비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에

서 스카우트한 인력조차 24시간 방송을 해본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1인취재에 익숙하지 않아 이걸 맡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1등 방송을 만드느냐 3등, 5등 방송으로 출발하느냐의 문제였는데 결국 YTN은 1등 방송을 지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면 익숙한 지상파 시스템으로 가야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1인 취재시스템이라는 이상향을 쫓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 YTN 초대 사장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방송전문인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연합통신 기자들을 훈련시켜서 1인 취재·보도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닥쳐 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처음인 24시간 뉴스방송을 창설한다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저와 함께 공유하는 방송 전문인을 스카우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연합통신 사우들이 2년에 걸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본금을 마련하려 희생했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았습다. 또 전채로 때문에 YTN과 연합통신 사이의 알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현 IPI 본부이사)

지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피땀을 흘리며 사건 사고 현장을 밤낮없이 뛰어다닌 취재팀 전원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문 기자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고 정확한 최고의 뉴스방송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3. 최초로 국회 대정부 질문 생중계

YTN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답변을 언론사상 최초로 생중계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1995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린 임시국회서였다. 기존의 국회 보도관행을 YTN이 과감히 깬 것이다. 지금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들은 편성시간 제약 때문에 뉴스시간에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의답변을 일부만 편집해 보도해 왔다.

YTN은 8일 '정치' 10일 '통일 외교안보' 11일 '경제' 12일 '사회문화' 분야에 걸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매일 5시간 가까이 생방송했다. 국회 본회의 방송 공개는 국회의장의 재가를 얻어야 가능한 사안이다. YTN은 7월 6일 황낙주 국회의장의 사전 재가를 받아냈다.

YTN의 국회 대정부질의 생중계에 대해 시청자들은 '신선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제는 안방에서 국정감사가 가능해졌다"며 반가워했다. YTN이 처음으로 생중제한 당시 임시국회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북한 쌀 제공문제를 의제로 다루며 더욱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YTN의 국회 생중계는 '뉴스의 생명력은 현장'이라는 YTN 뉴스관점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곽중철

- ▲ 1953년 생
- ▲ 한국외대 영어학과 졸,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석사
- ▲ 올림픽 조직위원회과장 대

통령비서실 비서관 유선방송위 관리국장
 ▲ YTN 월드뉴스부차장(1995) 국제부장(1997) 퇴사(1999)
 ▲ 한국외대 교수

제3장 IMF속에서 증자 안돼 큰 어려움

제1절 : 적자 누적... 대주주 바뀐다

1. 방송장비 구입비도 안되는 자본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 ‘꿈의 미디어’ ‘뉴미디어 혁명’ ‘산업적 효과 5년 내 7조 원.’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후의 관련기사 제목이다. 현소환 초대 YTN 사장은 ‘YTN이 5년 내 흑자’를 낼 것으로 확신했다.

장밋빛 전망에 따라 연합통신(현재의 연합뉴스)이 초기 자본금 150억 원의 주주를 모으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 방송을 모델로 한 ‘원 맨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연합통신의 초기 구상이 공중파와 같은 취재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장비와 인력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자본금이 더 필요했다. 1994년 3월 26일 제1기 주주총회에서 150억 원이던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늘렸다. 이 자본금으로도 종합뉴스채널을 운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방송장비 구입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였다. 1994년 예산안을 보면 방송장비 구입에 285억 원이 책정됐다. 계약된 장비리스만 1995년 8월 31일 현재 247억1100만 원이었다. 방송장비 구입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반증이다.

유료시청가구 적어 광고·수신료 등 수입 ‘미미’

PP(채널사용사업자)의 주 수입원은 광고와 시청료. 출범 전 기대나 예상과는 달리 시청가구는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된 요인은 컨버터 등 국산 핵심장비의 생산과 공급 차질, 전송망 미비, 가입실적 부진과 프로그램 투자 지연 등이었다. 1995년 3월 케이블 출범 당시 시청가구는 9만7463가구였고 컨버터가 설치된 가구는 2만1045가구였다. 수신료는 기본채널의 경우 1만5000원으로, 이 중 52.5%는 SO에, 32.5%는 PP, 15%는 NO에 배분됐다. YTN의 경우 한 가구당 324원을 받았다. 이나마 시청가구가 적어 수입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총 시청가구는 1995년 12월 말 55만6305가구, 1996년 12월 말 153만6180가

구, 1997년 12월 말 252만9782가구로 늘었다가 IMF 때인 1998년 12월 말 100만2866가구로 크게 줄었다. 그나마 수입으로 이어지는 유료가구는 1995년 말 20만6886가구, 1996년 말 50만2874가구, 1997년 말 82만5075가구, 1998년 말 82만9403가구에 불과했다.

유료시청 가구가 적으니 YTN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 수입과 수신료 수입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수신료 수입은 1995년 3억500만 원이었다. 1996년 11억5200만 원, 1997년 20억6200만 원, 1998년 24억7700만 원이었다.

연도별 유료시청가구, YTN 시청료 수입

연도	유료시청 가구	YTN 시청료수입(천원)
1995년 말	206,886	305,000
1996년 말	502,874	1,152,000
1997년 말	825,075	2,062,000
1998년 말	829,403	2,477,000

광고수입의 경우 1995년 3월 1억8600만 원, 12월 16억6200만 원, 연간(3~12월) 102억9000만 원이었다. 1996년 222억8200만 원, 1997년 175억8300만 원, 1998년 121억800만 원이었다.

1995년 결산을 보면 총매출 120억6100만 원에 당기순손실은 234억13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YTN의 당기순손실은 1996년 290억5600만 원, 1997년 460억6900만 원, 1998년 383억1100만 원이었다. 공익채널을 제외한 26개 PP업계 전체 당기순손실은 1995년 1790억 원, 1996년 2401억 원, 1997년 2372억 원 등 3년간 총 6563억 원으로 집계됐다.

3년간 케이블TV 업계 전체 누적적자는 1조2000억 원이었다. 특히 위성 발사와 방송기자재 구입, 방송장비 리스, 프로그램 수입을 위해 모두 1조3281억 원의 외화가 들어가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 개국 넉달만에 은행차입금 의존

1995년 6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주목되는 '2개 안건'이 의결된다. 첫째는 운영자금 장기차입 건으로 회사의 운영자금 150억 원을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사장 개인 보증만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좌 월 한도를 50억 원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차빌딩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을 리스로 충당하는 안건이다.

운영자금의 은행차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본금 300억 원으로 출범한 YTN 호는 방송 개시 4개월 만에 운영자금을 은행차입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방송장비의 절반 이상을 리스로 들여오고도 개국 4개월 만에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게 됐으니 자본금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YTN의 주거래 은행은 상업은행(우리은행 전신)이었다. YTN 주식 10%를 소유한 주주이기도 했다. 1995년 6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최초로 단기차입금 150억 원이 상업은행으로부터 들어왔다. 누적 단기차입금은 1996년 400억 원, 1997년 705억 원, 1998년 850억 원에 달했다. 은행차입금과 리스는 이자라는 추가적 금융비용을 발생시킨다. 리스의 경우 장비리스는 1994년 12월부터 1995년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47억 원이 들어왔으며, 그 이후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 실행리스는 1998년 11월 현재 364억5100만 원이나 됐다. 장비리스 외에도 주차설비 리스로 8억6100만 원이 발생했다.

1997년 기채와 장비리스 등 금융비용이 월 평균 18억 원으로 월 지출 50억 원의 36%에 달했다. 이자와 리스 등 금융비용이 많을 때는 최고 월 22억 원으로 한 달 총 운영자금의 53%를 차지할 때도 있었다. 수입은 월 13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1998년에는 이자비용만 127억6300만 원이 지출됐다.

누적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누적적자는 1995년 234억1300만 원, 1996년 511억600만 원, 1997년 971억7500만 원, 1998년 1354억8700만 원이었다.

3. 증자 실현위해 연합통신과 분리

YTN은 연합통신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대주주도 연합통신이었다. 자본금 13억 원인 연합통신은 대주주 지분 30%인 출자금 90억 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YTN이 개국한 지 넉 달 만에 자본금 300억 원이 동났지만 연합통신은 YTN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증자할 의지도 없었다. 출범 당시 YTN의 사장은 연합통신 사장이 겸임했고 전무도 겸임이었다. 따라서 양사 간의 현안에 대한 결정은 이들 임원진에 의해 이뤄지고 이런 결정구도는 YTN에 지극히 불리했다. 임원진은 물론 비서실의 직원 급여도 YTN이 절반을 부담했다.

연합통신 기사의 전재료는 거의 SBS 수준이었다. 개국 당시 월 1억 원이었다가 1997년 4월부터는 1억5000만 원으로 인상됐다(1997년 당시 SBS의 경우 1억7200만 원, MBC의 경우 지사포함 2억5000만 원). 연합통신은 YTN의 광고 영

업을 대행하면서 광고매출액의 10%를 가져갔다.

광고와 수신료 수입이 미미했던 YTN이 당시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었다. 비용 절감과 증자.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는 경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았다. 종합뉴스, 24시간 뉴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했다. 운영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는 1997년 월 평균 18억 원이었다(정규직 497명 계약직 69명). 월 평균 금융비용이 이와 똑같은 18억 원(이자 6억 원, 장비 리스로 12억 원)이었다.

공기업 주주영입작업 본격 추진

고금리 시대인 당시 금융비용을 줄이고 더 이상 은행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자를 실시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 시기 연합통신도 저조한 수입구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히려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증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인 연합통신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1996년 2월 전년도 수입과 지출을 잠정 점검한 결과 23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결산 결과 234억 원)이 예상돼 연합통신과의 '분리 작업'이 착수됐다. YTN의 경우 공익적 성격의 뉴스전문 채널이라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 등의 참여가 법적으로 봉쇄돼 있어 자금 유체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 때문에 새로운 대주주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 중에서 물색하게 되었다. 또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통신이 대주주였기 때문에 '연합에서의 분리'는 당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당국에 YTN의 경영실상, 연합통신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연합통신과의 분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국은 '연합통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분리 불가' 입장을 한동안 계속했다.

“재정이 어려운 연합통신에 2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자”는 YTN의 제안을 당국이 받아들임으로써 '분리작업'이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1996년 6월 초순이었다. 공기업 주주 영입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4. 정주년 사장 취임 ... 연통과 4대 계약 해지

주주 영입과 병행해 대표이사 교체작업도 진행됐다. 1996년 8월 26일 이사회에서 제2대 사장으로 정주년 전 국제교류협력단 총재가 내정됐다. 정 사장은 9



기정훈

▲ 1966년 생
▲ 고려대 영어
교육과 졸업

▲ 안동 MBC
PD(1993)

▲ YTN 기동취
재부(1995) 경

제부 정보과학부 기획조정실(1999) 경
제2부(2000) 편집팀(2004)

▲ YTN DMB 데이터서비스팀장(차장
대우.2005~)

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됐다. YTN과 연합통신의 사장이 분리된 것이다. 정 사장은 취임사에서 상호 신뢰와 프로페셔널리즘에 의한 열정과 끈질긴 노력을 강조했다.

정 사장 취임 후 첫 번째 과업이 연합통신과의 관계 재정립이었다. 연합통신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이사회가 10월 28일 열렸다. 연합통신과 YTN 사이에 체결된 기본관리약정, 광고영업 대행계약, 뉴스제공 및 방송계약, 인사교류협약 등 4대 계약 해지 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부실 경영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차입금에도 이사회가 열리면 안전에 찬성만 하던 이사들은 처음으로 4대 계약의 불공정을 규탄하는 등 장시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 이사는 “양사가 합의해서 처리했다 하더라도 대주주인 연합통신에서 지나친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의 얘기는 잊혀 두고 건전한 방법으로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타사의 전재료는 어떠했으며 인건비 지출문제도 어떠한지 비교해 봐야 하고 또 파견자의 인건비 지출도 최대한 줄여야겠습니다. 연합통신 사장을 겸직하는 사장이 아무리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했다 하더라도 연합통신 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로 협조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이사는 “4개 계약에 따른 비용발생은 현재 광고계약이 연간 60억, 전재료가 12억, 파견자 인건비가 90억, 건물 임대료가 40억 등 지금까지 모두 210억 원을 차지하는데, 광고를 갑자기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면서 4개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 또 다른 이사는 “4개 계약이 공정한 룰이 아니었으므로 해약하고 수정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합통신 사장인 현소환 이사는 “어떤 분은 불공정 계약이었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타사와 비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고 대행료는 제 나름대로 공정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전재료 인건비 등도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는 것이니까 결코 불공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분리되면서 양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지 결의는 안 된다고 봅니다”며 계약해지를 반대했다. 그러나 다른 이사들은 한결같이 계약해지가 오늘 결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의장인 정 사장은 ‘1996년 9월 12일자로 YTN의 새로운 임원진이 선임됨에 따라 연합통신사와 YTN 간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4개 계약을 해지하고 양사 간에 구체적인 조정분야는 양사 사장이 합의하되 YTN의 경영합리화를 기하



정주년 2대 사장

는 방향으로 최단 시일 내에 양보의 미덕과 협조의 정신으로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한다' 는 내용을 표결에 부쳤다. 현 이사만 기권하고 나머지 6명의 이사가 찬성했다.

4개 계약 해지 건이 이사회를 통과한 후 연합통신과 YTN 경영진 간의 협의에 의해 1996년 11월 15일 연합통신에서 YTN에 파견돼 있던 59명의 직원 가운데 42명이 YTN에 남고 17명은 연합통신으로 복귀했다. 광고영업 대행은 1997년 3월 31일까지 연합통신에서 계속한 뒤 4월 1일부터 YTN이 광고영업을 직접 하되 이때부터 전채료를 월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YTN은 1997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전채료 인하와 밀린 전채료 탕감을 요구했으나 연합통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영업을 직접 하게 됨에 따라 1997년 4월 16일 이사회에서 기구 개편안을 통과시킨다. 예산절감을 위해 2국 17부 26개 팀을 2국 1실 15부 15개 팀으로 줄이고 신설된 기획조정실에 광고부와 기획부(중전 총무부)를 두었다. 기동취재부 방송전산부 기술관리부를 폐지 또는 팀으로 격하시켰다.

5. 한전KDN 연합통신 지분 인수

사장은 분리됐지만 YTN의 대주주는 연합통신이었다. 운영자금을 계속해서 은행에서 차입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운영자금을 증자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대주주 변경 영입이 시급해졌다. 이미 1996년 6월 한국전력이 연합통신 대신 YTN의 대주주로 잠정 결정돼 있었지만 대주주 변경이 지연되고 있었다. 한전이 연합통신 소유 YTN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1997년 9월 2일 연합통신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 KDN(정보네트워크)이 YTN 주식 30% 양도·양수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IMF 체제가 시작된 직후인 1997년 12월 2일 한전 KDN이 연합통신 지분 30%를 정식 인수했다. 인수금은 230억 원이었다.

한전 KDN이 대주주가 된 후 처음으로 12월 8일 열린 이사회는 신주 100만 주(100억 원) 발행을 의결했으나 12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전 KDN의 1997년 예산상 주금납입이 불가능해 이를 취소하고 주금납입일을 1998년 2월 9일로 하는 신주 100만 주 발행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합통신 출신 오근영 이사(전무, 12월 1일자 사임) 연합통신 사장인 김영일 이사(12월 8일자 사임) 대신 한국전력 이봉래 기획조정실장과 한전 KDN의 최대용 사장이 새 이사로 선임됐다. 12월 8일에는 한전 직원 5명이 실사팀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고 12월 15일에는 비상경영대책위원회(YTN 한전 각 5명)와 비상대책실무위원회(YTN 7명 한전 5명)가 구성됐다.

제2절 : 월급 안 나오고 세금도 못 내다

1. 주거래 은행 자금지원 중단

IMF 체제의 도래는 YTN에 혹독한 시련을 가져왔다. 그 전까지는 은행차입이 어렵긴 했지만 월급은 근근이 지급됐다. 1997년 12월이 되자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은 더 이상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당장 12월 월급이 문제였다. 사내 간부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고위당국자에게 부탁해 은행차입금으로 겨우 급여를 조달했다. 은행차입금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창사 이후 이때까지 리스를 포함한 은행 빚은 모두 705억 원이었다.

1998년 1월에 지급되는 1997년 분 연·월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2월부터는 월급 지급이 중단됐다. 이후 1998년 7월까지 6개월 간 월급이 지급되지 못했다. 취재비 등의 지출도 중단됐고 소모품도 지급되지 않았다. 연합통신의 전재료 임대료, 심지어 부가가치세 등 세금까지 못 내는 상황이 도래했다.

교통비가 없어 출근을 못하거나 겨우 분가했다가 다시 부모 밑으로 들어간 직원, 퇴근 후 가전제품 배달에 나서거나 아파트 중도금을 내지 못해 해약하는 동료가 생겨났다. 무급을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직원까지 속출했다.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던 1998년에 회사를 그만둔 사우만 88명(전체 인원의 16%)이나 됐다.

1998년 6월 10일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정주년 대표 이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이어 대표이사의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6월 10일 영상편집요원 21명이 철수했다. 용역회사가 운전기사 60명과 차량 39대를 6월 30일까지 철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MBC미술센터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했다. 또 국민연금 미납으로 채권압류가 통보됐다.

비상 방송체제… 프로 폐지·시간 단축

1998년 3월 19일 노사협의회는 모든 사원 1개월 의무 무급휴직 실시, 지역 SNG 사용 포기, 연·월차수당 반납 등에 합의했다, 무급휴직은 4월 31명 5월 42명 6월 44명 7월 49명 8월 57명으로 합의됐다. 무급휴직제 실시에 따라 아침 뉴스인 「뉴스출발」을 한 시간으로 단축하고 「정치광장」 「토픽월드」 「월드뉴스매거진」을 폐지했다. 7월 13일부터는 비상방송 체제에 들어갔다. 7월 무급휴직 신청자가 노사협의회 합의보다 훨씬 많은 95명으로 늘어나 정상 방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뉴스메모」 「YTN 스페셜 통일로」 「YTN 씨네24」 등 3개 프로그램을 없애는 대신 재방송을 늘리기로 했다. 또 「YTN 스페셜 경제생활」과 오후 5시 8시 10시의 「프라임 뉴스」를 5분씩 각각 줄였다.

무급휴가자가 갈수록 늘어난 것은 출퇴근 교통비 부담에다 특히 기자들의 경우 취재활동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 (1998…YTN…「우리들의 자화상」에서 발췌)

박봉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고생하던 우리 (6월 9일)

든든한 기둥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조차 쳐다보기가 민망해 무력감만 들고 말았으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부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닥친 비상방송 사태에 또 한번 우리는 참담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계속되는 고통만이… 한 부서원의 차원을 떠나, 생생한 뉴스의 밑그림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앞날에 영광은 아니더라도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절한 눈물을 꼭 각인하시기를… 남은 자의 아픔도 감싸 주는 그런 동료애를 발휘합니다.



김갑생

- ▲ 1937년 생
- ▲ 한국외대 서반아어과 졸업
- ▲ 동양통신 외신부장 연합통신 외신부 국장
- ▲ YTN 월드뉴

스부장(95)

▲ 퇴사(97)

출장은 알아서 자기 돈으로? (6월 19일)

이렇게 해서라도 방송을 해야 하나? 이제 YTN은 효율적인 조직이 돼 가는 것 같다. 출장비도 개인이 알아서 부담하게 됐으니 말이다. 오늘(6월 15일) '정주영 씨의 소떼 복숭' 증계 출장에서 회사 측은 단 한 푼의 출장비도 주지 않았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들은 지금껏 묵묵히 일해 오고

있다.

아직도 월급 안나오나? (8월 17일)

“별일 없냐?”

“없어요.”

얼굴엔 개기름이 흐르고 목뒤에선 신내가 푹푹 풍긴 채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을 들어서면서 묻고 대답하는 말,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이 같은 문답이 오가는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소말리아와 같은 굶주림은 아니지만 나도 그 같은 상황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말 백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여보, 쌀 떨어졌는데요.” “그전에는 바람 쐬러 자주 가더니 요즘은 왜 안가? 아빠 가자. 응!”

어제 아예 식구들을 처가로 보냈다. 불편하지만 당분간 쌀값과 애들 간식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귀가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아직도 월급 안 나오냐? 그런 회사 뒷 하러 다니냐, 때려 쳐라.”

“○○식구 산부인과 개원했는데 사무장 쓴다더라. 차라리 사무장이나 해라.”

생활비가 끊긴 지 2,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친구를 잘 사귀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받아 기본생활을 해 왔다. 이제는 식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지 10여만 원씩 주던 시해도 사라졌다.

따르릉….

“전화요금 3개월치 밀리면 통화정지됩니다.”

간신히 10여만 원을 장만해 위기를 탈출한다. 벌써 두 번째다.

YTN의 어려운 사정은 다른 매스컴에서도 취급된다.

사례1) “YTN 힘내세요” (7월 3일)

인기 방송인 이숙영 씨 진행으로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방송되는 SBS FM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이 방송에서 이 씨가 YTN 광고부의 한 사원이 연락해 온 교통정보를 소개하면서 “YTN 요즘 정말 어렵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풀려야 할 텐데…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YTN을 많이 봅니다. 매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아주 유익한 채널이라 생각해요. YTN 여러분 힘내세요.”

인터뷰

김환명 재정담당 사원



- 6개월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던 그때 자금담당으로서 많은 직원 가족들의 전화를 받기도 하고 월급을 달라는 하소연도 들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아기 우유 값이라도 제발 좀 달라,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눈물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시아버지는 애들 쌀값이라도 줘야 생활할 것 아니냐, 기본 생활 유지비는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전화도 했고요. 저도 새집 사러

월급 안 나올때 직원가족 하소연도 많았는데

“제발 아기 우유값이라도 달라”는 전화에 그만 눈물

고 청약 든 것 해약했지만 도저히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해약했다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혼자 가족을 책임질 수 없어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시댁하고 다시 합치는 분들도 있었고요. 정말 어려운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사나 가정이나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DMB나 신규사업을 할 때도 회사의 시드 머니를 갖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기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998년 월급이 안 나올 때 시경출입 기자로서 어려움이 많았지요?

▲ 그 당시 저와 같이 있던 경찰기자 후배가 14~15명 됐습니다. 시경 출입 기자로 발령 받고 나서 처음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왔는데 후배들 참 고생 많았어요. 아침 7시에 보고하려면 택시를 타진 무엇을 타진 간에 현장에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취재하고 나서 돌아와야 하는 데 취재하려면 이런저런 돈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후배들이 자기 돈 들여 취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6개월을 버텨지요.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런 어려움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더 정이 깊어졌고 지금도 만나

이동현 IMF 때 시경출입기자



월급 안 나온 6개월을 어떻게 ‘버텸습니까’

‘이때만 넘기면 보람차게 일할 수 있다’는 자세로

면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좋은, 돈독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경캡은 후배들 밥 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원도 하는 것이 관

례였는데 그러한 역할은 어떻게 했습니까?

▲ 그때는 후배들이 많이 이해해줘서 회식 비용과 회식 기회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선배들이 지원해 주셨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기간을 보낼 수 있었는지 알았나 생각합니다. 회사가 설립된 지 5년이 넘어가면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미래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 시기만 넘어서면 진짜 보람차게 기자로서 일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다 갖고 있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흐트러짐 없이 6개월을 버텸다고 생각합니다.

사례2)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7월 7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7월 6일자에 'South Korea Increase In Ranks of Unpaid Works'라는 제목으로 YTN 직원들의 무급사태에 대해 보도했다.

At Yonhap Television News, a 24-hour nationwide cable news station, none of the 450 staff members has received pay for five months. Yet employees have routinely gone to work every day, fearing that if they didn't, the company could fail or they could get fired. "We have no place else to go", said one reporter.

But sentiment among the station's work force appears to be changing. Last month, they formed their first-ever union, and demanded all of the employees' back pay. In March, the workers had agreed to accept a 30% wage cut and one month of unpaid leave a year. But even the reduced paychecks never came. The union recently asked a Seoul labor commission for help in moderating the dispute.

Lee ○○, a reporter and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union, said that he has been living off rental income from a small property he owns. But that money is running out, and he is finding it hard to pay his utility bills. The staff, he said, have been relying on their credit cards to get by. Some of the male employees have sent their wives and children to live with their parents, and about 100 employees have voluntarily left the company in recent months. Yoo ○○, a managing director at station's planning department, said the unlisted company has been trying since February to attract investors to raise funds to pay employees, but there have been no buyers.

"We don't have any money." Mr. Yoo said.

2. 노조 설립... 경영 정상화·지원 등 촉구

월급이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증자도 지연되자 사원들의 불만은 고조돼 갔다. '네 탓 내 탓', 사내 의견도 분분했다. 사원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나섰다. 노조설립 여부 찬반투표를 거쳐(투표자 73% 노조설립 찬성) 1998년 5월 12일 노



김관상

▲ 1952년 생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박사

▲ TBC 기자

(1978) KBS(1980) 사회부차장

▲ YTN 기동취재부장(1994) 사회부장
경제부장(1998) 뉴스총괄부장 보도국장(2003) 마케팅국장(2004)

▲ YTN 미디어국장(2005~)

전임사장들 : 남대문 신사옥 입주 기념식에
참석한 YTN 전임 사장들. 오른쪽부터 현소
환 초대 사장, 정주년 2대 사장, 백인호 4대
사장



동조합이 설립되고 초대위원장에 김호성 기자가 당선됐다.

노조는 6월 8일 한국전력을 방문해 YTN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항의했고 “YTN의 추락이 방송정책 잘못에 기인하는 바 큰만큼 정부는 조속히 긴급자금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 사측의 협상 불응 등을 이유로 7월 1일 쟁의발생 신고를 했으며 파업 여부 찬반투표를 거쳐 (93.55% 찬성) 1998년 7월 22일부터 단계적인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때는 YTN 문제가 1200억 원 증자로 가닥이 잡힌 뒤이고 7월 16일 이미 관련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증자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후임 사장 선임도 그해 7월 말 구체화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회사 회생의 운곽을 거의 파악한 7월 26일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자회사 한전 KDN이 YTN의 대주주가 된 후 YTN의 회생을 위해 600억 원을 증자키로 하고 우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 원 증자를 추진해 왔다. 1997년 12월 8일에 이어 12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100억 원 증자를 의결했지만 한전 이외의 주주들이 증자에 응하지 않아 주금납입일이 계속 연기됐다. 주금납입일은 1998년 2월 9일에서 3월 27일로, 이어 6월 30일로, 다시 9월 30일로 모두 6차례나 연기됐다.

YTN의 적자 규모가 너무 커 100억 원 증자에도 다른 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았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당국이 이 정도의 증자로는 YTN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당초 600억 원 증자계획은 제대로 시도되지도 못한 상태였다. 1998년 3월 16일 열린 이사회 회의록에 당시 YTN의 어려운 상황과 증자문제가 잘 드러나 있다.

〈1998년 3월 16일 이사회 발언 요약〉

이사회에서 한국전력 측은 YTN의 과도한 금융비용을 증자를 통해 줄여야 하지만 증자가 쉽지 않음을 토로한다.

“지급이자를 줄이는 방법은 증자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으나 생각하고, 증자해서 일부는 원금을 상환하고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쓰면서 넘겨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광고비를 늘리고 최소한도로 금년도에 작년 수준까지는 올리고 그 다음에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없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금년도에 손실을 340억 원 정도로 막고 내년도에 200억 원 정도로 막지 못해 더 커지기 시작한다면 도저히 붓물 터지듯이 터져서 감당을 못합니다. 바깥의 사정은 우리가 YTN을 살려야겠다는 의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주님들, 이사님들은 한전에서 살릴 방법은 없겠느냐 하시지만 정부규제라는 것이 국영기업체만큼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정부규제가 여기저기 막혀 있어서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길은 증자밖에 없습니다.”

또 외부의 악평을 언급하며 이해와 단결을 강조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0억 원이 증자되면 분명히 YTN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YTN에 대해 악평이 나 있는데 ‘YTN은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는 악평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한전도 찢쩍맨다더라’ 하는 악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자꾸 권유하고 있는데 양심상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30대 재벌을 묶어 놓아서 불가능한데 30대 재벌이 풀리면 그때에 총력전을 해서 YTN을 완전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자본금의 부족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초기 자본금이 원망스러운 것은 애당초 왜 한 1000억 원쯤 가지고 출발을 못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600억~700억 원만 가지고 했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류 프로그램을 만들려 했던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합니다. 어찌되었든 YTN을 국회의사당이고 모두 다 쳐 놓고 있으니 그것은 성공했는데 돈이 실패를 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증자밖에 없는데 IMF가 터져 도저히 뛰지를 못합니다.”

정주년 사장은 “어찌되었든 YTN에 대해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제가 강조하듯이 모두가 뺍니다. 우리 간부만이 아니고 부장 차장 또 일반기자들도 다 한몫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단결해 가지고 다시 한번 회사를 살려봅시다”라고 말하고 회의를 종료한다.

〈1998년 6월 29일 이사회 발언 요약〉

이대섭 상무는 “증자와 사장선임이 급선무입니다. YTN은 6월 말을 고비로 한계점에 와 있고 최악의 경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또 많은 사원들이 퇴직하고 있는데 퇴직금 등이 체불돼 한사람 한사람씩 법정투쟁하면 감당을 못하게 되고 사실상 법정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려면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한전도 YTN 회생을 위해 관계 요로와 협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종업원들이 월급 못 타는 것입니다. 증자는 여러 번 성사단계에서 여러 가지 돌출 변수 등장으로 불발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YTN의 구조조정 문제는 초기 어려운 과정에서도 임금 30% 삭감, 무급휴직 1개월 의무실시, 사람을 얼마를 줄이겠다는 등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도 400명 선으로 내려갔고 구조조정 문제는 거의 다 완료됐다고 생각하나 문제는 광고수입 증대와 증자입니다. 운영자금이 확보됐거나 100억 원이라도 증자가 됐으면 화의에 들어가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말이 YTN으로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YTN에서도 요로에 여러 가지 회생 안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자 등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의나 법정관리밖에 없습니다.”



김사모

▲ 1953년 생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졸,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 KBS(1979) 사회부 정치부

▲ YTN(1995) 동경특파원(1995) 사회부장(1999) 부국장대우 사업2부장(2000) 보도부국장 겸 데이터정보실장 제작국장(2004)
▲ YTN 국장대우 스크롤뉴스 담당(2005~)

사장 공백 상태 100일 넘게 지속

증자가 이뤄지지 않자 정 사장은 5월 25일 사표를 제출했고 이때부터 사장 부재의 공백상태가 다음 장명국 사장이 선임되는 9월 14일까지 지속됐다.

YTN 회생을 위한 대외적인 노력은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었다. YTN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1998년 상반기 이내 증자 시 1000억 원, 상반기를 넘길 경우 1200억 원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야만 빚을 청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만큼의 자금이 필요한 이유와 회생방안을 정리하고 다른 수익 매체로 수도권 광역 FM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1997년 말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문건은 매월 두 차례 정도 수정보완됐고 1998년 6월 23일자로 최종 수정보완된 문건은 A4 용지 7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었다. 다음은 1998년 3월 31일자로 정리된 문건이다.

〈YTN 현황과 회생 방안〉

적자 원인과 누적 적자

1. 턱없이 부족한 초기 자본금 : 300억 원 초기 자본

기본적인 방송장비 구입 등으로 자본금 거의 소진

→ 1995년 7월부터 은행차입금으로 회사 운영

기존 주주들의 능력 부족으로 증자 일절 이뤄지지 않음

2. 적자 상황

1) 누적적자 : 977억 원

2) 금융기관 기채 : 720억 원 (이 중 360억 원 정도 금융비용으로 지출)

3) 월 적자 : 37억 원 (수입 11억, 지출 48억 원)

(37억 원 적자 가운데 21억8000만 원이 이자 금융비용

→ 증자로 금융비용 덜어주지 않는 한 악순환 되풀이)

3. 이자, 리스료 지급 못해 연체료 가산, 고금리 적용

차입금·미지급금 현황

1. 은행차입금 (1998. 3. 31 현재) : 720억 원

2. 미지급현황 (1998. 3. 31 현재) : 202억 원

내용	금액	비고
방송장비 리스료	58억원	1997.10 ~ 1998.3 (6개월분)
인건비	49억원	급여·상여금: 41억 원, 퇴직금 등: 8억 원
연합통신	35억원	전재료: 21억 원, 임차·관리비: 15억 원
한국전력 분배망 사용료	16억원	1995.5 ~ 1998.3
데이콤 회선 사용료	6억원	1997.12 ~ 1998.3
은행이자	12억원	1998년 3월분
부가가치세 및 공과금	10억원	1997년 제2기 확정 분
용역비 등	16억원	1998.1 ~ 1998.3
계	202억원	

3. 긴급운영자금 필요

긴급운영자금 96억 원 필요

1998년 2월 말에 결제해야 할 어음(리스료)을 2차례나 연기하여 부도사태를 막았으나, 모든 경비의 지급 중지로 4월 중에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운영이 불가능해짐

증자 시급

1. 증자 금액 : 최소 1000억 원 필요

* 문제점

한전을 제외한 70% 민간주주들의 자금사정 열악으로 실권하였음. 600억 원 을 상반기에 증자되더라도 차입금 720억 원 중 일부만을 상환하게 돼 과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영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됨

2. 따라서 최소 1000억 원이 증자돼야 함. 이렇게 돼야만 차입금 대부분을 갚을 수 있어 금융비용 대폭 절감

※ 600억 원과 1000억 원 증자 시의 경영개선 효과 별표 참조

3. 신규주주 영입

3~ 4개의 공기업 30~15% 지분 소유형태로 참여해야 함(이하 생략)

FM라디오 등 운영

1) YTN 수입의 한계

광고 축소로 광고 수입 급감(월 13억→8.5억 원)

수신료 수입 미미(월 3억 원)

2) FM라디오 운영 시 효과

케이블과 라디오의 결합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광고 수주 활성화로 YTN 경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
재해·재난 예방 전문 방송으로 공익적 기능 수행(이하 생략)

3. '증자해 살린다' 정책 방향 잡혀

YTN 증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진 측이 독자적으로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었다. 관련 부처나 당국 모두 YTN 회생에 공감해야만 증자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물론 여야 정치인,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회생문건'을 만들어 정치권과 정부 관련부처, 고위당국자 등에게 전달했다. 주요 정책관계자들은 YTN 간부들이 직접 만나 협조를 호소했다. YTN 회생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됐다. 그러나 증자는 될 듯하면서도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선 구조조정 후 정상화'나 '법정관리'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1998년 6월 들어 'YTN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문화일보 1998년 6월 29일자 기사 발췌〉

경영위기에 처한 케이블 TV 뉴스채널 YTN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법정관리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YTN은 조만간 법정관리 아래 제3자 인수를 공모, 운영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수자 위주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 부처의 지원을 얻어 부채상환을 연기하는 등 금융비용을 대폭 줄이거나 동결,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의 YTN 경영 정상화 대책을 포함한 방송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YTN을 살리기 위해서는 1000억 원의 부채 해소와 운영자금 확보가 관건인데 현행 법상의 주식 지분 제한으로 인해 대주주인 한국전력의 추가 투자나 여타 대기업의 영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수기업 확보 및 증자를 위한 법령개정이나 법정관리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특히 5개월째 월급이 체불되는 등 YTN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가을에나 국회를 통과할 통합방송법의 개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법정관리를 신청, 제3자 공개매각을 통해 조기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우

▲ 1963년 생
▲ 서울대 국문학과 졸, 성균관대 법학과 졸,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 코리아헤럴드

사회부(1989)

▲ YTN 문화스포츠부(1994) 월드뉴스부 정치부차장대우(2000) 편집2팀차장(2004) 노조위원장(2004)

▲ YTN 콘텐츠 혁신팀장(2005~)

인터뷰

정주년 제2대 사장



- YTN사장으로 취임해 대주주인 연합통신과의 4대 계약을 해지하려고 서두른

노력했지만 증자 안된 가장 큰 이유는 타사들과 광고 비교되어 주주들 주저

이유는 무엇입니까?

▲ YTN은 3년에 걸쳐 연합통신과 협조하며 경영해 왔습니다. 제가 2대 사장으로 취임한 의미는 YTN이 독립해서 경영하고 여러 가지 수익구조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했지요. 또 전채로도 과다하게 책정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영진에서 그러한 건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그 일에 착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증자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셨는데도 증자는 재임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자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첫째 방송국의 기초 자리매김, 수익구조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투자자나 광고주들

이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분석하고 있었지요. 그 시기가 좀 빠르지 않았나 생각돼요. 또 하나는 대통령선거가 있고 정부가 바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였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YTN의 광고를 다른 방송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주들이 상당히 주저하고 어려워했지요. 다른 곳도 많이 찾아가 노력해 보았습시다만 역시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자 노력을 하다가 1997년에 갑자기 사임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 새 정부도 들어서고 저보다 경영이나 모든 면에서 나은 분이 와 주시길 바랐고 YTN의 장래를 위해 제가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서울시 관광협회 상근 부회장)

이 기사와 관련해 YTN은 문화관광부에 강력 항의하고 법정관리 절대 불가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YTN 노동조합도 문화관광부에 항의하고 법정관리 안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유출된 경위를 따졌다.

1998년 6월 중순부터는 외부의 법정관리 움직임을 저지하는 한편, 1200억 원 증자를 적극 추진했다. 정 사장이 사임한 뒤인 6월 중순 이후 고위당국자는 사장 선임이 우선이라며 증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장 선임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는 당국자의 거듭된 답변에도 불구하고 사장 선임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증자에 의한 회생'으로 방향이 확실히 잡힌 것은 7월 상순이었고 7월 중순부터 한달 넘게 걸린 '작업' 끝에 주요 주주 영입과 사장선임 문제가 8월 중순 거의 마무리되었다.

제4장 : 술한 고비 넘기고 1200억 증자

제1 절 : “방송은 있었지만 경영은 없었다”

1. 장명국 사장 취임 “앞장 서 현안 해결”

1998년 9월 14일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장명국 주간내일신문 운영위원장이 YTN 제3대 사장으로 선임됐다. 사장공백 상태가 5개월 만에 메워졌다. 장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석탑출판사와 석탑노동연구원을 운영해 왔으며 1993년 주간 내일신문을 창간했다. 개국 초기부터 보도책임자에다 경영의 핵심에 있던 이대섭 상무는 물러났고 연합통신 출신 임원이던 오근영 전무도 퇴임했다.

장 사장은 9월 15일 열린 취임식에서 증자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사원들의 정신혁명을 강조했다. 장 사장은 “YTN에는 방송은 있었지만 경영은 없었습니다. 경영 없는 방송은 존립할 수 없고 존립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제2 창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말하고 “증자를 추진하고 방송광고를 유치하며 새로운 매체로의 진출 등 YTN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장 사장은 이어 “제 사전에 해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흑자가 날 때까지 월급을 받지 않고 무임으로 뛰겠습니다. 상근임원도 저 외는 공석으로 남겨둘 것임을 밝혀 둡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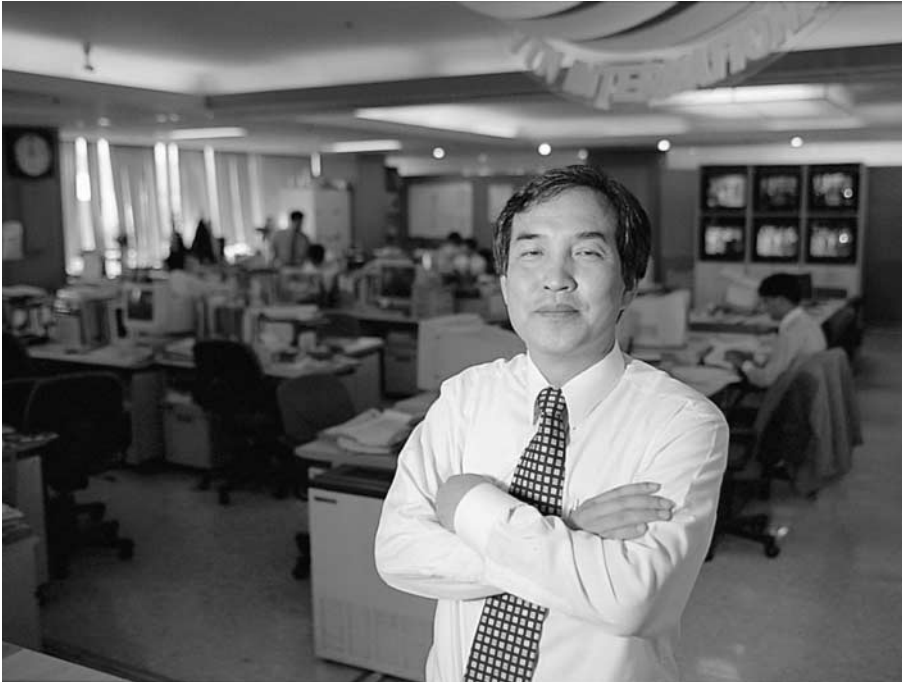
김원배

▲ 1965년 생
▲ 서울대 경제학과 졸
▲ KBS 입사(1989) 사회부 경제부 편집부 스포츠취재부

▲ YTN입사(1994) 경제부 월드뉴스부 편집1팀차장(2000) 경제부차장
▲ YTN 편집1팀차장(2005~)

〈장명국 사장 취임사〉

지금 우리나라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사태를 맞이하여 생존이나 죽음이나 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총체적 부실과 경쟁력 상실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벌써 200만 명을 넘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70%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수출드라이브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와이셔츠 차림으로 보도국에서 포즈를 취한
장명국 사장

우리는 헤어 나오기 어려운 고통의 수렁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 우리 YTN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경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그릇된 방송정책 탓도 있고 나라경제의 어려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YTN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지난날 YTN의 경영 실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지난날 YTN에는 방송은 있었지만 경영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경영이 없는 방송은 앞으로 존립할 수도 없고 존립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제2창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일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영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로 공개 투명경영의 원칙을 확고히 세웁시다. 모든 경영실패는 유리알처럼 맑게 해야 하고 전 사원에게 명명백백히 공개되어 모두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로 마케팅을 경영의 최우선의 방침으로 하며 내부 조직의 효율을 높여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개조합시다. 셋째로 경영 정상화를 바탕으로 현 시대가 요

구하는 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의 방송, 방송 중의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중략〉

저는 YTN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신혁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송은 올바른 정신에서 나옵니다. 이 정신자세에서 기가 나오며 기가 펴 펴 넘쳐흐를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방송언론의 사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관습으로부터 빨리 벗어납시다. 아울러 방송언론인의 긍지는 생활이 어렵더라도 방송언론인으로서의 자존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YTN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은, 첫째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이어야 하며, 둘째 국난극복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며, 셋째 의식개혁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인·주체가 되어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저는 흑자가 날 때까지 월급을 받지 않고 무임으로 뛰겠으며 상근 임원도 저 이외에는 공석으로 두겠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아울러 YTN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특별기구로서 제2창사를 실현하는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겠습니다.〈중략〉

증자를 추진하고 광고·협찬을 유치하며 새로운 매체로의 진출 등 YTN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마케팅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세우고 흑자 경영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YTN의 존재 이유를 찾고 사회적 사명을 다하는 방송, 21세기를 열어 나가는 방송 중의 방송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도록 합시다.〈중략〉

(이하의 장 사장이 취임사를 읽은 뒤 부연해서 밝힌 내용이다.)

구걸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고 협찬에 앞장서겠습니다.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YTN의 부가 FM라디오 등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증자가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부가 방송매체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YTN의 증자에 함께하는 분들은 그것을 믿고 참여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YTN에 계신 분들이 과거의 관행대로 한다면 증자는 중간에 막히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고통을 함께 나눠야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싸우고 하는 등 어떤 때는 심한 행동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연합통신 사장과 통화했는데 빛 다 까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 이자 안 줄 생각입니다. 또 원금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 교섭하겠습니다. 증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빛이 약 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증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적자 돌아오면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해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없다면, 흑자 내는 경영방침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대의를 위해서 혁신된 분위기가 그분들로 하여금 함께 일할 수 없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같은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합시다.

제2절 : 인력 축소 · 급여 삭감 · 비용 절감

1. 사원투표로 연통 수신계약 해지

장 사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갔다. 9월 17일 제2차사실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부장 70% 차장 60% 사원 5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결의했고 아침 7시 출근,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 사무실 대폭 감축과 출연료 절감 등을 결정했다. 영상제작팀을 신설하는 등 마케팅 분야를 강화하고 6개 부와 3개 지방팀을 폐지 또는 축소, 런던지국 폐쇄 등 30% 기구감축도 실현했다. CNN 등 외신 사용료도 5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급여는 최고가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책정됐고 장 사장 취임 후인 9월 월급부터 적용됐다(8월 급여는 봉급 중단 후 6개월 만에 기본급만 나왔으며 6월 12일 임직원 1인당 20만 원이 격려금조로 지급됐다).

장 사장 취임 전 · 후의 인력 변동 추이(계약직 포함)

구분	1996년 9월	1997년 초	1998년 초	1998년 말	변동내용	
					인원	감소율
변동추이	588	584	566	478	△ 88	△16%

급여가 대폭 삭감되고 일의 강도가 높아지자 회사를 떠나는 사람도 많았다. 장 사장 취임 후 그해 연말까지 47명이 그만두었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6개월을

포함해 그해 1월부터 9월 13일까지 41명이 그만둔 데 비해 장 사장 취임 후 4개월 동안 그만둔 사람이 더 많았다. 용역도 117명(1997년 6월)에서 12월 말 61명으로 줄었다. 인력감축과 급여삭감으로 1998년 12월 급여지출은 6억7000만 원(1997년 평균 월 16억5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비용 절감은 외신 계약사에도 적용됐다. CNN 방영권료는 50%를 삭감해 연 11만2500달러만 내게 됐고 WTN등 11개 외신사 중 8개 사와 계약을 해지해 종전 49만8000달러에서 12만 달러만 부담하게 되었다.

장 사장은 1997년 4월부터 월 1억5000만 원으로 재계약된 연합통신 전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1998년 11월 17, 18일 이틀에 걸쳐 사원 투표를 실시했다. 사장의 경영방침도 함께 묻은 이 투표에서 사원들은 99.8%(대상자 455명)가 투표에 참여해 '장 사장 경영방침'에 86%가, 연합 기사 수신 중단에 80%가 각각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연합통신 기사수신계약이 1998년 11월 30일자로 해지됐다(연합통신 전채 중단으로 연 18억 원의 경비가 절감됨). 연합통신과의 대표적인 불평등계약으로 지적된 연합통신 전채 계약은 1995년 3월~1997년 3월에 월 1억 원, 1997년 4월~1998년 11월에 월 1억5000만 원이었다(연합통신 전채는 후임 백인호 사장 재임 시 월 3000만 원에 재계약됐으며 2004년부터는 4500만 원으로 인상됐다).

2. 보도국장 안 두고 「국장단제」 도입

편성도 대폭 개편됐다. 밤 「8시 종합뉴스」를 강화하고 밤10시에 심층뉴스 「뉴스포럼」을 신설했다. 「집중조명」의 진행형식을 대담에서 논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변경했으며 영어뉴스 「KOREA TODAY」를 신설했다. 국회방송인 「의정 중계석」을 신설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녹화 편집해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방송했다.

주요프로그램 개편 내용

신설프로그램	확대, 부활 프로그램
뉴스포럼, 의정중계석, KOREA TODAY	20시 프라임뉴스(40분에서 60분으로 확대)
산업뉴스, 생활법률, 금융부동산 온라인	북한관련 프로그램인 통일로 신설
건강강좌, 레저스포츠 경마, 북한 만화	영화 관련 프로그램 씨네24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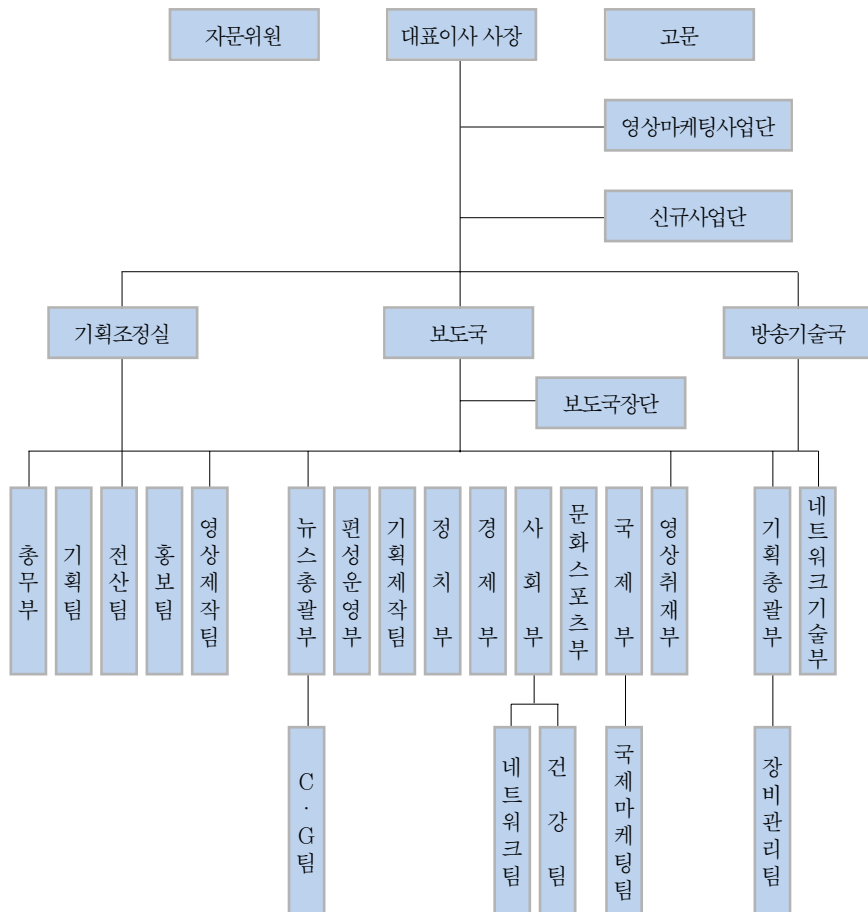
장 사장 취임 전까지는 개국 초기의 기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장 사장은 경영상의 어려움과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취임 초인 1998년 9월 21일

자로 기구를 대폭 조정했다. 6개 부 3개 팀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했으며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상마케팅사업단과 신규사업단을 신설했다.

기획조정실의 경우 총무부와 기획부를 각각 팀으로 축소했으며 보도국의 네트워크부를 팀으로 개편해 사회부 소속으로 했다. 특히 보도국장을 두지 않는 대신 보도국장단체를 도입하고 부국장 3명을 두었다. 이른바 집단지도체제 개념이다. 국장단 부국장에는 이동근(정치 사회 문화 국제 등 비경제분야 담당) 표철수(경제분야 담당) 이재희(편집담당)가 임명돼 각각 맡은 분야의 국장업무를 수행했다. 직제에서 전무 상무를 없앴다.

회사 기구는 1999년 3월 3일자로 다시 일부가 개편됐다. 정보과학부를 신설하고 기획제작팀과 네트워크팀을 부로 승격했으며 건강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보과학부에 넘겼다. 영상제작팀을 영상마케팅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장 사장 취임 후 바뀐 기구표



「연합텔레비전뉴스」에서 「YTN」으로

연합통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후 1999년 2월 2일 이사회는 그동안 연합텔레비전뉴스(Yeonhap Television News), 약자로 와이티엔(YTN)으로 사용하던 것을 한글 명칭을 없애고 영문으로만 YTN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법인명으로 등기부에 등록했다.

YTN 창사 당시에는 법인명을 영문으로 등기부에 등재할 수 없었으나 1999년에는 영문으로 법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 있기도 했다. 초창기 “YTN이 무슨 약자냐?”고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연합텔레비전뉴스의 영문 약자라는 설명을 해 주었다. 사명 변경 이후에는 YTN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데 긴 설명이 필요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개국 때부터 ID로 사용해 온 ‘YESTERDAY TOMORROW NOW, YTN’ (노종면 제안)을 YTN의 공식 풀네임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지만 공식명칭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적극 광고 수주 활동 매출액 올라

장 사장은 내일신문에서 함께 온 윤태일을 기획실장으로 임명하고 적극적인 광고수주 활동에 나섰다. 취임 첫 달인 9월 광고 매출액은 8억400만 원, 여기에 한국전력의 홍보물 영상제작과 광고 6억2000만 원을 포함하면 모두 14억3000만 원이었다. 10월 12억500만 원, 11월 14억300만 원, 12월 19억74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당시는 IMF 체제로 광고시장이 얼어붙어 있었다.

장 사장 취임 전·후의 광고매출액(단위: 천원)

199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광고매출액	647,868	750,071	804,530	1,205,760	1,433,776	1,974,516

제3절 : 100억… 1100억, 증자 성공

1. YTN 사원들 체불임금 50% 출자

한전 KDN이 대주주가 된 직후인 1997년 12월 8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100억 원 증자 안은 모두 6차례나 주금납입일을 연기하며 증자를 추진했으나 장 사장 취임 전까진 성사되지 못했다. 장 사장은 취임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증자가 이뤄질 것임을 공언했다. 우선 100억 원 증자에 나섰다.

한전 KDN이 30%인 30억 원을, YTN 직원들이 체불임금의 50%인 32억5000만 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여타 소액주주들이 증자에 동참하지 않아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 장 사장은 증권기업을 견실하게 운영하는 지인들을 설득했다. (주)녹십자 고려아연(주) 등이 새로운 주주로 영입돼 100억 원 증자에 성공했다. 자본금은 400억 원으로 늘었다.

100억 원 증자 참여 주주

주주명	금액	주주명	금액	비고
한전 KDN(주)	30억원	(주)세아제강	1.5억원	
(주)녹십자	15억원	이건산업(주)	0.5억원	
고려아연(주)	15억원	이건창호시스템	0.5억원	
한국카프로락탐	5억원	YTN 임직원	32.56억원	

2. 3년간 누적 적자 1354억 원

YTN의 누적적자는 1998년 말 1354억8700만 원이었다. 이처럼 적자가 큰 규모로 발생한 것은 초기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비를 리스하고 대부분의 운영비를 은행차입금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특히 IMF로 고율(연 12~18%)의 이자를 물고 만기가 돌아와도 갚지 못한 차입금이나 리스에 최고 27%까지의 연체 이자가 붙기도 했다.

증자 여력이 없는 연합통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 YTN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연합통신과의 분리 작업이 이뤄졌고 그 다음 한전 KDN이 대주주로 영입됐다.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마사회는 1998년 7월 16일 ‘YTN 회생 대책 설명회’에 이어 그해 8월 초에 주요 주주 영입대상으로 정해졌다.

100억 원 증자실현 직후인 1998년 11월 27일 열린 이사회는 주당 액면가 1만원 주식 1100만 주를 발행하기로 하고(1100억 원 증자) 주금납입일은 12월 18일로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YTN 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1998년 12월 16일 열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한전의 사외이사인 관계부처 간부가 한전 KDN의 YTN 증자 참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증자안건 처리가 보류됐다. YTN은 12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1100억 원 주금납입일을 12월 30일로 연기했다.

3. 연말 은행 마감시간 지나 주금 입금

장 사장은 관계부처 장관들을 만나 YTN의 경영계획을 설명하고 증자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결국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냈다.

한전은 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12월 26일 다시 열어 '330억 원 YTN 투자안'을 통과시켰다. 마사회의 경우 어렵게 정관이 바뀌고 'YTN 투자안'이 이사회를 통과했으나 주무부처의 장관 승인이 계속 지연됐다. 장관 승인이 주금납입일인 12월 30일 오후 늦게 나오는 바람에 주금입금은 은행 마감시각을 훨씬 넘겨서야 겨우 이뤄졌다.

주요 주주 중 한 곳이라도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1100억 원 증자는 무산되고, 다음해로 넘어간다면 증자 참여 공기업의 1999년 예산에 YTN 출자금에 책정되지 않아 증자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100억 원 증자 주요 참여 주주와 출자금액은 한전 KDN 330억 원, 담배인삼공사 440억 원, 마사회 200억 원, 상업은행 130억 원이었다. YTN의 사활이 걸린 1200억 원 증자가 두 차례에 걸쳐 완료됨으로써 YTN의 자본금은 1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1200억 원 증자 후 주요주주 현황(1998년 12월 30일)

주주명	출자액(억원)	비율(%)	주주명	출자액(억원)	비율(%)
한국담배인삼공사	440	29.3	이정일(전남일보)	15	1.0
한국마사회	200	13.3	(주)녹십자	15	1.0
한국상업은행	160	10.7	고려아연(주)	15	1.0
(주)쌍방울	30	2.0	일동제약(주)	9	0.6
남양금속(주)	30	2.0	김재운(한림제약)	9	0.6
하이트맥주(주)	30	2.0	제일산업	8	0.5
건대의료원	21	1.4	YTN 임직원	36.5	2.4

제4절 : 빛 값고 내실 경영체제로

1. 개인 업적 평가제 시행 인사에 반영

1200억 원 증자에 임직원들이 참여함에 따라 1999년 2월 2일 열린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사원 주주·사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주주사원운영위원회(상임위원 6명 운영위원 22명)를 구성했다. 적자경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소위원회도 구성됐다. 특히 경영혁신과 내실경영을 위해 사원들의 개인 업적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업적평가제는 이후 세부평가계획이 세워져 계약직 이상의 사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일반사원들은 차장과 부장이 1, 2차 평가를 하고 실·국장이 최종 평가했으며, 차장은 담당 부장과 실·국장이 1, 2차 평가자였다. 부장은 실·국장 평가에 이어 사장이, 실·국

장(국장은 없었고 실장 1명 외는 부국장이었음)은 사장이 평가했다.

평가 방법은 직급별 부서별(팀별) 상대평가였고 상위 10%와 하위 10% 정도는 의무 배정이었다. 이 제도는 1999년 상반기에 시행돼 상반기 보너스를 차등 지급했고 인사에도 반영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사는 사원이 희망부서(1차 지망 2차 지망)를 적어내고 담당 부서장이 희망자 가운데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보도국의 경우 국장단(장 사장 취임 후 두 번째 인사)을 단행해 국장단은 취재 표철수 조봉환, 편집 이재희)은 인사가 이뤄지기 전에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사장 결재를 받아 시행했다.

부서장 이상과 특별관리자에 대해서는 사장이 거의 전권을 행사했다. 직제를 일부 변경해 차장대우를 제외한 '대우' 제를 직제에서 없앴다. 또 2월 2일 이사회에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규정을 폐지했다.

2. 은행차입금·미지급금 등 청산

과다한 금융비용에 시달려온 YTN은 1200억 원 증자금으로 은행차입금과 이자 등을 증자 다음날인 1998년 12월 31일 거의 청산하고 일부는 출자전환했다. 연합통신의 경우 전재료 등 54억4500만 원의 미지급금은 20억 원을 삭감해 1999년 3월 5일 지급했고 데이콤 회선사용료는 교환광고로 상계했다. 전임 임원 인건비를 제외한 렌터카, 용역비, 부가세, 국민·산재보험료 등 기타 비용도 전액 상환했다.

1999년 3월 26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1998년 결산 결과 자본금은 1500억 원, 자산총액 329억7400만 원, 부채총액 184억6100만 원, 당기순손실 383억 1100만 원, 누적결손금 1354억8700만 원이었다. 또 1998년 말 현재 미지급비용 및 미지급액은 135억7900만 원이었다.

의장이 임원에 대한 보수 한도를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해 의결됐다. 장 사장은 취임 초 약속대로 YTN에서 보수를 한 푼도 받지 않았고 판공비도 자신의 강연료로 대신했다. 전임 사장들이 사용하던 전용차량(그랜저)은 처분토록 하고 자신은 1500cc 가스차량을 이용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외부 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에서 송현회계법인으로 바꿨다. 정관 일부조항을 변경, 정관 2조 목적사업에 방송기기 개발 및 판매사업을 추가했다.

이는 소출력 FM 방송국 설계·시설 및 장비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인터뷰

장명국 제3대 사장



100억... 1100억 원 증자에 어려움도 컸겠는데...

사원들 증자 참여 보고 “이회사는 살 수 있다” 설득

- 한전이 YTN의 대주주가 된 후 계속 100억 원을 증자하려고 했습니다만 6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사장 취임 2개월 만에 100억 원 증자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당시 YTN의 500여 사원들은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원들은 그 못 받은 월급 50% 이상을 증자에 참여하는 결단과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화선이 되고 시발점이 되어 한전, 그리고 건설한 기업인 녹십자 고려아연 등을 통해 100억 원 증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증자에 참여한 기업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사원들이 월급을 50%에서 70%를 줄이겠다, 깎겠다고 결의해 줬고, 6개월치 월급의 50% 이상을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기업은 살 수가 있습니다”고 하자 한참 생각하더니 “장 사장 열심히 해봐, 살 수 있어”라며 증자에 참여해 줬어요.

- 그 이후 1100억 원을 증자하게 됩니다. 참 어렵게 이뤄졌지요?

▲ 사실 외부에서는 쉽게 들어오려고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개월 만에 경비를 55% 이상 줄이고 광고와 시청률을 3배 이상 늘림으로써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12월에 흑자가 되면서 증자가 아니라 투자가 된 것입니다. 이익이 나자 망설이던 공기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공기기업 관계자 중 YTN 증자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그분들은 YTN이 12월엔 흑자로 돌아왔지만 1월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올까 두려워했어요. YTN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믿어 달라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은 “그것 한번 해보자”며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 취임하면서 월급을 70% 이상 삭감

하고 7시까지 출근시키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해는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공기기업 회계연도가 1월 1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증자를 끝냈으면 했고 그것을 3개월로 잡았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단기간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내자, 힘이 더러도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특히 부인들께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힘들지만 결단을 내려줘서 그것이 계기가 된 거지요.

- 장 사장은 취임 초에 한 약속대로 월급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판공비를 안 쓰고 핸드폰 사용료도 집에서 내게 하는 등 절약에 앞장섰습니다.

▲ 적자가 날 때는 간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장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요. 저는 강연을 다녀 판공비는 그것으로 쓸 수 있었고 생활비는 집사람이 보충했지요. 간부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개혁이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 내일신문 사장)

3. FM라디오 · 지역민방 추진은 했지만...

장 사장이 취임한 후 단행한 기구 개편으로 신규사업단(단장 조봉환)이 신설됐고 신규사업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FM라디오였다. 이에 앞서 1998년 통합방송법이 마련될 당시 YTN은 여야 정책담당자와 문화관광부 관계자 등

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YTN이 지상파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전까지는 케이블TV는 공중파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YTN은 1998년 12월 문화관광부에 FM라디오 허가 신청서를 냈다. 문화관광부는 수도권을 커버하는 가용주파수를 찾아낸다면 YTN에 주파수를 할당해 주도록 정보통신부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주파수 찾기’에 나섰다. 기술국이 중심이 돼 사용가능 주파수를 점검했다. 주무부처와 함께 시뮬레이션 작업까지 해 봤으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민간용 주파수는 없었다. 국군 방송용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중 하나가 최적의 가용주파수가 될 수 있다고 결론, 관련 부처의 양해를 얻는 등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으나 복잡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흐지부지됐다. 지역민방 인수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채권 관계가 복잡하고 인수도 쉽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SO와 PP 인수도 검토했다.

스포츠 채널과 음악채널을 검토한 결과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자체 제작으로 수지를 맞추기는 더욱 어려웠다. 특히 스포츠 채널의 경우 자체 중계차와 중계인력을 확보해 운영해야 하고 주요 경기의 중계권을 따기도 힘들며 중계권을 판다 하더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광고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포기했다. 지상파가 운영하는 스포츠 PP의 경우 본사 중계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고 본사 명의로 관심을 끌만한 경기(LPGA PGA 국내골프 축구 야구 등)의 중계권을 따내기 때문에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었다.

4. 장 사장 “아쉬움 느낄 때 사임이 좋겠다”

장 사장은 보도문제와 관련해 정책당국과 가끔 시각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던 중 6월 들어 고위 당국자로부터 “전무를 ○○○ 씨로 임명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 받았다. 장 사장은 ‘YTN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해 자신이 급여한 푼 받지 않고 근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끝내 거부했다. 당시의 이런 갈등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기사화되기도 했다. 1999년 7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장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장 사장은 “YTN의 경영이 생각보다 빨리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부임 목적이 이뤄졌으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정호 장병환 장세헌 이사는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파산 일보 직전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장명국 대표이사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회사를 더욱 튼튼하게 키워줄 것”을 부탁하며 사임의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부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서로 아쉽게 생각하는 현재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아 참석 이사 모두 장 대표이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만장일치로 장 사장 사임 안건을 승인 가결했다. 1998년 9월 14일 선임된 장 사장은 다음 사장(백인호)이 선임된 1999년 8월 3일까지 재임했다. 11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이다.

5.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잇단 특종

연합통신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이후 급여를 못 받는 혹독한 시련기에도 YTN의 보도는 단 1분도 멈춘 적이 없었다. 특히 큰 사건 사고의 보도나 대형 생방송은 열악한 장비와 적은 취재 인력에도 불구하고 공중파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무장간첩을 태운 북한 잠수정이 동해안에서 좌초된 채 발견된 것은 1996년 9월 18일 새벽이었다. YTN은 아침 6시 40분에 1보를 내보낸 후 본사 파견 기자 포함 40여 명의 인력(정현교 강릉팀장과 황성수 현장 지휘)과 SNG 중계차를 동원해 한 달 반 동안 생방송 위주의 방송을 했다.

1996년 3월 20일부터 시작된 한보청문회 때는 230분을 생중계하는 기록을 세웠다. YTN은 관련기관 보고를 9일 동안 중계한 것을 비롯, 서울 구치소와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1997년 7월 16일에는 휴전선에서 발생한 남북한 간 총격전 발생 사실을 특종 보도했다.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국방장관이 회의 도중 메모를 받고 회의실 밖 위원장 비서실로 나와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내용은 ‘휴전선 총격전 상황 보고’였다. 이를 넘겨본 김응건 기자가 재빨리 데스크에 알렸고 바로 전화 리포트로 이어졌다. 대통령에게도 보고되기 전에 방송이 나간 것이다.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타 방송사들도 서둘러 YTN 보도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소식도 YTN 특종으로 국내에 전해졌다. 당시 월드뉴스부 당직 기자였던 김원배는 인터넷 검색 도중 CNN의 Breaking News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했다. CNN의 첫 보도는 새벽 2시. YTN은 23분 후인 2시 23분에 자막으로 1보를 내보내고 2시 30분 뉴스부터 소식을



김응건

- ▲ 1968년 생
- ▲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 ▲ KBS(1991) 편집부 문화부 국제부
- ▲ YTN 사회부

(1994) 뉴스편집부 편집3팀 경제부 정치부차장대우(2004)

▲ YTN 정치부 차장대우(2005~)

전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취재팀(이동현 강유종 이철용 남궁은 기자)이 특파돼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SNG로 경수로 착공 북한서 첫 생방송

1997년 8월 19일 북한 선봉지역에서 경수로 착공식이 열렸다. 1992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취재 이후 처음인 이 착공식에 북한이 허용한 한국 방송 취재인력은 모두 9명. 방송 4사 정치부장들은 방송을 풀(Pool)로 하기로 합의하고 KEY 사로 YTN을 선정했다. 추첨 결과 취재기자는 YTN의 이종수가 유일하게 당첨됐다. YTN은 SNG를 데이콤에서 임차해 경수로 착공식 현장에 보냈다. 쌍방향 중계링크를 구성했다.

경수로 착공식 화면이 신호분배실에 뜨고 이 화면이 YTN과 공중파 3사를 통해 전국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전달됐다. 한국 방송 사상 북한에서의 생방송은 최초였다. 북한의 오지에서 제대로 생중계가 가능할지 걱정을 많이 했으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YTN은 이 화면을 일본 방송 풀단에 제공하고 상당액의 수익도 올렸다.

1997년 12월 1일에는 동아일보가 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 출연)를 중계방송 사상 최초로 수화를 곁들여 생중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전은 이회창 김대중 후보 간의 팽팽한 접전이었다. 보도가 금지된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로는 김 후보가 거의 1~2%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는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방송할 수 있었다. YTN은 출구조사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구조사를 할 수 없었다. 방송3사의 개별 출구조사 결과를 YTN이 취합해서 보도하자는 아이디어가 정치부에서 나왔고 방송3사 정치부장들이 '자사 보도 후 YTN 보도'를 양해했다.

방송 3사는 6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를 숨 가쁘게 보도했다. YTN은 오후 6시 30초쯤 방송3사의 조사결과를 취합 비교한 내용을 보도했다. 많은 시청자가 YTN 수상이 앞으로 몰려들었다 (2002년 12월 대선 때도 똑같은 방식의 보도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타사와의 공조로 특종을 한 사례 하나. 1999년 7월 17일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전남 여수에서 검거될 것이라는 정보가 오후 4시 쯤 서울 경찰청에서 입수됐다. 광주지국에 연락해 중계차와 함께 취재진을 여수로 급파했다. 국장단 취재담

사원공개채용 시험 : 1995년 신입사원
 필기고사장 안내 플래카드(시험 날짜는
 11월 5일, 고사장은 종로구 계동 대동정보
 산업고)



당부국장이 한 공중파 방송사의 보도국장과 신창원 검거와 압송 전 과정의 영상을 상호 풀(Pool)하기로 합의했다.

오후 6시 3분 공중파 지방방송국에서 찍은 영상이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 서울로 송출되기 시작했고 이 영상은 YTN에도 제공됐다. YTN은 이 영상을 직접 On Air시켰다. 경찰이 진입하는 장면에서 신이 검거돼 호송차에 타는 장면, 방안에서 쏟아져 나온 현금 다발(1억8000만 원), 신의 일기장, 운동기구 등이 생생하게 YTN 화면을 가득 채웠다. 시청자들의 시선을 오랫동안 고정시켰다.

그 방송사는 정규방송 중이어서 뉴스를 하지 않다가 40분 후쯤 특보를 시작했다. 뒤늦게 그 방송사로부터 항의를 받았지만 YTN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그 방송사가 늦게 특보체제에 들어간 것이었기에 양해되었다.

6. 1997~1999년에 신입사원 채용 없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1997년 말부터 1999년 말까지는 신입사원 채용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원만한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적정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정주년 장명국 두 사장 재직 시에는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오히려 급여가 나가지 않던 1998년에는 모두 88명이 그 만뉘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인력이 많아 경영

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외부의 시각도 있었고 증자 과정에서 '인력을 줄이랴'는 압력도 받았다. 연합통신 출범 당시에도 방송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당시 현소환 사장은 "초창기 방송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웠고 둘째는 케이블 TV 사업 진출에 대한 연합통신 사내 설득이었다"고 회고했다. 연합통신은 초창기 자사 직원과 사외의 경력직 위주로 방송 인력을 충원하다 '젊은 피'의 수혈이 필수라고 보고 1994년 2월 24일 공채 1기 29명을 채용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9일 2기 99명, 1995년 2월 16일에는 2.5기 41명을 뽑았다. 1995년 5월 1일 공채 3기 27명, 1996년 1월 3일 공채 4기 23명을 선발했다. 이어 1997년 1월 6일 5기 14명을 채용했다 (2000년부터 적정 인력을 거의 매년 공채하는 관례가 지켜지고 있다. 2000년 1월 24일 6기 15명, 2001년 6월 25일 7기 16명, 2003년 8기 16명, 2005년 1월 24일 9기 29명이 입사했다. 2003년 12월 1일에는 앵커 5명이 입사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현황

기별	입사일	입사인원	직종별 인원
1기	1994. 2.24	29명	방송경영 4명, 방송기자 9명, 촬영기자 10명, 그래픽 2명, 전산 2명, 방송기술 2명
2기	1994. 9. 9	99명	방송기자 52명, 앵커 8명, 촬영기자 17명, 방송기술 22명
(2.5기)	1995.2.16	41명	방송경영 8명, 홍보 1명, 방송기자 2명, 전산 2명, 방송기술 28명
3기	1995.5.1	27명	방송기자 11명, 앵커 4명, 촬영기자 4명, 방송기술 8명
4기	1996.1.3	23명	방송경영 2명, 방송기자 9명, 촬영기자 7명, 방송기술 3명, 그래픽 2명
5기	1997.1.6	14명	방송기자 9명, 촬영기자 5명
6기	2000.1.24	15명	방송기자 4명, 앵커 3명, 스포츠기자 2명, PD 3명, 마케팅 3명(*경력: 스포츠기자 1, 문화산업 2, 편성PD 2, 교양다큐 2, 사서직 1 총 10명 별도)
7기	2001.6.25	16명	방송기자 7명, 앵커 3명, 촬영기자 5명, PD 1명
8기	2003.6.23	16명	방송기자 9명, 스포츠기자 1명, 촬영기자 2명, 방송기술 2명, 마케팅 1명, 전산 1명
-	2003.12. 1	5명	앵커 5명, (*경력 1명 별도)
9기	2005.1.24	29명	방송경영 4명, 방송기자 13명, 촬영기자 6명, 그래픽 2명, 방송기술 3명, 마케팅 1명

제5장 공모주 증자와 코스닥 등록

제1 절 : 시청률 · 수익 조금씩 살아나

1. 백인호 사장 취임 경제뉴스 강화

제 4대 백인호 사장은 1999년 8월 3일 취임했다. 백 사장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1965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 경제부장과 편집국장 상무이사를 지냈다. 또 경제뉴스 전문채널인 MBN 대표이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백 사장은 취임사에서 “YTN이 일류를 지향하는 정신을 가지고 영상매체인 TV 뉴스에서 일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도와줄 것이며 노력하지 않고 태만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백 사장은 또 경제뉴스를 강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백 사장은 취임사에서 언명한 대로 경제뉴스 강화와 사업 확장에 주력했다. 증시 스크롤을 확대해 증권시장이 문을 열면 뉴스 화면 하단에 전 종목의 현재 상황을 내보냈다. 증권시장이 폐장한 이후에는 전 종목 증가를 역시 스크롤로 처리했다. 새벽 시간에는 뉴욕 증시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등락을 화면 하단에 내보냈다. 증권 스크롤 방송은 백 사장이 퇴임할 때까지 계속됐다.

증권뉴스 기업뉴스도 대폭 강화했다. 국내 최초의 쌍방향 증시 분석 프로그램인 「코스닥 투데이」를 신설했다. 오전과 낮 시간대에는 「증시 와이드」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그 안에 유망 코스닥 기업을 소개하는 「기업 리서치」 프로그램을 삽입했다.



김재동

▲ 1955년 생
▲ 중앙대 연극
영화과 졸, 중
앙대 신방대학
원 석사

▲ MBC(1984)
영상국 올림픽

특집국 방송촬영인연합회장(1993)

▲ YTN(1994) 영상취재부차장 영상마케
팅2팀장(1999) 영상취재팀장(2000) 영
상편집팀장(2001)

▲ YTN보도국 영상특집팀장 (2005~)

2. 급여 · 복지수준 점진적 개선

급여와 복지수준 회복도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급여는 그해 8월에 평균 8%, 2000년 3월에 평균 12% 인상됐다. 학자금 지원도 재개했고 상여금도 2000년에 750%, 2001년에 800% 지급했다. 그러나 급여와 복지 수준이 IMF 이전으로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었다.

시청률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IMF 관리체제 이후 YTN 시청률은 크게

떨어져 케이블 TV 30개 채널 중에서 중위권을 맴돌았다. 그러던 것이 한국 갤럽이 1999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케이블 TV 선호도 조사에서 YTN이 음악과 스포츠 영화 채널에 이어 5위로 솟아올랐다. YTN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그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시청자 행태조사에서는 YTN이 채널 선호도에서 케이블 TV 중 35.1%로 1위를 차지했다. 지상파를 포함한 선호도에서는 YTN이 23.6%로 3위로 나타났다. IMF 당시 파산 일보직전까지 내몰렸던 YTN은 수익과 시청률 면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

제2절 : 서울타워 인수 방송계 중심 '진입'

1. “추정가 700억” 1억 더 써내 낙찰

YTN이 인수하기 전까지 남산 서울타워는 체신공제조합이 운영하고 있었다. 체신공제조합은 IMF 당시 조합자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손해가 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서울타워 운영권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 공개입찰일은 1999년 12월 16일로 잡혀졌다. 당시 백동범 총무부장은 백 사장에게 서울타워가 입찰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백 사장은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서울타워는 서울의 상징물이다. 백 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물건이다.” 그러나 자금이 문제였다. 며칠 뒤 백 사장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다”며 백 부장에게 입찰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입찰은 내정가보다 가장 많은 액수를 써넣는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었다. 백 부장은 내정가가 얼마나 될지를 수소문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는 300억 원으로 나와 있었다.

“체신공제조합 이사들을 접촉해 보니 주식투자 손실액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당시 체신공제조합의 주식투자 손실액은 12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감정가가 300억 원인 물건에 대해 1200억 원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가능했다. 공제조합 이사들도 내정가를 낮추는 것 같았다.” 백 부장은 나름대로 수소문한 끝에 내정가가 700억 원쯤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701억6000만 원을 써냈다.

공개입찰에는 이랜드와 SK도 참여했다. 지상파 방송사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1995년 개국 당시 YTN은 매우 훌륭해 26개 채널 중 프라임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었습니다. YTN은 신선한 충격으로 국민에게 케이블 채널을 알렸고 TV 뉴스를 이렇게도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채널이었

백인호 사장 취임사

YTN은 뉴스채널이면서도 뉴스의 비중이 약합니다. YTN을 보면 항상 특종이 나와야 합니다. 대특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YTN만의 특종이 있을 수

YTN의 국제화 문제도 과제입니다. CNN에 너무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특종도 봐야겠지만 좋은 뉴스를 만들면 외국에서도 우리 그림을 달라는 역제외가 올 것이 아닙니까? 국제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들 욕구를 십이분 채워줄 수 있는 뉴스를 해야 합니다

습니다. 개국 2년을 넘기면서 국민에게 걱정과 부담을 안겨준 채널로 후퇴해 언론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중략〉

YTN의 현재 좌표와 미래에 대해 사장 대 사원의 입장이 아니라 공동운명체로서 각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시청률 조사에서 YTN은 30개 채널 중 11위였습니다. 30개 채널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오락, 시네마, 종교, 학습 등과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문제지만 광고주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중략〉

우리는 다채널 디지털 위성방송시대를 얼마 안 남겨 놓았고 우리의 주경쟁자인 공중파는 수신기 1200만 대를 갖고 있는데 케이블 TV는 기껏해야 100만대입니다. 지금은 YTN이 뉴스 채널을 독점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새로운 뉴스채널이 생길 것입니다. 한시바빠 YTN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했으면 좋겠습니다.〈중략〉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종, 좋은 뉴스에 대한 포상을 제도화해 부장도, 보도국 요원도, 기술국 직원도, PD도 특종하면 포상하겠습니다. 낙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YTN은 경제뉴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경제의 시대입니다. 일반 시민들, 시청자들의 관심은 이재,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관심이 가장 큼니다. YTN이 그런 시민들 욕구에 십이분 보답할 수 있는 뉴스를 해야 합니다.〈중략〉

누가 얼마만큼 YTN을 선호하는지, 정확히 알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외제작기구도 설치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 소홀히 하는 것,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을 듣는 기회를 만듭시다.〈중략〉

시청자들은 방송국이 놓치고 찍지 못하는 희한한 그림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 방송하면 특종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맡아 추진해야 합니다.

심야 프로를 강화해야 합니다. 새벽 3시, 4시에도 많은 시청자가 있습니다.〈중략〉 지방망도 강화해야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외부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해 그 사이트를 YTN의 관문 사이트로 활용해야 합니다. YTN의 약점은 인쇄매체의 지원을 못 받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인쇄매체와 제휴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겠습니다.

YTN의 조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직보다 수평으로 흐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직성향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 곳곳에 YTN 24 채널이 보이도록 해야겠습니다.〈중략〉

지휘자는 조금 도와주는 것 정도입니다. 고생에 대한 보답은 두 가지 측면, 즉 고급료 회사를 만들어서 남부럽지 않게 하고 성과를 높게 해서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만 YTN 직원들이 직장을 지킨 보답이 될 것입니다.〈중략〉

참가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실제로는 참가하지 않았다. YTN이 최고가를 써내 낙찰자로 결정됐다.

연말 특집방송과 송년회로 숨가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원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서울타워 인수 소식은 충격과 동시에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당시 일간신문들도 YTN의 서울타워 인수소식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YTN이 서울의 상징인 서울타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한국 방송계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 방송계의 터줏대감임을 자처하는 지상파 3사도 서울타워를 통하지 않고서는 방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YTN은 다음날 인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수에 따른 모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추진위원회는 백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 이동근 보도국장, 실사팀(팀장 유종선 부국장 대우, 전병모 부장) 재무팀(팀장 김관상 부국장 대우, 문재철 부장·황성수 차장) 마케팅팀(팀장 문재철 부장, 안재열 차장대우·최성호) 시설팀(팀장 장영길 부장, 김태동·김동우) 총무팀(팀장 백동범 부장, 이재철·서영진) 등 5개 팀을 구성하고 최성호 사원을 간사로 임명했다.

2. 벤처 열풍 “일반인 대상으로 증자하자”

낙찰은 받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장 세금까지 포함해 743억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해야 했다. 회사에는 이렇다 할 자금이 없었다. 백 사장은 당초 대주주들로부터 증자형태로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선 입찰 후 대주주 설득’이었다. 그러나 막상 낙찰을 받고 보니 대주주들이 증자참여를 주저했다.

당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 특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서울타워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지상파 3사가 “YTN이 터무니없는 고가에 인수했다”는 악성루머를 퍼뜨렸다. 이런 소문은 대주주들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일 YTN이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 보증금 70억 원을 날릴 판이었다.

YTN에 또 다시 위기가 닥쳤다.

YTN을 위기에서 건져낸 것이 바로 공모증자였다. YTN의 브랜드 가치에다 서울타워의 가치를 끼워 일반인을 대상으로 증자하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었다. 당시 우리 사회에는 벤처 열풍이 불고 있었다. 벤처 기업이라면 상장되기도 전에 주식이 장외에서 수십배 할증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코스닥 등록 기업 주



김정대

- ▲ 1964년 생
- ▲ 송실대 전자계산학과 졸
- ▲ 연합통신(1990) 보도전산담당
- ▲ YTN(1995)

방송전산부 사업2부 데이터정보실차장대우(2000)

▲ YTN 기술국 디지털기획부차장(2004~)



방송·통신 '전파의 관문' 서울타워

- ▲ 1975년 완공, 체신부 공제조합 운영
- ▲ 건평 4233평(대지 산림청 소유)
- ▲ 높이 479.7m(모스크바타워는 해발 537m)
- ▲ 방송과 통신의 관문: 3개 지상파 방송사·FM 라디오·정부기관·통신회사 안테나 설치

가는 업적에 관계없이 치솟고 있었다. 상장을 예고한 기업이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공모증자할 경우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나타냈다.

YTN 임직원들은 1년 전인 1998년 11월 24일 100억 원을 증자할 당시 체불임금의 일부인 32억5000만 원을 출자했었다. 이때 받은 액면가 1만 원의 주식이 장외에서 3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이 공모증자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YTN은 2000년 3월 10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울타워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증권 신주모집을 결의했다. 기명식 보통주 600만 주(600억 원)를 발행하기로 하고 그 중 20%를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했다. 3월 28일부터 이틀간 현대증권과 LG투자증권에서 일반 공모주 청약을 받아 성공적으로 증자를 완료했다. 주당 공모가는 액면가 1만 원에 70% 할증된 가격 1만7000원이었다.

공모가 성공함에 따라 YTN의 자본금은 150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늘어났다. YTN은 4월 8일 서울타워 경영권을 정식으로 인수하고 초대 본부장에 조봉환 국장을 임명했다.

서울타워는 전파, 통신 탑으로서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관광 시설을 대폭 혁신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타워광장 남쪽에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산형 휴게시설'을, 광장 좌우측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중식 일식점이 들어섰다. 정문 양쪽에는 지름 1.6m 높이 4m의 돌기둥 조형물이 설치됐다. 조각가 성동훈 씨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서울타워를 「전파와 에너지의 흐름」이란 주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서울타워 새 단장을 기념하는 공연은 11월 18~19일 이틀간 열렸다. 정문 조형물을 제작한 성동훈 씨와 행위예술가 조상헌 씨가 「조각과 퍼포먼스」를 주제로 행위예술을 보여줬고 영상음악가 김안식 씨가 「파장의 에너지」를 공연했다. 파장의 에너지 공연에서는 소리의 파장이 물의 파장을 만들고 이 파장이 빛으로 형상화돼 서울타워와 서울하늘을 수놓았다.

3. 임대료 협상 난항에 노조 시위도

YTN은 그때까지 서울타워에 대한 임대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보고 적정 임대료 산출에 들어갔다. 소유주였던 체신공제조합이 비영리단체여서 수익성

을 크게 따지지 않았고 지상파 방송사의 막강한 힘에 눌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받아 왔었다.

YTN은 전문 컨설팅기관인 KPC(한국생산성본부)에 시장원리에 맞는 적정임대료 산출을 의뢰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정부산하기관이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때 임대료를 산출해 주는 일도 하고 있었다. 시장원리에 맞는 이익을 확보하고 서울타워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현실화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지상파 3사는 인상률만 문제 삼아 “10% 이상 인상은 불가”라며 맞섰다. 지상파 3사는 한술 더 떠 “YTN이 독점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몇 차례 조정해 가며 지상파 3사와 절충을 시도했지만 지상파 3사는 막무가내로 버텼다.

임대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서울타워를 매입할 때 거액을 출자한 사원들이 행동에 나섰다. YTN 노동조합(위원장 이재철 기자)은 11월 23일 「서울타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타워 안에 있는 지상파 송신시설을 점거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결사적으로 저지해 진입이 무산되자 지상파 3사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규탄하며 노상시위를 벌였다. 지상파 3사는 이같은 실행행사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재를 포기하고 방송위원회로 안건을 이관했다. 임대료 협상은 해를 넘기고 말았다. 참다 못한 노조는 2001년 1월 8일 두 번째로 서울타워 점거를 시도했다.

경찰이 또 다시 저지하자 흑한 속에 서울타워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서울의 날씨는 영하 8도, 고도가 높은 서울타워 부근은 영하 10도 이하였다. 여기에도 매서운 바람까지 몰아쳤다.

임대료 협상은 두 달 뒤인 3월 11일 방송위원회 중재로 마침내 타결됐다. 지상파 3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임대료로 97억86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방송사별 분담액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KBS가 절반쯤 부담했다. 정식계약은 2001년 12월에 이뤄졌다.

제3절 : 사원 마음에 상처도 준 코스닥 주가

1. 상한가 치다 최저가로 곤두박질

YTN은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YTN의 코스닥

흑한속 노조원들의 농성: 지상파 3사의 서울타워 임대료 협상을 촉구하며 항의 농성 시위를 벌인 YTN 노조원들. 서울타워 정문 앞 도로에서 1월 5일부터 4일간 추위와 폭설 속에 농성했다(2000)



등록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1998년 11월 100억 원을 증자할 당시 YTN 임직원 은 체불임금의 일부인 32억5000만 원을 투자했었다. 당시 장명국 사장은 “장차 YTN이 흑자경영을 해서 등록하면 주식이 큰 폭으로 뛰어 주식을 사둔 임직원들은 큰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이미 코스닥 시장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여기에 서울타워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20억 원을 공모증자했기 때문에 투자이익을 환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코스닥 등록은 빠를수록 좋았다.

YTN은 3월 14일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액면가를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분할했다. 코스닥 등록 기업 대부분이 액면가가 5000원이거나 5000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또 상무이사에 이동근 보도국장, 상임감사에 김광일 전 KBS 부산 총국장을 선임했다. 증권거래법의 코스닥 등록요건에 따라 상임감사를 처음으로 선임한 것이다. 이같은 준비작업을 거쳐 4월 27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석달 만인 7월 26일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YTN은 이미 주식 분산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별도의 공모증자 없이 곧바로 등록됐다.

2001년 9월 4일 첫 거래가 이뤄졌다. 공모증자를 실시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코스닥 시장에 마침내 입성한 것이다. 시초가격은 1246원. 액면가는 5000원이었지만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대 1.5의 비율로 적용한 뒤 가중 평균해

산정했기 때문에 시초가격이 이처럼 낮아졌다.

YTN 주식은 등록 직전 장외시장에서 6000원을 돌파하고 있었다. 때문에 등록하자마자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9월 11일 미국에서 동시 테러가 일어나 전 세계의 주가가 연일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YTN 주가는 상한가 8일을 포함해 9일 연속 상승했다.

14일에는 614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하락을 계속해 그해 12월 19일에는 최저가인 2780원까지 떨어졌다. 주가에 관한 한 화려한 시절은 가고 암흑의 시대가 온 것이다. 다음해에도 주가에 봄은 오지 않았다.

“자본금 비해 영업이익 너무 낮았다”

주가가 이처럼 액면가를 밑돈 것은 자본금이 2100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덩치 큰 대형주였지만 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1년 상반기 중 매출은 249억 원, 당기 순손실은 9억 원에 이르고 있었다. 주식담당 최유석 사원은 당시 주가 추락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자본금 대비 영업이익률이 2배 이상 돼야 영업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YTN은 당시 영업이익이 많아야 20억~30억 원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자본금은 2100억 원에 달했다.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당기 순손실이 60억 원을 넘어서면서 주가는 더욱 추락했다. 여기에도 코스닥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YTN 주가도 추가 하락을 거듭해 2002년 12월 30일에는 1370원까지 떨어졌다. 해마다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2. 빛까지 낸 우리사주 사원들 큰 손실

주가폭락으로 YTN 사원들도 큰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다. 사원들은 공모증자 당시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70% 할증된 가격으로 주당 8500원(액면분할 기준)에 배당받았다. 우리사주에 배당된 물량은 20%, 액수로는 204억 원이었다. 사원 1인당 5000만 원 이상 투자한 셈이다. 혹은 애사심에서 혹은 자산증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사주 배당물량을 모두 떠안았다. 공모증자 당시에는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열풍이 최고조에 달해 ‘묻지 마 투자’ 경향까지 있었다.

일부 사원들은 자기 몫을 포기한 다른 사원들의 물량까지 떠맡기도 했다. 회사측은 종자돈이 없는 사원들을 위해 한국외환은행과 교섭해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알선했다.

‘코스닥 투자 열풍’에 YTN 사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은행 빛까지 얻어가며 사들인 우리사주조합 주식이었기에 YTN 주식의 폭락은 사원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안겨줬다. 투자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시 주당 2000원에 주식을 처분했다면 평균 투자액을 5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손실액은 4000만 원에 달했다.

IMF 체제 이후 사원들은 급여를 최고 70%에서 최저 50% 삭감당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황금알을 낳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주식마저 폭락해 사원들은 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됐다.

외환은행 대출금 상환도 큰 문제로 다가왔다. 2002년 초부터 상환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원들은 주가가 공모증자 가격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해서 대출을 받아가며 우리사주를 매입했지만 주가 폭락으로 당장 대출금 상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시 YTN 주식은 2000원을 맴돌고 있었다. 이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한다면 대출금의 30%도 갚지 못할 상황이었다. 외환은행 측은 주식을 담보로 80% 이상 대출 받은 사원에게는 대출금의 10%를 갚으면 연장을 승인해 줬다. 80% 이하 대출자에게는 대출금 상환 없이 연장해 줬다. 많은 사원들은 이후에도 대출금 이자 지불과 원금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제4절 : 브랜드 가치 높이기 다각 추진



김종술

- ▲ 1960년 생
- ▲ 경북대 사회학과 졸
- ▲ KBS창원방송총국기자(1987)
- ▲ YTN뉴스총괄부(1994) 사

회1부차장대우(2000) 사회1부차장(2003) 미디어국 해외방송팀장

▲ YTN 보도국 해외방송팀장(2005~)

YTN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제3의 사업에 투자하는 일을 적극 추진했다. 사업영역 확장과 제휴·투자는 YTN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매출을 늘려 재정적 안정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다.

1. 자회사 세우고 제휴·교류 활기

인터뷰

백인호 제4대 사장



-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덩치 큰 서울타워를 매입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 서울타워에다 우리 안테나를 부착시킨 대가로 내는 임대료가 상당한 부담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덜고 YTN이 소유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YTN 수익기반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지

상징성, 방송사로서의 상징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것을 더 평가합니다.

-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게 된 이유는?

▲ 일단 서울타워 낙찰에 성공한 다음 대주주한테 서울타워의 중요성, 방송사와 같은 상징성, 우리 수익기반이 돼서 대주주에게 부담이 덜 나게 하려면 서울타워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

덩치 큰 서울타워 어떻게 매입할 생각했는지요 소유하면 임대료 안내고 튼튼한 수익기반인데

도 않게 정부가 매각을 결정해서 매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YTN이 수십 년, 아니 몇 세기를 갈 YTN이라고 하면 저것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방송사로서 보이지 않는 상징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올리는 거고, 그래서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하겠다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 응찰한 액수 701억 원이 과도한 금액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 입찰에 응할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서울타워 값이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1500억 원까지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액수는 매각 주체인 체신공제조합이 원하는 수준이 되면 매각한다는 것을 대강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일 걱정한 것은 YTN의 라이벌들이었습니다. 당시 SK텔

레콤을 비롯해 쟁쟁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고 KBS 등 방송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돈 많은 세력들 속에서 가장 돈이 열악한 YTN이 입찰에 성공해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어느 수준까지 연구해 봤기 때문이지요. 당시 1차 입찰에서 성공했는데, 2차 3차로 가면 YTN이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2차 3차로 가면 상당한 값을 써 넣기 때문에 1차에 우리가 낙찰 받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신공제조합이 희망하는 수준 근처에서 액수를 써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701억 원 이라는 돈이 그렇게 비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YTN이 서울타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보면 당시에 공공리 수준으로 보았을 때 그만한 투자라는 것은 보기 힘들 겁니다. 본인은 서울타워의

한 일이라 하면 사실 증자에 응해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증자에 응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인수자금을 용자받으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아주 높았어요. 그때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돈은 없고 이미 입찰보증금도 보험회사에서 빌려다 냈습니다. 결국 코스닥에 YTN을 등록시켜 일반공모에 의한 자금 확보, 그 수단을 선택하기로, 그것이 유일했어요. 그 당시에 코스닥시장은 왕성했기 때문에 공모증자에 성공했고… 사실 YTN에는 행운이 있었어요. 증자액 600억 원에 YTN의 성장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 70% 할증 프리미엄을 가산해 1020억 원을 조성한 것이지요. 이 돈으로 서울타워를 인수하고 일부 돈으로 남아 있던 부채를 갚고, 아마 일부 남아있는 돈을 YTN 사옥을 매입하는 데 보탬을 겁니다.

(현 광주일보 사장)

1호 자회사 「디지털 캐스트」 설립

「디지털캐스트」는 2000년 6월 17일 YTN이 창사 이후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다. 방송장비와 전송장비의 디지털화에 대비한 장비개발업체다. 설립자본금은 7억 원으로 YTN 40.07% (사원 지분 포함), 3R 38.5% (사원 지분 포함), 일본의 이케가미 21.43% (관계자 지분 포함)로 구성됐다. 필요할 때에는 증자와 협력업체를 영입하기로 했으며 이때에도 YTN이 최대 지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YTN의 투자액은 법인이 1억7900만 원, 우리사주 지분 1억4400만 원이었다.

3R (사장 장성익 공학박사)는 1995년 개국 초에 YTN의 증권스크롤을 개발한 이후 YTN과 지속적으로 기술교류를 해왔다. 디지털 영상저장 장치인 DVR를 독자개발해 영상 압축기술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당시로서는 잘나가는 벤처기업이었다.

이케가미는 세계적인 방송장비 제조업체다. 유력방송사와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 생산과 유통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출자한 디지털캐스트는 전도가 유망한 것처럼 보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지상파와 위성방송의 경우 2001년까지, 케이블 TV와 중계유선방송은 2002년까지 디지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예상투자액은 3조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방송장비는 일본제품이 독식하고 있었고 한국의 관련 대기업도 일본기업의 아성을 뚫는 것이 역부족이었다. 디지털캐스트는 방송용 디지털 전송장비와 디지털 방송장비를 개발해 제품으로 생산하고 각종 방송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상품화할 계획이었다.

디지털캐스트에 대한 사원들의 기대도 높아 YTN 지분 중 임직원에게 배당된 물량은 인기리에 소화됐다. 사원 1인당 투자액은 평균 30만 원 정도였다. 2001년 10월 5일에는 강진이 YTN 기술국장이 디지털캐스트 사장에 취임했다. 한때 기술국 사원 7명이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김환명

▲ 1967년 생
▲ 원광대 회계학과 졸, 동국대대학원 언론홍보학 석사
▲ YTN 총무부 (1995) 기획관

리부

▲ YTN 인력관리팀차장대우(2005~)

문자뉴스 서비스 「YTN 네트워크」

YTN은 (주)엠디에스프레이닝과 공동으로 2001년 8월 23일 무선 전광판을 이용한 24시간 문자 뉴스 서비스 회사인 「YTN 미디어넷」을 설립했다. 출자비율은 50대 50. 당시 YTN은 1억 원을 출자했다.

YTN 미디어넷은 엠디에스프레이닝이 개발한 무선 LED 전광판을 이용해 고



수송동 구사옥 영상자료실(2004. 2. 10)

속도로 휴게소나 은행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24시간 문자뉴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수입은 전광판 광고에 의존하지만 통신회사의 고속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동영상 뉴스가 가능하게 되면 전시회나 이벤트, 스포츠 마케팅과 같은 수익사업도 벌인다는 구상이었다.

YTN은 9월 20일 서울타워에서 YTN 미디어넷 출범과 유료시청 300만 가구 돌파를 기념해 축하연을 개최했다. 축하연에는 이한동 국무총리, 한광옥 민주당 대표, 고 건 서울시장,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정·관·재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YTN 미디어넷은 2002년 10월 7일 서울지역 10개 대학 캠퍼스에 YTN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YTN 미디어넷은 나중에 사명을 「YTN 네트워크」로 변경했다. 또 다른 자회사인 「YTN 미디어」가 탄생하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디지털 YTN」 NHN과 공동설립

YTN은 2003년 4월 29일 인터넷 포털업체 NHN과 공동으로 「DIGITAL YTN」을 설립했다. 출자비율은 50대 50으로 두 회사가 각자 10억 원씩 출자했다. 디지털 YTN은 YTN의 24시간 뉴스콘텐츠를 활용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뉴스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을 사업모델로 삼고 있다. YTN의 콘

텐츠와 NHN의 기술력이 결합한 것이다. 여기에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를 개발해 다양한 플랫폼에 제공하는 신규 수익모델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YTN은 YTN 홈페이지(www.ytn.co.kr) 운영권과 유무선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YTN은 인터넷 관련 업무와 인원을 모두 디지털 YTN에 넘겼다.

디지털 YTN이 운영하는 YTN 홈페이지는 네티즌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출범 초기 인터넷 생방송은 시청률이 평균 400% 이상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2003년 11월 11일에는 무려 1000%까지 치솟았다. 인터넷에서 실시간 방송, 생중계만은 YTN을 따라갈 매체가 없는 셈이다. 디지털 YTN에 파견된 장기영 사우는 인터넷 동영상의 시청률 상승 원인에 대해 “돌발영상, 현장 생중계, 미디어 브리핑과 같은 차별화된 콘텐츠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른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시원치 않다”며 “‘역시 YTN이야’란 이미지를 심어줄 질 좋은 뉴스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디지털 YTN은 사업 1차연도인 2003년에 100만 원 흑자를 냈고 2004년에는 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5년에는 1억~2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정보 포털업체 「타운뉴스」에 출자

YTN은 2000년 7월 22일 지역생활정보업체인 「타운뉴스」에 3억 원을 출자했다. 당시 타운뉴스는 전국에 300여 에이전트, 16개 지사, 3000여 명의 프리랜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정보를 취재하고 있었다. 온라인 지역정보 사업체인 타운뉴스는 당시 사이버 정치광장 사이트(www.emocracy.co.kr)를 인수했다.



김희중

▲ 1947년 생
▲ 서울대 경영학과 졸,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 매일경제 경제부(1971), 경향신문 경제부(1977) 경제부장 편집부 국장 광고본부장(1997) 편집국장(이사, 1999) 편집인 겸 경영전략본부장(2000) 부사장 겸 편집인(2001) 강원대 초빙교수

▲ YTN 상임감사(2004~)

전송망 안정위해 파워콤 주식 입찰

YTN은 2000년 7월 24일 파워콤 주식입찰에서 3만 주를 주당 3만 원에 낙찰 받았다. 액면가는 5000원. 파워콤은 한전이 전송망 사업을 이관하면서 설립한 자회사다. 파워콤 주식 확보에 나선 것은 투자이익을 얻는 목적 이외에 전송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파워콤 망은 YTN이 취재 중계망으로 사용하고 있고 SO도 프로그램 분배망으로 이용하고 있다. 파워콤은 이후 LG그룹으로 넘어갔다. 전송망 사업에서 출발

했지만 초고속 인터넷 사업까지 진출해 본격적으로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FM 방송 맡을 YTN FM도 설립

YTN은 2001년 3월 9일 KDB(한국디지털위성방송) 법인설립 당시 5억2800만원(9만6000주)을 투자했다가 그해 말 대부분 처분하고 자금을 회수했다. 현재 보유주식은 2880주. 2003년 2월 9일에는 위성DMB 사업자인 TU 미디어 유상증자에 5억 원을 투자했다. 또 그해 5월 25일 FM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 YTN FM을 설립했다. YTN FM에는 1대 주주로 참여했으며 투자액은 30%인 3억 원이다.

2. 관심 모은 공익사업 · 캠페인

FIRA- KOREA 로봇 축구대회

「제1회 FIRA- KOREA 로봇축구대회」는 1999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렸다. 로봇축구대회는 세계로봇축구연맹 한국과학기술원 YTN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로봇축구협회가 주관했다.

로봇축구대회로서는 국내의 첫 공식 대회여서 관심도 높아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와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이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회에는 그해 월드컵대회를 석권한 국내 대학과 고교 29개 팀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다.

이 대회 왕중왕인 대학 1부 코리안 리그에서는 성균관대 KINGGO, 고등부에서는 서울과학고 Ropert가 우승했다. 우승팀인 성균관대 KINGGO가 300만원, 서울과학고 Ropert는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다음해 호주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제2회 FIRA- KOREA 로봇축구대회는 1회 대회 때의 두 배가 넘는 66개 팀이 참가해 2002년 11월 23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개막식에는 이한동 국무총리,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과 초·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석해 묘기를 발휘했다. 코리안 리그에는 포항공대의 마스크로 팀이 전년도 우승자인 성균관대 KINGGO 팀을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두 번에 걸친 로봇축구대회 개최 경험을 살려 YTN은 「2002 FIRA컵 로봇축구세계대회」를 주관했다. 이 대회는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를 기념해 5월

로봇축구 세계대회 : 2002 한·일 월드컵을 기념해 열린 FIRA컵 로봇축구세계대회는 서울을 비롯,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6개도시에서 열렸다. 세계 24개국 75개팀과 국내 126개팀 등 201개 팀이 출전, 우승은 성균관대 KINGGO 팀이 차지. 사진은 시상식(2002. 5. 23~28)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월드컵 개최도시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열렸다. 참가국은 세계 24개국 75개 팀과 국내 126개 팀, 모두 200여개 팀이었다.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본선대회를 치러 최종우승팀을 가려냈다. 최종우승은 성균관대 KINGGO 팀이 차지했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세계석학들이 참석하는 「2002 FIRA 로봇 학술대회」와 대학, 연구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로봇을 전시한 「한국지능로봇전시회」도 열어 첨단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로봇축구대회는 포스코가 협찬하고 로봇축구협회에서도 지원했다. 그러나 대회 규모가 커지면서 협찬 기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이후는 중단됐다.

연중 캠페인 「훈장을 찾아드립니다」 큰 반응

훈장 찾아주기는 2000년 연중캠페인으로 1월 10일부터 시작했다.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사람은 16만2950명. 하지만 9만여 명이 전쟁 외중에 사망했거나 서류미비로 훈장을 찾아가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YTN은 2000년이 6·25 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훈장 찾아주기

에 적극 나섰다. 매일 30명씩 명단을 제작해 방송하기 시작했다. 훈장 찾아주는 대성공을 거뒀다. 캠페인 시작 10일 만에 20명 이상이 YTN을 보고 훈장을 찾아갔다. 1차 캠페인이 끝난 그해 12월까지 훈장을 찾아간 사람은 1096명이었다. 2차 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은 다음해인 200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했으며 이때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소문을 듣고 국방부에서 훈장을 찾아간 사람이 계속 늘어나 모두 2300여 명에 달했다.

훈장 찾아주기는 당시 사업1부 심창래 차장대우의 아이디어였다. 심 차장은 고양시 덕양 거주 회사 주당(酒黨)들의 모임인 덕양 주민회(酒民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다음은 심 차장이 2000년 1월 10일자 사보에 쓴 내용이다.

“여느 때처럼 그날도 술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총무부 모 인사의 일방적인 열변이 있었다. 부친이 와병 중에 죽음을 직감하셨는지 50여 년 전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 훈장얘기를 했다. 한 달 동안 백방으로 뛰어다녀 50여 년 동안 잊고 있었던 화랑무공훈장을 며칠 전에 찾았으며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보훈병원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하기 시작했다. 6·25 전쟁 당시 전공을 세워 훈장자격을 받은 사람은 17만여 명이며 이 중 9만여 명이 아직도 훈장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00년은 6·25 발발 5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컸다.”

업계의 인지도 높은 「벤처 디자인상」

YTN은 2000년 3월부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이달의 우수 벤처디자인상」을 제정하고 시상에 들어갔다. 벤처디자인상 제정은 당시 국가적 화두로 등장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디자인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이랄 수 있다. 이같은 핵심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우수 디자인 개발과 벤처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3월 첫 수상작으로는 코스텔 주식회사의 「인터넷 손목받침대」가 선정됐다. 키보드 손목받침대에 전화기를 첨가한 형태다. 컴퓨터 사용자를 위해 키보드 조작과 동시에 전화사용이 가능한 아이디어 제품이었다. 4월 수상작은 (주)비디코리아의 스포츠 선글라스인 「스키드-에오스」가 선정됐다. 충전의 외제품을 복사한



6·25 전쟁 50주년 YTN 특별기획 「훈장을 찾아드립니다」 방송 로고

벤처디자인상 : 2000년 4월 「이달의 벤처 디자인상」 시상식.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왼쪽에서 3번째)이 우수상인 (주)비디코리아의 스킨드-에오스(스포츠 선글라스)를 들고 있다



수준에서 벗어났고 한국인의 얼굴에 맞게 디자인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벤처디자인상은 2003년 말까지 매달 선정했으며 2004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선정하고 있다. YTN에서 최장기 사업이 됐다. 문화사업팀 박기용 사우는 “벤처디자인상 시상식이 이처럼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디자인업계에서 YTN에 대한 인지도는 한층 높아졌다”고 평했다.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캠페인

YTN은 법무부,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국민들에게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고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방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2000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0개월간 매달 2편씩 모두 20편을 제작해 날마다 5~6회씩 방송했다.

당시 국내는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가 대량 밀반입돼 국내 마약투여 사범이 급증하고 있었다. 마약은 폭력조직과 연계되거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번지는 추세였다. 가정주부나 청소년층에까지 파고들어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YTN 영상제작팀(팀장 심창래)은 2001년 제 11회 마약퇴치대상(보도·국제협력 증진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대한매일신문(현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하는 상이다.

마약퇴치 캠페인의 편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편: 공포의 백색가루 마약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대표적인 마약인 필로폰, 대마, 헤로인, 코카인의 특성을 상세히 소개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제2편: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

1989년부터 10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5만2431명으로, 그 이전 10년에 비해 273% 급증했음을 지적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제3편: 여성과 청소년까지 마약을!

여성마약사범은 1년 전에 비해 71.5% 증가해 남성 사범 증가율 19.9%를 크게 앞질렀다. 청소년 마약사범도 전체의 0.9%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제4편: 세계인구의 4.1%가 마약중독자

전 세계 마약중독자는 세계인구의 4.1%인 1억62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제5편: 파멸의 구렁텅이 마약

마약은 상습적으로 투여하면 정신이상이나 경련, 혼수상태,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죽음의 약물이다.

제6~8편: 마약의 폐해

마약 상습 투여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마약의 폐해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제9편: 마약 루트를 잡아라!

검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내 마약제조사범은 줄었지만 중국이 마약 제조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계 마약 밀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지 못하면 국내 마약사범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영상학도 축제 「대학생 영상공모전」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은 2001년 7월 시작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열리고 있다. YTN과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전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대학생 공모전이며 명실상부한 전국 영상학도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작품 중심으로, 시작 당시 최우수 상금은 400만 원, 상금 총액은 1700만 원이었다.

1회 대회 때에는 출품작이 적을 것을 걱정해 전국 180개 대학에 모두 포스터를 보내고 도착여부를 일일이 점검했다. 한국 언론학회 회원 명단을 확보해 이메일도 보냈다. 마감일에는 59편이 접수됐다. 대성공이었다. 제1회 대회 최우수 작품

대학생 영상공모전 : YTN 대학생영상공모전 제3회 시상식 (2002.7.19). 우수 영상인력 발굴과 방송영상문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기도 후원으로 개최



상에는 부산동명정보대 「사라지는 옹기」와 동아방송대의 「소리로 빛는 예술, 옹기」가 선정됐다.

YTN배 특별경주 · YTN배 경륜대회

경마를 국민의 건전한 레저 활동과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마사회와 공동으로 「YTN배 특별경주」를 개최했다. 제1회 대회는 2000년 8월 13일 과천 서울경마장에서 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한 「YTN배 경륜대회」는 2002년 7월 28일 잠실 경륜장에서 열렸다.

3. 인터넷 방송 · 이동전화 뉴스 서비스 시작

1999년도에는 IT(정보기술)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져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2~3년 안에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주변 환경 변화는 방송사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SBS는 그해 8월 자본금 30억 원으로 (주)SBSi를 설립하고 하나로통신과 제휴, 인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했다. KBS는 11월 한국통신과 제휴해 인터넷 방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MBC도 인터넷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부를 생중계했다. YTN은 인터넷 방송에서 지상파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확대

YTN은 1999년 8월 18일 하나로통신과 제휴해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했다. 초고속인 하나로통신망을 이용해 하나로통신 사이트에서 YTN 생방송을 볼 수 있게 했다.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도 가능했다. 이어 두루넷, 드림라인과 계약해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확대했다. 당시 YTN 인터넷 방송 사이트는 <http://www.hananet.net>(하나로)<http://www.thrunet.com>(두루넷)<http://www.dreamline.co.kr>(드림라인)이었다. 12월 13일에는 야후코리아와도 인터넷 방송 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야후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YTN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4. 홈페이지 구축 ... 생방송 뉴스 시청

YTN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은 개국 1년 뒤인 1996년 6월 1일이다(<http://www.ytn.co.kr>). 그러나 이때는 카탈로그 형태로 회사를 소개하는 정도였다. 주요뉴스는 게시판에 올려졌다.

홈페이지에 동영상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2000년 7월 14일부터다. 5개월 준비 끝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때부터 YTN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생방송으로 뉴스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 구축작업은 김사모 사업2부장 김정대 차장 김도현 사원이 맡았다. 이후 인터넷 기업 NHN과 합작으로 「디지털 YTN」을 설립하면서 YTN 홈페이지 운영권도 디지털 YTN으로 넘어갔다.

「15-2424」 국내 첫 실시간 음성 서비스

YTN은 SK텔레콤과 협정을 맺고 1999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YTN 실시간 청취 서비스'를 시작했다. 011 이동전화 가입자가 15-2424를 누르면 YTN 생방송으로 연결돼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동전화를 통한 실시간 음성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YTN이 처음 시작했다. 통신료 외에 정보제공료는 무료였다. 011 음성 서비스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이용횟수가 6만3000회를 돌파했다. 하루 평균 2100회 접속한 셈이다. 토·일요일보다 평일에 이용자가 많았다.

YTN은 이동전화 017, 019을 통해서도 2001년 3월 12일부터 실시간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011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15-2424만 누르면 YTN을 실시간

고품질 동영상 YTN 홈페이지 : 2001년 9월 10일 고품질 동영상 VOD 서비스 체제로 개편된 YTN 홈페이지를 네티즌에 서비스하기 시작했다(화면은 2001년 12월 1일자 뉴스 서비스)



으로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는 2700만 명. 이 중 54%인 1500만 명이 이동전화를 통해 YTN을 청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YTN은 2002년 4월 1일부터는 한국통신 자회사인 KTF(016, 018)에도 실시간 음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번호는 200- 2424. 이로써 국내의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가 YTN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당시 이동전화 가입자의 월평균 이용횟수는 30만 회에 이르렀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된 1999년 당시 월 평균 3만 회에 비해 무려 10배 늘어난 것이다. 이는 YTN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도 중요한 뉴스 제공원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이동전화 실시간 동영상 뉴스 서비스

음성 서비스 다음에는 문자 서비스, 그 다음에는 동영상 서비스로 발전해 가는 것이 순서다. YTN은 2002년 3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방송인 Nate Air에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했다(011 Nate Air 서비스).

Nate Air 서비스는 011, 017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유료서비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간략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세한 내용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문자나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동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하루 6차례 중요 뉴스와

긴급 뉴스를 자막으로 가입고객에게 전달했다.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어 가입자는 두 달 만에 3만5000명, 8월 12일에는 10만 명을 돌파했다. 12월에는 18만 명에 이르렀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2002년 말 종료되고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가 시작됐다.

첫 동영상 서비스는 2002년 12월부터 SK텔레콤의 프리미엄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준(June)을 통해 011, 017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03년 1월에는 한국통신 자회사인 KTF(016, 018)의 모바일 서비스 Fimm에도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

June이나 Fimm은 문자서비스 위주인 제 2세대를 뛰어넘는 제 3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 통신과 인터넷은 기본이고 VOD(주문형 비디오)에다 실시간 동영상 뉴스까지 시청할 수 있다. 이제 YTN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듣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격상된 것이다. 이동전화는 점차 정보생활의 중심수단으로 부각됐다. 언론매체로서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새로운 수익창출도 가능하게 됐다.

제6장 뉴스채널 특성살린 특별 편성

제1 절 : 대형뉴스 특보체제 시청률 급상승

2000~2002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유난히 큰 뉴스가 많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과 같은 뉴스가 잇따랐다.

또 9·11 미국 동시테러에 이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공격, 이에 맞선 보복테러... 굵직한 국제뉴스도 숨 돌릴 틈 없이 일어났다.

YTN은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뉴스특보 체제를 가동했다. 9·11 테러 당시에는 73시간 뉴스특보를 내보냈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 때에는 무려 27일간 특보 체제를 유지했다. 특보체제에 들어가면서 시청률이 급상승했다. 낮 시간대에는 지상파 시청률을 웃돌았다. 특보가 뉴스전문 채널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편성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1. 평양 남북정상회담 모든 과정 '특보'로

김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 사상 처음 평양을 방문해 김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일정은 2박 3일. 하이라이트는 첫날 김 대통령이 평양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위원장이 영접을 나와 포옹하는 장면이었다.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서 포옹하는 장면은 생방송으로 국내외에 생생히 전해졌다. 당일 있었던 1차 정상회담, 다음날의 2차 정상회담, 마지막 날의 6·15 공동선언 발표에 이르기까지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굵직굵직한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YTN은 이 모든 과정을 뉴스특보로 처리했다. 화면송출은 지상파 3사와 YTN의 POOL로 이뤄졌다. 당시 김 대통령을 수행 취재했던 채문석 정치부 차장대우가 사보(2000년 7월 3일)에 쓴 취재기.

안내원 중 한 사람이 '김정일 장군이 나왔습네다' 라고 말했다. 모두 환영식장으

로 뛰어나갔다. 이미 환영식이 끝나고 김정일 위원장이 차량에 동승하는 장면만 목격됐다. 김용순 대남담당비서가 영접하리라는 예상을 깨버린 것이다. 파격적인 영접에 모두 놀라움을 표시했다. 나는 정상회담의 성과가 좋을 것임을 직감했다.



2000년 8월 4~12일 언론사 사장단의 북한 방문 기간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자리를 함께한 백인호 사장(오른쪽)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취재했던 정치부 강수연 기자도 사보(2000년 7월 3일)에서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김정일이 공항에 직접 나온대.”

정상회담 첫날, 프레스센터의 커다란 멀티비전에 평양에서 송출되는 컬러바가 뜨기 시작할 때 중계에 대비하고 있던 김호성 선배가 말했다.

“설마 김정일이 나오려고...”

몇 분 뒤, 엄청난 함성이 들리면서 머리끝이 주뻗주뻗 섰고 프레스센터의 웅성 거림은 박수로 이어졌다. 기자들을 초추점으로 만든 역사적인 순간은 그렇게 시작됐다.

2. 「남북 이산가족 상봉 - 50년 벽을 넘어」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성명에 따라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에 한차례 이뤄졌다가 중단된 이후 실로 15년 만에 재개됐다.

YTN은 이 기간 동안 「남북이산가족 상봉-50년 벽을 넘어」라는 타이틀로 특보체제로 방송했다. 첫날 15일은 오전 7시부터 이산가족 도착-상봉-숙소-오찬 장면과 8·15 기념식, 보신각 타종, 통일맞이 대동제 현장을 특보로 처리하고 16일과 17일은 수시로 특보방송을 했다.

첫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뤄진 상봉 순간은 생방송으로 보도돼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당시 평양 이산가족 상봉 생방송은 남북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3사와의 공동으로 이뤄졌다. YTN은 김호성 조용원 기자를 파견했다. 조용원 기자의 회고.

당시 평양에서 서울로 그림을 어떻게 송출하는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생방송일 때에는 서울에서 '큐' 사인을 받지 못해 방송 시간을 정해 놓고 평양에서 기자가 스탠바이했다가 시간이 되면 바로 멘트를 시작하는 식이었다. 당연히 블랙화면이 그대로 생방송으로 나가기도 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 처음으로 특보방송에 대한 시청률 조사가 이뤄졌다. TNS 미디어 조사를 보면 이산가족 상봉을 특보로 방송한 8월 15일 YTN 시청 점유율은 휴가철이어서 뉴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7.5%로 나타났다. 8월 1~15일 평균 시청률 4.8%보다 2.7% 포인트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케이블 채널 중에서는 4위였다. 당시 TNS 조사는 초창기여서 샘플이 130개밖에 되지 않고 샘플 구성도 비활동적인 사람과 어린이로 돼 있어 자료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프로그램별 시청률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3. 「9·11 미국 동시테러」 73시간 특보방송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동시테러 사건이 터지자 YTN은 속보체제에 들어갔다. 테러 발생 1시간 뒤인 11일 밤 11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장장 73시간 뉴스특보를 내보냈다. CNN 속보를 신속히 동시통역하고 워싱턴의 류희림 특파원, 매마침 뉴욕에 가 있던 김호성 차장대우, 뉴욕 유엔대표부 직원과 교민들을 수시로 전화 연결해 현지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김 차장대우는 테러사건 발생 하루 전인 9월 10일 뉴욕에 도착해 있었다.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것을 동행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출발할 때에는 짐짚은 장관 동행취재였지만 현지에 도착해서는 저돌적인 사건기자로 돌변해 있었다. 고생은 했지만 기자로서는 역세계 운이 좋은 셈이었다.

김호성 차장 대우의 당시 상황 회고(사보 2001년 9월 29일)

화염에 휩싸인 월드 트레이드센터를 TV 모니터를 통해 바라보고 있을 때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다. 'Planes were hijacked before crashed'. 호텔 전화 버튼을 연방 눌렀지만 불통. 5블록 떨어진 유엔대표부 건물로 달렸다. 맨해튼의 아침은 별집을 쭈셔놓은 듯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15분, 마침내 전화 연결 성공. 10시 29분 두 번째 월드트레이드센터가 주저앉았다. 이후 1시간 단위 피해 상황 속보전달 시작.

김 차장대우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열두 차례 전화로 현지상황을 보도했다. 김 차장대우는 다음날에도 유엔대표부 7층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교민들의 피해상황 보도에 주력했다. 마침내 최초로 37명의 한국인 피해자 명단을 입수해 보도했다.

46개 채널 중 6일 연속 시청률 1위

9·11 테러 사건 이후 YTN 시청률은 수직상승했다. TNS 미디어 코리아에 따르면 참사 다음날인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동안 YTN 시청률은 조사대상 전체 46개 채널 중 6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12일에 11.9% 13일 22.1% 14일 18.7% 15일 17.6% 16일 17.1% 17일 14.7%였다.

TNS 미디어 코리아는 YTN 시청률이 급등한 것은 특별편성을 통해 하루 종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테러관련 속보를 신속하게 시청자에게 알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지상파를 포함해 산출한 YTN의 전체 시청률도 급등해 하루 평균 시청률 1.41%를 기록했다. 뉴스전문 채널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류재복
 ▲ 1967년 생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졸
 ▲ KBS 아나운서(1991)
 ▲ YTN(1995) 사회부시경출입
 ▲ YTN 보도국 정치부차장대우(2005~)

4. 노무현 후보 단일화 뉴스 집중 보도

2002년 11월 25일 자정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해 두 당의 단일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다. 여론조사 기관 R&R의 조사에서 노 후보가 46.8%를 얻어 42.2%를 얻은 정 후보를 앞선 것이다. YTN은 단일화 소식을 뉴스특보로 편성해 집중보도했다. 당시 TNS 조사로는 25일 오전 11시 시청률이 1.22%를 기록했다. KBS1은 3.46% MBC 1.81% SBS 1.76%였다. 낮 시간대 시청률은 지상파에 비해 밀리지만 그래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5. 지상파 시청률을 처음으로 앞질러

제 16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2002년 12월 18일 밤 11시 국민통합 21 정 대표는 갑자기 노 후보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박빙의 승부를 점치고 있던 판세에서 정 대표의 지지철회 선언은 대선정국을 극적인 상황으로 몰고갔다. 당일 밤 11시 시청률은 1.29%로 평소보다 3배 높게 나왔다. 다음날 새벽 1시 시청률은 3.24%까지 치솟아 처음으로 지상파 시청률을 앞질렀다. YTN 시청률이 지상파를 앞선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당시 새벽 1시 지상파 시청률은 KBS1 1.56% MBC 2.18% SBS 2.98%였다.

선거일인 19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가까운 시청률을 보였고 이날 하루 평균 시청률은 0.99%를 기록했다. 9·11 테러사건 직후인 2001년 9월 13일 하루 평균 시청률 1.4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6.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특보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5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 역 전동차에서 승객 김대한 씨(당시 57세)가ライター로 휘발유통에 불을 질렀다. 불은 삼시간에 객실 안으로 번졌고 맞은편에 있던 전동차로 옮겨 붙었다. 순식간에 192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왔다. YTN은 사고발생 20분 만에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 화재'라고 자막을 내보내는데 이어 10시 30분에 첫 보도를 했다. 11시 14분부터는 현지의 생생한 화면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오후 3시에는 뉴스특보를 편성해 대응했다.

7. CNN보다 빠른 이라크전 개전 1보

YTN은 미국의 침공이 시작되기 2시간 전인 2003년 3월 20일 오전 9시부터 이라크 전역이 함락된 4월 15일까지 27일간 뉴스특보를 편성했다. 개전 1보인 바그다드 공습 시작은 오전 11시 34분 AP통신을 인용해 자막으로 최초 보도했다. 미국의 NBC는 11시 32분, CNN 11시 36분, FOX 11시 39분에 제1보를 내보냈다. YTN의 개전 제1보는 CNN보다 2분 빨랐던 것이다.

YTN은 개전 제1보에 이어 CNN을 동시통역으로 처리해 「이라크 대공포 발사」 「2차 공습」 「부시 대통령 전쟁 선언」 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당시 동시통역에서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대학원 곽중철 교수가 출연했다. YTN은 개전 이후 전황 속보를 500여 건 내보냈고 미국과 반대되는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 「아랍 언론 시각」 코너를 마련했다. 이라크전 특보편성으로 시청률이 또 다시 급상승했다. 이라크전이 발발한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YTN의 케이블 TV 시청 점유율은 평균 13.15%를 차지했다. 전쟁 전의 평균 점유율 6%에 비하면 2배 이상 상승했고 케이블 62개 채널 중 1위였다. 개전이후 한달 동안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날은 모두 18일간, 2위 6일 3위 3일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연속 점유율 수위를 지켜 2001년 9·11 테러 당시 6일 연속 1위 기록을 경신했다.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시청률은 전쟁 이후 한 달간 평균 1.15%를 기록, 전쟁 전 0.5~0.6%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미·영 연합군과 이라크 간의 교전상황을 집중 보도한 3월 23일(일) 오후에는 최고 4.31%까지 치솟았고 하루 평균 시청률도 1.66%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시청률로는 역대 최고였다. 전체적으로는 지상파 3사보다는 낮았지만 일부 낮 시간대에는 지상파를 앞지르기도 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케이블 TV 가입 700여 가구였다.

제2절 : 화면 빛낸 특종 · 우수 프로그램

1. “몸 값 4억 5천만원” 모녀 납치사건

1999년 4월 초 토요일 밤 늦은 시각 광주지사 김범한 기자는 전남경찰청 폭력계 사무실에 옷 잘 입고 품위 있게 보이는 아주머니가 와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폭력계에 돈 많게 보이는 아주머니!



문재철

▲ 1958년 생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KBS(1981) 외신부 정치부 워싱턴 특파원(1993)

▲ YTN사회부차장(1994) 워싱턴특파원(1995) 국제부장(1999) 퇴사(2000)
▲ STG 시큐리티 대표이사(2005~)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 는 느낌이 들었다. 귀동냥 끝에 모녀가 납치됐다가 몸값으로 4억5000만 원을 주고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취재는 난관에 부딪혔다. 어머니는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고 두 번째 납치된 뒤에야 경찰서를 찾았다. 납치인지 자작극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에이 4500만 원이겠지. 두 번이나 납치됐는데 신고도 안 했겠어?' 몸값 4억5000만 원은 당시까지는 최고 액이었다. 더구나 당시는 외환위기 중이어서 현금이라면 단돈 한 푼 아쉬운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친정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가 두 번 납치됐고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적어도 자작극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경찰을 통해 취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경찰 측이 엠바고를 걸 게 뻔했다.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데…'

때마침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확보했다. 고대하던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방송 10분 전에 수사책임자에게 돈 액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5월 10일 아침 8시에 첫 방송이 나갔다. 또 한번 자작극이 아닌가라는 망령에 시달렸지만 닷새 만에 용의자 8명이 모두 붙잡히면서 시비는 가려졌다. 당시는 외환위기로 YTN 식구가 크게 줄어든 시기여서 광주지사의 특종은 새로운 활력 소로 작용했다.

김범한 김경록 기자는 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지역취재보도)을 받았다.

2. 「대우 계열 12개사 워크아웃」 큰 반향

김우중 회장이 이끄는 대우그룹이 1999년 8월 26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계열 12사의 운영권을 채권단에 넘기는 워크아웃을 단행했다. 당시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결정은 한국 대표기업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나중에 드러났지만 대우의 해외 빚은 국제사회 기업 부도 사상 손에 꼽히는 거액이었다. 경제부 박성호 차장과 김장하 이광업 기자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해 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3. 경찰 롯데호텔 노조원 농성 폭력해산

2000년 6월 29일 새벽 4시 경찰은 병력 300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파업중이던 이 호텔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경찰은 이 과정

에서 노조원들에게 무차별로 진압봉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해댔다. 노조원들은 크게 부상당하고 외국인 투숙객들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영상취재부 한 원상 기자는 이 과정을 고스란히 테이프에 담았다. 한 기자의 영상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주요 외신들도 이 영상을 받았다. 한 기자는 당시 야근하던 중 경찰이 해산작전에 들어간다는 제보를 받고 롯데호텔 주변에서 대기 중이었다. 작전이 시작되자 한 기자는 경찰의 저지를 뚫고 농성현장인 36층까지 올라갔다. 경쟁사 기자들은 1층 로비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경찰은 YTN 보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현장 지휘경찰을 상대로 폭력행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한 기자가 촬영한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고 한 기자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한 기자의 증언과 영상은 노조원이 승소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한 기자는 이 영상으로 2000년 제32회 한국기자상(방송영상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4. 「SK 최태원 회장 부당거래 의혹」

경제부 김영수 기자는 2002년 12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제 2 워커히 호텔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고 설계변경 과정(증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취재해 「8585」(고발 프로그램)로 보도했다. 그 무렵 워커히 호텔 본체의 소유권이 SK 최태원 회장에서 SK글로벌로 변경된 것을 알게 됐다.

증권업계를 오래 출입했던 김 기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워커히 호텔 주식을 주당 4만2000원에 넘긴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 랭킹 1위인 호텔신라의 주가가 5000원 안팎이었다.

그때 모든 언론은 워커히 호텔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만 보도했지 주당 4만원 이상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았다. 김 기자는 호텔 애널리스트에게 기업 분석을 의뢰했다. 그 애널리스트는 매출구조와 자산을 모두 반영해 기업 분석을 해 봤을 때 지나치게 비싸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김 기자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애널리스트의 인터뷰와 회계사의 인터뷰를 넣어 워커히 호텔 3탄 「최태원 회장 부당거래 의혹」을 보도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월 22일 최 회장은 워커히 호텔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수사배경에 YTN



경찰의 롯데호텔 노조원 폭력진압을 보도한 한원상 기자(보도국 영상취재부, 왼쪽)가 제32회 한국기자상(보도영상부문)을 받았다(2001. 2. 8)

의 워커힐 보도 내용을 참고했다고 발표했다. 김 기자와 사회 1부 류충섭 기자는 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취재보도 부문)을 받았다. 당시 검찰을 출입하던 류 기자는 최 회장 구속 사실을 경쟁사보다 앞서 보도했다.

5. 대구지하철 참사 폐쇄회로화면 단독 보도

YTN은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03년 2월 19일 오후 2시 14분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 TV 화면을 단독으로 입수해 방송했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92명. 순식간에 이처럼 많은 사망자가 난 데 대해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원인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었다. CCTV 화면은 사고원인을 규명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때문에 수사를 맡은 검찰은 물론이고 수사 대상이 된 지하철 공사, 앞 다퉈 의혹규명에 나선 모든 언론사가 CCTV 화면을 서로 먼저 구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처럼 피 말리는 상황에서 지원취재를 나왔던 전주지국의 조영권 여승구 기자가 한발 앞서 '보물단지'를 거머쥐었다. 두 기자는 2003년 한국기자상(지역취재보도 부문)을 받았다. 조영권 기자는 CCTV 화면을 입수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밝혔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발생 초기부터 현장을 취재하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중앙로역 CCTV 녹화 테이프’를 찾아 동분서주했다. 대구지하철공사측은 그 시각 영업팀을 통해 비밀리에 지하철 CCTV 녹화 테이프를 거둬들이고 있었다. 중앙로역 CCTV 녹화 테이프에 대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있더라도 화재 발생 상황이 찍혔는지는 알 수 없다”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구지하철 공사 1층에 있는 화재사고 대책본부 출입문을 막 들어설 무렵 직원 2명이 귓속말로 CCTV 화면이 어찌고저찌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고대책본부 간부급 관계자에게 중앙로역 CCTV 소재를 물었더니 관련 부서인 영업팀 모 과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다.

지하철역에 있던 CCTV 화면을 모두 수거하고 있던 공사 영업팀은 CCTV가 외부에 공개될 때의 충격과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6층 영업팀에 들어갔을 때 사고가 난 중앙로역 녹화 테이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중앙로역 관계자가 문제의 CCTV 녹화 테이프를 가지고 영업팀 사무실로 들어왔다.

가슴이 뛰었다. 여승구 기자가 중앙로역 테이프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몸에 불이 붙은 용의자가 전동차를 뛰쳐나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하철 승강장이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3배속으로 녹화된 테이프 화면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촬영했다. 손이 떨리고 전율이 느껴졌다.

그때 공사 감사실 간부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무실로 달려왔다. 약간의 승강이가 있었지만 당연히 우리는 중앙로역 화재 그림을 모두 찍고서 간부들에게 녹화 테이프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장비를 챙겨서 6층 사무실을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있었던 영업팀 옆 안전팀 사무실에서 타사 취재기와 ENG가 눈에 들어왔다. 엘리베이터에도 캠코더를 든 타사 취재팀이 있었다. 일부러 반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구지하철공사를 빠져나왔다.

6. 진대제 장관 공정위조사 방해 등 의혹

2003년 2월 말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30명에 가까운 장관과 장관급,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잇따라 발표됐다. 당시 언론은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모든 취재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진대제 장관은 최고 수준의 학교를 나와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CEO 출신이었다. 민간기업 사장 출신이 정부의 IT 정책을 다룰 정통부장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당연히 언론의 인사검증 작업 표적이 됐다. 경제부 류재복 기자는 진 장관의 이력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미국 생활 중에 장남을 낳았고 장남의 병역과 국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됐다.

곧바로 취재에 들어갔다. 다각도로 확인 작업을 벌인 끝에 의혹은 사실로 나타났다. 최초 보도는 3월 3일. 청와대와 정통부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사장 재직 당시 공정위 조사방해 의혹은 장민수 기자가 내부 문서를 입수한 것을 분석 보도했다. 문중선 경제부장과 류재복 장민수 기자는 이 보도로 기자회견의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7.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종수 한원상 기자가 제작한 「이대로 죽을 순 없다-북한 생존 일본군 중군 위안부의 절규」는 1999년 8월 13일 첫 방송됐다. 25분짜리 특별기획 프로그램인



日帝위안소 청진시 '풍해루' 사진제공 YTN
함북 청진시 방진동에 있는 옛 일본군위안소 건물인 '풍해루'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 남구현씨가 이 건물 앞에서 일제의 위안소 운영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日軍 임신했다고 자궁들어내」

북한 日위안소 피해자 민행폭로

YTN 日작가 필름 입수

함북 청진 방진동
'은월루' 등 2곳설치

한사람 겨우 누울 방서
위안부들 비참한 생활

“일본군들은 내가 임신했다고 자궁을 들어냈습니다.”

함북태생의 일본군 위안부였던 이경생씨(83), 현재 북한에 사는 그의 몸에는 해방 50여년이 지난 뒤에도 이같은 일제 '만행'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다.

케이블TV 뉴스채널인 YTN(채널 24)은 최근 일본인 프리랜서가 지난해와 올해 7월 중순 북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취재해 온 필름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제가 패망할 때

까지 청진시 일대에는 36년에 건설된 은월루(銀月樓), 38년에 지어진 풍해루(豊海樓) 등 2개의 위안소와 성병 진료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층짜리 목조 건물인 은월루에는 20여개의 방이 있었다. 이중 위안부들이 사용하던 방은 15개로 방 한개의 크기가 가로 180cm, 세로 260cm에 불과했다.

현재 은월루는 북한의 진료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풍해루와 당시 성병 진료소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당시 풍해루 근처에 살았으며 현재 이 건물에 입주해 살고 있는 남구현씨(77)는 “이곳에 20명 정도의 위안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YTN은 13일 오전 10시반 이같은 내용을 담은 8·15특집 '이대로 죽을 순 없다'를 방영한다.

<이원홍기자>

bluesky@donga.com

YTN의 8·15 특집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내용을 방영 전에 보도한 동아일보 1999년 8월 13일 시내판 사회면 중간 박스기사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국내방송 사상 처음으로 북한 위안부와 위안소를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동아일보가 사회면 머리기사(1판)로 처리할 정도였다. 프로그램에서는 평양에 살고 있는 중군위안부 출신 생존자 4명의 육성 증언이 소개됐다. 증언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경생 할머니(증언 당시 83세)는 “임신을 하자 일본군이 배를 세로로 가르고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배에 남아 있던 수술자국도 보여줬다. 또 북한 청진에 있는 위안소 2곳의 모습도 공개됐다. 남한에서는 보존돼 있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실물이 남아 있어 일본의 만행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물이 됐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일본인 프리랜서 사진작가 이토 씨가 촬영한 화면을 한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해 제작한 것이다. 이종수 한원상 기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그해 9월 이달의 기자상, 12월에는 대한 YWCA가 뽑은 우수 프로그램상, 12월 31일에 YTN이 주는 올해의 우수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한 기자는 또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후속편을 제작했다. 40분짜리 이 프로그램은 2000년 11월 20일 방송됐다. 후속편은 사진으로만 전해져온 임신한 중군 위안부가 실제로 평양에 생존해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사자는 남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영심 할머니(증언 당시 79세). 처녀였던 박 할머니는 일본경찰에 강제로 끌려가 중국 상하이와 승산 등지로 끌려 다니다 만삭의 몸으로 중국군에 포로로 붙잡혔다고 증언했다. 이때 모습이 사진에 찍혀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이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후속편은 2001년 4월 24일 한국신문방송클럽이 주는 한국언론대상, 2001년 8월 24일 홍성현 언론상, 2001년 12월 한국 TV카메라기자협회가 주는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박득송

- ▲ 1953년 생
- ▲ 서울대 철학과 졸
- ▲ KBS(1981) 정치부 편집부 특집부 기자
- ▲ YTN 정치부 차장(1994) 동경특파원 겸 지국장(1998) 뉴스편집부장(2002) 사회2부장(2003) 부국장대우 미디어국장직대(2004)
- ▲ YTN 스크롤뉴스담당 부국장대우(2005~)

8. 뉴 밀레니엄 특집 「새 천년을 꿈꾸는 땅」

몽골·유라시아 뉴 밀레니엄 특집인 「새 천년을 꿈꾸는 땅」은 60분짜리 7부작인 대형 기획물이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방영됐다. 취재팀은 배석규 부국장, 김호성 차장대우, 윤종수 이종국 기자와 영상취재부 김재동 차장, 이승주 기자 등 6명이었다. 이들은 1999년 6월부터 9월까지 88일 동안 몽골과 중국 서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누볐다. 이들이 뛰어다닌 지역은 거리로 따지면 2만km가 넘는다. 그러면 프로그램 제목이 왜 「새 천년을 꿈꾸는 땅」인가? 취재팀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간다.

인터뷰

한원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 위해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 일본 프리랜서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료를 받

일본군 위안부 문제 취재하게 된 동기는

“가해자 일본은 전후 무엇을 안 했나” 물으려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관심은 태평양전쟁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모든 국가는 힘없는 소수민족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인데, 힘을 가져서 침략했던 가해자 쪽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전쟁 중 무엇을 했으며 패전 후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를 묻

게 되었습니까?

▲ 1998년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 프리랜서 기자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자주 드나들던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전화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국에서 찾고, 이 자료의 근본이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찾아 방송하게 됐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땅이다. 지난 천 년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칭기즈칸을 낳은 땅이기도 하다. 13세기에 유라시아는 세계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고 동서로 양분돼 있던 세계는 마침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이 땅에 우리 민족의 흔적과 숨결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바로 이 땅에서 칭기즈칸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 (사보 2000년 1월 3일)

「새 천년을 꿈꾸는 땅」은 그해 3월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부문과 특별상)을 받았다. 또 김재동 차장이 그해 3월 21일 삼성언론상(시각·영상부문)을 수상했다. 배 부국장은 2001년 9월 10일부터 YTN 홈페이지에 「대몽골 시간여행」이란 제목으로 몽골 취재기를 연재했다. 취재기에는 사진과 동영상도 올려졌다.

대몽골 시간여행은 야후코리아 홈페이지에도 링크돼 네티즌의 큰 관심을 끌었다. 취재기는 2003년 3월 6일까지 1년 반동안 계속됐다. 연재 횟수는 모두 434회.



「한국의 자연」 시리즈 : YTN 한국의 자연시리즈. 연중기획으로 1999년 「한국의 들꽃」, 2000년 「한국의 민물고기」, 2001년 「한국의 새」(사진 위)에 이어 2002년엔 「한국의 곤충」이 제4탄으로 방송되었다

인터넷에 연재한 취재기는 「대몽골 시간여행」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9. 52종 소개한 「한국의 민물고기」

「한국의 민물고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방송됐다. 1주일에 한 편씩 모두 52종이 소개됐다. 프로그램은 1분짜리 SB(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감)로 제작됐다. 영상취재부 이문세 기자가 기획하고 취재했다. 이 기자는 토종 민물고기가 그래도 많이 보존돼 있는 민통선 안에 들어가 촬영했다. 촬영대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중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어종을 선정했다. 피라미 갈결이 돌고기 버들치 꺾지 어름치... 일반인에게는 이름도 생소하다. 이 기자의 취재로는 휴전선 남쪽에 150여 종, 북쪽에 2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남쪽지역에는 50종 이상 보기 힘들단다. 환경오염으로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기자는 없어져가는 토종 민물고기를 화면에 담아 자연의 소중함과 우리 물고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한국의 민물고기」로 한국TV카메라기자 협회가 주는 2000년 영상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기자가 사보(2000년 3월 6일)에 쓴 취재기.

지금 기온 -14도, 물 속 온도는 -3도, 체감온도는 -30도쯤 되나? 산속이라 춥고 뻗속 깊숙이 파고드는 산바람은 매섭기만 하며 동면에 들어간 물고기는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서울을 출발해 6시간 만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때 묻지 않은 비경을 자랑하는 자연의 보고 강원도 평창 일대 동강에 도착해 두겹게 언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보니 작년 봄에 보았던 그 많은 쏘가리 꺾지 어름치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10. 신년특집 「김치의 대발견」

2001년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으로 제작돼 1월 4일과 11일, 18일 방송됐다. 제작팀은 이재윤 지순환 백선기 기자. 제작팀은 국내를 비롯해 김치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미국 LA와 중국 곳곳을 현지 취재했다.

김치는 우리의 고유식품이지만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한국의 맛이 담긴 문화라는 것을 소개했다. 또 첨단과학을 동원해서 김치가 우수한 식품이라는 것

을 입증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김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시청자들의 평이 잇따랐다. 지금이야 김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식품이고 세계에서든 통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당시만 해도 김치는 국내식품쯤으로 '축소인식'돼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외국인들도 김치를 즐겨 먹고 김치로 외화를 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2000년 당시 김치의 한해 수출액은 7억8000만 달러로 해마다 20%씩 증가해 가고 있었다.

김치의 대발견은 방송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11. 쌍방향 프로그램 「코스닥 투데이」

「코스닥 투데이」는 2000년 3월 6일 첫 전파를 탔다. 우리나라 증권뉴스 사상 첫 쌍방향 프로그램이다. 저녁 8시부터 35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기획은 김윤철 PD, 진행은 김영수 기자와 정애숙 앵커가 맡았다. 코너 구성은 「오늘의 증시」 「주식 클리닉」 「열전 주식레이스」 「관심주 탐방」 「주가지수 알아맞히기」로 돼 있다.

「오늘의 증시」는 그날 하루의 시황을 전문가가 상세히 분석하여 「주식 클리닉」에서는 시청자가 전화나 팩스, 편지로 문의한 종목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분석, 평가해 주고 보유 여부를 조언했다. 「열전 주식 레이스」는 종자돈 500만 원씩 받은 투자자 4명이 한 달간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그 과정을 전문가가 분석 정리해 준다. 「코스닥 투데이」는 이론보다는 실전에 치중했다. 주식투자자가 궁금한 것을 묻고 이를 풀어주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김 PD는 당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쌍방향과 눈높이 방송'이라고 규정했다.

김 PD의 당시 설명(사보 2000년 4월 1일).

시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진 종목에 대한 집착과 고민을 1대 1로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무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증권관련 정보나 정석투자 기법들을 사실위주로 보여주는 것에서 탈피해 코너 속에 용해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유는 시청자의 지식이나 투자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기 좋게 밥상을 차리고 먹는 것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최종 컨셉을 잡았다.

증시사상 첫 쌍방향 프로그램은 대성공을 거뒀다. 처음에는 시청자 문의가 있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방송이 나가자 팩스와 전화가 쇄도했다. 당시 코스닥 시장은 한국증시 사상 최고의 활황이었다.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3월 28일에는 장중에 283을 기록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2830. 성공의 배경은 쌍방향에 있었다. 쌍방향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자 경제전문 케이블 TV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코스닥 투데이는 두 달이 지난 5월 15일부터 새벽 1시대에 재방을 시작했다. 이후 1년 6개월간 계속되다가 2001년 11월 프로그램 개편 때 머니라인으로 대체됐다.

제3절 : 개국 이래 첫 흑자 내긴 했지만 ...

1. “광고·협찬 없이는 프로그램 없다”

YTN은 개국 이후 해마다 큰 폭의 적자를 냈다. 1998년에는 당기 순손실이 383억1152만 원이었다. 그때까지 누적적자는 1354억8731만 원. 당시 자본금 300억 원보다 4배나 더 많았다.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고 은행 빚을 얻어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기 순이익 56억1401만 원!

구조조정 첫해인 1999년 YTN은 개국 이래 첫 흑자를 냈다. 그것도 두 자리 수 흑자였다. 광고수입이 260억4921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9억3407만 원 증가(84%)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비용은 342억3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3억8457만 원 감소(42%)했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이 100억 원 감소했다. 증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은행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이다. 당시 YTN이 수익창출을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했는지는 프로그램 제작을 협찬이나 광고수주와 연관지어 추진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협찬이나 광고 없이는 프로그램도 없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협찬이나 광고 없이는 제작할 수 없다는 것이 지상명제였다. 또 사업국을 신설해 정부의 홍보영화나 공공기관의 CF 수주에도 나섰다. 1999년에 CF 제작 분야에서 8억 9000만 원, 영상제작 분야에서 6억8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이런 노력 덕택이었다. 개국 이래 첫 흑자는 사원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줬다. 부실기업에서 우



박성호

- ▲ 1960년 생
- ▲ 국민대 영문학과 졸
- ▲ 코리아헤럴드(1985) 내외경제신문 산업부(1989) 연합

통신(1990)

- ▲ YTN 입사(1994) 경제부차장(1999) 정책기획팀부장대우(2001) 제작2팀장(부장,2004)
- ▲ YTN 국제부장(2005~)

량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사원들도 어깨를 짓눌러온 명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었다. 2000년에도 10억2421억 원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2001년에는 6억4070만 원 적자로 돌아섰고 2002년에는 적자폭이 다시 60억477만 원으로 확대됐다. 구조조정으로 바짝 허리띠를 졸라맸다가 급여·복지수준이 회복되면서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 급여·복지 IMF 이전수준 회복

YTN은 IMF 시기 파산의 위기를 맞아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998년 9월부터 대폭적인 임금삭감에 들어가 부장 이상은 임금이 68~70%, 부장대우~차장대우 58~64%, 사원 50~53% 삭감됐다. 임금이 최고 70% 깎였으니 학자금 지원과 취재비 지급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YTN은 당시 사원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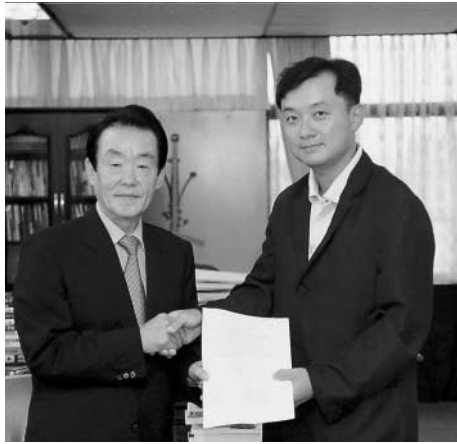
급여와 복지 혜택은 점진적으로 회복됐다. 1999년 8월 급여가 평균 8.2% 인상됐다. 10월에는 승급과 승호도 이뤄졌다. 2000년 1월에는 취재·제작비 당직비가 지급됐고 학자금 지원도 재개됐다. 3월 1일에는 급여가 직급별로 11~30%, 평균 12.3% 인상됐다. 1998년 9월 '살인적'인 삭감 이후 1년 7개월 만에 급여는 20.5%, 기타 비용은 3.2% 인상됐다. 이것만으로도 회사는 연간 27억54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상여금은 2000년에 750%를 지급했다. 2001년부터는 800%를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은 적어도 비율 면에서는 원상회복됐다. 사원 급여는 2001~2002년을 거쳐 또 다시 올라 IMF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사원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1999년 8월에는 473명(정규 444명 계약 29명)으로 늘어났고 2000년 12월에는 572명(정규 436명 계약 136명)으로 1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사원수 증가와 급여·복지 수준의 원상회복이 전체적인 비용 상승을 가져와 2002년 60억 원 적자의 원인이 됐다.

제4절 : 보도국장, 임명제서 복수추천제로

1. 보도국 노조원 투표로 3인 추천

백인호 사장은 1999년 8월 25일 취임 후 첫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보도국장에



백인호 사장과 우장균 노조위원장이 회사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전략기구 신설안에 합의하고 악수하고 있다(2002. 7. 26)

이동근, 사업국장에 표철수, 기술국장에 강진이였다. 이동근 보도국장은 창사 이래 두 번째 국장이다.

보도국장이 2명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 때문이다. 1대 보도국장인 이대섭은 창사 당시부터 1998년 9월 퇴임 때까지 6년간 재임했다. 보도국장 재임중 상무로 승진했지만 보도국장을 겸임했다. 장명국 전임 사장은 별도로 보도국장을 두지 않고 이동근 표철수 이재희 부국장을 국장단으로 운영했다(나중에 이동근 부국장 대신 조봉환 부국장 참여).

백 사장이 보도국장에 이동근을 임명함으로써, 보도국 '집단지도체제'는 단일 체제로 바뀌었다. 이 국장은 1975년 TBC에 입사한 뒤 80년 KBS로 옮겼다.

1994년 YTN에 들어와 사회부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이 국장 재임 시에는 2000년 4월 총선,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6·15 남북공동성명, 15년만에 재개된 남북이산가족 상봉,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 등이 있었다. 이 국장은 2001년 3월 21일 상무로 승진하고 보도본부장을 겸임했다. 2002년 8월 23일에는 전무로 승진했다. 제3대 보도국장에는 고광남이 임명됐다. 고 국장은 1979년 KBS에 입사한 뒤 1994년 YTN과 인연을 맺었다. 정치부장 취재담당 부국장을 거쳤다. 고 국장 재임 때는 벤처기업가들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 신문사와 방송사 대상 세무조사,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 표결에 따른 DJP 공조 와해, 9·11 미국 동시다발 테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이 있었다.

고 국장 이후에는 보도국장이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었다. YTN 노사는 2002년 9월 24일 보도국장 복수추천제에 관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보도국장 복수추천제는 노동조합(위원장 우장균 기자)이 요청했고 백 사장이 우여곡절 끝에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이 보도국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3인의 보도국장 후보를 추천하면 사장은 이 중 한 명을 10일 이내에 보도국장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로써 창사 이래 사장이 배타적인 권한으로 보도국장을 임명해오던 제도에서 사실상 선출제인 복수추천제로 변경되었다. 보도국장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투표가 10월 1일 실시됐다. 후보는 경력 23년 이상 보도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10월 9일 제4대 보도국장에 김관상이 임명됐다. 김 국장은 1978년 TBC에 입사한뒤 1980년에 KBS로 옮겼다. 1994년 YTN에 입사해 사회 부장과 취재담당 부국장 제작국장을 거쳤다. 김 국장 재임 중에는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당선,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참사,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발리 폭탄테러사건 등이 일어났다.

2. 노조 건의로 전략기획팀 신설

노동조합은 회사 내에 전략기획팀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제 2창사'를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부서가 필요하며 전략기획팀이 전권을 가지고 회사에 변화를 일으키자는 주장이었다. 백 사장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전략기획팀장에 YTN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YTN 내부 분위기를 아는 사람을 영입하자고 제안했다. 노조가 추천한 사람은 IMF 이전에 YTN에서 기획부장을 지낸 박윤순이었다. 백 사장은 2002년 10월 1일 박윤순을 전략기획팀장으로 임명했다.

3. '정도 기자정신' 기린 「변덕수 기자상」

변덕수 기자는 정치부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췌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1997년 12월 13일 순직했다. YTN 개국 이후 첫 순직이다. 변 기자는 1996년부터 2년동안 사회부 경찰팀장으로 일하면서 한총련 시위진압, 노동자 파업사태, 이한영 피살사건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취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취재에 대한 열정은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됐다.

“기자는 양심을 먹고 산다.” 이 시기 변 기자가 후배들에게 자주 한 말이다. 기자협회 YTN 지회는 2002년 1월 9일 '정도를 걷는 기자 정신'을 실천한 변 기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변덕수 기자상」을 제정키로 결정했다. 변덕수 기자상은 매년 변 기자의 기일인 12월 13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제 1회 변덕수 기자상은 사회부 함형건 기자가 받았다. 수상작은 1월 11일에 보도한 「수돗물속 발암물질 검출」이었다.



고 변덕수 기자

-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 1989년 KBS 공채 17기 입사
- ▲ 1994년 YTN 입사
- ▲ 1997년 12월 13일 순직

제5절 : 케이블TV 시청가구 1000만 넘다

1. 한민족 네트워크 「해외 위성방송」

YTN은 2001년 4월 13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해 북중미 지역을 대상으

로 실시간 위성 방송을 시작했다. 교민 유학생 주재원을 비롯,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지역 동포들은 위성 수신용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YTN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교민 방송 케이블 사업자와도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해도 시청이 가능했다.

송출은 2단계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에서 팬암2 위성을 통해 LA로 송출하면 LA에서 다시 갤럭시11 위성을 통해 북중미 전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팬암2로 송출할 때 위성의 특징인 spill over(전파의 월경)가 생겨 가시청 지역이 훨씬 넓어졌다. 즉 한반도전체 일본 동남아 중국일부 러시아일부 호주에서도 1.5~2m 내외의 수신기를 설치하면 YTN을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북한에서도 수신기만 구입하면 YTN을 시청할 수 있다.

6월 20일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을 아우르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위성방송을 시작했다. 시청가능 교민은 50만 명으로 추산됐다. YTN은 북중미, 동남아 지역 위성 생방송을 알리는 대형 광고탑을 서울시청 앞에 설치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03년 3월 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 위성방송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미국 팬암셋(PanAmSat)사의 PAS-2, PAS-9, PAS-10 3개의 위성 채널을 임차했다. 이로써 세계 어디서나 직경 1.5~2m 크기 접시안테나를 설치하면 YTN을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게 됐다.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도, 아프리카 남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캐나다나 칠레에서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 어디서든지 YTN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YTN의 위성방송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600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YTN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고국 소식 실시간 알 수 있게 돼 고맙다”

전 세계 위성방송은 재외동포재단의 재정지원이 큰 힘이 됐다. 재외동포 재단은 2003년부터 매년 위성 임대료로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 공공법인이다. 해외교민들은 YTN 덕택으로 고국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며 YTN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YTN 사보 39호(2003. 4. 25 발행)는 교민들의 반응을 자세히 소개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오지나 남태평양 섬에서도 YTN 위성방송을 통해 고국의

- 전략기획팀 초대 팀장으로 YTN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었습니까?

▲ 그 당시에는 YTN이 본격적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기본 계획이 필요했고 그 발전 계획에 따라 사옥을 이전한다거나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고 기존의 시설을 좀

인터뷰

박윤순 전략기획팀장



회사의 발전방향 설정하는데 중요시한 점은...

사옥 이전 · 수익 구조 등 본격도약 디딤돌 되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방송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는 등의 과제들이 중요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임무였다고 생각합니다.

- YTN 미디어를 인수할 때 자산 가치를 10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산 가치를 100억 원으로 한 이유, 그리고 YTN 미디어 인수에 대해서는 사내에서 상당한 반대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YTN 미디어를 인수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자산 평가는 기본적으로 회계 법인이 기존 자산을 실사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거기에 영업권 평가까지 포함되는데요, 그것을 포함해 미래에 얼마만큼 기업이 클 수 있느냐, 현금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평가 척도라고 봅니다. 그러한 평가를 거친 다음 매각하는 쪽과 매수하는 쪽이 가격 협상을 벌이게 되지요. 코오롱과 협의 과정에서는 다른 곳에 매각한다면 최대한 값을 많이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차피 공동경영이니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인수하자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100억 원에 대한 평가가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성장 규모로 본다면 적절하다고 판단돼 합의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나 성장성, 규모의 경제와 앞으로의 수익 면을 고려한다면 향후 방송시장 구조 재편 시점에는 YTN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PP업계의 현실을 본다면 제작해서 방송할 경우 제작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광고수입은 미미해 수지 맞추

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YTN 미디어는 앞으로 제대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는지요?

▲ YTN 미디어는 2개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성 채널이고 하나는 직접제작 채널인데, 편성채널은 편성 채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요. 여기서 좋은 콘텐츠를 얼마만큼 선택하고 제대로 배치해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방송시장이 재편되고 플랫폼이 많이 생기면서 판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콘텐츠엔 리더가 상당히 많습니다. 플랫폼마다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데 이제는 더 좋은 것은 거의 소진되고 값이 무척 많이 올랐습니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채널도 적절한 비용구조라면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보도 채널을 보더라도 유사 채널이 많지만 직접 제작하는 채널이 광고라든가, 시장 적응성 등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 전체가 직접제작 채널로 갈 수는 없겠지만 일부 장르에 따라서 나름대로 효율성 있는 채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YTN 미디어가 편성 채널과 직접제작 채널을 병행해가면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하면 앞으로 상당히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생생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나 메일이 답지하고 있다.

동티모르에 세계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상록수 부대원들은 “국내소식과 이라크 전황보도 등 모든 뉴스를 YTN 위성방송을 통해 매일 본다”면서 “인근 지역에 일본군과 파키스탄군도 파병돼 있지만 자국뉴스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뿐인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동포 50가구 280명이 사는 남태평양 사모아 섬의 한 동포는 “비록 몸은 이국 만리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YTN을 보면 고국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사는 것 같다”며 “YTN이 한민족공동체를 선도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프리카 케냐 주재 대사관 직원 손영민 씨는 “케냐 교민 550명 중 현재 5가구 정도가 YTN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있다”고 YTN에 연락해 왔고 파키스탄 주재 대사관 카라치 본관에 근무하는 김탁균 씨는 메일을 통해 위성수신 방법을 본사 직원과 주고받은 뒤 “4월 17일부터 정상적으로 YTN을 보고 있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해왔다.

2. 벽지서도 쉽게 시청 「스카이 라이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방송인 「스카이 라이프」는 2002년 3월 1일 방송을 시작했다. YTN은 가입자가 월 8000원을 내면 모두 볼 수 있는 기본 보급형 42개 채널에 편성됐다. 채널번호는 524번. YTN은 시범방송을 위해 2월 26일 저녁 8시 무궁화 위성 3호를 향해 첫 위성전파를 발사했다. 국내에서 케이블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던 YTN을 이제 위성안테나를 통해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1년 4월 편암 위성을 통해 북중미 지역에 위성방송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위성 안테나를 달면 YTN을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임차한 위성 PAS-2는 다른 위성을 연결하는 링크 위성이어서 국내에서 전파를 수신하려면 덩치가 크고 값비싼 안테나를 설치해야 했다. 큰마음을 먹지 않으면 시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 위성방송이 시작되면서 YTN은 케이블 망이 있는 곳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산간벽지나 외딴 섬에서도 소형 안테나만 달면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



박정한

- ▲ 1950년 생
- ▲ 한양대 전자학과 졸업
- ▲ 합동통신 전무국(1977) 연합통신 기술국(1981)

▲ YTN 방송전산부장(1993) 전산부(1998) 데이터정보실부장급(2001) 기술국 방송위원(2002)

▲ YTN 기술국 부장급 방송위원(2004~)

3. TV가진 10명 중 6명 YTN 시청

케이블 TV 가입자는 개국 초기에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1999년을 고

비로 급속히 늘어났다. 방송위원회 자료를 보면 1998년에 83만 가구에서 1999년 140만 가구로 늘어나더니 2000년에 2배 이상 급증한 288만 가구로 확산됐다. 2001년에는 537만 가구, 2002년에는 661만 가구로 증가했다.

2003년 5월 1050만 가구로 대망의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2003년 말 가입자는 1134만 가구였다. 개국 9년 만에 지상파에 뒤지지 않는 세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2003년 말 가입자를 전체 가구수에 비교하면 65.6%, TV 수상기 대수에 비해서는 58.8% 였다. 적어도 3가구 중 2가구, TV 소유자 10명 중 6명은 케이블에 가입해 YTN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다.

이 사이 케이블 TV 시청률도 경천 뛰어들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 미디어 조사로는 2002년 4월 1일부터 20일 사이 케이블 TV 가입 가구 중 주요 채널 54개를 모두 합친 시청률은 4.24%였다. 3월 시청률 3.50%에 비해 21% 늘었고 전년도 1~3월의 1.9%에 비하면 2배 이상 급등했다.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은 가장 높은 KBS1이 6%대, MBC와 SBS는 5.4~5.6%였다. 아직 절대수치에서는 지상파 TV를 따라잡지 못했지만 몇 년 사이에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이다.

급성장의 원인은, 첫째 채널숫자가 1년 동안 2배 이상 늘었고, 둘째 가입가구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케이블 TV 보급으로 다채널, 100개 이상 채널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다. 영화 드라마 스포츠 만화와 같은 특성화된 채널도 증가해 시청자를 끌어들었다.

제7장 '제2 창사' 승례문시대 열다

제1절 : 표완수 사장 취임 “발전 토대 마련하겠다”

1. 사장 추천위원회서 후보로 결정

백인호 사장은 2003년 3월 6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사임을 발표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언론환경도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한다”며 “회사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백 사장은 1999년 8월 3일 취임, 2002년 8월 2일 재선임됐으며 임기를 2년 4개월 남겨두고 있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공영방송인 KBS 박권상 사장과 MBC 김중배 사장도 이미 사퇴했거나 사퇴의사를 밝혔다. YTN은 코스닥 등록 기업이기 때문에 사장이 사임을 발표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돼 있다.

YTN은 곧바로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규정에 따라 3월 11일 롯데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후임사장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노동조합(위원장 우장균 기자) 집행부가 이사회에 참석해 후임 사장 선임을 저지한 것이다. 이에 이사회는 사장 선임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사 5명으로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장 추천위원장은 장세현 비상임 이사였다. 회사측 사장 추천위원회는 사내에서든 사외에서든 누구나 사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도 3월 26일 표완수 전 경인방송 사장을 포함해 3명을 추천했다.

사장 후보로 추천된 인사는 대주주인 한전 KDN 추천후보까지 포함해 모두 7명이었다. 추천위원회는 후보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등의 과정을 거쳐 표완수 전 경인방송 사장을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



박찬중

▲ 1952년생
▲ 서울공고 졸
▲ KBS(1977)
보도기술부 기
술감독 차장대
우(1990)
▲ YTN(1993)

기술총괄팀장(1994) 중계부장(1999)
기술국장직대(부국장, 2001)
▲ YTN기술국장(2003~)

YTN 윤리강령 · 10대 실천요강 제정

표 사장은 2003년 5월 23일 취임했다. 제 5대 사장이다. 표 사장은 서울대 영

문과를 나와 1974년 경향신문에 입사했다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됐다. 1989년 언론계에 복귀해 시사저널 국제부장, 경향신문 국제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냈다. 이어 경인방송 보도국장을 거쳐 경인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표 사장은 취임사에서 “YTN이 정상적으로 활력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쳐 개혁작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표 사장은 또 “화급한(경영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매체력 강화와 수입원 다변화, 방송환경 전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YTN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무렵 노무현 대통령 취임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는 이른바 관행, 구습을 없애는 개혁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또 언론개혁이 사회 모든 개혁의 중심에 서는 ‘개혁중의 개혁’으로 강조됐다. YTN도 이 흐름을 비켜갈 수 없었다. 표 사장과 우장균 노조위원장은 6월 20일 「YTN 윤리강령」과 「10대 실천요강」에 조인했다. 윤리강령은 전 사원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해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2. 대우건설 남대문로 새 건물 점 찍어

YTN 신사옥은 YTN이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신사옥 매입은 전략기획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전략기획팀은 노사 합의에 따라 2002년 10월 1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 구성원은 박윤순 팀장에 팀원은 윤종수 최성호 이교준 서대원이었다.

당시 YTN의 법인 통장에는 300억 원이 예치돼 있었다. 2000년 3월 서울타워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20억 원을 공모증자할 당시 700억 원 가량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만일을 위해 남겨 두었다. 주식발행 초과금이다. YTN은 이 자금을 신사옥 매입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사옥 매입은 제 2창사를 위한 도약대를 만드는 것이다. 창사 이래 사용해 온 연합뉴스 건물에서는 방송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기대할 수 없었다. 건물을 소유해야 구조를 변경해서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또 DMB와 같은 뉴미디어에 맞게 방송시설을 갖추는 것도 자기 건물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해 12월부터 건물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회사를 통해 수소문도 했다. YTN이 신사옥을 물색한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에이전트를 자처한 회사가 찾아오기도 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웬만한 물건은 모두 둘러봤다.

표완수 사장 취임사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자 면접도 치르고 하는 일이 있

잡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YTN이 정상적으로 활력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단행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민주화와 개혁을 얘기하

“매체력 강화 · 수입원 다원화 · 방송환경에 능동 대처”

었습니다.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하나의 민주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과정!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 바로 그런 시대정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정신의 현실적 접합점을 찾는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YTN도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일시적인 혼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을 위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바뀌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 온 우여곡절을 안정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데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일천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노력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일은 경영진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책임은 사장이 일차적으로 지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회사 성장의 원동력은 여러분입니다. YTN의 모든 힘이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하나의 화두는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상화입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물건이나 제도도 세월이 흘러 먼지와 관행의 각질이 쌓이면 못쓰는 물건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비틀린 것은 바로

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 심정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 못지않은 심정일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올해도 지난 2년 동안 2001, 2002년 동안과 같이 회사를 경영하면 YTN은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숨을 돌리고 말고 할 겨를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화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수입 증대를 위한 구조적인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체력 강화와 수입원 다변화, 그리고 방송환경 전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YTN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인사혁신도 단행하겠습니다. 회사를 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인사혁신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 분과주의를 타파하겠습니다. 섹터즘이 활개치는 조직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이 제대로 서야 조직은 조직다운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서로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자산운용회사인 코람코와의 첫 대면은 2003년 1월 이뤄졌다. 에이전트 소개를 통해서였다. 당시 코람코는 남대문로 5가에 대형건물을 짓고 있는 대우건설과 선수금을 주고 계약을 맺고 있었다. YTN은 이 건물을 신사옥 후보로 점찍었다.

남대문로 건물은 지상 20층의 A급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연면적 1만2800평 규모이고 2003년 말 준공 예정이었다. 4대문 권에 있어 YTN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손색이 없고 위치도 서울역 부근이어서 교통이 편리하다고 판단했다.

코람코와의 협상이 시작됐다. 건물가격을 흥정했다. 처음에 1050억 원을 제시했다가 107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리츠법인 만들어 투자방식으로 매입

건물매입은 리츠법을 만들어 여기에 YTN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당시 리츠방식으로 사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됐다. 취·등록세는 매입가의 5.8%. 1000억 원이면 58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주)코크렙 4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좀 생소하고 긴 이름의 회사가 탄생하게 됐다.

펀드 규모는 760억 원. YTN은 여기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었다. 760억 원 중 300억 원이면 투자비율은 39%다. 그러나 자투리 숫자보다는 40%가 좋겠다고 판단해 304억 원으로 투자액을 정했다. 숫자에 맞추다 보니 4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투자자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대한교원공제회도 들어있다. 부족액은 은행대출과 입주업체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펀드 운영은 5년간이다. 5년 후에는 주주들이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계약이 완료되자 YTN은 사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략기획국(8월 20일 팀에서 국으로 변경) 안에 실무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실무팀은 사옥 이전의 자금과 행정 업무를 담당할 「구매·자금·행정팀」, 방송 시설 도입 및 설치를 담당할 「장비도입팀」과 「방송시설팀」, 사무공간을 확정하기 위한 「공간설계팀」, 신사옥의 CI를 담당할 「CI 팀」으로 짜여졌다.

방송용도에 맞게 구조변경 공사

실무팀은 신사옥 건물을 방송 용도에 맞게 뜯어고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골조공사도 끝나고 타워크레인도 철거된 상태에서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며 난색



YTN이 '점찍은' 남대문로 건물
YTN이 새사옥으로 '점찍은' 건물. 대우건설이 남대문로에 신축한 20층짜리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YTN이 이사하기 전의 전경이다

을 표시했다.

그러나 방송장비가 들어가고 스튜디오 장치를 위해서는 구조변경이 불가피했다. 대우건설을 설득해 20층 스튜디오 부분의 층 높이를 4.5m에서 7.5m로 높이기로 했다. 원래 설계에는 층간 높이가 모두 4.5m였다.

주·부 조정실 높이도 올리려고 했지만 옥상에 이미 냉각탑이 들어와 있어 불가능했다. 천장 공조 시스템도 방송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철골 구조물을 풀고 다시 조립해야 했다.

대우건설은 건물구조 변경으로 완공 예정일이 2003년 말에서 2004년 2월로 두 달간 늦어질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추가공사비로 22억4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때가 2003년 2월 말이었다. 최성호 사원은 “추가 공사비를 깎고 또 깎고 깎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깎았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8억8000만 원으로 타결을 봤다. 22억 원이 8억 원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개국 10돌은 새사옥에서” 철야 공사 강행

YTN으로서는 건물 완공일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늦어도 2003년 말에 건물이 완공돼야 2004년 2월에 입주해 개국 10주년인 3월 1일 신사옥에서 방송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YTN은 이때 신사옥에서 기념식을 열어 YTN의 높아진 위상을 내외에 각인시켜 줄 계획이었다.

기존 사무실 건물주인 연합뉴스와의 계약기간이 2004년 2월에 끝나게 돼 있어 이 시기를 넘기면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대우건설은 YTN의 강력한 의지 앞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완공 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작업에 들어갔다.

3. 비싼 장비 신중론...도입 물량 줄어

건물 구조변경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장비 도입 작업이 시작됐다. 장비도입은 전략기획국 안에 보도국 기술국 직원들로 구성된 장비도입팀이 맡았다. 장비도입팀은 구 사옥에서 기존장비를 뜯어 신사옥으로 옮기고 일부 장비는 구입하기로 결론지었다.

장비도입팀은 2003년 9월 일본 도쿄에 가 방송장비 제조업체인 소니와 파나소닉 담당자를 만났다. 또 YTN 제휴 민영방송사인 TBS에도 들러 장비운영 현



박철원

- ▲ 1966년 생
- ▲ 한국외대 일과과 졸업
- ▲ YTN 편성운영부(1995) 사회부 국제부 기획제작부(2000)

기동취재팀(2004)

▲ YTN DMB 채널운영팀장(차장대우, 2005~)

황을 직접 확인했다. TBS는 방송사로서는 드물게 소니 대신 파나소닉 제품을 쓰고 있었다. 당시 일본방문단은 박찬중 기술국장, 박윤순 전략기획국장, 전용화 기술부 차장, 최성호 박형일 최기훈 5명이었다.

장비도입팀은 YTN이 신사옥에서 사용할 방송장비로 파나소닉 제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가격을 깎을 수 있고 교환 광고가 가능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소니는 가격할인이 어렵고 교환광고도 불가능했다.

곧바로 파나소닉과 협상에 들어갔다. 파나소닉 아시아 본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를 서울로 불러 수송동 사옥에서 협상했다. 파나소닉은 장비의 국제가격을 공개하고 있었다. 파나소닉 카메라인 DVC PRO는 1대당 가격이 2만5000달러, 당시 환율로 따져 3000만 원 수준이었다. 소니 제품은 렌즈를 빼고 본체 값만 6000만~7000만 원이었다. 파나소닉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쌌다.

장비도입팀은 파나소닉과의 협상에서 가격을 60% 깎고 나머지 액수의 50%를 교환광고를 통해 결제할 것을 제의했다. 이렇게 할 경우 DVC PRO 1대를 6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비디오 소스를 선택하는 스위처와 중계차에 대해서도 협상이 이뤄졌다. 파나소닉은 스위처 10억 원, 중계차에는 50억 원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가격을 대폭 깎고 여기에 교환광고 50%를 제시했다.

최성호 사원은 “당시 파나소닉에 YTN은 악명 높은 방송사였다”고 회고했다. 파나소닉이 난색을 표해 교환광고 비율을 낮추는 방향에서 협상이 진전됐다.

몇 차례 옥신각신하는 동안 상황이 변했다. YTN 내부에서 고가장비 도입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기술국에서도 스위처와 중계차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봤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장비도입 물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최종적으로 DVC PRO 6대, VCR 6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가격은 유리한 조건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파나소닉은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YTN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한국시장은 아직도 소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위처는 나중에 주·부조장비 입찰(턴키방식)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미국제품을 구입해 들여왔다.

4. 깎고 또 깎고 ‘짚순이’ 사옥팀장

신사옥 인테리어 공사 입찰 : 신사옥 인테리어공사 입찰 설명회에서 이귀영 신사옥추진팀장(가운데)이 응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2003. 11)



신사옥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에서부터 주·부조정실 장비 세팅과 같은 복잡한 공사가 필요했다. YTN은 공사 업체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입찰방식은 비리가 개재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다. 입찰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얼마나 철저히 이뤄졌는지는 가장 액수가 큰 「주·부조 장비 세팅과 구 장비 이설공사」 입찰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주·부조 장비 세팅과 구 장비 이설 공사는 규모가 40억 원이었다. 액수가 커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입찰은 SI(System Integration)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70여 개에 이르는 품목을 일일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장비도입에서 공사까지 일괄책임을 지우는 턴키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턴키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일관성과 책임소재, 현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턴키방식이 최선이었다.

입찰 설명회는 10월 24일 열렸다. MBC 미디어텍과 SK, 한전 KDN, 쌍용정보통신 4개 업체가 응찰했다. 한전 KDN은 YTN의 최대주주다. 최대주주가 입찰에 참여했으니 흠이 없이 완벽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뒷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차 심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MBC 미디어텍과 SK의 설계도면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원 제작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지만 명백



신사옥 장비 신·이설 공사를 위해 파견된 기술국 사원들(2004. 2)

한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었다. 심사팀은 두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했다. 남은 업체는 대주주인 한전 KDN과 쌍용정보통신이었다.

2차 심사는 한달 가량 진행됐다. 2차 견적을 받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끈질긴 협상을 벌였다. 기술국은 장비별 가격을 파악해 견적서에 들어있는 거품을 걷어냈다.

대주주도 탈락한 “공정” 공개입찰

“누가 사전에 내정됐다” “누구는 자격미달이다” 입찰에서 흔히 떠도는 루머와 상대방을 흠집 내는 소리도 들렸다. 사전에 엄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공개적으로 “술을 사고 밥을 사면 탈락시킨다”고 엄포를 놨다. 추진위원회의 이같은 단호한 태도에 모두 두 손을 들었다.

두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20일 최종 입찰이 진행됐다.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다. 낙찰자는 쌍용정보통신으로 결정됐다. 동일 장비에 대해 가격을 낮게 책정했고 시스템 구축기간이 YTN이 요구하는 시한에 가장 근접했다. 최대주주를 입찰에서 탈락시키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이후 잡음은 전혀 없었다. 입찰이 그만큼 공정하고 완벽하게 진행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17~20층 인테리어 공사 입찰에는 중앙디자인, 다원, 진 디자인, 셀 디자인, 국



신사옥 추진팀장 : 남대문 새사옥 실내
공사장에 서있는 이귀영 신사옥 추진팀장

보 등 5개 업체가 참가했다. 그러나 20층 뉴스센터(오픈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참가업체가 추진위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 입찰에서 제외하고 세트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인테리어 공사는 가격과 디자인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중앙디자인으로 결정됐다. 20층 「오픈 스튜디오」 디자인 작업은 KBS 아트비전이 맡았다. KBS 아트비전은 오픈 세트에 어울리게 색감의 조화와 모니터 배치를 통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디자인했다.

1층 로비는 「YTN 타워」의 얼굴이어서 인테리어 작업도 YTN 이미지에 맞게 이뤄졌다. 삼성그룹 로고의 이미지화를 담당했던 신영호 교수가 그래픽팀 추천으로 작업을 담당했다. 기본 컨셉은 YTN 피플로, YTN의 얼굴들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방송기반시설 입찰에는 MBC 미디어텍, SBS 뉴스텍을 포함해 6개 업체가 참가했다. 20층 스튜디오 4개와 주·부조정실 신호분배실 더빙실 음악실 및 조명 공사였다. 낙찰은 MBC 미디어텍에 돌아갔다.

대형 입찰로는 마지막인 네트워크 공사 입찰에서도 6개 업체가 참가했다. 인터넷망과 보도정보망인 사내 기간망 공사였다. 낙찰업체는 데이터 크래프트였다.

이밖에도 입찰은 크고 작은 것까지 10여 차례 더 있었다.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네고팀을 구성해 깎고 또 깎았다. 네고팀을 주도한 이귀영 신사옥추진팀장은 '짤순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주·부조 공사 이외에는 턴키방식 입찰을 피했다. 턴키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각각 사급입찰로 찢어 진행했다.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공사만 해도 임원실 따로, 사무실 벽 따로였다. 그 외에 영상 자료실 모빌랙, 자료실 바닥공사도 따로였다. 힘이 두 배로 들었다.

5. 투자자 설득해 이름지은 「YTN 타워」

신사옥 매입에 관한 주요 사항이 대충 마무리되자 사옥 이름을 짓는 것이 관심거리가 됐다. YTN은 사내공모 절차를 거쳐 신사옥 이름을 결정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의 1차 검토와 사옥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YTN 타워」와 「YTN 미디어 센터」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결국 「YTN 타워」라는 말이 제 2차사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발전할 YTN의 이미지에 맞다고 해서 「YTN 타워」로

결정했다.

그러나 자산관리회사인 코람코는 YTN 단독으로 건물 이름을 결정할 수 없다며 버텼다. YTN이 건물의 40% 대주주지만 60%에 대해서는 엄연히 다른 임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지만 중립적인 이름을 쓰자고 맞섰다. 「그린 타워」와 같은 이름도 갖고 왔다.

YTN은 건물 이름에 대해 양보할 수 없었다. 신사옥은 YTN의 상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 「YTN 타워」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법원의 등기부에도 「YTN 타워」로 등재했다. 또 건물 3개 면에도 큼지막하게 「YTN 타워」라는 간판을 걸 수 있었다.

조정실 공사 D-Day 하루 전에야 끝나

장비도입은 발주부터 완료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 「YTN 타워」에서 개국 10주년인 2004년 3월 1일 방송하려면 역산해서 최소한 9월 초에는 발주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주·부조정실 장비 세팅과 이설공사 입찰이 11월 20일에 끝났으니 적어도 3개월 늦어졌다.

더구나 「YTN 타워」는 YTN 요구에 따라 건물구조 변경이 이뤄져 시공업체인 대우건설은 완공예정일에 맞추기 위해 철야 작업중이었다. 이런 악조건에서 공사를 예정대로 끝내고 신사옥에서 3월 1일 방송을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YTN으로서는 반드시 당초 일정대로 추진돼야 했다.

기술국은 이계성 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신사옥 이전팀을 분야별로 구성하고 먼저 선발대를 신사옥에 파견해 방송기반시설, 인테리어, 네트워크 공사를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여러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다 보니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나 배관 시설이 맞지 않아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일도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슬래브와 철근을 건드려 대우건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재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일도 흔히 있었다.

가장 힘든 작업은 오픈 스튜디오용 대형유리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 비상계단 사이에 있는 폭 15cm의 좁은 공간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손으로 20층까지 운반하는 일이었다. 12월 23일 밤 11시쯤이었다. 신사옥 이전팀은 이 작업을 끝내고 완전히 녹초가 됐다. 대우건설은 철야작업 끝에 약속한 대로 12월 말 건물



새 사옥 이삿짐 : 수송동 사옥에서 이삿짐을 싣고 온 통운 트럭이 짐을 부리려고 남대문 새사옥 앞에 서있다(2004. 2. 21)

을 완공했다. 이 무렵 방송기반시설이나 인테리어, 네트워크 공사도 마무리됐다.

문제는 주·부조정실 장비 세팅과 구 장비 이설공사였다. 기술국에서는 1월 6일부터 2차 신사옥 이전팀을 파견해 공사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주조정실과 제1 부조정실은 신설하고 2, 3 부조정실과 신호분배실은 기존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신설과 이설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치밀한 시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었다. 당초 2004년 2월 초순까지 공사를 마치고 보름간 시험방송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부조정실 신설 장비는 1월 말에야 들어오기 시작했다. 세팅작업은 2월 초순에야 시작됐다. 마침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공사업체로 선정된 쌍용정보통신과 기술국 신사옥 이전팀은 철야작업을 밥 먹듯 했다. 한쪽에서는 신규장비 설치공사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 사옥에서 철거해 온 장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면 운용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신규장비에 대한 운용훈련을 병행했다. D-day 1주일 전에는 공식적으로 철야작업에 돌입했다. 이렇게 해서 주·부조정실 공사는 방송 하루 전인 2월 29일에야 끝났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6. “더 커다란 성장 이룩해야 합니다”

D-Day인 2004년 3월 1일이 왔다.

YTN은 새벽부터 초비상에 들어갔다. 새벽 6시 정각을 기해 수송동 구사옥에서 방송을 끝내고 YTN 타워에서 방송을 시작해야 했다. 기술국은 2시간 전인 새벽 4시부터 YTN 타워에서도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했다. 수송동 구사옥과 YTN 타워 두 곳에서 동시에 신호 송출이 이뤄진 것이다. 분배망 사업자인 파워콤이 SO와 무궁화 위성에 신호를 보낼 때 6시 이전에는 구사옥 신호를 선택했다가 6시 정각에 YTN 타워에서 오는 신호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를 신호절체라고 한다.

드디어 새벽 6시 정각, 생방송 화면에 YTN 타워의 풀 샷(Full-Shot) 이 줌인(Zoom-in)되면서 「굿모닝 코리아」라는 타이틀이 떴다. 이어서 현덕수 유현주 앵커가 등장했다.

먼저 현덕수 앵커의 멘트.

“1995년 오늘 첫 방송을 내보낸 YTN이 개국 10년째를 맞아 신사옥으로 이전



신사옥 입주기념식 : 새사옥 입주기념식
에서 사원들이 표완수 사장(연단 가운데)
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2004. 3. 12)

하면서 제2창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유현주 앵커.

“저희 YTN은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또 여러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표완수 사장과 강갑출 보도국장 박찬중 기술국장을 비롯한 모든 국장들은 20층
스튜디오가 있는 편집부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표 사장은 “앵커멘트가
잘 넘어갔느냐”고 물었고 강 보도국장이 “잘 넘어갔다”고 말했다.

YTN 타워에서의 첫 방송이 무사히 시작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일제
히 박수치며 환호했다. 즉석에서 기념촬영도 이뤄졌다. 이로써 YTN 사옥 이전은
완료됐다. 이어 표 사장이 앵커와의 대담에 출연했다. 앵커는 정찬배 기자였다.
장소는 맞은편 연세재단 건물 옥상. 여기를 선택한 것은 옥상에 카메라를 걸면
YTN 타워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6시 정각에 온 에어(On-Air) 화면
에 뒀던 YTN 타워 폴 샷도 여기서 잡은 것이다.

표 사장은 제 2창사의 포부, 목표를 설명해 나갔다.

“오늘은 YTN에 역사적인 날입니다. 수송동 10년을 마감하고 남대문 사옥 시

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수송동에서 방송을 시작했을 때 YTN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오늘은 뉴스 하면 YTN 아닙니까? 그동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처음 방송을 시작한 곳에서 계속하기에는 우리 몸집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넓은 이곳, 남대문 신사옥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YTN 타워에서 YTN은 더 커다란 성장을 이룩해야 합니다.”

표 사장은 “앞으로 뉴스를 강화해 내용과 형식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외부 전문가도 과감히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영 신사옥추진팀장은 신사옥 이전의 감회를 이렇게 표현했다(사보 2004년 3월 18일).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신사옥 외벽에 YTN 간판을 내거는 순간이었습니다. 4m 길이의 대형 YTN 로고는 십여 명의 인부가 오후 내내 비지땀을 흘리며 작업한 끝에 마침내 승레문 방면과 정면 상단에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YTN 로고는 해가 지면서 푸른 네온을 뿜어내며 승레문 일대를 환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YTN의 비상을 벅찬 가슴으로 지켜봤습니다.

“뉴스하면 YTN”이란 말 듣게 만들자

YTN은 3월 12일 낮 YTN 타워 1층 로비에서 사내외 인사를 초청해 신사옥 입주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현소환 초대 사장, 정주년 2대 사장, 백인호 4대 사장도 참석해 ‘제 2창사 원년’을 축하했다.

표 사장은 기념사에서 “YTN 식구들이 오래도록 가슴에 품어 왔던 꿈 하나를 이뤄냈다”면서 “YTN 타워로의 사옥이전은 사원들의 피와 땀과 두뇌, 화합의 정신이 함께 뭉쳐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표 사장은 “우리의 꿈은 우리나라 최고의 뉴스채널로서 YTN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이라며 “‘뉴스하면 YTN’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강조했다.

YTN의 제휴사인 일본 도쿄방송 이노우에 히로시 사장, 중국 CCTV 짜오화용 사장, 고객사인 CNN 인터내셔널 크리스 크레이머 사장, 로이터 그룹 톰 그로서 CEO, APTN 샌디 매킨타이어 사장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일부를 소개한다.

신사옥 이전으로 한층 더 높은 도약과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귀사의 단결된



배석규

- ▲ 1951년 생
- ▲ 한국외대 노어과 졸업
- ▲ 동아방송 (1979) KBS (1980) 사회부 정치부 뉴스편

집부

- ▲ YTN(1994) 뉴스총괄부장 경제부장 제작담당부국장(1999) 워싱턴지국장 (2001) 국장대우 워싱턴지국장(2003)
- ▲ YTN미디어 전무(2004~)

고 의욕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중략). TBS는 YTN과의 장기간에 걸친 상호이해와 신뢰관계를 토대로 어려운 일에 함께 맞서는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의 우호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이노우에 히로시 일본 도쿄방송 사장)

CNN을 대표해 YTN의 창사 10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YTN의 파트너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크리스 크레이머 CNN 인터내셔널 사장)

7. 짹짹한 수익 안겨준 코크랩 4호

YTN이 40% 대주주인 (주)코크랩 4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YTN에 짹짹한 수익을 가져다 줬다. (주)코크랩은 YTN 타워와 강남역 근처에 있는 20층짜리 한솔엠닷컴 건물을 매입했다. 펀드 총액은 760억 원이지만 건물 입주 보증금과 은행 담보대출을 이용해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건물 2채를 매입할 수 있었다. YTN 타워는 1만2800평, 한솔엠닷컴 건물은 1만1250평이다.

매입 당시 한솔엠닷컴 건물은 모든 층에 세입자가 입주해 있었다.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YTN 타워에 비해 임대료 수입이 보장돼 있었던 것이다. (주)코크랩이 입주가 완료된 건물을 매입한 것은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축 건물 2채를 한꺼번에 매입했다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은행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YTN 타워에도 세입자들이 속속 들어왔다. 당초 2005년 7월까지 세입자를 구해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을 전제로 5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을 10.34%로 잡았다. 그러나 세입자 입주는 2004년 5월에 완료됐다. 예정이 1년 2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배당 수익률도 높아졌다. 2005년 3월 시점에서 11.53%에 달했다. 2004년도에 YTN에 배당된 금액은 15억4434만 원이었다.

제2절 : 시청권역 넓히는 자매 매체

1. YTN의 제2얼굴 「YTN 인터내셔널」

2003년 5월 15일 정치부 강성웅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수행

YTN인터내셔널 : 개국 직후 기념촬영한
YTN 인터내셔널 사원들(2004. 3. 18)



취재중 이었다.

“강성웅 기자시죠?”

누군가가 불렀다. 한국대사관 공보관이었다.

“백악관 영빈관에 YTN이 나온답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강 기자는 깜짝 놀랐다. 영빈관은 백악관 본관에서 30m 떨어진 곳에 있다. 청와대 측은 YTN이 해외에서도 수신되는 것을 알고 현지 한인방송국에 부탁해 영빈관에 모니터를 설치했던 것이다.

강 기자는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호텔에 마련된 프레젠테이션에는 이미 YTN이 켜져 있었다. 마침 경기도의 유사종교단체에서 집단 사망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긴급 자막 뉴스가 나가고 있었다. 놀란 사람은 동료기자들이었다.

“와! YTN을 보니까 여기가 한국 같네.”

“○○○ 얼굴 잘~ 나온다.”

한인 케이블 방송 직원은 “KBS도 나오지만 그건 녹화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다들 YTN을 봐요.”

YTN은 2003년 3월 1일 미국 팬암사의 위성 3개 채널을 임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을 시작했다. 세계 어디에서나 위성 안테나만 달면 국내에서와



해외통신원 교육 : 방송 실무교육에 참가한 해외통신원들. 12개국에서 온 16명이 5일간 교육 받았다(2004. 8. 29 ~ 9. 2)

똑같이 YTN을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마침 노 대통령은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YTN은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됐다.

노 대통령이 7월 7일부터 3박 4일간 취임 후 두 번째 순방지인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수행취재하던 정치부 상수종 기자는 첫 방문지인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숙소이자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매리어트 호텔로 이동했다.

집도 풀지 못하고 프레스센터에서 첫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야 대형 TV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다. 모니터에서는 그 시각 YTN 뉴스가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수행기자들은 도착한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노 대통령의 베이징 도착화면을 YTN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노 대통령이 묵고 있는 영빈관 「조어대」는 물론, 호텔 모든 객실에서까지 YTN을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노 대통령은 이후에도 해외순방 때에는 언제나 YTN을 시청했다.

해외통신원 리포트로 「재외동포 뉴스」

‘동포들한테 맞춤형 방송을 하자.’

보도국 김종술 차장은 캐나다 밴쿠버 UBC 대학에서 연수중일 때 YTN의 이원방송(국내와 해외 방송)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됐고 2003년 귀국해 이를 아이디어로 냈다. YTN은 2002년 6월 재외동포재단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계 위성망을 구축하는 중이었다. 재외동포 재단은 2003년부터 YTN이 위성 3개 채널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원방송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YTN은 YTN 타워로의 사옥 이전에 맞춰 이원방송을 시작하기로 하고 2004년 2월 3일 해외방송팀을 신설했다. 팀장은 김종술 차장에 부원은 조승희 조민철 PD였다. 개국을 며칠 앞두고 3명이 더 합류했다. 방송개시 D-데이는 3월 18일로 맞춰져 있었다. 45일 만에 방송제작과 송출에 관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장 급한 것은 프로그램을 송출할 독자적인 주·부조정실 설치였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면 적어도 10억 원은 너끈히 들 판이었다. 여기서 YTN의 주특기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깡'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구사옥의 기존장비를 재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10년이나 된 낡은 장비를 다시 세팅하다보니 혹시 '떡통'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기술국 사원들의 노련하고 날렵한 솜씨로 '태평양을 횡단하고 대지를 가로지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이 정비를 끝냈다. 인테리어 공사는 개국 1주일 전에야 발주했지만 이 역시 철야작업을 거듭한 끝에 매끄럽게 처리했다.

최대의 난제는 콘텐츠였다. 도대체 뭘로 메워야 하나? 정치뉴스는 YTN의 생방송을 그대로 받으면 됐지만 특화뉴스 시간대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YTN이 이전에 방송했던 「김치의 재발견」 「새 천년을 꿈꾸는 땅」 같은 장기 기획물을 재방송하기로 했다. 차츰 자리를 잡아가면 독자적인 콘텐츠도 개발한다는 방침이었다.

해외에서 현지 소식을 전해줄 리포터도 필요했다.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통신원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이들과 접촉했다. 모두 기꺼이 YTN 통신원이 되기를 자처했다. 현지 한인회에도 의뢰했다. 이렇게 해서 YTN 리포터들을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넓혀 나갔다.

지구촌 어디고 즉각 방송 태세

드디어 3월 18일 오전 9시 「YTN 9시 뉴스」는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5대양 6대주로 뻗어 가기 시작했다. 이 순간을 지켜보던 표완수 사장 박찬중 기술국장 박득송 미디어국장 김종술 팀장과 팀원들은 박수를 치며 개국을 축하했다.

방송시간은 개국 당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루 3시간이었다. 방송에 자신이 붙으면서 석 달 뒤인 6월 11일부터 방송시간을 오후 2시까지로 연장했다.

YTN의 9월 가을편성 때에는 해외 통신원들의 리포트를 본방송에서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5분간 해외통신원들의 리포트로



백동범

- ▲ 1957년 생
- ▲ 명지대 전자공학과 졸, 연세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 ▲ 동양통신(1974) 연합통신 총

무부(1980)

- ▲ YTN(1996) 총무팀부장급 총무부장(1999) 부국장대우 총무부장(2001)
- ▲ YTN 미디어국 문화사업팀장(2004~)

꾸며지는 「재외동포 뉴스」를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방송영상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고 항공편을 이용해 공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긴급을 요하는 그림이나 사건 사고는 방송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ADSL 회선을 이용해 그림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리적인 제약은 풀리기 시작했다. 콘텐츠도 차츰 다양해졌다.

9월부터 음악 프로그램인 「M II M」과 연예 프로그램 「클릭 연예파일」을 자체 제작했다. M II M과 클릭 연예파일은 25분짜리 프로그램으로 1주 1회 방영했다.

해외통신원도 늘어나 처음에는 10명에서 30명으로, 1년 만에 30여개 국 60명이 됐다. 방송장비도 갖추나가 리포터들에게 화상전화기를 지급했다.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서 긴급사태가 일어나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졌다. 개국 1년이 지나면서 「YTN 인터내셔널」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YTN의 또 다른 얼굴이 된 것이다.

YTN 인터내셔널은 또 경제적 혹은 기술적 이유로 방송수신이 어려운 동포 사회에 수신장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05년 3월 초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전 수도 알마티의 케이블 방송사에 방송 수신장비를 지원해 동포들이 YTN 인터내셔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MPP로의 첫 발 「YTN 미디어」

YTN이 MPP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있었다. 2003년에 작성한 전략기획국의 발전기획안에도 MPP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다.

서대원 사원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앞으로 YTN 단일채널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보도채널도 독점이 깨져 개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YTN이 주체가 돼 타 업체와 자본 결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방송법에 30% 지분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독점이 깨지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때 자본결합을 쉽게 하려면 MPP를 만들어 콘텐츠 중심회사를 키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YTN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방법이였다. YTN이 PP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시장에 나와 있는 PP를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TN미디어 : YTN미디어 취재부서 사진
앞은 편성팀



당시 시장에는 코오롱 그룹의 월드와이드 넷이 매각대상으로 나와 있었다. 코오롱 그룹은 구조조정 작업의 하나로 자금을 더 투자해 방송 미디어 산업을 계속 하느냐 완전히 철수하느냐 두 가지 선택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당초 코오롱 그룹은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강자인 CJ 그룹과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코오롱이 판단한 월드와이드 넷의 기업가치와 CJ가 본 기업가치의 격차가 워낙 커 협상은 큰 진전없이 깨져 버렸다. YTN과 코오롱 그룹과의 협상은 이런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때가 2003년 겨울이었다.

기업가치 100억 「월드와이드 넷」 인수

코오롱 측에서는 YTN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 모양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분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일부 보유할 수 있으며 보도전문 채널인 YTN이 투자하면 월드와이드 넷의 기업가치가 장차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문제는 월드와이드 넷의 기업가치를 얼마로 보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자본금은 160억 원. 코미디와 무비 플러스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양동에 사옥과 토지 600평을 소유했다. YTN은 회계법인에 월드와이드 넷의 자산평가를 의뢰했다. 총자본에서 부채를 빼고 지금 당장 청산해도 건질 수 있는 자산평가를 64억 원으로 산출했다.

YTN과 코오롱은 월드와이드 넷의 기업가치를 자산평가액에 브랜드 가치를 추가해 100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지분 비율은 51대 49%로, YTN이 지배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YTN 매체설명회. 광고 대행사와 광고주 300여 명이 참석했다(2003. 10. 27)

주가 되기로 했다. 또 51억 원을 납입하면 곧바로 코오롱측이 YTN에 10억 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본합의는 2월 말에 이뤄졌다. 그러나 YTN과 코오롱 내부에서 반대론이 제기됐다. 코오롱 측에서는 “월드와이드 넷은 그간 경영이 호전돼 2004년부터 흑자를 낼 수 있다”며 “뭐가 아쉬워 YTN에 헐값에 넘기느냐?”는 반발이었다. YTN 내부에서는 “수익전망이 불투명하고 자금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YTN은 YTN 타워에 304억 원을 투자하고 사옥이전 비용, 장비도입 비용을 확보하느라 상당한 자금부담을 안고 있었다.

내부 이견조정을 거쳐 3월 말 합의서에 서명이 이뤄졌고 YTN은 5월 1일 정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했다. 회사 이름도 월드와이드 넷에서 「YTN 미디어」로 변경했다. 대표이사 사장은 표완수 YTN 사장이 겸임하고 전무에는 배석규 워싱턴 지국장, 상무에 박윤순 전략기획국장이 선임됐다. YTN 미디어의 광고업무는 YTN과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김진희 마케팅 1부장을 YTN 미디어의 광고국장으로 파견했다.

YTN이 월드와이드 넷을 인수한 것은 ‘제 2창사’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MPP로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종합멀티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둘째, YTN의 위상을 높이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토대

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지상파 DMB 플랫폼에 더욱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소 바뀌고도 성황이룬 매체 설명회

「YTN 미디어」의 탄생을 알리는 매체설명회는 7월 14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당초 이 행사는 한강에 세모 유람선을 띄워 선상에서 화려하게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 오후 2시에 유람선 업체로부터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긴급 연락이 왔다. 기록적인 폭우로 한강물이 범람해 유람선을 띄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YTN 마케팅팀은 순발력과 끈기를 발휘해 4시간 만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을 긴급 섭외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참석 예정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 장소변경을 고지하며 다음날에도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다. 이같은 고초 끝에 행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300여 명의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대성공이었다. 표 사장이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코미디 TV와 무비플러스 채널이 국내 유일의 보도채널인 YTN과 결합해 자회사인 YTN 미디어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YTN이 종합 미디어그룹으로 제2의 도약을 선포하는 말이었다.

YTN 미디어는 9월 7일 대한전선으로부터 20억 원, 대한전선 관계사인 경한전선에서 10억 원을 투자유치했다. 2005년 3월에는 한국기술투자에서도 20억 원을 유치했다. 「YTN 미디어」의 자본금은 160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늘어났다. YTN 미디어는 신규자금으로 DMB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규채널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3. 24시간 연예뉴스 채널 「YTN STAR」

YTN 미디어는 기존의 무비플러스 채널을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당초 무비플러스 채널은 국내외 개봉작을 상영하거나 연예계 정보를 다루는 「영화 & 영화정보」 채널이었다. 영화 부문은 대자본이 아니면 판권을 살 수 없어 경쟁사인 영화전문 채널에 비해 밀리고 있었다.

YTN 미디어는 무비플러스의 이름을 「YTN STAR」로 바꾸고 채널 성격도 영화 & 영화정보 채널에서 「24시간 연예뉴스 전문채널」로 탈바꿈시켰다. 「YTN



YTN스타 개국 : 연예정보채널 YTN 스타 개국 기념식에서 표완수 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임원과 간부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2004. 12. 10)

STAR」에 YTN의 정체성을 최대한 살려 연예 분야에 24시간 뉴스를 접목시킨 것이다.

연예뉴스 전문채널로 발전하려면 뉴스앵커와 기자 육성이 시급했다. YTN 미디어는 이에 대비해 취재를 담당할 보도국을 신설했다. 앵커로는 SBS 주말뉴스 앵커출신 송선경 아나운서, 스포츠중계 전문 아나운서 박찬, 2003년 미스코리아 출신 양혜선, SBS 골프채널 진행자 이경연, YTN 앵커출신 강수진을 스카우트했다. 또 신세대 앵커로 장근석을 발탁했다.

12월 18일 낮 12시, YTN STAR는 첫 전파를 탔다.

YTN STAR의 개국 당시 편성

생방송 「STAR 뉴스」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마다 하루 여섯 번 생방송으로 진행.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연예계 소식을 전달한다. 현장에 취재기자를 파견해 중계차로 생방송도 하고 전화로 해외통신원을 연결한다.

생방송 「스타 포커스」 :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하루의 연예계 소식을 종합 정리. 취재현장을 다녀온 리포터들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취재 뒷얘기를 들려준다.

「스타 매거진」 :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 지난 1주일간의 연예계 뉴스를 총정리해 주고 그 주에 있을 연예계 움직임을 예고한다.

「장근석의 뽀글뽀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 시청자가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 형식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성을 살린 쌍방향 연예정보 프로그램이다.

개국 특집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아시아」를 매주 1편씩 8주 동안 방영했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과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주소를 YTN 취재팀이 현지에서 밀착 취재했다.

YTN STAR는 개국 초기 87%를 자체 제작, 2005년에는 100% 자체 제작해 케이블 TV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블 채널 대다수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하거나 해외제작물로 채우고 있는 현실이 시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YTN 미디어는 2004년 한해 동안 4억 원의 흑자를 냈다. 2005년 경영목표는 흑자 10억 원.

제3절 : 준비 2년...지상파 DMB 따내다

YTN이 획득한 지상파 DMB 사업권은 2년 넘게 준비한 끝에 이뤄낸 YTN 전 사원의 땀과 희망의 결정체다. TF(Task Force)팀이 표완수 사장과 전 사원의 지원 아래 정부의 DMB 정책의 변화를 추적하고 때로는 이끌면서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끌어모으고 넓혀 나갔다.

길고 지루한 이같은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YTN은 마침내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업권자로 확정돼 미래 멀티미디어의 총아인 지상파 DMB의 한 주역으로 서게 되었다.

1. “YTN특성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매체”

정보통신부는 2002년 9월 뉴미디어 신규서비스를 DAB(디지털라디오방송)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추가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보통신부를 출입하던 문화과학부 기정훈 사원은 정보보고를 띄워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YTN이 DMB 사업자가 되면 유선 시청자로 제한된 위상을 제고하고



DMB 설명회 : 지상파DMB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YTN과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주관으로 열린 DMB세미나(2003. 4. 2)

PP(Program Provider) 신분에서 벗어나 지상파 TV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였다. 전략기획팀 서대원 사원도 비슷한 보고를 했다. 이동방송이라면 YTN 특성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매체며 사업자가 되면 향후 주파수를 확대해 나갈 때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보통신부는 몇 차례 공청회를 거쳐 2003년 3월 DMB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YTN도 발 빠르게 대응해 6월에 각 부서에서 19명으로 DMB TFT (Task Force Team)를 구성했다. 국장단으로는 김관상 보도국장 고흥남 미디어국장 박찬중 기술국장을 비롯해 8명, 실무팀으로는 보도국 문화과학부 차윤조 기정훈 김진두 사원과 기술국 전용화 차장을 포함해 8명, 주무팀은 전략기획국 박윤순 팀장과 최성호 서대원 사원이었다.

TFT는 주 1회 실무회의, 격주 1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시 TFT는 SK텔레콤이 추진하기 시작한 위성 DMB에 참여할 것인지 지상파 DMB를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표 사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차례 토론을 거친 끝에 사업추진 방향을 '지상파 DMB 플랫폼 사업에 중점을 두되 위성 DMB에도 PP로 참여하는 것을 병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8월에는 DMB 사업을 위해 기구개편을 단행, 전략기획국 안에 DMB 추진팀을 신설했다. 초대 팀장 박성호 차장에 이어 2004년 2월에 황명수 팀장이 바통을

YTN DMB 주주 간담회 : DMB사업을 위한 법인 「YTN DMB」 주주간담회. 왼쪽 두번째가 표완수 YTN사장(2004. 11. 26)



이었고 김현우 기정훈 류환홍 사원이 차례로 합류했다.

2. 교통방송 TBN과 「YTN DMB」 설립

「YTN DMB」 법인설립 작업이 본격으로 시작됐다. 가장 먼저 접촉한 회사는 교통방송이다. DMB에는 교통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국내에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으로는 TBN(경찰청이 전국 7대 도시에서 운영하는 전국 교통방송)과 TBS(서울시 교통방송)가 있다.

처음에는 두 쪽 모두와 접촉했다. 그러나 YTN DMB에는 전국적인 교통정보 망이 필요하다고 보고 TBN을 선택했다.

YTN과 교통전문 방송사인 TBN은 7월 27일 DMB 법인을 공동 설립하기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YTN은 국내 최고의 뉴스전문 방송사이고 TBN은 국내 최고의 교통정보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 두 회사의 결합은 이동방송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됐다.

YTN은 이어 10월 5일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솔루션 전문기업인 지어소프트와 DMB 협약 업무조인식을 가졌다. 지어소프트는 휴대폰에서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문회사. 기존 데이터 방송이나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해 DMB의 최대 수요층으로 예상되는 휴대폰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책임자였다.

이같은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1월 25일 YTN DMB 법인이 공식 출범했다. 초

기 자본금은 20억 원. 출자비율은 YTN이 30%로 1대주주, TBN 25%, SI(System Integration) 전문기업 쌍용정보통신 10%, 텔레매틱스(Telematics : 자동차 안에서 교통정보와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분야) 전문기업 이너큐브와 모바일 음악콘텐츠 전문업체 엠비즈 네트워크스 글로벌 각각 5%, DMB 단말기 생산 업체인 기륭전자 2.5%였다.

YTN DMB는 이어 2005년 1월 26일 자본금 200억 원에 20개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7개사에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비공식적인 공모를 통해 참여 희망 업체들을 엄선해 자본금 200억 원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다.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경영이 투명한지, 사업분야가 DMB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타 방송사와 지분관계가 얽혀 있거나 타 컨소시엄과 관련이 있는 기업, 종교방송 등 10여 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모두 탈락시켰다.

YTN DMB 컨소시엄은 2월 2일 ANTV 컨소시엄과 통합했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DMB 사업자는 지상파에서 3개 업체, 비지상파에서 3개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다. 비지상파군에서 DMB 사업을 준비중인 업체는 9개에 달했다. 사업 희망자가 난립한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권유도 있고 서로간의 필요성도 있어 합종연횡이 시작됐다. YTN DMB는 ANTV 컨소시엄 중에서 주관사인 이즈온과 재무구조가 뒷받침되는 경남기업 2개 사만 수용하고 별도로 4개 업체를 추가모집했다. 참여기업은 모두 26개 업체가 됐고 자본금은 사업권을 따는 대로 3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3. 비지상파군 최고점수로 사업권 받아

방송위원회는 2005년 1월 12일 DMB사업 허가추천을 신청(RFP)하도록 공고했다. YTN DMB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갔다. 허가추천 신청 공고 이전인 2004년 가을부터 이미 외부전문가 그룹과 함께 사전준비를 해왔었다. 공고가 나면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참여인원은 전략기획국 DMB 추진팀에 회계사팀, 문서디자인 용역팀,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지어소프트 쌍용정보통신 이너큐브에서 지원한 인력, 모두 20명이 넘었다. 한 달간에 걸친 철야작업 끝에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 사업계획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해 모두 5만 쪽 분량으로 YTN 창사 이래 최대 규모였다.

YTN DMB는 2월 14일 방송위원회에 지상파 DMB 사업 허가추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는 운반용 바퀴를 단 목재 파일박스 3개(서랍 9개)와 플라스틱 박스 1개에 담아 제출했다.

방송위원회는 14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장은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위원은 법률가 경영학교수 회계사 방송학교수 시민단체대표로 이뤄졌다. 비공개 심사와 공개청문회를 거쳐 3월 28일 지상파군 3개 업체, 비지상파군 3개 업체를 발표했다.

YTN DMB는 비지상파군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업체와의 점수 차이는 63.99점(1000점 만점)이었다. 한두 분야에서 앞선 것이 아니라 전 분야에서 경쟁자를 압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점수였다. YTN의 우수한 방송 능력에서 나오는 내적 에너지, 가장 먼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우수한 협력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사전 준비작업, 치밀한 사업계획서가 거의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표 사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뒤 노조가 주최한 사장과의 대화에서 “지상파 사업자와는 평가기준이 달랐지만 직접 맞닥뜨렸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지상파 DMB사업 허가추천 신청 심사결과 (2005. 3. 28)

평가 점수					
구분	법인명	대표자	최대주주	평가점수	비고
지상파TV 사업자군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정부 100% 출자	830.42	기존법인
	(주)문화방송	최문순	방송문화진흥회	855.40	''
	(주)에스비에스	안국정	(주)태영	846.20	''
	한국교육방송공사	권영만	정부 100% 출자	825.25	''
비지상파TV 사업자군	(주)와이티엔디엠비	표완수	(주)와이티엔	773.35	설립예정법인
	한국디엠비(주)	정 훈	(주)옵니텔	702.49	''
	케이엠엠비(주)	박경수 조순용 박재홍	피에스케이(주)	709.36	''
	유큐브미디어(주)	김우철	(주)솔리테크	668.83	''
	디엠비코리아(주)	신현웅	(주)디지털스카이넷	619.55	''
	국민디엠비플러스(주)	장한성	대한유화공업(주)	608.85	''



백선기

- ▲ 1959년 생
- ▲ 신구전문대 사진학과 졸업
- ▲ 월간 은행계(1985) 국립영화제작소(1987) 촬영감독

- ▲ YTN(1994) 영상취재부기자 영상제작팀 영상취재팀차장대우(2002)
- ▲ YTN 보도국 영상취재팀 차장(2005~)

4. 채널 정체성은 「종합정보 플랫폼」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서 정보를 얻는 시대를 열겠다.”

YTN DMB가 내건 지향점이다. YTN DMB는 채널 정체성을 「종합정보제공 플랫폼」으로 정했다. 채널구성은 뉴스를 중심으로 한 종합편성 비디오 채널과 중

- 5대 사장의 임기를 마치고 곧 6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DMB 사업 진출, 신사옥 이전 등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해 오셨는데 그동안의 경영성과 평가와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곳에 역점을 둘것인지 밝혀 주시지요.

▲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일을 꼽아 본다면 첫째가 남대문 사옥으로 이전

인터뷰

표완수 사장



YTN이 자산 면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울타워를 CJ에 위탁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경영을 함으로써 YTN에 더 이익이 되는 건지요?

▲ 서울타워는 매우 훌륭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그것을 활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CJ에

남은 임기동안 어떤곳에 역점을 둘 것인지...

미디어 환경에 맞는 콘텐츠 업그레이드에 중점

입니다. 두 번째가 5:1감자, 세 번째가 DMB 사업진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YTN 미래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경영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점은 지금까지가 외형적인 준비였다면 앞으로는 내용적인 발전, 다시 말해 콘텐츠 업그레이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 DMB 사업에 진출한 이유는.

▲ DMB 사업은 우리가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미디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뉴미디어가 DMB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MB 사업에 뛰어들면서 YTN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콘텐츠 개발,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뉴스, 거기에 부응하는 콘텐츠 개발, 그러한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YTN 미디어 인수는 MPP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매체가 언제쯤 우리의 수익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YTN 미디어라는 자회사는 수익을 당장 올린다는 취지에서라기보다도 YTN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YTN 영향력을 확대하자는데 첫째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YTN의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역시 YTN 미디어의 자산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겨서 올해 12월이면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내방객이 오게 되고 수익도 오르게 됩니다. 결국 서울타워의 자산가치가 오르고 YTN의 자산가치도 크게 오르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 YTN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장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YTN 장래는 매우 밝고 희망에 차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YTN에 딱 맞는 환경입니다.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에서 YTN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 하나가 YTN DMB사업입니다.

합정보제공 데이터 채널, 교통정보전문 오디오 채널과 음악 오디오 채널등이다.

YTN 플러스 : 신속한 뉴스에 연예정보의 재미를 가미한 인포테인먼트 채널이다. YTN의 채널특성을 살려 정시마다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연예오락 정보도 서비스한다. 본방송 화면 하단에 나오는 주요 뉴스 스크롤

YTN DMB 채널구성

구 분	채널명	운영형태	내 용
비디오채널	YTN플러스	자체운영채널	뉴스·정보 중심의 종합편성채널
오디오채널	TBN교통방송	임대채널(특수관계자)	24시간 교통방송
	Satio플러스	임대채널	24시간 논스톱 음악방송
데이터채널	YTN프리미엄	자체운영채널	뉴스·생활정보 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 데이터서비스

은 보기 쉽도록 문자를 키우고 흐르는 속도도 늦춘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중 수시로 데이터 정보채널로 이동해 뉴스 속보와 주요 뉴스, 날씨 정보를 볼 수 있다. 휴대폰 단말기에서는 사회 이슈에 대해 시청자들의 의견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TBN 교통방송 : 단순한 교통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에도 교통량, 도달시간까지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도로가 막히면 현장의 스틸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 TBN은 이같은 서비스를 위해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교통정보를 종합관리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도로 밑에 센서를 깔고 요충지마다 CCTV를 설치해 각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여행정보를 TPEG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맛 좋은 음식점이 있고 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알 수 있다.

Satio 플러스 : DJ에 의존하는 기존 FM 라디오와는 차원이 다른 음악마니아를 위한 방송. 기존 라디오 방송에서 흔히 등장하던 전화연결은 없다. 그 대신 단말기 화면에 음악퀴즈를 내고 즉석에서 문제를 푸는 새로운 차원의 청취자 참여방송도 계획하고 있다. 곡이 나갈 때 현재의 곡명 가사 가수와 같은 관련정보도 화면에 표출된다. Satio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서 30개 채널의 음악전문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YTN 프리미엄 : 비디오 채널인 YTN에서 못 얻는 정보는 데이터 방송인 YTN 프리미엄에서 얻을 수 있다. YTN 플러스에서 자신이 알고 싶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경우 YTN 프리미엄으로 들어가 기사전문을 찾아보면 된다. 뉴스 외에 날씨 정보나 연예정보도 있다. 또 유머나 교육 영화 취업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저장돼 있어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 볼 수도 있다.

권소사업 참여 26개 업체

	업체명	참여액(억원)	지분율(%)
1	YTN	76	25.33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TBN)	46	15.33
3	경남기업	46	15.33
4	지어소프트	28.2	9.40
5	소프트텔레웨어	20	6.67
6	에이스테크놀로지	20	6.67
7	기산텔레콤	10	3.33
8	이즈온	7	2.33
9	에프알텍	6	2
10	엠비즈네트웍스글러벌	5.56	1.85
11	기룡전자	5	1.67
12	자티전자	3.4	1.13
13	아이티플러스	3	1
14	이너큐브	3	1
15	위즈정보기술	2.6	0.87
16	우리넷	2.5	0.83
17	우일정보기술	2.4	0.80
18	엠티아이	2.23	0.74
19	쌍용정보통신	2	0.67
20	에스제이엠	2	0.67
21	부산방송	1.5	0.5
22	광주방송	1.5	0.5
23	SNH	1.11	0.37
24	엠펙에스테크놀로지	1	0.33
25	가바플러스	1	0.33
26	다이렉트미디어	1	0.33
	합 계	300	100

5. 11월 시험방송 · 12월 본방송 준비

YTN은 2005년 4월 8일 인사에서 「지상파 DMB 총괄단」을 구성했다. 총괄단장에 황명수, 정책기획팀장에 이동현, 채널운영팀장에 박철원, 데이터서비스팀장에 기정훈, 기술팀장에 임영선, 경영지원팀장에 신광호(겸임)를 임명했다. 지상파 DMB 총괄단은 본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법인설립에서부터 장비발주 방송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준비를 담당하게 된다.

YTN DMB 법인은 6월 9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설립을 마쳤다. 자본금 300억 원도 모두 납입했다. YTN은 25.33% 지분(76억 원)으로 1대주주다. 주주구성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허가신청 당시 주주였던 현주컴퓨터가 부도나 우일정보기술이 현주컴퓨터를 대신해 새 주주로 참여했고 일부 기업의 지분율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법인설립이 끝남에 따라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추천서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정통부에서 무선국을 허가했다. 필요시설은 지상파 방송과 같은 송신기와 송신소 시설, 송신망 원격감시 시설, 주·부조정실, 스튜디오, 제작·편집 시설이다.

송신관련 장비는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방송기반시설과 제작관련 시설도 10월까지 설치하게 된다. 예정대로 작업이 진행된다면 11월 시험방송, 12월 본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비지상파 3사가 본방송을 할 수 있는 12월에 동시에 본방송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FRI)은 2005년 2월 5일 발표한 시장전망 보고서에서 지상파 DMB 매출은 2007년 1400억 원, 2008년 2700억 원, 2009년엔 4600억 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2010년 6개 사업자 전체 매출액을 1200억 원으로 예측했다.

YTN DMB는 사업개시 5년차(2009년)에 손익분기점(BEP)에 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조직을 최대한 작게 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제4절 : 서울타워 리모델링

1. CJ그룹 비용·임대료 + α 수용

당초 서울타워 리모델링은 전략기획팀이 발족할 당시 YTN의 발전 어젠다에 포함돼 있었다. 서울타워는 YTN이 현재의 물건 그대로 끌어안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보물단지'였다. YTN의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액(세금 포함 743억 원)에 합당한 수익률을 확보하려면 리모델링이 필요했다.

그러나 YTN으로서는 100억 원이 넘는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부자금 수혈, 즉 투자유치가 필요했다.

YTN은 2003년 3월 CJ 그룹에 투자지사를 타진했고 CJ 그룹은 두 달 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J 그룹이 자금을 투자해서 서울타워 광장과 회전 전망대를 리모델링하고 10년간 영업권을 보장 받는다는 게 핵심이었다. 양도할 영업장은 방송 송신시설이 들어있는 공간을 제외한 건물의 대부분, 즉 본관 5개 층 일부와 광장 1~2층, 전망대 1~5층이었다. 8월에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상



상수중

- ▲ 1963년 생
- ▲ 한국외대 인
도어과 졸업
- ▲ CBS 사회
부(1989) 정치
부(1992)
- ▲ YTN네트워

- 크부(1994) 정치부 기획부 정치부차장
- 대우(2001) 스크롤뉴스팀장(2004)
- ▲ YTN 보도국 뉴스편집2팀장(2005~)

에 들어갔다.

YTN은 CJ 그룹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1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연간 임대료로 40억 원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 플러스 알파는 매출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추가 지불한다는 것이다. CJ는 120억 원의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연간 임대료 40억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CJ가 제시한 임대료는 32억 원, 8억 원의 차이였다. 지루한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다. 술한 난관이 있었지만 CJ측은 YTN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2004년 2월 4일 기본합의서에 서명이 이뤄졌다.

2. 입주업체들 퇴거 거부로 명도소송도

가장 큰 난제는 입주업체 퇴거문제였다. 입주업체들은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의 영업계약을 맺고 있었다. 계약기간 중의 퇴거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켰다. YTN은 이들이 퇴거를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업체도 맞소송을 냈다. 법정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양쪽 변호사가 합의한 금액은 30억 원을 넘어섰다. 애초에 법률적 자문을 맡은 업체가 예상한 명도 비용은 13억~15억 원이었다. 실제로 건물명도에 들어간 비용이 예상 비용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시기도 예정보다 훨씬 늦어졌다. 당초 기본합의서에는 늦어도 2004년 8월 말까지 입주업체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서울타워를 CJ 측에 명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정소송이 이어지면서 입주업체들의 퇴거시기가 계속 늦어져 해를 넘겼다. 결국 최종계약은 2005년 4월 8일 이뤄졌다. CJ와 최초로 접촉이 시작된 때로부터 따져 보면 무려 2년 이상 걸렸다.

제5절 : ‘한류’ 타고 중국 방송시장 진출

1. 가화문화와 한중 합작회사 설립

중국 방송시장 진출도 전략기획팀에서 매체력 향상과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추진했다. ‘YTN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널 하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결국 MPP로 갈 수밖에 없다. 국내시장에 한계가 있다면 해외에서 뚫어야 한다.’ 이것이 YTN의 최대 화두였다.

2003년은 해외 방송 시장이 활기를 보인 시기였다. 중국에서는 한류 붐이 일기 시작했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타깃이 됐다.

그러나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허가 없이는 진입하기 어렵다. 보도채널은 더욱 불가능. 그래서 우회해서 가자는 얘기가 나왔고 파트너로 중국 미디어 회사 가화문화그룹을 선정했다. 가화문화그룹은 베이징 시 당국이 세운 국영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이벤트 사업도 하고 공연도 하며 프로그램 제작에도 손을 대고 있다.

YTN과 가화문화그룹은 한중합작회사인 북경범아문화발전공사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500만 위안(당시 7억5000만 원)으로 가화 51%, YTN 49%였다. 2003년 7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표완수 사장과 윤종수 전략기획팀 차장, 거리지 가화문화그룹 부회장, 안명 가화문화 경기유한공사 총경리가 참석했다.

북경범아문화발전공사는 한류와 중국 연예계 소식을 한데 묶은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 중국 방송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것을 사업모델로 삼았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YTN, 판매는 가화가 담당하기로 했다.

범아유한공사는 2004년 4월 회사 이름을 차우천으로 변경했다. 몇차례 곡절이 있었지만 2005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5월 27일에는 홍콩 보컬 그룹인 비온드의 베이징 공연을 유치했다. 공연은 성황이었다.

또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해 한국 방송사에 납품하는 제작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를 이용해 중국 방송사들과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내 매니지먼트 사업도 벌이고 있다.

2. 티켓 판매회사 「태극 I&E」 설립

가화문화그룹은 북경범아공사를 설립하는 계약식 때 YTN에 대해 중국 내에서 티켓판매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의 티켓시장이 우리 돈으로 1조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게 가화 측 설명이었다.

영화공연 스포츠경기 전시회 여행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레저 티켓은 물론, 항공권 판매도 가능했다. 가화 측은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했고 올림픽도 치른 경험이 있어 티켓 방면에서는 세계 최고라며 IT 기업을 끌어들이며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다. 마침 인터넷 기업인 NHN이 티켓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그해 10월 NHN과 합작으로 태극 I&E를 설립했다. 중국 티켓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회



중국 방송시장 진출 디딤돌 : 중국 베이징 중화세기단 귀빈실에서 열린 YTN과 중국 가화문화경기유한공사의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식에서 합의서를 교환하는 표완수 사장(오른쪽)과 거리지 가화문화그룹 부회장(2003. 7. 11)

사다. 자본금은 30억 원(나중에 43억 원으로 증자)으로 NHN 70%, YTN 30%였다. 태극 I&E는 가화문화그룹과 합작으로 망연망락표무 유한공사(대표 안 명)를 설립했다. 출자비율은 가화 30%, 태극 I&E 70%. 그러나 배당 비율은 가화 64%, 태극 I&E 36%다.

자본금은 8100만 위안(121억 원). 계약식은 그해 10월 28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표완수 사장과 NHN 김범수 사장이 참석했다.

망연망락표무 유한공사는 베이징 내 각종 문화·레저 티켓판매를 대행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온라인 티켓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무 유한공사는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해 NHN의 기술지원 아래 콜 센터와 중앙시스템을 갖췄다.

제8장 경영 안정 속에 기획·취재 활력

제1절 : 5분의 1 감자 “재무위험 해소”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YTN의 주가는 초기를 제외하고 줄곧 액면가 5000원을 밑돌았다. 2003년 말에는 액면가의 20% 수준인 1100원 부근을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주가가 바닥권을 머물게 된 것은 재무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그동안의 누적적자로 자본잠식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자본잠식은 977억원으로 잠식 비율은 47%에 달했다.

1. 퇴출요건 강화로 관리종목 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말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04년 1월 2일부터 액면가의 30% 미만 상태가 30일 연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는 관리종목 지정 뒤 60일 중 10일 연속 또는 누적 20일 이상 액면가액 30% 미만 상태가 지속될 경우 퇴출토록 했다. 2004년 초 YTN 주가는 액면가 30% 미만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일정기간 경과 뒤 퇴출될 것이 뻔했다.

감자를 정식으로 결정하기 전에 시장에서는 이미 루머가 나돌아 주가는 계속 하락했다. 2월 6일에는 상장 후 최저가인 875원을 기록했다. 2월 7일에는 액면가가 30% 미만, 즉 1500원 이하가 30일 이상 지속된 것으로 판단돼 정식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종목과는 달리 신용매매나 미수매매를 하지 못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2. 항의하던 일반주주도 감자 이해

YTN은 3월 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을 5분의 1로 줄이고 액면가 5000원을 1000원으로 분할할 것을 결정했다. YTN 자본금은 2100억 원에서 42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액면분할에 따라 발행주식 수는 4200만 주로 변동이 없었다. 일반주주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무위험을 해소하고



주식 설명회 : 표완수 사장이 5분의 1 감자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2004. 1. 27)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5분의 1 감자’ 라는 극약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충을 이해했다. YTN 주식은 4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매매정지됐다. 22일부터는 일반종목으로 환원돼 매매가 재개됐다. 액면가는 1000원이었다. 일반종목으로 환원되면서 신용매매나 미수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감자 초기에는 주가가 기대한 것만큼 상승하지 못했다. 감자에 따른 후유증인 듯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액면가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6월 4일에는 1465원까지 치솟았다. 2005년에 들어와서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YTN이 지상파 DMB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시된다는 잇따른 언론보도로 기대감이 높아져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2월 17일에는 4655원까지 올라섰다.

표완수 사장은 2004년 6월 1일 YTN 주식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일반종목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계기로 제 2차사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제 2차사의 비전은 ‘종합미디어 그룹으로의 재도약’ 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엔터테인먼트 전문 채널인 월드와이드 넷 인수 (2)새로운 방송·통신 융합매체인 DMB 분야 진출 (3)FM 라디오 사업 참여였다.

표 사장은 코스닥 관리종목 탈피를 계기로 그동안 회사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재무위험이 완전 해소됐다고 강조하고 ‘종합미디어 그룹으로의 재도약’ 을 본

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 경기 부진에도 흑자구도 이어가

YTN은 2003년도에 20억7347만 원의 흑자를 냈다. 2001년과 2002년, 2년간 연속 적자를 냈다가 3년 만에 두 자리 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2004년도에도 14억3970만 원의 흑자였다. 흑자규모가 축소된 것은 국내경기가 부진한 영향이 컸다. 내수경기 부진으로 지상파 3사의 경영도 크게 악화됐다. KBS가 적자(60억 원)로 돌아서 큰 충격을 줬고 MBC는 1년 전 흑자 846억 원에서 655억 원으로, SBS는 흑자 855억 원에서 259억 원으로 각각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 YTN의 흑자폭 감소에는 내부의 사정도 무시할 수 없었다.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86억 원 증가한 데 비해 비용이 100억 원이나 증가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제2절 : 유효 광고매체로 자리잡다

1. 광고매출이 전 매출액의 60% 차지

YTN 수익은 방송매출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2004년 전체 매출액은 682억2000만 원. 이중 방송매출은 78%인 536억 원이다. 그 다음 큰 몫인 서울타워 수입이 15%로 105억 원, 영상물 제작이나 이벤트 수입 같은 사업수익이 6%인 41억 원이다.

방송매출액 중에서는 역시 광고매출이 가장 크다. 2004년의 경우 광고매출은 406억 원으로 전체의 76%다. 협찬수입은 12%인 62억 원, SO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신료인 매체수입은 7%로 36억 원이다. 영상물 판매수입은 5%인 32억 원.

2. 2000년 300억 원대 돌파 · 2004년엔 469억원

YTN 광고수입은 개국 초기 케이블 TV의 보급이 열악한 때를 빼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개국 1차연도인 1995년에 광고수입은 103억 원을 기록했다. 1995년 말 유료시청은 20만6000가구, 전체 시청이 55만6000가구인 점에 비춰 볼 때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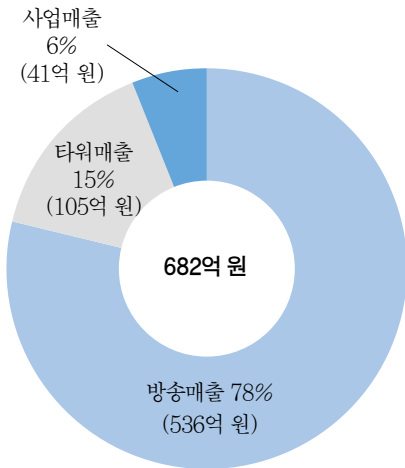
신광호

- ▲ 1962년 생
- ▲ 경기대 경영학과 졸
- ▲ 연합통신(1994)
- ▲ YTN 입사(1997) 경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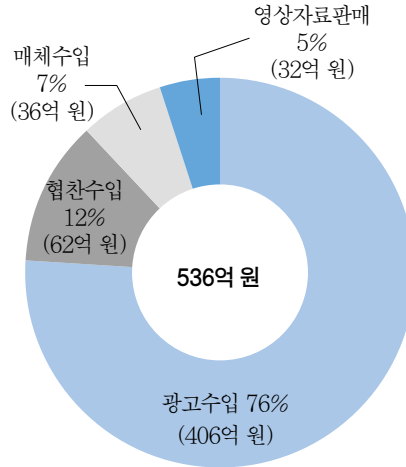
리국 기획관리부차장대우(2004)

▲ YTN 재무회계팀장 겸 DMB 경영지원팀장(2005~)

YTN의 수익구조(2004년)



방송매출구조(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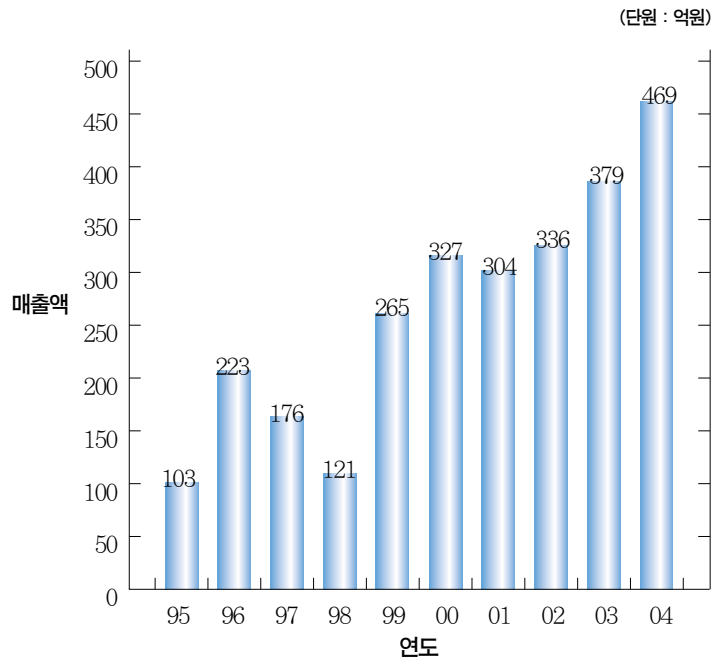
1996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223억 원으로 치솟았다. 광고영업 조직이 정비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시작된 것이 매출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유료가입이 10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해 광고시장에서 YTN은 유효한 매체로 평가받지 못했다. 광고영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97년에 광고매출은 17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나 감소했다. 그해 11월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고 광고시장은 극도로 위축된 탓이다. YTN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1998년 광고 매출액은 121억 원으로 무려 31%나 감소됐다.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광고매출이 8억 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때가 바닥이었다.

경제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1999년에는 265억 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했다. 이어 2000년에는 23% 증가한 327억 원을 달성했다. 드디어 300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IMF 관리체제를 맞아 줄어들었던 케이블 TV 유료가입 수가 1999년에 140만 가구로 늘어나고 마케팅 조직도 공격적인 영업에 들어간 것이 매출급증에 기여했다.

2001년에는 다시 304억 원(7% 감소)으로 줄다가 2002년 336억 원(10% 증가) 2003년 379억 원(13% 증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469억 원(24% 증가)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신가구 수가 1200만을 돌파해 YTN이

연도별 광고매출 현황



유효한 광고매체로 자리잡는 데 성공했고 마케팅국이 시장지향적인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것이 매출증대로 나타났다.

3. 위성방송으로 수신료 수입 늘어

YTN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는 일반 가정이 YTN을 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이며 가입비를 징수하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인 SO로부터 YTN은 일정액을 받고 있다. 수신료 액수는 개국 초기에는 SO와 PP협의회간의 단체계약에 의해 결정됐다. SO가 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신료 중에서 32.5%를 PP협회에 주면 PP 협의회가 일정기준에 의해 배분했다. 배분비율은 시청률을 가장 우선시했다.

YTN은 기본형(컨버터 사용료 2000원 포함 월 1만7000원) 기준으로 가구당 326원을 받았다. 24시간 종일 방송은 YTN밖에 없어 다른 PP에 비해 액수가 높았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PP들이 수신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재방, 3방 횟수를 늘렸다. 이에 YTN은 수신료 산정에 제작비를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재방, 3방을 하는 중소 PP와 생방송을 위주로 하는 YTN의 제작비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러나 다른 PP들이 모두 반대해 관철할 수 없었다.

수신료 산정은 2002년부터 단체계약에서 SO와 PP간의 개별 계약으로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계약은 담합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개별 계약이 되면서 SO의 위상은 강화됐다. SO는 PP에게 배분한 수신료 비율을 32.5%에서 10% 내외로 축소했다.

또 2002년부터 등록제가 실시돼 PP 숫자가 38개에서 150여 개로 대폭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PP의 수신료 수입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SO로부터 수신료를 받지 못하는 PP도 등장했다. 2003년부터는 위성방송이 시작돼 수신료 수입이 추가됐다. 2004년 말 수신료 수입은 45억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케이블 TV 수신료가 67%, 위성방송 수신료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4. 영상물 제작 수입 2000년엔 30억

YTN 수입 중에는 영상제작물 수입이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캠페인이나 CF를 제작하는 일이다. 1997년도 영상제작물 수주가 YTN 매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팀을 발족했다. 3대 장명국 사장이 취임하면서 1팀과 2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장 사장 시절에는 외부 영상물 제작이 특히 많았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주사의 캠페인이나 자자체 홍보물, 일반 기업의 CF를 수주했다. 한 달에 10여 편씩 제작하기도 했다.

영상물 제작 수입은 4대 백인호 사장 시절에 최고에 달했다. 2000년에는 실적이 3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3년부터는 보도국의 공정방송위원회 활동이 강화되면서 보도국 기자들을 동원한 협찬이나 광고 수주는 금지됐다. 영상물제작 수주도 발주업체의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방식에 치중하게 됐다.

YTN이 제작한 대표적인 캠페인 영상물은 「함께하는 대한민국 만들기」(SKT) 「세계와 함께 희망을 함께」(삼성그룹) 「건강한 주거문화」(대한주택공사) 「돼지고기 바로 알기」(대한 양돈협회) 「자랑스런 우리고장」(지자체의 지역축제 캠페인) 등이다.

제3절 : 감사실 기능 크게 강화

1. 김희중 상임감사 주총서 선임

김희중 상임감사는 2004년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됐다. 김 감사는



안재열

▲ 1960년 생
▲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매일경제신문(1987) 연합통신 광고부(1994)

▲ YTN(1996) 광고2부차장대우(2000) 마케팅2부장직대(2004)

▲ YTN 총무부 부장대우(2005~)



김희중 상임감사

서울대학교 상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1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1977년에 경향신문에 들어가 편집국장(1999년) 부사장 겸 편집인(2001~2002년)을 지냈다. 김 감사의 취임으로 감사실의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회사의 이벤트나 제휴·투자 사업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시정토록 하고 있다.

2. 마케팅 담당 이두표 전무 영입

이두표 전무이사는 2005년 4월 18일 선임됐다. 이 전무는 경희대 경영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0년에 MBC에 들어가 영업국장(1990년)을 지냈다. 이후 KBS 광고국장(1995년), 영업담당 이사(1998~2001년), SBS 미디어넷 영업담당 사장(2001년), SBS 광고담당 상무(2003년), 광고본부장(2004~2005년 4월)을 거쳤다. 이 전무는 광고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3. '내부인사 임원승진' 고광남 상무

고광남 상무이사는 2005년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됐다. 고 상무이사는 YTN 3대 보도국장(2001년 3월~2002년 10월)을 거쳐 타워사업국장(2003년), 전략기획국장(2004년)을 지냈다. YTN 내부 인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것은 2001년에 이동근 상무(후에 전무로 승진)에 이어 두 번째다.

4. 강갑출 보도국장 재임명

2003년 10월 2일 제5대 보도국장에 강갑출이 임명됐다. 강 국장은 1979년 TBC에 입사, 1980년 KBS로 옮겼다. 1994년 YTN에 들어와 네트워크부장 문화스포츠부장 국제부장 타워사업국장을 지냈다. 강 국장은 2004년 9월 23일에 재 임명됐다. 강 국장 재임 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에서의 열린우리 당 압승,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 부시 대통령 재선 등 이 있었다.

제4절 : 1400만 가구가 케이블·위성 방송 본다

방송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케이블 TV 가입 수상기는 2004년 12월 말 1277만 대로 전체 수상기 1948만 대 중 65.5%에 해당된다. 위성방송 가입자는 2004년 12월 말 165만 가구에 이른다. 케이블과 위성을 합치면 시청 TV 수상기 대수는 1442만 대다. TV 수상기 대수로는 10대 중 8대가, 가구 수로는 10가구 중 7가구가 케이블 TV나 위성을 통해 지상파를 포함해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1. YTN 가입가구 수 다른 채널 압도

케이블 TV별 가입가구를 보면(한국케이블방송협회 자료) 2004년 12월 말YTN 이 1200만 가구로 가장 많고, OCN 1197만, 홈 CGV 1114만 가구로 나타났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가입가구 수가 타 케이블 TV 채널 가입가구를 압도한 것이다.

YTN은 또 2004년 3월 18일부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위성방송 「YTN 인터

케이블 TV·위성방송 가입자

기준	케이블TV		위성방송		전체가구수	
	가입자 수	가입률	가입자 수	가입률		
2003.12.31	11,149,485	65.6%	1,191,364	7.0%	16,987,634	
2004.12.31	단자수	12,769,067	73.4%	1,652,255	9.5%	17,391,932
	가구수	10,806,667	62.1%			
증가(단자 수 기준)	1,619,582	증가율 14.2%	460,891	증가율 38.7%	증가율 2.4%	

* 방송위원회 조사

* 가구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내셔널」을 송출하고 있다. YTN과 프로그램 공급협정을 맺은 동포방송사는 북미 지역 22개, 아시아 지역 4개 사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30개 방송사에 이른다.

YTN 인터내셔널을 시청하는 재외동포는 2005년 6월 말 50만 가구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케이블 TV와 국내 위성방송, 해외 위성방송을 모두 합쳐 YTN 시청 가구는 국내외적으로 14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가입률 부산 가장 높고 충남 가장 낮아

케이블 TV 가입 가구를 권역별로 보면 부산지역의 가입률이 가장 높으며 (85.2%), 충남지역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44.9%) 나타났다. 전국 케이블 TV 평균 가입률인 62.1%에 미치지 못하는 충남 인천 전북 강원 전남에서는 위성방송(SkyLife) 가입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이에 이미 경쟁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2. 케이블 TV 시청점유율 꾸준히 올라

케이블 TV 채널 전체의 시청점유율은 지상파에 비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2005년 5월 18일 발간한 「2004년도 TV 프로그램 시청률 백서」를 보면 서울지역 지상파 방송의 평일 가구 시청률은 2000년 36.5%에서 매년 감소해 2004년도에는 9.5% 포인트 떨어진 27%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시청시간도 2000년 2시간 31분에서 2004년 2시간 4분으로 줄어 들었다. 반면 케이블 TV 시청시간은 2003년 39분에서 2004년 45분으로 늘어났다. 조사는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5절 : ‘돌발’ 히트 · 특종 · 우수 프로그램

1. 시청자 · 네티즌 끌어잡은 「돌발영상」

2003년도 TV 뉴스의 히트작을 선정하라면 단연 「돌발영상」이 맨 앞쪽에 꼽힐 것이다. 2분짜리 실험적인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돌발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시청자와 네티즌의 눈을 삼시간에 휘어잡았다.

YTN 시청가구 현황

케이블 TV	1,200만(2004년 12월)
위성방송(SkyLife)	165만(2004년 12월)
YTN 인터내셔널	50만(2005년 6월)

권역별 케이블 TV 가입 현황

구분	전체 가구수	케이블TV 가입자 수 (가입률)		위성방송 가입자 수 (가입률)
		2004		2004
		단자수	가구수	
서울	3,780,305	2,664,113 (70.5%)	2,173,541 (57.5%)	284,393 (7.5%)
경기	3,748,325	2,813,648 (75.1%)	2,296,650 (67.3%)	434,563 (11.6%)
인천	908,673	549,114 (60.4%)	432,175 (47.6%)	115,182 (12.7%)
대전	492,068	369,714 (75.1%)	349,936 (71.1%)	25,300 (5.1%)
충남	736,328	459,724 (62.4%)	330,539 (44.9%)	116,497 (15.8%)
충북	534,231	400,851 (75.0%)	364,109 (68.2%)	54,937 (10.3%)
광주	469,847	460,190 (97.9%)	326,422 (69.5%)	17,533 (3.7%)
전남	741,768	468,495 (63.2%)	438,661 (59.2%)	109,008 (14.7%)
전북	675,145	403,801 (59.8%)	339,550 (50.3%)	92,123 (13.6%)
대구	853,142	682,440 (80.0%)	553,303 (64.9%)	34,643 (4.1%)
경북	985,475	684,720 (69.5%)	632,581 (64.2%)	92,302 (9.4%)
부산	1,251,069	1,171,615 (93.7%)	1,065,467 (85.2%)	44,609 (3.6%)
경남	1,452,212	1,165,582 (80.3%)	1,070,078 (73.7%)	117,682 (8.1%)
강원	563,355	321,585 (57.1%)	303,764 (53.9%)	91,415 (16.2%)
제주	199,989	153,475 (76.7%)	129,891 (65.0%)	22,068 (11.0%)
전국	17,391,932	12,769,067 (73.4%)	10,806,667 (62.1%)	1,652,255 (9.5%)

말 그대로 돌발적인 히트였다. 어느 신문은 “신문의 4컷짜리 시사만화가 온라인 상에서 돌발영상으로 진화했다”고 해석했다. 자존심이 센 지상파도 모조품을 만들어 ‘돌발영상 따라하기’에 나섰다.

쓰레기감 거친 막말에 ‘진실’ 숨어 있다

2003년 봄철 편성개편으로 12시 정시 뉴스인 「뉴스 퍼레이드」가 1, 2, 3부로 1시 반까지 90분간 진행됐다. 첫날인 3월 11일, 뉴스 퍼레이드 맨 마지막에 앵커의 클로징멘트 다음에 1분짜리 영상을 배치했다. 정치관련 「에피소드 영상」을 특별한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마땅한 이름이 없어 그냥 「엔딩영상」으로 불렀다. 노종면 PD(돌발영상으로 유명해져 스스로 PD를 자처)는 “엔딩영상이 돌발의 원조”라고 말했다. 엔딩영상은 이런 상태로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방영됐다. 그러던 중 엔딩영상에서 ‘말’을 살려 일반적인 보도영상과는 좀 다른 것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27일만에 걸친 이라크 전쟁 뉴스특보 기간 중 영상의 편집방향이나 쓰임에 대해 검토하고 시작품을 만들어봤다. 원본 테이프에 남아 있는 ‘거친 음성, 막말, 흔들리는 화면’ 이라도 숨어있는 진실이나 풍자적 요소가 있으면 최대한 살려내고 이어 붙였다. 점잖지 않은 이런 화면은 정규뉴스에서는 모두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

스무 날 정도 시험기간을 거쳐 4월 28일 「돌발영상」은 얼굴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뉴스 퍼레이드」의 한 코너로 출발했다. 이름을 ‘돌발’이라고 붙이게 된 것은 영상의 소재가 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 영상을 매일 방영하되 순서를 특정해 놓지 않고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앞부분에 틀기도 하고 뒷부분에 틀기도 하는 말하자면 돌발적으로 방영한다는 의미도 포함됐다.

인터넷에 오르며 이 입에서 저 입으로

돌발영상이 세상을 휘어잡게 된 것은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가 가능해지면서였다. 「디지털 YTN」에 파견 나가 있던 장기영 사원이 돌발영상을 YTN 홈페이지에 싣겠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YTN은 YTN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는 YTN 자회사다. 8월 초 돌발영상 석달치가 한꺼번에 실렸다. 이때부터 돌발영상은 마치



초기 도발팀 : 왼쪽부터 노종면 기자 장민수 기자 박미란 AD 정민희 작가

발 달린 귀신처럼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옮겨 다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리저리 옮겨 퍼졌다.

“그 촌놈 이장하다… 동네 이장하다 천신만고 끝에…”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이 8월 31일 최병렬 대표 서청원 전 대표와 골프회동을 하던 중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장면은 다음날 「뛰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방영, 당연히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고 박희태 의원은 네티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전국 이장연합회는 항의회견까지 했다. 박희태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해명하고 사과했다. 이때부터 돌발영상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히트작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왔다.

“우리 모두 강남 살아요” (10월 29일 방송)

부동산 대책 발표장에 나란히 앉은 장·차관 5명 중 4명은 강남, 1명은 송파에 산다는 것을 영상과 자막으로 보여줬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 고위공직자의 이면성을 풍자한 걸작이었다.

탄핵 D-DAY 전쟁 (2004년 3월 12일 방송)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던 날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다룬 작품이다. 편집하는 데 10시간이나 걸렸고 제작에 쓰인 원본 테이프만도 50개가 넘었다. 영상

분량은 6분 40초로 가장 길었다.

돌발이 주목을 받자 매일 매일 네티즌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정시에 보도되는 뉴스는 온갖 화학 조미료가 뿌려진 음식이고 「돌발영상」은 아주 싱싱한 고기를 바다에서 잡아마자 회를 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맛입니다.”

“자연산”과 “통조림”처럼 신선도 비교돼

돌발영상은 어느덧 ‘자연산 돌발이’가 돼 있었다. 싱싱하다는 뜻이다. 돌발영상은 뉴스퍼레이드의 한 코너에서 시작했지만 10월 6일 가을개편에서는 오후 4시 뉴스와이드에서도 재방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네이트는 돌발영상을 고정메뉴로 올려놨다. YTN이 하루 뒤에 동영상을 제공하지만 ‘자연산 돌발이’의 인기 앞에 하루의 시차를 무시하고 귀하신 대접을 한 것이다.

오피니언 리더들도 앞 다투어 돌발영상을 지켜세웠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 TV뉴스는 가공된 ‘통조림’이다. 시청자는 싱싱한 생선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조미료를 아예 국자로 퍼 넣은 생선조림을 먹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본연의 TV 뉴스의 책임을 다하는 매체가 있다. 바로 YTN의 「돌발영상」팀이다. 꽤 오랫동안 이 돌발영상팀의 작품을 지켜보며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지상파 TV 뉴스의 손을 타지 않는 현장의 진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조선일보 2003년 11월 4일, 전여옥 칼럼)

주로 기존의 뉴스 시간에 나가지 않은 부분을 다시 편집해서 내는 「돌발뉴스」는 벌써 몇 가지의 히트작을 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히트작들의 대부분은 정치권의 뒷모습을 다룬 것들이기도 하다. 한 국회의원이 통일부의 국장에게 질의 중 ‘입마’라는 표현을 썼다가 취소하는 모습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 연세회동 당시에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유일하게 고개를 숙인 김원기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여당본색’으로, 또 유일하게 대통령에 앞서 회의장으로 들어선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야당본색’으로 표현한 뉴스 등이 그것이다. (문화일보 2003년 11월 13일, 손석희의 세상읽기)



유석현

- ▲ 1957년 생
- ▲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졸업
- ▲ 연합통신(1984) 국제부 과학부 정치부
- ▲ YTN 정치부

(1994) 뉴스편집부 정치부차장 (2000) 북한팀장 편성운영부장(2000) 편집2팀장(2003) 문화과학부장(2004)

▲ YTN 앵커팀장(2005~)

인터뷰

노종면 프로듀서

- 「돌발영상」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매체들도 유사한 프



주의에 치우
쳐 있는 면이
크다, 그 틀
을 깨기 위해
서는 기존에
안 썼던 그러

「돌발 영상」같은 인기프로가 또 나와야 할텐데...

수용자 위주로 뉴스 콘텐츠 가공·입체화 노력

로그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돌발영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 ▲ 보통 취재팀이 촬영해 온 영상물을 100이라 한다면 실제 방송에 쓰이는 영상물은 10에 지나지 않음을 지켜보면서 버려지는 90 속에 뭔가 새로운 뉴스 콘텐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해 왔어요. 직접적으로는 2003년 3월 「뉴스퍼레이드」라는 90분짜리 라이브 뉴스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을 때입니다. PD로서 그 90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좀 더 입체화되고 생동감 있는 뉴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이 해답이다,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돌발영상」이란 콘텐츠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 「돌발영상」을 만들 때 어떤 점에 역점을 두었습니까?

- ▲ 기존 뉴스 방송이 왜 영상취재물을 10%밖에 사용하지 못 했는가,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은 뉴스가 형식

한 흔들리는 영상이라든가, 음성이나 음질이 좀 나쁘더라도 의미가 담겨 있는 녹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다만 형식을 분방하게 가져가다 보면 내용에서 좀 지나치게 의미를 강조한다든가, 시쳇말로 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돌발영상」과 같은 또 다른 제작물이 나와야 YTN 뉴스가 더욱더 빛날텐데, 그러한 계획이라도 있나요.

- ▲ 「돌발영상」을 단순한 새로운 형식의 실험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적합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라고 한다면 제 2, 제3의 「돌발영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도는 PD뿐만 아니라 앵커, 뉴스제작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뉴스 콘텐츠를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용자 입장에서 가공하고 입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상파에서는 ‘난리가 났다’ KBS가 11월 중순부터 「현장포착」이라는 이름으로 따라왔고 MBC도 「현장 생뉴스」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돌발영상 따라오기’ ‘YTN 흥내내기’에 나선 것이다.

돌발영상의 주역인 노종면 PD는 아예 메일 ID를 「dolbal」로 바꿨다. 노 PD는

“YTN은 항상 먼저 도전하고도 지상파에 과실을 빼앗기는 과정을 되풀이해 왔지만 돌발영상은 아직 타사의 아류작에 비해 앞서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지상파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간 돌발」 나가며 팀 체제로

시작 초기에는 노 PD 혼자 아이템 선정에서 편집까지 모든 것을 하는 ‘원맨쇼’였다. 돌발의 인기가 높아지고 제작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12월 말 장민수 기자가 합류했다. 1월 31일부터 「주간돌발」이 생기면서 정민희 작가, 박미란 AD가 가세해 돌발팀이 팀다운 얼굴을 갖췄다.

주간돌발은 토·일요일에 방송되는 25분짜리 프로그램. 1주일간의 돌발영상을 추리고 인물열전(정치인 인터뷰) 길거리 뉴스(정치권에 바라는 시민 인터뷰) 돌발만평을 추가해 제작했다. 돌발 ‘창업자’인 노 PD는 재충전을 위해 교체를 희망했다. 2004년 10월 임장혁 기자가 후임자로 발령받았다. 임 기자는 6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2005년 4월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인수했으며 노 PD는 앵커로 복귀했다.

노 PD는 돌발영상으로 YTN이 연말에 사원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포상중에서 최고인 「2003 YTN 대상」을 수상했다. 또 노 PD와 장민수 기자는 2004 방송기자클럽(BJC)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 ‘검사가 고소인 매수’ 검찰 발각

사회부 검찰팀 이동우 기자는 2003년 5월 초 어느 변호사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해당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즉시 대법원으로 달려가 최근 재정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모두 뒤졌다. 3월 27일 문제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다. 모 부장검사가 서울 서부지청에 근무할 당시인 1996년에 뺑소니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피의자인 조모 씨를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며 피의자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뜻을 살려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어느 날 담당 재판부를 찾아가자 고소인인 조 씨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알려줬



유종선

- ▲ 1954년 생
- ▲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 ▲ 합동통신(1978) 연합통신(1980) 기획실 차장

▲ YTN 기획부장(1996) 총무팀장 기조실장직대(1999) 국장대우 기획관리실장(2001)

▲ YTN 경영관리국장(2001~)

다. 뭔가 이상했다. 고소인을 강압하거나 매수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소인을 직접 만났다. 담당 부장검사의 동생이 찾아와 수천만 원을 주겠으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애원 반 강요 반 해서 할 수 없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자초지종의 얘기를 들었다. 짐작한 대로 고소인을 돈으로 매수한 것이다. 담당검사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얘기할 가치가 없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우겼다. 사실 확인은 모두 이뤄진 셈이었다. 5월 19일 오전 10시 방송이 나가자 검찰은 발각 뒤집혔다. 검찰로서는 치욕적인 일이었다. 모든 언론사가 YTN의 추적보도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담당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다.

3. “정몽헌 회장 투신자살” 제보로 특종

2003년 8월 4일 아침 6시 45분 사회 1부 사건팀 김승재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연락 받았다. 이제 갓 들어온 수습한테서 보고 받고 시경 캡에게 아침보고를 하려던 참이었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투신자살한 것 같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재벌회장이 어떻게 투신자살할 수 있단 말인가? 일단 사회부 야근자에게 전화해 “빨리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시경 캡에게도 보고했다. 이때부터 사건팀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대 본사 건물 관할인 종로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투신자살인지는 몰라도 정몽헌 회장이 사망한 것은 맞다.” 사회부에 즉시 긴급 문발을 띄울 것을 요청했다. 7시 1분, 앵커가 1보를 전했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속해서 두 번 반복해 읽어내려 갔다. 이어 긴급 문발이 떴다. 연합뉴스 기사는 7시 3분에 들어왔다. 정·재계와 시민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정몽헌 회장 투신자살」은 이렇게 해서 YTN의 특종이 됐다. 이후 지상파 3사가 따라왔다.

당시 정 회장은 150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YTN은 당일 8시간 동안 뉴스특보를 내보냈다. 시청률도 상승해 오후 1시45분 분당 시청률이 6.8%까지 올라갔다. 시청 점유율은 20.1%였다.

4. 일제 징용 형제 「평양에서의 고발」

영상취재부 한원상 기자는 1999년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 프리랜서로부

「평양에서의 고발」 : 일제시대 징용됐던 한국인들이 남북 이산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례를 통해 가족 이산의 아픔과 일제징용의 만행을 폭로한 「평양에서의 고발」. 남쪽에 사는 형 백수인 씨(왼쪽)와 북쪽에 사는 동생 제인 씨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2003. 9. 28, 기획 이재철, 연출·촬영 한원상). 2003년 11월 「이달의 기자상」, 2003년 YTN 최우수 프로그램상 수상



터 비디오 테이프를 넘겨받았다. 내용은 북한에 살고 있는 남한 출신 징용자의 사연을 담은 것이었다. 이름이 ‘백제인’이라는 징용자는 일제강점 당시 13세 때 고향인 경남 거창에서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 탄광을 전전하며 모진 고생을 했다. 해방이 됐지만 돈이 없어 귀국선을 타지 못하고 일본에 주저앉았다.

민족의식이 강했던 백 씨는 일본에서 조총련에 가입했다. 이 경력 때문에 한국으로는 더욱 더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백 씨는 고심 끝에 1960년대 말 북송선을 탔다. 북한과 조총련이 주도한 북송사업은 1950년대에 시작해 1970년대까지 계속됐다. 북한에 살던 백 씨는 일본인 프리랜서를 만나 고향인 거창에 살고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한 기자는 2000년 2월 거제로 내려가 백 씨의 호적 찾기에 나섰다. 백 씨가 얘기한 주소지(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675번지)의 면사무소를 살살이 뒤진 끝에 6개월 만에 호적을 찾아냈다. 고향에는 형님인 백수인 씨가 생존해 있었다. 백수인 씨는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 동생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워낙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연을 모두 들어본 다음에야 “동생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형님의 얘기를 영상에 담아 일본인 프리랜서에게 보냈고 일본인 프리랜서는 북한을 다시 방문해 백 씨에게 형님의 얘기를 들려줬다. 이산가족의 비디오 상봉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3년. 한 기자는 직접 상봉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원단체를 통해 북한 측에 방북신청을 냈다. 실낱 같던 희망은 마침내 이뤄졌다.

한 기자는 2003년 9월 27일 백수인 씨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 60년 만에 이뤄진 혈육상봉이었다. 당시 형님 백수인 씨는 80세, 동생 백 씨는 77세였다. 한 기자는 사회 1부 이재철 기자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영상에 실어 4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일제 징용 피해자로서 남북 이산가족이 된 채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아픔을 담았다. 프로그램은 11월 21일 방영됐다.

이재철 한원상 기자는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방송부문)을 받았다.

5. 집중보도 「부실한 적십자사 혈액관리」

김승재 기자가 2003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집중 취재보도했다. 리포트가 34차례 나가고, 특집 다큐멘터리 30분짜리 3편을 제작했다. 탐사보도의 전형이었다.

시민은 누구나 환자로서 수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혈액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위론이고 현실은 당위론과는 한참 떨어져 있었다. 선진국에서도 수백 명이 수혈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기자는 이 점에 착안해 탐사보도를 시작했다.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혈액을 취재대상으로 삼았다. 깊이 파고들수록 부실관리 실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에이즈 바이러스나 간염에 오염됐거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혈액이 출고돼 환자들에게 수혈됐거나 의약품으로 제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십자사 내부에서도 제보가 잇따랐다. 내부 제보자들은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들은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아 뒤늦게 보람을 찾았다.

부실한 혈액관리 실상은 리포트로 연속 보도돼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급기야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감사원은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부실관리의 실상은 밝혀졌다. 자, 그러면 선진국은 어떻게 관리하나?’

폭로만으로 끝내서는 책임있는 기자의 자세가 아니다. 2개 팀으로 나눠 김승재 윤성수 이동규 기자는 미국과 일본으로, 김동민 정철우 김창용 기자는 영국



‘에이즈 수혈’ 특종 김승재 기자

프랑스 스위스로 떠났다. '어떻게 하나?'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서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이 제작됐다. 김 기자는 사회부 소속이었을 때 첫 보도를 시작했고 그 다음 기동취재부로 이동해서도 후속 보도를 계속했다. 김 기자의 집중 보도 이후 혈액관리 방법이 바뀌었고 정부차원에서 안전한 혈액관리 대책이 추진됐다. 김 기자는 2004년 3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또 2003년 변덕수 기자상, 2003년 방송기자클럽(BJC) 보도상, 제20회 서울언론상, 2004년 YTN 대상을 수상했다.

6. 문제 제기 「연약지반 배수공사」

김 기자는 부실한 혈액관리 취재를 마무리해 갈 때쯤인 2004년 8월부터 국책사업의 부실한 배수공사 취재에 들어갔다. 신공항과 신항만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부분 바다 매립지나 간척지와 같은 연약지반 위에 세워진다. 그만한 입지를 확보하려면 넓은 바다를 매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약지반은 땅이 물을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전에 배수를 충분히 해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중요하다. 땅 속의 물을 빼내고 단단히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PBD 배수재라는 것이 있다.

김 기자는 이 배수재가 부실해 당시 공사가 진행중인 부산 신항만과 인천공항 확장공사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005년 3월까지 리포트가 16차례, 3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 1편이 방송됐다. 특집 다큐멘터리는 「부실한 혈액관리」 취재 때와 마찬가지로 '선진 외국은 어떻게 하나?' 라는 물음표에 답을 달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김승재 한원상 김영철 기자가 싱가포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을 보름간 취재했다.

김승재 기자는 이 연속보도로 2004년 대한언론상을 수상했다.

7. 영상 뉴스 「전통 칼 사인검 장인」

영상취재부 김인규 기자가 조선시대 사인검의 제작과정을 촬영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2004년 2월 27일 영상뉴스로 방영됐다. 김 기자는 그해 한국TV카메라기자 대상 편집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선시대에는 사인검이라고 불리는 양날의 칼이 왕실에서 제작됐다. 호랑이 띠 해, 호랑이 달, 호랑이 날, 호랑이 시에 제작된 것이어서 범 인(寅)자 네 글자



윤중수

▲ 1962년 생
▲ 충남대 불문과 졸, 충남대 대학원 불문학 석사

▲ 연합통신 (1989) 지방부

▲ YTN파견(1994) 입사(1996) 뉴스총괄부 정치부기자 전략기획국 중국사업팀장(차장대우, 2003)

▲ YTN 미디어국 해외사업팀장(차장, 2004~)

를 따 사인검이라고 불렀다. 온갖 기이한 주문과 기호, 다양한 별자리가 칼 전체에 걸쳐 금과 은으로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조형적으로도 아름답고 동양적 신비감이 느껴진다.

현대에 와서 이미 제작의 전통은 단절됐지만 전통검 연구가인 홍석현 씨가 복원해 대한민국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 기자는 홍 씨의 사인검 제작과정을 밀착 취재했다.

8. 「한국노총 발전기금 25억원 수수」

사회1부 이대건 기자는 2005년 5월 전국택시노련 간부의 리베이트 비리를 취재하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는 월척을 낚았다. 당시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은 택시 노련 위원장 때 기금운영을 투자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고 있었다.

이 기자는 권오만 사무총장이 역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당시 이남순 노총 위원장이 몰랐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 이 전 위원장이 2003년 재직 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10층짜리 근로자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기자는 이 전 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엉겁결에 “기업에서 돈을 받았다고 문제가 되냐”라고 했다. 이 기자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얼마를 받았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좀 받았다”고만 할 뿐 좀처럼 액수를 말하지 않았다.

이 기자는 복지센터 시공업체가 벽산건설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벽산건설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했다. 벽산건설 담당자는 “노총에서 30억 원을 요구했고 25억 원이 나간 것 같다”고 확인해줬다. 5월 12일 오후 6시 「한국노총, 발전기금 25억 원 수수」라는 제목으로 최초 보도가 나갔다.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이남순 전 위원장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지상파와 신문에서도 큼직막하게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 기자의 보도는 그때까지 한국노총 간부 개개인의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던 언론보도의 흐름을 노총 조직 전체의 비리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상임 부위원장은 구속됐다.

이 기자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9. ‘그 이슈’를 ‘그때’에 「백지연의 뉴스 Q」

“안녕하십니까? 백지연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100분 동안 여러분의 궁금증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뉴스혁명을 만들어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방송 때 백 씨의 오프닝 멘트는 「백지연의 뉴스 Q」가 어떤 형태의 뉴스를 만들 것인지를 외치는 ‘선언’이었다.

MBC의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여성앵커였던 백 씨는 2004년 봄 개편(3월 15일) 때 YTN의 여성앵커로 복귀했다.

지상파 3사의 저녁 9시 메인 뉴스가 1분 20초짜리 리포트를 나열하는 것인데 비해 뉴스 Q는 매일 10개씩 아이템을 선정해 집중 보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시청자가 관심을 가질 ‘그 이슈’에 대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그때’에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 Q팀의 숙제였다.

아이템 회의에서는 매일 10대 뉴스를 뽑아냈다. Top 10을 선정하고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다. 그리고 취재기자와 뉴스의 인물을 중계차나 전화로 연결했다.

첫 방송에서는 당시 ‘인기짱’이었던 강금실 법무장관을 중계차로 연결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던 날에는 두 명의 기자를 각각 고속열차와 고속버스에 태워 생방송이 끝날 즈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실험했다. 당시 고속버스를 탔던 김승재 기자는 “거북이가 된 기분입니다”라고 비유해 시청자들을 배꼽 잡게 했다.

뉴스 Q는 2004년 가을 개편 때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기고 시간도 1시간으로 조정했다. 프로그램 시작 당시 PD는 김상우 차장 호준석 기자였다. 백 씨는 2005년 3월 25일까지 뉴스 Q를 진행했다.

10. 과학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사이언스 +」

‘과학은 아름답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 봐도 시청자들은 믿지 않는다. 딱딱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소재는 이른바 6T, 인류의 미래를 이끌 첨단 신기술이다. 정보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 환경공학기술 ET 우주항공기술 ST 문화콘텐츠기술 CT.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이런 난해한 고급기술을 사이언스 플러스는 시청자들의 머리에 속 들어가도록 해 주기 위해 출범했다. 코너 구성을 보면 제작팀이 얼마나 머리를 짜냈는지 짐작이 간다.



사이언스 플러스

사이언스 코리아(월요일) :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학기술입국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을 모체로 했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벌이는 각종 행사와 사업을 집중 조명한다.

테크 투데이(화요일) : 기술은 나날이 새롭고 눈부시게 발전한다. 바이오 산업, 기대되는 IT 기술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무궁무진한 기술세계를 들여다본다.

생활과학 Q&A(화요일) :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여러가지 현상들, 예를 들어 비만의 모든 것, 날씨 예보의 과정을 과학적 원리를 통해 재미있게 들려준다.

접속! IT 세상(수요일) : 지금은 급속도로 발전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 그 중에서 IT 기술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코너에서는 국내의 최신 IT 기술을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배워본다.

역사 속 과학(목요일) : 풍납토성의 비밀, 자격루의 신비처럼 역사속 조상들의 과학적 슬기를 소개한다.

이 사람(토요일) : 과학 기술계 인사뿐 아니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문화, 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저명인사들의 입을 통해 과학 이야기를 듣는다.

YTN은 사이언스 플러스를 통해 축적된 과학콘텐츠를 50권의 책으로 엮어 출판했다. 「사이언스 +」 과학전집은 5개의 테마별로 국내 권위 있는 과학자가 해설하고 생생한 사진까지 곁들여 청소년들이 과학에 관한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도록 했다.

제2편 : 일터

사람 · 방송기술 · 프로그램

제1장 「24시간 뉴스 방송」에 힘 실리다

제1절 : 정부 · 기관 · 대기업 “YTN을 보라”

1995년 3월 1일 YTN이 개국할 당시 케이블 TV를 시청할 수 있는 가구는 9만 7463곳뿐이었다. 그나마 컨버터를 설치해 정식으로 볼 수 있는 가구는 2만 1045곳에 불과했다. 케이블 TV 방송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닷을 올렸지만 정작 시청가능 가구는 당시 전체 가구 1400만 중 0.7%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출범했지만 YTN은 주목받는 매체였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 다투어 YTN을 시청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24시간 뉴스의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1. 청와대 YS 집무실 YTN 늘 켜있어

1995년 3월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과 수석 비서관실 · 상황실에는 YTN 모니터가 항상 켜져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평소 소리를 죽이고 화면만 시청했지만 관심 있는 뉴스가 나가면 볼륨을 높여 내용을 확인했다.

어느 날 김영삼 대통령은 모 경제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통령은 확인할 일이 있으면 장관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뜸 물었다. “방금 YTN에 부처와 관련된 뉴스가 나가던데 어찌된 일이지요?” 초창기 정부과천청사에는 케이블 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장관은 얼버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YTN 보도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YTN 보도가 정확했던 것이 밝혀졌고 결과적으로 그 장관은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혼쫓이 났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정부과천청사에서는 YTN을 시청하기 위해 컨버터를 서둘러 설치했다. 그 사이 각 부처 공보관들은 YTN 출입기자가 무엇을 취재하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녔다.

국가안전기획부에서는 개국 초기 한꺼번에 모니터 30대를 설치했다. 당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수신료를 지불했다. 신속한 정보를 얻기 위해 YTN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 DJ 일산자택에 은평SO서 케이블 끌어

YTN 개국 당시 제 1야당은 김대중 이기택 공동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었다. 당시 국회에는 케이블 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야당 당사가 있는 건물에는 케이블이 깔리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 이기택 공동대표는 24시간 뉴스에 관심이 많았다. 개국한 지 조금 지나 국회에서 케이블을 끌어다가 대표실을 비롯해 대변인실에 모니터를 설치했다.

김대중 총재가 사는 일산에는 당시 SO가 없어 자택에서 YTN을 시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김 총재는 YTN에 'SOS'를 쳤다.

“어떻게 해서든지 YTN을 보게 해 달라.”

이에 YTN 기술국에서는 서울 「은평 SO」에 협조를 요청했다. 일산에서 가장 가까운 케이블 방송국이 은평 SO였다. 은평 SO에서는 케이블을 끌어 김 총재 자택까지 연장했다. 이렇게 해서 김 총재는 일산에서 제 1호 케이블 TV 가입자가 됐다.

이기택 대표는 북아현동 자택에 케이블 TV가 나오지 않자 비서들에게 “빨리 설치하라”고 호통쳤다. 관할 SO에서는 1주일 만에 이기택 총재 자택에 컨버터를 설치했다. 당직자나 소속의원들도 김대중 이기택 대표를 본받아 속속 케이블 방송에 가입했다.

3. 개국 초기 YTN기자 출입 제한 대기업도

개국 초기 일부 대기업에서는 YTN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경제부 기자들은 이를 악물고 취재했다. 이즈음 LG 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 측 권유에 따라 김일성 묘에 참배했다. YTN 기자는 안기부 고위간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듣고 녹음까지 했다. 보도가 나가자 LG 그룹 내부가 발각 뒤집혔다. LG 그룹 홍보실에서는 오보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두산 그룹이 자금난에 빠졌다는 보도도 큰 파장을 낳았다. 두산 그룹의 주가가 닷새째 하한가를 기록했다. 두산 그룹은 언론중재위 제소로 맞섰다. 기업들의 언론중재위 제소는 회사 보호차원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두산 그룹도 나중에 슬그머니 후퇴했다.

전경련에서는 초기에 YTN 기자의 출입을 막지는 않았지만 기자단에 가입하지



이계성

▲ 1956년 생
▲ 안양과학대
통신과 졸

▲ KBS(1980)
보도기술부 감
독

▲ YTN 기술총
괄부차장대우(1994) 차장(1995) 제작
기술부장직대(2000) 제작기술부장
(2001) 기술관리부장(2004)

▲ YTN 부국장대우 기술관리부장
(2005~)

못하도록 했다. 당시에는 기자단에서 간사를 뽑아 엠바고에서부터 풀(Pool)에 이르기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당연히 뒷말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6개월쯤 뒤에야 정상적인 출입이 가능했다. 취재가 가장 어려웠던 분야는 스포츠였다. 축구와 농구, 씨름계에서는 기자단 가입을 막았다. 기자단 가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마치 2류 언론, 2류 기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2년이 지난 뒤에야 기자단 가입제한이 없어졌다.

4. 반말설명 전국에 생중계… 검찰 간부 곤욕

1995년 8월 1일 당시 서석재 총무처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했다.

“전직 대통령의 측근이 가·차명 형태로 4000억원을 가지고 있다며 이 중 2000억 원을 국가에 헌납할 테니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해 온 사실이 있다.”

서 장관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엠바고!’를 외쳤지만 이를 받아줄 기자들이 아니었다. 다음날 조간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서 장관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물러났다. 곧바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며칠 뒤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모 검사장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YTN은 대검 기자실에서 이뤄진 브리핑을 생중계했다. 당시만 해도 중간 수사 브리핑을 생중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검찰도 브리핑을 생중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모 중수부장은 평소에 하던 대로 기자들에게 반말 투로 설명해 나갔다. 시중에 나도는 헛소문이 와전된 것 같다는 결론이었다. 직접 수사를 맡은 김모 중수 2과장(부장검사)은 “이런 것을 일본말로 ‘나가레’라고 한다더라”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전국에 생중계됐다. 김모 부장검사는 한동안 ‘나가레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모 검사장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기자회견에서 반말하지 말라고 그래”라는 핀잔을 들었다. 그는 그 뒤부터 발표할 것이 있으면 기자실로 오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기자들을 불렀다. 또 김모 부장검사는 기자실로 들어오지 못하고 입구 문밖에서 목만 내밀고 발표했다. 한동안 검찰 간부들은 생방송이라면 주눅이 들어 있었다.

5. 북한 대표단, 채널을 YTN에 고정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1·2·3차 남북장관급 회담, 한국언론사 사장단의 방북, 1·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북한 교향악단의 서울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즈음 북한 대표단은 YTN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제 1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YTN은 회담이 토·일요일에 열렸지만 특보를 편성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시로 회담 진행과정을 생방송으로 전했다. 지상파는 주말 편성을 그대로 유지해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전금진 북측 단장은 “채널을 YTN에 고정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장관급 회담에 이어 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있었다. 북한 대남선전부서와 민족경제협력연합 관계자들은 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YTN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북한 교향악단은 8월 18일에 서울에 도착하자 숙소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측에 “YTN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YTN은 기술국 직원들을 급히 보내 호텔에 마이크로웨이브 임시 수신 시설을 가설해 주었다.

9월 11일부터 3박 4일간 서울을 방문한 김용순 노동당 비서는 취재중인 영상 취재부 이광래 기자에게 다가와 “YTN 정말 수고 많습니다”라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또 북한측 대표인 권호웅 당지도위원장은 “호텔에서 YTN을 잘 시청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쉽게도 YTN을 볼 수 없으니 테이프를 녹화해서 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말했다. YTN은 그들의 활동모습을 담은 테이프를 우리의 방송방식인 NTSC와 북한 측 방송방식인 PAL 두 가지로 만들어 전달했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 3차 장관급 회담이 열린 제주 롯데호텔에서는 어느 객실에서나 YTN을 시청할 수 있었다. 북한 대표단이 회담기간 중 YTN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겨레신문 8월 25일자 보도.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18일 숙소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도착해 YTN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호텔은 케이블 TV가 수신되지 않는 상태였다. 호텔 측은 건너 건물에 임시 수신시설을 급히 마련해 호텔로 연결했다. CNN



이귀영

- ▲ 1965년 생
- ▲ 이화여대 독문학과 졸업
- ▲ KBS(1989) 춘천방송총국 기자
- ▲ YTN 뉴스총괄부(1994) 사회부 경제부 경제2부차장대우(2000) 사육추진팀장(2003) 정치부차장대우(2004)
- ▲ YTN 보도국 편집3팀장(차장:2005~)

이 걸프전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처럼 남북화해 시대에 뉴스 채널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 인지도 높아지며 시민들에 더 가까이

1. 「간첩 리철진」등 영화에 YTN등장 찾아

YTN이 24시간 뉴스채널로서 인지도를 높여 가자 영화에도 YTN이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다. 영화 속에서 특정한 소품, 장소가 나오는 것을 전문용어로 PPL(Product in Placement)이라고 한다. 특정한 브랜드를 두드러지게 노출시켜 주고 제작진이 유·무형의 대가를 받는 마케팅 방법이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뉴스 장면엔 CNN이 나오는 것이 일종의 PPL이다. 화면에서 자주 보는 CNN 앵커나 기자가 영화 속의 뉴스 장면엔 직접 나와 실감을 높여 준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PPL이 활성화돼 있다. YTN이 영화에 처음 등장한 것은 강우석 감독이 1998년 제작한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다. 기자가 잠깐 인터뷰하는 모습이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YTN이 처음 영화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99년 「간첩 리철진」에서 YTN이 본격 등장했다. 영화 내용은 북한 간첩(유오성)이 남쪽에 잠입해 한국이 개발한 우량 돼지종자를 훔치는 것이다. 간첩은 우량종자를 훔쳤지만 한국정부가 남북협력 차원에서 무상 제공한다는 발표를 듣고 허탈해 한다. 그때 김정아 앵커가 출연해 한국정부의 발표를 전했다.

YTN이 「간첩 리철진」 제작에 협조하게 된 것은 당시 기획부 이석재 사원의 다리역할이 컸다. 영화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시나리오에 뉴스 장면이 나오는데 배우를 쓰는 것보다 YTN이 협조해 주면 훨씬 현실감이 있겠다”고 요청했다. YTN은 이 사원의 건의를 듣고 기꺼이 협조하기로 했다. 이 사원은 공로상을 받았다. 2002년에 개봉된 「재밋는 영화」에서는 김명우 앵커가 현장 출동 중계차 앞에서, 황순욱 앵커가 뉴스 스튜디오에서 긴박한 뉴스를 전달하는 장면엔 출연했다.

현장 출동 중계차 장면에서는 영상취재부 기자와 기술국 중계팀 사원 등 10여



「피아노 치는 대통령」 PPL : 서울역
대합실에 있는 YTN모니터 앞에서 영화
「피아노 치는 대통령」에 나오는 YTN 뉴스
화면 촬영 장면. YTN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은 기자로 출연한 배우(2002.9.24)

명이 한나절 동안 촬영에 협조했다.

검찰의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을 다룬 「보스 상륙작전」에서는 이광연 앵커가 등장했고 안성기 주연의 「피아노 치는 대통령」에서는 YTN 중계팀이 청와대 기자회견 모습을 생중계하는 장면에 출연했다. 김상진 감독의 「광복절 특사」에서는 당시 정치부 김희준 기자가 출연해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2003년에 상영된 「튜브」(지하철 재난영화)에서는 YTN 중계팀이 현장 생중계를 위해 긴급출동하는 장면이 삽입됐다. 영화사들이 YTN에 PPL을 요청하는 것은 영화의 흐름상 속보를 전달하는 뉴스매체에 뉴스전문채널인 YTN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도 YTN이 한몫 차지했다는 사실은 YTN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한층 가깝게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송 제3위에

한국대학신문은 2004년 10월 전국대학생 2099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다. 1988년 10월 창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해 오던 것으로 정치관 사회관 언론관을 비롯해 모두 7개 부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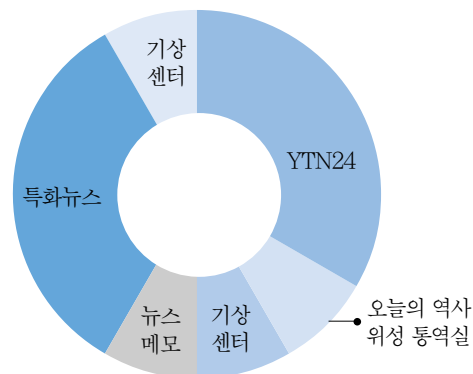
결과를 보면 방송부문에서 선호하는 채널은 YTN이 10.2%를 차지해 3위에 올라섰다. 1위는 MBC(49.3%) 2위 KBS(27.8%) 4위는 SBS(9.6%)였다.

YTN이 3위로 약진한 것은 한국대학신문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었다. 또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을 누르고 약진했다는 것은 2004년도 의식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YTN이 젊은 층에서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이일형 한국대학신문 취재부장은 YTN 사보와 인터뷰(2004년 12월 10일)에서 “딱딱한 보도기사에만 충실한 기성 언론의 보도태도와는 달리 「돌발영상」과 같이 사건 속 내막을 요즘 세태에 맞게 처음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거나 침묵 없는 현장 중계를 자주 내보내 시청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배려한 기획력도 한몫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가 전체 시청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식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젊은 층이 떠나는 매체에 향후 미래가 얼마나 있을지 언론사 스스로 반문해 볼 일”이라고 경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2004년 12월 1일 20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를 조사한 결과 YTN이 5위(4.1%)를 차지했다. 1위는 KBS(21.0%) 2위 MBC(14.9%) 3위 조선일보(8.9%) 4위 동아일보(5.1%)였다. 6위 중앙일보(3.6%) 7위 오마이 뉴스(3.4%) 8위 한겨레(3.4%) 9위 SBS(2.4%)가 뒤를 이었다. 1995년에 유료시청 2만 가구 남짓으로 출범한 YTN이 10년 만에 우리사회의 여론을 이끄는 주류언론 그룹에 포함된 것이다.

개국초기 「뉴스 휠」 편성



제3절 : 뉴스 훔 방식 · 생방송 우선 편성

1. “최적 시간대에 최적 프로그램을”

편성은 뉴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다. 최적의 시간대에 최적의 프로그램 배치를 통해서다. YTN 편성의 기본은 ‘뉴스 훔’ 방식이다. 1시간 간격으로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이전 뉴스를 폐기하고 대체한다. 최근착 기사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수시로 업데이트(Update)한다. 앞의 도표는 개국 초기 뉴스 훔 편성을 나타낸 것이다.

YTN 편성의 또 다른 원칙은 ‘생방송 우선’이다. 아무리 중요한 뉴스를 하는 중이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현장에서 즉시 보도하는 것(Live)’ 만큼 중요할 수 없다. 생방송이야말로 최고의 뉴스다.

개국 초기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에서부터 2001년 9·11 동시테러, 2003년 3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개시, 2004년 3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보도에 이르기까지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모든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뉴스특보를 내보냈다. 생방송 우선의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다.

2. 2000년부터 해마다 봄 · 가을 정기 개편

YTN은 1998년 가을에 한 차례, 2000년 3월 이후에는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편성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물론 외부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수시 개편도 이뤄진다. 편성개편을 통해 뉴스의 질과 집중력을 높이고 매체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6개월간 운행해 본 뒤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폐지하고 아이디어를 수혈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1998년 이전에는 소규모로 편성개편이 이뤄졌다. 심각한 경영난, 열악한 케이블 TV 환경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매체 경쟁력 높이며 보완 · 신설 · 폐지

1998년 가을 개편 (11월 2일)

개국 이후 대대적으로 편성개편을 단행했다. 오후 5시에 지상파의 오후 방송재개와 동시에 시작하던 종합뉴스인 「프라임 뉴스」를 1시간 앞당겨 오후 4시에 시작했다. 지상파보다 1시간 앞서 종합뉴스를 시작하는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동근

▲ 1948년 생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TBC 기자 (1975) KBS (1980) 경제부 차장

▲ YTN 사회부장(1994) 경제부장 기획조정실장 보도국장(2000) 상무이사 (2001) 전무이사(2003)

▲ YTN 저널 대표이사(2004)



프라임 뉴스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뉴스를 집중 투입하는 종합와이드 뉴스 프로그램을 배치했다. 오후 5시 「밀레니엄 경제뉴스」 오후 7시 「네트워크 뉴스」 저녁 8시 「프라임 뉴스」 저녁 9시 「경제뉴스」 밤 10시 「뉴스포럼」 밤 11시 「프라임 뉴스」. 뉴스포럼은 그날의 주요 이슈에 대해 취재자와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뉴스」, 생활법률 지식을 소개하는 「법률 상식」도 신설했다.

2000년 봄 개편 (3월 6일)

증권과 경제뉴스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 저녁 8시부터 35분간 「코스닥 투데이」를 신설했다. 시청자가 직접 묻고 전문가가 답변해 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쌍방향 증시 분석 프로그램이다. 그 시간에 있었던 저녁 프라임 뉴스는 1시간 앞당겨 오후 7시로 옮겼다. 시청자들에게 1시간 빠른 뉴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오전 8시와 낮 12시에는 「증시 와이드」를 편성했다. 증권시장이 문을 열기 1시간 전에 상황을 전망해 주고 낮 시간 대에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했다. 오후 5시와 9시에는 증권과 부동산, 금융을 포함해 폭넓고 다양한 경제종합뉴스인 「경제와이드」를 편성했다.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포츠 뉴스를 대폭 강화했다.

밤 10시 35분에 국내의 스포츠 종합뉴스인 「YTN 스포츠」를 편성하고 아침 뉴스인 「뉴스 출발」과 주요 뉴스 시간대에 「클릭 스포츠」라는 코너를 신설했다.

2000년 가을 개편 (10월 23일)

소폭 개편.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인 「시청자의 눈」이 주 1회 신설됐다. 통합방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청자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1주일간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제작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을 편성에서는 자정뉴스를 30분으로 연장했으며 새벽 1~4시 뉴스도 15~20분으로 강화했다.

2001년 봄 개편 (4월 23일)

KBS 메인뉴스 앵커 출신인 최동호 씨가 진행하는 「최동호의 토크라인」을 신설했다. 수요일 밤 11시 15분 편성. 뉴스의 핵심인물을 초청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진솔하게 알아보는 대담 프로그램이다.

오후 2시에는 와이드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의 현장」을 시작했다. 중계차와 전화로 취재기자를 연결해 ‘지금, 이 시각의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녹취 구성물, 현장 고발물을 넣어 생동감을 높였다. 「뉴스의 현장」은 이후 낮 시간의 간판뉴스로 자리 잡았다.

오후 4시 30분에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배치했다. 월요일에는 경제계 주요 인물이나 장·차관이 출연하는 「경제 궁금합니다」,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북한의 움직임에 전해 주는 「북한 리포트」, 수요일에는 「월드 파노라마」와 「지방 자치 시대」가 격주로 방영되고 목요일 「기업 리서치」, 금요일 「부동산 뉴스」가 등장했다.

2001년 가을 개편 (10월 22일)

연세대 의대 윤방부 교수가 토요일 밤 9시 15분부터 대담 프로그램인 「피플 인 뉴스」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화제의 인물만이 아니고 보통사람들도 출연시켜 휴먼 스토리나 진솔한 삶의 얘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스크롤 뉴스를 YTN의 방송 프로그램인 베이스(BASYS)에 연결해 완전 자동화했다. 스크롤 생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스크롤 뉴

최동호의 「토크라인」 : 임동원 장관을 첫손님으로 시작한 「최동호의 토크라인」(2001. 4.25)에는 소설가 최인호, 이만섭 국회의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 유명인사들이 출연했다. 사진은 2001. 5.23 방송에 출연한 김동광 삼성 센터스 감독(왼쪽)



스는 2001년 9·11 동시 다발 테러 이후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당시는 데스크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 수작업이 완전 자동화함으로써 스크롤 뉴스는 적은 일손으로도 더욱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과학뉴스 프로그램인 「웰컴 사이언스」가 주 1회 신설됐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과학기술, 정보통신 뉴스를 종합하고 화제를 모은 과학계 인사 인터뷰,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책 소개와 같은 다양한 코너로 구성됐다.

2002년 새해 개편 (1월 21일)

저녁 8시 15분에 시작하던 「코스닥 투데이」를 폐지하고 오전 8시 20분부터 「머니라인」을 신설했다. 진행은 당시 리젠트 증권 김경신 상무. 김 상무는 20년 이상 증권계에 몸담고 있는 증권 맨으로 일간지에도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다.

머니라인에는 매일 개장을 앞두고 최고의 실력자인 증권사 투자전략팀장들이 출연해 그날의 시황을 전망했다.

2002년 봄 개편 (4월 15일)

오후 뉴스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후 2시 「뉴스현장」과 오후 4시 「뉴스 와이드」를 30분에서 40분으로 10분간 연장했다. 저녁 8시 뉴스도 35분에서 40분으로, 저녁 9시 뉴스는 15분에서 30분으로 늘렸다. 현장 생중계와 전문가



뉴스 와이드

출연 횟수도 늘려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뉴스가 되도록 했다.

뉴스시간 확대와 생중계 강화는 월드컵 축구 대회와 지방자치 선거,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뉴스와 정보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2년 가을 개편 (10월 28일)

큰 개편 없이 봄 개편 편성을 대체로 유지했다. 달라진 점은 스크롤 뉴스의 포맷을 다양화해 「경제 뉴스」 「스포츠 뉴스」 「국제 뉴스」 섹터를 신설했다. 또 주말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자연 탐험 다큐프로그램(25분물)을 편성했다.

2003년 봄 개편 (3월 10일)

대규모로 편성개편이 단행됐다. 첫째, 외부인사를 과감하게 앵커로 기용했다. 백지연 씨가 오전 10시 20분에 「백지연의 정보특종」을 진행하고, 박찬숙 씨가 금요일 오후 3시 15분부터 생방송으로 「박찬숙의 쟁점토론」을 맡았다. 백 씨는 주제를 요일별로 시사 건강 생활정보 대중문화로 섹션화했다.

둘째, 지상파가 뉴스를 하지 않는 낮 시간대의 뉴스를 크게 강화했다. 낮 12시 뉴스인 「뉴스 퍼레이드」가 1시 반까지 3부에 걸쳐 진행됐다. 뉴스 퍼레이드는 YTN이 낮 시간에 처음 시도하는 90분짜리 대형 와이드 뉴스 프로그램이다. 오후 6시에는 1시간짜리 종합뉴스인 「뉴스 투데이」를 신설했다. 낮 뉴스를 강화한

것은 낮 시간대에는 YTN의 주 시청층이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아침뉴스를 강화했다. 아침뉴스 타이틀을 뉴스출발에서 「굿모닝 코리아」로 바꾸고 출발시간을 30분 앞당겨 5시부터 시작했다. 뉴스 휠 횡수도 4부에서 5부로 연장했다.

주말 밤 9시 20분에는 프리랜서 MC 박정숙 씨가 진행하는 「뷰티풀 라이프」를 신설해 미용 패션 건강 육아정보를 전했다. 주말 12시 20분에는 영화배우 조용원 씨가 영화계 소식을 전하는 「씨네 버스」를 배치했다. 토·일요일에 가정주부와 여성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과학 종합 뉴스인 「과학과 미래」(30분)를 신설해 오전 8시 10분에 배치했다.

2003년 가을 개편 (10월 6일)

낮 뉴스를 더욱 강화했다. 오전 10시 「YTN 24」를 15분에서 37분으로 연장하고 오후 4시 「뉴스 와이드」를 26분에서 52분으로 확대했다. 저녁 9시 뉴스인 「뉴스 포커스」를 폐지하고 저녁 8시에 「뉴스 와이드」를 신설했다. 백지연의 정보 특종 초방 시간을 오전 10시 대에서 오후 3시 대로 옮겼다. 낮 뉴스 강화는 봄 개편에서 낮 시간대에 뉴스를 집중한 것이 시청률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4년 봄 개편 (3월 15일)

「승례문 시대」 개막을 계기로 제 2창사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편성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의 핵심은 뉴스 콘텐츠 강화와 제작 포맷의 다양화. 백지연 씨가 본격적으로 앵커 우면으로 나서 오후 5시부터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백지연의 뉴스 Q」를 진행했다. 뉴스 Q는 지상파의 나열식 보도를 깨고 10개의 아이টে임을 선정해 집중보도하는 포맷이다.

여성정치학자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생방송 쟁점토론」(목요일 오후 3시 10분)을 진행했다. 또 YTN으로서는 처음으로 매체비평 프로그램인 「언론과의 대화」(토요일 오전 10시 15분)를 신설해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인 「라이프 n 조이」를 주말 30분 프로그램으로 신설하고 과학과 미래는 「사이언스 +」로 변경했다.

표원수 사장은 편성개편에 관한 기자 간담회에서 “개편에 앞서 시청자 조사를

해보니까 YTN에 바라는 것은 뉴스 콘텐츠의 강화였다”며 “시청률 경쟁력이 높은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식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영상을 통해 지상파 TV 뉴스와 확실히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가을 개편 (10월 17일)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예뉴스와 음악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연예계의 다양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클릭연예파일」(금요일 밤 10시 25분)과 음악계의 동향을 알아보고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는 「M II M」(토요일 저녁 8시 25분)이 그것이다. 해외리포터들이 현지 소식을 전해 주는 「재외동포뉴스」(목요일 오후 1시 25분)도 신설했다.

2005년 봄 개편 (4월 11일)

개편의 핵심은 DMB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두었다. 위성 DMB는 5월 1일부터 유료방송을 시작했고 지상파 DMB도 12월 1일부터 본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DMB에는 짧은 뉴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뉴스 7-9」를 신설했다. 15분 월 방식으로 1부에서 8부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되는 와이드 뉴스 프로그램이다. 그날의 주요뉴스 교통정보 기상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

오후 5시 대에는 「경제와이드」를 신설해 국내외 경제뉴스의 흐름을 분석하고 주식 부동산 금융과 같은 재테크 정보를 다뤘다. 김민전 교수의 쟁점토론을 폐지하고 박주현 변호사가 진행하는 「시사 업클로스」를 신설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5분부터 45분간 진행되는 대담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 뉴스가 「글로벌 코리아」로 바뀌어 1주일에 두 번으로 확대됐다.

정시 뉴스, 시간 대 따라 이름 달리 해

YTN의 정시뉴스는 시간대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 1시간 이상 진행되는 와이드 뉴스일 경우에는 시간마다 독특한 이름이 붙는다.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굿모닝 코리아」 7시부터 9시까지 「뉴스 7-9」 낮 12시에는 「뉴스 퍼레이드」 오후 2시 「뉴스의 현장」 오후 4시 「뉴스 Q」 오후 5시 「경제 와이드」 오후 6시와 8시 「뉴스 와이드」 밤 11시는 「프라임 뉴스」다. 그 외에는 대개 「YTN 24」라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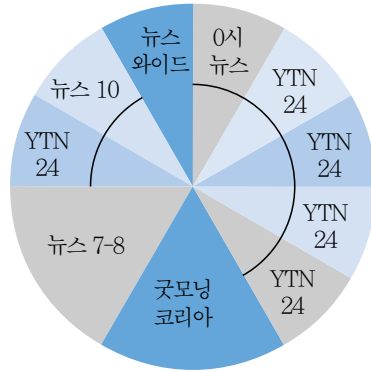


이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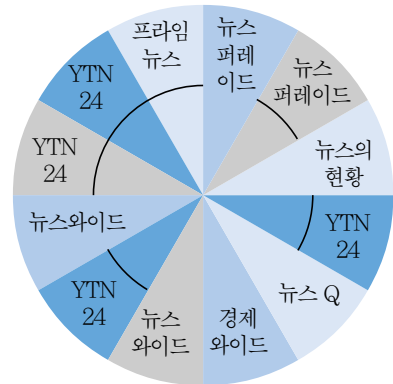
- ▲ 1966년 생
- ▲ 서강대 영문학과 졸업
- ▲ 국민일보 사회부(1992)
- ▲ YTN 사회부(1995) 뉴스총괄부(1999) 경제1부(2000) 사회부차장대우(2004)
- ▲ YTN 정치부차장대우(2005~)

른다. 「YTN 24」뒤에는 다음 정시뉴스 때까지 특화 뉴스나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YTN 정시뉴스 현황 (0시~12시)



YTN 정시뉴스 현황 (12시~24시)



다양한 특집 · 교양 · 생활정보 프로그램

「집중조명」: YTN 간판 토론 프로

개국과 동시에 YTN의 간판 토론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CNN의 래리킹 라이브(Larry King Live)처럼 매일 그날의 핫 이슈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스튜디오로 불러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처음에는 토·일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하다가 1997년 7월 7일부터 일요일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2002년 10월 28일부터는 월~목요일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개국 초기에는 김광식 씨(당시 21세기 연구소장) 이해경 씨(연극평론가 국민대 교수) 엄길청 씨(경제평론가) 안인혜 씨(고려대 교수)가 진행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김재홍 씨(경기대교수,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 이영대 씨(변호사) 이병혜 씨(전 KBS 메인 뉴스 여성앵커)가 이어받았다.

2003년 봄 개편(3월 10일)부터 집중조명은 폐지되고 「박찬숙의 쟁점토론」으로 대체됐다. 진행도 녹화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바뀌었다. 2004년 봄 개편 때(3월 15일)에는 진행자를 김민전 교수로 바꾸고 제목도 「김민전의 쟁점토론」으로 변경했다. 2005년 봄 개편(4월 11일)에서는 박주현 변호사가 진행하는 「박주현의 시사업클로스」로 대체했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초기의 집중조명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연륜이 쌓이면서 진행도 생방송으로 하고 내용 구성도 중계차 연결, 전화 참여를 자주 활용해 생동감을 높였다.



「집중조명」: 지방자치 실시 5주년을 맞아 광역단체장 대담시리즈의 YTN 「집중조명」에 나온 고 건 서울시장(2000. 7.18)

「오늘의 역사/역사 속 오늘」: 최 장수 프로

개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송되고 있는 YTN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날 일어났던 국내의 역사와 세계사를 정리했다. 이 프로그램 제작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수백년, 수천년 전에 일어난 일의 화면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작진(최초 제작자 차윤조 기동취재부 기자)은 대한뉴스와 미국 국립보존소 자료를 샅샅이 뒤져 관련 화면을 찾아냈다.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는 매년 추가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역사 속 오늘」로 타이틀을 변경했다.

「YTN 네트워크」: 지방자치 파수꾼

개국 당시부터 이어져온 특화뉴스다. YTN이 개국한 1995년 3월 1일은 4대 지방선거(6월 27일)를 불과 110여 일 앞둔 시기였다. 본격적인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전국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지방소식을 종합 보도한 것이 「네트워크 뉴스」다. 지방자치 시대의 파수꾼임을 자처하고 있다.

「YTN 스포츠」: 모든 경기 생생하게

그날의 모든 경기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경기결과를 정리해 주는 스포츠 종합뉴스다. 역시 개국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취재기자가 직접 출



YTN스포츠

연해 해설하기도 한다. 스포츠 기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쉬는 주말과 휴일인 토·일요일이 가장 바쁜 하루다. 경기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월드 24」: 그날의 주요 외신 집중 정리

개국 당시부터 타이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국제부 특화뉴스. 그날의 주요 외신을 집중 정리해 준다. 「월드 24」를 보면 국제뉴스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국제뉴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구촌 소식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해지고 깊어진다는 반증이다. 최근에는 「월드 24」에서 경제뉴스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 세계인」: 지구촌 모습 있는 그대로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각, 비전은 무엇일까? 다양한 인간, 다양한 언어로 표출되는 사고,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개국 당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의 하나다. CNN, AP, 로이터를 통해 들어오는 지구촌 곳곳의 현장 화면을 국제부 통역전문가들이 놓치지 않고 재구성한다.

「통일로」: 시청자 북한 이해 폭 넓혀

YTN은 개국 당시부터 북한 소식이라면 놓치지 않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를 정기적으로 수신해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를 종합해 보도한 것이 북한 관련 특화뉴스인 「통일로」다. 처음에는 “북한의 선전물 같다”는 항의도 받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시청자들의 이해 폭도 넓어졌다.

통일로의 한 코너였던 북한 만화는 1999년 봄 개편(3월 22일) 때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승격됐다. 북한에서 제작한 만화영화 중에서 비이념적인 내용을 선별했다. 통일로는 2003년 봄 개편(3월 10일) 때까지 계속됐다.

「씨네 24」: 국내외 영화 소개 전문 프로

1997년 11월 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화과학부의 특화뉴스다. 국내 토종감독이 제작하는 개봉영화를 비롯, 할리우드영화 유럽영화 아시아영화를 포함해 국내외의 모든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 전문프로그램. 영화계 소식이나 촬영현장, 스타 인터뷰, 영화 비평도 소개한다. 2002년 가을 개편 때 타이틀을 「씨네버스」로 바꿨다가 2003년 가을 개편 때 「씨네 24」로 복원했다.

「라이프 n 조이」: 생활·교양 정보프로로 확대

2004년 봄 개편(3월 15일) 때 신설된 본격적인 레저 프로그램이다. YTN의 레저 프로그램으로는 2002년 1월 11일부터 시작한 「여행 스케치」가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여행스케치는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국내의 가볼 만한 곳을 소개했다. 이 여행스케치를 확대 개편한 것이 「라이프 n 조이」다.

라이프 n 조이는 여행정보를 뛰어넘어 건강과 문화 정보까지 포괄하는 생활 교양정보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웰빙 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하고 문화현장을 안내하며 문화 트렌드까지 짚어 본다.

「언론과의 대화」: “방송의 신문 비평”

2004년 봄 개편(3월 15일) 때 신설했다. 당시는 매체 상호간의 비평, 방송의 신문비평이 시대의 흐름이었다. 신문의 방송 비평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신문에 대한 비평은 거의 없어 신문의 절대 권력화를 방조했다는 반성에서다. 이에 따라 YTN도 본격적인 언론비평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프레스인 대표인 언론인

박인규 씨가 진행을 맡았다. 2005년 봄 개편(4월 11일)까지 계속됐다.

제4절 : 회사 발전에 한몫... 뜻뜻한 앵커팀

1. 앵커에서 기자, 기자에서 앵커로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에는 전설적인 앵커들이 많다. 월터 크롱카이트는 CBS 메인뉴스를 20년 이상 진행했고 그 뒤를 이은 댄 래더도 24년간 앵커 자리를 지켰다. ABC 뉴스의 피터 제닝스도 20년 이상 메인 뉴스의 간판 앵커를 맡았다.

YTN에는 이처럼 장기간 ‘앵커만을 고집하는 앵커’는 아직 없다. 앵커를 하다가도 일선 기자로 취재현장을 뛰어다닌다. 거꾸로 취재기자로 일하다가 앵커로 등장하기도 한다. 메인 뉴스 앵커가 어느 날 갑자기 취재기자로 현장에 나타나 주위의 시선을 끄는 것은 YTN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취재기자로 입사했다가 앵커와 기자를 오가는 사람은 10명이 넘는다. 또 앵커로 들어왔다가 취재기자로 활동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다. YTN 앵커는 외부인에게도 개방돼 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YTN에서 「박찬숙의 쟁점토론」을 진행했다.

MBC 메인 뉴스 여성앵커 출신인 백지연 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2년 동안 YTN의 「백지연의 정보특종」 「백지연의 뉴스 Q」에서 앵커우먼으로 활약했다. KBS 메인 뉴스 앵커였던 최동호 씨, 연세대 의대 교수인 윤방부 씨도 한때 YTN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발성 연습·기사작성·취재 훈련도 받아

신입 앵커는 대개 일선 기사를 공개 채용할 때 동시에 선발한다. 이른바 공채 앵커다. 1기, 2기, 3기까지는 앵커와 방송기자를 동시에 선발했다. 4기, 5기 때에는 기자만 뽑다가 6기, 7기에 다시 기자와 앵커를 동시에 채용했다. 이어 8기, 9기에는 기자만 뽑았고 8기와 9기 사이에 특별히 앵커만 선발했다. 굳이 따지자면 8.5기 앵커인 셈이다. 앵커들은 한번에 2~4명씩 선발했다. 그러나 2기 때에는 개국 준비를 위해 한꺼번에 8명을 선발했고 남대문 사옥 이전에 때맞춰 제 2창사에 대비하기 위해 8.5기를 채용할 때에도 6명을 뽑았다.



「남성 앵커팀」: 왼쪽부터 김영수 유석현
전현무 유투권 성문규

신입 앵커는 입사하면 발성연습에서부터 기사작성 훈련을 받는다. 오디오, 비디오 훈련을 거듭하고 자신의 훈련 모습을 녹화해 보고 또 본다. 다음에는 수습 기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서를 돌며 사건취재 경험을 쌓는다.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간이다. 사건취재는 모든 취재의 기본이다.

전체 훈련기간은 3개월이 보통이다. 이런 기초훈련을 거쳐야 앵커 석에 앉을 수 있다. 처음에는 심야뉴스 특화뉴스에서 실전경험을 풍부하게 쌓고 점차 메인 뉴스로 접근해 간다.

앵커팀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외부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자기개발을 위해서다. 북한 핵문제가 이슈화될 때에는 북한 문제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실력을 키운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는 외교안보 전문가를 초청했다. 이런 강의를 들어 놓으면 뉴스 특보 때 큰 도움이 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앵커는 항상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지상파에 비해 '새내기'에 많은 기회

공채 1기 앵커는 편상욱 최영운 2명이다. 개국을 1년 정도 앞둔 1994년 2월 입사했다. 두 사람은 앵커와 기자를 번갈아 가며 활동했다. 편 기자는 나중에 지상파로 옮겼고 최 기자는 퇴직했다.

「여성 앵커팀」 : 앞줄 왼쪽부터 이승민 김미선 박신윤, 뒷줄 왼쪽부터 유현주 김선영 윤재희 정애숙 박영진



개국초기 '주력' 2기 8명 모두 여성

2기 앵커는 8명으로 모두 여성이다. 1994년 9월 입사했다. 개국일이 다가오자 가장 급한 것은 앵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 앵커로 훈련받은 인원은 기자 출신까지 합쳐서 10명을 넘지 않았다. 그래서 부족한 앵커를 충원하기 위해 한 번에 대규모로 채용한 것이다. 2기 앵커가 초창기의 주력부대였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3월 1일 YTN이 첫 방송을 할 당시 앵커였던 우장균 김소영 앵커 중 김소영 앵커가 공채 2기다. 2005년 6월 현재 YTN에 남아있는 2기 앵커는 김정아 김경아 김선희 3명. 김정아 김경아 앵커는 현재 뉴스 PD로 활동중이며 김선희 앵커는 기자로 뛰고 있다. 5명은 YTN을 떠났다. 3기 앵커는 유현주 정애숙 이양희 3명. 개국 3개월 뒤인 1995년 5월 입사했다. 2005년 6월 현재 정애숙 앵커는 뉴스 Q, 유현주 앵커는 저녁 6시 뉴스 와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이양희 앵커는 뉴스 PD로 활약중이다.

3기 이후 YTN은 한동안 앵커를 선발하지 못했다. 1998년부터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1998년 12월부터는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YTN은 파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던 때라 앵커 신규채용은 꿈도 꾸지 못했다.

2003년 앵커팀 강화 위해 6명 뽑아

앵커 채용이 재개된 것은 2000년 1월 6기 입사 때였다. 3기 입사 때 앵커가 들어온 이후 5년 만이다. 인원도 소수정예인 2명. 이 중 김명우 앵커는 2년간 뉴스를 진행하다가 현재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다. 강수진 앵커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퇴직했다.

6기에 이어 1년 반 뒤인 2001년 6월 7기 채용 때 또 다시 앵커 3명이 입사했다. 이 중 황순욱 앵커는 뉴스를 진행하다가 취재기자로, 이광연 앵커 역시 앵커를 거쳐 뉴스 PD로 일하고 있다. 박신운 앵커는 앵커와 뉴스 PD를 거쳐 다시 앵커로 복귀했다.

2003년 12월에는 경력 앵커 1명(성문규), 신입 앵커 5명(김미선 김선영 윤재희 이승민 전현무)이 입사했다. 한꺼번에 6명을 뽑은 것은 제 2창사를 위해 앵커팀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YTN에는 지상파에 비해 새내기 앵커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의 「젊음」 「청순함」 「풋풋함」이 YTN이 내걸고 있는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에 더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YTN 성장 '신화'의 한 축을 뜻뜻한 이들 새내기 앵커가 담당해 왔다.

3. 20명 웃도는 기자 출신 앵커

YTN의 기자 출신 앵커는 개국 이래 20명이 넘는다. 그 중에서도 2년 이상 취재기자와 앵커를 번갈아 가며 두 몫을 하고 있는 사원은 유석현 부장 송경철 차장 김호성 차장 이재운 차장과 정찬배 김영수 노종면 류충섭 유투권 박영진 기자가 꼽힐 만하다.

유 부장은 2005년 6월 현재 앵커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이다. 낮 뉴스인 「뉴스 퍼레이드」를 담당한다. 앵커팀장 전에는 문화과학부장이었다. 송 차장은 앵커팀장(2004. 2~2005. 3)을 거쳐 경제부 데스크로 일하고 있다. 김 차장도 앵커팀장(2003. 6~2004. 2)을 하다가 사회부 데스크를 맡고 있다. 이 차장 역시 앵커와 취재기자를 순환하고 있다.

정찬배 김영수 노종면 류충섭 앵커는 공채 2기 수습기자 출신이다. 정기인사 때마다 앵커에서 기자로, 기자에서 앵커를 번갈아 하고 있다. 유투권 앵커와 박영진 앵커 역시 공채 5기 수습기자 출신이다.

첫 출근 파이팅 : 첫 출근한 신입앵커 6명이 남대문 사옥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2003.12. 1)



이밖에 기자출신으로 앵커를 했던 사원은 홍상표 부국장대우 최수호 부장 이동현 차장 우장균 차장 류재복 차장과 강성웅 김정희 김문경 박희천 권영희 최명신 기자 등이다.

제5절 : “시청자와 함께 하는 방송”

1. 시청자 위원회 각계전문가로 구성

YTN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청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 방송법에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채널은 시청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시청자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어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매일 회의열어 프로평가 의견제시

제 1기 시청자 위원회(2000. 10. 1~2002. 9. 30)는 위원장에 곽수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부위원장에 김세원 여성방송인, 위원에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이금룡 옥션 공동대표를 비롯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첫날 회의(10월 12일) 때 나온 시청자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YTN의 답변을 정리했다.

이금룡 위원: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뉴욕증시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간이다. 24시간 뉴스채널인 YTN이 뉴욕 증시 상황을 속보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 아침 5시와 6시 뉴스에서는 뉴욕증시 상황을 종합 보도해 주면 좋겠다.

YTN: 밤 10시 4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 55분까지 뉴욕증시의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다. 아침 7시 뉴스에서는 뉴욕의 금융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상황을 종합보도하고 있다.

김효성 위원: 최근 지상파 방송은 스스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락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방송과 언론의 교육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본다. YTN도 이런 점을 참고해 달라.

YTN: 교양과 환경, 미담의 발굴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한국의 야생화」 「한국의 민물고기」 「한국의 새」 프로그램을 연속물로 방송하고 있고 교통 질서 캠페인, 「문화시민이 됩시다」와 같은 공익 캠페인도 방송하고 있다.

김충식 위원: 방송 뉴스에 자막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특화뉴스가 방송될 경우에도 자막을 통해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여러 번 반복 전달해 주면 좋겠다. 최근 여야 영수회담은 오후 3시쯤 합의사항이 발표됐다. 이같은 합의사항은 다른 뉴스가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자막으로 내보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YTN: 정시뉴스 중에도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자막으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관공서나 사무실에서는 YTN을 켜놓을 때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디오를 죽이고 화면만 보고 있다. 자막방송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손혁재 위원: 지상파 방송이 없는 시간대에 큰 사건이 터지면 YTN을 보게 된다. 그러나 뉴스 내용에 큰 변화가 없이 한 시간 전에 방송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어 실망스러웠던 적이 많다. 뉴스 발생 보도에 그치지 말고 뉴스의 흐름을 추적 보도했으면 좋겠다. 북한 뉴스와 문화 뉴스, 지방자치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을 늘려 달라. 1주일에 한번 정도 기자들의 방담 시간을 마련해 국내 정세의 흐름을 심층 분석하고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YTN: 뉴스 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같은 뉴스가 반복되는 것

은 불가피하다. CNN은 YTN보다 더 재방송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 속보와 심층보도는 두 마리 토끼다. YTN은 속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심층보도에 다소 약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심층 보도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취재기자 방담은 현재 인력 여건상 어렵다.

이창근 위원: YTN의 장기적 과제는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뉴스 전문 채널이 차별화된 뉴스를 발굴해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CNN은 여러 채널로 속보도 하고 심층 보도도 해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YTN은 한 개 채널로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이같은 고민이 해결될 수 있으니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현재 YTN의 국제뉴스 비중이 8%다. 이 비중을 높여야 한다. 우리 언론과 방송이 사회와 경제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 IT 산업은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YTN: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채널이 100개가 넘을 것이지만 뉴스전문 채널은 YTN 하나밖에 없다. 뉴스 전문 채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인도의 IT 산업에 대한 보도는 담당 부서에서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다.

홍사중 위원: YTN은 속보가 생명이지만 가끔 시청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 문화나 국제뉴스와 같은 소프트 제작물이 없을 경우 오히려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아두기 어려울 것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국내외 뉴스를 전하면서도 가끔 긴장을 풀어주는 가벼운 제작물로 시청자들을 붙잡아야 할 것이다.

YTN: 시청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YTN 프로그램 가운데 일반뉴스보다 「세계 세계인」이나 「문화 문화인」 「북한 만화」와 같은 소프트 제작물을 더 오래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수한 소프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기 위원엔 황우석 · 이종석 · 안철수씨도

제 2기 시청자위원회(2002. 10. 1~2004. 9. 30)는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위원장,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에는 줄기세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서울대 황우석 교수, 나중에 NSC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종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안철수연구소 대표인 벤처기업가 안철수 씨가 포함돼 있다.

다음은 제2기 첫날 회의(10월 25일) 때 시청자위원들이 제기한 지적사항과



시청자 위원회 : 제2기 YTN 시청자 위원회 첫 회의. 조동성 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장, 오른쪽 세번째), 황우석 교수(맨 오른쪽) 등 10명으로 구성됐다(2000.10.25)

YTN의 답변 내용이다.

조건호 위원: 비슷한 뉴스의 반복에 따른 지루함을 덜기 위해 아침 뉴스 시간에는 오늘의 중요 일정,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 발표, 경제장관 회의 같은 것을 미리 짚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녁 프라임 뉴스 시간에는 스트레이트성 보도 외에 그날의 핫 이슈에 대해 전문가 또는 데스크의 해설을 통해 심층 보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YTN: 전적으로 동의한다. 경제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포맷으로 경제뉴스의 면모를 쇄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경제전문가의 해설 강화는 당장 시행이 가능하므로 즉시 이행토록 하겠으며 편성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번 편성개편 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유병용 위원: 스크롤 뉴스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속도가 빨라 나이 든 사람이 읽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현재보다 조금 속도를 늦췄으면 좋겠다.

YTN: 현재 속도가 나이 든 분이 보기에는 다소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속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규정돼 있는 단계로 봤을 때 2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로 내릴 경우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된다. 현 상황에서 스크롤 뉴스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

을 강구하겠다.

황우석 위원: 광고방송이 나가는 중에도 가능하다면 YTN 로고가 화면 한 구석에 표시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고가 나갈 때에는 YTN 방송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YTN: 50여 개에 달하는 케이블 TV 채널을 검색하다 보면 광고가 나갈 때 어느 채널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YTN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광고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뉴스를 새롭게 느끼게 하느냐” 고민해야

제 3기 시청자위원회(2004. 10. 1~현재)는 위원장에 조동성 서울대 교수를 유임시키고 부위원장에 김상준 동아방송대 교수를 새로 선임했다. 위원은 황우석 교수(유임), 임재경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고문, 양삼승 변호사 등이다.

시청자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YTN의 답변(2004. 11. 4).

변대규 위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뉴스특보가 좋았다. 미국의 현지반응을 리얼타임으로 전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아쉬웠다. 긴급 뉴스가 정치 위주로 돼 있다. 경제나 스포츠에도 긴급뉴스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YTN: 뉴스 특보 중에도 전문가와 기자들이 출연해 깊이 있는 해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속보에 치중하다 보니 심층보도에 소홀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뉴스해설에도 더욱 비중을 두겠다. 경제나 스포츠 뉴스에도 긴급뉴스를 활용하는 빈도가 점차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콜금리 인하 여부와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경기 결과를 자막속보로 처리했다.

남윤인순 위원: 지상파보다는 YTN에 대해 속보성이나 현장성을 더 기대하고 있다. 큰 뉴스가 생겨도 1주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이슈를 길게 끌고 가야 한다. 긴급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인력 풀이 필요하다.

YTN: 섭외담당 기자를 배치해 큰 뉴스가 일어날 때 전문가를 섭외해 긴급토론에 출연시키고 있다.

김영석 위원: 24시간 뉴스를 하는 YTN을 볼 때 새로운 뉴스를 기대한다. 어떻게 하면 뉴스를 새롭게 느끼게 하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 세계의 흐름을 보여줘



이두표

▲ 1946년 생
▲ 경희대 경영학과 졸, 경희대대학원 광고학 석사

▲ MBC 입사(1970) 영업1부

장(1982) 영업1국장(1990) 한국방송광고공사 부산지사장(1993) 영업1담당이사(1998) SBS미디어넷 영업담당 사장(2001) 광고본부장(2004)

▲ YTN 전무(마케팅담당, 2005~)

인터뷰

조동성 시청자위원장

-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두 차례 맡고 계신데요, 그동안 보람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해서 앞으로 케이블과 DMB, 지상파 여러 채널, 다채널 다매체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인데, YTN이 살아남

다매체 · 다채널 시대에 YTN이 더욱 발전하려면 다양한 서비스 · 전문성 강화 · 감성적 어필해야

▲ 시청자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자의 역할입니다. YTN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데, 저희는 외부의 눈을 통해 좋은 프로그램은 더 좋게, 또 하시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더 커지기 전에 적절하게 평가해 드림으로써 YTN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평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문의 역할입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변호사 · 경영자 · 학계전문가 · 사회활동 시민활동하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각각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YTN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 드림으로써, YTN이 경영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나 또 사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자문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시청자 위원회가 YTN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우리 매체환경을 보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DMB시대

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 앞으로 YTN이 한국은 물론 세계 최고의 방송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양화입니다. 멀티 채널시대에 새롭게 열리는 다양한 채널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는 전문화입니다. 이 다양화 시대에 자칫 간과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전력이 분산되어 어느 하나에서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케이블 TV의 전문성을 계속 강화시켜 여기에서 어떤 채널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세번째는 감성화입니다. 시청자들은 다양한 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은 물론이지만 감성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아주 텔레키트한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한다. 그러려면 외신기사 비중을 높여야 하고 우리 시각에서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질이 떨어지고 촌스럽다. 공신력과 무게, 신뢰감 있는 앵커 발굴에 힘써야 한다.

YTN: 뉴스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 같은 아이템이라도 전화연결을 하거나 리포트를 번갈아 내보내 변화를 주고 인터뷰 구성물도 사용하고 있다. 화면 개선을 위해 미술이나 디자인 전공자를 신입사원 모집 때 선발하려고 한다.

2. 시청률 조사... 프로그램 과학적 분석

사건 터지면 모든 연령층이 YTN 시청

YTN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 미디어 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일일 시청률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YTN 시청가구는 6월 420만 가구, 2001년 말에는 540만 가구에 이르렀다. 프로그램별로 시청률을 조사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초창기 조사대상 가구는 1000가구였다. 각 가정에 피플미터기를 설치해 누가 시청하는지, 어느 채널을 시청하는지 조사했다. 당시 YTN은 OCN 드라마넷 대교방송 NTV 투니버스에 이어 점유율 6위였다. 2003년 1월에는 조사대상을 1200가구로 늘렸다. 이때 프로그램뿐 아니라 광고 시청률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2004년 1월부터는 샘플을 다시 1500가구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YTN은 케이블 TV 채널 중 시청 점유율 5~6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는 만화채널인 투니버스, 2~4위는 지상파 드라마를 재전송하는 드라마 채널이다.

YTN 주시청자의 특징은, 첫째 남자가 많이 보고, 둘째 정기적으로 보는 층이 존재하지만 사건이 터지면 모든 연령층에서 보며, 셋째 한 사람이 오래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YTN에 수시로 접속해서 시청한다는 것이다.

가정 대상 시청률조사로 '과소 평가'

YTN은 낮 시간대에 사무실에서 보는 시청층이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그러나 TNS 코리아의 조사는 가정집에 한정돼 있다. 시청률 조사에 사용되는 피플미터기를 일



이문세

- ▲ 1963년 생
- ▲ 대한공전 졸
- ▲ MBC(1988) 영상취재부 기자
- ▲ YTN(1994) 보도국 영상취재부 기자 영상

편집팀

▲ YTN 보도국 영상취재팀차장대우 (2005~)

반 사무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사무실에서는 누가 시청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시청층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청률을 조사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정집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시청률 조사에서는 YTN 시청률이 과소평가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시청층에 대해서도 여론주도층이 시청한다는 점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제2장 ‘빠른 방송’ 이끄는 앞선 기술

제1절 : 24시간 · 신속보도에 큰 공 BASYS

1. 신속한 보도 · 효율적 편집 가능하게

YTN이 한국 최초의 중단 없는 24시간 방송체제를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한 시스템이 「베이스스」였다. 베이스스(BASYS : Broadcasting Automatic System)는 미국의 베이스스사가 개발한 기사전산화 · 방송자동화 시스템이다. YTN이 이 시스템의 설치를 끝내고 가동에 들어간 때는 1995년 초였다.

베이스스 도입을 결정하는 데는 미국 CNN의 선례가 크게 작용했다. 베이스스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에서 작성한 기사를 런 다운(Rundown) 아이টে็ม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속한 보도가 가능하고 편집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었다. 모든 부서의 승인된 기사가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편집부서에서 런 다운을 작성할 때 가장 최근 도착한 뉴스를 중심으로 편집이 가능했다. 또 방송진행 중에도 기사 순서를 바꾸고 새 뉴스를 끼워 넣는 일이 쉽게 처리됐다.

YTN이 개국 후 대형사고나 중요 외신 보도에서 지상파를 앞지를 수 있었던 것도 베이스스에 힘입은 바 컸다. 편집 · 기사수정의 편리성 효율성뿐 아니라 런 다운의 기사 · 리포트 내용이 그대로 프롬프터에 연결돼 앵커는 카메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 MCS(Machine Control System) 터미널을 통해 뉴스자막이 자동으로 화면에 뜨는 것도 이 시스템의 장점이었다.

외신과 연합뉴스 기사도 전용선을 통해 바로 베이스스 디렉토리에 저장됨으로써 신속하게 검색하고 쉽게 끄집어내 가공 처리할 수 있었다.

베이스스는 한글로 시스템을 호환하는 과정에서 주변기기와의 연결에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개국 후 8년 6개월 동안 YTN과 함께하면서 24시간 방송체제를 다지는 데 큰 공을 세웠다.

2. 노후 BASYS 고장 잦고 시스템 낙후

1995년초 YTN이 개국에 맞춰 도입·가동한 베이스는 8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시스템 노후화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스템 개발회사인 미국의 베이스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고 개발 당시 전문가들이 모두 흩어져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검색과 저장에 시간이 더 걸리고 불안정해져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을 정지시켜야 했다.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던 10BASE2 THIN 케이블과 리피터의 연결에 불량이나 자주 발생하고 서버가 자주 다운돼 방송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시스템에 이같은 기술적 결함이 발생해도 자문할 곳도 없었다.

베이스는 또 아날로그 시대에 개발돼 디지털 방송환경에는 맞지 않는 구식 장비였다. 디지털 방송시대에서 TV뉴스의 경쟁력은 시스템의 신속성 편리성 안정성에 의해 결정된다.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기사를 빠르게 편집 전송 저장하고 주변 방송기기와의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기존의 베이스로는 새로 전개되는 디지털 방송환경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베이스는 YTN을 보도전문 채널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한 '공신'이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낙후된 시스템이어서 대체할 새 시스템 개발이 불가피해졌다.

제2절 : 7개월 만에 「보도정보 시스템」 개발

1. LG CNS · 사내 디지털기획부도 참여

YTN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002년 3월 25일 「디지털 방송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5차례 회의를 열어 「보도정보시스템」의 제안요청서를 마련하고 6월 10일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입찰에는 LG CNS와 한국방송제작단 컨소시엄 2개 업체가 응했다.

위원회는 7월 15일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LG CNS가 방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많은 데다 개발비용을 적게 요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 CNS는 전산·방송관련 시설을 설계·구축하는 국내 톱 클래스의



이재윤

▲ 1964년 생
▲ 고려대 농경
제과 졸
▲ KBS 아나
운서(1988)
SBS 아나운서
(1991)

▲ YTN(1994) 사회부 경제부 경제부
차장대우(2000) 제작국 제작1부 차장
(2004)

▲ YTN 보도국 국제부 차장(2005~)

보도정보 시스템 : 기사작성에서부터 뉴스편집까지 YTN 방송시스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보도정보시스템 서버



전문업체다.

2002년 10월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하드웨어) 설치에 들어가 7개월 만인 2003년 5월 「보도정보시스템」이 설치됐다. 사내 모든 PC에 시스템을 설치해 문제점·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동안 50여 건이 보완됐다.

이같은 시험작동을 거쳐 2003년 8월 1일부터 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보도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LG CNS 17명과 YTN 디지털기획부 3명이 투입됐으며 개발비용은 직접비만 5억여 원이 들었다.

2. 데이터의 안정·효율·저장성 등 높아

보도정보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사용자의 편리성과 확장성 고려 ▲시스템 응답시간의 신속성 추구 ▲시스템 안정성과 대안시스템 확보 ▲무장애 시스템 확보를 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사내외, PC방, 국외 등 통신망이나 전화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가 좀처럼 깨지지 않는 등 데이터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데이터 저장공간에 있어서도 베이스는 1개월 정도면 데이터가 차서 주기적으로 지워야 했지만 보도정보시스템은 7~10년까지 저장할 수 있고 앞으로 저장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어진 환경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베이스에 비해 보도정보시스템은 계속 발생하는 신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국내업체 표준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 새 방송기와 연동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확보돼 있다. 새 시스템은 근거리통신망인 LAN을 이용해 서버와 접속하는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 시스템의 불안정문제가 해결되고 속도면에서도 100Mbps까지 가능해 시스템 응답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서버와 접속하지 않고도 오프라인 상에서 기사작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 되지 않는 현장에서도 오프라인(Off line) 상태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길이 트였고 비상시에는 일반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화벽 도입으로 외부 침입자의 효율적인 차단이 가능해지고 기사자료에 대한 백업(Backup) 시스템으로 웹서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런 다운 작성도 편성표 시간대별로 가능해지고 특정 런 다운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해도 변화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다. 취재원본을 영상과 음향으로 분리해 자료를 등록하거나 빠르게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AP를 포함한 6개의 외신과 연합뉴스 기사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제3절 : 방송 시설 · 장비 업 그레이드

1. 부조 기능 강화... 3부조에도 스튜디오

24시간 TV 뉴스를 제작·송출하는 YTN은 기존의 지상파 TV 방송국 시설 중 송신소시설이 없다는 것 외에는 개념상으로는 지상파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제작·운영 개념에서는 차이가 크다.

24시간 중단 없는 방송체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뉴스의 전산화와 자동화, 신기술 채택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YTN은 수송동 시대를 접고 2004년 3월 1일 승례문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디지털 방송시설을 설계했다.

TV뉴스를 제작·송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은 크게 방송시설 부대시설 지국시설로 나눌 수 있다. 방송시설에는 ▲주조정실 ▲부조정실 ▲신호분배실 ▲스튜디오

오 ▲편집실 녹음실 전산실 음악실 그래픽실이 있다.

「주조정실」은 방송의 최종 송출을, 「부조정실」은 생방송과 녹화방송 제작을, 「신호분배실」은 YTN 방송시설의 심장부로 입·출력 소스 관리와 분배를, 「스튜디오」는 뉴스 생방송과 제작기능을 각각 맡고 있다. 현재 남대문 YTN 타워의 방송시설은 20층과 19층, 18층에 배치돼 있다. 20층에는 주조정실(1개)과 부조정실(3개) 신호분배실 스튜디오(3개) 그래픽실이 있고 19층에는 보도국 스튜디오와 편집실이, 18층에는 음악실이 각각 있다.

남대문 사옥으로 오면서 1부조와 주조 시설은 신규장비로 구축했고 기계실을 부조에 가깝게 설치해 장비운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또 등록실을 따로 두지 않고 부조 안에 그 기능을 포함시켜 방송진행에 일체감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무자들의 동선이 단축돼 장비 점검과 비상시 응급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스튜디오는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본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으며 조명도 HMI 조명과 할로겐 조명으로 다양화했다.

부조정실 조정용 콘솔데스크도 수송동 사옥 때의 1자형 배치에서 2열 배치로 바뀌었다. 앞줄에는 TD(기술 감독)와 PD(뉴스진행자) 오디오 맨 문자발생기 조작용원이, 뒷줄에는 VTR, 비디오 비디오파일 AD가 각각 앉아 근무할 수 있게 했다. 2열 배치로 각 스태프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져 방송 송출 능력이 높아졌다. 3부조 기능도 확대 강화했다. 종전에는 스튜디오가 따로 없어 광고편집이나 오디오 믹스작업 정도만 할 수 있었으나 남대문 사옥에는 스튜디오를 함께 마련해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해졌다.

위성방송 수신 파라볼라 안테나 7개

부대시설로는 안테나설비 전력설비 공조설비가 있다. 안테나 설비는 위성방송 수신용인 접시모양의 파라볼라 안테나와 국내 지상파 방송 공시청 수신용 안테나가 있다. YTN 타워 옥상에 설치된 파라볼라 안테나는 직경 3.2m 3개, 2.4m 3개, 1.6m 1개 등 모두 7개다.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 현재 PanAmSat, AsiaSat 등 7개 방송위성이 보내는 20개 채널을 수신하고 있다.

이 가운데 CNN 인터내셔널, APTN, 로이터, CCTV-1 등 4개 주요 외신 채널은 동시통역 등 생방송 연결과 국제부 리포트로 활용되는 채널이다. 그외 채널은 회사 내 공청에 수용돼 사내 모니터가 가능하다.



제작기술부 회의

전력은 신촌과 서대문에서 이중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발전기는 1500kW를 설치해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구축했다. 24시간 중단 없는 뉴스방송을 위해 필요한 방송용 무정전전원장치 UPS는 YTN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50kVA 2대를 설치했다.

지국 시설은 YTN 지국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말하며 각 지국에는 간이스튜디오와 영상취재물 송출시설이 설치돼 있다. 간이 스튜디오를 통해 본사와 크로스 토킹·생방송이 가능하다. 영상물 송출은 파워콤의 광전송망과 광전송장치인 Iptek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YTN 지국은 현재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강릉 제주 9곳이다.

생방송 진행·녹화프로 만드는 부조정실

부조정실은 생방송을 진행하고 녹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곳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스위치, 영상, 음향, VCR & 서버, V/F(비디오 파일), CG(문자발생기)가 조작된다. 부조정실에서 근무하는 운영요원은 기술감독, 영상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서버 & VCR 엔지니어, V/F 엔지니어, CG(Character Generator) 담당이 있다.

생방송 프로·사전제작물 송출... 주조정실

부조정실에서 제작된 생방송 프로그램과 SB(Station Break) 광고 녹화물 등

사전 제작물의 송출기능을 하는 최종시설이다. 이곳은 방송의 안정적 운행, 정확한 운행을 위해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시보방송, 시각고지, 뉴스 스크롤, 긴급뉴스 자막, 증권시세와 안내자막, 채널과 프로그램 Logo를 처리한다.

지역 SO의 자동광고 삽입장치를 작동시키는 큐 톤(Cue tone)도 이곳에서 송출된다. 주조정실의 최종 출력은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에 적합하도록 변환돼 광단국장치를 통해 전국 SO 또는 위성방송 「스카이 라이프」로 전송된다. 주조정실에는 MD(Master Director) 와 TD(Technical Director)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들어오고 나가는 신호 제어... 신호 분배실

신호분배실은 회사 내·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신호와 송출되는 신호를 분배·제어하는 곳이다. 영상신호의 경우 이곳에서 컬러·신호크기가 조정되며 오디오 신호도 음량이 조정된다. 남산과 관악산에 설치된 중계차 연결용 마이크로 웨이브 수신장치도 이곳에서 원격 조작·운용된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 이르는 프로그램 분배망 관리와 YTN 지국 뉴스수신을 위한 광중계망 운용, 국제 위성 청약 업무와 관리, 송수신 업무도 맡고 있다.

2. 풀 디지털 스튜디오 카메라 등 도입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1부조의 방송장비를 새로 도입했다. 새 장비 도입으로 다양한 화면 구성과 편리한 운용환경이 조성됐다. 최신기종의 비디오 스위처, 미디어 파일, 컬러 수퍼를 도입해 다양한 화면효과 구현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방송 시대를 대비해 Full Digital 방식의 스튜디오 카메라 4대를 새로 구매해 배치했다.

스튜디오 카메라는 종전의 7대를 포함해 11대로 늘어났다. 다양한 샷(shot)의 카메라 워킹을 위해 Jimmy-Jib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해 제2 스튜디오에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를 5.6m의 지렛대 끝에 설치해 자유롭게 상하 좌우로 조작성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마우스조작으로 간단히 편집이 가능한 NLE(비선형편집기) 3대를 도입해 영상 편집실에 설치했다. 이 편집기는 하드디스크에 영상·음성자료를 입력시키고 마우스를 움직여 쉽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다. 또 이 비선형편집기와 부조에 보강



이재철

- ▲ 1961년 생
- ▲ 경상대 영문학과 졸, 서강대 대학원 방송학 석사
- ▲ 진주 문화방송 기자(1987)

▲ YTN(1995) 노조위원장 경제2부차장대우(2002) 사회1부차장대우 제작팀 차장대우

된 송출용 비디오서버를 광케이블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연결함으로써 'One Source Multi-use' 를 실현하기 위한 1차 단계 작업을 끝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주소의 송출용 비디오서버를 통해 SB나 ID를 송출하는 데 그쳤으나 이제는 광고송출의 자동화도 가능해졌다. 현재 송출되는 광고의 60%가 송출용 서버를 통해 방송이 가능해짐으로써 테이프 없는 광고송출시대가 열렸다.

주소정실의 운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보강됐다. 개국 때부터 9년 동안 사용해온 자동송출시스템인 TAS(Total Automatic System)를 국산시스템으로 대체했다. 새로 도입한 국산 시스템은 APC(Automatic Program Control)로 국내 CIS사가 개발한 장비다.

다양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글로 운용요령을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또한 송출용 서버를 2대 설치해 이중화함으로써 장비고장으로 인한 방송사고 가능성에 대비했다.

3. 중계차 서울본사 7대 · 지방에 6대

중계장비 · 설비로는 중계차와 광전송장치(Ipitek) M/W(마이크로웨이브) M/W중계소(남산 관악산 2곳)가 있다. 현재 YTN이 보유하고 있는 중계차는 총 13대로 본사에 7대, 지방에 6대가 배치돼 있다. 중계차가 배치된 지국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강릉지국이며 규모별로는 중형 중계차인 OB VAN 1대 소형 VAN 12대다. 서울지역의 중계차는 본사대기와 현장대기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현장에 중계차가 고정 배치된 곳은 정부과천청사, 서울경찰청, 정부중앙청사 소방상황실 3곳이다.

서울지역에서의 중계차 연결은 주로 무선중계망인 M/W를 사용하며 이를 위해 남산과 관악산에 중계소가 설치돼 있다. 남산과 관악산 중계소에는 360도 회전 가능한 M/W 수신장치가 각각 3대씩 설치돼 중계차가 보이는 위치라면 어느 곳이든 중계링크 구성이 가능하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재 광전송장치(Ipitek)를 활용하고 있다. 각 중계차에 비치된 광전송장치는 파워콤의 광케이블 중계 접속점인 Injection Point와 연결해 본사와 중계링크를 구성한다. YTN 지국의 경우 M/W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광케이블 중계망을 이용하고 있다.

기술국 세미나 : 사내에서 열린 기술국 세미나. 박찬중 국장(왼쪽 마이크 앞)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02.12.11)



출범 초기 임차해 사용하던 위성 취재송출시스템인 SNG(Satellite News Gathering)는 중계링크 구성이 용이하고 국내 어디서나 링크구성이 가능해 24시간 뉴스전문채널에 필수장비였으나 임차비용 문제로 현재 사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각 중계차에는 보통 1~4대의 카메라와 VCR, 비디오 스위처, 오디오 믹서가 장착돼 있어 현장에서 촬영한 테이프를 보내거나 현장 플레이가 가능하다.

4. 방송기술연구소 설립 뉴 미디어 개발

YTN은 2005년 4월 8일 방송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초대 연구소장은 정명렬 부장(직무대행). 이에 앞서 YTN은 2003년 5월 1일 기술연구소 준비팀을 설치했다. 준비팀 가동 1년 만에 기술연구소로 승격된 것이다.

그동안 기술연구소 준비팀은 YTN이 허가권을 따낸 지상파 DMB 사업신청서 작성에 큰 역할을 했다. 사업신청서 작성에서 기술부문 제안서를 작성한 것이다. 기술연구소는 앞으로 뉴미디어 개발팀과 그래픽 영상정보 개발팀을 둘 예정이다.

뉴미디어 개발팀은 DMB, 데이터 방송, 디지털 라디오, VOD와 같은 뉴미디어 방송 연구와 IT기반의 프로그램 제작에 대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방송현업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개선, 디지털 방송 장

비 시스템 개발에도 힘쓰게 된다.

그래픽 영상정보 개발팀은 선거 때마다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선거방송 그래픽 표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디지털 방송에 적합한 그래픽 영상정보를 개발·개선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전자통신연구소와는 2004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지상파 DMB용 자동차 자동교통정보 시스템을 공동연구중이다.

제4절 : 통합 디지털 방송시스템 추진

1. 입력서 수신까지 방송 전 과정 자동화

21세기 방송계의 화두는 '디지털화'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방송부문에 도입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송출과 수신과정에 이르기까지 방송산업의 전 영역이 디지털화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변화의 흐름에서 살아남으려면 현명한 디지털전략의 수립·추진이 필요하다. YTN은 지상파DMB 진출에 이어 케이블방송 체제의 디지털화를 위해 중장기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송레문 시대를 열면서 개발 설치한 「보도정보시스템」도 곧 닥칠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를 앞둔 중간단계적인 선택이다. YTN이 추구하는 장기 디지털화 전략의 핵심은 통합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이다.

2. 뉴스 경쟁력 콘텐츠 제작 능력 극대화

통합 디지털 방송시스템은 영상 미디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시켜 일반 PC에서 간편하게 관리·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상입력 편집 송출 등 방송시스템 전체와 연동, 전 과정을 자동화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방송 시대의 이상적 모델이다.

촬영화면이나 기존 영상자료를 디지털신호로 바꿔 거대한 저장탱크에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끄집어내 처리·가공할 수 있다. 편집 제작된 자료는 송출서버로 자동 전송되고 포맷의 변형을 통해 인터넷·데이터 방송·모바일에도 쉽게 서비스될 수 있다. 이른바 'One Source Multi-use'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입력 검색 편집 송출 저장 등 방송의 각 과정이 끊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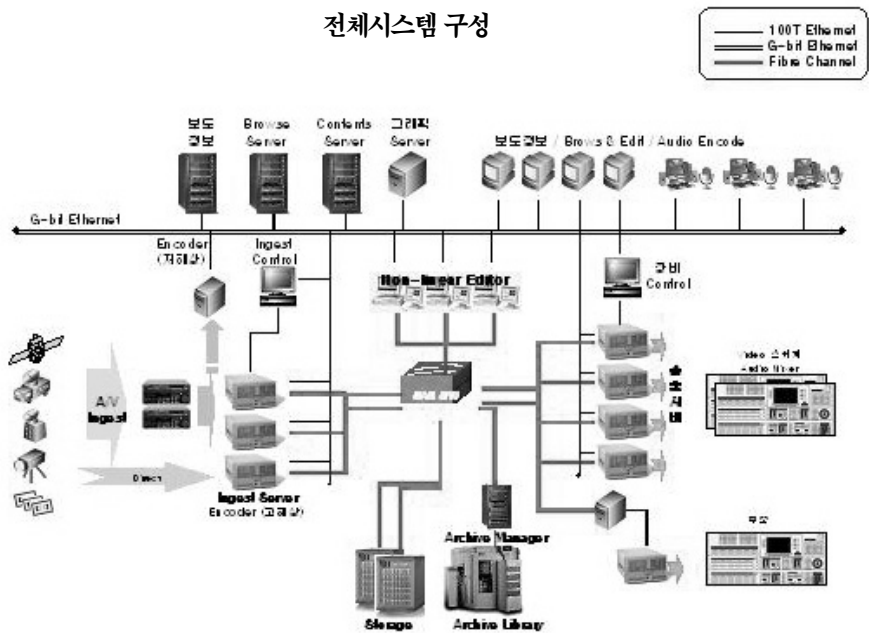


이재희

▲ 1949년 생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 TBC사회부(1975) KBS사회부(1980) 문화부차장(1990)
▲ YTN 기획제작총괄부장(1995) 문화스포츠부장(1996) 보도국부국장(1996) 국장대우 방송정책팀장(2000) 편성심의실장(2001)
▲ YTN 이사대우 사사면찬위원(2005~)

없이 물 흐르듯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기존의 방송용 테이프가 필요없게 돼 편집실과 자료실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시대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테이프 보관으로 인한 영상자료 훼손과 색깔이 뭉개지고 빠지는 '열화' 문제도 통합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간단히 해결된다. 한마디로 디지털 통합 시스템은 디지털 시대의 뉴스 경쟁력인 '콘텐츠의 제작능력'을 극대화해 줄 수 있다.

아래 그림이 완성된 통합디지털 방송시스템 모형이다. 취재해 온 영상이 디지털 신호로 입력되고 검색하고 편집하고 송출서버로 연결되고 저장되는 과정이 네트워크화돼 끊어짐 없이 업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기술발전 지켜보며 단계별 구축 계획

이 시스템을 한 번에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고 작업의 흐름을 일시에 변화시키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YTN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즉, 디지털기술 발전의 진전 상황을 주시하면서 방송장비와 설비를 단계별로 디지털화하는 전략이다.

우선 VCR가 담당하고 있는 1:1 편집기를 NLE(비선형편집시스템)로 교체하

고 다음 단계로 현재의 테이프 보관 장소인 자료실을 Archive System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그 뒤에 최종단계로 전반적인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제3장 우리 실·국 이야기

보도국 (7부 13팀 : 국내 9지국· 해외 3개지국)

1. 「편성운영팀」 24시간 방송계획 짠다

편성운영팀은 2005년 5월 말 현재 구성원이 11명이다. 류희림 부장과 권오진 차장에 MD 6명 PD 2명 음악담당 1명으로 짜여 있다. 권오진 차장은 편성업무와 함께 「뉴스와 상식」 프로그램 제작, 외부 제작물 「인사이드 월드」(30분물) 품질 관리를 맡고 있다. 정동균 이용구 신성원 윤진완 박만희 김형보 사원 등 MD 6명은 YTN 방송 송출의 최종 관문인 구조정실을 24시간 지키는 파수꾼이다.

평상시에는 편성표에 따른 운영을 담당하고 뉴스 생방송 도중 사고가 나거나 특보상황이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는 정기 편성을 깨고 임시편성 체제를 짜 운영하고 있다.

장석문 사원은 YTN에서 필요한 음악을 담당한다. 기존 음악을 주로 활용하지만 스스로 작곡하는 경우도 많다. 안광연 PD는 SB와 「비전 코리아」 제작, 외부 제작물 「씨네24」(30분물)를 관리하고 있다. 이민우 PD는 「취업 뉴스」 「뉴스 퀴즈」 제작과 외부 제작물 「클릭 연예파일」(30분물) 관리를 담당한다.

개국 전 설치... '편성' 중요하게 다뤄

편성운영팀의 기원은 YTN이 뉴 미디어 매체로서 첫 발을 내디디기 전인 199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주주였던 연합통신 (현 연합뉴스)의 YTN기획단에 이미 편성운영팀(팀장 박운순)이 있었다. 이는 YTN 개국 준비과정에서 편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편성운영팀은 24시간 뉴스전문 채널의 편성 준비 작업을 맡았다.

‘편성운영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원도 보강됐다. 초대 편성운영부장은 고광남 부장이 맡았고 부원은 13명이었다.

2001년 10월 18일 보도국에서 독립해 ‘편성심의실’이 됐다가 2005년 4월 4일 편성심의실이 없어지고 보도국 소속 ‘편성운영팀’으로 환원됐다. 초대 편성심의

실장은 2001년 11월 5일부터 이재희 국장이 맡았고 2003년 6월 11일 진상옥 국장이 그 뒤를 이었다.

“아들 낳으려면 주조근무 해라”

편성운영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송을 최종적으로 송출하는 주조정실을 지키는 일이다. 하루 24시간 중 단 1초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 주조정실이다. YTN의 MD 6명은 주조정실을 10년 동안 사고 없이 지켜 왔다. 세상 사람들이 잠을 잘 때도 야간근무 중인 MD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밤낮으로 6명이 교대근무해야 하는 이들은 모두 자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했다. 자칫 한 사람이 걸근이라도 하면 그 여파는 다른 동료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무여건에서도 ‘희한한 기록’이 주조정실 근무 MD들에 의해 작성됐다. 4년 동안 4명의 MD가 6명의 아들을 잇달아 낳은 것이다.

‘아들 낳기 릴레이’의 선두주자는 이용구 사원이다. 그는 개국 다음해인 1996년 12월 1번 타자로 옥동자를 낳아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 뒤를 이어 박만희 정동균 윤진완 사원이 잇달아 아들을 낳았다. 다시 박만희 정동균 사원이 역시 아들을 낳아 아들 낳기 6연속기록이 작성된 것이다.

아들 낳기가 이어지자 보도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들을 원하는 사원들은 주조정실의 ‘마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조정실에서 나오는 ‘어떤 정기’가 아들을 접지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주조정실을 드나들기도 했다. 전자파를 많이 쬐면 아들보다는 딸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종래 의학계의 가설이 주조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아쉽게도 ‘아들 낳기 릴레이 기록’은 선두 주자인 이용구 사원에 의해 깨졌다. 이 사원은 2000년 6월 예쁜 공주를 낳았다. 그 뒤를 이어 윤진완 사원이 또 딸을 얻었다. 아들 낳기 기록이 완전히 깨져 가려는 순간 이번이 일어났다. 결혼한 뒤 한동안 아기가 없던 신성원 사원이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이다. 그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한꺼번에 털어내버렸다.

신성원 사원의 아들 쌍둥이로 현재 주조정실의 ‘아들 낳기 기록’ 도전은 다시 불이 댕겨진 상태다. 현재 편성운영팀 주조근무자 5명의 자녀현황은 아들 8명, 딸 2명으로 압도적으로 아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뷰

장석문 음악담당

- 개국 때부터 YTN의 음악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다면?



버렸던 추억을 찾는 것 같다고 하면 서요. 또 하나는 제가 만든 로고송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가끔 주변에서 그 로고송을 흥얼거리

개국 때부터 음악 담당해왔는데 기억에 남는 일은 내가 만든 로고송 흥얼거리는 소리 들으면 보람 느껴

▲ 1996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어느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올드 팝을 쓴 적이 있어요. 1960년대 팝이었는데 방송이 나간 후 나이 지긋한 분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축음기 틀어 들려준 음악이 YTN 통해 나왔다면 그 음반을 구할 수 없느냐는 거였어요. 음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분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잃어

는 사람을 볼 때 음악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 YTN 음악자료실에는 자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 2000여 장의 CD가 있습니다. 지상파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지요. 아무리 뉴스채널이라고 하지만 다양성에서도 크게 부족한 편입니다.

혼자 모든 음악 맡고 로고송 작곡... 장석문

편성운영팀에는 YTN에서 '가장 재주 많은' 음악담당 장석문 사원이 있다. 편성운영팀의 보배이자 YTN의 보물이다. 그는 개국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YTN의 음악을 혼자 책임지고 있다. 각종 프로그램 타이틀 음악을 비롯, SB·ID·리포트·특집·삽입 음악 등등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방송의 맛깔이 살아나지 않는다. 현재 그가 보유하고 있는 CD 음반자료는 1500여 장. 지상파의 수십만 장에 비하면 초라한 규모지만 10년 동안 YTN의 모든 음악을 혼자 선곡하고 작곡하여 믹싱해 왔다.

장 사원 작품 가운데 최대 히트작은 '살아 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로고송이다. 이 로고송은 2001년 5월부터 방송되기 시작했다. 로고송을 작곡하는 데 꼬박 2주일이 소요됐다. 이 로고송에는 그의 음악적 섬세함과 깊이가 잘 배어 있다.

‘24시간 뉴스’ 라는 YTN의 ‘딱딱한 이미지’ 를 친숙하게 바꾸는 데 기여했다.

(권오진 차장)

2. 24시간 깨어있는 「편집팀」

편집팀은 ‘뉴스 총괄부’ 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초창기 남보다 한 템포 빠른 뉴스로 하루를 열기 위해 오전 5:30~8:30 「뉴스 출발」이라는 아침 와이드 뉴스로 승부수를 띄웠다. 30분 단위로 총 6부가 진행됐다. 여기서 YTN 최장수 프로그램이 탄생한 셈이다.

뉴스총괄부로 출발... 앵커·그래픽팀 독립

밤사이 사건 사고와 아침 교통 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을, 화재 소식은 서울소방본부를 연결해 생생히 전했다. 소방본부는 YTN 개국일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YTN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개국 오래 전부터 선후배가 한 몸이 되어 수없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도상 훈련을 했지만, 보도 시스템인 베이스에 익숙하지 않아 자판 잘못 누른 바람에 진행해야 할 뉴스 아이템이 담긴 런다운(Rundown)을 한순간에 몽땅 날려버린 아찔함, 예고없이 들이닥치는 사건 사고 소식을 1초라도 빨리 전하러 갈겨쓴 쪽지를 스튜디오로 살금살금 들어가 앵커 손에 쥐어 주는 아슬아슬함, 긴장하고 집중하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고, 그러다 실수도 하고... 그렇게 숨 가쁘게 10년을 달려왔다.

1999년 10월 뉴스 총괄부가 ‘뉴스편집부’ 로 새 단장, 새 출발했다. 2003년 3월 편집부에 속해 있던 앵커팀과 그래픽팀이 독립하고 아침 낮 저녁팀으로 나뉘어 있던 각 진행조가 1팀 2팀 3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4년 10월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섭외 전문 기자제가 도입됐다. 초대 섭외 전문기자로는 강성웅 기자가 임명됐다.

3개팀이 24시간 뉴스 짜고 진행

편집팀은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굿모닝 코리아」와 낮 시간 특화 뉴스, 저녁 시간 「뉴스 와이드」 「프라임 뉴스」 등 하루 24시간 뉴스를 짜고 진행하는 부서다. 어느 부서보다도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부서인 것이다. 초대 배석규 뉴스



이종국

▲ 1965년 생
▲ 연세대 독문과 졸, 한국외대 대학원
▲ MBC 통역(1990) 외신제작

▲ YTN(1994) 보도국 국제부 정치부 통일외교팀 기자 미디어국 해외사업팀
▲ YTN 미디어국 차장대우(2004~)



한자리에 모인 편집팀

총괄부장 (현재 YTN 미디어 전무이사)에 이어 김관상 주동원 김사모 노복미 황성수 부국장이 편집부를 이끌었다.

현재는 홍상표 부국장을 중심으로 김승환 1팀장 상수종 2팀장 이귀영 3팀장이 각각 밤 낮 새벽 시간대를 맡고 있다. 스크롤은 김사모·박득송 부국장이, 「뉴스 퍼레이드」는 신동윤 부국장이 각각 담당한다.

편집1팀에는 김원배 차장을 비롯, 김선희 배성준 김태진 김선중 이종구 기자와 박소영 편집PD가 배치돼 있다. 편집2팀은 프로그램별로 진행자가 고정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 퍼레이드」는 김종욱 정유신 기자, 「뉴스의 현장」은 이상순 기자, 「뉴스 Q」는 강성욱 김정아 기자 오윤정 PD가, 「15시 · 18시」는 신용진 기자, 「경제 와이드」는 김종욱 정유신 기자가 각각 진행을 책임지고 있다. 편집3팀은 「굿모닝 코리아」와 「7-9」의 진행을 맡고 있다. 팀원으로 박근표 차장(「7-9」팀장) 조승호 방병삼 차장대우, 지순한 류충섭 김경아 이양희 이광연 기자와 김명숙 PD, 이수영 신동훈 AD가 근무하고 있다.

(김종욱 기자)

3. 시청자들에 새 모습 보여준 「앵커 팀」

YTN 개국을 앞두고 짜인 앵커진은 1기 2명과 여성 앵커로 선발된 2기 8명, 보도국 파견 남성 앵커 3명 등 13명이었다. 신생 방송국의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앵커인 만큼 YTN 앵커들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열의에 불타 있었다.

뉴스 진행은 '시간과의 전쟁'

기본적인 우리말 교육과 언론재단 연수가 이어졌고 현장경험을 쌓기 위해 앵커들은 경찰서 취재에 투입됐다. 경찰서를 돌면서 사건을 챙겨 보기도 하고 사고 현장에 나가 직접 기사를 쓰거나 리포트를 만들어 보는 훈련을 받았다. 방송출범 전이라 연습방송을 위한 과정이었지만 실제처럼 진지하게 이뤄졌다.

YTN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YTN 앵커 또는 기자라고 말하면 “어디라고요?”라고 되물어 오던 때의 이야기다. 앵커들은 30분마다 돌아가는 뉴스와 특화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 시간과의 전쟁뿐 아니라 체력전까지 벌여야 했다.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스튜디오를 지킨 앵커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도 감지덕지할 정도였다. 한국 최초의 24시간 뉴스채널의 서막을 연다는 사명감으로 앵커들은 지칠 겨를도 없다. 굵직굵직한 뉴스가 터질 때 현장에서는 YTN 기자가 뛰었고 스튜디오와 방송 화면 속에는 YTN 앵커들이 있었다.

'삼풍' 참사 때는 11시간 생방송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의 릴레이 속보는 YTN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삼풍백화점 반파' 라는 자막속보로 시작해 사흘 동안 사고 현장 중계차와 병원,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사상 최장 릴레이 생방송이 시작됐다. 당시 앵커진의 최고참 최수호 앵커는 11시간 생방송의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일련의 속보를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YTN 앵커들은 선후배 가림 없이 1시간 또는 길게는 2, 3시간 단위 생방송을 교대로 이끌어 나갔다. 이같은 실전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속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배짱'은 강해졌다. 언제 투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YTN 앵커들은 쉴 새 없이 새 정보에 대한 섭취와 이해를 게을리 할 수 없다. 들어오는 화면만 보고 당장 생방송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기자나 전문가와 원고 없이도 대담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전 보도과정은 거의 원고 없는, '앵커 알아서 큐' 방송일 때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몇 시간 전 무슨 공격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후세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없는지, 외신들의 새로운 보도 내용은 없는지를 미리 께

메이크업 교육 : 아모레 퍼시픽 김효선 강사를 초청, 보도국 회의실에서 앵커팀과 분장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2004.9.8)



고 준비해 있어야 했다. 전쟁까지 생중계되는 세상에서 뉴스전문채널 앵커들은 정보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

천둥 속 생방송하던 기상앵커에 베틀

스튜디오는 늘 긴장의 연속이다.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나름대로 개인사가 많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한다.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맞는 생방송이지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예고 없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생방송 중 나온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다소 으스스한 날! 당연히 그날 날씨가 아이템 상위에 배치됐는데...

유현주 앵커는 날씨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한강 둔치에서 대기 중이다.

<앵커> “바깥 날씨 상황 유현주 기자 연결해 알아보니다.”

<유현주 앵커> “예, 저는 지금 한강 둔치에...”

갑자기 ‘악’ 하는 외마디 비명 소리와 함께 유현주 앵커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어떻게 된 거야?” 웅성웅성. 방송사고가 난 것이다. 방송사고보다 정작 더 걱정되는 것은 앵커가 무사한지 여부였다.



우리말 발음 강의 : 이현복 서울대 명예교수가 우리말 표준 발음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2004.11.18 앵커팀 주최)

무식하리만치 ‘돌쇠정신’으로 뛰던 그 시절, 천둥 번개 치는 날 한강 둔치에 우산 들고서 마이크 잡고 생방송하다 유현주 앵커가 벼락을 맞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유 앵커는 지금 어찌 됐을까? 벼락사고 이후 ‘더 푹푹해져’ 현재 YTN 「뉴스와이드」와 「주간 돌발영상」 진행자인 ‘돌발 소녀’의 역할을 ‘200%’ 해내고 있다. 2004년 총선 개표방송 중 송경철 정애숙 앵커의 에피소드.

방송 중 정 앵커의 발에 갑자기 쥐가 났다. 화면에 잡히지 않는 사이 주물러도 보고 뛰어도 보며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 옆에 있던 송경철 앵커에게 SOS. “저 선배, 제 발에 쥐 났어요” 하자, 송경철 팀장, “넌 발에 쥐났니? 난 머리에 쥐 난다.” 이래서 스튜디오는 한동안 웃음바다.

발음이 헛나와 ‘기상 센터’가 ‘기생 센터’로 돼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터지는 웃음을 시청자 몰래 삭이느라 진땀을 빼기도 한다. 최소 인원으로 힘겹게 방송을 이어가다 보니 출산을 앞둔 여성 앵커들 중 출산 전날까지 스튜디오를 지키다 다음날 병원에서 출산소식을 알려 오는 경우도 있었다.

팀워크 · 효율화 위해 독립조직으로

YTN 방송 역사가 쌓여 가면서 뉴스편집팀 소속 '앵커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팀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개국 이후 처음으로 '앵커팀'이라는 독립적인 조직이 탄생했다.

초대 앵커팀장에는 주동원 부국장이 임명됐다. 2003년 2월 김호성 차장이 앵커팀에 합류했고 김 차장은 그해 6월부터 앵커를 하면서 팀장을 맡았다. 이때 앵커의 재교육 부분이 특히 강조돼 각종 강의와 언론재단 연수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2004년 2월 송경철 차장이 팀장으로 오면서 개국 10주년 방송을 위한 구체적인 라인업이 새로 짜여졌다. 이때를 '앵커팀이라는 집'의 터를 잡고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2005년 4월부터 새로 구성된 유석현 팀장 중심의 앵커팀은 문패를 달고 내실을 다지며 YTN 앵커팀의 영역을 확고히 쌓아가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앵커 재교육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정아 앵커)

4. 「정치부」 이름 안 바뀐 유일한 부서

정치부는 개국 이후 부 명칭이 바뀌지 않은 보도국 내 유일한 부서다. 2005년 5월 말 현재 정치부는 부장 1명 차장·차장대우 7명 부원 8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직책과 담당 업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장 : 추은호 ▲국회반장 : 채문석 차장 ▲행정반장 겸 총리실 : 김형근 차장 ▲청와대 : 류제웅 차장대우, 정재훈 ▲통일부 : 박병한 차장 ▲외교부 : 류재복 차장대우, 강태욱 ▲국방부 : 김기봉 ▲열린우리당 : 김웅건 차장대우, 김종균 홍성혁 최영주 ▲한나라당 : 이동우 차장대우, 김호준 정병화. 정치부장은 초대 표철수 부장에 이어 조봉환 고광남 강철원 홍상표 정영근 부장이 뒤를 이었다.

정치부의 업무는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움직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관련 보도다.

화면 복사본 단독입수, 현장 있었던 듯 설명

1995년 3월 1일 방송이 시작되면서 정치부의 가장 큰 과제는 밤 10시 30분에



이종수

▲ 1966년 생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CBS (1991~1994) 정치부 사회부 연합통신 문화부(1994)

▲ YTN 정치부(1995) 국제부 문화과학부 기자협회YTN지회장(2004)

▲ YTN 문화과학부차장대우(2004~)

방송되는 정치뉴스 특화 프로그램인 「정치광장」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총리실 담당이면서 프로그램 앵커를 했던 유석현 기사를 비롯, 정치부 기자들은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해 거의 매일 11시 이후 퇴근해야만 했다. YTN 정치부의 존재를 알리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고난의 여정에도 불평은 없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단독국회를 비밀리에 소집, 노동3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YTN은 이 뉴스를 특종했다. 신한국당 담당이던 이동현 기자는 새벽 6시 반쯤 취재에 들어가 국회방송 카메라 담당자가 화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즉시 복사본을 입수해 오전 7시 현장 화면을 틀며 마치 현장을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보도했다. 타사 기자들은 이 기자만 현장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

‘재가’ 전에 보도하고 애태우기 3시간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당시 YTN 정치부는 지상파 3사와 더불어 한국 공동취재단을 구성,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상황을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보도했다.

6월 14일 채문석 기자는 저녁 9시에 내보낸 공동취재단 리포트에서 ‘남북 정상 5개항 합의’를 보도했다. 9시 시점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고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최종 재가가 났다. 재가가 날 때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자신 있게 합의라고 보도한 채 기자는 애간장을 태웠다.

정상회담에 앞서 YTN 보도국은 총선이 끝난 뒤 남북관계 현안이 급증할 것에 대비, 2000년 초 통일부와 외교부 담당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치부내에 북한팀을 신설했다. 당시 여당 반장이던 유석현 차장이 초대 팀장을 맡았다.

북한팀은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맡았으며 2000년 9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을 대비하기 위해 통일 외교팀으로 분리 독립했다. 북한팀은 배석규 팀장 아래 김호성 이종국 이교준 김호준 오승엽 유투권 기자가 보강됐다. 이에 앞서 2000년 3월에는 YTN 개국 5주년을 기념한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동근 보도국장과 정애숙 앵커가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담당했다.

2001년에는 남북 관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분리 독립돼 있던 통일 외교팀 조직이 정치부내 행정팀으로 흡수됐다. 2003년 초에는 국방부 출입처가 사회

부에서 정치부 행정팀에 편입됐다.

(왕선택 기자)

5. 「경제부」 정책 건설 금융 등 4개팀

경제부는 부장 1명과 차장 4명 부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책과 담당업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장 : 이홍렬 ▲차장 : 차장대우 송경철 이양현 황성욱 김진호 ▲부원 : 김진우 김용섭 박경석 오점곤 박홍구 현덕수 김희준 함형건 오승엽 임승환. 경제부는 정책농림팀 건교부동산팀 금융팀 업계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디지털·화상 등 기획프로도 제작

정책농림팀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공정위 농림부 등 경제부처와 산하기관을 담당한다. 건교부동산팀은 건설교통부를 출입하면서 건설정책과 부동산 동향을 취재하고 있다. 금융팀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연구기관, 업계팀은 산업자원부와 5개 경제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상 취재업무 외에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한다. 최근 방영된 경제부 제작 기획프로그램은 ▲YTN개국 10주년 특별기획 「자원 그리고 미래」(이승훈 기자, 2005년 3월 방영) ▲전자산업 관련 기획물인 「디지털의 미래」(김원배 기자, 2005년 1월 방영) ▲자동차 산업 관련 기획물 「사람과 자동차」(현덕수 기자, 2004년 9월 방영) ▲중국 화교와 한민족 공동체 관련 기획물 「세계의 상인, 화상」(류충섭 기자, 2004년 9월)이 있다.

초대 경제부장은 연합통신에서 파견 나온 정평국 부장이 맡았고 그 뒤를 주동원 고광남 배석규 김관상 김경한 문중선 김 백 부장이 이었다.



이철용

- ▲ 1955년 생
- ▲ 안양예고 졸
- ▲ KBS 영상 편집담당(1981)
- ▲ YTN 영상취재부(1994) 영상취재부차장

대우 영상취재팀차장(2000)

▲ YTN 영상취재팀 부장대우(2004~)

IMF 때는 '경제사회부' 로 불리기도

1997년에 들어서면서 기업 도산이 줄을 이었다. 한보에 이어 IMF 관리 체제 편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기아차 사태까지 자고 나면 기업이 쓰러지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였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였지만 각 언론사 머리기사는 경제뉴스였다. 터져 나오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기존 경제기사와는 달리 그 가치가

너무나 컸고 사건성 기사도 많았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경제부 기자들은 ‘경제사회부’ 기자라고 불렸다. 당시 YTN 경제부는 ‘신속’ ‘정확’을 무기로 항상 현장에 있었고 매일 중계차를 동원해 생방송에 참여했다. 기아차 사태 때도, 12월 IMF 구제금융 신청 때도 그랬다.

YTN 식구들에게 힘이 됐던 에피소드 한 가지를 소개한다.

“LOOK AT MY EYES”

1998년 12월 이 짧은 영어 한마디로 이재홍 기자는 IMF에서 파견된 휴버트 나이스 국장을 김포공항 첫 만남에서부터 사로잡았다. 취재원과 인간적인 교감에 성공한 덕분에 그 후 나이스 국장은 쟁쟁한 다른 회사 기자들을 물리치고 이 기자와만 얘기를 나눴다. 1999년 1월에는 YTN에 직접 출연해 IMF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나이스 국장 한마디는 그날 경제부 기사방향의 바로미터였고 각 방송사는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혈안이었다.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부 기자 2~3명이 상시 파견돼 취재했다. 정권 인수·교체기에 정치부 기자가 아닌 경제부 기자가 인수위원회를 취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04년 3월부터 특집 기획물로 창사 10년 특별기획 6부작 「다시 뛰는 코리아」(김영수 배성준 기자)가, 2004년 2월에는 특집 「지배구조가 경쟁력이다」(김진우 기자)가 제작 방영됐다.

(현덕수 기자)

6. 「사회1부」 ‘사건 불패’ 기동타격대

사회1부는 언제나 YTN의 중심이며 기동타격대다. 사회1부는 YTN 출범 때부터 YTN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최선봉에 서 왔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 등 수없이 많은 사건현장에서 YTN 사회부는 항상 생동감 넘치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4개팀 구성 기본골격 10년동안 유지

사회1부는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팀과 법원 검찰을 맡는 법조팀, 교육과

노동 환경 보건복지 공항 취재를 담당하는 행정팀, 수도권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익진 부장대우와 차장·차장대우 5명, 부원 20명 모두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장하 차장이 총괄 데스크를 맡고 있고 경찰팀은 이재홍 기자, 법조팀은 이교준 기자가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김호성 차장(교육부)과 권영희 기자(서울교육청), 보건 복지분야는 임종렬 차장과 이광엽 기자, 노동 환경분야는 정석영 차장대우, 인천공항은 최재민 기자가 각각 담당한다. 법조기자는 박희천 김명우 박순표 신 호 등 5명이, 경찰기자는 김정현 심정숙 황순욱 박소정 이대건 홍선기 전가영 등 7명이 뛰고 있다.

수도권 지역인 수원엔 김학무 차장과 김세호 기자, 인천엔 김주환 기자가 파견돼 있다. 부서 개편에 따라 환경과 보건복지 분야가 경제2부로 편입된 적도 있었고 개국 당시 사회1부 출입처이던 국방부가 정치부로 옮겨 가기도 했지만 10년 동안 4개팀으로 구성된 기본골격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빠른 사건·사고 보도’ 시청자에 확산

취재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취재인력도 보도국에서 가장 많아 1995년 3월 YTN 출범 초기 사회부는 50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이었다. YTN이 출범 초 사회1부에 역량을 집중시킨 것은 사건 사고 보도를 통해 뉴스전문 채널의 정체성과 채널 이미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정립하기 위해서였다. 신생 매체로서 ‘무시와 설움’을 일찍 졸업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기도 했다.

YTN 뉴스는 사회부의 생생하고도 빠른 사건 사고 보도로 빠르게 시청자에게 확산되었다. 기존 지상파 방송에 단시일에 경쟁자로 다가섰다. 무엇보다 YTN 사회1부의 존재를 우리나라 언론계에 널리 알린 것은 1995년 6월 29일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다. 붕괴 소식을 특종보도하면서 방송사상 전무후무한 39시간 동안의 현장 생방송을 통해 YTN의 이름을 드높였다. CNN이 YTN 생방송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도 했다.

YTN 사회1부는 삼풍사고 보도로 1995년 말 대한언론상을 받았다. 또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삼풍백화점 사고 유가족 모임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초대 사회1부장은 이동근 부장이 맡았고 그 뒤를 김관상 김사모 신동윤 홍상표 진상욱 김 백 부장이 이었다.

YTN 경찰팀은 개국 이후 현재까지 ‘사건 불패 신화’를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



이한상

- ▲ 1950년 생
- ▲ 중앙대 연극영화과 졸업
- ▲ KBS 카메라기자(1978) 파리 특파원(1986)

- ▲ YTN 영상취재부 차장(1994) 영상취재부장(1996) 영상담당 부국장(1999) 국장대우 영상제작단장(2001) 미디어국장(2003) 타워사업국장(2003)
- ▲ YTN 기획조정실 방송위원

다. 초대 경찰팀장 문중선 기자(현 기동취재부장)와 변덕수 기자(작고)가 경찰팀의 기틀을 잡았다. 이어 채문석 이동현 류제웅 강성웅 류재복 김종균 오점곤 기자가 경찰팀장 자리를 이었다. 법조팀 역시 12·12와 5·18사건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와 김현철 20억 원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특종을 잇달아 터뜨리며 '강한 사회1부'의 전통을 지켰다.

「수원 취재팀」 수도권 뉴스 매일 제작

사회1부에 소속된 수원취재팀은 취재기자 2명 카메라기자 1명 사운드맨 1명 운전기사 1명 등 5명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청과 도경을 중심으로 경기도 한수 이남 지역 17개 시·군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는 5분짜리 수도권 뉴스(경기도 뉴스)가 생겨 매일 리포트를 제작하고 있다.

(최기훈 기자)

7. 「사회2부」 지국 9곳 등 전국 커버

개국 때의 이름은 '네트워크 부'.

YTN이 개국한 1995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내 손으로 뽑는 민선자치시대 원년이기도 하다. YTN 사회2부와 전국 지국 역사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본격적인 부활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개국 당시 사회2부는 기존 언론사의 부서명칭으로는 다소 생소한 '네트워크 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이후 몇 차례 명칭이 바뀌다가 1999년 8월 3일부터 '사회2부'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2부는 부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오수학 부장, 오인석 차장, 이병식 홍상희 김수진 기자다. 이들은 서울시청과 행정자치부를 취재하고 있다.

사회2부에는 대전과 청주 등 중부권에 2곳, 부산 대구 등 영남권에 2곳, 광주와 전주 등 호남권에 2곳, 춘천 강릉 등 강원권에 2곳, 제주 1곳 등 모두 9개의 지국이 소속해 있다. 창원과 울산 수원(사회1부서 관장)에는 주재기자가 파견돼 있다. 지국에 근무하는 사원들은 50여 명에 이른다.

대형 지방뉴스 정확·신속하게 보도

개국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가운데 국민의 눈과 귀를 YTN으로 쏠리게 만든 뉴스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이광옥 지국장 사우장 : 과로로 순직한
고 이광옥 대전지국장 사우장 영결식
(2004. 6.29)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1995.4) 여수 유조선 시프린스호 좌초(1995.7) 부여 무장간첩 출현(1995.10) 페스카마호 선상반란(1996.8) 강릉지역 북한 잠수정 침투(1996.9) 대전 범조비리 파장 확산(1998.3) 동해안 대형 산불(2000.4) 태풍 '루사' 전국 강타(2002.8)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2003.2)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2003.3) 공주박물관 문화재 강탈(2003.5) 부안 핵폐기장 반대 사태(2003.7) 청주지검 검사 몰래카메라 사건(2003.8)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항 마비(2003.8) 충청지역 100년 만의 폭설피해(2004.3) 광주 휴대전화 수능 부정(2003년, 2004년) 등등. 전국 9개 지국은 굵직굵직한 지방 발생 뉴스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 YTN의 발전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IMF 이후 대폭 줄어든 인력과 열악한 장비환경에서도 전국 지국 사우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개국 10년째인 2004년 6월 30일 대전지국으로부터 비보가 날아왔다. 이 소식은 YTN 전사원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기자로서 평소 후배들에게 남다른 귀감이 돼 온 이광옥 대전지국장이 과로로 순직한 것이다. 이 지국장은 사망 당일 새벽 4시 30분 출근 '서해안 대천해수욕장 첫 개장' 리포트 제작을 마친 뒤 저녁에 퇴근, 산책도중 심근경색으로 불귀의 길을 갔다.

(이병식 기자)

「부산 지국」 부산팀 · 창원팀으로 각각 출발

부산지국은 1995년 2월 25일 부산팀과 창원팀으로 각각 출범했다. 출범 당시 부산팀 인원은 취재기자 4명 카메라기자 3명 기술 2명 운전기사 2명 등 모두 11명이었다. 창원팀 인원은 취재 3명 카메라기자 2명 기술 2명 운전기사 2명 등 9명이었다. 1998년 IMF 사태로 인해 두 팀은 통합해 부산팀이 됐다. 2000년 1월 부산지국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산지국은 부산과 창원 두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부산 사무실에는 김인철 지국장, 취재기자 윤현숙, 카메라기자 전재영 기대웅, 카메라기자 겸 엔지니어 박주익, 엔지니어 강현석, 운전 2명 등 모두 8명. 창원 사무실은 카메라기자 겸 엔지니어 이철근 차장대우, 운전기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국 취재 영역은 유동인구를 포함 인구 1000만 명의 부산과 경남지역이다. 부산지국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해마다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노사분규 속보를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생중계하다 시피 했으며 1995년 8월 참치잡이 어선인 페스카마호에서 발생한 선상반란사건의 생중계, 해마다 계속되는 태풍 생중계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다뤄 왔다.

창원팀은 1995년 4월1일 진해군항제 개막을 전국 지국에서는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1996년 8월 초에는 지리산에 소방 헬기가 추락,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SNG를 활용해 지리산 현장에서 생중계했다.

(김인철 지국장)

「대구지국」 인원 · 장비 열세에도 슴한 특종

대구지국 인원은 채장수 지국장, 취재기자 손재호, 카메라 기자 박태근, 카메라 기자 겸 엔지니어 전기호, 운전기사 오디오맨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채장수 지국장이 대구시와 법조 · 경제단체를 맡고 손재호 기자는 경상북도와 대구시경 경북도경을 담당하고 있다. YTN 대구지국은 1994년 대구팀으로 발족했다. 발족 당시에는 취재기자 3명을 비롯 7명이었으나 1년쯤 지나 11명으로 보강됐다. IMF로 취재인력은 5명으로 줄었다. 올해 초에 오디오맨 1명이 보강됐다. 대구지국 인원과 장비 등은 경쟁 방송사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러나 일당백의 투혼과 열정으로 수많은 특종을 일궈냈다.

1995년 4월 28일 101명이 숨진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보



창원 기자 · 엔지니어

대구지국 사무실



도는 YTN 출범 후 두 달 가까운 기간 중 가장 큰 특종으로 신생 방송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대구지국은 지난 10년 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다. 행정의 난맥상이나 부정부패, 부조리한 현장을 고발하는 데도 힘썼다.

(채장수 지국장)

「전주지국」 대구지하철 방화 지원 취재중 특종

전주지국 개국 당시 전체 인원은 모두 11명이었다. 팀장 1명 취재기자 3명 카메라기자 2명 엔지니어 2명 운전기사 2명 사무여직원 1명이었다. 운전기사가 2명인 것은 중계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홍수기 지국장, 취재기자 조영권, 카메라 기자 여승구, 운전기사 1명에 카메라 보조가 1명 총원래 5명이다.

전북 지역은 비교적 대형 사건 사고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가끔 전국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지국은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때 취재 지원차 출장가 특종,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특종의 주인공은 조영권 여승구 기자. 이들은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방화 장면이 녹화된 CCTV화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출범 원년인 1995년 10월 12일 오후 4시 전북 익산시 중앙동 커피숍 인질사건에서 SNG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해 지상파를 놀라게 했다. 살인 용의자 2명이 네 살배기 어린이와 커피숍 손님 6명을 인질로 잡고 대치국을 벌인 이 사건에서 YTN은 대전에 있던 SNG를 인질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이 밖에



전주지국 기자와 직원들

도 전주지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1998년 7월16일 전남 순천의 탈옥수 신창원 검거와 같은 해 7월 31일 폭우로 지리산 뱀사골에서 발생한 야영객 7명 실종, 2003년 7월 11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발표로 촉발된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 폭행사건 등이 있다.

(홍수기 지국장)

「광주지국」 ‘창고’ 청소하고 장비 설치

1995년 2월 28일 광주지국의 취재기자 3명과 카메라기자 2명은 서울 본사에서 광주로 내려왔다. 광주지국 식구들이 다른 곳보다 일찍 내려온 것은 당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덕산그룹 부도 때문이었다. 규모는 500억 원대였지만 굵직굵직한 업체만도 고려시멘트 덕산건설, 사학인 조선대학교, 언론사 무등일보가 있었고 협력업체가 많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광주에 와 보니 사무실은 창고였다.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 위층으로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잡동사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곳을 청소하고 장비를 설치했다. 초기에는 송출도 할 수 없어 리포트를 만들면 항공편으로 보내야 했다. ‘보도’라고 쓴 헬멧을 쓰고 호남고속도로를 달리자고 할 정도였다.

차츰 지국의 면모를 갖췄다. 취재기자 3명 카메라 기자 2명 엔지니어 2명 운전

원 2명 여직원 등 모두 9명. 나중에 이인배 지국장이 합류, 11명으로 늘었다.

외환위기 때 5명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6명이 됐다. 지국장 이인배, 취재기자 김범환, 촬영기자 김경록, 중계차 감독 문한수, 운전기사, 오디오맨 등이다.

개국 이후 전사적으로 취재했던 시프린스호 좌초사건. 1995년 7월 23일 광주 지국 식구들은 태풍 '페이'가 올라온다는 소식에 중계차를 끌고 목포에 가 있었다. 그런데 태풍은 여수 쪽으로 상륙했고 그 과정에서 13만짜리 유조선이 여수 소리도에 좌초한 것이다.

기름유출로 '죽음의 바다'가 된 좌초현장에 각 언론사에서는 취재팀을 경쟁적으로 파견했고 YTN도 당시에는 생소한 SNG로 생중계했다. 24시간 뉴스 채널의 역량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때 여수에는 YTN이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방송이라는 소리를 많이 했다. TV에는 나오지 않는데 취재는 열심히 하는 방송이라고 말이다.

(김범환 기자)

「대전지국」 이정우 지국장 리포트 가장 많이

대전지국은 현재 취재에 이정우 지국장을 비롯 이문석 기자, 카메라 기자 박동일 장영한, 엔지니어 도경희, 운전기사 2명 등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 대전청사와 시청·대덕연구단지류 이정우 지국장이, 충남도청과 경찰청·교육문제를 이문석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

가슴 아픈 일은 2004년 6월 대천해수욕장 개장 리포트를 마지막으로 고 이광옥 선배를 영영 떠나보낸 일이다. 그러나 곧 이문석 기자가 들어와 대전지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지국장은 YTN 기자 가운데 가장 많은 리포트 건수를 기록, 2002년 'YTN 대상'을 받았다. 개국 초기 편집 장비가 없어 타방송사에서 리포트를 편집해 버스로 서울에 올려보내던 때도 있었지만 1995년 5월 편집기와 중계차, SNG 차량이 배치되면서 정상화됐다.

태풍 재해방송을 위해 서해안 바닷가에서 생방송을 할 때는 SNG 안테나가 바람에 날아갈까봐 방송을 중단하자고 하기도 했다. 귀성·귀경 방송을 하다가 옥천에서 열차 탈선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보도함으로써 그 기동성에 타 방송사들이 놀라기도 했다.

(도경희 차장대우)



임영선

- ▲ 1962년 생
- ▲ 단국대 전자공학과 졸업
- ▲ KBS 방송기술 담당 (1987~1994)
- ▲ YTN 제작기

술 총괄부(1994) 제작기술부차장(2004) 제작기술부부장대우(2004)
▲ YTN DMB 기술팀장(2005~)

인터뷰

이정우 대전지국장

- 거의 매일 한 건씩 리포트를 하는데 취재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습니까?

▲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은 사람이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 많은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취재원 관리도 필요한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 기사를 발굴하고 제작하는데는 뉴스

소스인 대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뉴스는 곧 사람의 입과 행동에

매일 취재 리포트하는데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의성·정보성에 YTN만의 시각으로 접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자가 리포트를 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식은 맛은 있지만 계속 먹으면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먹는 밥은 질리지 않습니다. 저는 식사 메뉴로 말하자면 평범한 가정식 백반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때론 특식도 만들어 먹고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YTN은 다른 공중파와는 달리 비교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차별화한 뉴스제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YTN의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또 다른 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의성과 정보성을 가미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뉴스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 출발하니까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예전의 사건·사고 현장에서와 같은 대인관계와는 다른 정보관리와 새로운 차원의 기사 감각이 필요해졌습니다. 비판 기사 발굴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주변 정보도 알려주면서 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취재원에 접근할 때 먼저 좋은 기사로 접근합니다. 좋은 기사는 취재원들의 가슴을 열어 놓고 한번 가슴을 연 취재원들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종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기사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지국」 취재요청 많아 “취사 선택”

개국 당시에는 10명이 근무했으나 IMF로 절반의 인원이 서울로 차출돼 지금은 5명으로 줄었다. 김태훈 지국장, 취재기자 김동우 차장대우, 카메라 기자 유형식, 운전기사 1명, 오디오맨 1명이다. 150만 주민을 담당하기에는 적은 인원이지만 24시간 6명이 교차 근무하며 ‘분투’ 하고 있다.

청주지국은 ‘YTN은 늘 현장에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개국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1995년 7월 폭우 속 무궁화호 열차탈선 사고 때는 가장 빨리 생중계해



춘천지국 기자와 직원들

타사를 놀라게 했다. 충북 옥천 산사태로 일가족 7명이 매몰된 사고에서도 청주 지국은 특종을 했다. 사고 당시에는 휴대폰이 작동되지 않아 이장 집에 몰래 들어가 일반전화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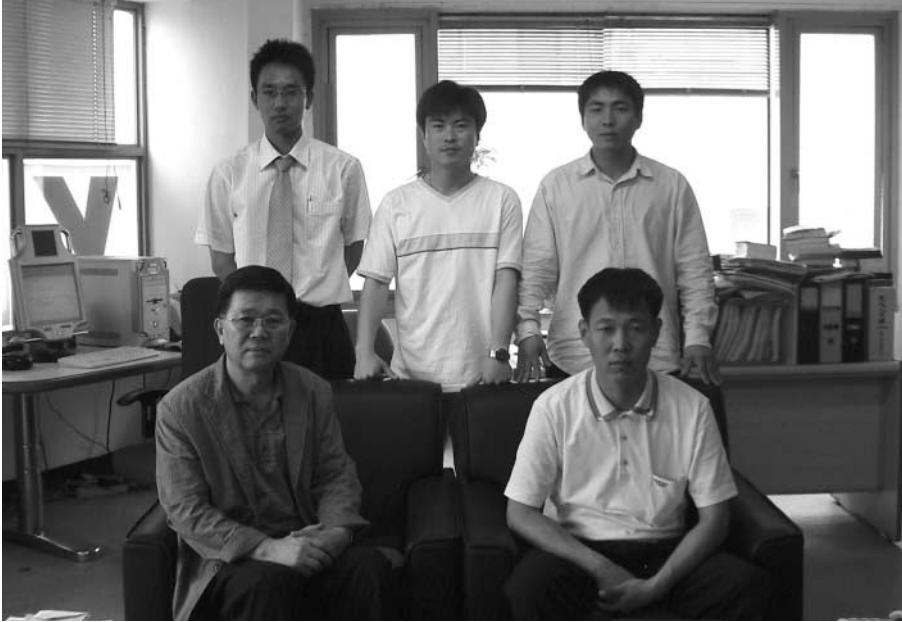
4개 고속도로가 지나는 충북은 교통사고 또한 잦아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최악의 폭설로 경부고속도로가 막힌 일 등 10년 동안 큰 사건 사고를 놓치지 않았다.

개국 당시 취재원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취재보다 YTN을 설명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일, 케이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원 가족마저 시청할 수 없었던 일, 취재에 응해 놓고도 YTN이라는 것을 알고 석연치 않은 웃음을 지었던 취재원들의 표정 등등 어려움도 많았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YTN도 왔어! YTN도 왔어!” 하며 취재차량을 살핀다. 취재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 취사선택해야 할 정도다. 인력이 달려 ‘알토란 같은’ 취재거리임에도 취재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김태훈 지국장)

「춘천지국」 열목어 집단폐사 단독보도

출범 당시 10명이던 춘천지국 인원이 IMF 이후 4명으로 줄었다. 홍영기 지국장, 카메라 기자 진민호, 카메라 보조 1명, 운전기사 1명이다. 취재구역은 북단으로 철원군에서 남으로는 정선군 등 강원 영서지역 11개 시·군이다.



강릉지국 기자·오디오맨 등 직원들

1996년 9월 동해안에 북한 잠수정이 침투했을 때 춘천지국은 강릉지국과 협조 체제를 이루며 취재 성과를 올렸다. 취재팀은 물론 중계팀까지 지원한 춘천지국은 타 방송사에 비해 인원과 장비는 크게 부족했지만 취재능력만큼은 뒤지지 않았다.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60여 일 동안 춘천지국 취재팀은 특종 못지않은 취재활동을 펼쳤다. 2002년 5월 인제군 진동계곡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어종인 열목어가 집단 폐사한 사실을 단독 보도해 특종상을 받았다. 2003년 8월에는 IOC 총회가 열린 체코 프라하에 특파돼 평창이 탈락하는 아쉬움을 삭이며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과정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홍영기 지국장)

「강릉지국」 간첩침투 현장서 실시간 방송

강릉지국은 YTN 본사 개국 두 달 뒤인 1995년 5월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인원은 정현교 지국장을 비롯 7명이었다. 강릉지국은 개국한 지 1년이 갓 넘어 첫 대형 사건을 맞았다. 1996년 강릉 무장간첩 침투이다. 본사에서 20명의 기자가 지원하려고 왔다. 강릉 시내에는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언제 간첩과 마주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기자들은 교전이 펼쳐지는 현장에도 지체 없이 달려가 취재했다. 특히 현장에서 실시간 내보내는 SNG방송은 YTN의 존재와 위력

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들도 모르는 사실조차 YTN이 특종 보도하면서 타 방송국뿐만 아니라 당국자들도 YTN 채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2002년 동해안 대형 산불이 났다. 2명이 숨지고 8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도 1000억 원이 넘었다. 이때도 기자들은 밤낮으로 화마와 '사투'를 벌이며 생생한 소식을 전달했다. 대형 산불이 지나간 지 넉 달도 채 안돼 태풍 '루사'가 영동지역을 강타했다. 하루 최대 강우량이 900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에 영동지역 시가지는 물바다로 변했고 교통과 통신도 두절돼 고립상태에 빠졌다. '루사'로 인한 수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2003년 태풍 '매미'가 영동지역을 휩쓸었다. 하루 최대 강우량 583mm의 폭우가 쏟아져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2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때도 강릉지국은 수해 현장을 찾다니며 취재했다. 현재 강릉지국은 정현교 지국장과 송세혁 기자, 김동철 카메라 기자, 운전기사와 오디오맨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현교 지국장)

「제주지국」 해양기지 헬기 촬영하다 추락할 뻔

제주지국은 취재기자 2명 카메라기자 2명 기술사원 2명 운전기사 2명 여직원 1명으로 출발했으나 IMF이후 4명으로 줄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제주지국은 동중국해와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지상파가 미처 접근하지 못한 지역을 취재했다. 방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3시간 넘게 걸리는 눈 쌓인 한라산 하산길을 1시간 반 만에 주파하기도 했다.

더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 이어도 해양기지에서 헬기착륙 장면을 찍다가 바다로 추락할 뻔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2000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태풍 '사오마이'를 본사 지원 없이 중계했다. 세계 30여 국가의 전통축제가 소개된 섬문화축제(1998년)와 북한 대표들이 참가한 한민족평화축전(2003년)도 취재했다. 유종민 지국장 외에 본사 근무를 하다 내려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민 카메라 기자, 기술과 촬영은 물론 사무실 업무까지 1인 3역을 하고 있는 정두운 차장, 운전기사 김기면 씨가 제주지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유종민 지국장)



위성통역실 통역사들

8. 「국제부」 ‘월드 뉴스부’ 로 개국 전해 설치

국제부 총 인원은 25명. 국제부장은 박성호 부장이고 송태엽 차장이 데스크를 보좌하고 있다. 국제부가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월드뉴스」를 중심으로 「세계 세계인」 「위성통역실」 「웰컴 투 월드」 등이 있다. 국제뉴스 특성상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야근 부담이 어느 부서보다 크다.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월드뉴스」는 왕선택 김선희 최기훈 임종주 신현준 김잔디 기자 등 6명이 맡고 있다.

「세계 세계인」은 YTN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YTN 장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놓치기 쉬운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가 제작 책임을 맡고 있으며 권정미 씨가 AD로, 작가 홍승연 씨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위성통역실」은 이지연 김현수 정지영 윤서연 등 통역사가 제작한다.

국제부에는 편집팀과 모니터팀 등 2개 팀이 있다. 편집팀은 모든 국제부 프로그램의 영상편집을 맡고 있다. 국제부 편집팀에는 김성환 임현철 임갑현 한경희 박정란 이은경 등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모니터팀은 옥상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외신 뉴스화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요원들로 외신을 24시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들이 수신하는 외신은 미국

CNN과 APTN, 영국 로이터, 중국 CCTV, 일본 TBS 등이다. 모니터 업무는 유경미 강성아 신정옥 정은임 김미연 사원 등 5명이 맡고 있다.

다양한 국제프로그램으로 차별화

국제부는 '월드 뉴스부' 라는 이름으로 YTN 개국 전해인 1994년 8월 설치됐다. 1998년 9월 21일 국제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초대 국제부장은 연합뉴스 남미 특파원을 지낸 김갑생 부장이 맡았다. 김 부장은 40여 명의 부원을 이끌고 초창기 어려움을 극복하며 국제부 기반을 다졌다.

출범 당시 YTN 편성의 3분의 1을 담당해야 할 정도로 국제부 역할은 막중했다. 국내 첫 24시간 뉴스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도 국제뉴스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개국 초기 월드뉴스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상파와 차별화를 기했다. 초기에 제작 방영된 국제부 프로그램은 5개였다.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월드 뉴스」와 「세계 세계인」을 비롯, 아시아 지역 뉴스를 특화한 「아시아 아시안」, 미국 CBS의 '60분' 같은 유명 프로그램을 번역한 「월드 매거진」이다.

1996년 12월 곽중철 부장(현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교수)이 김갑생 부장의 뒤를 이었다. 곽 부장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 청와대 외신담당 비서관 경력을 갖고 있다. 곽 부장은 전문성을 발휘해 국제부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이 시기는 YTN의 경영악화로 연합뉴스 전재를 중단해야만 했던 때였다. 국제부는 연합뉴스 대안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새 유형의 외신 뉴스를 개발했다. 뒤를 문재철 강갑출 강철원 홍상표 정영근 윤두현 부장이 이었고 2005년 4월부터 박성호 부장이 맡고 있다.



장영길

- ▲ 1950년 생
- ▲ 대신대 행정학과 졸, 연세대대학원 행정학 석사
- ▲ KBS(1977) 교통방송(1990)

기술관리부장

- ▲ YTN(1994) 장비관리팀장 기술관리부장(1999) 중계부장(2001) 퇴사(2003)
- ▲ 미주 라디오서울 국장(2003~)

국제적 대사건 속보·특보서 명성

YTN 국제부의 특징과 장점은 한마디로 속보에 있다.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사건의 경우 YTN의 장점인 24시간 편성의 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출범 초기 일본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도쿄 지하철 독극물 사건을 시작으로 국제부의 속보와 특보 체제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 고베 지진을 비롯해 각종 재난, 테러, 국제 정치의 중요한 이슈 때마다 국제부는 타 방송보다 한발 빠르게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해 왔다. 특히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보

도는 국내 전 언론사는 물론, 미국의 자랑인 CNN보다 빨라 명성을 얻었다.

최근의 예로는 태국 인도네시아를 덮친 사상 최악의 ‘남아시아 지진 해일사태’ 때 부족한 인원과 장비 속에서도 국제부는 타 부서의 지원과 순발력을 발휘, 지상파에 손색없는 재난방송을 해냈다.

(이종국 기자)

「워싱턴 지국」 슈퍼파워 수도에서 세계를 본다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은 단순한 행정기능을 하는 도시가 아니다. 옛 소련의 붕괴 이후 슈퍼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있다. 좀 산다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워싱턴에 특파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주요 뉴스가 자기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워싱턴 특파원의 주요 취재원은 매일 매일 열리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을 비롯, 미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 등이다. 또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의 내용을 꿰뚫지 않고는 뉴스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워싱턴포스트와 USA투데이, 뉴욕 타임스를 정독하고 나면 2~3시간은 훌쩍 지난다. 국무부 정오 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외교현안들을 점검한다. 북한 핵과 관련한 이슈가 주요 현안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은 중요한 뉴스거리다.

주미 한국대사관도 중요한 취재 대상이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북한 또 북한과 미국간의 주요 현안들은 결국 대사관을 거치기 때문에 한·미 관계, 북·미 관계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대사관을 들러 관계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다져 놓아야 한다.

워싱턴을 방문하는 우리 정부의 고위 각료나 주요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빠질 수 없는 취재거리다. 이들은 대부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미국 방문 목적과 방문 성과를 밝히고 때로는 국내에서 말하지 못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때가 많다.

YTN은 특파원 1명이 모든 일정을 혼자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일정이 겹치는 날에는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정신이 없다. 더욱이 워



YTN 동경지국이 들어있는 일본 TBS 본사건물

싱턴뿐만 아니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기사는 일단 취재 대상이어서 하루 종일 긴장상태에서 취재거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된다.

YTN은 1995년 개국 후 워싱턴에 상주 특파원을 보냈다. 개국 준비 당시 KBS 워싱턴특파원이었던 문재철 기자가 YTN으로 옮겨오면서 자연스럽게 YTN의 초대 워싱턴특파원이 됐다. YTN 워싱턴지국은 처음에는 워싱턴시내 백악관 옆에 있는 NPB(National Press Building)에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사와 전 세계 주요국의 언론사 지국들이 들어있는 곳이다. 4층에 미 국무부 공보원 언론지원실이 있어 국무부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보기 좋고 각종 보도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도 많은 외국 언론사들이 이곳을 선호한다.

IMF이후 지국 사무실을 철수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후임 류희림 특파원은 물론, 그 뒤를 이은 배석규 정영근 특파원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남들 보기에는 재택근무여서 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특파원들과 정보교류를 할 수 없고 매일 워싱턴 시내에 나가 취재하다 보니 기사 작성 후 리포트를 녹음해야 하는 경우 길거리 공중전화에 매달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YTN 워싱턴 특파원들은 다른 경쟁사들을 제치고 많은 특종을 낚았다.

(류희림 전 워싱턴 특파원)

「도쿄지국」 영상 전송시스템 구축 화면 리포트

YTN은 개국 직전인 1995년 2월 일본 민영방송 TBS와 뉴스 교환 협력에 합의하고 TBS 본사 13층에 YTN 지국 개설을 위한 사무실 임차 계약을 맺었다. 그해 3월 케이블 TV 방송 출범과 함께 YTN도 방송을 시작했으나 해외지국 개설과 특파원 파견이 늦어지면서 도쿄지국 사무실은 한동안 빈 공간으로 남게 됐다.

1995년 10월 20일 초대 도쿄 특파원으로 김사모 지국장이 부임했다. 김사모 지국장은 지국 개설을 위해 사무실 집기를 거의 임차방식으로 갖추고 업무를 시작했다. 경비 절약 차원에서 교도통신은 TBS 보도국에서 받아 봤다. NHK 기사는 타방송사 협조를 얻어 팩스로 제공 받는 등 주변 신세를 많이 졌다.

도쿄는 서울과 시차가 없어 아침뉴스 시간에 일본 소식을 전하려면 새벽 4시

부터 조간신문을 챙겨야 하고 아침뉴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곳이다.

1998년에는 일본에서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 퍼펙 TV가 출범하면서 한국어 채널인 KNTV가 생겼는데 KNTV는 처음에 YTN 뉴스를 위성수신해 방송했다. 2년 뒤부터 YTN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하자 지상파 뉴스를 수신하는 것으로 바꿨다.

TBS는 CNN등 해외 주요 뉴스를 수신하듯 YTN뉴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화면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당시 YTN 도쿄지국은 화면 취재를 할 때 TBS 자회사의 촬영장비를 임차하거나 프리랜서의 장비를 임차했다.

도쿄지국은 1998년 12월부터 한국이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철수까지 고려했으나 워싱턴지국과 함께 그대로 유지했다.

김사모 초대 지국장은 1998년 10월 3년 임기를 마쳤고 후임자인 박득송 지국장이 뒤를 이었다. 2대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한 박득송 지국장은 어려운 IMF 체제 속에서 도쿄지국을 꾸려 갔고 2002년 2월부터는 3대 도쿄 특파원으로 강철원 지국장, 2005년 2월부터는 윤경민 특파원이 4대 도쿄 지국장으로 일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어려운 취재여건이었지만 YTN 도쿄지국은 2002년 월드컵 한일 친선·예선 경기를 TBS 중계차를 활용, 요코하마 경기장에서 생중계하기도 했다. 홍콩의 중국 반환 때에는 홍콩에서 TBS의 중계차와 SNG를 활용해 생방송했다.

강철원 지국장 시절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인터넷 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해 화면 리포트를 보내기 시작했다. 종래의 전화 리포트에서 '특파원 얼굴이 들어가는 리포트'로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간다.

현재는 카메라맨을 현지에서 고용해 활용하고 있다. 지상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전임 특파원 시절보다 취재·보도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

(윤경민 특파원)

「베이징지국」 위성방송하며 중국 시청자 늘어

YTN 베이징지국은 2001년 1월 현지에서 첫 보도를 내보낸 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련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환 초대 특파원은 외국 언론사가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중국에서 취재 기반을 다져 가며 굵직한 뉴스들을 처리했다. 김 특파원은 재임 기간 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베이징 올림픽 유치 성공, 한·중 수교 10주년, 사스(SARS :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파동, 조류독감 확산, 북한 핵 위기와 1차 6자회담 개최, 중국을 통한 탈북자 러시, 양빈 신의주 행정특구 장관 파문 소식을 생생하게 전했다.

2004년 2월 부임한 김태현 지국장은 특파원증을 만들자마자 2차 6자회담이 열려 본사에서 파견된 왕선택 기자와 함께 회담 소식을 전했다. 4월 들어 김 특파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는 바람에 미공개 일정을 취재하느라 애썼고 김 위원장 북한 귀환 도중 용천역 폭발 참사가 터져 국경 도시인 단둥에서 15일간 머물며 본사에서 합류한 류재복 김태운 기자와 함께 밤낮 없이 속보를 만들었다. 화면을 보낼 수단이 마땅치 않았지만 구호품이 용천 현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특종도 건졌다(4월30일 보도).

초대 특파원 시절과 가장 다른 점은 카메라맨이 새로 들어오고 중국 내 시청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베이징 지국은 3년 8개월간 재택근무를 해 오다 2004년 9월 사무실을 열고 현지 카메라맨을 고용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초저비용 화면 송신 시스템(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도 갖췄다. 중국 인터넷망이 미비해 초반 두 달은 1~2분짜리 그림을 보내는 데 3~5시간이 걸렸으나 보완 장치를 찾아내 송출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근무 태도가 성실한 재중국 동포 카메라맨 고 광 씨는 2004년 10월 15일 새벽 20명의 탈북자가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에 진입한 소식을 단독 보도할 때 전 과정을 깔끔하게 촬영했다.

YTN 본사에서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을 실시함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각지의 시청자가 늘어났다. 주중 대사관, 영사관의 채널은 YTN에 고정돼 있고 한국 기관이나 식당, 호텔, 교민 가정에서도 다수가 YTN을 시청하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은 베이징 특파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현재 베이징에는 국내 17개사, 24명이 주재하며 대형 특파원단을 형성하고 있다. 방송사는 KBS 5명(취재기자 3명 카메라기자 1명 PD 1명) MBC 2명 SBS 2명 YTN 1명 등 10명이다. 2005년 3월 SBS가 베이징 특파원 1명을 추가한 데 이어 KBS는 7~8월쯤 상하이 지국을 개설할 예정이며 연합뉴스와 중앙일보도 연내 베이징 특파원을 1명씩 더 파견하기로 했다. 베이징의 취재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태현 특파원)



전병모

- ▲ 1953년 생
- ▲ 서울산업대 전자공학과 졸, 송실대 대학원 정보석사
- ▲ KBS(1978) 기술행정차장

대우

- ▲ YTN 기획조정실 부장급(2000) 뉴미디어팀장(부장.2001) 기획관리부장(2003)
- ▲ YTN 부국장대우 인력관리팀장(2005~)

9. 「문화과학부」 IT·과학·기상 등 흡수

문화과학부는 문화와 과학, 기상 분야 취재를 담당한다. 한 지붕 3가족인 셈이다. 인원은 최수호 부장을 포함 16명. 문화관광부와 학술 출판분야는 우장균 차장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이종수 차장과 김문경 기자가 맡고 있다. 의학 분야는 이승은 기자, 여성부와 공연 패션 분야는 김정희 기자, 영화 애니메이션은 이경아 기자, 미술 문화재는 김지영 기자, 대중문화는 한상옥 기자 담당이다. 과학 분야는 김진두 기자가, 기상 분야는 한민정 김지현 이상지 정혜윤 앵커가 담당하고 있다.

기상 그래픽 요원으로 박성균 방송위원(전 그래픽부장)이 근무하고 있다. 문화과학부는 개국 후 10년 동안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창사 때 '문화스포츠부'로 출발해 '문화부' '문화산업부'를 거쳐 현재의 '문화과학부'에 이르고 있다. 2000년 9월 1일 기구 개편 때 스포츠 분야가 따로 떨어져 나가 '스포츠부'로 독립했다. 2003년 1월30일 개편 때 경제2부가 담당하던 IT 건강 과학 기상 분야가 새로 흡수됐다.

「씨네24」 등 문화 특화뉴스도 제작

문화팀은 일일 뉴스 외에 특화뉴스를 제작한다. YTN 스페셜 「문화 마당」은 개국 때부터 제작한 25분짜리 프로그램으로 3년여 만인 1998년 4월 폐지됐다. 영화 전문 프로그램 「씨네 24」는 1997년 11월부터 방송하기 시작했고 IMF 당시 잠깐 폐지됐다가 재개된 뒤 현재는 외주제작으로 방송되고 있다. 2000년 3월부터 선을 보인 「문화 문화인」은 다양한 문화계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뤄 문화계의 호응을 얻었으나 2003년 3월 막을 내렸다.

첨단장비·아이디어로 새 포맷 개발

기상팀은 개국 당시 첨단 기상장비인 'Triton i7'을 도입해 차별화된 기상정보를 제공했다. 기상팀은 첨단장비 작동방법을 익히기 위해 개국 전인 1994년 12월 전원이 1주일 동안 미국 미네소타 본사에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기상팀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상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계속 넓혀 왔다. 「세계 날씨」 「생활 지수」 「영화속 날씨」 「날씨 퀴즈」 등 YTN 기상팀에 의해 처음 소개된 기상포맷은 수없이 많다. 2003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날씨 캐릭터 「날씨돌

이 클로피」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2004년 3월에는 「백지연의 뉴스Q」에 「날씨 편지」 코너를 신설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날씨 편지」는 날씨와 문학과 음악을 접목시킨 새로운 시도다.

과학 뉴스프로 최초 제작

과학분야는 그동안 YTN의 취재대상에서 소외돼 있었다. 1998년부터 고정적으로 과학기술부 출입기자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과학분야 취재를 담당한 기자는 박성호 김승환 김상우 이기정 김진두 이승은 김지영 한정호 기자였다. 현재는 김진두 기자가 7년째 맡고 있다.

YTN은 2001년 과기부 지원으로 「웰컴 사이언스」라는 과학뉴스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 방송했다. 2002년에는 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제작지원금 7억 원을 받아 본격적인 과학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게 됐다. 문화재단은 「과학 TV」 채널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 콘텐츠 확보를 위해 YTN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YTN에는 제작국이 새로 설립됐다.

2003년 「웰컴 사이언스」 제작 공로로 이기정 기자가 「과학문화 대상」을 받았다. 2004년에는 김진두 기자가 과학기자협회가 주는 「올해의 과학기자상」을 받았다.

생방송 많은 「날씨」 실수·사고 내기도

날씨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크고 작은 방송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생방송 중에 녹화 중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천연덕스럽게 다시 처음부터 방송한 경우도 있다. ‘경북’을 ‘경남’으로 말하거나 강우량을 ‘mm’가 아닌 ‘cm’라고 말하는 등 사소한 실수도 초기에는 많았다.

최근에는 이런 실수보다 생방송 도중 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소문 공원에서 기상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하다 노숙자들의 ‘공격’으로 2차례 낭패를 봤다. 한번은 생방송 중에 카메라를 고장냈고 또 한번은 노숙자가 다가오는 바람에 기상앵커가 도망 다니며 방송한 사례도 있다. 생방송 중에 조명이 터져 정혜윤 앵커의 깜짝 놀란 표정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기도 했다.

(한상옥·김진두 기자)



전용화

- ▲ 1964년 생
- ▲ 동아대 전자공학과 졸
- ▲ KBS 송출기술 담당(1987)
- ▲ YTN 기술총괄부(1994) 차

장대우(2001) 기술관리부차장(2001)
디지털기획부차장(2003)
▲ YTN 기술국 디지털기획부장(2004~)

10. 「스포츠부」 2000년 「문화 스포츠부」서 독립

YTN 스포츠부는 개국 당시 명칭이 ‘문화스포츠부’였다. 문화와 스포츠가 한 지붕 아래 동거했다. 2000년 9월 1일 기구개편으로 스포츠부로 분리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포츠부는 천상규 부장을 포함해 7명이 일하고 있다. 정종석 차장은 축구와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를, 김상익 기자 골프 야구, 최동호 기자 농구 축구, 서봉국 기자 야구 탁구 배드민턴, 이경재 기자 배구 축구 태권도, 김재형 기자는 야구 농구 복싱을 각각 맡고 있다.

10년 넘게 시청자 눈길 끈 「스포츠 뉴스」

문화스포츠부가 제작하는 「스포츠 뉴스」는 출범 초부터 독립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정도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스포츠 뉴스는 개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YTN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개국 초 제작은 스포츠팀이 하고 프로그램 진행은 기획제작총괄부가 맡았다. 이후 제작총괄부의 역할이 바뀌면서 스포츠 뉴스의 제작·진행이 스포츠팀으로 넘어왔다. 취재와 런다운 작성·진행까지 취재부서에서 모두 담당하게 되자 취재기자들의 업무량과 부담은 증가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간에 맞게 편집하는 등 부수적으로 제작역량을 키우는 효과도 있었다.

남대문으로 사옥을 옮긴 뒤에는 평일의 경우 스포츠부가 런다운을 작성해 주고 편집부가 진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앵커를 스포츠부가 맡고 있다.

중계권료 벽차 올림픽 방송에 제약

YTN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맞게 된 국제대회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이었다. 올림픽 스포츠 화면 확보와 취재를 위해 부담해야 할 중계권료가 YTN에는 벽찼다. 결국 정식 취재팀을 파견하지 못하고 지상파로부터 화면을 받아야만 했다.

2주 동안 매일 우리나라 팀의 경기화면만 지상파로부터 제한적으로 제공받아 올림픽 뉴스를 제작·방송할 수밖에 없었다. 자주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채널의 특성으로 YTN의 애틀랜타 올림픽 뉴스는 속보 처리·짜임새 면에서 지상파 뉴스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스포츠부는 취재여건을 개선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과중한 중계권료 등 현실은 냉혹했다. 취재기자 2명을 시드니에 파

견, 전화 연결 등으로 스포츠 뉴스를 제작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세 번째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mm 카메라와 온라인 화면편집 프로그램인 피나클, 화면전송 프로그램인 '알 FTP' 를 이용, 취재 편집 전송했다. 1분 30초 리포트를 송신하는 데 4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열악한 여건이었으나 올림픽 취재에서 드문 특종을 올리는 성과도 있었다. 최동호 기자가 장용 북한 IOC위원을 단독 인터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YTN 스포츠부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특집 프로그램도 제작했다. 2000년 4월에는 「세계의 용품 산업」(리포트 14개, 이양현 임종주 기자) 2001년에는 「일본, 월드컵 그 이후를 준비한다」(40분, 김상익 기자) 2004년에는 「아테네 올림픽 준비상황」(20분, 최동호 기자)이 해외 취재로 제작 방송됐다.

(김상익 기자)

11. 「기동취재팀」 탐사 보도 · 「돌발 영상」 큰 반향

기동취재팀은 2004년 봄 조직 개편에 의해 신설됐다. 그동안 탐사 보도와 특집 프로그램 제작, 「돌발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해 왔다. 2005년 4월 기구개편으로 탐사보도 기능이 사회부로 넘어가 기동취재팀 업무는 「돌발 영상」과 특집 제작으로 줄어들었다. 기동취재팀은 팀장과 5명의 기자, 2명의 AD로 구성돼 있다. 팀장인 문중선 부장 외에 임수근 차장과 김동민 이강문 기자가 특집을, 임장혁 장민수 기자와 정민희 박미란 AD가 「돌발 영상」을 각각 제작하고 있다.

기동취재팀은 창설이후 탐사보도와 돌발 영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탐사 보도의 대표 사례로 김 기자가 파헤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부실보도」를 들 수 있다. YTN의 위상을 높여준 두 번째 탐사보도 사례는 「국책사업 배수공사 부실보도」였다. 이 보도 역시 김 기자가 맡았다.

세 번째로 큰 반향을 일으킨 탐사보도는 「반도체 산업의 부실한 부품관리」 관련 보도였다.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에서 자행해 온 부실한 부품관리 실태를 국내와 해외 취재를 통해 연속 보도하고 이를 다시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영했다. 2004년 6월부터 11월까지 문중선 팀장과 김동민 박철원 기자가 공동 취재 보도했다.

「돌발 영상」은 형식상으로는 2~3분 길이의 보도 영상 구성물이지만 영상의 상징적 풍자적 활용을 통해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비정형 편집」(이른바 NG컷으로 분류되던 화면과 현장음을 편집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편집)을 방송



정명렬

- ▲ 1958년 생
- ▲ 송실대 전자공학과 졸업
- ▲ KBS 보도기술부(1985~1993)

▲ YTN 입사(1993) 기술관리부차장(2000) 디지털뉴스 파견(2001) 기술관리부장대우(2003)
▲ YTN 기술연구소 소장직대(2005~)

보도에 처음 적용, 방송 언론이 다룰 수 있는 사실보도의 영역을 확장했다.

(노종면 기자)

12. 「그래픽팀」 컬러·디자인의 ‘마술사들’

그래픽팀원은 모두 23명으로 이대승 부장이 팀장을 맡고 있다. 기상팀에서 일하는 전 그래픽팀장인 박성균 방송위원도 소속은 그래픽팀이다. 그래픽팀은 ‘3D(Dimension) 그래픽’ 과 ‘2D 그래픽’ ‘문자 그래픽’ 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다.

3D 그래픽 업무는 이준호 강덕천 사원 2명, 2D 그래픽 업무는 서영석 범희철 정지원 기내경 손영범 오재영 변재철 김윤희 최재용 유영준 김진호 서정호 사원 등 13명이 담당하고 있다. 문자 그래픽 담당은 손동열 배형민 민재영 노선숙 장신 김은주 김지애 등 7명이다.

그래픽팀이 운용하고 있는 장비는 3D 그래픽장비인 MAYA 2대, 2D 장비 HAL 2대, PaintBox 2대, 문자 그래픽장비 Compix와 MCU가 있다.

애니메이션·게임서 뛰어난 성능

YTN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차원 장비 HAL과 PaintBox는 영국 Quantel사 제품이다. HAL은 기본형과 V6형 각각 1대다. 이 장비는 각 프로그램의 타이틀 애니메이션과 리포트 중간에 삽입되는 노멀 그래픽 또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HAL V6는 애니메이션을 15분까지, 기본형은 5분까지 제작할 수 있다. PaintBox는 2대 모두 Bravo형으로 노멀 그래픽과 이펙트 제작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장비로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없다.

YTN이 운용하고 있는 3차원 그래픽 장비는 MAYA Unlimited 3.0 2대다. 이 장비는 그래픽팀과 기상팀이 각각 1대씩 사용하고 있다. MAYA는 Expolore, Wavefront, Alias 등 3개의 제품군을 통합한 차세대 3D Animation, Visual Effect Tool이다. 현재 할리우드의 우수 영상업체들이 메인 소프트웨어로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가 이 장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MAYA는 모델링, 애니메이션, 드로잉 작업이 하나의 작업 환경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MEL이라는 자체 언어를 가지고 있어 모델링, 애니메이션, 드로잉을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으므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 뛰어난 성능과 효과를 보여준다. 이 장비는 2000년 2월 구입했다. MAYA를 사용

해 각 프로그램의 타이틀 애니메이션과 SB, ID, 선거 개표방송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다. 이 장비는 2D와 함께 연동해 사용하거나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부조·주조 등에 설치 역동적 효과

Compix사의 GEN CG, Digital Fusion사의 Digital Cosmos, 문자그래픽 장비와 보도정보시스템을 연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인 LG CNS의 MCU가 있다. 국내업체인 Compix사의 GEN CG는 단순한 방식으로 한 화면에 그래픽 바가 하나씩만 순차적으로 표출되거나 플레이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장비는 2D 형식으로 제한적인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2003년 4월 구입해 같은 해 8월부터 자동화 사용(보도정보시스템과 MCU, Compix가 연동돼 가동되는 것)이 시작됐다. 1·2·3부조에 1대씩 3대와 그래픽팀에 1대 등 모두 4대가 설치돼 있다. 주조용 스크롤 장비로는 3대가 있는데 2대는 일반 스크롤용, 1대는 DMB 스크롤용이다.

또 다른 국내업체인 Digital Fusion사의 Digital Cosmos는 멀티 레이어 방식으로 키 프레임이 포함돼 있어 각각의 그래픽 바에 이펙트와 디스플레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일부 제한된 3D의 효과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3년 12월 구입해 2부조에 1대가 설치돼 있다. 이 장비를 이용해 2004년 3월부터 지금까지 「뉴스 Q」의 하단 무빙 로고와 역동적인 그래픽 바 등 기타 이펙트 효과를 표출해 내고 있다. 국내 지상파에서는 주로 Digital Cosmos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CNN이나 영국의 BBC등 세계 우수 방송사에서는 Cyron사의 DUET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LG CNS의 MCU(Machine Control Unit : 장비 제어장치)는 보도정보시스템에서 CG(Character Generator) 관련 데이터를 가져와 그것을 Compix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장비로 각 부조에 한 대씩 3대가 설치돼 있다.



정현교

- ▲ 1946년 생
- ▲ 건국대 축산학과 졸, 건국대대학원 석사
- ▲ KBS(1974) 춘천방송총국 차장

- ▲ YTN 네트워크부 강릉팀장(1995) 사회부 강릉팀장(부장,2000) 부국장(대우 강릉팀장(2001) 퇴사(2004)
- ▲ 계약직 근무(2004~)

숙원이던 제작실 새 사옥에서 확보

그래픽팀은 개국 전체인 1994년 1월 이준호 사원, 2월에는 서영석 사원을 포함한 경력 사원 2명과 1기 공채 사원 3명이 입사했다. 3월 그래픽팀이 보도국 뉴스총괄부 소속으로 정식 발족했다. 7월에는 기내경 사원을 포함 3명이 추가로 입사했다.

그해 11월 KBS 출신의 박성균 방송위원, 이대승 부장과 박성호 사원 (1998년 12월 퇴사)이 영입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과 2월 손영범 사원을 포함한 5명이 합류하면서 모두 17명으로 진용을 갖췄다. 방송이 제자리를 잡아가던 1996년 1월에는 최재용 사원을 포함 2명이 증원됐다.

IMF 사태가 발생한 1997년 전후 모두 6명의 동료가 회사를 떠나 그래픽 인력은 크게 줄었다. 2001년 3월에는 박성균 부장이 방송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대승 부장이 그래픽팀장으로 임명됐다. 2003년 뉴스편집부 소속이었던 그래픽팀이 보도국 직속으로 변경됐다. 그해 1월에는 7년 만에 유영준 사원과 김진호 사원이 새내기로 입사했다. 2월 뉴스편집부에 소속돼 있던 문자 발생팀이 그래픽 소속으로 재편입됐다. 2004년 2월에는 남대문 새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그래픽 제작실을 따로 확보하게 돼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 2005년 1월에는 강덕천 사원과 서정호 사원이 입사했다.

그래픽팀 업무는 일일업무와 제작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일일업무는 매시간 뉴스에 들어가는 어깨 결이(이펙트)와 노멀 그래픽(리포트와 출연용 PDP)을 제작하는 것이다. 제작업무에는 ID, SB의 제작, 특집 방송과 편성개편으로 신설되는 프로그램의 타이틀 제작이 있다.

평상시와 달리 일일업무와 제작업무가 동시에 가동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가 그래픽팀의 잠재된 능력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순간이다.

24시간뉴스 채널 YTN의 특성상 그래픽팀은 조를 나누어 시차근무와 통상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자들은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일일업무와 제작업무를 겸하고 있다.

이같은 근무제는 24시간 방송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화면의 일관성을 위해 전담 요원이 맡는 것이 필요하다. YTN의 인기 프로그램인 「돌발 영상」의 경우 전담 디자이너 없이 교대 근무자가 일일 업무 중에 그래픽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하겠다.

(최재용)

13. 「제작팀」 프로그램 인풋·아웃풋 통괄

YTN의 제작 프로그램은 뉴스만으로는 채우지 못한 빈 자리를 10년이 넘게 지

키며 성장해 왔다. 분업과 협업, 예술과 기능을 아울러야 하는 분야인 '제작'은 관심을 가질수록 인력과 자금 투입이 더욱 요구된다.

제작은 PD가 프로그램의 준비부터 결과까지, 즉 인풋과 아웃풋을 통괄하는 분야다.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으면 언제 '탈선' 할지 모른다. 신속하게 뜨거운 뉴스를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YTN에서 제작은 뉴스와 함께 뉴스의 보완자적 역할을 해내고 있다.

2원화 됐다 통합... 개명도 잦아

YTN은 처음 제작업무를 '기획제작부'와 '기동취재부' 두 부서에 할당했다. 기획제작부는 특화뉴스를 맡았다. 기동취재부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맡았다.

기획제작부가 담당하던 특화뉴스는 자칫 단편적으로 난사되기 쉬운 개별 아이들을 분야별로 묶어 갈무리하는 역할을 했다. 「정치 광장」 「문화 마당」이 그 예다. 특화뉴스는 매일 현장에서 기자들이 보내 온 단신과 리포트를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별로 섹션화한 것이다.

기동취재부가 맡은 토론 프로그램 「집중 조명」. 이 프로는 처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중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방송됐다. 1997년 7월부터는 일요일분만 폐지됐다.

「집중 조명」은 날마다 '따끈따끈' 한 사안을 토론과 대담 형식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YTN이 1995년 3월 1일 개국하면서 방영한 첫 「집중 조명」에서 가뭄을 주제로 다룬 이래 2002년 5월 30일 2000회를 돌파했다.

이듬해인 2003년 1월 30일 조직개편과 함께 이 장수 프로그램도 폐지되었지만 단편적 뉴스 보도에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에게 사안별로 심층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작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개국한 지 2년이 갓 넘은 1997년 4월 16일 기동취재부가 기획제작총괄부로 통합됐다. 이때부터 기획제작총괄부가 특화뉴스와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총괄했다.

기획제작총괄부는 이후 1998년 9월 기획제작팀으로, 1999년 8월 기획제작부로, 2000년 9월 다시 기획제작팀으로, 같은 해 11월 기획제작부로 바뀌는 등 '심심찮게' 개명됐다.



조봉환

▲ 1949년 생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 TBC 기자
(1977) KBS(1980) 사회부 정치부차장
▲ YTN(1994) 정치부장(1997) 신규사업단장(1998) 보도국장단부국장(1999) 타워사업국장(2000) 이사대우 마케팅국장(2002)
▲ YTN 이사대우 사사편찬위원(2005~)

2003년엔 「제작국」 승격… PD시스템 도입도

YTN의 제작부서는 2003년 초 승격한다. 2003년 1월 30일 개국 이래 처음으로 보도국에서 독립된 ‘제작국’이 신설된 것이다. 제작국에 제작1팀과 제작2팀이 꾸러졌다. 제작1팀은 대담 또는 토론 프로를, 제작2팀은 시사과학프로를 담당했다. 이때 태동한 프로그램이 제작1팀의 「백지연의 정보특종」 「생방송 박찬숙의 쟁점 토론」이다.

제작2팀은 「과학과 미래」를 제작했다. 이때부터 PD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제작시스템과 제작문화가 YTN에 흘러들었다.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제작비용과 스태프 채용 등 행정까지 총괄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PD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PD시스템은 PD가 대본과 구성을 전담하는 작가들과 호흡을 맞추고 AD와 FD가 곁에서 돕는다. PD가 프로그램 성격에 어울리는 리포터를 채용한다. 완성된 프로그램에는 성우의 내레이션이 흐르고 발랄한 리포터가 등장하며 때로 현란한 편집과 구성으로 꾸민 화면으로 시청자를 흡인한다. 가편집과 본편집, 종합편집 등 여러 절차를 거친다.

최종 책임자인 PD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대해 책임진다. 이렇게 PD와 ‘스태프’가 공동 창작하다시피 빚어낸 프로그램들이 YTN에 방영되는 시대가 왔다. YTN은 이런 시도를 통해 나름의 새로운 제작기술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작국이 보도국과 따로 운영되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제작·보도 호흡 맞추려 보도국 소속으로

‘태생적’으로 제작이 보도와 호흡을 잘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YTN에서는 제작국과 보도국의 분리 독립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힘을 얻었다. 결국 YTN은 2005년 4월 제작국을 폐지했다. 제작국 소속의 제작1팀과 제작2팀을 제작팀으로 통합하고 소속도 보도국으로 바꿨다. 기획제작총괄부 기동취재부 기획제작부로 여러 번 이름을 바꾸며 나름대로 정체성을 견지해 온 제작부서가 이제는 ‘제작팀’이라는 이름처럼 홀가분한 부서로 다시 태어났다.

조직개편에 따라 「생방송 김민전의 쟁점 토론」과 「언론과의 대화」가 폐지됐다. 대신 「박주현의 시사업클로스」가 신설됐다. 주로 녹화지만 때에 따라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방영된다. 레저와 문화를 아우르는

「라이프 n 조이」도 세련된 제작 노하우로 단골 시청자를 늘려 가는 제작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역사 속 오늘」은 개국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방송된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역시 제작팀에서 만들어낸다. 매일 새로 맞이하고 떠나보내는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역사 속 오늘」은 YTN이 확보한 근현대사의 영상자료를 활용, 5분 구성물로 만들어 낸다. 정보와 표기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국내외 백과사전과 사료를 철저히 비교하고 검토한다.

기동취재팀이 2004년 2월 조직개편 때 신설됐다. 1997년 사라진 기동취재부와는 성격이 판연히 다른 부서다. 전자는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제작부서였고 후자는 YTN 최초로 본격 탐사보도를 담당할 취재부서다. 따라서 2005년 현재 YTN의 제작부서는 ‘제작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YTN만의 색깔 밴 제작프로그램을

제작팀에는 29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작팀 업무는 황성수 보도국 제작부국장이 총괄하고 있다. 제작팀장은 윤두현 부장이 맡고 있다. 이기정 박상남 차장과 작가 황영옥과 정재기 AD 등 4명이 「박주현의 시사 업 클로즈」를, 최명신 기자와 김신명 PD, 작가 김지연 송현경, 최훈홍 김금숙 PD 등 6명이 「라이프 엔조이」를 각각 제작하고 있다. 「사이언스 플러스」는 이재철 차장, 한정호 기자, 김종필 민형준 박인식 배인수 지정윤 PD, 작가 김영민 김윤정 김지은 정윤정 진보라, 김남수 김영록 AD 등 14명이, 「역사 속 오늘」은 황보선 기자와 이선미 AD 2명이 맡고 있다.

YTN은 그간 스스로 제작기법을 개발하기도 했고 지상파의 것도 시험해 봤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보도국 소속이 된 ‘제작팀’은 YTN만의 색깔이 밴 제작 프로그램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배양했다.

(황보선 기자)

14. 영상 취재·특집·편집팀

2005년 4월 기구개편으로 영상취재부가 없어지고 다만 보도국 산하 부서로 영상취재팀 영상특집팀 영상편집팀 3개 팀만이 남아 있다. 이 3개 팀을 담당하는 영상담당 부국장이 새로 보도국에 신설됐다. 남상규 부국장대우가 맡고 있다.



영상 편집팀

영상취재·편집 부서의 인원은 총 71명으로 영상취재팀(팀장 조용원 부장) 44명 영상특집팀(팀장 김재동 부장) 6명 영상편집팀(팀장 조성용 부장대우) 21명이다. 이 밖에 사운드맨 28명 사무요원 1명 등 29명이 영상취재·편집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영상취재팀은 일상적으로 화면취재와 편집, 촬영화면의 자료정리 업무를 하고 부정기적으로 해외특집 취재에 나서기도 한다. 영상특집팀은 제작부에서 만드는 각종 특집취재와 해외방송팀, 방송심의팀의 프로그램 취재와 편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상편집팀은 뉴스에 방송되는 자료화면의 편집과 화면수신, 비선형편집, 영상자료실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영상취재팀의 경우 청와대 등 주요 출입처에 11명이 고정 투입되고 사회 8명, 경제·문화 11명, 스포츠 5명의 카메라 기자가 당일 뉴스를 커버하고 있다. 야간 근무는 4명이 맡고 있다. 사회 데스크는 김영욱 차장, 경제·문화데스크는 백선기 차장, 스포츠 데스크는 조항운 차장, 기자재와 오디오 담당 데스크는 김진석 차장이 맡고 있다.

청와대는 이철용 부장대우와 이동형 박진수 기자, 국회 이화용 이광래 차장과 김정환 박관우 기자, 정부중앙청사 홍문표 부장대우, 정부과천청사 정희인 기자,

서울시청 윤성수 차장, 검찰청사 강재환 기자, 수원지사는 김태운 기자가 고정 배치돼 있다.

원 맨 시스템 첫 도입 · 붐 마이크 첫 사용

‘영상취재부’ 연혁은 다음과 같이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국을 위한 준비 (1993년~1995.3월)

이 기간 영상취재부는 개국을 대비해 카메라기자 인력 확보와 훈련, 영상자료 확보로 바빴다.

영상취재부 조직구성의 중심 역할은 KBS카메라기자 출신 황성규 부장이 맡았다. 황 부장은 1994년 12월 지상파 경력 카메라기자들과 공채1기 (1994년 2월 입사), 공채 2기(1994년 9월 입사) 신입사원 53명으로 영상취재부를 구성했다.

공채 1기 신입사원들에 대한 촬영교육은 ENG카메라 도입이 늦어져 파나소닉사의 8mm캠코더인 AG-3를 활용했다. 본격적인 방송용 ENG카메라 실습은 1994년 9월 카메라가 들어옴으로써 시작됐다. YTN이 도입한 모델명은 소니사의 BVW400A 카메라로 당시에는 KBS 청와대 출입기자만 사용하던 최신형이다.

▲개국부터 IMF까지 (1995.3~1997.11)

개국 초기 YTN 영상취재부의 가장 큰 특징은 원맨 시스템과 중계업무 겸업이다. 원맨 시스템은 국내에서 YTN이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오디오맨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기자는 혼자서 촬영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들고 다녀야 했다. 1인 2역을 한 것이다.

카메라기자는 현장중계가 있을 때는 중계카메라까지 잡아야 했다. 1인 3역, 말 그대로 Multi-function을 수행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문 사운드맨을 운용한 것도 이 시기였다.

YTN이 우리나라 어느 뉴스현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붐 마이크를 처음 사용한 것이다. 붐 마이크를 이용한 오디오 픽업은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전문 사운드맨에 의한 붐 마이크 픽업은 당시 검찰의 5·6공화국 전직대통령 비리 조사 때 ‘혁명한 전과’를 올렸다. 노태우 전대통령 검찰소환과 전두환 전대통령 골목회견에서 YTN은 잡음 없이 생생한 오디오를 방송해 타 방송사를 압도했다.



조용원

- ▲ 1960년 생
- ▲ 중앙대 사진학과 졸
- ▲ 동아일보 사진부(1986) KBS 카메라취재부 (1987)

- ▲ YTN(1994) 영상취재부차장대우 (1998) 영상취재부차장(1999)
- ▲ YTN 보도국 영상취재팀장(2004~)

1997년 11월 21일 IMF사태 이후 영상취재부에도 먹구름이 몰려왔다. 여러 달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편집을 담당했던 계약직 직원들이 거의 회사를 떠났다. 그 빈자리를 촬영기자들이 아직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IMF 사태」 이후 (1998~2004. 2)

이 시기에 영상취재부의 조직도 변화를 겪게 된다. 1999년 8월 3일 그동안 맡아 오던 중계업무가 기술국으로 넘어갔다. 조직의 원활한 운용과 뉴스품질 향상을 위해 영상담당부국장이 신설됐다. 당시 부장이던 이한상 부장이 초대 영상담당부국장이 됐고 영상취재부장은 임찬식이 맡았다.

그동안 팀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운용되던 영상취재부가 2000년 9월 1일 영상취재팀과 영상편집팀으로 분리됐다. 2003년 1월 30일 두 팀이 합쳐져 다시 영상취재부로 환원되고 특집영상팀이 신설됐다.

▲남대문사옥 시대 (2004.3~현재)

남대문 사옥으로 이전한 뒤 영상취재부는 2004년 11월 1일 부가 없어지고 3개 팀으로 재편됐다.

사옥 이전으로 부서내 공간도 재배치됐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취재팀과 영상편집팀이 18층과 19층에 각각 자리 잡았다.

영상취재팀에도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사운드맨이 충원되고 좁지만 카메라기자들이 모두 자기 자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카메라 기자들은 사무실 공간배치에서 항상 후순위였다. 카메라기자들은 사옥이전으로 그동안의 작은 꿈(?)을 이루어냈다.

영상으로 본 10년 … YTN성장 ‘화면 역사’

최근 뉴스시장의 주도권은 독자에서 시청자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영상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뉴스전문채널 YTN의 10년 역사는 YTN 영향력 확장의 역사다. 지난 10년간 영상취재부는 YTN의 발전을 위해 영상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 다음 기록은 활동과 특종, 낙종의 얘기들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취재 (1995년)

1995년 6월 29일, 개국 후 터진 첫 대형사고였다. 회사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많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집념으로 YTN맨들은 푹푹 뭉쳤다. 특히 촬영기자들은 YTN로고가 선명하게 들어간 ENG카메라를 들고 중형무진 뛰었다. 이 때문에 당시 신생매체인 YTN을 알리는 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때는 촬영기자들이 중계까지 '겸업' 했다.

계속되는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 가며 현장을 지켜야 했다. 2박3일 교대도 없이 꼬박 밤을 새우기도 했다. ENG카메라로 촬영하다 내려 놓고 중계카메라를 돌려메고 다시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이 수없이 반복됐다.

고생 속에 값진 성과도 거뒀다. 한 카메라기자의 끈질긴 취재 정신이 꺼져 가던 한 교사의 생명을 구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취재를 통해 YTN의 인지도는 개국 후 불과 4개월 만에 크게 높아졌다. 그 뒤에는 더 좋은 영상을 더 빨리 보도하려는 YTN 카메라기자들의 땀이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사과 육성 녹취 (1995년)

1995년 11월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노태우 전대통령이 검찰청으로 소환될 당시 삼엄한 경비와 함께 포토라인이 쳐져 여느 때처럼 근접취재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전 언론사의 사진세례와 방송카메라가 불을 뿜는 가운데 검찰청사로 걸어 들어가던 노 전대통령이 갑자기 정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노 전대통령의 사과 욕성은 현재와 같은 근접촬영이 가능한 상황에선 녹취가 가능하지만 당시 포토라인이 철거했던 상황에선 불가능했다. 방송사 중 YTN만이 유일하게 노 전대통령의 욕성을 생생하게 녹취하는 쾌거를 올렸다. 우리만 갖고 있던 무기 붐 마이크가 한몫을 한 것이다.

▲한총련 시위진압 단독 촬영 (1996년)

1995년, 각종 시위가 다발하던 때였다. 갓 개국한 YTN의 영상취재부 촬영기자들은 시위현장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지 않고 현장을 뛰었다. 헬멧 방독면 대신 코와 눈은 주방용 랩으로 칭칭 감았다. 오디오맨도 없이 단신으로 최루탄과 돌맹이가 날아다니는 시위현장을 뛰어다녔다.

1996년 당시 한총련 학생 150명이 연세대 학생회관 건물을 점거하며 경찰과 맞서고 있었다. 드디어 진압작전이 벌어졌다. 옥상으로 올라간 학생들은 돌을 던지며 강력히 저항했다. 한 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최영욱 기자의 카메라 렌즈가 박살 났다. 최 기자는 진압대와 함께 취재 중이었다.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었다.

최 기자는 회사에서 카메라를 바꿔 들고 경찰 선발대와 같이 옥상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옥상에서 저항 중이던 학생들을 진압하는 장면과 가까이 오면 떨어져 죽겠다고 난간에서 저항하는 학생의 모습 등 현장을 화면에 담아 최 기자는 특종했다.

▲경찰병원 전두환 전대통령 병실 단독 잠입 (1996년)

1996년 3월2일 서울 경찰병원 7층 7102호 병실. 이곳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4일간 건강을 추스르던 장소다. '12·12 및 5·18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수감된 전 대통령은 교도소 내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이 병원에 옮겨져 건강을 회복 중이었다.

그동안 이곳은 언론사의 뜨거운 취재 대상이었다. 신문에 잠시 창밖을 내다보는 전 대통령의 사진이 실리기는 했으나 방송화면에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3월 2일 전 대통령이 다시 안양교도소로 돌아가던 날 장명호 기자에게 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지내고 있던 병실 내부를 찍어 오라는 영상 데스크의 취재명령이 떨어졌다. 전 전대통령이 떠난 병실은 이미 경찰병원 측에서 문을 잠그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은 상태였다.

어떻게 하면 전 전대통령의 병실을 찍을까? 장 기자는 고민했다. 7층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같이 취재 나간 박관우 기자와 경찰병원 근처 철물점에 들러 굵은 밧줄을 샀다. 옥상으로 올라가 밧줄 걸어 내려갈 수 있게 매듭을 지은 밧줄을 내려 전 전대통령의 병실에 ‘침투’ 하는 데 성공했다. 옥상에 있던 박관우 기자의 도움으로 밧줄에 묶인 카메라도 내려 받았다.

조금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병실에 들어가니 병실 안은 전 전대통령의 체온이 아직 식지 않은 상태였다. 전 전대통령이 막 벗어 놓은 환자복, 슬리퍼, 작동중인 기습기 등등. 이것 저것 두루 촬영하고 다시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해 보았다. 하지만 내려오긴 했어도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고 위험도 컸다.

한참 고민하다 병실 문으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찍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흔적들을 치워 놓았다. 다른 기자들의 뒤늦은 취재를 좀 훼방 놓은 것이다. 이미 밖에서는 신문 사진기자들이 웅성대며 문 열어 달라고 난리였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장 기자는 병실 문을 열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내달렸다. 후 경찰병원 측에서 화면을 뺏으려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생생한 화면은 YTN을 통해 방송이 나갔다. 타사는 애를 먹었다는 후문도 들렸다.

정신없이 병실을 나오느라 NP배터리 1개를 두고 왔다. 1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 관계자가 당신 때문에 많이 혼났다고 하면서 배터리를 내주었다.

▲조계사 사다리 붕괴사고 단독 촬영 (1998년)

1998년 12월 23일 새벽 서울 조계사 본사에서 농성중인 승려와 신도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총무원 건물에 투입됐다. 사다리로 조계사 총무원 건물을 오르던 경찰들이 갑자기 사다리가 휘어지면서 추락했다. 이 순간을 김태형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다. 이 화면은 국내는 물론 CNN을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타사에 위협적으로 보인 ‘슈퍼 맨’

“YTN이 뭐예요?” 초기에 취재현장에서 무수히 받았던 질문이다. 취재보다는



주동원

- ▲ 1954년 생
- ▲ 경희대 법학과 졸
- ▲ TBC 사회부(1978) KBS (1980) 차장대우(1991) SBS

문화과학부장직무대행(1994)

- ▲ YTN 경제부장(1995) 문화스포츠부장 기획제작팀장 뉴스총괄부장(1999) 미디어본부 부국장(2000) 데이터정보실장(2001)

- ▲ YTN 보도국 대기자(2004~)

답변하느라 더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런 시절 YTN이 새로 생긴 편의점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24시간 어찌고… YTN” 하니까 아마도 편의점 ‘LG 24시’ 같은 것으로 연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딜 가도 튀는 놈들.” 초기 타사 카메라기자들이 YTN 영상취재부 기자를 두고 한 말이다. YTN 영상취재부기자들이 하도 ‘극성맞아’ 붙여준 훈장이다.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YTN 기자를 만만하게 보지 않은 것만은 분명했다.

초기 YTN 영상취재기자들은 슈퍼맨처럼 혼자서 장비를 들쳐 메고 등에 번쩍서에 번쩍 모두 흥길동이었다. 타사에선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캠코더 때문에 사이비 기자로 몰리기도

YTN 영상취재기자가 ‘사이비기자’로 몰려 봉변을 당한 사례도 있다. 방송용인 ENG 카메라가 도입되기 전 수습기자들은 8mm카메라를 들고 촬영연습을 했다.

개국 전 노원구 상계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작업이 한창일 때였다.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던 카메라기자가 조폭들에게 붙잡혔다. 조폭들은 ‘사이비기자’라며 폭행했다. YTN기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먹히지 않았다. 이때는 아직 YTN이 개국하기 전이었고 조그만 캠코더를 든 자신을 YTN 기자라고 했으니 조폭들이 믿을 리 없었다.

취재중 발목 다쳐 “현장 다 못 찍었다” 자책

성수대교 붕괴를 취재하면서 발목을 다쳐 결국은 회사를 떠난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성수대교가 출근길에 무너졌다. 이때 현장취재를 지시받은 사람은 MBC에서 경력기자로 온 홍종석 기자였다. 홍 기자는 부지런하고 사명감이 투철했다.

현장에 도착한 홍 기자는 먼저 다리 위에서 아래의 상황을 촬영한 뒤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 급히 강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착지를 잘못해 그만 발목이 심하게 접질렸다. 이로 인해 홍 기자는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말았다. 물론 현장화면 자료는 확보했지만 홍 기자는 이 일로 자책감을 느껴 고민하다 석 달여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삼풍’ 초기화면 ‘실종’ 만 안됐다면…

또 하나의 아쉬운 사례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발생했다. 사고 초기 찍은 생생한 화면 테이프가 방송도 나가기 전 분실된 것이다.

1995년 6월 29일 조용원 기자와 원종호 기자는 강남에서 따로 취재 중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다는 회사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타 언론사보다 앞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두 기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정신없이 아수라장이 된 붕괴사고 현장을 카메라에 담다 마주쳤다.

조 기자는 우선 원 기자가 촬영한 2~3분 분량의 화면을 퀵 서비스를 통해 회사로 보내게 했다. 이 테이프에는 다친 생존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취재돼 있었다. 응급조치를 취하고 조 기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직 타 방송사 카메라 기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 기자는 화면 특종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며 부감 샷을 찍기 위해 근처 삼풍아파트 옥상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이 테이프는 방송에 나가지 못했다. 중간에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이다. 테이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퀵 서비스는 테이프를 보도국에 넘겼다고 말하고 보도국에는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두 기자는 결국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화면 특종기회를 놓쳤다.

불운은 계속 이어졌다. 두 번째 테이프도 수송과정에서 간발의 차이로 KBS에 뒤지는 바람에 마지막 특종기회마저 사라진 것이다. 두 번째 테이프 수송에 아쉬움이 있었다. YTN 운전기사가 조금 모험적으로 운전했다라면 분명 KBS보다 빨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KBS 운전기사는 신호등도 무시하고 인도로까지 달리면서 테이프를 수송, YTN보다 조금 빨리 방송에 나가게 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조용원 영상취재팀장)

기술국 (4부:방송기술국→기술본부→기술국)

기술국 소속 사원은 110명이다. 국 단위 인원 규모로는 보도국 다음으로 많다. 기술국(국장 박찬중)은 기술관리부 8명 디지털기획부 10명 제작기술부 66명 중



기술관리부 이계성 부장(앞은 줄 가운데)과
부원들

계부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박정한 방송위원이 기술국에 소속돼 있다. 개국 초에는 '방송기술국'으로 출범했다. 1999년 8월 '기술본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1년 10월 '기술국'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별도 조직으로 2005년 4월 설립된 '기술연구소'가 있다.

1. 「기술관리부」 3400여점 방송장비 유지 보수

기술관리부(부장 이계성)의 업무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방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주 중계 취재 편집 지국시설 위성수신 장비 등 3400여 점의 방송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일.

둘째, 방송의 기초시설인 전기, 공조, 공시청 업무. 방송국의 필수시설로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정전 예방장치인 UPS(무정전 전원장치)의 관리, 각 조정실과 스튜디오의 온도·공기순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 YTN 사옥의 각 부서에서 방송진행 상황과 위성방송을 모니터할 수 있는 공시청 시설을 관리한다.

셋째, 기술국의 행정업무와 무선국업무 관장. 기술국내 서무업무, 각 Site와 중계차에서 운용중인 11곳의 무선국(고정국 3 이동중계국 1 육상이동국 6 이동국 1) 시설에 대한 검사·허가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넷째, 방송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각 출동해 대응 조치를 취하는 역할.

디지털기획부 전용화 부장(앞줄 가운데)과
부원들



이른바 기술국의 '5분 대기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디지털 기획부」 핵심장비 보도정보시스템 운용

디지털기획부(부장 전용화)는 2003년 1월 데이터정보실 전산부문과 기술국 디지털 기획업무를 통합해 신설됐다.

디지털기획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YTN의 핵심 장비인 보도정보시스템을 운용 유지하는 일이다. 기사작성, 승인, 기사검색, 런다운작성, MCS(방송장비제어)가 항상 가능하도록 보도정보시스템과 프롬프터, 방송용 전산장비 작동상태를 24시간 살피고 있다.

디지털기획부는 또 인터넷과의 연결통로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도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안조치와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장비운용 등 네트워크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또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를 앞두고 회사의 방송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방송·정보기술의 통합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방송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NLE(비선형편집기), 아카이브 시스템, DAM(디지털 자산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종합 디지털 방송시스템(Total Digital

Broadcasting System) 구축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과 정보기술을 방송과 융합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전송 시스템'과 '화상전화기를 이용한 생방송 참여'가 있다. 특파원과 해외 통신원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 현재 방송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보교류의 장인 '메일센터 관리업무', PC·노트북과 프린터를 포함한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업무', 승인된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해 디지털YTN으로 기사를 전송하는 '기사전송서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제작기술부」 모든 프로그램 제작·송출

제작기술부(부장 박중훈)는 생방송과 녹화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처음 명칭은 '제작기술 총괄부'였다. 1999년 8월 '제작기술부'로 이름이 바뀐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작기술부의 주요업무는 YTN에서 생산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일이다. 제작기술부는 이 때문에 단일부서로는 사내 최다인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생방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1, 2부조와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3부조에서 근무한다.

1부조는 주로 「정시 뉴스」와 「날씨」 등 생방송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곳으로 YTN의 메인 부조다. 언제라도 방송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2부조는 「뉴스 퍼레이드」 「뉴스 Q」 등 특화뉴스와 토론 프로그램, 대형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고 있다.

3부조는 녹화제작을 하는 부조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세계인」 「위성통역실」 「사이언스 플러스」가 있다.

주조는 24시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곳으로 YTN의 '뇌'와 같은 곳이다. 편성표에 따라 24시간 운행되지만 YTN 특성상 특보체제나 생방송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신호분배실은 YTN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위성 등 각종 Source의 입·출력을 담당하고 있다. YTN 프로그램 공급이 기존의 케이블을 통해서뿐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어 신호분배실 역할은 커지고 있다.

스튜디오 카메라 업무도 제작기술부가 맡고 있다.

4. 「중계부」 뉴스의 현장성 뒷받침

중계부(부장 박종찬)는 본사의 중계차 7대를 운용하는 부서다. 사건 사고와 행사 중계, 각종 이벤트를 녹화·중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중계부는 '네트워크 기술부' 라는 명칭으로 출범했다. 1995년 개국 1주 앞둔 2월 20일 1차 발주분인 중계차 5대가 들어왔다. 당시 네트워크 기술부원들은 중계차 도입 10여일 만에 개국방송에 투입됐다. 3월 1일 개국방송에서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SNG를 사용해 보신각 타종 중계행사를 성공적으로 송출했다. 1999년 8월 기구개편에서 중계부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계차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원들이 각 지국망과 위성망 구축 작업을 했다. 또 수도권지역의 M/W(무선중계망)를 구축하고 케이블방송의 현장 광중계망인 인젝션 포인트망 (IJP, Injection Point)을 확보하기 위해 뛰었다.

YTN 뉴스의 현장성은 중계차의 활약으로 뒷받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6·29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회 대정부질문답변 생중계」 등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YTN 뉴스 뒤에는 중계차와 중계부원들이 있었다.

개국 초기 SNG를 이용한 중계활동이 활발했다. YTN은 전용 SNG 2대를 확보해 북한 신포 경수로 공사(KEDO) 착공식, 울릉도 제주도 강릉 등지에서 생방송을 시도해 지상파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계성 부장)

미디어국 (시청자 확대·수익사업 추진)

미디어국(국장 김관상)은 YTN 시청자 확대와 국내외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매체관리팀 5명 문화사업팀 7명 해외사업팀 4명 등 3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미디어국은 YTN 태동기부터 있던 부서가 아니라 중도에 일부 부서를 통폐합해 만들어진 부서다. 다른 부서에 비해 역사가 짧고 상대적으로 조직 변화가 많았다.

미디어국의 전신은 '사업본부'다. 사업본부는 1999년 8월3일 사업1부(영상제작·영상사업)와 사업2부(인터넷 사업 등)로 출발했다. 2000년 9월 IMF 이후



「몽골 역사 문화체험」 : 미디어국이 주관한 「몽골 역사 문화체험」(2004.6.24~8.31, 4박 6일 일정)에서 마련한 초원 생활

기존 사업본부와 기획조정실 시청자부의 SO업무를 통합해 '미디어본부'가 신설됐다. 초대 본부장은 표철수 국장이 맡았다. 2001년 11월 미디어본부에서 '미디어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미디어본부장·미디어국장은 초대 표철수 국장에 이어 주동원 강갑출 전무복 고광남 이한상 박득송 국장이었다.

1. 「매체관리팀」 국내외 매체에 YTN 제작상품 판매

매체관리팀은 2003년 1월 교민방송 업무와 영상자료 판매, ARS사업을 담당하던 뉴미디어팀과 SO·이벤트 사업을 담당하던 방송사업팀의 업무가 통합돼 만들어진 부서다. 팀장에 김천석 차장, 팀원으로 최성호 차장대우, 백상기 인호연 백승하 사원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체관리팀은 YTN이 제작·방송하는 뉴스상품을 국내외 각 매체에 판매하고 있다. 매체관리팀은 이 밖에도 케이블TV협회와의 업무 협조,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동향분석, 뉴미디어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IP-TV, WiBro 등 신규 플랫폼 사업에 YTN 콘텐츠 판매 업무도 맡고 있다.

2. 「문화사업팀」 이벤트·공연 등 수익사업 다양

문화사업팀은 2001년 10월 미디어국 방송사업팀에서 사업부문이 분리돼 만들

어진 부서다. 현재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이벤트, 공연사업, 프로그램 판매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 사업권을 따내는 것을 비롯, 뮤지컬과 오페라 공동주최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업무를 맡고 있다. 백동범 팀장(부국장 대우)과 함께 이병균 부장, 한상규 차장, 이동렬 박기용 하정환 홍혜주 사원 등 6명이 뛰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2005년 7월 7일 여성부 창설 10주년 기념행사의 이벤트 사업권을 입찰로 따냈다. 문화사업팀은 국내외 방송사에 YTN뉴스와 화면을 판매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 YTN 뉴스를 공급받아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방송사는 아리랑TV와 EBS 2곳이다. YTN 화면을 구매하고 있는 외국방송사는 미국 CNN과 NBC, 일본 NHK·TBS 등 12개사에 이른다.

3. 「해외사업팀」 중국 사업·해외동포 방송 등 관리

해외사업팀은 2003년 전략기획국에서 중장기 회사발전계획 일환으로 탄생한 중국사업팀이 모태다. 2004년 2월 해외업무가 통합되면서 해외 전재료 협약과 콘텐츠 해외유통업무가 추가됐다. 기존 중국 관련 연예 매니지먼트, 베이징 올림픽 티켓 사업 외에 콘텐츠 판매 유통, CNN 로이터 APTN 등 해외 외신사 전재료 계약 업무를 맡고 있다.

2005년 4월 매체관리팀에서 담당하던 해외동포 방송사 계약·관리업무를 이관 받았다. 팀장에 윤종수 차장, 팀원으로 이종국 기자, 김익현 이월연 사원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진상욱

- ▲ 1953년 생
- ▲ 서울대 불문학과 졸, 서울대 대학원 석사
- ▲ KBS(1981) SBS(1991)
- ▲ YTN 뉴스총

괄부장대우(1994) 네트워크부장(1999) 뉴스편집부장 보도국부국장(2003) 편성심의실장 기획조정실장(2005)
▲ YTN 기획조정실장 겸 YTN DMB 이사(2005~)

“24번 YTN, 잘 보고 있습니다”

매체관리팀의 주 업무는 SO관련 업무다. SO가 전국에 119곳이나 되니 담당자들은 1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은 전국 SO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출장업무’를 하고 있다. 출장 때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기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YTN 매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지할 때가 많다.

개국 후 몇 년간은 YTN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YTN에서 출장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택시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아! 24번 YTN,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화답한다. YTN이 전국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한 발짝 한

발작 국민채널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을 출장 때마다 실감한다.

스태프 없어져 진땀... 임진각 제야행사

그동안 여러 행사를 치러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4년 제야 행사다. 한해의 마지막 날이 우리 팀에는 가장 분주한 하루였다. 도라산 역과 임진각 두 곳에서 시차를 두고 동시에 행사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 팀은 양쪽 장소를 오가며 행사 준비에 숨 고를 틈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도라산 역은 지역 특성상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아야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다. 인원수가 맞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 초청인원이 2000명 넘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 못한 데서 발생했다.

도라산 행사를 순조롭게 치르고 임진각 행사장으로 이동하려는데 음향담당 스태프 한 명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 많은 초청인원도 숫자가 맞는데 40명도 안 되는 스태프의 숫자가 안 맞다니... 임진각의 행사시각은 다가오는데 사라진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없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스태프 한 명은 통일열차로 이동, 임진각 행사장에 가 음향장비를 점검 중이었다.

문제는 이 스태프가 경비초소를 빠져나가면서 맡겼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발생했다. 경비초소에 보관 중인 스태프 주민증 숫자가 하나 더 많아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SARS 덕'에 순조... 베이징 협상

가화그룹과 첫 접촉을 위해 베이징에 발을 내디딘 2003년 5월은 사스(SARS) 공포 때문에 외국인들이 앞 다퉈 중국을 떠나던 때였다. 출국 직전까지 가족의 만류가 끈덕지게 뒤따랐을 정도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보니 한기가 감돌 정도로 쌀렁했다. YTN 일행을 맞이하는 가화그룹 관계자들은 우리의 '호기'에 놀라워했다. 목숨 걸고 찾아왔다는 강한 인상 덕분에서인지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짬을 내 찾은 자금성은 주고받는 말소리가 성안에 메아리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전례 없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이었다. 베이징은 13억 인구의 수도답지 않게 너무 한산했다. 무형의 공포감이 짓누르는 도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

심히 손을 씻는 것밖에 없었다.

(김천석 차장)

마케팅국 (2005년 1월 시급 조정... SA급 8시간)

마케팅국의 기원은 1994년 6월 1일 연합통신 안에 신설된 '광고사업국 TV광고부'다. 연합통신은 케이블TV방송 뉴스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뒤 YTN광고 업무를 대행할 조직을 마련했다. 같은 해 9월 1일 첫 인사로 이병균 차장을 임명했다. 9월 20일자 신문에 광고 경력·간부사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모집직종은 TV광고영업 TV광고유행 광고신탁 3개 분야였다. 모두 121명이 지원해 11월 1일 최종합격자로 심창래 김윤섭 김천석 안재열 등 16명이 선발됐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이훈표 부국장겸 TV광고부장과 심재영 차장대우 2명이 간부사원으로 특별 채용됐다.

1994년 12월 1일 YTN 광고판매 기초단가와 프로그램별 시급산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때 산정된 광고 30초당 판매기준가는 108만6080원, 프로그램별 광고판매 시급은 SA-3시간 A-6시간 B-10시간 C-5시간으로 책정됐다.

개국 방송 광고신탁액 1억7천만 원

YTN 개국을 앞두고 1995년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애드케이 등 11개 광고대행사를 순회하며 매체설명회를 열었다. 2월 20일 개국방송 청약광고주로 현대전자 등 10개사에 신탁총액은 1억6898만 원에 이르렀다. 1995년 신탁총액은 102억9452만 원을 기록했다. 개국 원년의 YTN 10대 광고주는 삼성전자(주)대우 우리자동차 대우전자 조선맥주 LG반도체 LG그룹(주)우방 현대전자(주)쌍방울이었다. 1995년 10월 15일 삼성전자와 YTN 시보광고를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월정액은 3000만 원(연 3억6000만 원)이었다.

1997년 4월 16일 YTN·연합통신 양사 관계 정리에 따라 광고사업권이 연합통신에서 YTN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YTN 기획조정실 산하에 '광고부'가 신설되고 연합통신 TV 광고부 직원이 YTN 광고부로 편입됐다.

2003년 10월 제2차로 광고 시급이 조정됐다. SA급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자녀와 함께 YTN견학 : 「자녀와 함께하는 YTN 견학」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스튜디오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2004.11.13, 마케팅국 주관)

A급이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됐다. 2003년 10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광고대행사와 주요 광고주를 초청해 YTN 매체설명회를 열었다.

2004년 1월 제3차로 광고시급이 조정됐다. SA급은 1시간 더 늘어 5시간으로 확대되고, A급과 C급은 각각 1시간씩 줄었다. 2005년 1월 제4차로 광고 시급이 조정됐다. SA급이 3시간 확대돼 8시간으로 늘어났다. 광고단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마케팅국장은 정형래 공성만 조봉환 박감묵 김관상 국장이 차례로 맡아왔다.

1. 「마케팅 1·2부」 일반기업·공기업·지자체 등 담당

2005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영업 3개부서를 2개로 축소 조정하고 담당 광고 주도 일부 재배정했다. 마케팅1부가 맡고 있는 주요 광고주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SK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경기도청 에너지관리공단 KT&G 한국전력 등이다. 마케팅2부는 삼성그룹 LG그룹 GS그룹 포스코 KT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마사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맡고 있다.

2. 「마케팅 기획부」 영업기획 필요성 커져 신설

마케팅기획부는 2005년 4월 8일 기구개편으로 신설됐다. YTN 시청층 확대 등 광고환경 변화로 광고영업기획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배경이다. 마케팅기획부는 기획업무 외에 영업목표관리, 광고운행과 편집, 광고료 수금과 신탁관리 업

무, TV- CF, ID 광고 제작 등 영상제작 업무를 맡고 있다.

(설명수 차장)

기획조정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주요사업 추진)

기획조정실은 2005년 4월 4일 기구개편을 통해 탄생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기획팀 방송심의팀 홍보팀이 있다.

기획조정실이 새로 설립된 것은 전략기획국의 발전적 해체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전략기획국은 백인호 사장 때인 2002년 10월 1일 회사의 발전전략을 창출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탄생한 기구다. 처음에는 ‘전략기획팀’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국으로 승격됐다.

YTN의 중장기발전전략을 세우고 사옥이전 · 지상파 DMB 추진 · YTN미디어 인수 · YTN서울타워 리모델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따라 YTN에는 자본금 190억 원, 300억 원의 자회사가 잇따라 생겼고 이들 자회사를 통합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기획조정실 업무중의 하나가 자회사 · 관계회사 관리다.

1. 「기획팀」 미디어 그룹 비전 · 현안 대응책 마련

YTN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획업무의 시작은 2001년 10월 18일 신설된 ‘정책기획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기획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다. 당시 정책기획팀에는 회사의 정책을 기획 조정 수립하는 기획담당과 대내외 홍보 업무를 맡는 홍보담당을 뒀다. 이 정책기획팀이 노사합의 기구인 ‘전략기획팀’으로 확대됐고 ‘기획팀’으로 진화했다.

기획팀의 인원은 한영규 팀장과 유환홍 기자 2명이다. 기획팀의 업무는 방송 미디어 시장의 환경 변화에 관한 분석과 전략적인 업무 추진, 중장기적인 회사 발전전략 마련, 자회사 정책 등 광범위하다. 또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YTN의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미디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YTN이

뉴스 중심의 종합 미디어그룹(One Source Multi Use)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과 실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 「방송심의팀」 심의 통해 방송품질 높여

방송심의팀은 심의를 통해 방송품질을 높이는 것이 주된 업무다. 또 시청자위원회 운용과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제작 업무도 맡고 있다.

방송심의팀은 팀장에 강홍식 부장, 팀원으로 홍성보 차장, 이영미 사원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송심의팀의 기원은 '방송정책팀'에서 시작된다. 2000년 방송법 제정으로 보도전문 채널인 YTN도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해야만 했다. 이 업무를 수행할 부서로 방송정책팀이 설치된 것이다. 이재희 부국장이 처음 방송정책팀장에 임명됐다. 방송정책팀은 심의와 시청자위원회 운용, 시청자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맡았다. 당시 임수근 기자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인 「시청자의 눈」을 제작했다. 또 개국 후 심의기능이 없던 YTN에 처음으로 심의 담당 방송위원으로 강갑출 부장, 주동원 부장, 노복미 차장 등 3명이 임명됐다.

시청자위원회 운용 · 「시청자의 눈」 제작

시청자위원회는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매달 한차례 회의를 열어 방송편성과 뉴스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시청자의 눈」 프로그램은 2000년 10월 첫 방송을 내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30분짜리 제작물로 매주 일요일 두 차례 방송되고 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를 대표해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소속의 시청자 평가원이 YTN 방송을 비평하는 '시청자 뉴스진단'과 YTN의 제작현장을 소개하는 '뉴스 현장', 언론학 교수들이 우리 언론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언론비평' 등 세 개의 코너로 구성돼 있다.

시청률 조사업무도 방송심의팀 몫이다. TV시청률 전문 조사기관인 TNS와 계약해 매일 매일 시청률 조사결과를 받아 YTN 메일 센터에 공지하고 있다.

3. 「홍보팀」 사보 제작 · 신문사와 교환 광고

홍보팀은 처음에 정책기획팀 산하 '홍보부'였다. 홍보부는 류희림 부장이 맡



차윤조

- ▲ 1964년 생
- ▲ 연세대 불문과 졸
- ▲ MBC(1987) TBC(1990)
- ▲ YTN 기동취재부(1994) 네트워킹부 문화스포츠부(1993) 국제부(2000) 정책기획팀차장대우(2001) 문화과학부차장대우(2002)
- ▲ 퇴사 (2005)

있고 민병호 사원이 있었다. 2003년 1월 30일 '편성심의실'로 편입되면서 홍보부에서 홍보팀으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편성심의실 때 홍보팀장은 박득송 심창래 부장이 맡았다.

기획조정실에 편입된 이후 홍보팀은 방송심의팀장인 강홍식 부장이 겸직하고 있고 민병호 차장대우가 실무를 맡고 있다.

홍보팀이 하는 일로 우선 사보 제작을 들 수 있다. 사보에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각 부서의 다양한 이야기와 관심사를 싣고 있다. 1995년 5월 창간호를 발행했다. 개국 초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해 오다 IMF 시절에는 2년간 휴간했다. 1999년 12월부터 복간돼 매월 발행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YTN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도 홍보팀의 일상 업무다. 홍보할 프로그램 내용과 사진을 만들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과 편성사항을 수시로 체크한다.

언론사와 유관기관의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 내의 현황 자료와 사진들을 평소 축적해 오고 있다.

신문사와의 교환광고를 추진하는 것도 홍보팀 업무다. YTN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2005년 현재 한겨레와 한국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내일신문 등 7개 신문과 교환광고를 하고 있다. YTN 1일 편성표가 한겨레 등 6개 신문에 지상파와 나란히 실리고 있다.

홍보팀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YTN 전용 모니터를 설치하는 일도 맡았다. 현재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동대구역 부산역 광주역 등 전국 6개 역사에 YTN 전용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또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 관리와 YTN 방문·견학 안내, 시청자 전화 응대 등 서비스활동도 담당한다.

(한영규·강홍식 부장)



채문석

- ▲ 1964년 생
- ▲ 고려대 영문학과 졸
- ▲ KBS(1989) 광주방송총국 기자
- ▲ YTN(1994)

- 사회부 시경출입기자 보도국 정치부 (1998)
- ▲ 정치부차장대우(2000) 정치부차장 (2004)
- ▲ YTN 정치부 차장(2005~)

경영관리국 (2부 3팀이 회사살림 꾸려나가)

경영관리국은 회사 살림을 꾸려 나가는 부서다. 총무부 타워운영부 인력관리팀 재무회계팀 방송행정팀 등 2부 3팀으로 구성돼 있다. 인원은 총무부 10명 타워운영부 51명 인력관리팀 8명 재무회계팀 5명 방송행정팀 4명 등 75명이다.

총무부(부장 김홍규)는 서무·시설관리·등기와 송사·비상계획·구매·공사

자산운영·의전·교환·차량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타워운영부(부장 전무복)는 서울타워의 관리와 시설보안을 맡고 있다.

인력관리팀(팀장 전병모 부국장대우)은 인사관리·임금과 복리후생·포상·인사위원회 운영업무와 주주총회·이사회·주식관련 업무를, 재무회계팀(팀장 신광호차장)은 회계·세무·매출관리·자금·출납 업무를 맡고 있다.

방송행정팀(팀장 김충산)은 보도국의 지원업무부서로서 프로그램 제작비·출연료 지급과 보도국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병모 인력관리팀장(부국장·왼쪽)이 뉴미디어팀 부장이던 2002년말 해외 위성방송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로 YTN대상을 받고있다

1. 「총무부」 「인력팀」 「재무팀」 「방송행정팀」

경영관리국의 모체는 총무부다. 1994년 8월 YTN의 첫 직제가 만들어질 때 총무부는 14개 부서 중 하나로 출발했다. 1998년 7월 직제조정으로 기획조정실내 ‘총무팀’으로 편입됐다. 2001년 12월 ‘기획조정실’이 해체되고 ‘경영관리국’으로 개편됐다. 2005년 4월 경영관리국이 확대개편되면서 2부 3팀 체제가 됐다.

언론사 첫 사원 공채 인터넷 원서접수

경영관리국의 업무 중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 사원 공개채용이다. 사원공채 방침이 결정되면 경영관리국 인사관리팀은 그날부터 일상 업무를 놓아둔 채 100여 일 동안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우선 주요 신문사에 모집광고를 내고 각 대학에 협조문을 발송한다. 원서를 교부하고 접수하는 데 3주간의 기간이 걸린다. 접수된 서류를 전산처리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오디션, 필기시험, 실무면접, 임원면접 등 단계별로 1층 유리문에 합격자 명단을 붙인다.

필기시험 출제를 위해 사내에서 선발된 출제위원을 1주일간 격리시켜 ‘감시’해야 하는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운반한 프린터와 복사기로 수천 장의 시험지를 인쇄해야 한다. 기계가 열을 받아 작동이 멈출 때는 선풍기를 동원해 기계를 식히기도 한다. 공개채용 시험이 끝나면 인력관리팀 사원의 체중은 2~3kg 빠지는 게 보통이다.

1999년 하반기 공채 6기 모집부터 언론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개국 후 줄곧 사원공채 업무를 해온 김환명 사원이다. 당시에는 아직 토털 채용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때였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만을 대행할 업체를 물색해 계약했다.

결과는 대단한 성공이었다. 종전 수작업 때보다 상당한 시간 인력 비용절감 효과가 났다. 100여 일 걸리던 업무가 60여 일로 단축되고 비용도 5000여만 원에서 2000여만 원대로 줄었다. 용기를 얻은 인력관리팀은 출제도 외부 대행업체에 의뢰했다. 언론사로는 MBC가 YTN과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 원서접수를 시도했으나 서버가 다운되는 등 문제가 생겨 이듬해에는 다시 오프라인 접수로 되돌아갔다. YTN은 서버다운을 대비해 처음부터 2대의 서버를 활용했다.

YTN의 성공으로 그 뒤 리크루트, 잡코리아 등 온라인 채용 대행업체들이 등장해 이제는 다른 언론사들도 큰 어려움 없이 온라인으로 인력채용을 하고 있다.

속 탄 9시간 “월급 줄 수 있게 됐다”

IMF 관리체제 아래서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 YTN의 1997년 말 누적적자는 971억 원에 이르렀다. 은행차입금으로 겨우 월급을 지급하던 때인 1997년 12월 24일 정주년 사장과 상업은행(지금의 우리은행)장간의 합의로 운영자금 대출이 승인된 날의 일이었다. 운영자금 규모는 급여자금과 예금이자 20억여 원. 재무담당 박진원 사원은 오전 9시 서둘러 은행 대부계에 도착했다. 그러나 대부계 실무자의 시선은 쌀쌀하기만 했다. 오전 9시 30분 영업이 개시돼서야 대출서류 검토가 시작됐다. 상업은행 심사역이 발목을 잡았다. YTN 신용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출절차를 일단 보류했다. 박진원 사원은 12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돌아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다시 은행을 찾았다.

객장 구석에서 호출을 기다렸다. 이윽고 대출 직원이 심사역의 검토를 거친 대출건이 이사회에 올라갔다고 알려줬다. 오후 5시 객장 손님들이 대부분 빠져나가고 정문의 셔터도 내려졌다. 복적이던 은행 창구는 조용해졌다.

이사회가 열린 지 4시간 여가 지났지만 대출 여부는 결정나지 않았다. 입술은 바싹바싹 말라 가고 있었다. 오후 6시 30분, 밖은 이미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이때 대출계 직원의 책상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사회 의 최종 대출결정 사실을 알려주는 전화였다. 숨 막히는 상황은 이렇게 끝났다.

은행자금 차입은 9시간 반 만에야 마무리됐다. 내일은 월급날! 월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에 그동안의 긴장과 초조감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때 받은 대출금도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 두 달치 월급지출로 소진됐다. 이후 YTN



공채9기 신입사원들이 서울타워 앞에서 기념 촬영했다(2005.1.24)

임직원들은 1998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전병모 부장)

2. 「서울타워」 관광자원이자 종합 통신탑

남산에는 1961년 KBS TV 송신소를 시작으로 TBC TV, MBC TV 송신소를 비롯 80여 개의 잡다한 전파탑들이 들어섰다. 이 결과 전파 혼신과 함께 수신감도 저하가 이어졌다. 당시 민간 방송사인 MBC, TBC, DB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망대를 겸비한 종합전파탑 건립을 계획했다.

종합전파탑은 1969년 12월 3일 기공식을 가진 뒤 6년의 공사 끝에 1975년 7월 30일 완공됐다. 새로 건립된 서울의 명물은 서울타워로 명명됐다. 서울타워 높이는 해발 479.7m로 전망대에서 대부분의 서울 시내를 볼 수 있으며 맑은 날에는 인천 앞바다와 개성 송악산까지 보인다.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종합통신탑인 것이다.

방송3사 임대료가 타워 수입의 42% 차지

민간 방송사가 세운 서울타워는 1975년 11월 6일 체신부에 넘어갔다가 1980년 9월 6일 체신공제조합에 인수됐다. 체신공제조합은 IMF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9년 12월 16일 서울타워를 공개 입찰에 부쳐 매각하게 됐고 YTN

이 응찰해 701억6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서울타워의 수입은 크게 임대수입과 관광수입으로 전체 수입의 65%가 임대수입이다. 이 중 KBS, MBC, SBS(이하 방송3사라 함)의 임대료가 65%를 차지한다. 방송3사의 임대료가 서울타워 전체 수입의 42% 이상인 것이다. 그만큼 방송3사와의 임대료 협상이 중요했다. 임대료 협상은 2000년 5월에 시작해 1년 7개월 만인 2001년 12월에 끝났다.

지하관로 케이블 사용료 협상

서울타워는 1969년 당시 KBS 전용 철탑 바로 옆 자리에 건축됐다. 서울타워가 건립된 후 KBS는 양 탑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1987년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지하관로를 확장해 사용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YTN이 서울타워를 인수한 후 알게 됐으나 건물과 안테나의 임대료 협상이 종결된 뒤에 논의를 시작했다.

방송3사와 임대료 협상이 종결된 그 이듬해 2002년 1월 23일 KBS에 공식문서를 보내 지하관로를 이용한 케이블사용료 협의를 제의했다. 2002년 4월 17일부터 협의를 시작해 그해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했다.

넓은 시설 헐고 광장·볼거리 새단장

서울타워는 1975년 완공된 후 25년 동안 영업장 혁신이나 보수 공사를 거의 하지 않아 시설이 낡은 데다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

서울타워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광장(서울타워 건축물의 옥상에 해당)을 새롭게 단장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당시 광장에는 레스토랑과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밖에 없었다. 광장 난간 쪽에는 천막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나 망가지고 찢어진 상태라 미관에도 좋지 않았다. 광장 바닥의 방수포가 찢어져 물이 새고 바닥돌이 깨져 있기도 했다.

광장의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과 시설물을 건축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먹을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남산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성곽과 봉수대가 있어 문화재보호지역이며 국유림 지역이다. 허가 없이 나무 한 그루도 벨 수 없고 건축물 하나 설치하는 데도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특히 서울타



최수호

▲ 1960년 생
▲ 성균관대 사회학과 졸

▲ KBS 입사(1983) 스포츠국 보도국 기자
▲ YTN 편집부

차장(1994) 사회부차장 정치부차장 편성운영부장(2000) 스포츠부장(2003)
▲ YTN 문화과학부장(2005~)

위 옥상 광장에 건물을 새로 짓고 화장실을 개축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심의위원회와 문화재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산림청의 국유림 사용허가와 소방서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원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일이었다.

심의위원 25명 중 공무원 3명을 제외한 22명이 대학교수들이다. 일부 대학교수가 반대했지만 끈질기게 설득해 동의서를 받아냈다. 문화재관리위원회의 동의서와 산림청의 의견서를 첨부해 증·개축 허가를 받은 뒤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옥상 광장 좌·우측에 상가를 배치하고 전망이 좋은 남쪽에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우산형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낡은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바꿨다. 광장 입구를 넓혀 양쪽 기둥구조물을 조각가 성동훈 씨 작품으로 바꾸고 화장실 앞에 장승공원을 새로 조성했다.

서울타워 시설혁신과 보수공사 중 가장 비중이 큰 광장공사는 외부의 민자(약 8억 원)를 유치해 이뤄졌고 10년간 영업권을 주는 대신 임대수입의 일부를 YTN에 내도록 해 연간 1억 원 가까운 임대 수입이 새로 생겼다.

건물 5층에는 입체영상관을 새로 유치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사랑을 받아 수입도 연간 1억6000만 원(2001년 기준) 올랐다. 쓸모없이 방치됐던 전망대 1층은 레스토랑으로 임대했다. 건물 5층 환상의 나라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개축했다.

보안·경비 강화 과학 장비 설치

건물보수는 쌍용기술연구소의 안전진단 결과와 미관을 고려해 착수됐다. 창고 같은 사무실을 비롯해 1층과 지하층의 금간 곳, 누수되는 곳, 미관상 좋지 않은 곳과 1·2층 로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건물과 철탑 전체의 도색을 새로 했다.

유리·간판 교체와 바닥 돌 교체 작업이 이뤄졌다. 관광객들의 동선에 있던 구조물 계시물 전시물도 대부분 교체했다. 1층 로비의 대형 남산 약도는 유명한 박동국 교수 작품으로 제작에 6개월이 걸렸다.

서울타워는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 지정돼 24시간 경계근무와 보안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낡고 사용 연한이 지난 감시카메라와 전선을 걷어 내고 외곽 철책에 최첨단 보안시설인 광망을 설치했으며 취약지점에는 최신 자외선 카

메라를 설치했다. 종합상황실을 확장해 외곽 광망과 감시카메라에 들어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등 보안·경비를 강화했다.

관광객 늘어 주차 등 서비스 강화

서울타워의 외국인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YTN 인수 당시 서울타워에는 외국인 안내 전문 요원이 없었다. 경영권 인수 즉시 영어 일어 중국어 도우미를 새로 채용했다. 엘리베이터 승무원도 충원했다. 전 사원과 영업장 입주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친절과 청결,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업체 직원들에게도 청결과 친절 서비스를 생활화하도록 강조했다.

관광객 유치의 가장 큰 애로는 어려운 접근성과 협소한 주차장 문제였다. 남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으나 출발지가 외진 데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다. 주차장 규모가 차량 80여대 분이고 주차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아예 관광버스 등 대형차는 올라오지 못했다. 도시공원지역·문화재보호구역이라 주차장을 넓힐 방법은 없다.

좁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타워 주변의 도로 한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구청, 공원관리 사무소에 양해를 구하고 주차관리를 서울타워에서 맡았다. 이렇게 하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대형 관광버스가 올라오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티투어버스도 운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2005년 5월부터 일반인이나 관광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대신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남산 순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도시가스 들어와 연료비 크게 줄어

서울타워는 인수 당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했다. 영업장 안에 있는 별도 저장고에 900kg의 LPG를 넣어 두고 사용,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2002년 7월 2일 방송위원회는 '액화석유가스 폭발 시 수도권내 방송중단이 염려되니 시정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왔다. 이를 근거로 서울타워에 도시가스관 연결 작업을 위한 협의가 시작했다.

YTN 서울타워는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2억5500만 원, 서울타워 건물 내 난방 공급을 하던 경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대체하는 데 7500만 원을 투자했다. 서울타워 건립 후 28년이 지난 2003년 11월 9일 서울타워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다.



추은호

- ▲ 1963년 생
- ▲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
- ▲ KBS 입사 (1987~1994) 사회부 편집부 정치부

- ▲ YTN 정치부(1994) 정보과학부차장 대우(1999) 기획팀장(차장,2001) 뉴스 편집부차장(2002) 편집1팀장(2003) 편집3팀장(2004)
- ▲ YTN 정치부장(2004~)

서울타워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는 동시에 난방연료를 경유에서 가스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7000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게 됐다.

건물 보수·영업장 리노베이션

서울타워는 2004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보수공사와 함께 영업장 활성화를 위해 CJ와 계약을 맺고 영업장 시설을 바꾸기로 했다. 공사기간 중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2005년 3월 1일부터 전망대를 폐쇄하고 전 영업장의 입점자를 내보냈다.

2005년 4월부터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과 영업장에 대한 리노베이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타워 인수 초기 타워사업본부에 관리부 관리팀 영업팀 시설팀 보안팀을 두었다. 당시 인원은 본사 간부 1명(본부장인 국장)에 직원 90명으로 출발했다. 2005년 5월 현재 인원은 52명이다. 역대 국장은 초대 조봉환(2000.4.8~2001.11.5) 2대 강갑출(2001.11.5~2003.10.2) 3대 고평남(2003.10.2~2004.2.3) 4대 이한상(2004.2.3~2005.4.4)이다.

그 후 '본부'가 '국'으로 명칭이 바뀌고 2005년 4월에는 기구 개편으로 타워사업국이 타워운영부로 축소돼 경영관리국 소속이 됐다.

(최일기 부국장대우)

제4장 노·사 함께 어려운 상황 타개

제1절 : 노조, IMF 경영난 속에 태어나다

1997년 말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라는 이름의 쓰나미는 YTN도 휩쓸어버렸다. 그해 12월부터 상여금과 수당이 나오지 않았다.

1998년 2월 19일 제1차 사원협의회가 열렸다. 이어 26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 그 명칭을 ‘YTN 사원대표자회의’로 바꿨다. 사원들이 중심이 돼 난국을 타개해보자고 나선 것이다. 3월 3일 3차회의에서 김홍규 의장이 선출됐으나 김 의장은 8일 만에 사퇴했다. 12일 김호성 의장이 선출됐다. 수차례에 걸친 사측과의 협상에서 YTN을 살릴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4월 13일 수송동 구사옥 11층 보도국에 300여 명의 원년 멤버들이 모였다. 어느 후배는 입사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이긴 하지만 웬일인지 슬프다고 표현했다. 훗날 보도국장이 된 어느 부장은 “오늘의 이 자리가 YTN을 살리겠다는 힘과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노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노조 설립은 YTN의 성장 발목을 잡으려는 상대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행위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노조설립을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5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친 찬반투표는 73% 찬성으로 노조설립이 대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1. ‘YTN을 살리시다’ 리본 달고 쟁의·시위

1998년 5월 18일 YTN 노조는 첫발을 내디뎠다.

- ▲ 회사 경영정상화에 적극 동참한다
- ▲ 사측은 경영정상화 노력에 더욱 힘써라
- ▲ 한전은 책임있는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라
- ▲ 정부는 CATV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4개의 결의문을 들고 노조는 동문서주했다. 최대주주인 한전 사장을 항의방문했고 문화관광부를 찾아가 YTN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를



표철수

- ▲ 1950년 생
- ▲ 서울대 지리학과 졸
- ▲ KBS(1975) TV편집부차장(1982) 정치부차장

- ▲ YTN(1994) 정치부장 보도국부국장(1997) 사업국장(1999) 이사대우 미디어국장(2000) 경인방송 상무 전무
- ▲ 방송위원회 사무총장(2003~)

인터뷰

김호성 초대 노조위원장

- YTN 노조는 IMF기인 1998년 5월 어려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초대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노조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습니까?



어차 노조도 있는 것이고 노조가 그 테

점입니다. 당시에 발행한 노보에 '노사불이(노사는 둘이 아니다)'라는 헤드라인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회사가 있

IMF 시기에 노조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사원 협의회로 회사 구하기 어렵다는 교감에서

▲ 1997년 말 IMF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YTN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반년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사원협의회'를 구성했고 좀 더 확장해서 '사원대표자회의'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회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통 조합원들의 권익을 1순위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저희들 경우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좀 다른

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 노조위원장으로 보람이 있었다면?

▲ 보람 있었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어려웠냐는 것 하고 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조합원들이 반 년치 체불 임금을 빚 갚는 데 쓰기도 다 출자전환에 가까이 동참해 줬습니다. 그러지 못한 조합원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기도 했고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보람도 컸습니다.

방문해 문제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24일 제1차 단체협상 결렬, 25일 쟁의돌입 결정, 피켓시위...

7월 7일 구사옥 지하식당에서 쟁의돌입 출정식이 있었다. 다음날부터 노조원들의 가슴에는 'YTN을 살리시다'라는 내용의 리본이 달리기 시작했다. 15일 파업 찬반투표, 총투표자 293명 중 93.5% 파업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2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이 이어졌다.

이어진 YTN 상황을 둘러싼 치열한 탐색전과 물밑 접촉, 노조집행부는 파업돌입 이틀 전 유보결정을 내렸다.

8월 25일 청진동 청진프라자에서 일일호프를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체

불임금의 출자전환을 전제로 증자를 통한 회사 회생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장고 끝에 내놓은 노조의 제안에 대다수 조합원들은 힘을 실어줬다.

2. 경영 방침 찬반투표 ‘사장 손’ 들어주다

9월 15일 장명국 사장이 부임했다. 제2차사 실현위원회가 구성되고 체불임금의 출자전환, 무급휴직 실시 등의 노사합의가 이어졌다. 장 사장은 50% 이상 출자전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출자전환은 전적으로 노조원 자율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며 노조는 맞섰다.

11월 16일 사장의 경영방침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됐다. 454명의 사원 중 453명이 투표에 참여, 86%인 390명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날 이후 1기 노조는 사실상의 ‘동면’에 들어갔다. 집행부는 모두 현업으로 돌아갔다. 노조는 지난 1년의 기록을 반추했다.

1998년 12월 31일 단행본 「진실은 땅에 묻혀도 봄이 오면 싹이 틈니다」가 발간됐다. 노조는 그것을 ‘1998 ... YTN ... 우리들의 ... 자화상’이라고 불렀다.

(김호성 초대 위원장)

제2절 : 방송위 ‘보도채널 추가 승인’ 파문

2001년 5월 21일 방송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 1개를 추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구제금융 이후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YTN으로서는 국내 유일의 보도채널이라는 지위가 일거에 흔들릴 수 있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회사와 노조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다음날 노조는 사측이 마련한 성명서 안을 토대로 ‘방송위는 보도채널 추가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기존 사업자와는 한 마디 협의조차 없이 방송위가 보도채널 추가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며 일부 지상파의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이런 결정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거대 방송매체 KBS였다. KBS는 이미 보도채널 진입에 대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놓은 상태였다. 방송위도 역시 KBS에 보도채널을 내주기로 ‘내락’한 터였다.



허창재

- ▲ 1962년 생
- ▲ 경남대 전자공학과 졸업
- ▲ 한국통신(1987)
- ▲ YTN 제작기술총괄부(1994)

기술총괄부 제작기술부차장(2004)

▲ YTN 기술국 중계부차장(2005~)

1. 비상대책위 구성 노사 공동 대처

23일 노조는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비상대책위 구성을 결의했다. 곧 회사 내에 강성웅 유환홍 조현진 장민수 사우 등으로 대책팀이 꾸려졌다.

25일 노조집행부 등 20여 명의 사원들은 김정기 방송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방송위원회를 향의 방문했다. 마침 회의 중이던 김 위원장은 회의가 다 끝난 후에도 위원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향의단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면담이 이뤄졌지만 김 위원장은 10여분 만에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떠나 버렸다. 면담 중 계속되는 추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보도채널 추가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KBS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공모를 거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김 위원장도 향의 방문한 노조도 뻔히 다 아는 것이었다.

사태 초기부터 전면에 나설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던 회사도 전면에서 나서기로 결정했다. 28일 노사비상대책위가 구성되고 보도채널 추가 승인의 부당성과 방송위의 실책, KBS를 비판하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다. ‘전면전’이 벌어진 것이다. 소송에 대비해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YTN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을 조직화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방송위와 KBS를 상대로 한 ‘보도전’이 전개되자 방송위와 KBS 쪽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났다.

2. 속셈 드러낸 ‘칼럼’ 나가자 KBS 포기

6월 11일 김정기 위원장이 한 전문지에 기고한 글이 파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전자신문에 실린 「방송제국주의와 뉴스채널」이라는 칼럼에서 “KBS가 스포츠나 오락채널에 앞서 국제 뉴스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위상에 걸맞은 자세”라며 “엄청난 초기투자가 필요한 공익적 국제뉴스 채널을 KBS와 같은 공영방송 말고 누가 운영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수차례에 걸쳐 보도채널 추가승인 결정이 KBS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공모를 거쳐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 칼럼 하나로 자신의 발언이 진의를 가린 것이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YTN 비상대책위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신규 보도채널을 공모한다고 공고까지 낸 마당에 방송위의 수장이 특정업체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 사업

자 공모가 요식행위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다. 방송의 독점을 막아야 할 방송위가 거대 공룡 KBS에 신규 채널을 주려고 하는 것은 신문 등 언론독과점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비웃는 처사'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방송위와 김 위원장, 방송위를 뒤에서 조종한 KBS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

김 위원장의 칼럼 파문에도 계속되는 YTN의 비판에 부담을 느낀 KBS는 결국 한 달 만인 6월 23일 보도채널 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 노사가 협력해 회사의 정체성을 지켜낸 것이다.

(임수근 3대 위원장)

제3절 : YTN 공정방송위원회 출범

방송위의 보도 채널 추가승인 결정 파문, YTN의 코스닥 등록, 베이스스 노조 게시판 삭제, 보도본부장제 폐지 등 다사다난했던 2001년이 저무는 12월 7일 YTN에 중요한 기구가 하나 탄생했다. '공정방송위원회' 가 바로 그것이다.

1995년 개국 이후 YTN은 국내 유일의 전문 뉴스채널이라는 명성과 책임 속에서 특정 보도를 둘러싸고 구성원 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취재 과정에서 있는 몇몇 부적절한 행위가 반 공개적으로 구성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도 발생했다. 이같은 일을 계기로 공정방송을 지키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 갔다.

1. 특정보도 논란 등 기구 필요성 공감대

2001년 노사는 가칭 공정방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조문 작업에 착수했다. 노조는 단체협약과 공방위협약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을 정해 단체협약 체결은 공방위 조문 합의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노사 양측은 2001년 8월 이후 공방위 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고 조문 작업에 들어갔다. 사측과 노측 모두 독자적인 안을 내놓고 협의를 시작했다. 실제적으로는 기협지회에서 작성한 초안이 골간이 됐다.

협상과정에서 노사는 보도국장 등에 대한 재신임 여부('임명 1년 뒤 국 운영전반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와 공정방송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어떻게 문



홍상표

- ▲ 1957년 생
-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 연합통신 (1982~1996) 외신부 사회부 정치부기자

- ▲ 정치부(1996) 뉴스총괄부(1998) 사회1부장(2000) 국제부장(2003) 보도국 부국장(2004)
- ▲ YTN 보도국 편집부국장



7기 노조 집행부 단합대회 마치고 기념촬영
(2005. 7. 2, 아산 스파 비스)

책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사측은 문책을 요구하는 투표의 경우 가부동수는 부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가결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동수로 '공방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측은 문책 남발을, 노측은 아예 문책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결국 공정방송 강령을 재차 위반했을 경우 가부동수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노사는 11월 26일 '공방위' 단체협약과 운영규정에 합의 서명하고 이틀 뒤인 28일 당시 사회부 송태엽 기자가 초대 노측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 임명됐다.

공방위 협약은 상당히 파괴력 있는 조문들로 구성돼 있다.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 국장의 경우 임명 1년 뒤에 재신임을 물을 수 있고 공방위 요구가 있으면 회사 구성원 누구나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또 공방위 합의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것 등이다.

(임수근 3대 위원장)

제4절 : 낙하산 인사 막고 사장 추천 관철

5기 노조(2002. 5~2004. 3)는 2년 동안 '굶직굶직한' 일을 타결했다.

YTN 10년사에 처음으로 사장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고 사장추천제

를 관철시켰으며 보도국장 복수후보추천제를 노사합의로 이끌어냈다. 또 임금 두 자리 수 인상을 처음 타결지었고 노사합의로 전략기획팀을 발족했다. 서울타워 경영개선 등 노조가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다.

1. 「보도국장 복수 추천제」노사 합의

보도국장 추천제는 보도국장 임명에는 사장의 뜻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뜻도 함께 반영되어야겠다는 데서 제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추천제’는 우연히 다가왔다.

2002년 9월 백인호 사장은 이사대우 승진인사를 갑자기 발표했다. “회사사정이 어려운데 간부급 승진이 뭐가 그리 급하냐”며 조합원들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승진 인사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노조위원장은 백 사장에게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백 사장은 “이미 신문 등에도 공표된 인사인데 어떻게 철회하느냐”며 어렵다고 했다. 노조는 그렇다면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노조는 백 사장에게 세 가지 합의안에 동의하면 대의원들과 협의해 사장 불신임투표는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보도국장 추천제와 임금 두 자리 수 인상, 서울타워 경영개선안이었다.

백 사장은 자신의 안위가 걸려 있던지라 쉽게 합의안에 서명했다.

얼마 뒤 백 사장은 간부회의에서 위원장이 내놓은 합의안을 읽지 않고 서명했다면서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인사권 간여 않고 ‘과열’ 우려도 없어

2002년 10월은 대통령선거 2개월 전이었다. 정권이 사장 등의 인선에 깊숙이 관여해 왔던 YTN에서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보도국장을 바꾸는 것은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이었다.

보도국장 복수후보 추천제는 직선제가 아니다. 추천제는 노동조합이 인사권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선거를 통해 최악의 상황(최악의 인물이 보도국장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인사권자는 조합원들의 뜻을 살피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직선제처럼 피선거권자들이 ‘1등’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제는 직선제처럼 선거가 과열되는 우려도 피할 수 있다.



황명수

▲ 1960년 생
▲ 서울대 외교학과 졸, 서울대대학원 석사
▲ KAIST(1986)
KBS(1987) SBS(1991)

▲ YTN 사회부차장대우(1995) 선거방송팀장(2000) 정치부차장 (2001) 편집1팀장(2003) 제작2팀장(2003) 전략기획국 기획팀부장대우(2004)

▲ YTN DMB 총괄부장(2005~)

2. 이사회, 노조 뜻 받아들여 '사장 공개모집'

YTN 사장 인선에 정권이 관여했음은 '김현철 사건' 을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참여정부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노조나 사원들의 뜻은 살피지 않고 정권이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로 사장을 낙점해 주었다. 노조는 위급한 상황 속에 이사회에 '무혈입성' 해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는 '성과' 를 거두었다. 이어 이사회는 노조의 뜻을 받아들여 사장을 공개 모집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YTN 10년사에 처음으로 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노조는 즉시 YTN의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카메라기자협회의 지회장 등과 함께 사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원들이 추천해 준 인사들 - 부총리와 장관을 지낸 10여 명을 포함한 수십 명 - 을 사원대표들이 직접 찾아가 만났다. 그 중 상당수 인사는 '정권이 내락을 하면 사장으로 일할 각오' 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고위관리 출신의 한 인사는 YTN사장으로 일해 보고 싶다고 했다가 참여정부의 실세와 통화한 뒤 사장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통보해 오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원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의 후보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YTN 새 사장, 정부는 간섭말라' 등의 성명서를 잇달아 내며 참여정부의 간여를 '배제' 했다. 이사회는 결국 사원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서 한 후보를 사장으로 선출했다.

공적 소유구조 다른 언론사에도 영향

YTN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그러나 실제 사장인선은 언론 담당 정권실세가 깊숙이 개입해 왔다. 노조가 추천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정권실세의 개입이 완전 봉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노조나 사원들의 뜻에 반하는 인물이 사장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졌다. 또한 노조나 사원들이 사장 추천을 할 수 있어 이사회와 정권실세가 사장인선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거나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었다.

2003년 처음 실시된 YTN 사장추천제는 이후 다른 공적인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 언론사 사장인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YTN과 비슷한 시기에 KBS가 사장추천제를 실시, 노조가 추천한 3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사장이 됐다. 이후 EBS와 연합뉴스 노조 역시 사측이나 정부측과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사장선출을 할 수



제6대 노조위원장에 선출된 김상우 보도국 차장
(2004. 6. 4)

있었다. YTN 노조와 사원들의 투쟁이 언론사 사장인선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도미노 역할을 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우장균 4대 위원장)

제5절 : 원칙 확립 ‘회사의 틀’ 바로 세우기

6기노조의 중점 사업은 한마디로 ‘회사로서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회사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구조조정을 사전에 막자는 뜻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제2 창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한국 특유의 패거리 문화, 즉 사내의 특정 학연이나 지연 중심의 집단성을 배제하고 인사와 경영 등에 원칙을 확립해 책임을 지는 풍토가 시급히 정착돼야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6기노조가 이같은 사업 원칙을 세운 까닭은 우리 회사의 경우 보도는 그런대로 위상을 잡아 가고 있지만 경영이나 조직적 측면에서의 수준은 국내 중견기업 등에 비해 아직도 ‘걸음마 단계나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사 노동조합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대목은 무엇보다도 ‘공정방송 등 건강한 언론 환경을 확보하는 것’일 게다.

하지만 6기 노조는 YTN의 경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정권 논리’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공정방송을 지속적으로 지켜 왔다고 평가하고 이런 공정방송의 틀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회사 틀’의 문제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사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했다. 첫째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 둘째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강화, 셋째 DMB사업권 획득 지원과 기존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이다.

1. 연대의식 바탕 단체협약 보완 총력

‘노조의 일상활동’을 강화해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 자격사 전원 조합원 가입’ 목표를 정하고 조합 탄생 이후 처음으로 이를 완수했다. 이런 면에서 YTN은 산별조직인 전국언론노조 회원사 중 유일하게 ‘사실

상 유니언숍'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공식적 유니언숍'을 달성했다는 것은 6기노조의 철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철학을 바탕으로 6기노조는 YTN 특유의 조합원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YTN가족 한마당'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열었다. 이 가족 한마당 행사는 조합원은 물론 조합원 가족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6기노조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단체협약 보완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노사간의 구두합의보다 문서합의에 집중했다.

노보와 노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DVD 대여사업 실시 등을 통해 조합원과 노조간의 연대의 끈을 더욱 당기려고 노력했고 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산별로 다시 태어날 것에 대비, 지부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둘째로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주5일제 6개월 조기 실시'를 최대 사업으로 정하고 YTN에 맞는 근무형태를 만들어 이를 시행했다. YTN이 마련한 조기실시안은 다른 언론사 노조들이 노사협상을 해 나가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사내 금연, 폭탄주 추방, 더치페이 운동 등 한국적 언론사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문화를 재평가하여 바로 세우기 운동도 전개했다.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동호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 공동 지원금을 신설, 지급하고 있다.

2. DMB 사업권 따내는데도 큰 노력

마지막으로 공익적 자본이 많이 투입된 기관들이 갖는 공통된 특성인 무책임 경영 타파를 위해 경영진과 각종 사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신규사업의 경우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억제하며 추진돼 온 일이 혹시라도 이전의 사업과 같은 부실덩어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조합원들 삶의 미래와 직결된 DMB 사업권 등을 위해 말 그대로 노사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해 사측에 협력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6기노조의 그림자 같은 외곽 지원이 지상파 DMB 사업권 획득에 큰 힘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타 회사 노동자들이 경영악화 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YTN은 '경영적 황금기'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순풍 같은 경영'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게 6기노조의 인식이었다. 이에따라 6기노조는 상당한 사내 논란이 있었지만 사측이 제시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수용하고 구체적인 안 마련에 들어갔다.



황성수

- ▲ 1957년 생
- ▲ 경북대 경제학과 졸
- ▲ KBS(1981) 사회부 편집부
- ▲ YTN(1994) 뉴스총괄부차장

경제2부장(2000) 보도국부국장(2003)
▲ YTN 보도국 제작담당 부국장(2005~)

인터뷰

이광엽 7대 노조위원장

- 회사가 승려문 시대, 제2 창사를 선언하고 미디어 그룹을 지향하며 전사원이 뛰고 있는데 소감은?



- DMB 시대에 7대 노조의 활동 방향은 무엇인지?

▲ DMB는 미디어의 진화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사가 미디어그룹 지향하며 전 사원이 뛰고 있는데

미디어 환경 변화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이해

▲ 과거 주요 고비들은 우리 회사만이 처한 경영 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다릅니다. 언론계 전체의 위기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매체 다채널로 급속히 바뀌면서 생존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2 창사 선언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노조도 방향을 잘 잡아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콘텐츠도 변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고서는 DMB 시대에 차별화된 뉴스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명품 뉴스' 제작에 성공하면 수익 구조도 훨씬 호전될 것입니다. 또 일하는 조직의 기쁨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노조가 갈 방향입니다. 맘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조로서는 회사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도록 밑거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1년이라는 기간은 짧았다. 임금피크제를 구체화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다음 집행부로 넘겨주고 말았다. 5기노조 때 노사가 합의한 '상향식 평가가 반영된 인사평가제 도입 문제'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김상우 5대 위원장)

화보 Ⅱ

YTN 10년



YTN 개국 : 현소환 사장이 1995년 3월 1일 낮 12시 방송개시 의식으로 제 1 부조정실 비디오 스위처의 ON-AIR 버튼을 누르고 있다 (서 있는 사람 오른쪽 두번째가 이대섭 보도국장)



YTN 첫 방송 : YTN 첫 방송인 낮 12시 정시뉴스를 진행하는 우장균(왼쪽) 김소영 앵커(1995. 3. 1)



3·1절 보신각 타종 생방송 : 황성수 기자가 종로 보신각 앞에서 개국 첫 방송인 보신각 타종 소식을 SNG(이동위성송출장비)와 중계차를 이용, 생방송하고 있다



◇대전 흥도동 아리랑백화점 앞에서 대전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의 유세를 중계차를 동원, 생중계중인 YTN 선거특별취재반.

케이블TV 선거 비상방송체제 돌입

／秦聖昊기자

『6·27 지방선거 정보는 케이블 TV를 통해...』 케이블TV가 선거방송체제에 돌입했다. 전문성과 지역성이란 케이블방송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 프로그램으로 선거기간중 시청자들을 붙들겠다는 것이다.

13일부터 선거정보방송 시스템으로 전환한 YTN(연합TV 뉴스)은 24시간 종합뉴스 채널이란 점을 심분 활용, 주요 시간대에 선거관련 뉴스-정보를 집중편성, 우선 양적인 면에서 공중과 방송을 제압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KBS MBC SBS등 공중과 방송들의 경우, TV토론외에는 제한된 뉴스밖에 선거관련 정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YTN측의 분석. 이에 비해 케이블은 마치 스포츠중계를 하듯 후보자별 유세들을 집중보도,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심층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30여명의 특별취재반을 구성, SNG(위성중계장비)까지 동원한 YTN은 15개 광역단체장(시·도지사) 후보들의 개인연설회를 순차적으로 녹화, 밤 9시, 새벽 3시30분,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10분에 방송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합동연설회와 지역의원후보들의 정견은 저녁 5시30분, 새벽 0시30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YTN 심층자료 제공-물량공세

MBN '서울 빅3' 경제정책 토론회

내보내고 있으며, 관심지역의 연설회를 모아 저녁 6시30분에 집중 방송하고 있다.

YTN은 이와 함께 「정치광장」(저녁 10시30분)에서 선거판세 분석과 최근의 정가동향을 상세히 전달하는 한편, 저녁 7시 30분에는 테마기획 「세계의 지방자치」도 내보내고 있다. 하루에 5번, 주요 입후보자들의 정견을 주제별로 선별한 3분짜리 프로그램도 제작·방송하고 있다.

경제뉴스 전문채널 MBN(매일경제TV)도 차별화된 선거프로그램 마련에 분주하다. MBN은 매일경제신문 이코노미스트클럽과 공동기획으로 서울시장 「빅 3」 초청 경제정책 토론회를 19일 호텔신라에서 마련,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방송한다. 襄秉然(매일경제 상무)가 전체진행을, 司空晔(前재무장관)가 패널진행을 맡은 이 토론회에는 서울시 행정 환경 교통관광 사회복지 도시설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후보자들의 자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케이블방송국중 유일하게 인천케이블TV 네트워크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인천시장 후보 3명과 구청장후보들의 경력방송과 연설방송을 지역채널을 통해 내보낸다는 의욕적 계획을 마련했다.

케이블 관계자들은 『전송망을 까는 작업에 차질만 없었다면, 이번 선거는 케이블TV의 저변확대에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YTN 심층자료 제공·

물량 공세 : 6·27 지방

선거를 맞은 케이블TV의 선거방송 체제를 보도한 조선일보 1995년 6월 17일 TV Radio면 머리기사.

YTN은 13일부터 선거 정보 방송 시스템으로 전환, 주요 시간대에 선거 관련 뉴스·정보를 집중 편성해 우선 양적인 면에서 공중과 방송을 제압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



1995년 6·27 4대 지방선거 보도 방송진행 스튜디오와 화면



1995년 선거 방송 YTN로고



한국의 CNN
24시간 뉴스전문방송

YTN

시간 맞춰서 뉴스를 볼 필요가 없다. 원하는 때 TV를 켜면 항상 새소식을 볼 수 있다. 한낮도 좋고 새벽이라도 상관없다. 하루 종일 「현재진행형」 뉴스를 보도하는 YTN (연합 TV뉴스)이 서서히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 4월28일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대참사 특종보도는 뉴스전문채널의 속보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케이스.

◆ 사진 · 金龍海

YTN 서서히 진가 발휘 : 「하루종일 '현재 진행형' 뉴스를 보도하는 YTN이 서서히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월간 「신동아」 1995년 7월호는 「뉴미디어 시대」 컷으로 '한국의 CNN/24시간 뉴스 전문 방송/YTN'을 컬러화보 6페이지로 소개했다



01



02



03

대구지하철 폭발 위성 중계방송

- 01_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현장(1995. 4. 28)
- 02_ 위성생중계 방송임을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화면 자막
- 03_ 24시간 속보체제로 관련뉴스 보도를 알리는 자막



01



삼풍 생존자 구조현장 — YTN 02



삼풍백화점 건물 붕괴

03



삼풍 실종자 상황실 — YTN 04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보도

01.02_ 매물자 구조작업 생중계 방송

03_ '삼풍 붕괴' 특종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TV방송 중 맨먼저 보도한 YTN 방송화면 자막. 앵커는 유석현(1995. 6. 29)

04_ 삼풍사고 실종자 상황실 생중계 방송화면



01



02



03



04

- 01_ 대한언론상 수상**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특별취재팀이 대한언론인회 주관 제6회 대한언론상을 받았다(1995. 12. 14)
- 02.03_ 제1회 케이블TV의 날 기념식에서 이대섭 상무이사겸 보도국장(오른쪽 세번째)이 동탑 산업훈장(왼쪽사진), 현소환 사장(왼쪽 세번째)이 공로패를 받았다(1996. 3. 5)**
- 04_ 우수프로그램 대상** : 제1회 케이블TV의 날 행사에서 우수프로그램 대상을 받은 현소환 YTN사장이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1995. 12. 1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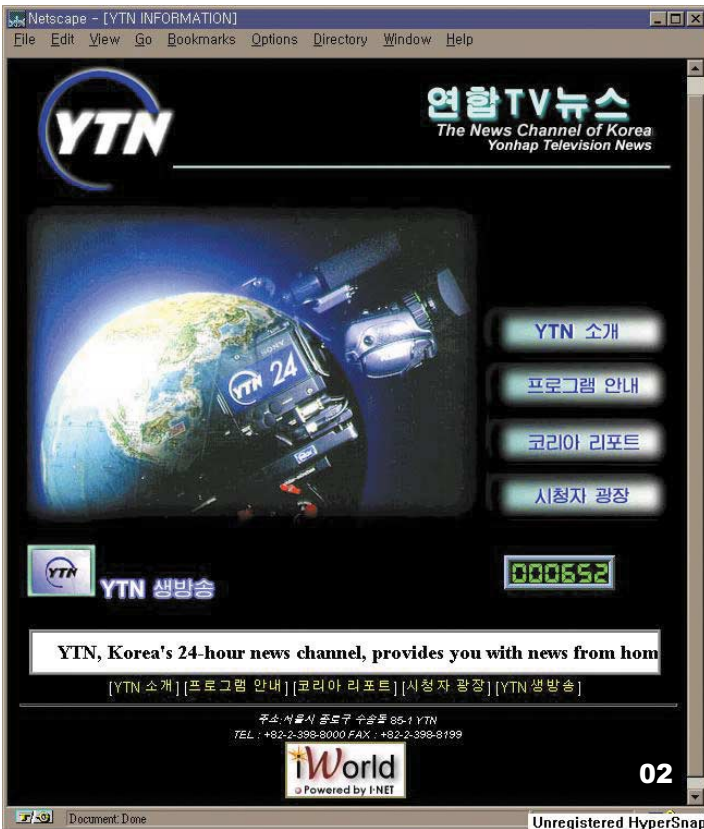


02



03

- 01_ 개국 첫돌 잔치 : YTN개국 한돌잔치에 참석한 내빈과 임직원들의 흥겨운 한판(1996. 2. 28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 02_ 첫돌잔치 손님들 : YTN개국 1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한 손님들. 왼쪽부터 현승종 전총리 이수성 총리 김대중 총재 김종필 총재 이시윤 감사원장 스테픈 클레이폴 AP TV 사장
- 03_ 개국 첫돌 축하 리셉션에서 현소환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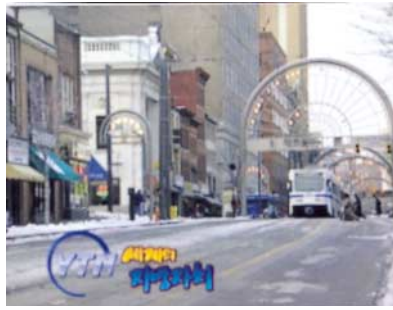
01_ 15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현장 보도(1996. 4. 11, 종로구 개표소)

02_ YTN 인터넷 홈 페이지 개설(1996. 6. 1)

03_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생방송 자막(1996. 7. 15~20)



「라인에서 엘베까지」(1995. 3. 4~4. 16)



세계의 지방자치(1995. 4. 22~6. 4)



세계속의 한국인(1995. 7. 8~9. 30)



위성통역실(1995. 3. 1~)



오늘의 역사(1995.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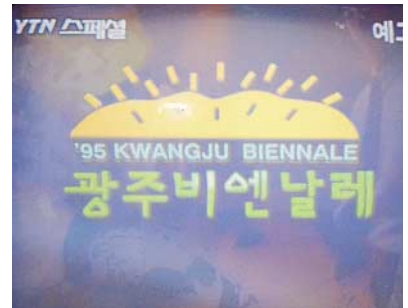
네트워크(1995. 3. 1~)



「경제생활」(1996. 1. 22~1999. 6. 18)



「삼풍사고 그 후 1년」(1996. 6. 28)



「광주 비엔날레」(1995. 9. 18~10. 13)



초기 여성 앵커팀 : 왼쪽부터 이지은 김정아 김소영 이선령 이현정 김지윤 김경아 김선희

수송동 사옥





01_ 수송동 사옥 12층 보도국 편집부

02_ 수송동 사옥 스튜디오(12층)

03_ 대형 시계판의 「24」 : 수송동 사옥 보도국 편집부 천장의 대형 시계판에 있는 숫자 「24」는 '24시간 뉴스를 보도한다'는 의미와 「채널24」를 나타내는 상징 숫자이기도 하다



01_ 일본 퍼펙TV 한국어 채널인 KN TV와 뉴스공급계약 체결(1996. 10. 1)

02_ 개국 2주년 기념 YTN 시청자 퀴즈 응모업체 추첨(1997. 3. 1)

03_ YTN주 30% 양수도 (주)연합통신 김영일 사장과 (주)한전정보네트워크의 최대용 사장(좌)이 YTN 주식 30% 양수도 기본 합의서에 서명, 교환하고 있다(1997. 9. 2)

04_ 「집중조명」 500회 : 채널24 집중조명 500회 특집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에게 듣는다(1997. 9. 25)



01



02



03



04



05

신설 확대 프로그램

- 01_ 시간이 확대된 「프라임뉴스」 (1997. 3. 3 프로개편)
- 02_ 확대된 「YTN 24」(1997. 3. 3)
- 03_ 신설된 「날씨와 정보」(1997. 7. 7)
- 04_ 건강분야 프로 확대개편(1997. 7. 7)
- 05_ 신설된 「씨네24」 진행자 안착히 오동진 기자(1999. 11. 1)



국회 청문회 전과정 생중계 : YTN은 국회 한보조사특위의 청문회 전과정을 생중계 방송했다(1997. 3. 25~28, 3. 31~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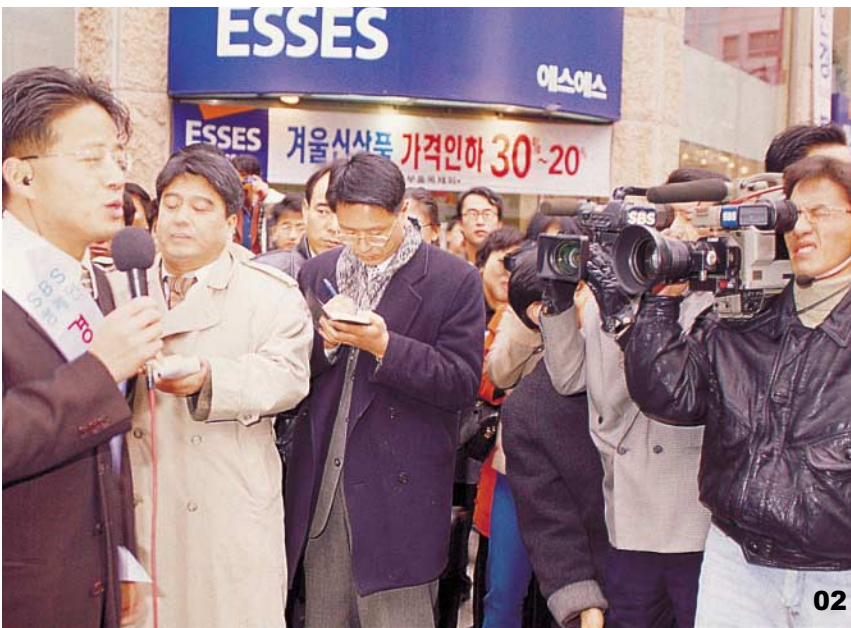
국내 처음 수화통역 생방송 : 제15대 대통령후보 초청 합동토론회 생중계. 1997. 11. 29
국내 방송 처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생방송(왼쪽 원내)을 함께 내보냈다



KAL여객기 괌 추락 첫 자막보도 : KAL 여객기 괌 추락사고 방송 화면. YTN은 자막으로 국내 방송사 중 가장 앞서 추락사고를 보도했다(1997. 8. 6)



태풍 상륙을 앞두고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제주지국 취재팀(1997. 늦여름)



- 01_ IMF시대 바로 알자 :** 한국 경제 위기의 해법을 모색한 특집 집중조명 「IMF시대 바로 알고 함께 넘자」(1997. 12. 28~1998. 8 : 156회 방송)
- 02_ '경제를 살리시다' 캠페인 취재** (1997. 12)
- 03_ 1997년 11월 20일 「YTN 취업정보」 서비스 시작.** ARS 전화(700-9393)와 팩스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사원들과 담소하는 장명국 사장(1998년)



장명국 전 사장 : 창사 10년 기념식에 참석, 재임 때를 돌아보고 축하 인사하는 장명국 제3대 사장(2004. 3. 1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 채널24YTN

발행일 1999. 12. 1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송동 85-1
전화 398-8000, FAX 398-8199
팩스 398-8282 (벨리벨리), 398-8585 (비료비료)
광고문의 398-8949, 인터넷 홈 ytn.co.kr

No.1

YTN 社報

사장취임사 요약

최고의 뉴스채널을 만들자!

독립하고 있는 뉴스채널을 하고 싶어 위
성방송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이
위치에서 같이 손구쳐 오르는 지혜와 열
정과 용기를 끌어 오오자. 5년 전의
YTN으로 돌아가자.

만나는 사람마다
YTN이 뉴스의 첫
대가 됐으면 좋겠
다"고 말한다. 한
국은 국민들의 로
용수준이 높아 뉴
스기 인기가자.

“공중파TV가 아닌
YTN이 뉴스의 첫
대가 됐으면 좋겠
다”고 말한다. 한
국은 국민들의 로
용수준이 높아 뉴
스기 인기가자.

국한 후 5년이 지났는데도 간판스타가
없다. 시내에서 걸러 내준거, 아니면 회
부에서 초빙하든가 해야 한다.

YTN의 어떤 시간이 프라임 타임인가?
YTN은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간대가 있어야 한다. 그대

야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YTN은 주 수입원은 광고와 수신료인
만큼 광고를 매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바
려야 한다. 그래야만 일류도 될 수 있다.
내부에서 낭비하면 안 된다. 다시 사용
할 수 있는 패키지는 꼭 사용해야 한다.

7면에 계속

YTN, 채널선호도 1위로 浮上

95년 개국 당시 YTN은 매우 훌륭한
26개 채널 중 프라임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었다. YTN은 신
선한 증거로 국민들에게 제일 채널일
것이 확실하며 지금은 저대시장이 되면

YTN이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 리서
원편, 케이블TV협회가 한국 클럽에 의

02



- 01_ 초고속 인터넷 방송 :** 인터넷 회사 드림라인과 제휴, 초고속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사진은 인터넷 방송 화면 (1999. 9. 9)
- 02_ YTN 사보 :** 1999년 12월 1일자로 복간된 「YTN 社報」(백인호 사장 취임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 03_ 로봇 축구대회 :** 제1회 FIRA KOREA-CUP 로봇 축구대회. 이 대회는 로봇 축구의 대중화와 국내 과학 영재 육성 등을 위해 YTN과 세계로봇축구연맹(FIRA) 한국과 학기술원(KAIST)이 공동주최했다(1999. 11. 30~12. 1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01



02



03

YTN노조 서울타워 시위

- 01_ 공중파 방송 3사의 서울타워 임대료 협상을 촉구하는 YTN 노조 시위 현장 (2000. 1. 5~8)
- 02_ 전경들이 노조원들의 서울타워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
- 03_ 전경들의 저지를 뚫고 서울타워 본관 5층까지 들어간 노조원들이 농성하고 있다



01



02



03



04

- 01_ 제1기 YTN 시청자위원회 :** 제1기 YTN 시청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은곽수일 서울대교수 (2000. 10. 12)
- 02_ 사이버 유세장 개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유세장 「총선 2000」 개설(2000. 3. 17)
- 03_ YTN · KDN 제휴** 인터넷 방송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에 조인한 후 기념촬영한 YTN과 한전정보네트워크(KDN) 간부들 (2000. 3. 9)
- 04_ 남북 이산가족 상봉 특별 생방송.** 왼쪽 두 번째와 오른쪽 끝이 YTN 송경철 · 김선희 리포터 (2000. 8. 15~18)



01



02



03

서울타워 새단장

- 01_ 서울타워가 YTN에 인수된 후 대대적인 시설 혁신 공사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2000. 11. 18 공사완료)
- 02_ 서울타워 혁신 1차 공사 완료 기념행사에서 발전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도 지냈다
- 03_ 아래서 올라다본 새단장 서울타워(2000. 11)



01_ 최동호의 토크라인 : 2001년 봄 철 프로 개편(4. 13) 때 신설된 「최동호의 토크라인」에 출연한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 허버드 대사는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과 햇볕 정책의 장래에 대한 전망 등을 밝혔다(2001. 11. 7)

02_ 고르바초프 「집중조명」 출연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YTN을 방문, 「집중조명」에 출연했다(2001. 11. 19). 고르바초프 특별 대담은 20일 밤 방송됐다

03_ '집중조명' 출연에 앞서 분장실에서 화장하고 있는 고르바초프



특집 기획

- 01_** 새 천년 맞이 대형기획물 중 하나인 몽골·유라시아 뉴 밀레니엄 특집 '새 천년을 꿈꾸는 땅' 제작팀이 몽골 유목민 가족과 기념촬영. 60분물 7부작인 이 프로그램은 2000년 1월 1일 1편, 1월 20일 7편이 방송됐다
- 02_** 40분물 4부작으로 제작 방송된 YTN 특별기획 '천혜의 자원, 습지' 1편 '살아있는 생태 낙원' 2편 '개발에서 보전으로' 3편 '세계는 습지 복원 중' 4편 '인간을 살찌운다' (2000년 11월 8~29일 방송). 사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전하고 있는 독일 바덴해 습지
- 03_** 「웰컴사이언스」: 2001년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 때 신설된 「웰컴 사이언스」(10. 22 신설, 사진은 2002년 1월 4일 방송장면)



01



02



03



04

- 01_ 주식 액면 분할 :** YTN주식 액면 분할, 상근 감사 선임 등을 승인한 제 8기 주주 총회 (2001. 3. 14 프레스센터)
- 02_ 투자설명회 :** 코스닥 등록에 앞서 열린 투자설명회(2001. 8. 28, 63빌딩)
- 03_ 북중미·동남아 위성방송**
YTN의 북중미·동남아 실시간 위성방송을 알리는 홍보탑 (2001. 7. 11부터 2주간, 서울 시청앞)
- 04_ 보도채널 추가승인 움직임 향의 :** 보도채널 추가 승인 움직임과 관련, YTN 노조집행부는 방송위원장을 방문, 항의했다(2001. 5. 25)



01 _ 생방송으로 진행된 2002 대선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 제2일 출연자들. 왼쪽부터 노무현 유종근 이인제 후보(2002. 3. 6, 국회도서관 강당 특별 스튜디오)

02 _ YTN 주최 2002 대선 한나라당 경선후보 토론회. 오른쪽부터 이회창 최병렬 이상희 이부영 후보(2002. 4. 16, 목동 방송회관)

03.04 _ 대선후보 연설토론회 : YTN은 2002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후보 연설토론회를 주최, 방송했다. 후보들 개인 일정에 따라 정몽준(10월 15일) 노무현(10월 16일 사진 위) 권영길(10월 28일) 이회창 후보(10월 29일 사진 아래) 순으로 진행됐다. 장소는 목동 방송회관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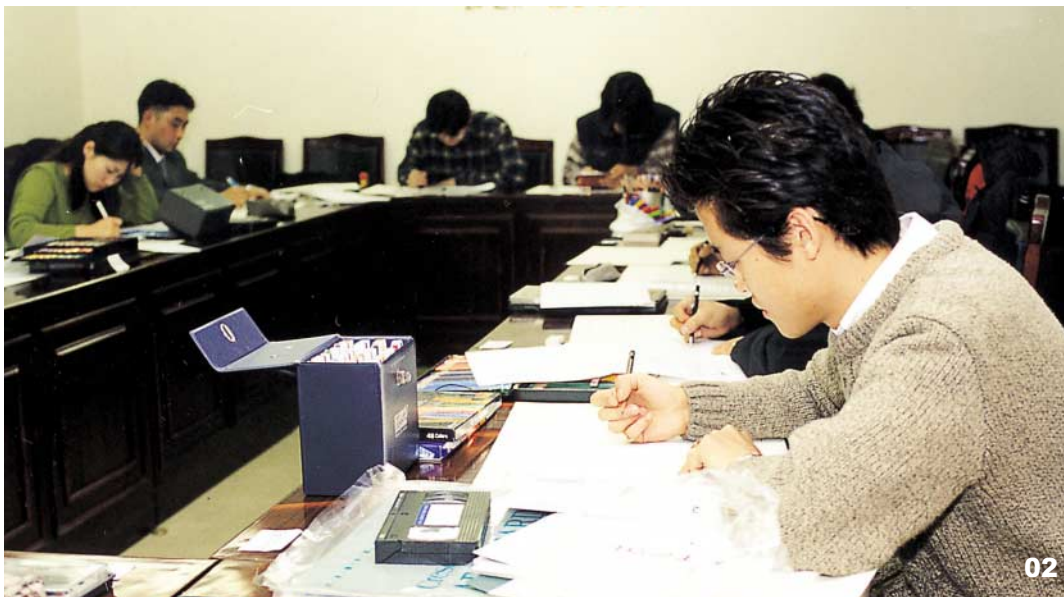


03

- 01_ 일 TBS사장, YTN 방문 :** 스나하라 유키오 일본 TBS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YTN 본사를 방문, 백인호 사장과 양사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000. 2. 8)
- 02_ 미 CNN사장 YTN 방문 :** YTN을 방문한 이슨 조단 미국 CNN 사장 이 백인호 사장과 약속하고 있다. 백 사장은 조단 사장에게 양사의 뉴스 교환 및 인적 교류도 더욱 넓히자고 제의했다(2002. 9. 27)
- 03_ 복수추천제 첫 보도국장 :** 보도국장 복수후보추천제에 따라 처음으로 임명된 김관상 보도국장(왼쪽)이 기자회견 YTN 지회장 김형근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2002. 10. 9)



01



02



03

- 01_ 앵커지원자 오디션 :** 오디션 순서를 기다리는 앵커 지원자들(2001. 5. 15)
- 02_ CG 실기시험 :** 컴퓨터 그래픽 편집 실기시험(2002. 12. 20)
- 03_ 공채 토론 전형 :** 공채 8기 모집 때부터 토론 전형이 도입됐다. 심사위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응시생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2003. 5. 21)



01



02



03

정시 뉴스

- 01_ 뉴스 퍼레이드 : 2003년 3월 10일
신설된 「뉴스 퍼레이드」(송경철 앵커)
- 02_ 「굿모닝 코리아」 : 「굿모닝 코리
아」의 현덕수 유현주 앵커
- 03_ 「뉴스 포커스」팀



01



02



03



04

01_ 「뉴스 투데이」(김호성 정애숙 앵커)

02_ 낮 12시 「뉴스의 현장」에 출연한 가수 보아(2003. 5. 26)

03_ 「과학과 미래」

04_ 생방송 「박찬숙의 쟁점토론」(2003. 3. 10~12월)



표완수 사장 취임 인사 : 표완수 신임 사장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2003. 5. 23)



보도국에서 환담 : 보도국에서
직원들과 환담하고 있는 표완수
사장



YTN 윤리강령 제정 : 표완수 사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우장균 노조위원장(네번째)이 YTN 윤리강령에 서명한 뒤 회사 간부 노조 집행부와 함께 기념촬영했다(2003. 6. 30)



방송품질향상위원회 설치 : 노사대표로 구성된 방송품질향상위원회가 발족돼 첫 회의를 열었다(2004. 9. 1)



01

YTN가족 「한마음 MT」

YTN 임직원·가족들이 참가한 「한마음 MT」. 캠프파이어, 축구대회, 새내기공연, 가족 노래부르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03년 6월 28일 양평 남한강연수원

01_ 가족 노래부르기

02_ 표완수 사장도 참석한 분임토의

03_ 캠프파이어



02



03



04_ YTN가족 기념촬영

05_ 새내기 공연

06_ 축구시합





기협축구 두번째 우승 : YTN 축구팀이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친선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표완수 사장, 동료 기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했다. 우승은 2002년에 이어 두번째(2004. 5. 22)



YTN 축구팀은 2002년 기협축구 서울지역대회에서 중앙일보팀을 누르고 우승했다. 김진석 사우(YTN 축구단 주장)가 우승기를 받고 있다(2002. 5. 12, 태릉 육사축구장)



01



02



03



04

- 01_ 서울역에 PDP-TV : 고속철도 서울역사에 설치된 YTN 전용 대형 PDP-TV(2004. 1. 7)
- 02_ 김승재 기자 수상 : 사회부 김승재 기자가 「부실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취재보도로 제 2회 변덕수 기자상을 받았다(2004. 1. 14)
- 03_ 돌발영상 제작팀 노종면(왼쪽)·장민수 기자가 2004년 BTC(한국방송기자클럽) 보도상 특별상을 받았다(2004. 12. 13)
- 04_ 한원상 기자 수상 : 다큐멘터리 「평양에서의 고발」로 한국 TV 카메라기자상을 받은 영상취재부 한원상 기자. 「평양에서의 고발」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로 북한에서 살게 된 동생과 남쪽에 남아 있던 형의 평양 상봉 과정을 담았다(2003. 12. 10)



중국연예시장 진출

- 01_ 중국 CCTV와 업무협력 협정** : YTN과 중국 CCTV는 뉴스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2003. 12. 29)
- 02_ 중국 티켓 판매시장 진출** : YTN은 NHN과 함께 중국의 티켓판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합작법인 태극 I&E를 설립했다(2003. 10. 22)
- 03_ 중국 연예사업 추진** : YTN은 가수 신승훈 소속사인 도로시뮤직(대표 배성우)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갖고 신승훈의 중국 내 연예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했다(2004. 6. 8)



01



02



03

01_ 미국 CNN사장 방문

CNN 크리스 크레이머사장(왼쪽 세번째)이 YTN 본사를 방문, 표완수 사장과 협력문제 등을 논의하고 방송시설도 둘러보았다(2004. 4. 22)

02_ 일본 TBS사장 방문

이노우에 히로시 일본 TBS사장(왼쪽)이 YTN을 방문, 표완수 사장과 양사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2003. 9. 22)

03_ 중국 특파원단 견학

서울 주재 중국 특파원 11명이 YTN을 견학, 방송시설을 둘러보고 있다(2004. 6. 4)



01



02



03

교양 프로그램

- 01_ 「라이프 n 조이」 앵커 윤재희(왼쪽)(2004. 7. 14 방송화면)
- 02_ 「사이언스 +」 앵커 김미선(왼쪽, 2004. 9. 7 방송화면)
- 03_ 「언론과의 대화」(진행 박인규)에 출연한 이해찬 총리(2004. 8. 12)



01

취재 보도 현장

01_ 청계천 복원 착공 보도 : 청계천 복원사업 고가도로 철거공사 착공 현장에서 정찬배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건물은 삼일빌딩(2003. 7. 1, 광고 청계천 고가도로)

02_ 총선 개표 집계 : 2004년 4·15 총선 보도팀이 전국의 개표상황을 집계하고 있다

03_ 여론 전달 : 사회부 황순욱 기자가 이라크에서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살해된 김선일씨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 (2004. 7. 14)



02



03



교육 강의

- 01_ 진대제 장관 특강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IT 8.3.9 프로젝트」를 주제로 YTN 간부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2004. 6. 4). YTN은 간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외부강사를 초청, 특별강좌를 열고 있다
- 02_ 앵커교육 :** 언론재단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한 앵커교육에서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는 YTN 앵커들(2003. 7. 7).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6회 교육
- 03_ DMB 강의 :** 서울시립대 김용환 교수(매체공학)가 YTN 간부들을 대상으로 DMB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2004. 12. 6)



DMB 준비

- 01_ DMB법인 공동설립** : YTN과 교통전 문방송사 TBN은 지상파 DMB법인을 공동 설립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2004. 7. 27)
- 02_ 콘텐츠 공동개발** : YTN은 이동통신 솔루션 업체인 지어소프트와 지상파 DMB 콘텐츠를 공동개발하기 위한 업무조인식을 가졌다(2004. 10. 5)
- 03_ DMB법인 통합** : 지상파 DMB사업 진출을 준비하던 YTN DMB법인은 또 다른 DMB 법인인 ANTV 컨소시엄과 통합했다 (2005. 2. 2)



남대문 새 사옥 입주 공사

- 01_ 옥상에 설치된 위성수신 안테나
- 02_ 20층 보도국 오픈 스튜디오 공사 자재
- 03_ 스튜디오 리허설 준비(2004. 2. 27)



남대문 새 사옥으로 이전
 송례문 앞에 세워진 남대문 사옥으
 로 이전했음을 알리는 선전탑(사진
 위), 새 사옥 정문에 걸린 플래카드





남대문 사옥 입주 : 새 사옥 입주 기념식에서 표완수 사장(왼쪽에서 여덟번째) 현소환 정주년 백인호 전사장과 이명박 서울시장(일곱번째)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했다(2004. 3. 12)

부록 |
자 료

정 관

제정 1993. 9. 14
개정 1993. 9. 24
개정 1995. 1. 14
개정 1997. 3. 26
개정 1999. 2. 2
개정 1999. 3. 26
개정 2000. 3. 10
개정 2001. 3. 14
개정 2002. 3. 26
개정 2004. 3. 2
개정 2004. 3. 26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 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와이티엔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YTN이라 표기한다.(1993. 9. 14, 1999. 2. 2 개정)

제2조 (목 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1.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2. 외국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 및 공급
 3. 문화 서비스업
 4. 음반, 필름, 테이프 제작 판매업
 5. 임대업
 6. 창고·운수업
 7. 주차장업
 8. 부동산임대업
 9. 공익사업
 10. 방송기기 개발 및 판매사업
 11. 방송 및 통신분야 설계 및 시공, 감리사업
 12. 전방권판매사업, 상품판매사업, 통신시설임대업, 정보통신사업
 13.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1995. 1. 14, 1999. 3. 26, 2000. 3. 10 개정)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사 등의 설치)

제1항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둔다.

제2항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지사 및 지국을 국내외에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공고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에 게재한다.
(1999. 2. 2, 2004. 3. 26 개정)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육천만(260,000,000)주로 한다.
(1997. 3. 26, 2001. 3. 14, 2004. 3. 2 개정)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일천(1,000)원으로 한다.
(2001. 3. 14, 2004. 3. 2 개정)

제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백오십만(1,500,000, 액면가 10,000원)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십주권, 5십주권, 1백주권, 5백주권, 1천주권, 1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2000. 3.10 개정)

제10조 (신주인수권)

제1항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항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제3항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999. 2. 2, 2000. 3. 10 개정)

제10조의 2 (일반공모증자)

제1항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2000. 3. 10 개정)

제10조의 3 (주식의 소각)

제1항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2001. 3. 14 개정)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제1항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제2항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3항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4항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리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00. 3. 10 개정)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항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2000. 3. 10 개정)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항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2001. 3. 14 개정)

제2항 본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제3항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를 2주일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001. 3. 14 개정)

제 3 장 주주총회

제14조 (소집 시기)

제1항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제2항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5조 (소집권자)

제1항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제2항 대표이사 사장 유고 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소집 통지 및 공고)

제1항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항 본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 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2000. 3. 10, 2004. 3. 26 개정)

제17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의장)

제1항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제2항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2001. 3. 14 개정)

제20조 (주주의 의결권)

제1항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항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1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1항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항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000. 3. 10 개정)

제2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2000. 3.10 개정)

제 4 장 이사·이사회·감사

제25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제1항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한다. (1999. 2. 2 개정)

제2항 본 회사의 감사는 약간명을 둔다. (1997. 3. 26 개정)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본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7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002. 3. 26 개정)

제2항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1997. 3. 26 개정)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제1항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 주주총회까지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제2항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선하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999. 2. 2 개정)

제29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1항 본 회사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사장 1명을 선임한다.

제2항 본 회사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상근하는 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999. 2. 2 개정)

제3항 본 회사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비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제4항 본 회사는 상근하는 감사 1명을 둔다. (2001. 3. 14 개정)

제5항 본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3. 14 개정)

제30조 (이사의 직무)

제1항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서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1999. 2. 2, 2001. 3. 14 개정)

제31조 (감사의 직무)

제1항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2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000. 3. 10 개정)

제33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제1항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2항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회의 의결방법)

제1항 이사회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2항 이사회회의 의장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항 이사회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5조 (이사회 의의사록)

이사회 의의사에 관하여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2000. 3. 10 개정)

제36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1항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2항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감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2001. 3. 14 개정)

제37조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8조 (자문위원회)

본 회사는 회사운영에 관하여 대표이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5장 계 산

제39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본 회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제1항 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일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항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4주일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일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4항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 이익금 (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은 순으로 처분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이익 준비금
3. 기타의 법정적립금
4. 배당금
5. 임의적립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2조 (이익배당)

제1항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항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6장 기 타

제44조 (창업비)

설립준비에 따른 비용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금165,777,450원으로 한다.

제45조 (상법의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46조 (규정)

이사회는 정관과 주주총회 의결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의 설립 발기인들의 주소와 성명은 본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하고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 | | |
|-----|---|
| | 1993년 9월 14일 |
| 발기인 | (주)연합통신 대표이사 사장 현소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 |
| 발기인 | (주)쌍방울 대표이사 사장 신계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9-4 |
| 발기인 | 제일산업(주)대표이사 사장 장세현
인천직할시 북구 십정동 562-3 |
| 발기인 |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연태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 |
| 발기인 | (주)한국상업은행 은행장 정지태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 발기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부속 민중병원 이사장 현승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
- 발기인 (주)전남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정일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700-5
- 발기인 성원토건(합자) 공동대표사원 조철주
공동대표사원 김창현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3-4
- 발기인 장규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9-13 벽산빌라 202호
- 발기인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사장 이금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
- 발기인 한림제약(주) 대표이사 사장 김재운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유방리 210-1
- 발기인 (주)보성주택 대표이사 사장 김상구
대구직할시 중구 동인동 4가 405-3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개 생략)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는
액면분할 및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인사

역대 임원

대표이사 사장

현소환 1993. 9.14~1996. 9.12
정주년 1996. 9.12~1998. 5.25
장명국 1998. 9.14~1999. 8. 3
백인호 1999. 8. 3~2003. 5.23
표완수 2003. 5.23~현재

감사

이정일(비상임) 1993. 9.14~1995. 3.29
김재윤(") 1995. 9.29~1997. 3.26
김연수(") 1997. 3.26~1998. 1.19
윤종웅(") 1997. 3.26~1999. 2. 2
이규찬(") 1999. 2. 2~2001. 3.31
김광일(상 임) 2001. 3.14~2004. 3.26
김희중(") 2004. 3.26~현재

전무이사

김영일 1993. 9.14~1996. 9.12
오근영 1996. 9.12~1997.12. 1
이동근 2002. 8.23~2003. 8.11

상무이사

김동성 1993. 9.14~1995. 3.29
이대섭 1995. 3.29~1998. 9.14
이동근 2001. 3.14~2002. 8.23
고광남 2005. 3.28~현재

비상임이사

현승중 1993. 9.14~1996. 9.14
조철주 1993. 9.14~1996. 9.14
신계균 1993. 9.14~1996. 9.14
장세현 1993. 9.14~현재
장규찬 1996. 9.12~1998. 3.23
이정일 1996. 9.12~2000. 2.10
김영일 1997. 5.21~1997.12. 8
현소환 1996. 9.12~1997. 4.29
이봉래 1997.12.23~1998.10.26

최대용 1997.12.23~1998. 9.14
서사현 1998. 9.14~2000. 1.31
이경삼 1998.11. 2~1999. 7.15
최창걸 1999. 2. 2~2002. 3.26
박용엽 1999. 2. 2~1999. 3.22
박희송 1999. 2. 2~2001. 5.31
장병환 1999. 2. 2~2000. 2.18
안정호 1999. 2. 2~2001. 4. 4
강용식 1999. 3.26~1999. 9.12
김진성 1999. 8. 3~2002. 3.26
이수길 1999. 9.12~2001. 4. 4
정연동 2000. 3.10~2003. 3.28
노영달 2000. 3.10~2000. 8. 7
김재윤 2000. 3.10~현재
곽주영 2001. 3.14~2002. 3.26
이영태 2002. 3.26~2002.12.28
김진용 2002. 3.26~2003. 2.21
김종욱 2002. 3.26~2004. 9.15
나상기 2003. 3.28~2004. 3.26
김용섭 2003. 3.28~2004. 3.19
성성원 2004. 3.26~2005. 8. 2
김광일 2004. 3.26~2004. 9.15
박성목 2005. 3.28~현재
이상준 2005. 8. 2~현재

사외이사

송평성(사외) 2002. 3.26~2003. 3.28
조장호(사외) 2002. 3.26~2003. 3.28
이금용(사외) 2002. 3.26~2004. 3.26
우지숙(사외) 2003. 3.28~2005. 3.28
장병환(사외) 2004. 3.26~2005. 3.28
박종만(사외) 2004. 3.26~현재
박성주(사외) 2005. 3.28~현재
장지인(사외) 2005. 3.28~현재

고문

김무기 1993. 9.16~1996. 6.30

역대 간부사원

감사실

김해중 최대만

기획조정실

실장

이동근 윤태일 진상욱

기획팀장

박윤순 유종선 전무복 추은호 한영규

방송심의팀장

양현덕 오수학 강홍식

홍보팀장

전무복 김홍규 박득송 심창래 강홍식

기술연구소

소장

정명렬

경영관리국

국장

유종선

기획팀장

유종선 정윤기

총무부장

유종선 백동범 김홍규

(관리부장)

윤명기 유종선 전병모

인력관리팀장

전병모
재무회계팀장
신광호

방송행정팀장

최대만 김충산
보도국

국장

이대섭 이동근 고평남 김관상 강갑출

국장단

이동근 표철수 조봉환 이재희

취재부국장

고광남 이재희 신동윤 황성수 김 백

편집부국장

이재희 조봉환 진상욱 홍상표

제작부국장

배석규 황성수

영상부국장

이한상 남상규

편성운영팀장

박윤순 고평남 김영규 홍상표 유석현 최수호 전상신 한영규
류희림

기동취재팀·부장

김관상 문중선

정치부장

표철수 조봉환 고평남 강철원 홍상표 정영근 추은호

경제부장

정평국 주동원 고평남 배석규 김관상 김경한 문중선 김 백
이홍렬

사회1부장

이동근 김관상 김사모 신동윤 홍상표 진상욱 김 백 이홍렬
김익진

사회2부장(네트워크부장)

강갑출 윤천수 정영근 김 백 황성수 한영규 김승환 오수학

국제부장

김갑생 광중철 문재철 강갑출 양현덕 강철원 정영근 홍상표
윤두현 박성호

문화과학부장(문화산업부장)

김정연 이재희 주동원 강갑출 김사모 박감목 황성수 노복미
주동원 김 백 류희림 이홍렬 유석현 최수호

스포츠부장

박감목 최수호 천상규

해외방송팀장

김종술

뉴스편집부장

표철수 고평남 배석규 김관상 주동원 진상욱

편집1팀장

박득송 추은호 김익진 김승환

편집2팀장

류희림 김홍규 김익진 상수중

편집3팀장

김홍규 천상규 이귀영

스크롤뉴스팀장

상수중

앵커팀장

주동원 김호성 송경철 유석현

그래픽팀장

박성균 이대승

영상취재부장

황성규 이한상 남상규

영상취재팀장

임찬식 김재동 남상규 조용원

영상편집팀장

남상규 김재동 조성룡

영상특집팀장

홍문표 김재동

제작팀(부)장

김사모 주동원 김 백 최수호 김경한 류희림 황명수 윤두현

기술국

국장

강진이 박찬중

기술관리부장

유원용 장영길 박찬중 박종찬 이계성

디지털기획부장

전용화

제작기술부장

유원용 강진이 박찬중 박종찬 이계성 박중훈

중계부장

강진이 유원용 장영길 박찬중 박종찬 박중훈

미디어국

국장

강갑출 전무복 고평남 이한상 박득송 김관상

매체관리팀장

전병모 김운섭 김천석

문화사업팀장

전무복 이한상 백동범

해외사업팀장

윤종수

마케팅국

국장

공성만 조봉환 박감목 김관상

마케팅기획부장

심창래

마케팅1부장

김진희 이병균

마케팅2부장

이병균 안재열 김윤섭

마케팅3부장

김해중

(광고부장)

이훈표

정책기획팀

국장

이재희 김관상

팀(부장)

박성호 류희림

전략기획국

국장

박운순 고평남

팀장

박운순 박성호 황명수

영상제작단

단장

배석규 이동근

영상제작팀장

심창래

신규사업단

단장

조봉환 이동근

데이터정보실

실장

김사모 주동원

전산팀(부장)

박정한 전상신

제작국

국장

신동윤 김사모

편성심의실

실장

이재희 진상욱

사업국

국장

표철수

부장

김종욱 전무복 주동원

타위사업국

국장

조봉환 강갑출 고평남 이한상

관리부장

최일기

영업부장

전무복

역대 해외특파원

런던

신동윤 (1995. 7.20~1998. 9.27)

워싱턴

문재철 (1995. 7.20~1998. 9.27)

류희림 (1998. 9.28~2001.10.31)

배석규 (2001.11. 1~2004. 6. 7)

정영근 (2004. 4.30~현재)

북경

김승환 (2001. 1.11~2004. 2. 2)

김태현 (2004. 1.15~현재)

동경

김사모 (1995. 7.20~1998. 9.22)

박득송 (1998. 9.28~2002. 2.27)

강철원 (2002. 2.14~2005. 3. 1)

윤경민 (2005. 2.14~현재)

전주지국장

홍수기 (1995. 2. 4~현재)

제주지국장

오창수 (1996. 3.15~1998.11.16)

유종민 (2000. 1.28~현재)

창원지국장

최찬병 (1994.12. 9~1998. 9.27)

청주지국장

김태훈 (1995. 1.23~현재)

춘천지국장

홍영기 (1994.12.23~현재)

역대 국내 지국장

강릉지국장

정현교 (1995. 4. 7~현재)

광주지국장

이인배 (1996. 1.22~현재)

대구지국장

양현덕 (1996. 1.17~1997. 4.24)

채장수 (1999. 2.20~현재)

대전지국장

이광옥 (1995. 2. 6~2004. 6.28)

이정우 (2004. 7.12~현재)

부산지국장

유원우 (1995. 1.28~1998. 9.21)

최찬병 (1998. 9.28~2000. 1.18)

김인철 (2001. 4. 1~현재)

퇴직 임직원 명단

[1994년]

이우석 (방송기술국)	노홍식 (총무부)
박호진 (보도국)	김도중 (총무부)
오영순 (총무부)	서지현 (제작기술총괄부)
최 인 (총무부)	옥지선 (보도국)
이경호 (영상취재부)	조영희 (총무부)
류재권 (영상취재부)	이현주 (월드뉴스부)
홍종석 (영상취재부)	

[1995년]

홍승우 (보도국)	김동철 (제작기술총괄부)
홍준선 (총무부)	이기성 (기획제작총괄부)
박정근 (영상취재부)	이병태 (기획제작총괄부)
한복순 (월드뉴스부)	이재철 (월드뉴스부)
노홍식 (사회부)	강재환 (영상취재부)
장근선 (네트워크기술부)	강주연 (뉴스총괄부 · C/G)
권기동 (영상취재부)	연미정 (월드뉴스부)
이대섭 (보도국)	전현민 (제작기술총괄부)
정형숙 (네트워크 · 대구)	김은영 (영상취재부)
황은영 (뉴스총괄부)	홍춘기 (뉴스총괄부)
정필모 (정치부)	홍수민 (총무부)
이한상 (영상취재부)	김현정 (네트워크 · 수원)
이성구 (뉴스총괄부)	강권수 (영상취재부)
송지영 (뉴스총괄부 · C/G)	이지형 (뉴스총괄부)
이선영 (뉴스총괄부)	신동화 (네트워크부)
주재형 (네트워크기술부)	김갑진 (뉴스총괄부)
고원선 (월드뉴스부)	한창완 (뉴스총괄부)
손병희 (제작기술총괄부)	김경배 (영상취재부)
조성룡 (영상취재부)	김대웅 (뉴스총괄부)
김성환 (사회부)	권기현 (영상취재부)
정승희 (영상취재부)	서재정 (영상취재부)
양승희 (뉴스총괄부)	이덕순 (뉴스총괄부 · C/G)

[1996년]

김금심 (네트워크 · 광주)	유한석 (뉴스총괄부)
안현숙 (총무부)	주창범 (네트워크부)
이명재 (네트워크부)	유대식 (영상취재부)
유영애 (월드뉴스부)	박민선 (뉴스총괄부)
이익승 (네트워크 · 강릉)	서민수 (월드뉴스부)
이미경 (총무부)	신동진 (기동취재부)
이동희 (편성운영부)	이지향 (뉴스총괄부)
김영중 (뉴스총괄부)	백종호 (사회부)

최성민 (뉴스총괄부 · C/G)	황성규 (영상취재부)
한승혜 (뉴스총괄부)	최미진 (뉴스총괄부)
백남숙 (네트워크 · 청주)	백태길 (제작기술총괄부)
김영희 (총무부)	백재연 (월드뉴스부)
유태중 (뉴스총괄부)	천옥수 (네트워크 · 부산)
김정화 (영상취재부)	김무기 (방송기술국)
국경오 (기획제작총괄부)	이동림 (뉴스총괄부)
오성호 (월드뉴스부)	전기삼 (제작기술총괄부)
김성옥 (네트워크 · 춘천)	민재은 (보도국)
이현희 (월드뉴스부)	이주은 (월드뉴스부)
연미정 (월드뉴스부)	전종필 (영상취재부)

[1997년]

고성협 (총무부)	엄상준 (보도국)
강형철 (월드뉴스부)	이강철 (편성운영부)
김효원 (월드뉴스부)	박재우 (뉴스총괄부)
김인석 (제작기술총괄부)	최지영 (정치부)
장진경 (네트워크 · 춘천)	남상선 (영상취재부)
송미정 (총무부)	유강훈 (네트워크부)
박성은 (뉴스총괄부 · C/G)	지일우 (보도국)
윤 산 (네트워크 · 인천)	김일아 (영상취재부)
김갑생 (월드뉴스부)	박진수 (제작기술총괄부)
이동구 (뉴스총괄부)	정현기 (네트워크 · 부산)
최완규 (월드뉴스부)	이영민 (제작기술총괄부)
박미향 (네트워크 · 대전)	정성화 (영상취재부)
이원식 (영상취재부)	이정은 (뉴스총괄부)
장이천 (기술관리부)	김세기 (영상취재부)
차규남 (영상취재부)	이철희 (영상취재부)
구본승 (뉴스총괄부)	태경곤 (사회부)
박지영 (기술총괄부)	허숙희 (네트워크 · 춘천)
문경환 (네트워크 · 광주)	나은신 (월드뉴스부)
손인국 (월드뉴스부)	강영규 (제작기술총괄부)
이순예 (네트워크 · 전주)	김현경 (네트워크 · 광주)
이주원 (국제부)	오근영 (임원)
변덕수 (정치부)	

[1998년]

이명훈 (사회부)	이창숙 (월드뉴스부)
이재복 (영상취재부)	박종혁 (영상취재부)
이용현 (네트워크부)	황인정 (편성운영부)
전민정 (네트워크 · 광주)	조숙은 (뉴스총괄부 · C/G)
이준영 (기획부 · 전산)	이국향 (네트워크 · 강릉)
임덕순 (기획부)	김우경 (총무부)
지선영 (총무부)	김지원 (총무부)
장현정 (월드뉴스부)	유경미 (월드뉴스부)
정주년 (임원)	김정훈 (뉴스총괄부)

김도현 (뉴스총괄부 · C/G)
 김형남 (뉴스총괄부)
 박지영 (월드뉴스부)
 권은영 (월드뉴스부)
 조은정 (네트워크 · 수원)
 김재춘 (영상취재부)
 박윤순 (편성운영부)
 추승호 (기획취재총괄부)
 박신영 (뉴스총괄부 · C/G)
 이주나 (뉴스총괄부)
 편상욱 (뉴스총괄부)
 안착히 (뉴스총괄부)
 이선영 (총무부)
 최희정 (총무부)
 이주현 (영상제작1팀)
 백수하 (사회부)
 김 문 (사회부 · 대전팀)
 주유진 (사회부 · 네트워크팀)
 장선아 (기술총괄부)
 김봉주 (기술총괄부)
 이승호 (영상취재부)
 최두현 (편성운영팀)
 김우정 (네트워크기술부)
 정미자 (사회부)
 김춘선 (뉴스총괄부)
 심이슬 (뉴스총괄부)
 박상현 (뉴스총괄부)
 정수현 (영상취재부)
 김영우 (문화 · 스포츠부)
 안정민 (사회부 · 부산팀)
 장문희 (사회부 · 제주팀)
 정희택 (사회부 · 부산팀)
 김도경 (국제부)
 김한성 (전산팀)
 차성환 (기술총괄부)
 박성호 (뉴스총괄부 · C/G)
 백충규 (네트워크기술부)

[1999년]

손동열 (뉴스총괄부)
 이동진 (전산팀)
 고석진 (전산팀)
 권혜미 (영상취재부)
 장명국 (임원)
 서병일 (국제부)
 임찬식 (영상취재부)

정은숙 (월드뉴스부)
 이승주 (총무부)
 하수미 (뉴스총괄부)
 이지연 (월드뉴스부)
 박종근 (네트워크 · 전주)
 임연희 (네트워크 · 춘천)
 이창복 (뉴스총괄부)
 송연석 (월드뉴스부)
 이규정 (편성운영부)
 이홍갑 (경제부)
 김우희 (네트워크 · 대구)
 하태수 (영상취재부)
 유원우 (네트워크 · 부산)
 신동식 (총무팀)
 정윤기 (총무팀)
 안주영 (기획부)
 이승철 (편성운영팀)
 최문선 (네트워크 · 전주)
 이두영 (기술총괄부)
 권영화 (총무팀)
 박봉균 (편성운영팀)
 황인태 (편성운영팀)
 서선희 (뉴스총괄부)
 반현주 (뉴스총괄부)
 주진영 (기획제작팀)
 황복희 (뉴스총괄부)
 하성욱 (사회부)
 김의석 (기획제작팀)
 강유종 (사회부)
 정현희 (사회부 · 대구팀)
 장숙현 (사회부 · 청주팀)
 최성균 (기술총괄부)
 오창수 (사회부 · 제주팀)
 남궁은 (영상취재부)
 이종석 (사회부 · 전주팀)
 이현정 (편성운영팀)

박승철 (사회부)
 광중철 (국제부)
 유현주 (국제부 · 국제마케팅팀)
 조문기 (정보과학부)
 윤태일 (기획조정실)
 김한욱 (정보과학부)
 안치용 (사회부 · 부산팀)

임경현 (국제부)

[2000년]

문재철 (국제부)
 박형철 (국제부)
 오동진 (문화산업부)
 이철균 (보도본부)
 이훈표 (기획조정실)
 안근모 (기획제작부)
 김진아 (경제2부)
 황웅주 (타워사업본부)
 송현욱 (스포츠부)
 민경호 (타워사업본부)
 심은숙 (뉴스편집부)
 이성섭 (사회부)
 이광재 (타워사업본부)
 정광철 (보도본부)
 이종수 (타워사업본부)
 권기수 (타워사업본부)
 최영재 (국제부)
 최광희 (스포츠부)
 강수연 (정치부)
 김종욱 (뉴미디어팀)
 손성동 (뉴스총괄부)
 윤천수 (문화산업부)
 권혜란 (타워사업본부)
 허무호 (사회부)
 김성희 (타워사업국)

[2001년]

이희승 (데이터정보실)
 양수남 (타워사업본부)
 함영미 (타워사업본부)
 이혜지 (타워사업본부)
 이동근 (보도본부)
 함상용 (영상제작팀)
 이원광 (기획제작부)
 나희숙 (데이터정보실)
 안주영 (정보과학부)
 김창호 (영상취재부)
 한현정 (데이터정보실)
 최남수 (보도본부)
 김정해 (총무부)
 조경희 (타워사업본부)
 조정기 (타워사업본부)
 김정례 (데이터정보실)

장두중 (사업2부)

최찬병 (기획조정실)
 천형석 (정치부)
 홍종기 (경제1부)
 노경완 (기획제작부)
 지정윤 (영상취재부)
 박현운 (사회부 · 부산팀)
 함석원 (타워사업본부)
 이용선 (타워사업본부)
 김윤철 (기획제작부)
 최희영 (정치부)
 최대식 (사회부)
 김영택 (타워사업본부)
 지숙영 (영상취재부)
 박경희 (타워사업본부)
 김소영 (뉴스총괄부)
 김성호 (뉴스편집부 · C/G팀)
 김혜영 (타워사업본부)
 진선미 (타워사업본부)
 표철수 (미디어본부)
 김 호 (뉴스편집부)
 신중구 (총무부)
 정윤진 (영상취재부)
 이선희 (데이터정보실)
 안형준 (정치부)

최윤호 (타워사업본부)
 신영민 (타워사업본부)
 김영규 (문화산업부)
 김지윤 (뉴스총괄부)
 안옥희 (마케팅본부)
 여현주 (타워사업본부)
 김웅진 (뉴스편집부)
 김영성 (타워사업본부)
 이지은 (뉴스편집부)
 손재일 (영상취재부)
 김제덕 (타워사업본부)
 서혜선 (경제2부)
 진동열 (타워사업본부)
 배재용 (총무부)
 김동철 (타워사업본부)
 공성만 (임원)

안병익 (기획제작부)
 강진이 (기술본부)
 강선희 (총무팀)
 용원식 (데이터정보실)

박동환 (사회부 · 춘천팀)
 김영래 (총무부)
 박영수 (제작기술부)

홍지윤 (국제부)
 강성순 (타워사업국)
 조현진 (편집1팀)
 주현득 (매체관리팀)
 전상신 (스크롤뉴스팀)
 남규덕 (타워사업국)
 임경덕 (타워사업국)
 채귀석 (타워사업국)
 윤석영 (타워사업국)
 김혜미 (선거방송팀)
 배석규 (위싱턴지국)
 송종원 (타워사업국)
 문준식 (타워사업국)
 김진희 (마케팅1부)
 최미영 (마케팅1부)
 현지연 (국제부)
 한미정 (마케팅2부)

윤석영 (타워사업국)
 김명희 (국제부)
 노복미 (보도국)
 김광일 (임원)
 박희석 (타워사업국)
 장희봉 (타워사업국)
 김충일 (타워사업국)
 강성순 (타워사업국)
 김영준 (총무부)
 방태영 (편집2팀)
 박운순 (전략기획국)
 이광옥 (대전지국)
 조현봉 (총무부)
 정현교 (강릉지국)
 오병인 (타워사업국)
 전범석 (해외사업팀)
 신경희 (편집2팀)

[2002년]

정재훈 (총무부)
 엄연경 (영상취재부)
 송선하 (디지털뉴스팀)
 양현덕 (방송심의부)
 최종걸 (강릉지국)
 손준모 (사회1부)
 최현성 (타워사업국)
 김승용 (영상취재부)
 김광기 (타워사업국)
 박은주 (국제부)
 조병혁 (타워사업본부)
 왕지선 (국제부)
 조왕섭 (타워사업본부)
 유은정 (타워사업본부)

정영아 (방송심의부)
 김정현 (뉴스편집부)
 유지학 (타워사업국)
 정황수 (타워사업국)
 광상국 (경영관리국)
 채선애 (마케팅2부)
 양기영 (총무부)
 이덕형 (정책기획팀)
 추봉석 (데이터정보실)
 이장운 (타워사업국)
 이동화 (타워사업본부)
 김수연 (타워사업본부)
 최아람 (사회1부)
 김혜경 (데이터정보실)

[2005년]

권선희 (국제부)
 조미선 (편집1팀)
 차윤조 (국제부)
 남원호 (타워운영부)
 오종호 (해외사업팀)
 김현우 (기획팀)

김 옥 (보도국)
 최수지 (영상편집팀)
 고광남 (전략기획국)
 윤현윤 (타워운영부)
 박마영 (타워운영부)

[2003년]

박상원 (타워사업본부)
 송미정 (국제부)
 강수진 (앵커팀)
 장희봉 (타워사업국)
 임경덕 (타워사업국)
 강소영 (국제부)
 강혜정 (디지털뉴스팀)
 위세원 (타워사업국)
 김도현 (문화사업팀)
 나보균 (디지털뉴스팀)
 박희운 (디지털뉴스팀)
 이정애 (디지털뉴스팀)
 정성대 (총무부)
 이윤경 (국제부)
 최진욱 (기술국)
 이영욱 (총무부)
 김광호 (총무부)
 정인실 (총무부)
 심재국 (총무부)
 최덕수 (국제부)
 이원중 (타워사업국)
 서동일 (타워사업국)

김윤수 (사회1부)
 우성호 (영상취재부)
 박희석 (타워사업국)
 남규덕 (타워사업국)
 황현주 (디지털뉴스팀)
 김혜진 (편집3팀)
 백인호 (임원)
 김경한 (제작2팀)
 이승연 (디지털뉴스팀)
 이길호 (디지털뉴스팀)
 구경순 (디지털뉴스팀)
 박주영 (디지털뉴스팀)
 배철형 (총무부)
 김충일 (타워사업국)
 장영길 (기술관리부)
 최영운 (편집3팀)
 채귀석 (타워사업국)
 이동근 (임원)
 이민호 (타워사업국)
 황광모 (영상취재부)
 임선혜 (국제부)
 최상덕 (타워사업국)

[2004년]

현 임직원 명단 (2005. 6.30 현재)

임원

대표이사 사장	표완수
상임감사	김희중
전무이사(마케팅 담당)	이두표
상무이사	고광남

감사실

부장	최대만
----	-----

기획조정실

	실장직대	부국장	진상욱
	사사편찬위원	이사대우	조봉환
		부국장대우	이재희
기획팀	팀장	부장대우	강철원
	사원		한영규
방송심의팀	팀장	차장	유환홍
	방송심의위원	국장대우	강홍식
	차장대우		이한상
	사원		홍성보
홍보팀	팀장	차장	이영미
	차장대우		강홍식
			민병호

기술연구소

	소장직대	부장	정명렬
	차장대우		송진욱
	사원		김재학

경영관리국

	국장	국장대우	유종선
	사원	신현민 장병일	김선미 김솔희
총무부	부장		김홍규
	부장대우		안재열
	차장대우		나은수
	사원	이중섭 정미순 서영진	최재일
		강경심 최동숙 안이택	서민원

사원	이광범 이용석 박종무 장혜려
임원	김갑재
타워운영부	부장
	부국장대우
	전무복
	최일기

사원	김대천 이선희 장태만 이근영
	차원석 한은규 이재용 성유경
	윤석화 이현정 박현욱 이보근
	김성수 이철규 남혁우 현정현
	박 영 박홍규 이동수 김인욱
	김명열 김범래 윤승중 민부기
	노상수 고삼영 김봉덕 노재영
	김대원 하태완 김훈기 박봉수
	최애란 김희석 하응태 김영은
	윤 현 최병복 이영훈 김재중
	김재홍 김운순 장세창 이정형
	백영수 김상도 김진웅 이형규

인력관리팀	팀장	부국장대우	전병모
	차장대우		김환명
	사원	김한성 황지영 조남규	최유석

재무회계팀	팀장	차장	신광호
	사원	심종남 박진언 김은주	
방송행정팀	팀장	사원	김충산
	사원		박복순

보도국

국장		강갑출	
대기자	부국장	주동원	
		박갑목	
방송위원		신동윤	
취재담당 부국장		김 백	
편집담당 부국장	부국장대우	홍상표	
제작담당 부국장	부국장	황성수	
영상담당 부국장	부국장대우	남상규	
해외연수	차장	이재윤	
	사원	호준석 정찬배	
사원	강덕천 서정호 고한석	권준기	
	이만수 김석순 이승운	전준형	
	김종호 이강진 고재형	강영관	
	곽영주 이상은 원인식	최지환	
	우영택 박종혁 구수분	이선아	
	이지은		
편성운영팀	팀장	부장	류희림
	차장대우		권오진
	사원	정동균 윤진완 박만희	이용구

기동취재팀	사원	신성원	장석문	안광연	김형보	청주지국	사원	김민	김기면	충원지국	차장대우	최정호						
	팀장		부장대우	문중선	문중선		지국장		부국장대우		김태훈	차장대우	김동우	유형식				
	차장대우			임수근	임수근		사원					사원						
	사원	김동민	이강문	임장혁	장민수		장민수	차장대우				차장대우						
정치부	부장		부장대우	추은호	추은호	춘천지국	사원			국제부	부장	최영주						
	차장	김형근	채문석	박병한	박병한		지국장		부국장대우		홍영기	차장대우						
	차장대우	김응건	유재복	이동우	유재웅		차장대우				진민호	사원						
	사원	홍성혁	김종균	정재훈	김호준		김호준	부장				박성호	차장대우	송태엽				
경제부	부장			이홍렬	이홍렬	동경지국	사원	왕선택	이승훈	최기훈	김선희	북경지국	지국장		차장대우	김태현		
	차장	이양현	송경철	황선욱	황선욱		차장대우							지국장		부장	정영근	
	차장대우			김진호	김진호		사원	신현준	임종주	김성환	김잔디		김잔디	위싱턴지국	지국장			최수호
	사원	김진우	김용섭	오점곤	현덕수		현덕수	김현수	임갑현	임현철	강성아		강성아	문화과학부	부장			
사회1부	부장		부장대우	김익진	김익진	문화과학부	차장대우	우장균	이종수			스포츠부	부장직대		차장	천상규		
	차장	김장하	김호성	임종열	임종열		사원	김진두	김문경	김지영	김정희		부장직대		차장	정종석		
	차장대우	정석영	김학무				사원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대우					
	사원	이광엽	최재민	김주환	이교준		이교준	한민정	이상지	정혜윤	한민정		한민정	부장				
사회2부	부장			김익진	김익진	스포츠부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해외방송팀	팀장		부장대우	김종술		
	차장	김장하	김호성	임종열	임종열		부장						팀장		부장대우	김종술		
	차장대우	정석영	김학무				차장대우	우장균	이종수				사원	조승희	조민철			
	사원	이재홍	박희천	김승재	권영희		권영희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사원	김상익	최동호	이경재	서봉국	
강릉지국	부장			김익진	김익진	해외방송팀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편집1팀	팀장		부장	김승환		
	차장	김장하	김호성	임종열	임종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					
	차장대우	정석영	김학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대우					
	사원	이재홍	박희천	김승재	권영희		권영희	한민정	이상지	정혜윤	한민정		차장대우					
광주지국	부장			김익진	김익진	편집1팀	사원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편집2팀	팀장		차장	상수종		
	차장	김장하	김호성	임종열	임종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	김상우	박근표			
	차장대우	정석영	김학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대우	방병삼	원경태			
	사원	이재홍	박희천	김승재	권영희		권영희	한민정	이상지	정혜윤	한민정		차장대우	방병삼	원경태			
대구지국	부장			김익진	김익진	편집2팀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편집3팀	팀장		부장대우	이귀영		
	차장	김장하	김호성	임종열	임종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대우					
	차장대우	정석영	김학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대우					
	사원	이재홍	박희천	김승재	권영희		권영희	한민정	이상지	정혜윤	한민정		차장대우					
대전지국	부장			김익진	김익진	편집3팀	사원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제주지국	지국장		차장	유종민		
	차장	김장하	김호성	임종열	임종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지국장		차장	유종민		
	차장대우	정석영	김학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대우					
	사원	이재홍	박희천	김승재	권영희		권영희	한민정	이상지	정혜윤	한민정		차장대우					
부산지국	부장			김익진	김익진	제주지국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제주지국	지국장		차장	유종민		
	차장	김장하	김호성	임종열	임종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지국장		차장	유종민		
	차장대우	정석영	김학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대우					
	사원	이재홍	박희천	김승재	권영희		권영희	한민정	이상지	정혜윤	한민정		차장대우					
전주지국	부장			김익진	김익진	제주지국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제주지국	지국장		차장	유종민		
	차장	김장하	김호성	임종열	임종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지국장		차장	유종민		
	차장대우	정석영	김학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대우					
	사원	이재홍	박희천	김승재	권영희		권영희	한민정	이상지	정혜윤	한민정		차장대우					
제주지국	부장			김익진	김익진	제주지국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제주지국	지국장		차장	유종민		
	차장	김장하	김호성	임종열	임종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지국장		차장	유종민		
	차장대우	정석영	김학무				차장대우	이승은	이경아	한상욱	김지현		차장대우					
	사원	이재홍	박희천	김승재	권영희		권영희	한민정	이상지	정혜윤	한민정		차장대우					

스크롤뉴스팀		국장대우	김사모
		부국장대우	박득송
앵커팀	팀장	부장	유석현
	사원	김영수	노종면 유현주 정애숙
		유투권	박영진 성문규 박신윤
		전현무	김미선 김선영 윤재희
		이승민	
그래픽팀	팀장	부장	이대승
	방송위원	부국장대우	박성균
	차장대우		서영석
	사원	정지원	이준호 범희철 손영범
		오재영	변재철 기내경 최재용
		김윤희	손동열 유영준 김진호
		배형민	민재영 노선숙 장 신
		김은주	김지애
영상취재팀	팀장	부장대우	조용원
	부장대우	홍문표	이철용
	차장	조항윤	백선기
	차장대우	이화용	김진석 이문세 이광래
		윤성수	김영옥 한원상 원영빈
	사원	최준영	김대경 정희인 이동형
		김정한	김인규 이성모 서승철
		최계영	오유철 김윤석 박민양
		성도현	원종호 이승환 김태운
		염덕선	고민철 박진수 강제환
		최용호	권한주 권석재 박정호
		김태형	박관우 김정원 윤원식
		정철우	이동규 이 승
영상편집팀	팀장	부장대우	조성룡
	사원	하성준	강근배 김학묵 장명호
		나경환	유영식 최영욱 최윤석
		한언심	이영훈 김빈나 손준수
		김정섭	이규용 진성훈 김하늘
		김지연	강태식 이주현 노일환
영상특집팀	팀장	부장	김재동
	차장대우		염해진
	사원	권혁용	양준모 노옥상 김종완
제작팀	팀장	부장대우	윤두현
	차장	이기정	이재철 박상남
	사원	한정호	황보선 김신영 최명신

기술국

국장	국장대우	박찬중
방송위원	부장급	박정한

기술관리부	사원	송병준	홍도영	이은영
	부장		부국장대우	이계성
	차장			이성호
	차장대우			김태동
	사원	유화성	김형욱	정해봉 이재우
		김세명		
디지털기획부	부장		부장대우	전용화
	차장			김정대
	사원	박형일	최경순	강계현 김진국
		이상무	신은영	안용교 방홍식
제작기술부	부장		부장대우	박중훈
	차장	김용구	이창준	
	차장대우	이건선	임준석	최광탁 정창원
		문석호	이광희	김성태 김성열
		최병관	김동후	
	사원	이승우	서대원	주윤영 최상섭
		유근민	이현직	김한철 이병문
		배경호	김한수	이덕희 정성욱
		강희택	장승욱	박현찬 박치훈
		양태열	조상현	이상경 이기주
		최광희	김태우	김용수 정광웅
		이성호	정경남	이정우 송기섭
		이상천	이영재	전재성 권혁근
		이규일	전봉규	정원태 김재탁
		문정훈	김형식	박경준 한철욱
		최병수	이경준	김영호 김자영
		유제동	현용국	최영훈 남궁세은
		박형건	이승환	임세혁
중계부	부장		부국장대우	박종찬
	차장	허창재	김영철	
	차장대우	방을열	정진용	오광식 김진호
		민병오		
	사원	박종대	오민철	백영선 박선우
		김해열	이기래	기호균 서홍수
		조주현	김민태	강기찬 박두만
		김용영	박경태	홍덕태

미디어국

매체관리팀	국장		김관상
	팀장		김천석
	차장대우		최성호
	사원	백상기	김익현 인호연
문화사업팀	팀장		부국장대우
	부장		
			백승하
			백동범
			이병균

해외사업팀
 차장 한상규
 사원 박기용 이동열 홍혜주 하정완
 팀장 차장 윤종수
 차장대우 이종국

마케팅2부
 부장 김윤섭
 사원 김연기 지민근곽세윤 김선기
 안성훈
 마케팅3부
 부장직대 차장 김해중
 사원 장훈희 남궁용 황의엽 정기호
 성명현

마케팅국

마케팅기획부
 부장 심창래
 사원 정태걸 김남식 이승주 김호석
 이석제 김규남 김시현 이병우
 송영경 김혜진
 마케팅1부
 부장 김진희
 부장대우 심재영
 차장 설명수
 사원 김명섭 한경임 김성운

YTN DMB

총괄부장 황명수
 팀장 차장 신광호
 팀장 차장 이동현
 팀장 차장대우 박철원
 팀장 차장대우 기정훈
 팀장 부장대우 임영선

연도별 인원 현황

구분	일반직	전문직	용역	계
1993년말	5	2		7
1994년말	263	7		270
1995년말	440	67	101	608
1996년말	497	79	121	697
1997년말	499	69	120	688
1998년말	450	29	61	540
1999년말	440	28	35	503
2000년말	437	134	55	626
2001년말	453	125	81	659
2002년말	452	125	80	657
2003년말	462	132	109	703
2004년말	456	128	133	717
2005년 6월	486	134	115	735

조직개편 개관

1997. 4.16 현재 2국 17부 26개팀(지방12팀 포함)을 2국 1실 15부 15개팀(지방12팀 포함)으로 조정

폐지 : 기동취재부 방송전산부 기술관리부 기동취재부는 기획취재총괄부로 업무 이관, 방송전산부와 기술관리부는 팀으로 조정

13개팀 폐지 내용 : 뉴스총괄부의 뉴스1팀 뉴스2팀, 기동취재부의 기획팀, 월드뉴스부의 프로그램 제작팀, 영상취재부의 취재팀, 제작기술총괄부의 기술1팀 기술2팀, 네트워크기술부의 중계기술팀 현업팀, 기술관리부의 장비팀 행정팀, 총무부의 총무팀 경리팀

신설 : 연합통신의 광고업무 인수로 광고부 신설

1998. 9.21 제2창사 실현 위해 기구 개편

1. 「영상 마케팅 사업단」과 「신규 사업단」 설치
2. 보도국

가. 「보도국장단」 설치

나. 개편부서

- 편성운영부 → 편성운영팀
- 기획취재총괄부 → 기획제작팀
- 네트워크부 → 네트워크팀(사회부 소속)
- 창원팀을 부산팀에 흡수
- 수원팀 · 인천팀을 본사에 흡수
- 월드뉴스부 → 국제부로 명칭 변경

다. 보도국은 뉴스총괄부와 C.G팀 · 편성운영팀 · 기획제작팀, 정치부 · 경제부 · 사회부와 네트워크팀 · 건강팀, 문화스포츠부, 국제부와 국제마케팅팀, 영상취재부로 구성

3. 기획조정실은 총무팀 기획팀 전산팀 홍보팀 영상제작팀으로 구성

1999. 3. 3 신설 : 보도국 생활과학부

승격 : 보도국 기획제작팀 → 보도국 기획제작부

폐지 : 보도국 사회부 건강팀

명칭변경 : 영상제작 1·2팀 → 영상마케팅 1·2팀

1999. 8.23 현재 1실 3단 2국 → 1실 4본부체제로 재편

폐지 : 신규사업단 영상마케팅사업단 보도국장단

재편 : 기획조정실 보도본부 기술본부 영업본부 사업본부

기획조정실내의 영업 및 사업업무를 분리시켜 영업본

부 및 사업본부로 업무를 이관

기획조정실내 전산팀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방송전산은 기술본부로, 행정전산은 기획관리부로, 인터넷 · 동영상 · 문자서비스 부문은 사업본부로 업무를 조정

세부 내역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내의 「팀」을 「부」로 재편하여 업무를 조정

업무재편 : 총무팀 기획팀 → 기획관리부 총무부

폐지 : 전산팀

신설 : 시청자부(홍보, 시청자위원회관리, PP · SO 업무, 여론조사업무)

〈보도본부〉

명칭변경

뉴스총괄부 → 뉴스편집부

정보과학부 → 경제2부

네트워크부 → 사회2부

조정 : 편성운영팀을 기획제작부 소속으로

폐지 : 국제부의 국제마케팅팀 : 사업부로 업무 이관

〈기술본부〉

2부 1팀을 3부로 재편

기술총괄부 → 제작기술부

장비관리팀 → 기술관리부

네트워크기술부 → 중계부

〈영업본부〉

기획조정실내의 홍보팀을 분리하여 재편

광고1부, 광고2부 : 기존의 홍보팀(광고기획 · 관리 · 편집 · 수금)

〈사업본부〉

기획조정실내의 사업업무를 분리하여 재편

사업1부 : 기존의 영상마케팅1·2팀을 통합(영상제작 · 영상사업)

사업2부(신설) : 인터넷 · 문자 서비스 · ARS사업 등 신규사업

2000. 1.18 1. 신설 : 보도본부 특집팀

2. 승격 : 보도본부 편성운영팀 → 보도본부 편성운영부

3. 분리 : 보도본부 문화스포츠부 → 보도본부 문화사업부 · 스포츠부

4. 「방송위원」 제도를 둠

2000. 4. 1 타워 사업본부 신설 : 서울타워 인수

타워 사업본부 내에 관리팀 시설팀 보안팀 영업팀 구성

2000. 9. 1
1. 사장 직속으로 「방송정책팀」 신설
 2. 기획조정실의 전산부, 사업 본부의 인터넷팀, 영상취재부의 영상자료실 업무를 통합하는 「데이터 정보실」을 보도본부 내에 신설
 3. 보도본부에 「담당 부국장제」를 도입하고 통일외교팀을 신설
 4. 북경특파원 신설
 5. 영업본부를 「마케팅 본부」로 명칭을 변경
 6. 사업본부를 「미디어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뉴미디어팀, 방송사업 업무와 기획조정실의 시청자부 업무의 일부(PP, SO)를 담당하는 방송사업팀 영상제작팀을 둬

- 2001.10.18
1. 각 「본부」를 없애고 「국」으로 재편
 2. 신설 및 폐지
신설
편성심의실 : 방송정책팀에서 수행하던 심의+시청자 위원회 업무
보도국 「편성운영부」 업무를 수행
정책기획팀 : 위성방송, FM, 사옥 등 회사의 모든 정책을 담당, 기획
대내 · 외 홍보업무 수행
타위사업국 관리부 영업부
현재는 관리팀 시설팀 보안팀 영업팀으로 구성돼 있음
폐지 : 방송정책팀
 3. 명칭변경 및 재편
명칭변경
기획조정실을 경영관리국으로 명칭 변경(기존 업무 수행)
기획관리부를 인사관리부로 명칭 변경
뉴스편집부 CG팀을 뉴스편집부 그래픽팀으로 명칭 변경
재편
정치부와 통일외교팀을 통합
보도본부 데이터정보실을 보도국 데이터정보실로 변경

2001.11. 3 영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상제작단」 신설
업무 : 기존의 「영상 제작팀」 업무

2002. 2. 1 사회2부 각 지역팀 → 사회2부 각 지국으로 명칭 변경

2003. 1.30 조직변경 : 1실 1단 8국 24부 7팀 → 1실 7국 20부 14팀

2003. 8.20 신규사업 및 사옥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승격 : 「전략기획팀」을 「전략기획국」으로 승격.
신설 : 「전략기획국」내에 DMB추진팀 중국사업추진팀 사옥추진팀

2004. 2. 3 조직변경 : 1실 8국 20부 14팀 → 1실 8국 20부 18팀
1. 신설
전략기획국 기획팀, 보도국 기동취재팀 · 스크롤뉴스팀, 경영관리국 보도행정팀, 미디어국 해외방송팀
 2. 폐지
보도국 디지털뉴스팀, 미디어국 영상제작팀
 3. 업무분장 변경
전략기획국 중국사업팀 → 미디어국 중국사업팀으로 업무 이관
마케팅국 광고운행은 마케팅 1부에 업무분장
미디어국 영상제작팀 업무는 마케팅국 마케팅 2부에 업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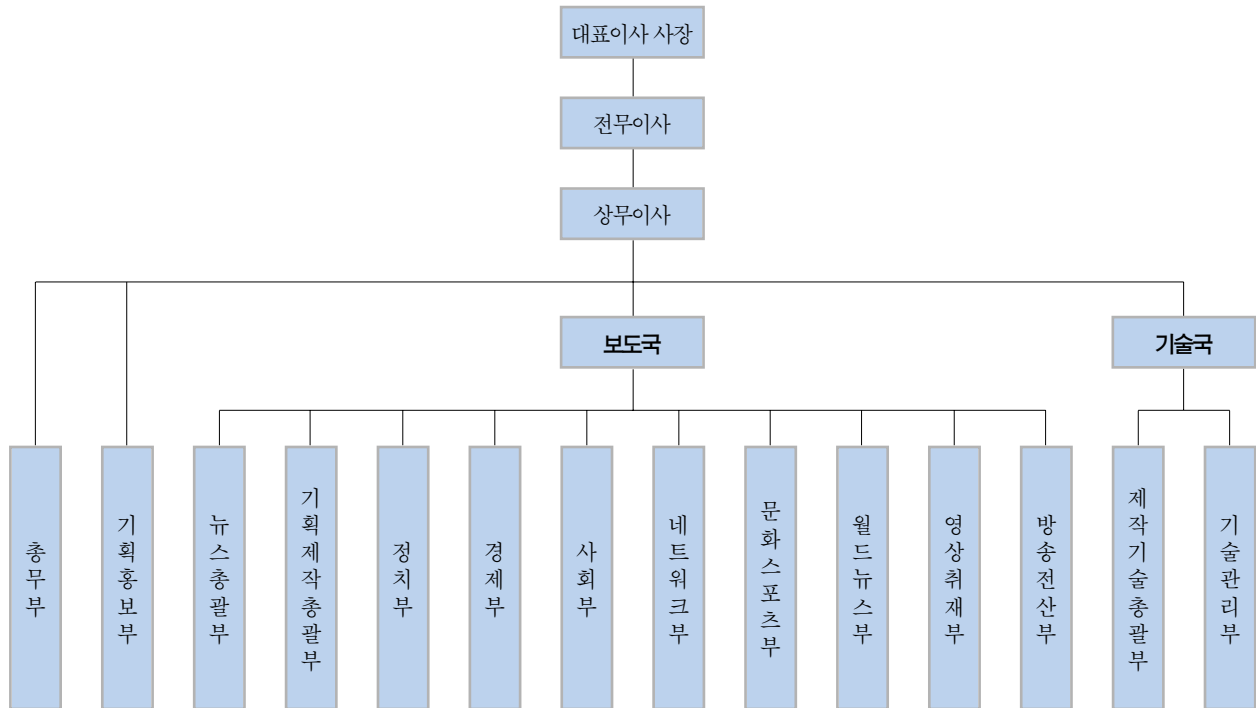
- 2004.10.25 조직변경 : 1실 8국 20부 18팀 → 2실 8국 19부 20팀
1. 신설
감사실(5.17자)
보도국 영상취재팀 영상편집팀
 2. 폐지 : 보도국 영상취재부
 3. 명칭변경
보도국 특집영상팀 → 영상특집팀
미디어국 중국사업팀 → 해외사업팀

2005. 4. 4
1. 신설
기술연구소
경영관리국에 타위운영부, 인력관리팀 재무회계팀을 신설
마케팅국에 마케팅기획부 마케팅3부를 신설
 2. 폐지
편성심의실, 제작국, 타위사업국(영업부 관리부) DMB추진팀, 기획관리부
 3. 업무조정
전략기획국을 기획조정실로 변경 운영
편성심의실의 방송 심의팀 · 홍보팀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이관
편성운영팀은 보도국 직속으로 함
제작국의 제작1 · 2팀을 제작팀으로 통합, 보도국으로 이관
미디어국의 해외방송팀 업무 중 제작은 보도국, 송출은 기술국, 사업은 해외사업팀으로 이관

기구 변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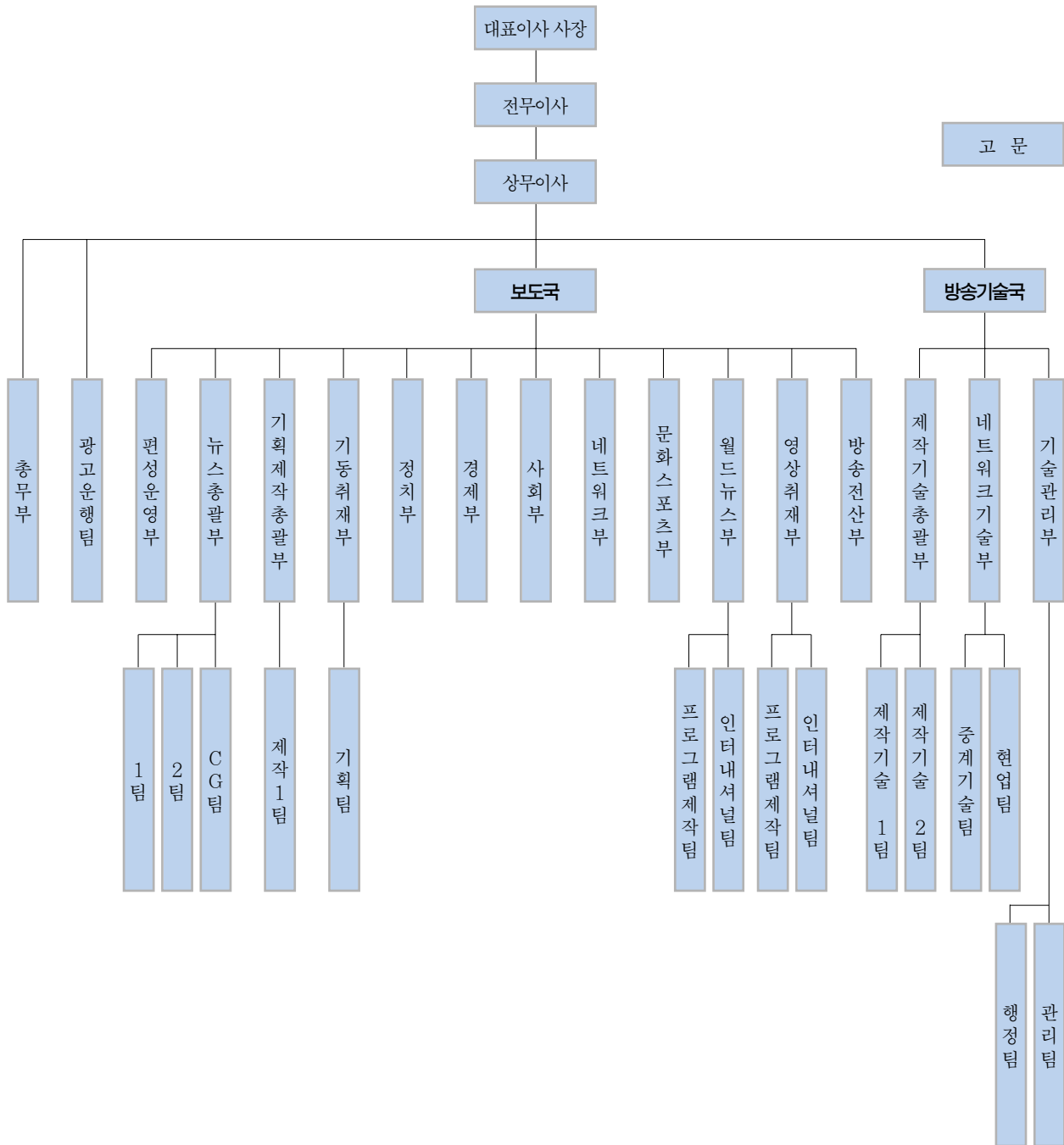
YTN 첫 기구표 (1993. 9. 24)

조직 : 5개 실 · 국 20개 부
인력 : 3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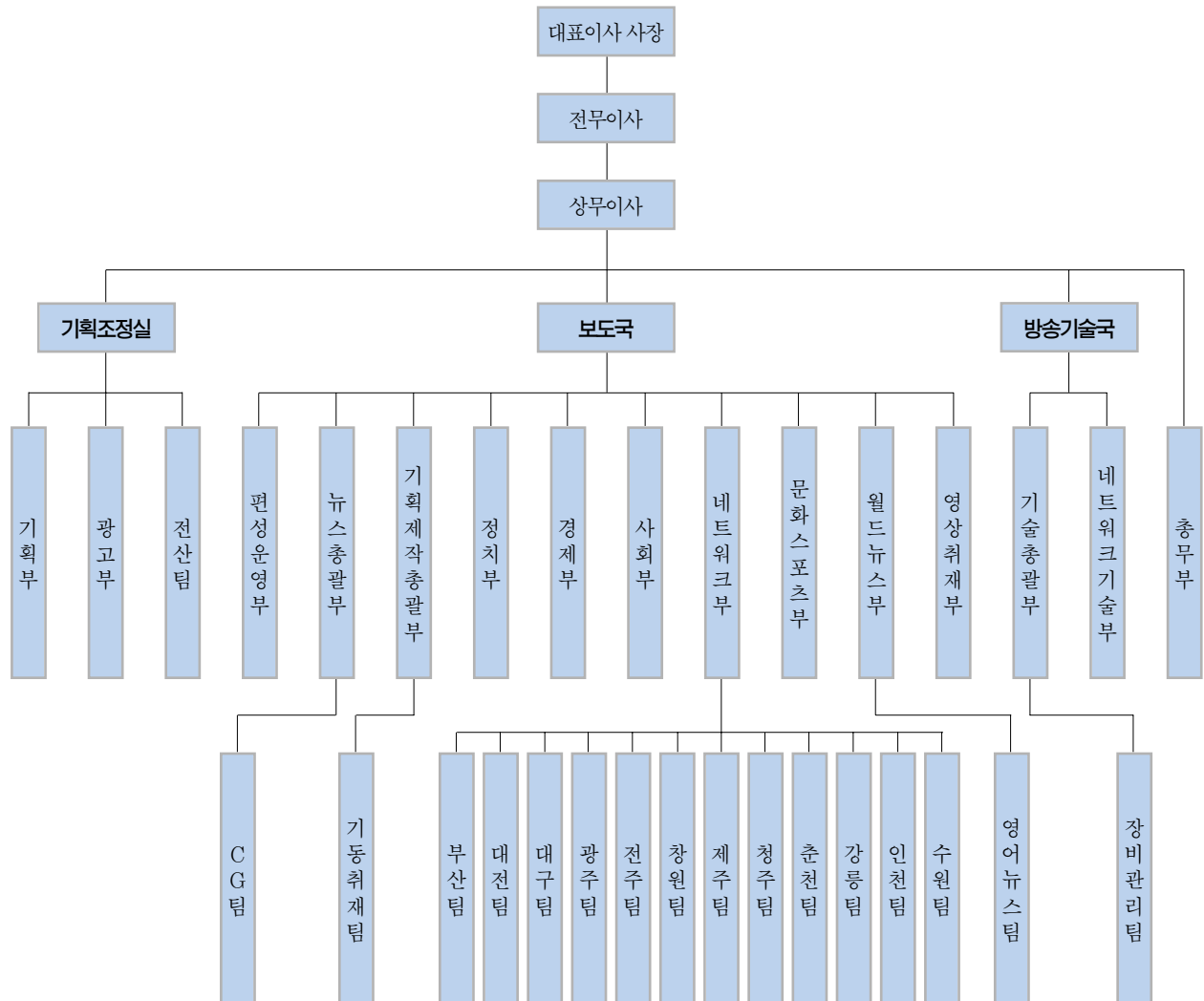
개국 기구표 (1995. 3. 1)

YTN 개국 기구
 인력 : 679명(정규직 496명)
 고문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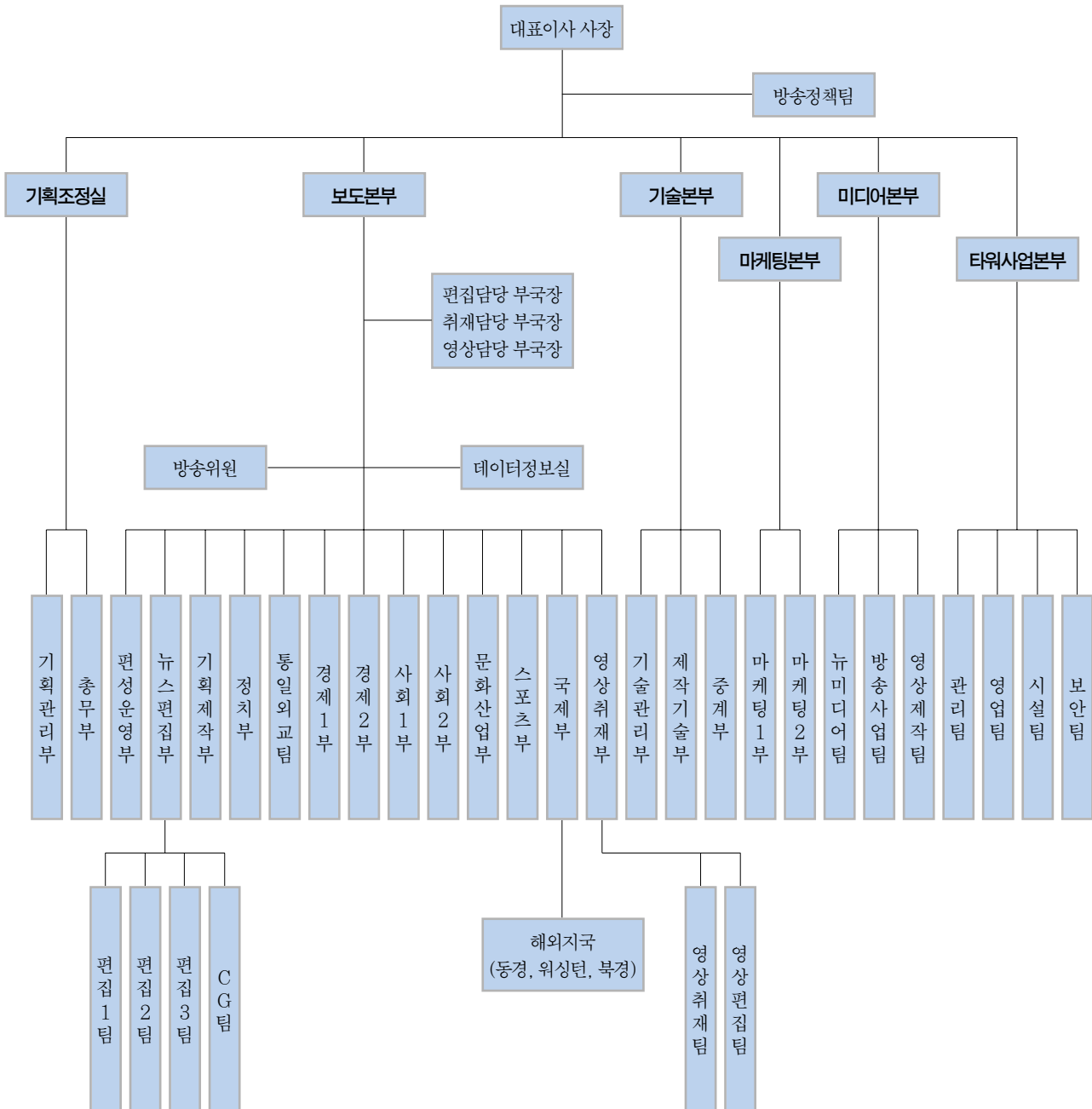
기구표 (1997. 4. 16)

조직 : 2국 1실 15개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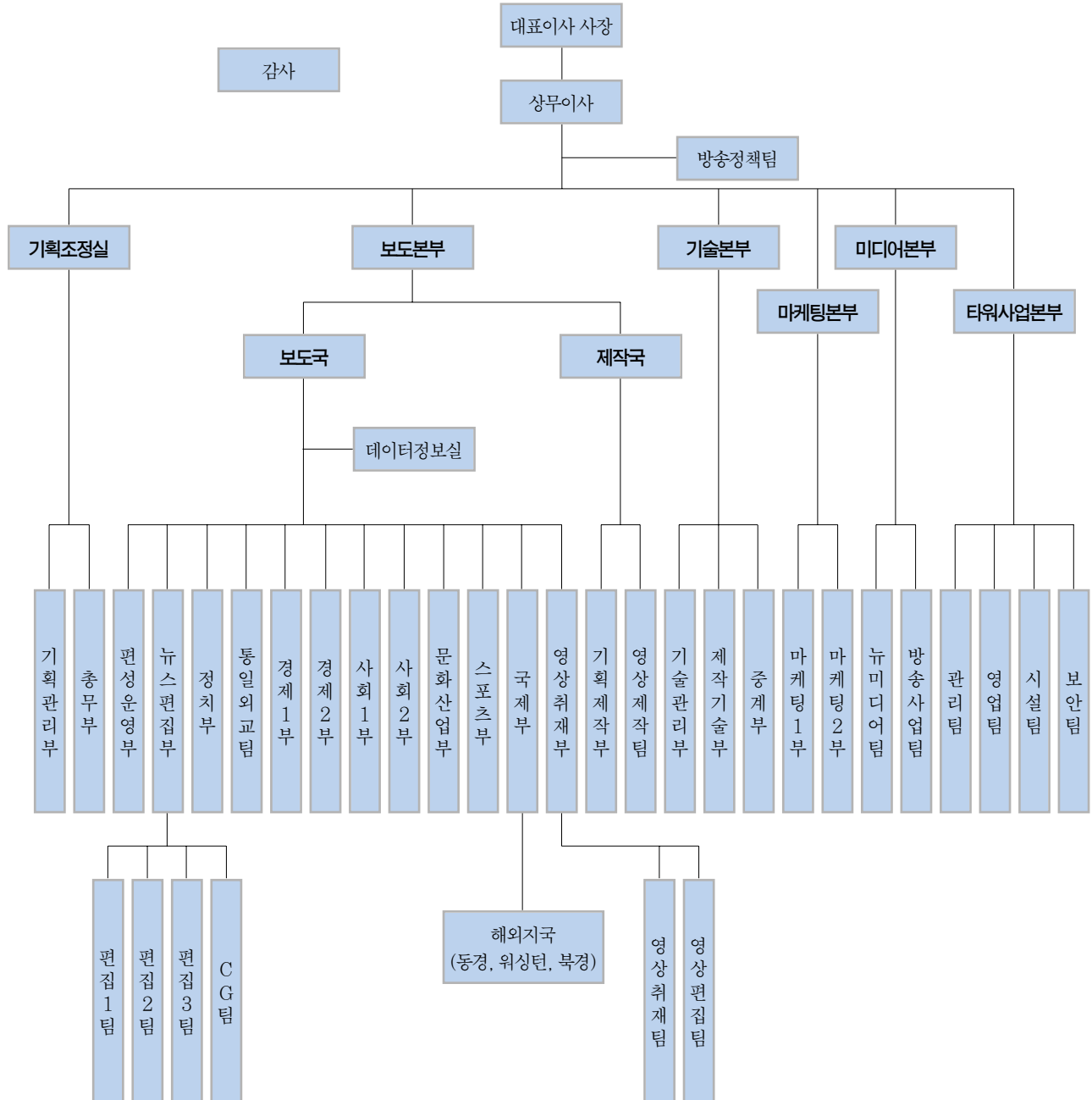
기구표 (2000. 9. 1)

조직 : 5개 본부 2실 2국 18부 16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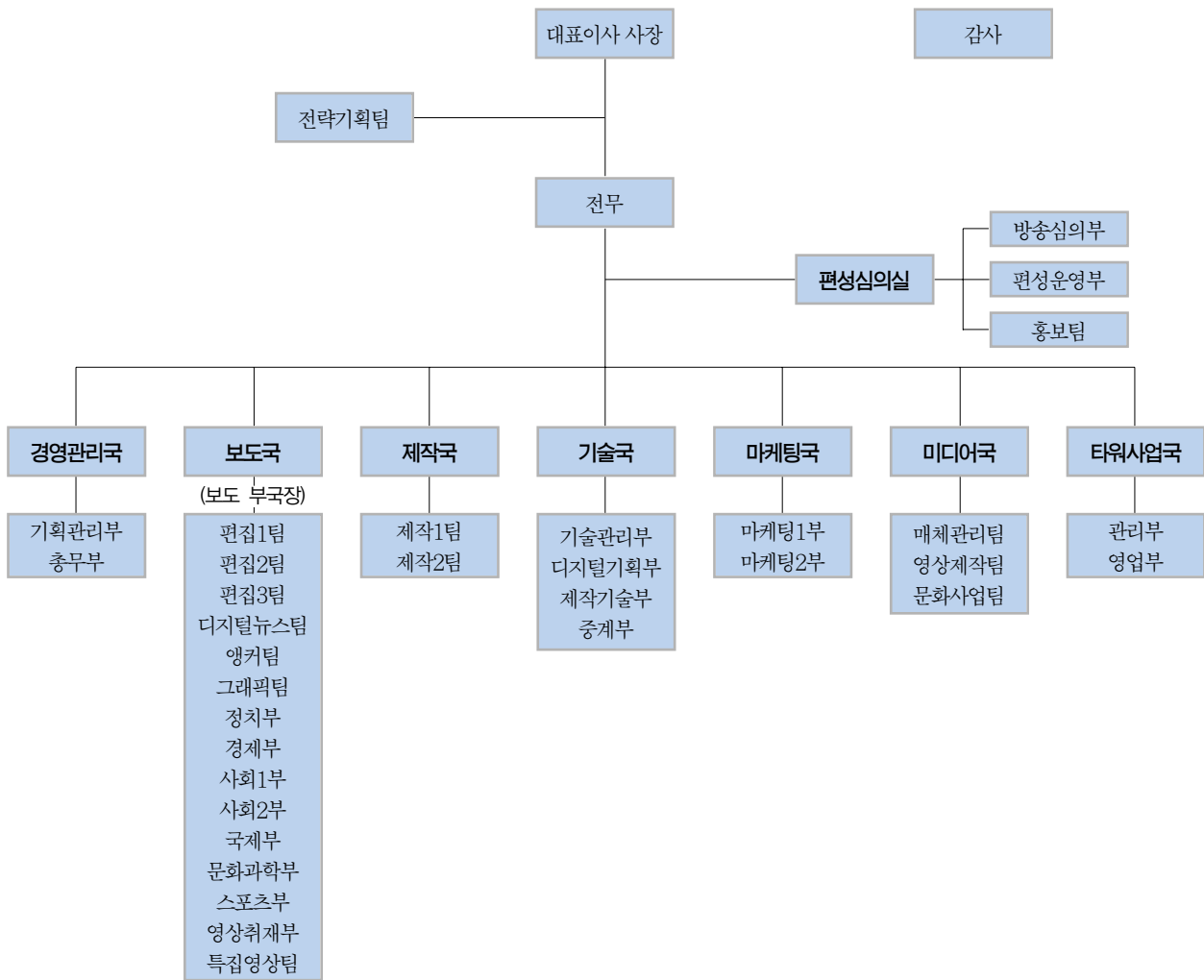
기구표 (2001. 3. 14)

조직 : 6개 본부 2국 2실 19부 14팀
 감사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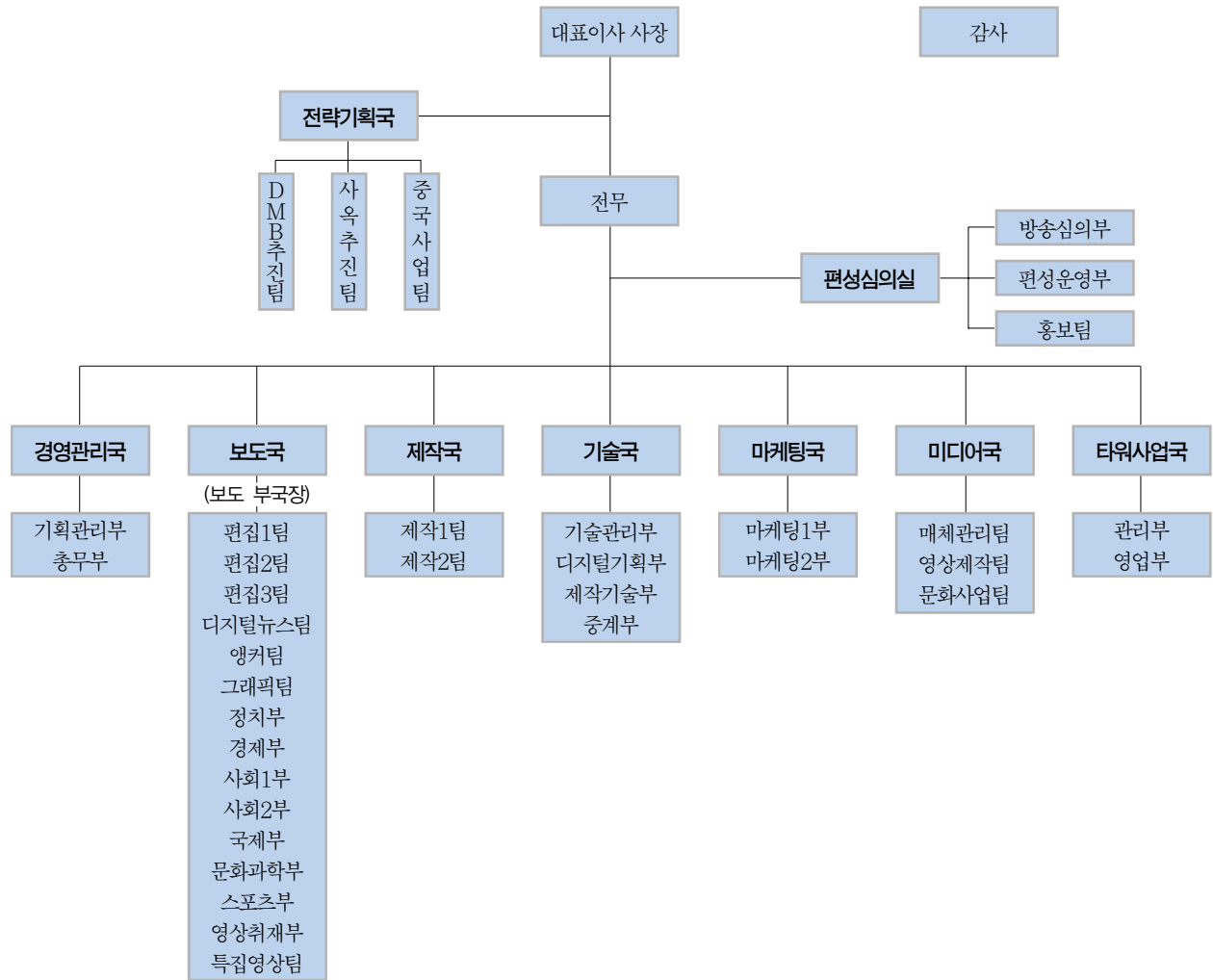
기구표 (2003. 1. 30)

조직 : 1실 7국 20부 14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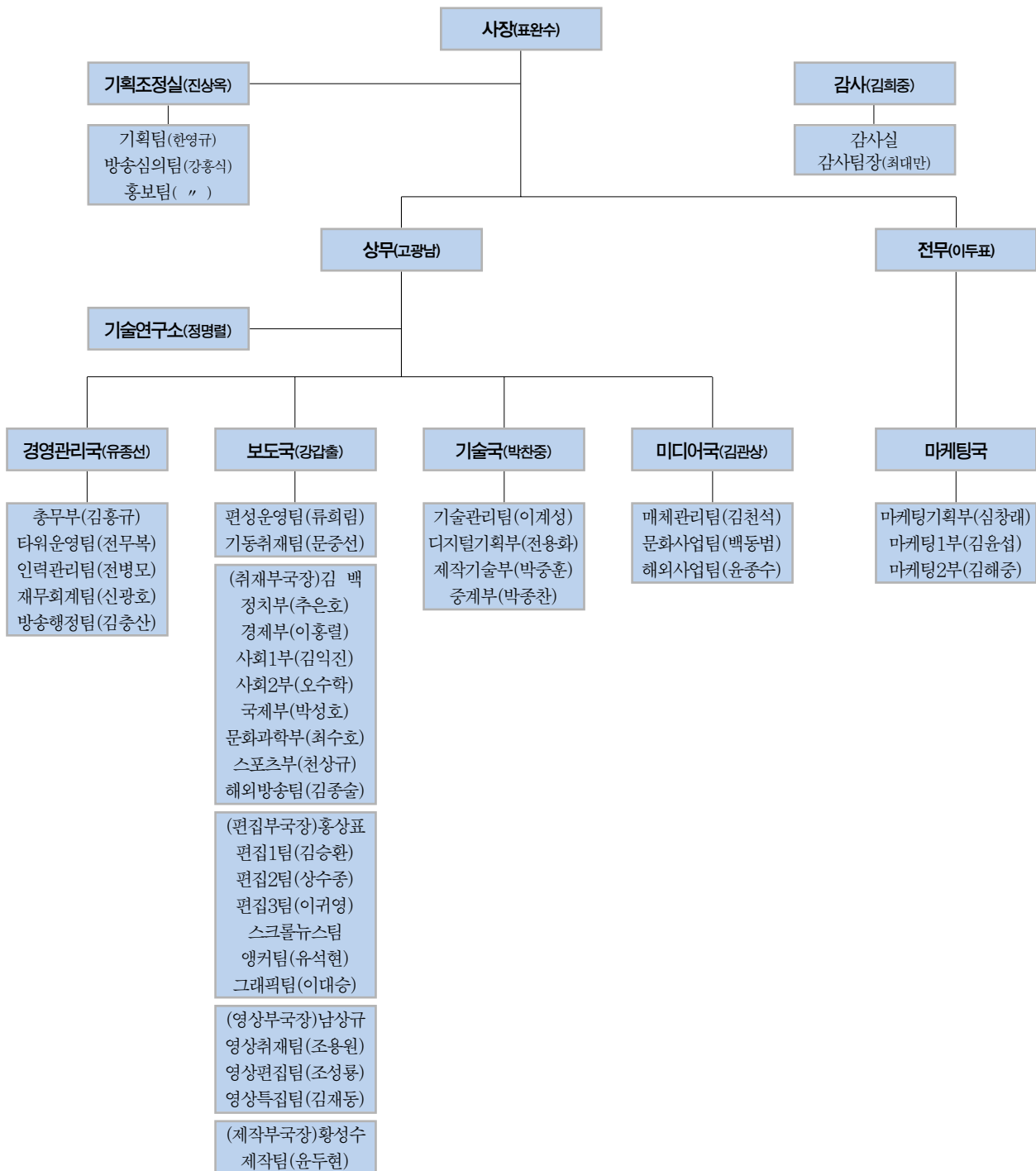
기구표 (2003. 8. 20)

조직 : 1실 8국 20부 16팀
 전략기획국, DMB추진팀 · 중국사업팀 ·
 사옥추진팀 신설



기구표 (2005. 9. 5)

조직 : 1실 5국 17부 22팀



해외특파원 · 지국 현황

해외지국

지국	담당 지국장	주 소	전화번호
동경	윤경민	日本國 東京都 港區 赤坂 5-3-6 TBS放送 センター 13階 YTN 東京支局	001-81-3-5571-4033 001-81-3-5563-1520/1 fax)001-81-3-5563-1522 H.P)001-81-80-5178-9158
워싱턴	정영근(부장)	6347 Divine Road Mclean VA 22101 USA	001-1-703-883-0151 fax)001-1-703-532-7163 H.P)001-1-571-259-5935
북경	김태현(차장대우)	中國 北京市 朝陽區 建國門外大街 9號 齊家園 外交團地 APT 8棟-63 韓國 YTN 新聞電視臺	001-86-10-8532-1972~3 fax)001-86-10-8532-1971 H.P)001-86-1391-017-0290

국내지국

지국	담당 지국장	주 소	전화번호
강릉	정현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292-2 만옥빌딩5층 우)210-947	(033)652-7631~2 fax)652-7633
광주	이인배(부장)	광주시 북구 누문동 138 남화빌딩 2층 우)500-030	(062)511-8005~6 fax)511-8007
대구	채장수(차장)	대구 수성구 범어동 3-1 삼성화재빌딩 12층 우)702-050	(053)751-9800, 9806 fax)751-9588
대전	이정우(부장)	대전 서구 탄방동 594 SK텔레콤빌딩 6층 우)301-080	(042)226-8351~2 fax)226-8357
부산	김인철(차장)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62-1 알리안츠생명빌딩 우)614-021	(051)634-8582, 635-8582 fax)645-0285
창원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 창원 종합운동장 105 우)641-210	(055)287-4331~2 fax)287-4333
전주	홍수기(부장)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9-1 교직원공제회관 3층 우)560-720	(063)251-0303~4 fax)251-0305
제주	유종민(차장)	제주시 연동 314-130 동성빌딩 5층 우)690-170	(064)744-9600~1 fax)744-9602
청주	김태훈(부국장대우)	충북 청주 흥덕구 분평동 1238 라데팡스솔레이관 202호 우)360-110	(043)286-8383, 287-8383 fax)294-8383
춘천	홍영기(부국장대우)	춘천시 운교동 179-7 도민상호저축은행 6층 우)200-080	(033)252-2341~2 fax)252-2343
수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중앙기자실YTN 우)442-781	(031)248-3281 fax)248-3282

자회사 현황

자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투자액	지분율	주 소	전화번호	사업내용
디지털YTN	김도현	2003. 4.29	10억원	50%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17-1 젤존타워 I 701호	031-784-5909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콘 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사
YTN 미디어	표완수	2000. 7.21	51억원	42.31%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92-2	3660-3700	YTN계열의 종합엔터테인먼트 미디어사
코크렙 4호	유종선	2004. 4. 2	304억원	4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부동산 펀드
YTN DMB	표완수	2004. 11.25	76억원	25.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 YTN타워 16F	398-8670	디지털멀티미디어(DMB) 사업
YTN FM	고광남	2004. 5.25	3억원	30%			FM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 (사업미허가 상태)

수신 계약 외신사

(2005. 6. 30 현재)

외신사	대 표	주 소	전화번호
CNN	테드 터너 (Ted Turner)	One CNN Center, BOX 105366 Atlanta, Georgia 30348-5366	1-404-827-4380
로이터TV	톰 글로셔 (Tom Glocer)	85 Fleet street, London EC4P 4AJ, United Kindom	44-0-20-7542-7146
APTN	니겔 베이커 (Nigel Baker)	The Interchange, Oval Road, Camden Lock London NW1 7DZ, United Kindom	44-0-20-7482-7400
SNTV	데이비드 하웰즈 (David Howells)	Media House 3 Burlington Lane, London, W4 2TH, United Kindom	44-0-208-233-5379
TBS(일본)	이노우에 히로시	5-3-6, Akasaka, Minato-ku, Tokyo 107-8006, Japan	81-3-5571-3211

프로그램 교환 제휴사

(2005. 6. 30 현재)

제휴사	대 표	주 소	전화번호
CCTV(중국)	자오화용	11 Fuxing RD. Beijing 100859, China	86-10-68506755
ARD(독일)	옵스트 플로크	독일연방공화국 공영방송협회(ARD) 산하 'NDR'	

해외 방송사 계약 현황

(2005. 6. 30 현재)

국가	방송권역	방송사	매체종류	대 표	계약기간
미국	북중미	한국위성방송	DTH	김호성	2005.01.01~2006.12.31
	L.A/시카고	tvK24	케이블	에릭윤	2005.03.01~2006.02.28 2006.03.01~2007.02.28 2007.03.01~2008.02.29
	뉴욕	KTV	UHF 라디오	권영대	2004.10.01~2005.09.30
	샌프란시스코	KTVN	UHF	성기왕	2004.07.01~2005.06.30
	뉴저지	mkTV	케이블	벤자민 유	2003.09.01~2004.08.31 2004.09.01~2005.02.28 2005.03.01~2005.08.31
	북중미	TAN	DTH	정재훈	2003.07.01~2004.06.30
	하와이	KBFD	UHF	정계성	2004.07.01~2005.06.30
	L.A	ITK	케이블	백흥기	2005.04.01~2005.12.31 2006.01.01~2006.12.31
	뉴저지	KNTV	케이블	에드워드 박	2003.09.01~2004.08.31 2004.09.01~2005.08.31
	뉴저지	WMBC	UHF 케이블	주선영	2004.09.01~2005.08.31
	워싱턴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신경섭	2004.12.01~2005.11.30
	L.A	라디오서울	라디오	전성환	2005.02.01~2007.01.31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	손태수	2005.02.01~2007.01.31
	북중미		DTH		2004.09.01~2005.08.31 2005.09.01~2006.08.31 2006.09.01~2007.08.31
	괌		KTM		케이블
	괌	GKTV	케이블	고석우	2004.09.01~2005.08.31
	워싱턴	코리아모니터	UHF	임석구	2005.04.01~2005.12.31
	워싱턴	워싱턴기독교방송	라디오	김영호	2005.09.01~2006.07.31
	애틀랜타	USK Broadcasting	라디오	최윤상	2005.05.01~2006.03.31
	아메리칸사모아	PARADISE INC.	케이블	이현휘	2004.10.01~2005.09.30
일본	일본	TV J-Korea	위성	박철민	2005.02.01~2007.01.31
캐나다	토론토	ALL-TV	케이블	이장성	2004.12.01~2006.11.30
	밴쿠버	TV KOREA	케이블	최병윤	2004.09.01~2005.08.31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TV방송	케이블	이승원	2003.07.01~2004.06.30 2004.07.01~2005.06.30
몽골	울란바토르	KHIIMORE	케이블	D.Sarangerel	2003.10.01~2004.09.30 2004.10.01~2005.09.30
	울란바토르	국제기공통상	공급대행	김광철	2003.10.01~2005.09.3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PT.Benua Asia	케이블	박영수	2004.07.01~2005.06.30
	인도네시아	Vision(K-TV)	DTH		
호주	호주	SBS	지상파 라디오	Carla Zampatti	2005.05.08~2006.05.07
스페인	마드리드	두손TV	UHF	조훈	2004.01.01~2005.12.31
					2006.01.01~2008.12.31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

제 1 기 (2001.10. 1~2002. 9.30)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및 직위	추천 부문	추천 단체	비 고
위원장	곽수일	41. 6.30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학계	한국경영정보학회	
부위원장	김세원	45. 7. 1	방송인	여성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김봉섭	49. 6. 5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스포츠	대한체육회	해축:2001.12
	김효성	41. 7. 7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제계	대한상공회의소	
	이금룡	51. 4.13	옥션 공동대표	벤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성문	67.11.15	변호사	법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진순	50. 6.16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경제계	한국개발연구원	
	이창근	51. 1. 4	광운대 신방과 교수	학계	한국방송학회	
	손혁재	54.10.22	참여연대 협동 처장	시민단체	참여연대	
	홍사중	55.12. 1	숙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문화	한국문화경제 학회	
	김충식	54. 2. 7	동아일보 논설 위원	언론	한국기자협회	해축:2002. 2
	유병용	37.10.30	자유기고가	소비자보호	환경운동연합	신규:2001. 12

제 2 기 (2002.10. 1~2004. 9.30)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및 직위	추천 부문	추천 단체	비 고
위원장	조동성	49. 1.1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경제	한국산업정책 연구원	
부위원장	이승희	56. 3. 3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청소년	한국청소년 개발원	해축:2004. 6
	조건호	44. 6. 2	한국무역협회상근부회장	문화	대한올림픽위원회	
	황우석	53.12.15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학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종석	58. 5.11	세종연구소 북한 연구 센터장	소외계층대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심광현	56.11.18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언론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해축:2003. 9
	이춘호	45. 7.22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여성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안철수	62. 1.22	안철수연구소 대표	경제	벤처기업협회	
	김영용	47.11. 1	서강대 영상대학원 교수	학술	한국언론학회	
	유병용	37.10.30	자유기고가	소비자보호	환경운동연합	
	임재경	36. 5.30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고문	언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규:2003.10
	김상준	45. 4.25	동아방송대 방송연예과 교수	방송관련	(사)여의도클럽	신규:2004. 7

제 3 기 (2004.10. 1~2006. 9.30)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및 직위	추천 부문	추천 단체	비 고
위원장	조동성	49. 1.1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제	한국산업정책연구원	
부위원장	김상준	45. 4.25	동아방송대 방송연예과 교수	방송관련	(사)여의도클럽	
	황우석	53.12.15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	학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임재경	36. 5.30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고문	언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영석	54. 3.31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남윤인순	58.11. 5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성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삼승	47. 4. 4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유재홍	53. 6.14	한국케이블TV방송국 협의회장	방송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변대규	60. 3. 8	휴맥스 대표이사	벤처	벤처 리더스클럽	
	이영남	57. 9. 3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벤처	한국여성벤처협회	

1995~2004년 포상자

YTN 대상

[2000년]

이정우

[2001년]

김상우

[2002년]

전병모

[2003년]

노종면

[2004년]

김승재

특종상

[1995년]

- 3.20 금융학원 이사장 아버지 살해 - 김종균
- 4. 5 조순 서울시장 후보 출마 - 윤성수 이기정
- 4.19 미 오클라호마 폭파사건 신속 보도 - 김승환
- 4.28 대구 가스폭발 사고 - 손재호 전용화 박태근 권오
- 5.19 현대자동차 공권력 투입 현장 보도 - 김정환 김인철
- 6.15 옥천 조폐창 화재 유출 - 한영규
- 6.29 삼풍백화점 붕괴 - 박근표 임종열 조승호 왕선택 김정희 정철우 이문세 정재훈 이홍렬 이건설 이상순 원경태 채문석 이재윤 김선희 박중훈 최수호
- 7.23 시 프린스호 좌초 - 강성욱
- 8.25 공주 산사태 - 박동일 이정우
- 9. 3 충주호 유람선 화재 - 김문경 유형식
- 9. 7 멸종상대 금강초롱 단독 촬영 - 김동철 정현교
- 9.10 북한 수재 지원 방침 최초 보도 - 이종수
- 10. 7 명성황후 생가 관리 엉망 - 양준모 이인배
- 11. 4 라빈 암살사건 신속 보도 - 김태현
- 11.16 노태우씨 재소환 - 박희천
- 11.28 5·18 특별법 헌법개정 방침 - 조봉환
- 12.18 선동열 주니치 행 최종 결정 - 김상우

[1996년]

- 5.20 김기욱 서울 동작구청장 무고혐의 구속 - 조승호(은상)
- 6.14 북한 경비정 서해 영해 침범 - 추은호 조봉환(동상)
- 7.24 해외 파소비 1만6000명 전면 수사 - 조승호(동상)
- 7.26 육군5사단 중대 막사 집중호우로 매몰 - 천상규(동상)
- 7.27 육군5사단 현장 보도 - 권혁용(동상)
- 8.14 30대 회사원 성폭행 몰려 억울한 옥살이 - 강성욱 강근배(동상)
- 8.22 한총련 연세대 농성 진압 · 탈출현장 촬영 - 조성룡(은상)
- 8.25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 김홍규(은상)
- 8.26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 김기봉(은상)
- 8.27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 김인철(은상)
- 9. 7 북한 나진 · 선봉 포럼 불참 방침 - 이종수(동상)
- 9.18 북한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 오승엽 김형근 오점곤 천상규 김주환(금상)
- 10.22 백화점 선불카드 불법 거래 실태 추적 - 유충섭(동상)
- 10.24 조선조 광통교 훼손과 복원 문제 - 유재복 김영욱(동상)
- 11.12 안경사협회 로비자금 수수 - 권영희(동상)
- 11.22 국내 처음 움직이는 UFO 화면 촬영 - 김재동(금상)
손홍균 서울은행장 대출비리 소환 - 이재홍 문중선(이상 은상)
- 12. 1 노동법 대체근로제 허용 검토, 반발예상 - 송경철(동상)
- 12. 3 서울도시가스 독점 횡포 고발 - 임승환(동상)
- 12. 6 탈북 김경호씨 일가 장인 최영도씨 인터뷰 - 임장혁(금상) 송태엽 장명호 임승환(동상)

[1997년]

- 1. 3 일산 E마트 교통혼잡 배상 판결 - 서승철 정석영(동상)
- 1. 9 광명 나산 할인매장 사고 - 박진수 최영신(동상)
- 1.13 검총 퇴임후 제한 소원 - 배성준(동상)
- 1.20 노동법 관련 여야 영수회담 개최 - 정영근(동상)
- 1.23 한보철강 최종 부도 - 추은호 문중선(금상)
- 2.16 이한영씨 피격 - 오승엽(금상)
- 3.30 서부이촌동 증산아파트 화재 - 권석재 김중욱 유제웅(은상)
- 5.14 한신아파트축대 붕괴 - 이병식(금상)
- 6.17 금융개혁안 시중은행 간부 설문 - 박성호(동상)
- 7.16 남북한 비무장지대 총격전 - 김웅건(은상)
- 8. 6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 김원배(은상)
- 8.22 방공포 관리 허술 - 성도현 유투권(은상)
- 9. 6 박나리양 유괴범 검거 - 류재복 장민수(동상)
- 9.10 자치단체장 관용차 무단 교체 - 강성웅(동상)
- 9.12 박나리양 유괴범 현장 단독 촬영 - 박진수(동상)
- 9.26 기아그룹 유예 - 김태현 박성호(금상)

[1998년]

- 9.15 나이스 IMF 단장 인터뷰 - 이재홍(금상)
- 12. 3 세무공무원 비리 - 최재민(은상)
- 12.11 발목 절단은 자작극 - 이경아(은상)
- 12.18 북한 반 잠수정 침투 - 최수호(동상)
- 12.23 조계사 진압 작전 경찰관 추락 단독 촬영 - 김태형(동상)

[1999년]

- 1.30 건교부 행정 불합리 - 황보연(동상)
- 2.13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시사 - 송태엽(은상)
- 2.26 보험설계사가 손가락 절단사건 공모 - 황보연 호준석 유제웅(동상)
- 3.15 대한항공기 포항 제주 사고 - 호준석 정종석 박태근(동상)
- 4. 9 러시아 헬기 고가 매입 - 장민수(금상)
- 4.26 CIH 바이러스 피해 - 최기훈(은상)
- 5.10 모녀 납치 거액 갈취 - 김범한 김경록(동상)
- 5.20 정부 경제전망 4% 상향 조정 - 송태엽 이재홍(동상)
- 6. 1 청와대 경비 경찰 총기 사고 - 장민수(동상)
- 6. 3 YS 페인트 세례 촬영 - 조성룡(동상)
- 6.12 박희원 홍두표 수사 최순영 리스트 단독 보도 - 김용섭 오승엽 이기정(은상)
- 6.16 코카콜라 판매 금지 - 이재홍(동상)
- 6.22 경찰청장 동생 로비 의혹 - 현덕수(금상)
- 6.23 SK 주식회사 정유공장 폭발 - 전재영(동상)
- 6.30 씨 랜드 화재 참사 - 유충섭 김태진(동상)
- 7.29 불법 호스트 바 일제 단속 - 박정호(동상)
- 7.30 대우그룹 관련 외국금융기관 대책회의 - 백선기 백성호 이광엽(금상)
- 8. 1 경기 북부 수해 취재 - 김동민 박진수(동상)
- 8.13 북한 보존 위안소 · 생촌 위안부 증언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이종수 한원상(금상)
- 8.24 대우그룹 워크아웃 - 이광엽 김장하 박성호(은상)
- 9. 1 현대증권 · 강원은행 수사 - 김진우 박성호 이광엽(동상)
- 9.20 혈우병 환자 A형간염 집단 발병 - 이귀영 권영희(금상)
- 10.29 인육 먹은 조직폭력배 - 이동형 임승환(은상)
- 12.17 SK텔레콤 신세기통신 인수 추진 - 김장하 김영수 한영규(은상)
- 12.31 열린 러시아 대통령 전격 사임 - 이승훈 김원배(동상)

[2000년]

- 1.19 회귀 야생동물 촬영 - 김동철(금상)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 - 김종욱(금상)
- 1.20 서영훈 민주당대표 내정 - 송경철(은상)
- 1.21 나라증권 영업정지 - 김영수 한영규(은상)
- 2.15 러시아 축구코치 사라체프 귀화 - 최동수(동상)
16대 총선 민주당 공천 내정자 명단 - 강철원(은상)

- 3. 9 가요계 표절 시비 - 박순표(동상)
- 3.10 프로야구 선수협 파동 - 양준모 임정수(은상)
- 3.15 동남아 해적 피랍 한국선원 구조 속보 - 강현석 김인철(동상)
- 3.24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귀국 현장 취재 - 강근배 오점곤(동상)
- 4.10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강철원 김호성(금상)
- 4.19 정부 추가 공적자금 조성 추진 - 이광엽 박성호(동상)
- 5. 2 중학생 부탄가스 흡입현장 취재 - 이정우 박동일(은상)
- 5.21 과소비 풍조 사회 만연 - 김태진(동상)
- 5.29 시민운동가 장원 체포 - 김기봉 전재영(금상)
- 6. 5 정부, 채권단 현대 지원에 조건 - 김진우(은상)
- 6.26 의사협 폐업 철회 - 권영희 이귀영(은상)
- 6.27 3000원 손 벌린 유전자 법정구속 - 황보선(동상)
- 6.28 대우차 우선협상자 포드로 결정 - 박상남 박성호(금상)
- 7. 7 사개치부 취재 보도 - 김태진(금상)
- 10.15 독도 자생식물 추가 공개 - 박병삼(은상)
- 10.23 의정 · 약정 협상 타결, 의약정 3자 협의 - 김상우(동상)
- 10.24 정현준씨 일일 자금 수입 · 지출 내역서 - 오인석(동상)
- 10.25 미군부대 내 사유지 수확 못해 - 홍성혁(금상)
- 11.16 정몽구 현대차 회장 현대건설 지원 합의 - 이재홍(금상)
- 11.27 리젠트 그룹 회장 수사 의뢰 - 김선중 김장하(동상)
- 12.19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 입학 - 김용섭 송태엽(은상)

[2001년]

- 1. 4 현대차 범규 위반 · 리콜 미 실시 - 이재홍(금상)
국내 최초 아동 포르노 사이트 등장 - 함형근(은상)
- 1.14 대한항공 회항 관련 무성의한 행정 - 김태진(동상)
- 1.22 설연휴 응급 의료정보센터 운영 문제점 - 김상우 박진수(동상)
- 2.16 고가 중고 교복 값 실태 - 김선희(은상)
- 3.31 흡소평 채널사업자 심사 결과 - 유환홍(동상)
- 4.18 시위 진압하다 실명한 의경 대우차 취입 - 홍성혁(은상)
- 4.25 박노항 원사 검거 - 송태엽(금상)
- 4.30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 김상우(동상)
재벌3세에 대한 부당 지원 조사 착수 - 정찬배(동상)
- 5.24 연세대 기여입학제 추진 파문 - 박순표(동상)
- 5.29 대우차 매각 협상 시작 - 김장하 정재훈(은상)
- 6. 1 한의사협, 한의원 장부 은폐 지시 - 우장균(동상)
- 6. 5 LG그룹 전직원에 단말기 할당 물의 - 김잔디(은상)
- 6. 8 학생이 이용 못하는 학생 수영장 - 김태운(금상)
- 7.25 국회의원 일본 원정 골프 - 김대경 김주환(금상)
- 7.26 검찰 마약수사관 시민 폭행 - 김기봉 강현석 김인철(동상)
- 8. 7 정부 경기부양 위해 감세 - 이재홍(은상)
- 8.27 인터넷 음란화 심각 - 김선중 박정호 박순표(금상)
- 9.13 뉴욕 WTC 붕괴 한인 실종자 명단 보도 - 김호성(금상)
- 9.16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 북측 의제 - 이종국(동상)
- 9.17 소외되는 장애인 권리 - 김선중(동상)
민주당 새 대표에 한광옥 실장 - 상수준(은상)

- 10.16 탈레반 대사, YTN등과 회견 - 이종수 김정환 성도현(금상)
- 10.21 한별 텔레콤 대표이사 구속 - 박순표(동상)
- 10.26 익룡화석 국내 첫 발견 - 김진두(은상)
- 11. 2 일산 신생아 돌연사 원인 - 김상우(은상)
- 11. 9 우리군이 영농 출입증 회수 - 김동민(은상)
무허 금연 보조제 실패 고발 - 박순표(은상)
- 11.12 미국 여객기 추락 - 이광엽 오점곤(동상)
- 11.19 삼성, e삼성 부당지원 은폐 - 장민수 김장하 박정호 이재홍(금상)
- 11.22 낙동강 하구 고래 떼 - 지대웅 김인철(동상)
- 11.28 정부,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백지화 - 강성웅(은상)
- 12.26 TV 흡소평 납품업체 관리 미흡 - 이경아(동상)

[2002년]

- 1.11 부여 창원 정수장에서 '할로 초산' 검출 - 함형건(금상)
- 1.24 소보원, 삼성생명 부당행위 고의 축소 - 노종면(은상)
- 2. 3 서울지하철공사 입단협 타결 - 김진호(동상)
- 2. 6 대한태권도협회 비리 - 이경재(동상)
- 2. 7 북한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축전 연계 - 김희준(동상)
- 2.13 국산 액체추진 로켓 개발 성공 - 한정호 원영빈(은상)
- 4. 3 북한, 케도와외의 협상 수용 - 김희준(동상)
- 4.22 검찰, 대통령 생가 복원사업 뇌물 은폐 - 김범환 김경록(은상)
- 5.29 인제 진동계곡 열목어 집단 폐사 - 홍영기 진민호(은상)
- 6.17 삼성중공업 삼성세르빌 부실공사 - 정희인 이동우(금상)
- 7. 9 미공개 동굴 삼척 관음굴 취재 - 김동철 정현교(동상)
- 7.16 산자부장관 정치인 모임 참석 - 정철우(은상)
- 7.31 이스라엘 대학 폭탄 테러 한국인 피해 - 김종욱 장기영(동상)
- 8. 7 국민카드, 강도 피해자 피해액 결제 - 이재홍(은상)
- 8.29 검찰, 병역 비리 정치인 조사 - 홍성혁(금상)
- 10.18 북한, 핵 시인 발표 - 이종수(동상)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 사망 - 김태진(은상)
- 11.15 노무현 후보 단일후보 확정 - 류희림 유제웅(금상)
- 11.18 에버랜드 관광단지 지정 개발 추진 - 정희인 하성준 이상순 이동우(동상)
- 11.25 유엔사 제임스 소리곤 소장 단독 인터뷰 - 이광엽(동상)
- 12.10 SK그룹 위커힐 호텔 특혜 - 김영수 박민양(은상)

[2003년]

- 1. 3 일본 기업도 위안소 설치 - 한원상(동상)
- 1. 9 삼성생명, 화재 계열 투신사 부당지원 의혹 - 김영수 장명호(은상)
- 1.10 북한 NPT탈퇴 첫 보도 - 김호성(동상)
- 1.14 직불카드 위조 기승 - 이종구 윤원식(금상)
- 1.27 인터넷 대란 - 기정훈 김선중(금상)
이종간 장기이식 첫 성공 - 염해진 한정호(동상)
- 2. 9 정수장 수돗물에서 병원성 원생동물 검출 - 함형건(동상)

- 2.18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CCTV화면 단독 입수 - 조영권 여승구(금상)
- 2.19 안전기준 마련 전 대구지하철 전동차 제작 - 배성준(은상)
- 3. 4 진대제 정통부장관 장남 이중국적 의혹 - 유재복 장민수(은상)
- 3.20 이라크 전 발발 1보 - 이중국 오점곤(금상)
- 3.22 쿠웨이트 SK건설현장 주변 미사일 폭격 - 권석재 천상규(동상)
- 4. 4 사스환자 인천공항 환승 - 오점곤 김태진(동상)
- 4.29 국내 사스환자 발생 신속 보도 - 김상우 김정희(은상)
- 5.13 화물연대 지도부 회견 - 전재영 이철근(동상)
항쟁업 방미 요청 진필 서신 - 녹취 - 최재민(은상)
- 5.19 현직 검사 소 취하 종용 - 이재홍 이동우(금상)
- 6. 6 홍지문 터널 화재 CCTV 화면 단독 입수 - 박관우 김준영(동상)
- 7. 1 철도 파업 찬반투표 실시 · 철회 결정 - 배성준 김정현(동상)
- 7.10 군 사병 성추행 자살 - 임수근(은상)
- 7.30 국민은행, 굿모닝시티에 168억원 차명 대출 - 장민수(동상)
- 8. 4 정몽헌 회장 투신 자살 - 김승재 박관우(금상)
- 8.17 대구U대회 북측 선수단 입국 취소 - 황보연 임종주(은상)
- 8.23 에이즈 혈액 의약품 등에 사용 - 김승재(금상)
- 8.30 북부 경찰서 지구대 취객 보복 폭행 - 김태운 송세혁(동상)
- 9. 2 한 · 일 D-TV 전파 월경 첨예 대립 - 차윤조(동상)
- 9.11 이경해 사망사건 속보 - 김진우(동상)
- 10. 1 송두율 교수 첫 보도 - 이재홍(동상)
- 11.12 공사용 중장비 지하철 터널 관통 - 김태형 전기영(은상)
- 11.13 브루셀라 증 환자 19명 발생 - 김정희 김종완(동상)
- 11.22 LG카드 사태 협상 타결 - 권영희 오인석(동상)
- 11.25 에버랜드 편법중여 검찰 기소 - 이재홍(은상)
- 11.28 상도동 컨테이너 추락 화면 - 이승준(은상)
- 12. 1 오무전기 사장 인터뷰 - 이동규 김수진(동상)
- 12.10 인천 계양구 그린벨트 불법 변경 - 이재철(금상)
- 12.16 6자회담 연내 개최 무산 가능성 - 윤경민 조승호(동상)

[2004년]

- 1.28 김성래 선안문 부회장 정 · 관계 유착 - 이재홍 신호(은상)
- 2.20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 용의자 단독 인터뷰 - 이재철(동상)
- 3. 9 동해 가스전 사고 - 황보연(은상)
- 3.17 야권 내부 탄핵 철회 움직임 - 김동민 강성욱(동상)
- 4.24 북한 용천역 대폭발 사상자 보도 - 황선욱 조승우(은상)
- 5. 3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인사 · 경영 비리 - 이대건(동상)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이상 - 황순욱(은상)
- 6.21 김선일씨 피랍 - 김준호 유투권(금상)
- 7.24 NLL 교전사태 보고 누락 - 윤경민(동상)
- 8. 4 국책사업 배수재 부실 - 김승재 한원상(은상)
- 8.24 장웅 북한IOC위원 단독 인터뷰 - 최동호 정병화(은상)
- 8.26 LG전자 서비스센터 탈세 의혹 - 정철우 황보선(은상)
- 12. 2 베이징 한국영사부에 탈북자 진입 - 김태현(금상)
- 12.12 국보급 최고 총통 검찰청서 낚삼 - 박희천(은상)

- 12.13 승합차 자동차세 3년간 50% 경감 - 임수근(동상)
경찰 비인권적 수사행태 고발 - 이대건(동상)
12.31 서초경찰서 비리 경찰 보도 - 황순욱(동상)

우수 프로그램상

[1995년]

〈광복 특집〉 조선총독부 건물 70년의 일생 - 이화용 김상의
노태우씨 1차 공판 - 이교준 이철용 임영선 문석호 민병오 이동우
송경철
세계, 세계인 - 이양현 이종국
오늘의 역사 - 차윤조
전두환씨 기소, 수감 - 최재민 김형근 김종술 지순한 현덕수 이창준
김성태 이성호
지자체 선거 보도 - 호준석 이동현 홍영기 김동민 상수종 정창원
김지영 홍상표 김정대
〈테마기획〉 독일통일 그후 5년 - 홍성보 강철원
〈테마기획〉 세계의 지방자치 - 추은호 박철원
SB : YESTERDAY. TOMORROW. NOW - 가내경 노종면

[1997년]

〈집중조명〉유홍가의 인력시장 - 호준석
다이애나 테레사수녀 영결식 생방송 - 김익진 배성준
YTN 건강24 - 지순한 윤경민 김문경 김동민 임수근

[1998년]

〈특집〉 인도차이나에 묻힌 진주 베트남 - 신동윤

[1999년]

〈특별기획〉 함께 가는길 - 방울열 임승환 홍성보 강제환 박정호
한국의 들꽃 - 방병삼
그리운 북녘산하, 보고픈 문화유산 - 염해진 지순한 문중선
고문, 의문사 아직도 계속되는 고통 - 이문세 호준석 박관우
〈올해의 우수프로〉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한원상 이종수

[2000년]

코스닥 투데이 - 김 백
백두대간 산불 - 김동철 정현교
마약 기획시리즈 - 황보선 임승환 김태형
오늘의 역사 - 임수근
꿈의 통신 IMT2000 - 이동형 김학목 이홍렬 김동민
서강을 지키자 - 신현준
(몽골팀) 새천년을 꿈꾸는 땅 - 이승주 김호성 이종국 김재동 윤종수
(민물고기팀) 한국의 민물고기 - 오유철 이문세 이성모

(팀) 꿈의 통신 IMT2000 - 이동형 김학목 김동민 이홍렬

[2001년]

〈신년특집〉 김치의 재발견 - 지순한 이재운 박정호
가정의 달 기획시리즈 제작 - 함형진
선진의료의 조건 - 김상우 원종호 황보연
〈특별기획〉 도시와 강 - 방병삼 강태욱 이문세
뽕치분쟁, 남쿠릴 해역 - 김태운 정유신
우주시대가 열린다 - 정희인 김진두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대담 - 정재훈
윤방부의 피플 인 뉴스 - 김승재

[2002년]

13억 대륙에 부는 패션바람 - 김선희 김신영 김인규
〈특별기획〉 새로운 도전 21세기 전력산업 - 정유신 박경석 정철우
금융 글로벌경쟁시대 - 김중균 방병삼 원영빈
산·숲 그리고 사람 - 김동민 박진수
(올해의 우수프로) 산·숲 그리고 사람 - 김동민 박진수
〈YTN 스페셜〉 대통령 후보 부인에게 듣는다 - 허창재 강태욱

[2003년]

〈백지연의 정보특종〉 김영삼 전 대통령 단독 인터뷰 - 호준석 오윤정
뉴스 퍼레이드 - 노종면 송경철 최기훈 김명숙 신동훈
박찬숙의 쟁점토론 - 임종렬
〈특별기획보도〉 T.K생은 말한다 - 이재철 한원상
〈백지연의 정보특종〉 백지연이 만난 사람 - 오윤정

[2004년]

생활속의 무술 - 홍성보
세계의 상인, 화상 - 권석재 유충섭 이강문 이승준
사람과 자동차 - 현덕수 이승환 박철원 권한주

유공상

[1995년]

24시간 기상뉴스 정착 - 한정호
국내 방송기술 선도(NON-LINEAR 편집시스템) - 정명렬
방송설비 공사, 전국 취재망 구성 - 박중찬
방송시설의 기능, 공간배치의 효율성 최대화 - 이계성
방송장비 적정가격 구매 회사 수입증대 - 백동범
보도행정 업무정착 현장지원업무 - 최대만
비자금사건 검찰 중간수사 발표 내용 단독 녹취 - 박경태
선곡 작업과 SB제작물의 음악 작·편곡 - 장석문
안정적 주조진행 - 정동균

충실한 주조진행으로 안정적 방송 송출 - 김용구

창 의 상

[1996년]

1/4분기 금상 - 조민철
DVE이용 다양한 화면구성 개발 - 오광식

[1998년]

현장중계 인터컴 개선 - 박종대

[1999년]

프롬프트 개발 - 강계현
날씨 프로그램 - 손동열
본사 중계차 기능개선 제안 및 시행 - 정진웅
부품 재활용 - 김형욱
영상효과 장비 활용 - 이기주
참신한 sb제작 - 방병삼

[2000년]

스튜디오 MIC Cut 제작 - 현용국
창의적인 3차원 그래픽 화면 창출 - 이준호
프로그램 송출 정체 제어기 제작 - 유화성
급여메일 프로그래밍 - 김한성

[2001년]

방송장비 기능 개선 - 김한수
연중기획 · 특집 등 그래픽 제작 - 범희철
인터넷 이메일 통한 기사 송고 - 호준석
증권방송 운영 및 데이터 처리 - 유제동

[2002년]

2부조 텔레폰 스위치 개선 - 조상현
개표방송 소프트웨어 개발 - 노종면
기획 · 특집 · 캠페인 등 그래픽 제작 - 정지원
뉴스룸 시스템 개발 - 최경순
중계차 모니터 개선 - 김용영
텔레폰 스위치 등 방송장비 개선 - 문정훈

[2003년]

앵커용 마이크자석 홀더 제작 - 이현직
3부조 VCR정체 스위치 제작 - 김영호
국제뉴스속보 편집 및 테이프 관리 - 한경희
무선마이크 수신기용 어댑터 플레이트 제작 - 김형욱

월드스튜디오 확장 스위치 제작 - 정원태
전망대 가스배관 공사 안전시공 감독 - 이철규
창의적인 그래픽 제작 - 김윤희
SO시청 가구수 확대 및 저가형 채널 보급 - 백상기
탈리시스템과 인터컴 개선 - 기호균

[2004년]

신호변환기 운용 개선 - 방홍식
크레인카메라 운용 및 탈리 개선 - 오민철
인터넷활용 화면수신방법 개선 - 조민철
스캔컨버터운용 - 김한철
각종 그래픽 창의적 제작 - 손영범
날씨편지 제작공로 - 김지현
뉴스밴 인터컴 시스템 개선 - 박선우
아나부스 시스템 개선 창의 - 김재탁
엔딩타이틀, BACK판 등 개선 - 박소영
주요현안 발생시 전문가 섭외 - 강성웅
참신한 프로그램 기획 - 김명숙
클린메일 환경구축 - 최경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 심종남

공 로 상

[1996년]

삼풍사고 등 중계진행업무에 공헌 - 원경태
전 · 노 공판상황 및 4 · 11 총선 생중계 - 김영철
YTN기간장비 무선국 검사 합격 - 최광락
급여 및 인사업무 체계화 - 황지영
긴급상황시 1인 다역 수행, 해외자료 정리 - 송태엽
뉴스진행 통한 YTN 방송 정착 - 우장근
월드뉴스 프로그램 질 향상 - 방병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프로그램 공급 - 조승희

[1997년]

97/2/20 등 사망 외신 신속 처리 - 강성아

[1998년]

마케팅 공로 - 김태훈 천상규

[1999년]

광고유치 공로 - 황성수 고평남 류희립 홍수기 김태현 유제웅 이인배
박병한 심창래 정현교
연평도(서해교전)에서의 1인3역 - 최병관
<집중조명> 번역 · 더빙 지원 - 함형건

경마 기획 제작 - 김상익
 광고매출 1위 - 안재열
 교환광고 - 서영진
 기상앵커 및 취재 - 한정호
 사건사고 취재 - 이홍렬
 사원모집 - 김환명
 앵커업무 - 최수호
 앵커업무 및 취재업무 수행 - 김영수
 조계사 진압작전 경찰관 추락 단독 촬영 - 김태형

[2000년]

도메인 확보 - 한철욱
 몽골·유라시아 취재기 기자통신 기고 - 김재동
 컴퓨터그래픽화면 개선 - 이대승
 남북정상회담 방송 - 채문석 노종면 유석현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 정창원
 남북정상회담 예고 브리지 제작 - 방병삼
 남북정상회담 취재 - 조항운 하성준
 캠페인 유치 - 김인철
 프로그램 협찬 - 김승환
 남북문제 보도지원 및 적극적 대외활동 - 김상우
 다양한 기획리포트 발굴을 통한 취재 - 우장균
 배너광고 유치 - 김경아
 우수한 취재와 기획능력을 통한 회사위상 제고 - 오승업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 최상섭 정해봉 김재학 김정대
 프로그램 협찬 - 홍상표
 업무 술선수범 - 박홍규
 <이대로 죽을 순 없다(속편)> 제작 - 한원상
 1, 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중계 - 김태우
 경찰기자 업무 수행 - 김종욱
 국제뉴스 편집업무 - 김성환
 금융구조조정 현장취재 - 김장하
 남북이산가족 위성 송출 - 김익현
 디지캐스트 영업실적 향상 - 김동후
 베이스시 운영 - 최경순
 서울타워 광장 증개축 업무 수행 - 김대천
 앵커업무 수행 - 노종면
 영상물 제작 - 김규남
 중계업무 수행 - 원경태
 취재활동 및 광고 유치 - 김동우
 YTN시청자 확대 - 김천석

[2001년]

로고송 제작 - 장석문
 아리랑TV에 제공되는 영어광고 제작 - 정지원 방병삼
 신규광고 개발 실적 - 김연기

<세계의 게임산업> CG담당 - 기내경
 신규·협찬·전략광고 개발 - 김해중
 인터넷 개편 오픈 - 이상무 김재학
 YTN 여름경제 특강 중계제작 - 원경태
 우주시대가 열린다 그래픽 제작 - 오재영
 월드컵 조추첨 2단 중계망 구성 - 이승우
 <다시뛰는 한국경제> 기획·협찬 - 한영규
 <세계 게임시장을 잡아라> 제작 - 박철원
 <한국의 새> 제작 - 이철용
 관악산 M/W 장애 문제 해결 - 이성호
 방송장비 및 소모품 구입 예산 절감 - 최재일
 방송정책 취재 및 대외활동 - 유환홍
 법조 취재활동 및 협찬 - 이동우
 법조 취재활동 및 협찬 - 임종열
 영상물 제작 공모 - 김시현
 외부지원 방송제작 유치 - 정광웅
 취재활동 및 광고유치 - 김태훈
 취재활동 및 부서 인화에 기여 - 이양현
 프로그램 판매실적 제고 - 장훈희
 환율할인등을 통한 비용 절감 - 박진언

[2002년]

호주 CTS에 YTN프로그램 공급 - 한철욱
 CJ39쇼핑에 YTN화면 판매 - 이성호
 날씨 캐릭터 <날씨돌이> 제작과 방송 - 김진두
 신규광고 개발 및 적극적 광고주 관리 - 홍혜주
 2002년 월드컵 취재 및 제작 - 이양현 김기봉 양준모 오인석 최명신
 고민철 최동호 박순표 이경재 서봉국 이영훈
 로봇축구대회 성공적 수행 - 박기용
 TBS에 모니터 대역로 수익 창출 - 허창재
 TBS한국통신망 사용으로 수익증대 - 정창원
 경기북부지역 현장중계망 확보 - 조주현
 기상캐릭터 도입 및 수입 창출 - 김진두
 뉴스의 현장 제작 - 임장혁
 대선후보 방송연설 유치 - 상수중
 마케팅 우수 - 김해중
 씨네24 제작 - 한상욱
 여행스케치 제작 및 협찬 - 최명신
 월드뉴스 앵커 - 권영희
 인천공항 등 항공안전 제고 - 김태진
 인터넷 서비스 통합프로그램 개발 - 이상무
 전국 주요역에 YTN전용 모니터 설치 - 민병호
 지국 이전공사 진행 - 김동후
 타워도장공사 등 수행 - 이보근
 프로그램제작 및 수익 창출 - 이승주
 한국의 끈충 제작 - 조성룡

행정업무 효율적 개선 - 김환명
현장학습 등 단체관광객 유치 - 성유경
YTN시청자 확대 - 김친석

[2003년]

인터넷 대란 신속 처리 - 안용고
프로그램 타이틀음악 제작 - 장석문
홍보 SB, ID 제작 - 김신영
노대통령 방미시 실시간 방송시청해결 - 김익현
대구 유니버시아드 중계 및 회사수익에 기여 - 전기호 박태근 유성래
뉴스속보 문발포맷 제작 - 손동열
매체설명회 성공적 수행 - 김신영 김명섭
교환광고 유치 - 서영진
뉴스의 현장 진행 - 정찬배
디지털 뉴스룸 구축 - 박형일
디지털 전송망 설치 - 양태열
마케팅 실적 우수 - 안재열 심재영
백지연의 정보특종 - 이강문
부안사태 심층 취재 - 조영권
영업수익 증대 - 윤석화
이라크 사태 취재 - 김형근
지상파방송 진출 관련 방송법 제한 해결 - 김진우 서대원
한국의 악기 제작 - 하성준
현장중계화면 품질 향상 - 민병호

[2004년]

사육이전 공로 - 박형일 김태동 유영식 나은수 정동균 이중섭 최성호
이성호 허창재 이계성 전용화 박종찬 최광락 유희성 양태열
조상헌 이귀영 서영진 최재일 박선우 배경호 김동후 이병균
경부고속도로 폭설대란 취재 - 김문경 박관우
마케팅실적 우수 - 김해중
인터넷서널 채널 출범 - 조민철
정부기관 이벤트 행사 성공적 수행 - 이동열
창사10년 및 사육이전 홍보 - 민병호
창사10년 · 인터넷서널 출범 기념식 수행 - 한상규
타워 영업수익 증대 - 남원호
회사 경영안정기여 및 감사 추진 - 김환명
김선일씨 이라크 무장단체 피랍 신속 제보 - 김미연
신규협찬 전략광고 개발로 수입증대 - 설명수
축대붕괴시 신속한 업무처리 - 김대천
YTN홈페이지 관리 - 장기영
감사업무 토대마련 - 김해중
과학프로그램 개발 및 협찬유치 - 한정호
뉴스진행과 발음 교육에 기여 - 정애숙
비용 절감(극동도시가스 예치금 면제) - 차원석
사육관련 회사 수입증대 - 최성호

영업수익 증대 기여 - 김영은
주조 은행 업무 공로 - 박만희
중계현장 조명운영 및 구매예산 절감 - 김해열
탄핵 · 총선 등 관련업무 탁월한 처리 - 이동훈
행사 성공적 수행 - 박기용
행정전산 시스템 구축 - 김한성
회사 브랜드 이미지 홍보 - 기내경
회사경영 기여 - 이병식
회선망 운용관리 - 이병문
SKT와 M/W 주파수 관련 협상 수행 - 김태동
SO수신료 인상률 목표 달성 - 백상기

제안상

[1998년]

촬영기자를 위한 트라이포트 가방제작 - 김재동

[1999년]

중계차에 원거리 카메라 설치 - 김성열

특별상

[1996년]

2/4분기 AUTO CAD 활용 방송시설 관리업무 - 장승욱
1996년 특별상, 전직 대통령 공판 보도 - 조승호

[1999년]

광고유치 공로 - 이정우
<뉴스포럼> 진행 우수 - 송경철
서해교전, 유고내전 생방송 전화 인터뷰 - 김문경
영화<간첩 리칠진>을 YTN홍보 및 협력사업 - 이석제
프로그램 유치 공로 - 설명수
컴퓨터 정보 프로그램 제작 · 협찬 - 기정훈
고시환율보다 싸게 매입한 외화로 리스료 - 박진언
광고유치 공로 - 황성수
로봇축구대회 성공적 수행 - 김사모 최성호 방을열 박기용 김용구
이건선 김해열 원경태
마케팅 공로 - 이귀영
(몽골팀)뉴밀레니엄 특집제작 - 김호성 윤종수 김재동 이종국 이승주
광고 유치 - 신동운 김관상 이재운 이정우
뉴밀레니엄 특집 제작 - 황명수
프로그램제작 및 협찬 - 홍성보

[2000년]

〈내 관도 준비 되어있다〉 저술 - 김승환
로봇축구대회 성공적 수행 - 박기용 방을열 박종대 서홍수 이창준
정광웅 김해열 원경태 박경태 홍덕태 최상섭 정해봉 김정대
(마케팅2부) 회사 수익기반 확대 - 김해중 안재열 설명수 김남식
이병균
(통역팀) 해외뉴스 통역 - 김현수 이지연
〈MD팀 수상〉유행업무 공로 - 정동균 이용구 신성원 박만희 윤진원
데스크업무 및 특종발굴 - 강철원

[2001년]

프리즈마 차세대 간판 제안 - 한정호 박철원
금융인 마라톤대회 제안 - 박진언
카드고객에 YTN뉴스 서비스 제안 - 장민수
휴대폰에 YTN 뉴스 메시징 제안 - 노종면
뉴미디어팀 - 전병모
(통역팀) 해외뉴스 통역 - 김현수 이지연
(FD팀) 프롬프터 업무 수행 - 민재영 진유진 이수연 최성호
선거팀 - 노종면 황명수 서영석 강계현 장민수
이라크전 취재보도 - 이종국 권영희 김민

우수 촬영상

[2000년]
한강 민물고기 생태계 촬영 - 오유철

[2001년]
〈신년특집〉 김치의 재발견 - 백선거
봄이 오는 길목 - 유형식

자유로 다중추돌 장면 - 김태운
레미콘 노조 강제 해산 장면 - 성도현
현장. 지리산 살아났다 - 박정호
태백준령 〈벌들의 전쟁〉 장면 촬영 - 김동철
초가을 경남 화왕산 억새밭 풍경 촬영 - 이철근

[2002년]

시위해산중 경찰 일부가 기자 집단 폭행 - 권석재

[2003년]

한강야경 영상 제작 - 박정호
천수만 석양의 철새 떼 - 김태문
성산대교 검은 그림자 기둥 - 강근배

친 절 상

[2001년]

관광객안내 및 주차정리 - 하태완 민부기

최우수 프로그램상

[2003년]
평양에서 고발 - 한원상 이재철

[2004년]
생활속의 무술 - 홍성보

주요 프로그램 개관

정규 프로그램 일람

- 이 일람표는 정시뉴스와 생중계를 제외한 정규프로그램을 분야별,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임
 - 역대 편성 개편 자료와 홍보팀 보도자료 · YTN연혁 · YTN홈페이지 · 담당자의 진술 등을 참조했음
 - 1차 작성자 홍성보, 2차 작성자 황보선
 - 연도표기 예 : 95 → 1995년, 03 → 2003년
 - 프로그램 신설과 종영 시점 · 기간 등을 '~' 과 '-' 으로 표시했음
- 예1) 95. 3. 1~03. 3.10 → 1995년 3월 1일 신설돼 2003년 3월 10일까지 존속됨. 신설 시점과 종방 시점 명확
- 예2) -95. 3. 1~03. 3.10 → 1995년 3월 1일 이전부터 방송됐지만 신설 시점이 불명확, 종방은 2003년 3월 10일로 명확
- 예3) 95. 3. 1~03. 3.10- → 신설 시점은 1995년 3월 1일로 명확, 2003년 3월 10일 이후 어느 시점에 종영됐는지 불명확
- 예4) 95. 3. 1- → 신설시점은 1995년 3월 1일로 명확하지만 언제 종영됐는지 불명확
- 예5) -95. 3. 1 → 신설시점은 불명확하지만 종영 시점은 1995년 3월 1일로 명확
- 예6) -95. 3. 1- → 1995년 3월 1일 현재 존속 중인 프로그램이지만 언제 신설되고 종영됐는지 불명확
- 예7) 95. 3. 1~현재 → 1995년 3월 1일 신설됐고 이 일람표를 작성한 2005년 5월 19일 현재 존속되고 있는 프로그램

시사 토론 · 대담 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집중조명	기동취재부 (95. 3. 1~97. 4.15) 기획제작총괄부 (97. 4.16~2003. 3.10)	김광식 등	95. 3. 1~ 03. 3.10	여론조사 기관의 객관적 데이터로 공론을 형성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토론으로 사회 이슈를 점검해 보는 본격 시사토코 프로그램. 1997년 7월 7일까지는 매일 방송. 이후 일요일분만 폐지. 주말에는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문화인사나 연예계 유명 인사를 출연시켜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 2002년 10월 28일 편성개편때 월~목요일로 축소 ▲역대 진행자: 김광식 21세기 연구소장, 이해경 연극평론가, 엄길청 안인혜 김순영 김백 김근배 주섭일 김재홍 이영대 이병혜 등
이한구의 시사진단	기획제작부	이한구	99. 1. 4~ 99. 9. 6	시사대담프로
경제 스페셜			99. 9. 6-	경제정책 등 경제분야 이슈를 해당 부처장 등으로부터 들어보는 심층 대담 프로그램
YTN 초대석	기획제작부		-00. 3. 6~ 01.11. 1-	부서별로 순환하며 제작. 매주 목 · 금요일 밤 7시 30분에 뉴스속 인물을 만나보는 프로. 중량감 있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 녹화도 중계차를 활용해 생동감 있게 진행
경제 궁금합니다			-01. 4.23-	월요일 프로. 경제계 주요 인물이나 최고 정책결정자 등을 초대해 진행하는 대담 프로
최동호의 토크라인	기획제작부		01. 4.23~ 03. 3.10	본격 1대1 대담프로. 최동호 교수(세종대 디지털대학원장)가 YTN을 통해 방송계 복귀, 매주 수요일 밤 11시 15분에 방송. 뉴스인물을 중심으로 사회성과 대중성 높은 인사 초청,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진솔하게 묻고 답하는 형식. CNN의 래리 킹 라이브와 비슷
윤방부 퍼플인뉴스	기획제작부	윤방부	01.10.22~ 04. 3	윤방부 연세대 의대 교수가 진행. 토요일 밤 9시 15분. 초방 후에 일요일 세번 방송. 주말 시간대 지상파 방송들이 주로 쇼와 오락에 치우치는 방송 현실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휴먼 스토리를 다룬 차별성 있는 프로. 기존 토크프로그가 유명한 사람, 전문가 위주였던 데 반해 미담 주인공, 사건 속 인물, 봉사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인물 등 평범하지만 귀감이 될 만한 보통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발굴해 소개

생방송 박찬숙의 쟁점토론	기획제작부 임종렬	박찬숙	03. 3.10~ 04. 3.15	금요일 오후 3시 15분부터 40분간 생방송. 여성 앵커 박찬숙 씨의 노련한 진행으로 사회의 빅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찬반토론을 통해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 시청자들의 전화참여, 관련자들의 중계차 연결 등 다양한 포맷으로 쌍방향 의견을 반영한 YTN 간판 토론프로
김민진의 생방송 쟁점토론	제작1팀 임종렬	김민진	04. 3.15~ 05. 4.11	'박찬숙의 생방송 쟁점토론' 후속 프로. 경희대 김민진 교수가 박찬숙 씨로부터 바통을 이어 진행. 목요일 오후 3시10분부터 3시 55분까지 생방송 후 녹화방송 3번
언론과의 대화	제작2팀 이기정	박인규	04. 3.15~ 05. 4.11	시사문제와 관련해 상이한 견해를 지닌 다양한 주체들을 출연시켜 시각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을 둠. 언론인 박인규 씨가 진행. 4회 녹화방송
박주현의 시사업클로즈	제작팀 이기정 박상남	박주현	05. 4.11~ 현재	수·금 오후 3시 5분 방송. 시사 토론 프로. 한 주간에 발생한 시사 이슈의 쟁점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인물에 대한 집중탐구도 병행. 관련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을 스튜디오로 초대하거나 중계차를 연결, 업클로즈(up close)는 밀착취재라는 뜻

교양·건강·레저 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오늘의 역사 역사 속 오늘	기동취재부/ 기획제작팀/ 기획제작부/ 제작2팀/제작팀		95. 3. 1~ 현재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와 한국사를 대안뉴스, 미국국립보존소 자료 등을 토대로 구성해 매일매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
건강정보	기획제작부		95. 3. 1~ 98-	각종 보건 의료 소식을 종합적으로 중점 보도하고 국내외 최신 의료정보 전달
건강24	기획제작부		97. 7. 7~ 98.11. 2	건강매거진. 생활 속의 다양한 건강 관련 소식을 전달
건강강좌	기획제작부		98.11. 2-	'건강24' 대체 프로. 건강 관련 세미나와 강연을 녹화편집해 방송
생활법률	기획제작팀 김진욱 이종걸 등		98.11. 2~ 99. 3.22-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 상담으로 시청자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생활과학 뉴스	기획제작부		99. 3.22-	기존 '건강24'를 확대개편한 프로그램
경마			-99. 3.22~ 05. 4.11	경마 관련 소식과 경마전문가의 해설로 꾸밈
헬로우 인터넷	기획제작총괄부 김진호		00. 3. 6~ 00.11.23-	인터넷 인구 확산에 따라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
웰컴 사이언스	경제2부	강수진	01.10.22~ 03. 3.10	금요일 오후 4시 35분 방송.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뉴스 전달. 과학계 인사 인터뷰,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서적 소개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 정보통신 생명 자연 우주 나노 시네마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신기술 소개
골프 플러스			-01.11. 1-	2001년 10월 22일 부활. 토·일요일 방송. 골프 강습과 골프계 뉴스로 꾸밈
여행 스케치	최명신 등		02. 1.11~ 03. 3.10	여행정보 교양 프로. 국내 여행 활성화 취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성운영부 외주		03. 3.10-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자연 탐험 다큐 25분물 방송
백지연의 정보특종	제작1팀	백지연	03. 3.10~ 04. 3.15	매일 35분 방영. 뉴스와 생활정보 등 폭 넓은 시사 콘텐츠를 심층취재해 인지도 높은 백지연 씨의 진행으로 시청자에게 전달. 건강 교육 생활정보 시사 레저 등 요일별 색선화. 뉴스로 직접 다루지 못한 뒷이야기나 생활 관련 콘텐츠를 집중개발, 시사성 강화
뷰티풀 라이프	편성운영부 외주제작		03. 3.10~ 04. 3.15	주말 35분 방영. 여성 전문 매거진. 전문 방송인 박정숙 씨가 처음에 진행. 패션 뷰티 건강 육아 요리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 이후 양지혜 씨가 진행을 이어받음. 동아TV와 공동제작(편당 200만원)

과학과 미래	제작2팀	김소영 강수진	03. 3.10~ 04. 3.15	기존 '웰컴 사이언스' 프로를 확대개편. 매일 25분 방영. 인류의 미래를 이끌 첨단. 과학기술과 생활 속의 과학상식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국내 최초 일일 과학기술 프로그램
클릭! 자동차생활	외주 편성운영팀		03. 3.10~ 05. 3.26	튜닝과 신차 소개, 자가 정비 등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 주말 4회 방송. 주5일제 정착에 맞춰 신설. 외주 프로
인사이드 월드	편성운영부		03. 3.10~ 현재	사람과 환경, 자연을 주요 아이টে으로 하는 BBC다큐멘터리로 시청자들의 지구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유도
사이언스+	제작2팀→ 제작팀 (05. 4. 1)	김미선 한정호 이승민 (05. 4.11~)	04. 3.15~ 현재	'과학과 미래'의 후속 프로. 주 4회 방송. 2005년 5월 현재 월·화·수·토요일 주 4회 방송. 요일별로 신기술·사이언스코리아(과학문화재단의 과학 캠페인)·역사속 과학(조상들의 과학적인 슬기와 지혜를 재조명)·달려라 장영실(묵묵히 발명에 힘쓰는 발명가들을 찾아가는 코너)·과학인 대담 등으로 선택화
라이프 n 조이	제작1팀, 제작팀 최명신 김신영 김명숙	윤재희	04. 3.15~ 현재	국내의 가볼만한 여행지를 집중 발굴하고 건강과 문화 정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생활정보로 웰빙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 30분물
특선다큐 B	편성운영부 외주		04. 3.15~ 05. 4.11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프로
지구촌 기행	편성운영팀 외주		04.10.21~ 현재	해외진출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내 집 안방처럼 세계 곳곳을 누비는 요즘 글로벌 시대에 눈을 맞춰 지구촌의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보는 프로

경제 특화뉴스·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경제 생활	기획제작총괄부 경제부		95. 3. 1~ 99. 6.18-	금융정보와 재테크·취업정보·해외경제뉴스 등 전달. 하루 두 차례 생방송으로 진행
산업 뉴스	경제부		98.11. 2~ 99. 7.12-	간추린 경제 뉴스와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심층 취재, 비즈니스의 새로운 동향 등 IMF시대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99. 1. 4~ 99. 9. 6	실업극복을 위한 해외취업·소자본 창업·재취업 교육 등 실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찾아주기 프로
금융 부동산 온라인			99. 1. 4~	일반 시청자들의 금융과 부동산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증권회사나 금융기관 분야별 전문가·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해 다양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
중소기업 뉴스	경제부		99. 3.22~ 99. 7.12-	21세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중소기업 관련 뉴스를 중점 보도
노동 취업 뉴스	경제부		99. 3.22~ 99. 7.12-	IMF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 고용문제와 노동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
로이홍의 뮤추얼펀드	국제부 유환용	로이홍	99. 3.22~ 99. 9. 6	국제금융 전문가의 눈으로 국내 뮤추얼펀드 분석, 매주 공개되는 펀드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뮤추얼펀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도하는 뮤추얼펀드 전문 프로그램. 진행자 로이홍은 월스트리트 현장에서 10여 년간 활동한 펀드 전문가
텔레니엄 경제	뉴스편집부	김영수 김경아	99. 7.12~ 99. 9. 9	대규모 구조조정 등 거대한 경제 변혁의 물줄기가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정보·신기술 신상품 등 각종 경제정보를 매일 두 차례 전하는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경제부		99. 9. 6~ 02. 4-	부동산 관련 정보를 총망라하는 본격 부동산 재테크 프로
코스닥 투데이	기획제작부	김영수 정애숙	00. 3. 6~ 02. 1.20	일일 증시 심층분석 쌍방향 프로. 하루의 증시상황 심층 분석과 다음날 전망, 시청자 직접 참여코너 운영. '주식클리닉'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이 전화 팩스 편지 등으로 문의하는 종목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분석, 평가

증시 와이드	뉴스편집부		00. 3. 6~ 00.10.23	증시특화뉴스
기업 리서치	경제부		-00. 3. 6~ 01.10.22-	신기술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우수 벤처기업 등 탐방
경제 와이드	뉴스편집팀	김영수	-현재	종합경제뉴스. 주중 오후 5시부터 50분 생방송. 증권·금융·세계 정보 등 다양한 경제뉴스 전달. 종합 경제뉴스의 강화를 건의한 시청자 행태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2001년 4월 23일 개편 때 오전 11시 30분대 추가. 출연자와의 대담 코너도 유동적으로 삽입하고 외국기업 뉴스 등 아이템을 다양화
머니 라인	기획제작부	김경신	02. 1.20~ 05. 3.26	증권사 간부(김경신)가 진행. 아침 개장 전에 당일 증시 전망
부동산 포커스	뉴스편집부		02. 4.23-	매주 목요일 방송. 기존 '부동산 뉴스'를 '부동산 포커스'로 타이틀을 바꾸고 시청자 Q&A 코너 등을 통해 제테크 정보와 구체적인 부동산 기사도 전달
경제 포커스	뉴스편집부		03. 3.10-	매주 목요일 40분 방영. 경제 매거진

정치·통일 특화뉴스·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정치 광장	기획제작총괄부 정치부		95. 3. 1~ 98. 4. 6	하루 동안의 정치 관련 뉴스 가운데 중요한 아이템을 엄선해 분석, 생생한 정치 현장과 정가진단을 제공
통일로	기획제작총괄부 기획제작부 동일외교팀		95. 3. 1~ 03. 3.10	북한 관련 소식을 정확하게 보도, 시청자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겨레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마련한 프로
북한 만화	기획제작부 동일외교팀		99. 3.22~ 01.11. 1-	북한 특화뉴스 '통일로'의 한 코너로 방영하다 1999년 봄 개편 때 독립 프로로 신설. 북한에서 제작한 만화영화 가운데 비이념적 아이템을 방송
북한 리포트	정치부		-01. 4.23~ 01.10.22-	화·일요일에 북한 최신 소식을 정리해 주는 프로

국제 특화뉴스·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세계, 세계인	월드뉴스부 국제부		95. 3. 1~ 현재	오늘을 사는 지구촌 이웃의 모습을 통해 보는 세계인의 삶과 문제들. 걸로 드러난 세계인의 풍습은 물론 그들의 삶 깊숙한 부분에 스며있는 생활철학까지 진지한 휴머니즘 시각으로 조명, 세계와 세계인의 진면목을 좀 더 가까이서 전달
토픽 월드	월드뉴스부 국제부		95. 3. 1~ 98. 4. 6	불거리 웃음거리 이야기거리와 진기한 풍물·사람들의 이야기를 포착해 제공
월드뉴스 매거진	월드뉴스부		95. 3. 1~ 98. 4. 6	해외 언론의 심층취재를 여과 없이 전달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냉정한 현실 감각을 제공
월드24	월드뉴스부		95. 3. 1~ 현재	그날그날의 외신 가운데 중요한 이슈를 즉시 보도, 짧은 시간에 세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 장수 프로그램의 하나
아시아, 아시안	월드뉴스부		95. 3. 1~ 96.가을	동남아시아 중동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개
위성 통역실	월드뉴스부		95. 3. 1~ 현재	위성으로 수신한 해외 주요 방송사의 TV리포트를 생생하게 동시통역으로 전달. 해외언론의 다양한 시각을 전하는 역할
월드 파노라마			99. 9. 6~ 01.11.1-	수요일 방송 20분물. 2001년 1월 현재 일요일 오전 11시 37분 방송

월드 나우 (World now)	국제부		02. 4.23-	국제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감안, 주말에 국제뉴스 특화프로그램 방송. 컴퓨터와 인터넷 우주 의학 환경 등 최신 국제뉴스와 뉴트렌드 등을 동시통역사들의 더빙으로 전달
해외동포 뉴스	해외방송팀	전현무	04. 3.15~ 현재	한반도내 한국인은 물론 지구촌 곳곳의 600만 채의 동포에게 뉴스와 정보 제공. 해외 동포가 요구하는 콘텐츠로 꾸며 매주 목요일 세 차례 방송. 세계 50여개 동포 방송사와 200여 명의 해외 통신원들을 활용. 통신원이 직접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쌍방향 지향

영어 뉴스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KOREA REPORT	국제부 영어뉴스팀 강형철 류충섭	안착희	95.10.29~ 97.11. 2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주요 뉴스를 영어로 방송한 국내 최초 영어뉴스 프로그램. 홍콩 최대 공중파 방송인 ATV와 미국 NBC의 아시아 법인인 NBC ASIA에 수출. 일본 러시아 중국은 물론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북부 등 총 55개국의 교민과 현지인에게 위성TV를 통해 우리 나라 뉴스를 영어로 전함. 국내 거주 외국인과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음
KOREA TODAY	국제부		98.11. 2-	'KOREA REPORT'의 후속 영어뉴스 프로. 매일 7분 방송. 국내 중요 뉴스를 요약해 방송. 국내외 외국인과 해외동포에게 한국을 바로 알게 하고 내국인의 영어 학습에 도움을 줌

문화·연예·스포츠 특화뉴스·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문화 마당	기획제작총괄부 문화과학부		95. 3. 1~ 98. 4. 6	영화 음악 미술 출판 등 문화계 소식을 전달하는 국내 최초의 문화특화뉴스. 매일 방송
스포츠	기획제작총괄부 스포츠부		95. 3. 1~ 현재	경기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주요 경기 전적을 종합정리해 보도
씨네24	문화과학부 (씨네버스 외주제작 때는 조용원이 진행)	오동진 안착희	97.11. 8~ 현재	국내외 개봉영화·새 비디오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영화 전문 프로그램. 한 주간의 영화계 동정·빅이슈·화제의 영화·촬영 현장·스타 인터뷰·개봉영화소개·영화비평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폭넓게 시청자층 공략. 2004.3.15편성개편 때 금요일 1회 방송으로 확정. 2002년10월28일 '씨네버스'로 제목 변경, 2003년 10월 6일 가을 편성개편에서 씨네24로 복원하고 MC를 최은지 씨가 담당
주간 문화마당	기획제작부 문화부		99. 3.22~ 00. 3. 6	1999년 봄 개편 때 신설. 이후 '문화, 문화인' 신설 때까지 존속. 한 주간의 문화 관련 뉴스를 총정리,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방송
문화, 문화인	문화과학부	노복미 이양희	00. 3. 6~ 03. 3.10	주말에 문화계 뉴스와 새로운 경향을 묶어 방송. 문화계의 큰 호응을 얻음. '주말 문화마당'의 타이틀을 '문화, 문화인'으로 바꾸고 한층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보 전달
해외 연예뉴스			01. 4.23~ 02. 4.15	로이터·CNN·APTN 등의 연예콘텐츠를 활용해 해외 주요 연예계 소식 전달. 토·일요일에 25분물 방송. 세계적인 배우·가수 등 스타 연예인들의 소식으로 구성
MIM	중국 사업팀	민하나	04.10.23~ 05. 3.26	단순한 음악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초대 가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음악 세계를 알아보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
클릭! 연예파일	편성운영팀 외주	김중휘 전지나	04.10.22~ 현재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딱딱한 뉴스 형식이 아니라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 이은영 아나운서의 발랄한 진행으로 연예가의 소식들을 속도감 있게 전달. '스타 이 말 저 말' 코너에서는 스타들의 꾸미지 않은 재미 있는 모습 전달

날씨 뉴스 · 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기상 센터	기상팀		95. 3. 1~ 현재	첨단장비와 기상 전문가가 만들어 내는 매시간 2회 날씨 전문 뉴스. 정시뉴스 코너로 편성
날씨와 정보			97. 7. 7~ 현재	월·화·수요일 정시뉴스 내 날씨 코너에 포함. 등산지와 낚시터 날씨는 물론 다음 주 기상 전망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날씨 정보 보도. 시간대별로 콘텐츠를 차별화한 기상정보 제공. 특히 주말에는 기상 뉴스를 3분대로 늘림
날씨와 골프			98.11. 2~ 04. 3.15	금·토요일일 정시 뉴스 내 날씨 코너에 포함. 골프인구 확산에 따라 골프 클럽이 있는 지역의 날씨를 미리 알려줌

지역 특화뉴스 · 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네트 워크	기획제작총괄부 기획제작부		95. 3. 1~ 현재	전국 방방곡곡의 다양하고 중요한 지방 소식을 보도하는 지방자치시대의 디딤돌 역할
지방자치시대			-01. 4.23-	수요일 방송

심층 · 재구성 뉴스 · 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뉴스 포럼	편집부	송경철 김소영	98.11.2~ 00. 5-	매일 국내의 주요 뉴스를 취재기자 출연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전달하는 시사 뉴스 매거진. 매일 밤 10시 방송
주간 뉴스포럼	편집부	송경철 김소영	98.11.2~ 00.5-	한 주간에 일어난 뉴스 중의 뉴스들을 정리하고 뉴스 뒷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냄
뉴스의 현장	뉴스편집팀		01. 4.23~ 현재	월~금 오후 2시에 생생한 현장 중계, 전화연결·출연·녹취구성물·현장 고발물 등으로 뉴스 포맷을 다채롭게 구성. 속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뉴스의 흐름을 잡아주고 평일 낮 시간대에 공중과 뉴스와의 차별성 구현하며 시청자에게 생동감 있는 뉴스를 전하는 데 취지를 뒀.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템을 집중 뉴스 형태로 적극 보도. '인터넷 뉴스' 코너에서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미디어daum' 기자를 화상전화로 연결해 살펴봄
뉴스 퍼레이드	뉴스편집팀	송경철	03. 3.10~ 현재	낮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30분 단위 3부 방송. 오전 뉴스를 신속하게 종합정리, 기사중심 뉴스에서 화면 중심 뉴스로 전환. 화면뉴스·베이스스 기사검색·인터넷으로 보는 스포츠 시사 상식 등 신설. 주요 기사 집중 분석·전문가대담·취재기자 전화연결 등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뉴스 전달
돌발 영상	뉴스편집부 (03.4.28~04.2.13) 기동취재팀 (04.2.13~현재) 노종면 임장혁 장민수	유현주	03. 4.28~ 현재	뉴스에 나가지 못한 화면을 활용. 재치있는 구성으로 사회에 대한 통찰력 제공. 정치권 등의 움직임을 비판적인 시각과 현장 화면 중심의 편집기법으로 매일 보도하면서 정치 기사와 방송 보도의 새로운 양식을 개척. 시청자와 네티즌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YTN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음. 처음에는 뉴스 퍼레이드 시간에 '돌발' 적으로 방송, 즉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뉴스의 초반에 나가기도 하고 맨 끝에 나가기도 했음. 주말에는 평일 돌발영상을 묶어 재구성하고 화제의 인물 인터뷰 등 코너를 추가 '주간 돌발영상' 방영
백지연의 뉴스Q	뉴스편집팀	백지연	04. 3.15~ 05. 4.11.	오후 4시 방송. 창사 이후 처음으로 외부 앵커 영입. 프리랜서 앵커 백지연 씨의 진행으로 기존 뉴스 양식을 파괴한 대담 형식 등으로 당일 주요 소식을 전달. 책임PD제 도입

이슈&포커스	뉴스편집팀	백지연 정애숙 등	04. 3.15~ 현재	백지연 뉴스Q·정애숙 뉴스Q·녹화편집. 밤 9시 15분, 익일 오전 1시 15분, 4시 1분 방송
뉴스7-9	뉴스편집팀 방병삼 김명숙	노종면 김선영	05. 4.11~ 현재	15분 뉴스 휠 방식으로 1~8부를 2시간씩 진행

기타

프로그램	담당	진행자	방송 기간	주요 내용
인물 뉴스	뉴스편집부		02. 4.23~	하루 3차례 정시뉴스에 삽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계 VIP들의 소식 전달
시청자의 눈	편성심의실		00.10.23~ 현재	통합방송법 시행에 따라 주1회 60분 이상 옴부즈맨 프로를 편성. 일요일 저녁 5시 25분 방송. 시청자들이 1주일 동안 방송된 YTN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방안 제시

(2005. 5. 19 현재)

특집 프로그램 일람

- 이 일람표는 역대 특집 프로그램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임
- 편성표와 홍보팀 보도자료 · YTN 연혁 · 담당자의 진술 등을 참조했음
- 1차 작성자 홍성보, 2차 작성자 황보선

프로그램	담당	방송 기간	주요 내용
라인에서 엘베까지 14부작	강철원 홍성보 조성룡	95. 3. 4~ 4.16	동서독 통일 5주년이 되는 통독현장을 밀착 취재, 남북한 통일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봄. 창사특집 YTN테마기획
세계의 지방자치 14부작	추은호 박철원	95. 4.22~ 6. 4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 현장을 밀착 취재. 지자체특집 YTN테마기획
스포츠과학/ 미래의 사무실		95. 6.10~ 6.11	30분물, 2부작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	기동취재부	95. 6.23~ 6.26	민주당 조순 · 민자당 정원식 · 무소속 박찬중 등 민선 서울시장 선거 입후보자들의 출마 동기와 소양 정견 등 발표를 특별 생방송
세계속의 한국인 25부작	외주제작	95. 7. 8~ 9.30	광복 50주년 한인 이민사 100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 한인들의 역사와 현실, 변화상을 살펴봄. 현지 사회와 융화하는 이민사회의 새로운 변화, 전문직이나 공직에 진출하거나 현지 기업인으로 성장한 개척 한국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망. 30분물 25부. 광복50주년 YTN테마기획
신 대동아공영권 30부작	편성운영부 최종결 외주제작	95. 8. 7~ 9.15	광복 50주년을 맞아 한국 일본 양국의 세계 진출 상황을 아시아 11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YTN 테마기획. 20분물 30부. 광복50주년 YTN테마기획
UN창설 50주년 평화를 향한 길	김동민 등	95.10.23~10.24	유엔 창설 50주년을 맞아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을 영국 태생 작가 겸 외교관 출신인 브라이언 어콰트 경의 시각에서 살펴봄. 냉전 종식 후 국가간 조정기구 역할이 증대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알아봄. 유엔창설 50주년 다큐멘터리
독일통일 그 후 5년	강철원 홍성보	95.10. 7~11.26 (20분, 12부) 96. 1. 1~ 1. 2 (20분, 8부)	동서갈등을 극복하고 통일 5주년을 맞은 독일의 현주소를 서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심층취재해 조명, 해방 50년 분단 50년을 맞은 우리가 앞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봄
세계의 명차 10부작	황명수 이기창 등	95.12. 3~ 96. 2. 4	세계 자동차 시장을 놓고 각국 자동차업체들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21세기 명차의 조건과 한국 자동차의 위치를 진단한 YTN 테마기획. 20분물 10부작
케이블TV 1년 2부작		96. 2.29~ 3. 1	'케이블TV 1년 - 미국은 케이블TV 시대' (외주). 25분물. 1부 '케이블TV 1년'은 케이블TV 출범 1년을 맞아 평가, 전망하는 특집. TV보유대수 증가 · 케이블TV 스타 · 정보고속도로 케이블의 전망과 문제점 · 케이블 보급 개선방안 등을 살펴봄. 2부 '미국은 케이블TV 시대'는 케이블TV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미국의 케이블TV 성장배경을 살펴봄
삼풍사고 그 후 1년	기동취재부 김종욱 홍성보 김영우 윤성수 등	96. 6.28	사망자 502명을 기록한 삼풍 사고 1주기를 맞아 아직도 당시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생존자 유가족들에 대한 밀착 취재와 부실시공 방지책, 긴급 구난체제의 현주소를 살펴봄. 50분물 다큐
산업경쟁력을 살리자 25부작	기동취재부 등	96. 7~12.16	기업의 수출 진흥, 기술개발 마인드 확산과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위한 민 · 관 · 업계 전문가들의 토론회
미국의 경쟁력	편성운영부	96. 9. 8~10.10	미국 현지 프로덕션 외주제작. 30분 10부작. 선진강대국 미국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배경을 분야별로 심층취재. 문턱 낮은 관공서 · 활용도 높은 도서관 · 구조시스템 · 정보고속도로 · 가스 안전관리 · 자원봉사 등으로 나눠 살펴

한반도와 주변정세 4대국 대사에게 듣는다 4부작	김종욱 홍성보 김태진	96.11.10~12. 1	주변 4대 열강의 대 한반도 정책과 외교 전략을 제임스 릴리 주한미국대사·장팅엔 주한 중국대사·게오르기 쿠나제 주한 러시아대사·야마시타 신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들어봄. 안인혜 엄길청 진행
케이블TV 2년 97 홍콩반환	문화스포츠부	97. 3. 1 97. 3. 2	케이블TV 출범 2년을 맞아 국내 케이블TV를 점검 전망한 특집. 47분물 1997. 6.30 중국 반환일을 앞둔 홍콩의 이모저모와 미래를 조명
남북통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15부작	김종욱 홍성보 김영우	97. 5. 5~ 5.19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은 무엇인지, 원활한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정치 군사 법률 경제 과학 사회 문화 환경 교육 등 분야별로 살펴봄. 김영수 진행
일본 정계 지도자가 본 한일관계 2부작	노경완 등	98. 2.26	일본 사민당 도이 당수와 민주당 간 나오토 대표와의 연속 대담을 통해 한일 간 경제적 상호 이해와 선린 우호관계 증진 방안 모색. 이기택 진행
베트남 특집 3부작	신동윤 등	98.12.12~12.14	시장경제를 수용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험을 통해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방안을 모색함
사진으로 남긴다 한국사진사 120년	문화스포츠부 노복미	98.12.31	98 사진영상의 해를 결산하며 국내외에서 모은 중요한 사진자료를 처음 보도, 사진의 중요성과 사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 한국사진사 120년 특집. 노복미 진행
북한의 민속 3부작	홍성보 안형준	99. 2.15~ 2.17	우리 민속 전래의 혼례풍습 가무놀이 무술놀이와 관련된 북한 영상자료를 재편집
이대로 죽을순 없다	이중수 한원상	99. 8.13~ 8.15	북한 출신 일본군 위안부들의 실태와 위안소의 생활상 등을 한국 방송 사상 최초 공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기. 9월 이달의 기자상·YWCA 우수 프로그램상 수상
꿈틀거리는 중국시장	박철원	99. 8.31~ 9. 5	동북3성의 관문이자 물류중심지인 다롄의 개항 10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 간 무역 현황 취재. 상호 경제협력 방안 모색
그리운 북녘 산하, 보고픈 문화유산	기획제작부 문중선 지순한	99. 9.24	북한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남측 원로 화가들의 강서고분 고구려 벽화와 백두산 묘향산 답사 기행기
몽골 유라시아 새천년을 꿈꾼다 7부작	배석규 김호성 윤중수 이종국 김재동 이승주	00. 1. 1~ 1.20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이 지난 천년대 전반 어떻게 지구의 절반을 아우르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 왜 무너졌는지 추적. 뉴밀레니엄 특집다큐멘터리. 3월 이달의 기자상·삼성언론상 받음
디지털 세계대전 4부작	황명수 최휘영 조용원 원종호	00. 1. 1~1.30	디지털의 신기술 때문에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 빠져든 방송과 미디어업계를 중심으로 새 천년의 화두·디지털 혁명의 실체를 낱알이 해부. 40분물 4부작. 뉴밀레니엄 특집다큐멘터리
화해와 공존의 길 4부작	홍성보 안형준 임승환 방을열 강재환 박정호	00. 2.24~ 3. 5	21세기와 통일한국을 주제로 금강호 선상에서 벌어지는 진보와 보수진영 주요 인사들의 격의 없는 토론과 북쪽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금강산 등반 등을 밀착 취재함
끝나지 않은 전쟁	한원상	00. 2.29~ 3. 1	일제 때 일본군 군속으로 끌려가 부상했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보상금 환부 받지 못하고 있는 제일 한국인 징용자의 이야기
제3의 혁명, 생명과학 3부작	한정호 이강문 조성룡	00. 4.21	병 없이 오래 사는 무병장수의 꿈에 도전하는 국내의 첨단 생명과학 현장 집중 취재
전국대학 게임 리그대회		00. 4.22~ 7.30	학부모들에게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600만 명에 이르는 게임 동호인들의 관심에 적극 부응
21세기 원자력을 말한다 4부작	이재윤	00. 5. 8~ 5.29	원자력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의 8개국의 원자력 산업 현황, 안전을 둘러싼 논란과 첨단기술 현장 소개. 25분물 4부작
YTN 환경다큐 5부작		00. 6.26~ 7.24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기상 이변과 오존층 파괴에 따른 대책, 박테리아를 이용한 환경오염 해결 방안 등 환경 문제 조명
민선 단체장에게 듣는다 5부작		00. 7.18	고건 서울 시장 등 지방자치 5주년 특별대담
꿈의 통신 IMT-2000 3부작	이홍렬 김동민	00. 9. 4~ 9. 6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음성과 영상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꿈의 통신이라 불리는 IMT-2000 집중 취재. 40분물 3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사이버 세상, 무엇을 할 것인가? 10부작		00. 9.18~11.20	컴퓨터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기업의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천혜의 자원, 습지 4부작	윤중수 홍문표	00.11. 8~11.29	생태계의 보고로 오염을 정화하는, 지구의 신장으로서 살아 숨쉬는, 인간의 삶을 살찌우는 천혜의 자원 습지 조명. 40분물 4부작. YTN특별기획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후속편	한원상	00.11.20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범정을 앞두고 남과 북이 공동기소장을 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손을 맞잡은 역사적 현장을 밀착 취재. 한국언론대상·홍성현 언론상
김치의 재발견 3부작	이재운 지순환 백선기	01. 1. 4~ 1.18	우리 김치의 우수성과 해외 진출, 김치의 유전공학적 연구 개발과 향후 과제 등을 조명
세계의 게임산업 3부작	기획제작부. 박철원 안광연 김영옥	01. 6.14~ 6.28	국산 게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과 일본 게임산업의 현재와 미래 모습은 어떤지 알아본다
선진의료의 조건 3부작	경제2부 김상우	01. 7. 9~ 7.23	온 국민을 의약 분업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의사와 약사, 환자들 간에 갈등을 조장한 의약 분업 문제를 본격 진단
2001 한국금융의 선택 3부작		01. 7.12~ 7.14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를 점검하고 선진국 금융산업의 변화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
도시와 강 3부작	방병삼 이문세	01. 7.30~ 8.13	한강을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강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국 템즈강과 프랑스 센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 모델을 제시
붉은별의 대장정	왕선택 조현진	01. 9.28~ 9.30	건국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현주소
우주시대가 열린다 2부작	경제2부 김진두	01.10.22~10.29	한국 우주산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우주센터 건립을 계기로 세계 우주산업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 미래를 전망해보고 우리의 우주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특집. 제1편 '불붙는 우주경쟁'에서는 미국·일본·러시아 등 16개국이 참여한 프로젝트 국제 우주정거장 ISS의 건설과 ISS를 통한 신소재 개발 가능성 등 각국의 치열한 경쟁 전략을 소개하고, 제2편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우리 우주산업의 현주소를 둘러본 후 우주강국 대열에 끼어 들 수 있는지 가능성과 해법을 모색
13억 중국 대륙에 부는 패션바람	김선희 조성룡 장명호	01.12. 3~12.10	중국의 패션시장과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변모해 가는 중국시장의 가능성 등을 점검, 그 속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진단해 올바른 활용 방안을 모색
패션대국의 길 2부작	김선희 조성룡 장명호	01.12.18~12.25	이탈리아 패션 산업의 선진화된 구조를 교육시스템과 유통, 디자이너 생활 등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패션 산업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 25분 2부작.
한국경마 선진화로 가는길 3부작		01.12.21	연매출 5조원의 초대형 레포츠인 한국 경마의 선진화와 대중화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농업 4부작	이동우 이승철 박관우	02. 2. 7~ 2.28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비전 제시를 위한 국내외 친환경농업 현장을 취재
해외건설 특집 7부작	천상규 엽해진	02. 3.18~ 3.26	기술력과 특유의 승부근성, 그리고 성실한 시공으로 온갖 악조건을 무릅쓰고 대형공사 수주에 성공한 한국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현장 취재
관광 한국, 카지노를 다시 본다		02. 6.11	가족 테마 파크로 거듭난 라스베이거스의 변신과 제2의 도약을 꿈꾸는 마카오, 카지노를 허용한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카지노 산업 육성 방안 모색
21세기 문화가 경쟁력이다		02. 4.24	우리나라 영상문화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특별기획프로 그램
2002 한국경제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02. 4.25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타진해 보고 바람직한 중소기업 육성방안 등을 제시
새로운 도전, 21세기 전력산업 3부작	박경석 정유신 정철우	02. 5. 6~ 5.20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인 전기의 중요성과 전력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
디지털 위성방송 미래를 바꾼다 3부작	문준선 조승호 강근배	02. 5.27~ 6.10	위성방송 선진국인 영국 미국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디지털위성방송 실태와 전망을 알아보고 한국 위성방송의 방향 제시
2002 월드컵신화 2부작	홍성보 함형건	02. 7. 1~ 7. 2	세계 축구 역사를 다시 쓰는 쾌거를 이룩한 태극전사와 12번째 태극전사인 '붉은 악마'에 대한 특별 기획
금융, 글로벌 경쟁시대 3부작	김종균 방병삼 원영빈	02. 7. 8~ 7.22	엄청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거대 금융 폴리앳과의 싸움에서 살아 남기 위해 우리 금융이 나아갈 길 조명
화해와 협력의 길	홍성보 이승주 이병우	02. 8.15	금강산 관광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 교류협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남북한이 공존 번영하기 위한 방안 모색

산, 숲, 그리고 사람 5부작	김동민 박진수	02. 9. 2~ 9.16	산림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청년의 숲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산림부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 산의 해 특집
시장경제로 가는 신중국 3부작	김태현 박철원 최영욱	02. 9.23~10. 7	중국대륙의 주요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장경제화 등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 경제의 진로 및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을 모색
농업특집 이제는 경쟁력이다 20부작	권오진 박영진 김정현	02. 9	농산물 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
3당 총재 · 대표에게 듣는다	정치부	02. 9~ 9.11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임오년 새해를 맞아 3당 총재와 대표를 초대해 정치현안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신년 특별 대담
서울시장 여야후보 토론회	정치부		민주당 김민석 후보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TV토론회. 김재홍 진행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7부작	정치부	02.10.18~10.29	이인제 유종근 정동영 노무현 한화갑 김중권 김근태 등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대선 예비주자 7명과의 대담. 홍상표 진행
한나라당 경선후보 토론회	정치부	02	한나라당 이회창 최병렬 이부영 이상희 후보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능력과 자질 등 합동 토론회. 김재홍 진행
대선 후보 TV 토론회	기획제작부	02.10.15~10.29	정몽준 노무현 권영길 이회창. YTN 주최 특별 생방송. 정대화 조홍래 허행량 진행
대선 후보 부인에게 듣는다	기획제작부	02.12. 2~ 4.??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부인들을 초청, 가정과 일상에서 만나는 대선 후보들의 모습과 부인들의 철학 · 정치관 등 대담. YTN 주최
다시 태어나는 한국철도	이양현		
가자, 아시아의 허브로	조현진 김태운	03. 1	한국이 동북아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홍콩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
역사의 기록 국민의 정부 5년	채문석 호준석 김인규	03. 1.30	IMF 외환위기 속에 출범했던 국민의 정부 시기 울고 웃었던 시간들, 감동과 절망의 시기들을 연대순으로 살펴봄
선진 산업현장을가다 3부작	심창래 이승주 강경민 이병우	03. 2	선진국의 산업안전 보장 정책과 학교 · 직장에서의 안전교육 등 안전교육이 생활화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과 국민 안전의식을 높임
세계의 전력산업 3부작	김정희 심정숙	03. 3.13	낙후된 전력시설 국가에서 보이는 전력산업의 중요성, 각국 전력업체들의 노력과 성공배경,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주소 조명
T.K생은 말한다	이재철 한원상	03.10. 3	1970년대 초 유신헌법의 언론출판 자유 제한 가운데 민주화와 언론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 독재와 싸운 이들을 조명. 2003년 4/4분기 우수프로그램상 수상
원전폐기물 처분장 현장을 가다	김영수 정희인 황광모	03.10. 4	외국의 핵폐기물 처분장의 사례를 통해 국내 핵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
평양에서 고발	이재철 한원상	03.11. 3	일제시대 징용된 한국인들이 남북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례를 통해 이산가족과 강제징용의 아픔을 조명. 2003년 11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 2003년 YTN 최우수프로그램상
한국경제 이렇게 풀자	김상우 하성준	04. 1. 2	국내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분야별 사례를 통해 짚어 봄
기로에 선 한국경제 10부작	임종렬 최명신	04. 1. 2	경제전문가와 CEO 등이 패널로 참석 우리경제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 조동성 진행
정치개혁 원년,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과제는?	정재훈 원종호 오건석	04. 1. 3	돈 정치로 상징되는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정치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취재
한국의 미래가 숨친다 6부작	외주제작	04. 1.21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 개발사업 소개
지배구조가 경쟁력이다 3부작	김진우 안광연 이문세 김정원	04. 2. 6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유수 기업과 이들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 기업에 있어서 지배구조가 갖는 의미와 올바른 방향 모색
다시 뛰는 코리아 6부작	김영수 배성준 임종주 김선중 조용원 강근배	04. 3.15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 10여개국을 돌며 세계속의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모습 집중 취재 창사10년 특집

생활속의 무술 5부작	홍성보 이인성 이강현	04. 3.15	한·중·일 동양 3국과 미국 유럽 등 서구 사회의 무술 현장을 집중 취재해 동양무술의 진면목과 의미를 살펴봄. 창사10년특집
17대 총선 합동 토론회	임종렬	04. 4. 8	각 당 선거대책위원장 첫 합동토론회에 이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전국 SO협회의와 공동으로 개최한 17대총선 합동토론회. 김민진 진행
미리 가 본 미래 NAB2004 국제방송장비전	이중수 김신영 원종호	04. 5.10	디지털 혁명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장을 선점하려는 소니·파나소닉 등 세계 유수업체들의 디지털 전쟁과 한국 업체들의 도전 등
긴급보고 선진 혈액관리	김동민 김승재 정철우 이동규 김창용	04. 5.17~ 5.25	선진국의 혈액관리 실태를 취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혈액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안전한 혈액관리체제 조기 도입 방안 모색
천년의 어울림 강릉 단오제	정현교 정유신 강재환	04. 6. 9	지난 천년 동안 제례와 예술, 놀이가 어우러진 향토축제인 강릉단오제의 세번째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록을 앞두고 유래와 풍습을 살펴봄
아테네, 108년만의 축제	최동호 오유철	04. 7.20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준비 상황, 올림픽이 그리스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조명
변화하는 동북아 러시아의 선택은?	왕선택	04. 9.21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경제협력 등 한·러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하버드대 석좌교수 티모시 콜튼 박사와의 특별 대담
세계의 상인 화상 4부작	류충섭 이강문 권석재 이승준	04. 9. 6~ 9.14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화교 자본의 현주소와 한민족 공동체의 대응 방안 집중 조명
사람과 자동차 3부작	박철원 현덕수 이승환 권한주	04. 9.20~ 9.22	전에 없던 대규모 지각변동을 경험한 세계 자동차 업계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
세계의 한인들	해외사업팀	04.10. 2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활약상
반도체 산업과 그 격들	문중선 김동민 이성모	04.11. 9	디지털 시대 첨병인 반도체 산업이 아닐로그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 지적과 개선책 모색
세계의 의료제도 5부작	외주제작	04.12.15	의료 선진국의 의료 소비자 운동 등을 통해 한국의료 체계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 도출
동북아 허브 연약지반이 문제다	김승재 한원상 김영철	04.12.21	부산 신항만 건설과 인천공항 확장 공사에 사용되는 연약지반 개량공법인 pbd 공법의 문제와 대안 등 제시
신약, 150살에 도전한다 3부작	한정호 용성욱 김복중	04.12.27	불치병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약 개발과 임상실험 과정 등 집중 취재. 창사10년 특집
태권도를 말한다	홍성보 이인성 이강현	05. 1. 1	현대인에게 적합한 무술 개념과 국기 태권도의 정체성 확보 방안을 모색. 서양인들의 생활철학으로 자리 잡은 해외 태권도와 달리 어린이와 경기 태권도 위주로 기운 국내 태권도의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
떠오르는 동북아시대 3부작	박철원 이강문	05. 1.	한·중·일 3국에 다가올 동북아 시대를 대비,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생활상 등 조명
디지털의 미래	김원배 이성모 이승환	05. 1.19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전시회의 최근 동향과 디지털 제품을 통한 인간의 미래 조명
자원 그리고 미래	이승훈 김준영 김대경 박정호	05. 2.28	고유가와 원자재난 파고 속에서 해외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등 해외 자원부국 취재
현장르포 임진강 2부작	기동취재팀 문중선 김동민 이희수	05. 3.21~ 3.28	남북 분단으로 소외지역 취급 받은 임진강 유역 겨울 생태계와 역사 유적 취재. 25분물 2편. 1편 '분단이 지킨 생태계', 2편 '야생에 숨쉬는 역사'
한국의 들꽃	영상취재부	99년 연중기획	한국의 자연 시리즈 제1탄
한국의 민물고기	영상취재부	00년 연중기획	한국의 자연 시리즈 제2탄. 한국카메라기자협회 '영상부문 최우수상'
한국의 새	영상취재부	01년 연중기획	한국에 등지를 뜬 텃새와 철새. 한국의 자연 시리즈 제3탄. 우리 산하에 등지를 뜬 텃새와 철새들의 아름다움과 생활상을 생생히 전함
한국의 곤충	영상취재부	02년 연중기획	한국에 살고 있는 갖가지 곤충
한국의 악기	영상취재부	03년 연중기획	한국 전통의 각종 악기 조명

1995~2005년 기본 편성표

개국방송 편성표(1995. 3. 1 수요일)

PM 12	00 YTN24	03	00 YTN24	06	00 YTN24	09	00 CH24집중조명
	25 기상센터		15 위성통역실		15 위성통역실		50 SO광고
	30 YTN뉴스메모		25 기상센터		25 기상센터		55 기상센터
01	35 YTN인터 월드24(외신확대종합)	04	30 YTN뉴스메모	07	30 YTN뉴스메모	10	00 YTN프라임뉴스
	55 기상센터		35 YTN인터내셔널 아시아, 아시안		35 YTN스페셜 문화마당		30 기상센터
	00 YTN24		00 YTN24		55 기상센터		35 YTN스페셜 정치광장
02	15 오늘의 역사	05	15 오늘의 역사	08	00 YTN스페셜 네트워크	11	55 SO광고
	25 기상센터		25 기상센터		25 기상센터		57 기상센터
	30 YTN뉴스메모		30 YTN뉴스메모		30 YTN뉴스메모		00 YTN24
03	35 YTN개국특집 출발24시간뉴스	06	35 YTN개국특집 출발24시간뉴스	09	35 YTN스페셜 통일로	12	15 YTN스페셜 스포츠
	55 기상센터		55 기상센터		55 기상센터		25 기상센터
	00 YTN24		00 YTN24		55 기상센터		30 YTN뉴스메모
04	25 기상센터	07	25 기상센터	10	00 YTN프라임뉴스	13	35 YTN인터내셔널 뉴스매거진(3.1초방)
	30 YTN뉴스메모		30 YTN뉴스메모		25 기상센터		55 기상센터
	35 YTN스페셜 경제생활		35 YTN스페셜		30 YTN인터내셔널 월드24(외신확대종합)		AM 11:50 애국가
05	55 기상센터	08	55 기상센터	11	50 뉴스메모	14	11:54 YTN개국 (구성물)
	00 YTN24		00 YTN24		55 기상센터		
	25 기상센터		25 기상센터				

1996년 기본 편성표

월요일~토요일		
아침 05	00 YTN24	30 YTN뉴스메모
	15 오늘의 역사	35 통일로 (토요일은 문화마당)
08	30 YTN뉴스출발 (1~6부)	07 00 네트워크
	35 세계, 세계인	30 YTN뉴스메모
09	00 YTN24	35 문화마당 (토요일은 KOREA REPORT)
	15 위성통역실	08 00 YTN프라임뉴스
10	30 YTN24	35 월드24
	00 YTN24	09 00 채널24 집중조명
11	15 오늘의 역사	50 위성통역실
	30 YTN뉴스메모	밤 (새벽) 00 YTN프라임뉴스
12	35 경제생활	10 30 정치광장
	00 YTN24	11 00 YTN24
(저녁) 01	15 위성통역실	10 스포츠
	30 YTN뉴스메모	30 뉴스메모
02	35 세계, 세계인 (토요일은 월드뉴스매거진)	35 월드뉴스매거진
	00 YTN24	12 00 YTN24
03	10 채널24 집중조명	20 문화마당
	50 위성통역실	01 00 YTN24
04	00 YTN24	15 세계, 세계인
	15 위성통역실	35 YTN 뉴스메모
05	30 YTN뉴스메모	40 경제생활
	35 경제생활	02 00 YTN 24
06	00 YTN프라임뉴스	15 정치광장
	35 경제생활	30 YTN뉴스메모
07	00 YTN24	40 월드뉴스매거진
	15 위성통역실	03 00 YTN24
08	30 YTN뉴스메모	10 채널24 집중조명
	35 세계, 세계인 (토요일은 월드뉴스매거진)	04 00 YTN24
09	00 YTN24	15 통일로
	15 위성통역실	30 YTN뉴스메모
10	30 YTN뉴스메모	40 경제생활
	35 경제생활	01 00 YTN24
11	00 YTN24	15 통일로
	15 위성통역실	30 YTN뉴스메모
12	30 YTN뉴스메모	40 경제생활
	35 경제생활	02 00 YTN24
01	00 YTN24	15 통일로
	15 위성통역실	30 YTN뉴스메모
02	30 YTN뉴스메모	40 경제생활
	35 세계, 세계인 (토요일은 월드뉴스매거진)	03 00 YTN24
03	00 YTN24	10 채널24 집중조명
	15 위성통역실	04 00 YTN24
04	30 YTN뉴스메모	15 통일로
	35 세계, 세계인 (토요일은 월드뉴스매거진)	30 YTN뉴스메모
05	00 YTN프라임뉴스	40 경제생활
	35 경제생활	01 00 YTN24
06	00 YTN24	15 통일로
	15 위성통역실	30 YTN뉴스메모
매시간 2회 기상센터		

일요일		
아침 05	00 YTN24	05 00 YTN프라임뉴스
	15 위성통역실	30 YTN뉴스메모
06	30 YTN뉴스메모	35 토픽월드
	35 세계, 세계인	06 00 YTN24
07	00 YTN24	15 위성통역실
	15 오늘의 역사	30 YTN뉴스메모
08	30 YTN뉴스메모	35 건강정보
	35 토픽월드	07 00 네트워크
09	00 YTN24	30 뉴스메모
	15 위성통역실	35 YTN테마기획
10	30 뉴스메모	08 00 YTN프라임뉴스
	35 건강정보	35 세계, 세계인
11	00 YTN24	09 00 채널24 집중조명
	15 오늘의 역사	40 스포츠
12	30 YTN뉴스메모	밤 (새벽) 00 YTN프라임뉴스
	35 세계, 세계인	10 30 건강정보
01	00 YTN24	00 YTN24
	15 위성통역실	15 스포츠
02	30 YTN뉴스메모	35 월드뉴스매거진
	35 YTN테마기획	00 YTN24
03	00 YTN24	25 위성통역실
	15 위성통역실	35 문화마당
04	30 YTN뉴스메모	01 00 YTN24
	35 YTN테마기획	10 KOREA REPORT
05	00 YTN24	40 월드뉴스매거진
	15 위성통역실	02 00 YTN24
06	30 YTN뉴스메모	15 정치광장
	35 월드뉴스매거진	40 월드뉴스매거진
07	00 YTN24	03 00 YTN24
	15 위성통역실	10 채널24 집중조명
08	30 YTN뉴스메모	04 00 YTN24
	35 YTN테마기획	15 YTN테마기획
09	00 YTN24	40 월드뉴스매거진
	15 위성통역실	03 00 YTN24
10	30 YTN뉴스메모	10 채널24 집중조명
	35 YTN테마기획	04 00 YTN24
11	00 YTN24	15 YTN테마기획
	15 위성통역실	40 월드뉴스매거진
12	30 YTN뉴스메모	01 00 YTN24
	35 토픽월드	10 채널24 집중조명
01	00 YTN24	04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15 YTN테마기획
02	30 YTN뉴스메모	40 월드뉴스매거진
	35 건강정보	03 00 YTN24
03	00 YTN24	10 채널24 집중조명
	15 오늘의 역사	04 00 YTN24
04	30 YTN뉴스메모	15 통일로
	40 월드뉴스매거진	30 YTN뉴스메모
매시간 2회 기상센터		

1997년 기본 편성표

월요일~토요일			
아침		07	00 네트워크 35 문화마당 (토) KOREA REPORT
05	30 YTN뉴스출발 15 1~6부		
08	30 세계, 세계인	08	00 YTN프라임 뉴스 50 스포츠
09	00 YTN24 15 위성통역실 30 YTN24	09	05 채널24 집중조명
10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35 경제생활	밤	
		(새벽)	00 YTN프라임뉴스 35 통일로
11	00 YTN24 35 월드뉴스매거진 (토) KOREA REPORT	11	00 YTN24 30 스포츠 메모 35 정치광장
낮		12	00 YTN24 35 문화마당 (월)토티월드
(저녁)	00 YTN프라임뉴스 12 35 월24	01	00 YTN24 15 세계, 세계인 (월)스포츠 40 경제생활 (월)월드뉴스매거진
01	00 YTN24 15 위성통역실 35 세계, 세계인 (토)월드뉴스매거진	02	00 YTN24 15 정치광장 (월)건강정보
02	00 YTN24 35 경제생활	03	00 YTN24 10 채널24 집중조명
03	00 YTN24 10 채널24 집중조명	04	00 YTN24 15 통일로 (월)토티월드 35 경제생활 (월)월드뉴스매거진
04	00 YTN24 10 위성통역실 35 월드뉴스매거진 (토) 세계, 세계인		
05	00 YTN프라임뉴스 35 경제생활		
06	00 YTN24 15 위성통역실 35 세계, 세계인 (토)문화마당		

일요일			
아침		05	00 YTN뉴스메모 35 토티월드
05	00 YTN24 15 위성통역실 40 세계, 세계인	06	00 YTN24 15 위성통역실 35 건강정보
06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35 토티월드	07	00 네트워크 35 세계, 세계인
07	00 YTN24 15 위성통역실 35 건강정보	08	00 YTN프라임뉴스 30 월드뉴스매거진
08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35 세계, 세계인	09	00 채널24집중조명 40 스포츠
09	00 YTN24 15 위성통역실 35 KOREA REPORT	밤	
10	00 YTN24 35 월드뉴스매거진	10	00 YTN프라임뉴스 30 건강정보
11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35 세계, 세계인	11	00 YTN24 15 스포츠 35 세계, 세계인
낮		12	00 YTN24 15 위성통역실 35 문화마당
12	00 YTN프라임뉴스 35 토티월드	01	00 YTN24 10 KOREA REPORT 40 경제생활
01	00 YTN24 15 위성통역실 35 건강정보	02	00 YTN24 15 정치광장 40 월드뉴스매거진
02	00 YTN24 30 세계, 세계인	03	00 YTN24 10 채널24집중조명
03	00 YTN24 10 채널24집중조명	04	00 YTN24 10 경제생활 35 KOREA REPORT
04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40 월드뉴스매거진		

2000년 가을 개편 편성표(9.18 편성)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00	00 YTN24 20 오늘의 역사 30 헬로우 인터넷	00	00 YTN24 20 오늘의 역사 30 헬로우 인터넷	00	00 YTN24 20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50 위성통역실	00	00 YTN24 20 오늘의 역사 35 주말 문화마당
01	00 YTN24 10 YTN스포츠 35 세계, 세계인	01	00 YTN24 10 YTN스포츠 35 세계, 세계인	01	00 YTN24 10 YTN코스닥투데이 40 YTN스포츠	01	00 YTN24 10 YTN스포츠 35 씨네24
02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55 위성통역실	02	00 YTN24 25 기상센터 30 환경기획 (수: 통일, 통일로 목: 초대석 금: 부동산뉴스) 55 혼장을찾아드립니다	02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25 기상센터 35 레저스포츠 경마 55 혼장을찾아드립니다	02	00 YTN24 15 헬로우 인터넷 30 주요뉴스
03	00 YTN24 15 북한만화 35 세계, 세계인	03	00 YTN24 15 기상센터 55 기상(금: 레저)	03	00 YTN24 15 집중조명 55 레저	03	00 YTN24 15 집중조명 15 김중조명
04	00 YTN24 25 기상센터 35 월드파노라마 50 혼장을찾아드립니다	04	00 YTN24 15 헬로우 인터넷 30 주요뉴스	04	00 YTN24 15 헬로우 인터넷 30 주요뉴스 35 Cyber Science	04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35 증시분석
05	00 YTN24 25 기상센터 30 뉴스출발 1부	05	00 YTN24 30 뉴스출발 1부	05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30 뉴스출발 1부	05	00 YTN24 15 헬로우 인터넷 25 기상센터 35 통일, 통일로
06	00 뉴스출발 2부 30 뉴스출발 3부	06	00 뉴스출발 2부 30 뉴스출발 3부	06	00 뉴스출발 2부 30 뉴스출발 3부	06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35 주말문화마당
07	00 뉴스출발 4부	07	00 뉴스출발 4부 40 Culture 뉴스	07	00 뉴스출발 4부	07	00 YTN24 15 북한만화 35 부동산
08	50 위성통역실	08	00 YTN24 50 위성통역실	08	00 YTN24 20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08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월드파노라마
09	00 YTN24 20 헬로우 인터넷	09	00 YTN24 20 헬로우 인터넷	09	00 YTN24 20 헬로우 인터넷	09	00 YTN24 25 기상센터 35 네트워크퍼레이드
10	00 YTN24 30 주요뉴스	10	00 YTN24 35 세계, 세계인	10	00 YTN24 35 세계, 세계인	10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주간초점뉴스
11	00 프라임뉴스 40 월드24	11	00 프라임뉴스 40 월드24 55 기상센터	11	00 프라임뉴스 40 월드24	11	00 프라임뉴스 15 오늘의 역사 35 주말문화마당
12	00 YTN24 50 헬로우 인터넷	12	50 헬로우 인터넷	12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씨네24	12	00 프라임뉴스 30 주요뉴스
13	00 YTN24 50 위성통역실	13	00 YTN24 15 집중조명	13	00 YTN24 15 집중조명	13	00 YTN24 15 집중조명
14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월드24 50 오늘의 역사	14	00 YTN24 35 월드24 50 오늘의 역사	14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월드24	14	00 YTN24 35 초대석
15	00 YTN24 25 혼장을찾아드립니다	15	00 YTN24 35 세계, 세계인	15	00 YTN24 35 세계, 세계인	15	00 YTN24 15 북한만화 35 세계, 세계인
16	00 프라임뉴스 35 환경기획	16	00 프라임뉴스 35 통일, 통일로 (수: 초대석 목: 부동산 뉴스, 금: 경마)	16	00 프라임뉴스 35 통일, 통일로	16	00 YTN24 30 주요뉴스
17	00 경제와이드 55 위성통역실	17	00 경제와이드 50 위성통역실	17	00 경제와이드 30 주요뉴스	17	00 YTN24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0	00 YTN코스닥투데이 35 주요뉴스	18	00 네트워크뉴스 30 주요뉴스 35 Cyber Science		55 위성통역실		20 위성통역실 35 네트워크퍼레이드
21	00 경제와이드 40 Cyber Science	19	00 프라임뉴스 55 날씨정보 (목: 레저 금: 골프)	18	00 네트워크뉴스 20 헬로우 인터넷 35 주말 문화마당	18	00 네트워크뉴스 10 통일 통일로 30 주요뉴스 35 헬로우 인터넷
22	00 YTN뉴스포럼 50 위성통역실	20	00 YTN 코스닥투데이 35 주요뉴스	19	00 프라임뉴스 55 날씨와 골프	19	00 YTN24 40 세계, 세계인
23	00 YTN24 15 집중조명	21	00 경제와이드 40 Cyber Science	20	00 YTN코스닥 투데이 10 증시분석 35 세계, 세계인 50 훈장을 찾아드립니다	20	00 YTN24 25 기상센터
		22	00 YTN 뉴스포럼	21	00 경제와이드 30 주요뉴스 35 씨네24	21	00 YTN24 10 세계, 세계인 35 주간초점뉴스
		23	00 YTN24 15 집중조명	22	00 YTN뉴스포럼 40 YTN스포츠	22	00 프라임뉴스
				23	00 YTN24 15 집중조명	23	00 YTN24 15 북한 만화 30 월드파노라마

2001년 봄 개편 편성표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00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스포츠뉴스 50 오늘의 역사	00	00 0시뉴스 30 주요뉴스 35 스포츠뉴스 (화: 스포츠+오늘의토포) 55 오늘의 역사	00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스포츠 뉴스 50 오늘의 역사	00	00 YTN24 35 스포츠 뉴스 50 오늘의 역사
01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주요뉴스 35 부동산뉴스 55 오늘의 토포 58 기상센터	01	00 YTN24 15 코스닥 투데이 55 오늘의 토포	01	00 YTN24 15 코스닥 투데이 55 오늘의 토포	01	00 YTN24 20 골프 플러스 25 위성통역실 35 씨네24 55 오늘의 토포
02	00 YTN24 20 골프 플러스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0 오늘의 역사 55 오늘의 토포	02	00 YTN24 20 골프 플러스 30 주요뉴스 35 화: 경제 궁금합니다 수: 북한리포트 목: 월드파노라마 금: 초대석 (격주목: 지방자치시대) 55 오늘의 토포(금은 불방)	02	00 YTN24 15 오늘의 역사 25 골프 플러스 30 주요뉴스 35 레저스포츠 경마 55 위성통역실	02	00 YTN24 15 북한만화 35 해외연예
03	00 YTN24 15 스포츠뉴스 30 주요뉴스 35 기상센터 35 월드파노라마	03	00 YTN24 15 스포츠뉴스 (화: 스포츠+오늘의토포)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0 기상센터 55 오늘의 역사	03	00 YTN24 15 스포츠 뉴스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0 기상센터 55 오늘의 역사	03	00 YTN24 15 스포츠 뉴스 32 기상센터 35 기업리서치
04	00 YTN24 20 위성통역실 25 YTN시청자의 눈	04	00 YTN24 15 집중조명 (목: 최동호의 토포라인)	04	00 YTN24 15 집중조명	04	00 YTN24 15 집중조명
05	00 YTN24 25 골프플러스 30 뉴스출발1부	05	00 YTN24 25 골프플러스 30 뉴스출발 1부	05	00 YTN24 25 골프 플러스 30 뉴스출발1부	05	00 YTN24 25 골프 플러스 35 문화, 문화인 50 기상센터
06	00 뉴스출발2부 30 뉴스출발3부	06	00 뉴스출발 2부 30 뉴스출발 3부	06	00 뉴스출발2부 30 뉴스출발3부	06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5 해외연예 55 기상센터
07	00 뉴스출발4부 55 오늘의 토포	07	00 뉴스출발 4부 55 오늘의 토포	07	00 뉴스출발4부 55 오늘의 토포	07	00 YTN24 15 북한만화 35 부동산뉴스 55 기상센터
08	00 YTN24 30 뉴스메모 40 세계, 세계인	08	00 YTN24 30 뉴스메모 40 세계, 세계인 (격주 수: 30 주요뉴스, 35 지방자치시대) 55 오늘의 토포	08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35 레저스포츠 경마 50 골프 플러스	08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5 기상센터 40 월드파노라마
09	00 YTN24 30 YTN24	09	00 YTN24 30 YTN24 40 세계, 세계인	09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YTN24	09	00 YTN24 20 골프 플러스 35 기상센터 40 월드파노라마
10	00 YTN24 28 기상센터 30 뉴스메모 35 월드뉴스 50 골프 플러스	10	00 YTN24 28 기상센터 30 뉴스메모 50 골프플러스	10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뉴스메모 40 월드뉴스	10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5 세계, 세계인 50 오늘의 역사 55 오늘의 토포
11	00 뉴스와이드 30 경제와이드 55 위성통역실	11	00 YTN24 28 기상센터 30 뉴스메모 50 골프플러스	11	00 뉴스와이드 25 골프플러스 30 주요뉴스 35 문화, 문화인	11	00 YTN24 20 골프 플러스 35 네트워크 퍼레이드 55 기상센터
12	00 YTN24 28 기상센터 30 뉴스메모 40 세계, 세계인	12	00 뉴스와이드	12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35 해외연예	12	00 뉴스와이드 25 오늘의 역사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3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주요 뉴스 35 월드파노라마 55 기상센터		30 경제와이드 55 위성통역실	13	00 YTN24 15 집중조명		35 씨네24
14	00 뉴스의 현장 30 뉴스메모 40 월드 뉴스 55 기상센터	12	00 YTN24 28 기상센터 30 뉴스메모 40 세계, 세계인	14	00 YTN24 25 골프 플러스 30 뉴스 메모 40 월드뉴스 55 기상센터	13	00 YTN24 15 집중조명
15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YTN24 50 골프 플러스	13	00 YTN24 15 집중조명 (목:최동호의 토크라인)	15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주요뉴스 35 씨네24	14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5 문화, 문화인 55 오늘의 토평
16	00 뉴스 와이드 30 주요뉴스 35 경제 궁금합니다 55 오늘의 토평	14	00 뉴스의 현장 30 뉴스메모 40 월드 뉴스 55 기상센터	16	00 뉴스와이드 25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35 초대석	15	00 YTN24 15 북한만화 35 기상센터 40 월드파노라마
17	00 YTN24 15 경제와이드	15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YTN24 50 골프 플러스	17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주요뉴스 35 기업리서치 55 기상센터	16	00 뉴스와이드 25 오늘의 역사 35 네트워크퍼레이드 55 위성통역실
18	00 YTN24 28 날씨 정보 30 네트워크뉴스 50 골프 플러스	16	00 뉴스 와이드 30 주요뉴스 35 화: 북한리포트, 수: 월드파노라마 목: 기업리서치 금: 부동산뉴스 55 오늘의 토평	18	00 YTN24 25 골프플러스 30 주요뉴스 35 문화, 문화인	17	00 YTN24 25 YTN시청자의 눈
19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5 오늘의 역사	17	00 YTN24 15 경제와이드	19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35 해외연예	18	00 YTN24 20 골프 플러스 35 해외연예
20	00 YTN24 15 코스닥 투데이	18	00 YTN24 28 날씨정보 30 네트워크뉴스 50 골프플러스	20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주요뉴스 35 씨네24	19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5 북한리포트 55 기상센터
21	00 YTN24 15 집중조명	19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5 오늘의 역사	21	00 YTN24 15 집중조명	20	00 YTN24 20 골프 플러스 35 세계, 세계인 50 오늘의 역사 55 오늘의 토평 (격주 기상+지방자치 시대)
22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50 날씨 정보 55 오늘의 토평	20	00 YTN24 15 코스닥투데이	22	00 프라임뉴스 35 스포츠뉴스 50 기상센터 55 오늘의 토평	21	00 YTN24 15 북한만화 35 문화, 문화인
23	00 YTN24 30 기상센터 35 경제 궁금합니다	21	00 YTN24 15 집중조명	23	00 YTN24 25 골프플러스 30 주요뉴스 35 기상센터 40 기업리서치	22	00 프라임뉴스 30 스포츠뉴스 50 기상센터 55 오늘의 토평
		22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55 날씨정보			23	00 YTN24 20 골프 플러스 35 세계, 세계인 50 오늘의 역사 55 오늘의 토평
		23	00 YTN24 30 기상센터 35 화: 북한리포트 목: 기업리서치 금: 부동산뉴스 (수)15 최동호의토크라인				※매시 30분 주요뉴스 (04:30, 13:30, 17:30 제외)

2002년 봄 개편 편성표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00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스포츠뉴스 50 오늘의 역사	00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스포츠뉴스 55 오늘의 역사	00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스포츠뉴스 50 오늘의 역사	00	00 YTN24 35 스포츠뉴스 50 오늘의 역사
01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주요뉴스 35 네트워크퍼레이드 55 기상센터	01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0 오늘의 역사	01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0 오늘의 역사 55 기상센터	01	00 YTN24 20 골프 플러스 25 위성통역실 35 씨네24 50 여행스케치
02	00 YTN24 20 여행스케치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0 오늘의 역사	02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주요뉴스 35 YTN초대석 (수: 북한리포트 목: 기업리서치 금: 부동산포커스)	02	00 YTN24 25 골프 플러스 30 주요뉴스 35 레저스포츠 경마 55 위성통역실	02	00 YTN24 15 북한만화 35 월드나우
03	00 YTN24 15 스포츠뉴스 30 주요뉴스 35 기상센터 40 월드나우	03	00 YTN24 15 집중조명 (목: 최동호의 토크라인)	03	00 YTN24 15 집중조명	03	00 YTN24 15 윤방부의 피플인뉴스
04	00 YTN24 20 위성통역실 25 YTN시청자의 눈	04	00 YTN24 15 스포츠뉴스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0 기상센터	04	00 YTN24 15 스포츠뉴스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0 오늘의 역사	04	00 YTN24 15 스포츠뉴스 32 기상센터 35 세계, 세계인 55 골프 플러스
05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뉴스출발 1부	05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뉴스출발 1부	05	00 YTN24 25 골프플러스 30 뉴스출발 1부	05	00 YTN24 25 골프플러스 35 씨네24 50 오늘의 역사 55 기상센터
06	00 뉴스출발 2부 30 뉴스출발 3부	06	00 뉴스출발 2부 30 뉴스출발 3부	06	00 뉴스출발 2부 30 뉴스출발 3부	06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5 부동산 뉴스
07	00 뉴스출발 4부 50 위성통역실	07	00 뉴스출발 4부 55 위성통역실 (금: 여행스케치)	07	00 뉴스출발 4부 50 위성통역실	07	00 YTN24 25 골프플러스 35 부동산 뉴스
08	00 YTN24 20 머니라인	08	00 YTN24 20 머니라인	08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35 레저스포츠 경마 50 골프 플러스	08	00 YTN24 20 여행스케치 35 기상센터 40 월드나우
09	00 YTN24 30 YTN24	09	00 YTN24 30 YTN24	09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YTN24	09	00 YTN24 20 골프 플러스 35 웰컴 사이언스
10	00 YTN24 28 기상센터 30 뉴스메모 40 월드뉴스	10	00 YTN24 25 기상센터 30 뉴스메모 40 월드뉴스	10	00 YTN24 25 골프플러스 30 뉴스메모 40 월드뉴스	10	00 YTN24 15 윤방부의 피플인뉴스
11	00 뉴스와이드 30 경제와이드 55 위성통역실	11	00 뉴스와이드 30 경제와이드 55 위성통역실	11	00 뉴스와이드 30 문화, 문화인	11	00 YTN24 25 건강한 일터 35 네트워크퍼레이드 55 기상센터
12	00 YTN24 28 기상센터 30 뉴스메모 40 세계, 세계인	12	00 YTN24 28 기상센터 30 뉴스메모 40 세계, 세계인	12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35 월드나우	12	00 뉴스와이드 25 위성통역실 35 씨네24 50 북한만화
13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35 YTN초대석	13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13	00 YTN24	13	00 YTN24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4	00 뉴스의 현장 40 월드뉴스 55 기상센터		30 수, 목: 주요뉴스 35 수: 기업리서치 목: 부동산포커스 금: 웰컴사이언스		20 여행스케치 30 주요뉴스 35 씨네24 50 오늘의 역사		20 여행스케치 35 세계, 세계인 55 오늘의 역사
15	00 YTN24 30 YTN24 50 위성통역실	14	00 뉴스의 현장 40 월드뉴스 55 기상센터	14	00 YTN24 25 골프플러스 30 뉴스메모 40 월드뉴스 55 기상센터	14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5 문화, 문화인
16	00 뉴스와이드 40 세계, 세계인	15	00 YTN24 30 YTN24 50 위성통역실 (수, 목: 건강한일터 금: 여행스케치)	15	00 YTN24 25 기상센터	15	00 YTN24 20 북한만화 35 기상센터 40 월드나우
17	00 YTN24 20 경제와이드	16	00 뉴스와이드 40 세계, 세계인	16	00 뉴스와이드 30 주요뉴스 35 씨네24 50 건강안 일터	16	00 뉴스와이드 25 골프플러스 35 네트워크 퍼레이드 55 위성통역실
18	00 YTN24 28 날씨정보 30 네트워크뉴스	17	00 YTN24 20 경제와이드	17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주요뉴스 35 월드나우 55 기상센터	17	00 YTN24 25 YTN 시청자의 눈
19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50 위성통역실	18	00 YTN24 28 날씨정보 30 네트워크 뉴스	18	00 YTN24 30 문화, 문화인	18	00 YTN24 20 오늘의 역사 35 월드나우
20	00 뉴스와이드 35 날씨정보 40 세계, 세계인	19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금: 경마뉴스) 50 위성통역실	19	00 YTN24 25 위성통역실 30 주요뉴스 35 씨네24 50 오늘의 역사	19	00 YTN24 15 윤방부의 피플인뉴스
21	00 YTN24 30 주요뉴스 35 YTN초대석	20	00 뉴스와이드 35 날씨정보 45 오늘의 역사	20	00 YTN24 30 주요뉴스 35 기상센터 40 세계, 세계인 50 골프 플러스	20	00 YTN24 20 여행스케치 35 세계, 세계인 50 오늘의 역사
22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50 날씨정보	21	00 YTN24 30 주요뉴스 35 북한리포트 (수: 기업리서치 목: 부동산포커스 금: 웰컴사이언스)	21	00 YTN24 15 윤방부의 피플인뉴스	21	00 YTN24 20 북한만화 35 문화, 문화인
23	00 YTN24 15 집중조명	22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55 날씨정보	22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55 기상센터	22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55 기상센터
		23	00 YTN24 15 집중조명 (수: 최동호의 토크라인)	23	00 YTN24 25 골프플러스 30 주요뉴스 35 기상센터 40 월드나우	23	00 YTN24 20 골프플러스 35 세계, 세계인 50 오늘의 역사
							※매시 30분 주요뉴스 (3:30, 10:30, 22:30 제외)

2003년 봄 개편 편성표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00	00 0시뉴스 35 주요뉴스 40 스포츠 뉴스	00	00 0시뉴스 35 주요뉴스 40 스포츠 뉴스	00	00 0시뉴스 35 주요뉴스 40 스포츠 뉴스	00	00 0시뉴스 35 주요뉴스 40 스포츠 뉴스
01	00 YTN24 15 주요뉴스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01	00 YTN24 15 주요뉴스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01	00 YTN24 15 주요뉴스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01	00 YTN24 15 주요뉴스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02	00 YTN24 20 주요뉴스 25 인사이트월드	02	00 YTN24 30 주요뉴스 32 오늘의 역사 40 세계, 세계인	02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스포츠뉴스 51 위성통역실	02	00 YTN24 30 주요뉴스 35 스포츠뉴스 51 위성통역실
03	00 YTN24 25 기상센터 30 과학과 미래	03	00 YTN24 30 기상센터 35 스포츠뉴스 51 위성통역실	03	00 YTN24 15 박찬숙의 쟁점토론	03	00 YTN24 25 기상센터 30 과학과 미래
04	00 YTN24 23 위성통역실 29 오늘의 역사 36 기상센터 40 세계, 세계인	04	00 YTN24 23 위성통역실 29 오늘의 역사 36 기상센터 40 세계, 세계인	04	00 YTN24 23 위성통역실 29 오늘의 역사 36 기상센터 40 세계, 세계인	04	00 YTN24 20 위성통역실 29 오늘의 역사 36 기상센터 40 세계, 세계인
05	00 굿모닝코리아1부 27 굿모닝코리아2부	05	00 굿모닝코리아1부 30 굿모닝코리아2부	05	00 굿모닝코리아1부 30 굿모닝코리아2부	05	00 YTN24 22 주요뉴스 30 시청자평가프로그램
06	00 굿모닝코리아3부 26 굿모닝코리아4부	06	00 굿모닝코리아3부 30 굿모닝코리아4부	06	00 굿모닝코리아3부 30 굿모닝코리아4부	06	00 굿모닝코리아3부 17 오늘의 역사 25 인사이트 월드
07	00 굿모닝코리아5부 25 주요뉴스 30 과학과 미래	07	00 굿모닝코리아5부 25 주요뉴스 30 과학과 미래	07	00 굿모닝코리아5부 25 주요뉴스 30 과학과 미래	07	00 YTN24 24 주요뉴스 30 과학과 미래
08	00 YTN24 20 머니라인	08	00 YTN24 25 머니라인	08	00 YTN24 27 오늘의 역사 35 경마	08	00 YTN24 24 주요뉴스 30 YTN특선다큐
09	00 YTN24 20 뉴스&라이프	09	00 YTN24 20 뉴스&라이프	09	00 YTN24 20 뷰티풀 라이프	09	00 뉴스와이드 30 주요뉴스 35 웰컴투월드 55 기상센터
10	00 YTN24 15 기상센터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10	00 YTN24 15 기상센터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10	00 YTN24 15 기상센터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10	00 YTN24 15 기상센터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11	00 뉴스와이드 31 주요뉴스 35 월드뉴스 50 기상센터	11	00 뉴스와이드 30 주요뉴스 35 월드뉴스 50 기상센터	11	00 뉴스와이드 30 주요뉴스 35 월드뉴스 50 기상센터	11	00 YTN24 20 YTN특선다큐
12	00 뉴스퍼레이드1부 28 뉴스퍼레이드2부	12	00 뉴스퍼레이드1부 30 뉴스퍼레이드2부	12	00 YTN24 20 씨네버스	12	00 YTN24 20 씨네버스
13	00 뉴스퍼레이드3부 28 주요뉴스 30 세계, 세계인 46 오늘의 역사	13	00 뉴스퍼레이드3부 25 주요뉴스 30 세계, 세계인 46 오늘의 역사	13	00 YTN24 30 주요뉴스 32 세계, 세계인 48 오늘의 역사	13	00 뉴스와이드 25 주요뉴스 30 YTN특선다큐
14	00 뉴스의 현장	14	00 뉴스의 현장	14	00 뉴스와이드 35 웰컴 투 월드	14	00 YTN24 20 뷰티풀 라이프
15	00 YTN24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15	00 YTN24 15 백지연의 정보특종 금: 박찬숙의쟁점토론	15	00 YTN24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15	00 YTN24 28 위성통역실 33 세계, 세계인
16	00 뉴스와이드 30 과학과 미래			16	00 YTN24		
17	00 YTN24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4 날씨정보 27 오늘의 역사 35 세계, 세계인	16	00 뉴스와이드 30 과학과 미래		30 과학과 미래		48 오늘의 역사
18	00 뉴스투데이1부 22 뉴스투데이2부	17	00 YTN24 25 날씨정보 27 오늘의 역사 35 세계, 세계인 (금:30 경마)	17	00 YTN24 20 씨네버스 55 기상센터	15	00 YTN24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19	00 YTN24 22 주요뉴스 24 YTN 네트워크	18	00 뉴스투데이 1부 35 뉴스투데이 2부	18	00 YTN24 28 위성통역실 33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16	00 뉴스와이드 30 과학과 미래
20	00 YTN24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19	00 YTN24 30 주요뉴스 35 YTN네트워크	19	00 뉴스와이드 30 주요뉴스 35 월کم 투 월드	17	00 YTN24 23 주요뉴스 25 시청자평가프로그램
21	00 뉴스포커스 50 날씨정보 55 위성통역실	20	00 YTN24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20	00 YTN24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18	00 YTN24 28 위성통역실 33 주요뉴스 35 세계, 세계인
22	00 YTN24 30 과학과 미래	21	00 뉴스포커스 50 날씨정보 55 위성통역실	21	00 YTN24 20 뷰티풀라이프	19	00 YTN24 23 주요뉴스 25 인사이트 월드
23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55 날씨정보	22	00 YTN24 25 날씨정보 30 과학과 미래	22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57 기상센터	20	00 YTN24 20 백지연의 정보특종
		23	00 프라임뉴스 45 스포츠뉴스 55 날씨정보	23	00 YTN24 20 씨네버스	21	00 YTN24 20 뷰티풀라이프
						22	00 프라임뉴스 45 스포츠뉴스 57 기상센터
						23	00 YTN24 30 YTN특선다큐

2004년 봄 개편 편성표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00	00 0시뉴스 38 스포츠뉴스 50 위성통역실	00	00 0시뉴스 40 스포츠뉴스 50 위성통역실	00	00 0시뉴스 38 스포츠뉴스 50 위성통역실	00	00 0시뉴스 38 스포츠뉴스 50 위성통역실
01	00 YTN24 30 인사이드 월드	01	00 YTN24 25 이슈 & 포커스 (화수금) (목) 10 박주현의 시사 업클로스	01	00 YTN24 10 박주현의 시사업클로스	01	00 YTN24 25 씨네24
02	00 YTN24 25 사이언스+ 50 오늘의 역사	02	00 YTN24 25 사이언스 + (화-목) (금) 글로벌코리아 50 오늘의 역사	02	00 YTN24 25 지구촌기행 50 오늘의 역사	02	00 YTN24 17 라이프 n 조이 50 오늘의 역사
03	00 YTN24 18 스포츠뉴스 30 웰컴 투 월드	03	00 YTN24 28 스포츠뉴스 40 세계, 세계인 51 위성통역실	03	00 YTN24 27 스포츠뉴스 40 세계, 세계인	03	00 YTN24 10 스포츠뉴스 22 클릭! 연예파일
04	00 YTN24 25 사이언스+ 50 오늘의 역사	04	00 YTN24 20 이슈 & 포커스 (화수금) (목) 10 박주현의 시사 업클로스	04	00 YTN24 10 박주현의 시사업클로스	04	00 YTN24 25 시청자의 눈 50 위성통역실
05	00 굿모닝코리아1부 30 굿모닝코리아2부	05	00 YTN24 50 (금) 위성통역실	05	00 굿모닝코리아1부 30 굿모닝코리아2부	05	00 YTN24 30 글로벌 코리아안
06	00 굿모닝코리아3부 30 굿모닝코리아4부 50 오늘의 역사	06	00 굿모닝코리아1부 30 굿모닝코리아2부	06	00 굿모닝코리아3부 30 굿모닝코리아4부	06	00 YTN24 25 주간 돌발영상 50 오늘의 역사
07	00 뉴스 7-9 1-2부 30 뉴스 7-9 3-4부	07	00 YTN24 30 뉴스와 생활경제 53 오늘의 역사	07	00 YTN24 20 라이프 n 조이	07	00 YTN24 30 세계세계인 위클리 50 위성통역실
08	00 뉴스 7-9 5-6부 30 뉴스 7-9 7-8부	08	00 뉴스 7-9 1-2부 30 뉴스 7-9 3-4부	08	00 YTN24 25 사이언스 + 50 오늘의 역사	08	00 YTN24 25 씨네24
09	00 YTN24 30 뉴스와 생활경제 53 오늘의 역사	09	00 뉴스 7-9 5-6부 30 뉴스 7-9 7-8부	09	00 YTN24 25 사이언스 + 50 오늘의 역사	09	00 YTN24 25 씨네24
10	00 YTN뉴스10 40 세계, 세계인	10	00 YTN 뉴스10 40 세계, 세계인	10	00 YTN24 30 글로벌 코리아안	10	00 YTN24 25 사이언스 + 50 오늘의 역사
11	00 뉴스와이드 40 월드뉴스	11	00 YTN24 30 뉴스와 생활경제 53 오늘의 역사	11	00 뉴스와이드 40 월드뉴스	11	00 YTN24 25 인사이드 월드
12	00 뉴스퍼레이드1부 30 뉴스퍼레이드2부	12	00 YTN24 30 뉴스와 생활경제 53 오늘의 역사	12	00 뉴스와이드 40 월드뉴스	12	00 YTN24 30 웰컴 투 월드
13	00 뉴스퍼레이드3부 35 사이언스+	13	00 YTN 뉴스10 40 세계, 세계인	13	00 YTN24 25 씨네24	13	00 YTN24 25 주간 돌발영상
14	00 뉴스의 현장	14	00 뉴스와이드 40 월드뉴스	14	00 YTN24 25 씨네24	14	00 YTN24 30 글로벌 코리아안
15	00 YTN24 25 인사이드 월드	15	00 뉴스퍼레이드1부 30 뉴스퍼레이드2부	15	00 YTN24 25 클릭! 연예파일	15	00 YTN24 30 글로벌 코리아안
16	00 뉴스Q	16	00 뉴스퍼레이드3부 25 사이언스+ (화-수) 그로브코리아안 (목) 라이프 n 조이 (금)	16	00 YTN24 25 클릭! 연예파일	16	00 YTN24 30 주간 돌발영상
17	00 경제와이드 50 위성통역실	17	00 뉴스의 현장	17	00 YTN24 25 사이언스+ 52 위성통역실	17	00 YTN24 30 지구촌 기행
18	00 뉴스와이드	18	00 YTN24 30 뉴스와이드	18	00 YTN24 30 지구촌기행	18	00 YTN24 30 뉴스와이드 30 웰컴 투 월드
19	00 YTN24 30 YTN네트워크	19	00 YTN24 30 지구촌 기행 (화) 05 (수, 금) 박주현의 시사 업클로스	19	00 YTN24 22 라이프 n 조이	19	00 YTN24 30 세계 세계인 위클리 50 위성통역실
20	00 뉴스와이드 50 위성통역실	20	00 YTN24 20 클릭 연예파일	20	00 YTN24 20 클릭 연예파일	20	00 YTN24 25 인사이드 월드
21	00 YTN24 20 이슈 & 포커스					21	00 YTN24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50 오늘의 역사		30 (목) 웰컴투월드		50 위성통역실		30 주간 돌발영상
22	00 YTN24 30 사이언스+	16	00 뉴스Q	21	00 YTN24 25 오늘의 역사 30 세계세계인 위클리	20	00 YTN24 25 사이언스+ 50 위성통역실
23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17	00 경제와이드 50 위성통역실	22	00 YTN24 30 주간 돌발영상	21	00 YTN24 25 시청자의 눈 50 역사속 오늘
		18	00 뉴스와이드	23	00 프라임 뉴스 40 스포츠뉴스	22	00 YTN24 35 세계세계인 위클리
		19	00 YTN24 30 YTN네트워크			23	00 프라임 뉴스 40 스포츠뉴스
		20	00 뉴스와이드 50 위성통역실				
		21	00 YTN24 20 이슈 & 포커스 (화, 목) (수, 금) 10 박주현의 시사업클로즈 50 오늘의 역사				
		22	00 YTN24 30 사이언스+ (화-수) (목) 글로벌코리아 (금) 25 씨네24				
		23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2005년 봄 개편 편성표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00	00 0시뉴스 37 스포츠뉴스 50 위성통역실	00	00 0시뉴스 37 스포츠뉴스 50 위성통역실	00	00 0시뉴스 37 스포츠뉴스 50 위성통역실	00	00 0시뉴스 37 스포츠뉴스 50 위성통역실
01	00 YTN24 35 인사이트 월드 35 세계, 세계인	01	00 YTN24 25 이슈&포커스 (목: 10 이슈진단)	01	00 YTN24 10 이슈진단	01	00 YTN24 25 씨네24
02	00 YTN24 25 사이언스대담 50 역사속 오늘	02	00 YTN24 25 사이언스+ (금: 글로벌코리안) 50 역사속 오늘	02	00 YTN24 25 지구촌기행 50 역사속 오늘	02	00 YTN24 15 라이프n조이 50 역사속 오늘
03	00 YTN24 18 스포츠뉴스 30 웰컴투월드	03	00 YTN24 28 스포츠뉴스 40 세계, 세계인	03	00 YTN24 28 스포츠뉴스 40 세계, 세계인	03	00 YTN24 10 스포츠뉴스 25 클릭연예파일
04	00 YTN24 25 사이언스+ 50 위성통역실	04	00 YTN24 20 이슈&포커스 (목: 10 이슈진단) 50 위성통역실 (화, 금)	04	00 YTN24 10 이슈진단	04	00 YTN24 25 시청자의 눈 50 위성통역실
05	00 굿모닝코리아1부 30 굿모닝코리아2부	05	00 굿모닝코리아 1부 30 굿모닝코리아 2부 50 역사속 오늘	05	00 굿모닝코리아 1부 30 굿모닝코리아 2부	05	00 YTN24 30 글로벌코리안
06	00 굿모닝코리아3부 30 굿모닝코리아4부 50 역사속 오늘	06	00 굿모닝코리아 3부 30 굿모닝코리아 4부 50 역사속 오늘	06	00 굿모닝코리아 3부 30 굿모닝코리아 4부 50 역사속 오늘	06	00 YTN24 25 주간돌발영상 50 역사속 오늘
07	00 뉴스 7-9 30 뉴스 7-9	07	00 뉴스 7-9 30 뉴스 7-9	07	00 굿모닝코리아 5부 30 세계인 위클리 50 위성통역실	07	00 YTN24 30 세계인 위클리 50 위성통역실
08	00 뉴스 7-9 30 뉴스 7-9	08	00 뉴스 7-9 30 뉴스 7-9	08	00 YTN24 20 라이프n조이	08	00 YTN24 25 씨네24
09	00 YTN24 30 뉴스와 생활경제 50 역사속 오늘	09	00 YTN24 30 뉴스와 생활경제 50 역사속 오늘	09	00 YTN24 25 사이언스+ 50 역사속 오늘	09	00 YTN24 25 사이언스대담 50 역사속 오늘
10	00 YTN 뉴스 40 세계, 세계인	10	00 YTN24 40 세계, 세계인	10	00 YTN24 30 글로벌코리안	10	00 YTN24 25 인사이트 월드
11	00 뉴스와이드 40 월드뉴스	11	00 YTN24 40 세계, 세계인	11	00 뉴스와이드 40 월드뉴스	11	00 뉴스와이드 30 웰컴투월드
12	00 뉴스퍼레이드 1부 30 뉴스퍼레이드 2부	12	00 뉴스와이드 40 월드뉴스	12	00 YTN24 25 씨네24	12	00 YTN24 25 클릭연예파일
13	00 뉴스퍼레이드 3부 25 사이언스+	13	00 뉴스퍼레이드 1부 30 뉴스퍼레이드 2부	13	00 YTN24 25 주간 돌발영상	13	00 YTN24 30 글로벌코리안
14	00 뉴스의 현장	14	00 뉴스퍼레이드 3부 25 사이언스+ (목: 글로벌코리안 금: 20 라이프n조이)	14	00 뉴스와이드 35 세계인 위클리	14	00 YTN24 30 주간돌발영상
15	00 YTN24 25 인사이트 월드	15	00 뉴스의 현장	15	00 YTN24 25 클릭연예파일	15	00 YTN24 30 지구촌기행
16	00 뉴스Q	16	00 YTN24 5 수급 이슈진단(수, 금) 30 지구촌기행 (목: 웰컴투월드)	16	00 뉴스와이드 30 글로벌코리안	16	00 뉴스와이드 30 웰컴투월드
17	00 경제와이드 50 위성통역실	17	00 YTN24 5 수급 이슈진단(수, 금) 30 지구촌기행 (목: 웰컴투월드)	17	00 YTN24 25 사이언스+ 50 위성통역실	17	00 YTN24 30 세계인 위클리 50 위성통역실
18	00 뉴스와이드	18	00 YTN24 50 위성통역실	18	00 YTN24 30 지구촌기행	18	00 YTN24 25 인사이트월드
19	00 YTN24 30 YTN네트워크	19	00 YTN24 50 위성통역실	19	00 YTN24 20 라이프n조이	19	00 YTN24
20	00 뉴스와이드 50 위성통역실						
21	00 YTN24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0 이슈&포커스 50 역사속 오늘	18	00 뉴스와이드	20	00 YTN24 20 클릭연예파일 50 위성통역실		30 주간돌발영상
22	00 YTN24 30 사이언스+	19	00 YTN24 30 YTN네트워크	21	00 YTN24 30 역사속 오늘 35 세계인 위클리	20	00 YTN24 25 사이언스대담 50 위성통역실
23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20	00 뉴스와이드 50 위성통역실	22	00 YTN24 30 주간 돌발영상	21	00 YTN24 25 시청자의 눈 50 역사속 오늘
		21	00 YTN24 10 이슈진단 (수, 금) 20 이슈&포커스(화, 목) 50 역사속 오늘	23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22	00 YTN24 35 세계인 위클리
		22	00 YTN24 25 씨네24(금) 30 사이언스+ (화, 수) (목: 글로벌코리아)			23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23	00 프라임뉴스 40 스포츠뉴스				

재무 구조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수 입	561	2,663	12,782	27,156	23,537	21,280
지 출	534	1,326	36,196	56,212	69,606	59,591
손 익	27	1,337	△23,413	△29,056	△46,070	△38,311
누적손익	27	1,364	△22,050	△51,106	△97,175	△135,487

대차대조표(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자 산										
Ⅰ. 유동자산	32,877	53,295	48,889	44,460	50,818	26,620	22,880	8,479	6,769	7,889
1. 당좌자산	32,763	53,056	48,650	44,095	50,453	26,283	22,543	8,081	6,102	7,597
2. 재고자산	114	239	239	365	365	337	337	397	667	291
Ⅱ. 고정자산	125,806	79,953	80,833	89,578	83,692	10,909	10,094	15,506	19,651	19,895
1. 투자자산	51,222	8,378	6,256	11,356	3,447	1,378	1,862	5,641	5,506	2,312
2. 유형자산	50,669	46,590	47,954	50,038	50,552	9,510	8,202	9,828	10,847	11,030
3. 무형자산	23,915	24,986	26,623	28,184	29,693	17	22	26	16	17
4. 이연자산	-	-	-	-	-	4	7	11	3,282	6,536
자산 계	158,683	133,248	129,722	134,038	134,510	37,529	32,974	23,985	26,421	27,767
부채와 자본										
Ⅰ. 유동부채	11,832	10,118	8,448	7,795	8,218	12,022	15,372	83,441	44,034	18,762
Ⅱ. 고정부채	31,780	10,421	11,069	9,971	7,228	5,380	3,089	7,719	3,493	1,055
부채 계	43,612	20,539	19,517	17,766	15,446	17,402	18,462	91,161	47,527	19,817
Ⅰ. 자본금	42,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50,000	150,000	30,000	30,000	30,000
Ⅱ. 자본잉여금	168,000	-	-	-	-	-	-	-	-	-
Ⅲ. 결손금 (당기순이익)	94,044	95,508	97,581	91,577	90,936	129,873	135,487	97,176	51,106	22,049
	1,464	2,073	-6,005	-641	1,024	5,614	-38,311	-46,070	-29,056	-23,413
Ⅳ. 자본조정	-885	-1,783	-2,214	-2,151	-	-	-	-	-	-
자본 계	115,071	112,709	110,205	116,272	119,064	20,127	14,513	67,176	-21,106	7,950
부채와 자본총계	43,612	133,248	129,722	134,038	134,510	37,529	32,974	23,985	26,421	27,767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 입	39,817	48,746	52,372	52,039	61,248	71,146
지 출	34,203	47,722	53,013	58,044	59,175	69,682
손 익	5,614	1,024	△641	△6,005	2,073	1,464
누적손익	△129,873	△128,849	△129,490	△135,494	△133,421	△131,958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I. 매출액	68,282	59,605	50,825	49,884	47,187	34,986	19,773	22,919	26,633	12,062
1. 방송매출	53,559	41,675	36,071	36,161	37,660	32,400	18,396	22,363	26,282	12,000
3. 영상매출	-	888	1,873	1,577	4,218	2,507	944	502	342	61
4. 타워매출	10,560	10,890	10,737	12,166	5,250	-	-	-	-	-
5. 기타매출	4,163	6,152	2,144	60	58	79	433	52	10	-
II. 매출원가	62,485	52,482	49,53	42,207	37,121	26,386	39,697	39,870	38,858	27,356
1. 방송매출원가	52,956	45,241	42,050	34,823	30,769	25,229	39,697	39,870	38,857	27,356
2. 영상매출원가	-	898	1,128	1,211	1,245	1,156	-	-	-	-
3. 타워매출원가	6,703	6,343	6,354	6,172	5,107	-	-	-	-	-
4. 사업매출원가	2,826	-	-	-	-	-	-	-	-	-
III. 매출총이익	5,797	7,123	1,293	7,676	10,066	8,601	19,923	16,951	12,225	15,294
IV.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5,526	5,594	7,373	10,538	10,279	7,599	6,414	7,961	10,816	5,083
V. 영업이익	271	1,529	-6,080	-2,862	-214	1,001	-26,337	-24,912	-23,041	-20,377
VI. 영업외 수익	2,864	1,643	1,214	2,319	1,556	2,830	1,429	609	518	707
VII. 영업외 비용	1,228	1,099	1,139	268	322	218	13,478	11,482	6,537	3,757
VIII. 경상이익	1,907	2,073	-6,005	-811	1,021	3,613	-38,386	-35,785	-29,060	-23,426
IX. 특별이익	-	-	-	170	3	2,001	78	9	5	13
X. 특별손실	-	-	-	-	-	-	4	10,293	1	-
XI.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907	2,073	-6,005	-641	1,024	5,614	-38,311	-46,070	-29,056	-23,413
XII. 법인세 등	443	-	-	-	-	-	-	-	-	-
XIII. 당기 순이익	1,439	2,073	-6,005	-641	1,024	5,614	-38,311	-46,070	-29,056	-23,413

YTN 자본금(주주)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주주명	설립시(1993. 9. 14)				1차증자(1994. 4. 28)				주식매매(1997. 12말 현재)		
	주식수	금액	지분율	비고	주식수	금액	지분율	비고	주식수	금액	지분율
(주)연합통신	450,000	4,500	30%		900,000	9,000	30%	양도	97,122		
한전KDN(주)								양수	900,000	9,000	30%
케이티엔지											
한국마사회											
(주)우리은행	150,000	1,500	10%		300,000	3,000	10%		300,000	3,000	10%
(주)쌍방울	150,000	1,500	10%		300,000	3,000	10%		300,000	3,000	10%
제일산업(주)	150,000	1,500	10%		300,000	3,000	10%		300,000	3,000	10%
남양금속(주)											
한국관광공사	150,000	1,500	10%	양도							
하이트맥주(주)				양수	300,000	3,000	10%		300,000	3,000	10%
(학)건국대부속민중병원	105,000	1,050	7%		210,000	2,100	7%		210,000	2,100	7%
은아주택(합자)	75,000	750	5%		150,000	1,500	5%		150,000	1,500	5%
장규찬	75,000	750	5%		150,000	1,500	5%		150,000	1,500	5%
(주)전남일보	75,000	750	5%		150,000	1,500	5%	양도			
이훈동								양수	150,000	1,500	5%
이정일											
일동제약(주)	45,000	450	3%		90,000	900	3%		90,000	900	3%
한림제약(주)	45,000	450	3%		90,000	900	3%	양도			
김재윤								양수	90,000	900	3%
(주)보성주택	30,000	300	2%		60,000	600	2%		60,000	600	2%
신통철											
(주)녹십자											
고려아연(주)											
한국카프로락탐(주)											
(주)세아제강											
이건산업(주)											
(주)이건창호시스템											
장명국											
YTN 임직원 등(452명)											
일반소액주주											
YTN 사주조합											
자본금 및 주식 합계	1,500,000	1,500	100%		3,000,000	30,000	100%		3,000,000	30,000	100%

2차증자(1998.11.28)			3차증자(1998.12.31)			일반공모 증자(2000. 4. 7)			액분(2001. 4. 7)			액분 및 감자(2004. 3. 2)		
주식수	금액	지분율	주식수	금액	지분율	주식수	금액	지분율	주식수	금액	지분율	주식수	금액	지분율
1,200,000	12,000	30%	4,500,000	45,000	30%	4,500,000	45,000	21.4%	9,000,000	45,000	21.4%	9,000,000	9,000	21.4%
			4,400,000	44,000	29.3%	4,400,000	44,000	21%	8,800,000	44,000	21.0%	8,800,000	8,800	21.0%
			2,000,000	20,000	13.3%	2,000,000	20,000	9.5%	4,000,000	20,000	9.5%	4,000,000	4,000	9.5%
300,000	3,000	7.5%	1,600,000	16,000	10.7%	1,600,000	16,000	7.6%	3,200,000	16,000	7.6%	3,200,000	3,200	7.6%
300,000	3,000	7.5%	300,000	3,000	2.0%	300,000	3,000	1.4%	600,000	3,000	1.4%	600,000	600	1.4%
120,000	1,200	3.0%	80,000	800	0.5%	80,000	800	0.4%	160,000	800	0.4%	160,000	160	0.4%
300,000	3,000	7.5%	300,000	3,000	2.0%	300,000	3,000	1.4%	600,000	3,000	1.4%	600,000	600	1.4%
300,000	3,000	7.5%	300,000	3,000	2.0%	300,000	3,000	1.4%	600,000	3,000	1.4%	600,000	600	1.4%
210,000	2,100	5.3%	210,000	2,100	1.4%	210,000	2,100	1.0%	420,000	2,100	1.0%	420,000	420	1.0%
150,000	1,500	3.8%	150,000	1,500	1.0%	150,000	1,500	0.7%	300,000	1,500	0.7%			
30,000	300	0.8%	30,000	300	0.2%	30,000	300	0.1%	60,000	300	0.1%	60,000	60	0.1%
150,000	1,500	3.8%	150,000	1,500	1.0%	150,000	1,500	0.7%	300,000	1,500	0.7%	300,000	300	0.7%
90,000	900	2.3%	90,000	900	0.6%	90,000	900	0.4%	180,000	900	0.4%	180,000	180	0.4%
90,000	900	2.3%	90,000	900	0.6%	90,000	900	0.4%	180,000	900	0.4%	180,000	180	0.4%
60,000	600	1.5%												
			60,000	600	0.4%	60,000	600	0.3%	120,000	600	0.3%			
150,000	1,500	3.8%	150,000	1,500	1.0%	150,000	1,500	0.7%	300,000	1,500	0.7%	300,000	300	0.7%
150,000	1,500	3.8%	150,000	1,500	1.0%	150,000	1,500	0.7%	300,000	1,500	0.7%	300,000	300	0.7%
50,000	500	1.3%	50,000	500	0.3%	50,000	500	0.2%	100,000	500	0.2%	100,000	100	0.2%
15,000	150	0.4%	15,000	150	0.1%	15,000	150	0.1%	30,000	150	0.1%	30,000	30	0.1%
5,000	50	0.1%	5,000	50	0.0%	5,000	50	0.0%	10,000	50	0.0%	10,000	10	0.0%
5,000	50	0.1%	5,000	50	0.0%	5,000	50	0.0%	10,000	50	0.0%	10,000	10	0.0%
			42,000	420	0.3%	42,000	420	0.2%	84,000	420	0.2%			
325,000	3,250	8.1%	323,000	3,230	2.2%	323,000	3,230	1.5%						
						4,807,300	48,073	22.9%	12,646,000	63,230	30.1%	13,150,000	13,150	31.3%
						1,192,700	11,027	5.7%						
4,000,000	40,000	100%	15,000,000	150,000	100%	21,000,000	210,000	100%	42,000,000	210,000	100%	42,000,000	42,000	100%

광고 시급표

2003년 10월

(제1차 광고단가 및 시급 조정)

시급				
SA급	12:00~13:00	13:00~14:00	20:00~21:00	22:00~23:00(총4시간)
A급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9:00~20:00
	21:00~22:00	23:00~24:00(총10시간)		
B급	24:00~01:00	01:00~02:00	05:00~06:00	06:00~07:00
	07:00~08:00	17:00~18:00	18:00~19:00(총7시간)	
C급	02:00~03:00	03:00~04:00	04:00~05:00(총3시간)	

2004년 1월

(제2차 광고단가 및 시급 조정안 확정)

시급				
SA급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총5시간)			
A급	24:00~01:00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7:00~18:00	18:00~19:00	22:00~23:00
	23:00~24:00(총9시간)			
B급	01:00~02:00	05:00~06:00	06:00~07:00	07:00~08:00
	19:00~20:00	20:00~21:00	21:00~22:00(총7시간)	
C급	02:00~03:00	03:00~04:00	04:00~05:00(총3시간)	

2005년 1월

(제3차 광고단가 및 광고시급 조정안 확정)

시급					
SA급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총8시간)		
A급	24:00~01:00	05:00~06:00	06:00~07:00	07:00~08:00	08:00~09:00
	09:00~10:00	10:00~11:00	22:00~23:00	23:00~24:00(총9시간)	
B급	01:00~02:00	19:00~20:00	20:00~21:00	21:00~22:00(총4시간)	
C급	02:00~03:00	03:00~04:00	04:00~05:00(총3시간)		
단가	30초		20초	15초	ID광고
SA급	3,0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300,000원
A급	2,100,000원		1,400,000원	1,050,000원	210,000원
B급	1,300,000원		900,000원	650,000원	130,000원
C급	700,000원		500,000원	350,000원	70,000원

방송 장비

주요 방송시설 현황

종별	시설명	수량
연주시설	주조정실	2실
	부조정실	4실
	신호분배실	1실
	영상편집실	3실
	편집Booth	12실
	국제편집실	1실
	통역실	1실
	제작편집Booth	4실
	광고편집실	1실
	음향편집실	1실
	더빙실	4실
	자료실	1실
	공시청	1실
	C.G	1실
스튜디오	4실	
지국	9개소	
중계시설 장비	중계차(중형)	1대
	중계차(소형)	12대
	중계SITE	3개소
	ANT시설	1개소
	광단국	1실
보도정보	보도정보 시스템	1실

연주시설 현황

주 조정실

종별	품명	수량
Master Switcher	GVG, M-2100	1
Bypass Switcher	Leitch, VSR-16×1CS-2AC	1
MPEG IMX VCR	SONY, MSW-M2100, 2000	5
Video Server	Leitch, NEXIO	2
Gateway Server	Leitch, NX2000GX	2
Fiber Chanel Storage	Leitch, NXS3008B	1
SDI Routing Switcher	Leitch, VSR-6001	8
Automation System	CIS, CDS-100	1식
Demultiplexer	Digicast, DG2031DMX	4
Video Encoder	Digicast, DG2021ENC	2
Audio D/A Converter	Digicast, DG2121DAC	2
Multi Keyer	Digicast, DMK2030	3

Audio Multiplexer	Leitch, MAX-6801	6
Waveform Monitor	Tektronix, 601M, 601A	3
Digital Audio Monitor	Tektronix, 764	2

주 조정실 : International

종별	품명	수량
Master Switcher	Utah S, DMC-601	1
Bypass Switcher	Utah S, BPS-2	1
DVCR	SONY, DVW-A500	2
Disk Playback System	AVID, Air-Play	2
Automation System	Dynatec, TAS	1식
D-A/A-D Converter	Nvision, NV-1000	1
A/D Converter	GVG, M-9401	1
D/A Converter	GVG, M-9402	1
Down Stream Keyer	Vistek, V-5055	1
Logo Motion Generator	Leitch, MGI-1302N	1
WFM/VEC Monitor	Tektronix, 1740A	1
Waveform Monitor	Tektronix, WFM-601i	1

1 부조정실

종별	품명	수량
Video Switcher	GVG, ZODIAK	1
MPEG IMX VCR	SONY, MSW-M2100	2
VCR	SONY, DVW-A500,75	2
Video Server	Leitch, NEXIO	1
FC Raid Storage	Leitch, NSX3016B	3
Studio Camera	Ikegami, HK-388W	4
Camera Pedestal	Sachtler, Studio 1-90	4
Camera Delegation	Bronics, WDS-515R	1
Panorama Camera	Canon, CB-42	1
Ceiling Camera	Hitachi, HV-C10F	1
Video File	Quantel, Picturebox	1
Media File	Leitch, MFC-3152-4AD	1
AMU	Studer,928/Sonosax, SX-S10	2
Audio Demux	Leitch, ADM 6804	4
Audio Multiplexer	Leitch, MAX-6801	2
Digital Audio Effect	Eventide, H-3000SE	1
Waveform Monitor	Tektronix, 601A	2
WFM/VEC Monitor	Tektronix, 1730,1740A	4
Vector Scope	Tektronix, 1720SCH	1
SDI Monitor Switcher	Leitch, Panacea32×2	1
HMI Light	RDS, HMI/200W UHF-2	40
HMI Light	Marumo, HMI-575	12
조명 System	Kumkwang, KKS-6000	2식

2 부조정실

종별	품명	수량
Video Switcher	GVG, 4000	1
VCR	SONY, DVW-A500,BVW75	4
Video Server	Leitch, NEXIO	1
Studio Camera	Ikegami, HK-377P	4
Camera Pedestal	Radamec EPO, HK-170	4
Jimmy Jip	Triangle Giant	1
Video File	Quantel, Picturebox	1
Media File	Leitch, MFC-3152-4AD	1
AMU	Studer,963/Sonosax, SX-S10	2
Audio Demux	Leitch, ADM 6804	4
Audio Multiplexer	Leitch, MAX-6801	2
Digital Audio Effect	Eventide, H-3000SE	1
Waveform Monitor	Tektronix, 601A	2
WFM/VEC Monitor	Tektronix, 1730.1740A	4
Vector Scope	Tektronix, 1720SCH	1
Waveform Monitor	Leader, 5860V	7
조명 System	Kumkwang, KKS-6000	1식

3 부조정실

종별	품명	수량
Video Switcher	GVG, 4000	1
VCR	SONY, DVW-A500/BVW75	4
VCR	SONY, EVO-9850/D3/DVR20	4
VHS	Samsung, SG-7750/SLV-R5	3
Video Server	Leitch, NEXIO	1
Studio Camera	Ikegami, HK-377P	3
Camera Pedestal	Radamec EPO, HK-170	2
Video File	Quantel, Picturebox	1
Media File	Leitch, MFC-3152-4AD	1
AMU	Studer,963	1
Audio Demux	Leitch, ADM 6804	4
Audio Multiplexer	Leitch, MAX-6801	2
Digital Audio Effect	Eventide, H-3000SE	1
AutoWiper ColorSuper	Videotron, AW-910	1
Chatacter Generator	Digital Fusion, Cosmos	1
Digital Video Effect	GVG, DPM-700	1
Waveform Monitor	Tektronix, 601A	3
WFM/VEC Monitor	Tektronix, 1740A	2
조명 System	Kumkwang, KKS-6000	1식

신호 분배실

종별	품명	수량
Routing System	GVG, SMS-7000	1식
Serial Digital Converter	Leitch, FR-3610	18
Master Sync	Leitch, SPG-1312	1식
Master Clock	Leitch, CDS-3901	1식
Intercom System	telex, CS-9500	1식

M/W Rx Unit	Hitachi, FR-12G-Z1B	6
Standard Converter	Leitch, IXION/DMV	5
TV Standard Converter	Techniche, CYRUS/EOS	2
D/A Converter	Leitch, FR-6802	1
A/D Converter	GVG, M-9221N	2
NTSC Converter	EVS, SD-10	2
Satellite Receiver	Scopus, IRD-2520	1
Satellite Receiver	휴맥스현대, 5400Z/HSS740	3
D2,3 Serial Converter	GVG, SMS-8221N	2
VCR	Sony, DVW-A500.BVW75P	3
VCR	Sony, BVW-75	5
VCR	Sony, DSR-30.EVO-9850P	2
VCR	Samsung, SG-7750	2
Time Laps Recorder	LG, LVC-TL124	2
Waveform Monitor	Tektronix, 601A	4
WFM/VEC Monitor	Tektronix, 1740A/1780R	6

취재 · 편집

종별	품명	수량
NON Linear Editor	Leitch, NX4475	3
D/A Converter	Leitch, FR-6802	2
Video Server	Leitch, NX-4000	1
VCR	Sony, BVW-22	15
VCR	Sony, BVW-50	7
VCR	Sony, BVW-60	5
VCR	Sony, BVW-65	14
VCR	Sony, BVW-70	32
VCR	Sony, BVW-75	30
VCR	Sony, DNW-A25	4
VCR	Sony, DNW-A75	2
VCR	Sony, MSW-2100	3
VCR	Panasonic, AJ-HD1200	1
VCR	Panasonic, AJ-SD955	5
VCR	Sony, BVV-5	1
Camera	Sony, BVW-400A	44
Camera	Sony, DNW-90	1
Camera	Hitachi, SK-H5	1
Camera	Panasonic, HDX400/SDX900	2
Camera	Sony, PD-100/PC5	6
Camera	Samsung, SV-D300	2
Camera	Panasonic, AG-DVX100	5

Computer Graphic

종별	품명	수량
Graphic System	Quantel, HAL	2
Graphic System	Quantel, Paintbox	2
Graphic System	Masher, 5D Masher	1
Graphic System	Silicon G. , Indigo	3
NLE System	Leitch, Velocity	2

Camera	Hitachi, HV-C10	1
VCR	Sony, BVW-22	1
VCR	Sony, BVW-75	2
VCR	Sony, BVW-D75	3
기상시스템	Kavourous	1식

지국(9개소)

종별	품명	수량
Camera	Sony, BVW-400A	17
Camera	Sony, BVP-70IS	2
Camera	Panasonic, NV-MX500	10
VCR	Sony, BVW-50	9
VCR	Sony, BVW-60	1
VCR	Sony, BVW-70	22
VCR	Sony, BVW-75	2
Sync Generator	Leitch, SPG-2602	9
Video Switcher	GVG, 110	9
Audio Mixer	Shure, FP-42	9
조명장치		9식

공 시청

종별	품명	수량
Satellite ANT	Hoseo, 3.2m/2.4m/1.8m	7
ANT	Hoseo, Yagi	5
Modulator	Hoseo, SKC-M12	1
RF Combiner	Hoseo, CB-1804	12
Satellite Receiver	현대, HSS-740	10
Satellite Receiver	Sony, DST-BX500	1
Signal Processor	Hoseo, SP-1802	6
TV Modulator	Hoseo, MD-1803	1

중계차(총13대 : 본사7, 광역지사6)

종별	품명	수량
Sync Generator	Leitch, SPG-2602	13
Camera	Ikegami, HK-377P	4
Camera	Sony, BVP-70IS	15
Camera	Sony, BVW-400A	5
VCR	Sony, BVW-75	7
VCR	Sony, BVW-70	6
VCR	Sony, BVW-50	1
Video Switcher	GVG, 110N	13
Audio Mixer	Studer, 962/961	2
Audio Mixer	Sony, MXP-290	3
M/W	Ikegami, 10G/5G	11

중계 SITE(관악·남산·여의)

종별	품명	수량
ANT Rotator System	Kato, KP09-1	5식
ANT Colinear	Motorora, TDD-7100	1
ANT Parabola	Kato, 1.2mphi	6
Base Station Repeter	Motorora, MSF-5000	1
M/W Rx	Hitachi, FR-12G	6
M/W Tx	Hitachi, FR-12G	6
M/W Rx	Ikegami, PF-701S/10G/5G	10

전산 장비

종별	품명	수량
보도정보 시스템	DB서버	2
	RAS서버	2
	검색서버	2
	웹서버	2
	연합뉴스 수신서버	2
	DB 테스트 서버	2
메일센터	메일서버	2
	스마트필터	1
기사 서비스	디지털YTN FTP	1
	EBS/ITV	1
기타	인트라넷 서버	1
	어플리케이션 서버	1
	사내전산 DB서버	1
	Basys 서버	2
계		22

1995년 개국시 도입 주요 장비

(방송장비 총계 : 105종 2,600여점)

장비명	수량	용도	주요 설치 장소	비고
카메라	93	스튜디오용(7) 중계용(19) 취재용(62) 특수용(5)	스튜디오(7) 중계(9) 지사중계(10) 영상(42) 중계(5) 지사(13) 보관(2) 파노라마(본관옥상) 저조도Cam(영상) 소형(ST전경, 그래픽) 초소형(몰래캠)	
녹화 및 편집기	179	스튜디오녹화 재생용(38) 1:1 편집기 38set (76) 논리니어편집 6set(6) 녹화 · 재생 (31) 포맷변환 기타(28)	디지털(13): 주조(5) 1부조(3) 2부조(3) 3부조(2) 아날로그(25): 부조(3) 신호분배(5) 중계(7) 지사중계(10) 영상 15set(30) 월드 6set(12) 편성 3set(6) 광고 1set(2) 지사 13set(26) 영상(6) 영상(12) 월드(5) 편성(1) 더빙(3) 그래픽(5) 기타(5) 부조(6) 신호분배(5) 보도모니터(15) 기타(2)	
디스크 녹화장치	7	Spot재생용(1) 뉴스소재용(6)	주조(1) 1부조(2) 2부조(2) 3부조(2)	TAS와 연계 Basys와 연계
영상 스위처	31	마스타용 제작용	주조(1) 디지털(3) : 32ch : 1, 2부조(2) 12ch : 3부조 (1) 아날로그(27) : 중계(6) 지사(11) 지사중계(10)	TAS와 연계
라우팅 스위처	1		신호분배(1)	128X96
비디오 파일 문자발생기	3 10	정지화상기록 · 재생 국산	1부조(1) 2부조(1) 3부조(1) 주조(2) 1,2부조(4) 그래픽(1) 1, 2, 3 부조(3)	Basys와 연계 Basys와 연계
컴퓨터 그래픽	5		2D : HAL(1) 2D페인트박스(3) 3D : Wavefront(1)	
기상시스템	1		기상팀(1)	
오디오믹서	53	24ch(2) 12ch이하 및 소형(51)	1, 2부조(2) 1, 2, 3부조(3) 중계(11) 영상(10) 지사(13) 지사중계(10) 기타(4)	
마이크로 웨이브	33	고정국용 TX(6) RX(6) 이동국 수신(13) 이동국 송신(8)	남산(2) 관악(2) COEX(2) 본사(6) 남산(6) 관악(4) 중계(3) 중계(8)	
광 전송장치	35	중계및 지사(28) LJP(7)	중계(6) 지사(12) 지사중계(10) 수도권LJP (7)	Dacom임차분
무전기	54	기지국(4) 이동국(50)	남산(3) 관악(1) 이동(2) 중계(18) 휴대(30)	남산(1)RBS
위성전화기	1		벽 · 오지 및 외국 취재(1)	
중계차	16	중형(1) 뉴스 밴(15)	중계(1) 중계A(3) 중계B(2) 지사(10)	

2004년 신사옥 이후 도입 주요 장비

(신사옥 이후 구입 방송장비 총계 : 400여점)

장비명	수량	용도	주요 설치 장소	비고
카메라	11	스튜디오용(4) 취재용(7)	스튜디오(4) 영상(7) : HD(1) SX(1) DVC PRO(5)	
녹화 및 편집기	23	스튜디오 녹화·재생용(7) 논리니어편집(3) 녹화·재생(12) 포맷변환(1)	디지털(7) : 주조(5) 1부조(2) 영상(3) 영상(8) 기동(1) 제작(3) 신호분배(1)	
디스크 녹화장치	9	Spot재생용(2) 뉴스재생용(3) 소재등록용(2) 소재저장용(2)	주조(2) 1부조(1) 2부조(1) 3부조(1) 영상취재부(1) 광고(1) 주조(1) 부조(1)	APC 연계 보도정보연계
영상 스위처	2	마스터용(1) 제작용(1)	주조(1) 1부조(1)	APC 연계
APC	1	프로그램송출(1)	주조(1)	
미디어 파일	2	기록·재생(2)	1부조(1) 2부조(1)	
문자 발생기	2	문자 발생(2)	주조(1) 2부조(1)	
영상 효과기	1	다양한 영상변환(1)	3부조(1)	AW 910
오디오 믹서	2	32ch(1), 10ch(1)	1부조(1) 음악실(1)	
컨버터	3	PAL→NTSC(3)	신호분배실(3)	

2005년 방송운용 주요 장비

(총계 : 105종 3,000여점)

장비명	수량	용도	주요 설치 장소	비고
카메라	122	스튜디오용(11) 중계용(19) 취재용(87) 특수용(5)	스튜디오(11) 중계(17) 지사중계(2) 영상(41) 중계(1) 지국(17) 보관(1) 취재용6mm(27) 파노라마(본관옥상) 저조도Cam (영상) 소형(ST전경, 그래픽) 초소형(몰래캠)	
녹화 및 편집기	206	스튜디오 녹화재생용(56) 1:1 편집기40Set(80) 논리니어 편집 4Set 녹화·재생(36) 포맷변환 기타(24)	디지털(19) : 주조(5) 1부조(3) 2부조(3) 3부조(3) 신호분배(1) 인터(4) 아날로그(37) : 부조(3) 신호분배(6) 중계(15) 지사중계(7) 국회(4) 인터(2) 영상 20Set(40) 국제 5Set(10) 기동1Set(2) 편성 1Set(2) 마케팅 1Set(2) 지국15Set(30) 영상(3) 기상(1) 영상(11) 국제(8) 편성(1) 더빙(3) 편집(1), 기동(3) 그래픽(3) 마케팅(3) 기상(1) 기타(2) 부조(6) 신호분배(6) 보도모니터(12)	

디스크 녹화장치	8	Spot 재생용(2) 뉴스 재생용(3) 소개 등록용(1) 소개 저장용(2)	주조(2) 1부조(1) 2부조(1) 3부조(1) 영상취재부(1) 주조(1) 부조(1)	APC 연계 보도정보 연계
영상 스위치	33	마스터용 제작용	YTN주조(1) 인터내셔널(1) 디지털(4) : 1,2,3부조(3) 인터부조(1) 아날로그(27) : 중계(7) 지국(8) 지국중계(6) 제작(1) 편성(1) 국회(1) 기타(3)	APC 연계
RSW	1	A/V 분배	신호분배(1)	128X96
APC	1	프로그램 송출	주조(1)	
비디오 파일	3	정치화상기록·재생	1부조(1) 2부조(1) 3부조(1)	보도정보와 연계
미디어 파일	2	화상 기록·재생	1부조(1) 2부조(1)	
문자 발생기	10	문자 발생	주조(2) 1, 2, 3부조(6) 편성(1) 마케팅(1)	보도정보와 연계
컴퓨터그래픽	5	2,3D화면 제작	2D : HAL(2) 2D페인트박스(2) 3D : MAYA(1)	
영상 효과기	3	다양한 영상변환	2D : DPM-700, AW910	
기상 시스템	1	기상화면 구현	기상팀(1)	
오디오 믹서	54	32/ch 24ch(3) 12ch이하 및 소형(51)	1부조(1) 2, 3부조(2) 1, 2, 3인터부조(4) 중계(7), 영상(10) 지국(11) 지국중계(6) 이동(13)	

행사 · 사업

벤처 디자인 상

개 요 :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디자인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디자인 벤처기업 제품 발굴 시상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주 최 : YTN, 한국디자인진흥원, 문화일보
 (2000~2003년은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 문화일보는 2004년부터 참여)

행사 시기 : 2000년 3월부터 매월 시행
 2001년 분기별 시행 (4차례)
 2002년 상 · 하반기 시행 (2차례)
 2003년 상 · 하반기 시행 (2차례)
 2004년 연간 1회 시행 (연말)

2000~2002년 수상 업체

수상년도	수상명	출품명	회사명
2000년 3월	우수상	인터넷 손목받침대 전화기	코스텔(주)
2000년 4월	우수상	스키드-에오스	(주)비디코리아
2000년 5월	우수상	전자식 전력량계	옵니시스템(주)
2000년 6월	우수상	한춤 디지털 뮤직플레이어	오프너스(주)
2000년 7월	우수상	엑스포	S.T.I
2000년 8월	우수상	진공보존용기	(주)고려알파라인
2000년 10월	우수상	자동리닝머신	(주)자코 휘트니스
2001년 봄	금상	스네일 포토	(주)허드스텍
	은상	스펙트라 브이알엠	(주)맥스엔지니어링
	동상	골프카	(주)올비
2001년 여름	금상	컴퓨터 주변용품	(주)엔아이디
	은상	반디도로표지병	길라씨엔아이(주)
	동상	핑거락2	(주)테에스바이오 메트릭스
2001년 가을	금상	4륜 전동 스쿠터	(주)옵티라이더
	은상	플레나 화장품	한국화장품(주)
	동상	뉴스커 리볼루션	(주)이삭커뮤니케이션
2001년 겨울	은상	컴피아노	(주)르벡
	동상	메디캠버스	(주)대웅상사
2002년 8월	산업대상	엑스지 250	(주)비전테크시스템
	전자대상	팻워치	(주)쓰리비시스템
	디자인대상	브이펜	(주)브이링크넷
	산업우수상	I-solar 원적외선할로겐히터	(주)아이씨텍
	전자우수상	컬러젠	(주)하모니칼라시스템
2002년 11월	디자인우수상	약속, 희망의 나라로	(주)시스템 쉐얼리
	산업대상	인공지능로봇 토마	(주)로보티즈

2002년 11월	전자대상	매직카메라	(주)인포랜드
	디자인대상	인디오	(주)인디오
	산업우수상	DVD MV	(주)뮤전
		촉촉이 가습기	(주)가이아모
		빨래모아	(주)이디오
	전자우수상	펜지	(주)펜지
		윙거	(주)아이에프키
		헬로닥스	(주)텔레메드
디자인우수상	태극반지	(주)엔저빈	
	스토리봄봄	(주)능인전자	

2003년 상반기 수상 업체

수상명		출품명	회사명
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멀티스크린컴퓨터	(주)유엠디지털
금상	중소기업청장상	입체니트	(주)래만
	조달청장상	프로포즈	(주)시스템주얼리
	YTN사장상	테라볼	토인환경디자인(주)
	전자신문사장상	롤업피아노	(주)이온테크노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JD Board	제이디모터스(주)
은상	산업부문	turning shelf system	(주)맥시멈
		밀폐용기푸디아	에프씨산업
	전자부문	리에이지	(주)탑스코리아
		bio원적외선전기로스타	(주)모닝아트
디자인부문	디지털복합전화기	대우텔레텍(주)	
동상	산업부문	퀵보드	드림스포텍
		교통시설구조 안전시스템	삼우안전시설
		이동식공중화장실	(주)향기마을사람들
	전자부문	지능형캐릭터로봇	이지로보틱스(주)
		usb drive	피앤씨엔텍(주)
		파피아	레카
		쓰리디페이퍼	(주)쓰리디페이퍼
디자인부문	사각육실용폼세트	(주)예랑도자기	
	아로마퀵던트	(주)세미성	
	LIGA	(주)씨큐어테크	
우수상		DAX-275/DH-017TS	다산일렉트론(주)
		오투연수기	경일하이텍
		D.V.R	(주)휘앤시스
		야광스위치커버	(주)유니디자인
		트리톤	(주)사이버뱅크
		미라스코프	디자인단
		전동두피마사지기	(주)엔티씨
		란포장용기	(주)비원씨엔알
		종이CD케이스	씨디씨(주)
		SA-ERP	(주)키컴
		MOK	(주)세울디자인
		기능성구두	(주)슈나이스

2003년 하반기 수상 업체

수상명	출품명	회사명
동상	스킨 체인저	이지텍
은상	레저 스포츠용품 헬멧	동진프라스틱
우수상	고양이와 개 벽시계	(주)브이아이펫
조달청장상	자가발전 플래시, 라디오	(주)코다스디자인
우수상	인체공학 번기시트 "센스굿"	(주)필조이
우수상	개인용 산소 발생기	(주)큐비에스
동상	큐티펫s 애완동물 자동급식기	주식회사 큐티
우수상	하박 공기청정기	(주)삼에스코리아
YTN사장상	셋톱박스	주식회사 아이큐브
장려상	Masque 자동차 인테리어 용품	(주)야기야기
동상	interbath	동원세라믹주식회사
진흥원장상	에스보드	(주)데코리
장려상	B-GEAR	프리뷰
장려상	쌀냉장고	(주)굿엠
전자신문사장상	휴대용 호스트 플레이어	(주)벡스트웨이
우수상	게임라이더	(주)데코스인터랙티브
장려상	이이지프리	(주)드림프리
동상	일체형컴퓨터	(주)아이디넷
우수상	Auto Toilet	(주)보라
우수상	비바홀라	(주)코랄디자인
동상	머리핀용 클립	코스메탈
우수상	양초 자동 촛대	대상정밀
장려상	유피 파이프(UP-5)	(주)닥터스텍
우수상	가정용 로봇청소기	(주)화동인터내셔널
장려상	에어윙(Aerwing)	(주)플라이스톤
대상	첼로케이스 "HAAN"	가스파로
은상	GINA 카멜레온 시리즈	GINA
우수상	인공지능공기청정기	(주)신아전자
장려상	코지펫	오이엠뱅크(주)
우수상	모그 시리즈	(주)휴머스 모그
우수상	인공지능 초소형 무인 발권기 "온티"	(주)하제 닷컴
장려상	허리요추 운동기기	(주)허스라 산업
우수상	발광 스포츠 고글	프린스 패션
우수상	仙(선)	KODECO(코데코)
우수상	드라이미(DRYME)	(주)프라코인터내셔널
장려상	킵홀더가 부착된 수납식 의자	(주)유니테크 시스템
장려상	바이오장풍(고속헨드드라이어)	(주)스페이스링크
우수상	메탈포토 엘리베이터 도어	우연엠에스(주)
은상	엑스크래프트(XCRAFT)	(주)영진스포츠
동상	더 밥(THE BOB)	(주)디자인 블루
중기청장상	Landingpak	(주)LandingPak Korea

2004년 수상 업체

수상명	출품명	브랜드명	회사명
대상	액정모니터 일체형 PC	플래답	(주)에이텍
금상	휴대용동영상플레이어DIFFE	디페	(주)DM테크놀로지
	자전거	이지업 웰빙 다기능 자전거	(주)이지업
	MP3 플레이어	엠-버드 하이-파이	(주)메이콤
	블라인드형 LED표시장치	칼라렉스	(주)한국싸인
	캐릭터 봉제 완구	위시왕	오로라월드(주)
	아기머리보호대	에쿠	(주)테란엔에스비
	테라피센터	션스파	(주)사라인터내셔널
	한글패턴실�크를 이용한 패션 액세서리 “(넥타이 스카프 지갑 소품 핸드백)”	이건만	(주)이건만 에이앤에프
은상	슬림형 디브이디 레코더	엘리온	엘리온 디지털(주)
	양화면 액정 TV&모니터	듀오프리즘 플러스	(주)두솔시스템
	산소발생기	옥시팜	(주)신아전자
	광섬유복합처리장치	일신테크	일신정밀공업(주)
	“팬던트, 귀걸이”	카멜레온 시리즈	GINA
	태양광 충전기	누셀	(주)솔레이텍
	다목적 유아용 카시트	포브	(주)포브
	디지털 도어락	게이트맨	(주)아이레보
	여성용 구명조끼	웨이브디자인	(주)에드코
	ABC동물세상	뜯어만드는 세상	(주)인터피알
	매트형 아이스팩	싸이로팩 플러스	이튼 인터내셔널(주)
	광학현미경(셀카운팅 유닛)	마이크라	(주)자유와 도전
	일체형 터치포스	큐팩스윈	(주)효진콘텍
	피부종합진단시스템	아라모 티에스	아람휴비스(주)
이비인후과 전문 치료기	모나코	(주)메가메디칼	
동상	연필 교정기	바름이	CH(씨에치)
	시리얼스토리지시스템	이클로이드 1800	(주)엑사큐브시스템
	리모컨 무선 전화기	엘지전자	(주)테라웨이브
	자동차 피클 침대	퍼니존	좋은놀이터
	“반지, 목걸이”	보그인	(주)쥬게이트
	러닝머신	KAIST 710T	(주)모투스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오픈텔	애플루트디자인
	비디오폰	호비스	영일전자산업(주)
	자동빨래건조대	빨래나라	(주)대연
	진공 건조기	랩 컴패니언	(주)제이오텍
	형광칼라코팅체인	화성	화성계전주식회사
	패션배낭방독면	골드마스크	골드신 주식회사
	천연다이아몬드 펠링기	화이트	(주)프라임메디텍
	10세이상자세교정용 젓가락	퍼스틱	주식회사 아이엔피
	멀티픽스	멀티픽스	(주)일공구아트엔테크
	원적외선 전기로스타	미라룩	주식회사 모닝아트
	포스틱	포스틱	(주)클라이맥스
	적산 및 감산 검용 유량계	에프엠 윈	A to Z
	요구르트&청국장 제조기	마이젠	(주)엔유씨전자
	캡짱(I.visor)	아이티어	(주)아이티어
	회전식입체양면다림판	다즐	(주)해피다림
	LCD광고판345*190		주식회사 엘씨디싸인
	침수형정수기	물옥잠 등등	(주)화인허브

동상	구강청정제 디스펜서	마이센스	(주)이코라이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브레인 한소네	본파트너스
	소프트 콘택트렌즈	이미지칼라콘택트렌즈	(주)지오메디칼
	GPS Receiver		주식회사 지킨
	아우내 잠곡	아우내	(주)패널
	“알콩달콩” “동의훈제란”	알콩달콩	컴픽스
장려상	슬라이딩 비데	굿데이	(주)엔트코리아
	가정용 스팀 청소기	헬로스팀 II	(주)씨쓰리아이
	다용도 드레스 룸	코디룸	(주)현대아트모아
	가위	신동 썰래미	친화테크
	조리용기구	로망스냄비양수18cm	(주)라이프키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엑스 쓰리 플레이 잇	(주)디지털엔디지털
	출자	셀프락	(주)코메론
	홈씨어터 장식장	티-랙 1200	(주)인페소
	화장품	엠브리오	아마란스 화장품
	휴대용 MP3 플레이어	뮤지오	(주)정소프트
	“상아질 과민증(시린이) 전용 칫솔”	포토센시티	바이오포톤
	캐릭터 봉제 완구	리틀부부	(주)오로라크리에이션
	의료용물질생성기	클리온	마이크로뱅크(주)
	동영상 플레이어	쓰렐	에스캡(주)
	복합 가습기	윌텍 비타+	(주)오성사
	USB2.0 TV 수신기	블루코드	블루테크놀로지(주)
	전자식 도어록	퍼스트 플러스	(주)대양디엔티
	손목시계	포체	아동산업(주)
	신발갈창	웰피아 인솔	(주)기하정밀
	동대구역 버스 웰타 승차대		(주)서방
	가정용 로봇	로보엔	(주)다진시스템
	발광 차단바 주차차단기	이지스101	(주)이지스코리아
	마사지 샤워기	리젠 I	(주)하나로바스
	엘이디 투광기	나이트뷰	(주)씨컴
	10.4인치 엘시디 모니터	맥트로닉스	(주)맥트로닉스
	문서세단기	메가슈레더 투	(주)이륜
	여성용 핸드백	지모	(주)엠디엠
	유압유 플러싱 장비	유압유 플러싱 장비	(주)삼영필텍
	손목시계	넥슨	(주)넥슨시계
	아동용젓가락	에디슨	주식회사 아이엔피
	선수용 수경	제프	(주)디엔피 코리아
	“New Concept Chafing Dish,Smart”	스마트	(주)타이거
	황도 12궁 별자리 천체돔	황도 12궁 별자리 천체돔	(주)조형문화연구원
	어부바 휴먼 조형물	어부바 휴먼 조형물	(주)조형문화연구원
	텍스타일디자인		한국디자인경영연구원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이놈	(주)이자브
	퓨리티 그린	파로마 TDS	(주)파로마TDS
	엘가	우아미 가구	주식회사 우아미
	홈문화재알리미(광전식)	엑스파이어	금성방재공업주식회사
	비상 콘센트	엑스파이어	금성방재공업주식회사
	이노센스	프린세스주얼리	프린세스 주얼리
	테즐북	테즐	(주)폴리브레인
카펜션	카펜션	(주)세계화성	
시계		까지공방	

장려상	욕실코너선반		한국파스텔산업(주)
	복어	데끼리	세진식품
	목기찾잔세트	혼이깃든	혼이깃든공예
	HiDe Vcom™	하이드 브이컴	주식회사 하이드
	CANNY - Home Edutainment Hub	캐니	(주)디뮤즈
	카이젠	카이젠	(주)패널
	한과세트	연산대추한과	(주)패널
	삼순이 호두파이	쌈씨니	(주)패널
	블루투스지피에스수신기	시스온 블루투스지피에스	컴픽스
	실리콘 젓병솔	포그나래	나이지베이비산업
계란	등지안에 웃음가득	(주)아이투디	

전국 대학생 영상 공모전

개요 : 우수한 영상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창조적 방송영상문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최

주최 : 경기도 · YTN

후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참가 대상 : 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

시상 : 1~6회는 대상 · 우수상 · 장려상, 7회부터 네티즌상 추가 (대상은 1명, 우수상 등은 수에 변동 있음)

응모 분야 : 1~7회는 다큐멘터리, 8회엔 플래시 추가

제1회(2001. 8)

수상내역	이름	학교명	내용	비고
대상	허광훈 권선희 송화인 이재환 손병호 김송옥	동명정보대	사라지는 옹기	문화관광부장관상
	박경진 이재혁	동아방송대	소리로 빛는 예술, 옹기	경기도지사상
우수상	안석홍 김유영 문준현 김애리 김미숙 주남주	광주대	녹자 - 그 옥빛만큼이나 슬픈 청자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장상
	나은경 송유경 최수진 김수현 설윤지	이화여대	이 시대 독짚는 늙은이, 도예인 서광수	YTN사장상
장려상	강병근 간중승 김진길	청운대	재 유약으로 여는 미래	이천시장상
	최가람	동아방송대	방곡도요의 녹자이야기	광주시장상
	정미정 김완준	성균관대	할머니의 옹기조각	여주군수상
특별상	송원근 여인성	전북대	송화도예	YTN사장상
	조성조 이호욱 류건주 김지남 이진일	청운대	벽의 미학 '도벽'	YTN사장상

제2회(2001.11)

수상내역	이름	학교명	내용	비고
대상	오준석 외	전북대	사라진 수인선, 그 기억에 관한 단상	경기도지사상
우수상	오지영 외	서강대	남한산성의 수호령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장상
	김봉덕 외	청운대	새로운 물결로의 여행-임진각	YTN사장상
장려상	김병기 외	서울대	가을에 떠나는 길	경기도지사상
특별상	김현정	성균관대	대동의 염원, 죽산국제예술제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장상
	임용현 외	호남대	가사문학의 고향-소쇄원	YTN사장상
노력상	이현주 외	강원대	The Northernmost Station	YTN사장상
	김주호 외	동신대	한땀한 영혼은 씻겨 극락에 천도하는 - 진도 씻김굿	YTN사장상
	이재혁 외	동아방송대	흙으로 만드는 도자 강국	YTN사장상

제3회(2002. 7)

수상내역	이름	학교명	내용	비고
대상	임고은	연세대	지하철 속의 월드컵	경기도지사상
우수상	유덕재	경희대	환경월드컵, 이제 시작이다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장상
	서덕진	연세대	어변성룡한 월드컵 잉어	YTN사장상
장려상	명창식	공주대	제자리 잃은 장승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장상
	이형구	국민대	경수 유소년 축구단	YTN사장상
특별상	김민선	전남대	슬로베니아 서포터즈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장상
	이정호	광운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YTN사장상
	안재욱	청운대	월드컵 압표 극성	
	이선우	청운대	태극 여전사	
노력상	이현석	홍익대	월드컵, 그 후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장상
	이세규	연세대	팅과 한나의 월드컵	YTN사장상
	이재혁	수원대	문화월드컵	
	강선희	대진대	월드컵에 문헌 노점상	
	임승택	성균관대	포스트 월드컵	

제4회(2003. 2)

수상내역	이름	학교명	내용	비고
대상	조승연 외	중앙대	행복한 나그네 매표소	경기도지사상
우수상	이 훈 외	연세대	사랑의 도배	경기도지사상
	이경섭 외	동아방송대	마지막 선물	
장려상	윤환숙 외	동아방송대	외국인 노동자를 아십니까?	YTN사장상
	서덕진 외	연세대	이젠 들을 수 있어요	
특별상	손훈오 외	한세대	보이지 않는 다리	YTN사장상
	이희수 외	남서울대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조승연 외	중앙대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장성진	배재대	사랑의 연주	
노력상	최성호 외	한세대	사랑의 300시간	YTN사장상
	윤선영 외	한세대	사랑의 샘	
	조영산	호남대	이발관 민씨의 초대받은 손님	
	주재원 외	한동대	작은 행복	
	이재홍 외	청운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5회(2003. 9)

수상내역	이름	학교명	내용	비고
대상	김영섭 정재현	홍익대	아버지의 울림, 북	경기도지사상
우수상	김우람 유영민	동아방송대	독버섯이 그림다	YTN 사장상
	구효정 김명은 이정현 김혜립 황윤희 김미선 이은정	숙명여대	'편지' 가 도착했습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장상
장려상	황민숙 김소현	국민대	잊혀져가는 풍경 - 대장간	YTN 사장상
	이승훈 최민희	서울산업대	갯벌마을과 쓰레기 종량제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장상

제6회(2003. 12)

수상내역	이름	학교명	내용	비고
대상	윤대희 안이령 송승용 한광익 박미혜 정진희	청운대	효심패망국	경기도지사상
우수상	신혜진 배민영 김재하 윤희영 김대용	중앙대	사랑을 제공해 드립니다	YTN 사장상
	심명섭 김승철 윤영경	한양대	상처입은 치료자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장상
장려상	배광훈 정수영 박지훈 박진무 김우현	동아방송대	살림의 집	YTN 사장상
	이지선 김국화 김배경 김정민 이윤경 정지선	숙명여대	아름다운 폐교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장상

제7회(2004. 9)

수상내역	이름	학교명	내용	비고
대상	이 완 조석현 장정욱	동국대	우리 마을 음식을 소개합니다	경기도지사상
우수상	조기범 홍익표 이현주 김성수	서울산업대	CCTV 권하는 사회	YTN 사장상
장려상	이정선 방요한 박종경	성결대	사미인곡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장상
네티즌상	문신혜 배성연 김영은 김연주 박정선	동의대	쌀!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장상

제8회(2005. 2)

수상내역	작품명	수상자		비고
		이름	학교	
대상	내 발 아래 세상	윤상현 김은호 신성배 조선옥 김지혜	청운대	경기도지사상
다 큐 멘 터 리	우수상	나리의 몸짓에서 날개를 본다	안상언 정임진 이수진 이옥지 이설희	동의대 한국 방송 영상 산업진흥원장상
		잘못된 다리, 휴대폰Bridge	정유능 장우창 어대일 송주병 장석찬	한서대 YTN 사장상
	장려상	난 ing	장수현 김병일 정용범 이혜립 신경희	부산경상대 한국 방송 영상 산업진흥원장상
		자주전상서	이경섭	대진대 YTN 사장상
플 래 시	장려상	우리아버지	변수정 심경용 박선미 윤인희	동아방송대 한국방송통신대 영남대 한세대 한국 방송 영상 산업진흥원장상
		모코점비	김현주	안양대 YTN 사장상
	네티즌 상	너 파랑새를 찾았니?	강은혜 고아영 조애진 한선명 정혜림 이윤희 이성민	한세대 한국 방송 영상 산업진흥원장상
		나리의 몸짓에서 날개를 본다	안상언 정임진 이수진 이옥지 이설희	동의대
		내 친구 누렁이	이창욱	호남대
내 발 아래 세상	윤상현 김은호 신성배 조선옥 김지혜	청운대		

YTN배 경주

연도	행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비고
2000년	제1회 YTN배 특별경주	일시 : 8월13일(일) 오후 8시 20분 SB 방송(2주) YTN 생중계 20:10~20:45 대회상금 9000만원	12경주 중 10경주
2001년	제1회 YTN배 대상경주	일시 : 12월2일(일) 오후 3시 30분 SB 방송(2주) YTN 생중계 15:25~16:00 대회상금 1억4000만원	12경주 중 8경주
2002년	제2회 YTN배 대상경주	일시 : 10월20일(일) 오후 4시 SB 방송(2주) YTN 생중계 15:55~16:30 대회상금 1억1000만원	12경주 중 9경주
2003년	제3회 YTN배 대상경주	일시 : 6월29일(일) 오후 4시 SB 방송(2주) YTN 생중계 16:10~16:30 대회상금 1억원	12경주 중 9경주 공동우승으로 트로피 추가제작
2004년	제4회 YTN배 대상경주	일시 : 8월29일(일) 오후 5시 10분 YTN 생중계 17:10~17:30 대회상금 1억2000만원	12경주 중 10경주 SB 방송 안함

FIRA KOREA-Cup● 로봇 축구대회

제1회(1999.11.30~12.1)

행사명 : 제1회 FIRA KOREA-Cup 로봇축구대회
장 소 :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역도경기장)
주 최 : 세계로봇축구연맹(FIRA) 한국과학기술원(KAIST) YTN
주 관 : (사)대한로봇축구협회
후 원 :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협 찬 : POSCO

제2회(2000.11.24~26)

행사명 : 제2회 FIRA KOREA-Cup 로봇축구대회
장 소 : 포스코센터 아트홀
주 최 : 세계로봇축구연맹(FIRA) · YTN
주 관 : (사)대한로봇축구협회
후 원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우주정보소년단 디지털조선일보
협 찬 : POSCO

2002년도 대회(2002.5.23~29)

행사명 : 2002 로봇축구 세계대회
장 소 : [예선대회] 5. 23~5. 24
부산(부산 교육정보원), 대구(대구 전시컨벤션센터),
광주(광주 조선대 서석홀 대강당), 대전(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수원(수원 청소년문화센터)
[본선대회] 5. 26~5. 28 서울무역전시시장(SETEC) 제1전시장
[FIRA Robot World Congress] 5. 26~5. 29 COEX 컨퍼런스룸
[전시회] 5. 26~5. 28 서울무역전시시장(SETEC) 제1전시장
주 최 : FIRA(세계로봇축구연맹)
주 관 : (사)대한로봇축구협회 한국과학문화재단 YTN
후 원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협 찬 : 삼성전자 MSN (주)성도 (주)유진로보틱스 (주)길라 씨엔아이

부록 Ⅱ
연 표

1987~91년 국내 · 방송관련 일지

- [1987]** 6.29 노태우 민정당 대표 「6·29 선언」
 10.27 헌법개정 국민투표(찬성 93.1% / 1988. 2. 25 발효)
 11.10 국회, 언론기본법 폐지 가결.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안 · 방송법 개정안 통과
 11.29 KAL 858기 미얀마 근해 안다만 해역 상공서 폭발(탑승 115명 전원 사망)
 12.26 제13대 대통령 선거, 노태우 민정당후보 당선(선거공약에 민간 CATV 유선방송 허용 포함)
- [1988]** 4.26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민정당 125 평민당 70 민주당 59 공화당 35석) 집권당 의석 과반 미달 「여소야대」현상
 5.19 국민주 공모 한겨레신문 창간(해직 언론인들 중심. 50억 원 모금)
 8. 3 방송위원회 발족
 8.26 MBC 노조 방송사상 첫 파업(공정방송 제도적 보장 요구)
 9.17 제24회 서울올림픽 개막(~10.2 160개국 1만3626명 선수단 참가, 소련우승, 한국 4위)
 11.23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 비리 시인 · 사과, 재산 국가 헌납. 설악산 백담사 은둔
 12. 7 국회 광주특위,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과정 · 특전사 역할 · 발표책임자 등에 관해 신문
- [1989]** 2.16 대학생 등 100여 명 광주 미문화원 습격
 4.27 정부, 분당 · 일산에 18만가구 아파트 · 주택 건설기로
 6.13 정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발표
 7.18 영화배우 강수연양, 제16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임권택 감독의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10. 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서울 세계성체대회 참석)
 12.13 정부, 정보사회 종합대책 발표(2000년대 초까지 고도정보사회 구현 목표)
- [1990]** 1.22 노태우 대통령 · 김영삼 민주당 총재 · 김종필 공화당 총재 3당통합 선언(2.9 민정 · 민주 · 공화당 3당합당 의결)
 4.15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4.30 공보처, 종합유선방송 추진위원회 설치(위원장 강용식 차관)
 5. 2 불교방송 개국
 5.17 교통부, 수도권 신공항 입지 영종도 확정
 6.14 정부, 새 민영TV방송 허용 등 방송개편안 발표. 종합유선방송법안 입법 예고
 7.14 국회, 여당 단독 새 방송법안 통과 / 9.1 공포, 입법취지 '방송기술 발전에 따라 위성방송 · 종합유선방송 등 많은 채널 활용 가능한 정보사회에서 전파 개방은 필연적'
 9. 4 강영훈 총리 · 연형묵 북한 총리 남북한 첫 총리회담
 10.31 정부, 새 상업방송 지배주주로 대영 선정
 12.15 국회,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자치단체선거법 등 지자체 관련 3개법안 의결
- [1991]** 1.21 국회, 걸프전 파병 동의(1.23 군 의료지원단 본대요원 134명 출발 / 4.10 모두 철수 귀국)
 3.20 서울방송 개국(공 · 민영 혼합방송 체제로) / 12.9 서울TV방송(SBS) 개국
 7. 1 종합유선방송 시범방송 개시(목동 상계동 8000여 가구 대상)
 9.18 유엔총회, 남북한 유엔 가입안 만장일치 의결
 12. 9 외무부,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151번째 회원국 됐다고 발표
 12.13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서울)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합의서 서명
 12.3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 / 1992.2.19 평양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발표
 종합유선방송법 제정(법률 제4494호, CATV 도입 법적 근거)

[1992]

- 3. 연합통신(이하 연통) 내 「방송연구위원회」 설립
- 4.22 연통 특별조사팀, 미국 CNN, CNBC,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채널, 하와이 퍼블릭 텔레비전 등 시찰(~5.8)
- 7. 1 연통, 케이블TV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공모 신문 광고(~7.2)
- 7. 7 연합통신, 각 방송국에 주요뉴스 음성송신 서비스
- 10.22 연통 특별조사팀, 홍콩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케이블TV 업계 시찰(~11.12)
- 12. 연통 「케이블TV 방송기획단」 출범

[1993]

- 5.21 연통, 부장급 이상 간부 대상 CATV 사업 설명회 개최 / 5. 27 CATV 사업 참여 토론회 / 5.31~ 6. 3 지국 순회 설명회
- 7. 연통, 사옥 증축공사 착공(CATV 사업 참여 대비 업무공간 확보)
- 7. 2 연통, YTN 컨소시엄 참여 12개 업체 · 지분율 확정 발표
- 7. 7 연합TV뉴스(YTN) 창립 총회
- 발기인: 현소환 신계균 장세현 지연태 현승중 조철주 이금기 김재운 김상구 장규찬
- 7.15 연통, CATV 사업 참여 허가신청서 제출
- 8.31 YTN, 종합유선방송 종합보도 분야 프로그램 공급업체(PP) 선정됨(PP 허가대상 법인: 11개 분야 20개 업체)
- 9. 2 YTN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개최(1995년 초 방송개시 목표, 인원 · 장비 · 방송 훈련 등 본격 준비작업 들어가기로)
▲ 컨소시엄 참여업체
연합통신(30%) (주)쌍방울(10%) 제일산업(컨베이어 제조, 10%) 한국관광공사(10%, 1994년 4월 26일 1차 증자 시 하이트 맥주 주주 변경) 한국상업은행(10%) 민중병원(7%) 성원토건(5%) 장규찬(새한미디어고문, 5%) 전남일보(언론, 5%) 일동제약(제약, 3%) 한림제약(제약, 3%) 보성주택(건설, 2%)
- 9.24 YTN 임시 주주총회 · 이사회 개최(사장 현소환 · 전무 김영일 · 상무 김동성, 이사에 신계균 장세현 현승중 조철주 선

[1992]

- 1.30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전협정 서명
- 3.2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민자 116 민주 75 국민 24석)
- 4.10 정부,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 GATT에 제출(쌀 제외 모든 농산물 개방)
- 6.13 한국,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변화 협약 · 생물 다양성 협약 서명(정원식 총리, 리우데자네이루 지구환경 정상회담 참석)
- 8.10 황영조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2시간 13분 23초)
- 8.11 한국 첫 과학위성 「우리별 1호」발사 성공(프랑스령 기아이나)
- 8.24 한국 · 중국 외교관계 수립
- 10.12 해군, 국산 첫 잠수함 「이천함」(1200t 급) 진수
- 12.18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 민주당후보 당선 : 유효투표의 41.4%인 997만여 표로)

[1993]

- 3. 8 김영삼 대통령,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 서완수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제거 육군요직 인사 단행)
- 3.12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 4.11 공보처, 김영삼 대통령에 CATV 추진 업무 보고(1993년 말까지 방송사업자 선정, 1995년초 방송 실시)
- 5.29 공보처, CATV 구역 고시(전국 1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SO 구역 분할)
- 6. 4 「과학 1호」 로켓 서해안에서 발사(96초동안 오존층 측정)
- 6.29 정부, 육군 상륙수부대를 소말리아 평화유지군(PKO)으로 파병
- 8. 6 대전엑스포93 개막(108개국 33개 국제기구 참가 11월7일까지)
- 8. 9 김영삼 대통령, 옛 조선총독부 건물 조속 철거 지시(1995.3.1 철거 선포식 / 8.15 돛 철탑 철거행사)
- 8.12 김영삼 대통령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 8.20 국가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1차시험(11.2, 2차 시험)
- 8.31 정부, CA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 11개분야 20개 허가대상법인 1차 선정

- 임. 상임기술고문에 김무기 위촉.
5개 실국 · 20개부 · 인력 345명 충원키로)
- 9.28 공보처, 종합 뉴스 프로그램 공급업 법인 설립 허가장 교부
- 10.27 YTN 출범 축하 리셉션 개최, 각계 인사 2000여 명 참석
- 11.10 YTN, 사무실 입차(연합통신 건물 9~12층)

[1994]

- 1. 1 초대 보도국장에게 이대섭(전 KBS 보도국장) 임명
- 1.15 사옥 증축 완료
- 1.24 YTN 파견 연동 기자 예비발령 앞두고 선발경위 · 양사 관계 설명회 개최(~25일)
- 2.14 공채 1기 신입사원 29명 채용(방송경영 4 기자 9 촬영 10 그래픽 2 전산 2 방송기술 2명), 경력사원 45명 입사(발령 일자 3월 1일)
- 3.13 스튜디오 등 방송시설 · 설비공사 시작
- 3.29 제1기 주주총회(1993결산 · 1994예산 승인)
- 3.31 연동 사원 29명 YTN에 파견(발령일자 6월 1일)
- 4.29 주주변경(하이트 맥주, 한국관광공사 주식 10% 인수)
- 6.10 연동, 본사 · 지방에서 4차례 경영설명회(~19일)
- 7.31 일본 TBS 사장, YTN 방문
- 8. 2 YTN 직제 확정, 부사장 발령
- 8.13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YTN 채널번호 24번으로 결정
- 9.초 10월 중순까지 ENG 카메라 등 총 2000여 점 방송장비 도입키로(10월말 설치, 11월 초 가동 계획)
- 9. 9 공채 2기 신입사원 99명 입사(방송기자 48 여성앵커 8 기상기자 4 촬영기자 17 방송기술 22명)
- 9.14 법인 등록(YTN 창사일)
- 10.10 뉴스부조 전산시스템 'BASYS' 본격 가동
- 10.14 한국전력과 프로그램 전송망 기본계약 체결
- 10.26 YTN 로고 CI 작업 착수
- 11.30 스튜디오 등 방송시설 공사 완료, 1일 4시간 연습 방송 시작
- 12.20 24시간 기본편성 · 뉴스타이틀 확정
- 12.22 이사회 개최
규정 제정 · 지국 신설안 승인(인사, 보수, 여비, 학자금, 경조위로금지급, 지국 · 해외지사 설치)
주차장 부지 매입안 승인
연통과의 계약 4건(기본관리약정, 인사교류협약, 뉴스 및 방

- 10.10 부안군 압수도 근해서 여객선 서해 페리호 침몰, 292명 사망 72명 구조
- 11. 4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 입적 / 10일 영결 다비장, 사리 100여과
- 12.15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 12.16 국회,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 처리
- 12.22 부여군 능산리에서 백제 금동용봉 봉래산 향로 발굴(국보급)

[1994]

- 1.14 정부, 전국 50개구역 SO 허가대상 법인 선정
- 1.24 국내최대 간척사업 시화지구 방조제 물막이공사 성공
- 2.26 공보처, CATV · 위성방송 · 멀티미디어 등 뉴 미디어 정착 발전 위해 뉴 미디어국 신설
- 3. 3 문화체육부 · 상공자원부, 영화 비디오 TV 등 영상산업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 육성키로
- 3.23 체신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 발표(2015년까지 55조원 투입)
- 4.1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 차량형식 프랑스 알스톰사의 TGV로 확정
서울민사지법, 성희롱 당했다는 서울대 전 조교가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성희롱 첫 배상 판결)
- 4.22 이회창 총리 진격 사임
- 6.15 공보처 발표 '종합유선방송 시험방송 1995년 1월 5일. 3월 1일부터 본방송'
- 6.24 전국기관차 협의회 파업, 철도 · 서울지하철 마비 / 30일 명동성당 농성 해제 현업 복귀
- 7. 9 평양방송, 김일성 북한주석 사망(8일) 보도 / 19일 금수산 의사당에서 장례식
- 7.23 공보처, 10월1일부터 TV 수신료 전기요금에 병과 징수 · KBS 1TV 광고 폐지 발표
- 8.17 케이블TV 시험방송 수원시 등 2개 유선방송국에서 시작
- 10. 9 황영조, 일본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마라톤 우승(2시간 11분 12초)
- 10.21 성수대교 상판 붕괴(여중 · 고생 9명 등 37명 사망, 이원중 서울시장 문책 경질)
미 · 북한 북한핵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합의문 서명
- 11.29 서울 정도600년 기념 남산골 공원에 타임캡슐 묻어(정도 1000년인 2394년 11월29일 개봉 예정)

송계약, 방송광고영업 대행계약) 승인

[1995]

- 1. 초 연통과 전재료 계약 체결
 - 전재료 월 1억 원
 - 계약기간 1995. 3. 1~2005. 2. 28(1997년 3월 31일까지 시행)
- 1. 5 케이블 TV 협회 시험방송 참여(1일 4시간)
- 1. 9 연통, 본사·지방주재 기자 18명 YTN에 추가 파견(총 파견 인력 59명)
- 1.14 임시 주주총회, 정관 일부 변경(목적 사업 조항에 주차장업·부동산임대업 등 추가)
- 1.18 광고대행사·광고주 회사 대상 매체설명회 개최(~2.24)
- 2.16 신입사원 41명 경력사원 12명 입사(신입사원은 통상 2.5기라 함)
- 2.20 중계차 16대 중 1차분 5대 입고
- 2.25 24시간 연습 방송 실시
 - 경력사원 18명 입사
- 3. 1 낮 12시 YTN 개국 방송 시작(국내 최초의 24시간 뉴스전문 채널 출범)
- 3. 2 김영삼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 행사 생방송(서울 공항)
- 3. 4 YTN 테마기획 동독 현장 「라인에서 엘베까지」 방송 시작(14부작, 매주 토·일 방송)
- 3.29 제2기 주주총회·이사회 개최
 - 상무이사에 이대섭(보도국장 겸직) 감사에 한림제약 사장 김재윤 선임, 김동성 상무 사임
- 4.22 YTN 테마기획 「세계의 지방자치」방송 시작(14부작, 매주 토·일 방송)
- 4.28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특종 보도
- 5. 1 사보 창간호 발행(개국 소식 등 다뤄)
 - YTN 등 케이블 방송 유료화 시작
 - 공채 3기 신입사원 27명 입사(방송기자 11 엔지니어 4 촬영기자 4 기술 8명). 경력직 5명 입사
- 5. 8 증권시황 그래픽 방송 시작
- 6.13 팔라뎀푸르에서 열린 경수로 관련 북·미 합의문 발표
 - CNN과 공동 생중계 YTN 스페셜「95선거현장」특별 편성
 - 15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유세 녹화, 1일 5회 12일 간 방송
- 6.20 이사회 개최
 - 운영자금 장기차입 안전(운영자금 150억 담보 없이 대표이사 개인 보증만으로 대출, 당좌차입 한도 50억원) 승인
 - 주차빌딩 건설 안전(소요자금 리스로 충당) 승인
- 6.27 「95년 4대 동시지방선거」투·개표 생방송

- 12. 5 정부, 1995년부터 개인의 외화 보유 완전 자유화
- 12.16 국회,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동의안 가결

[1995]

- 1. 5 한국통신, 케이블TV 전송망 개통
- 1. 9 정부, 부동산실명제 7월 1일 시행 발표
 - 헌법재판소, 군 형법상 반란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 끝나지 않았다고 결정
- 2. 5 한국, 미국의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 개발 계획 참여
- 3. 1 케이블TV 20개 채널 본방송 개시
- 3. 3 외무부, 3해리인 대한해협 영해를 12해리로 확대 발표
- 3. 4 정부, 유엔 요청 시 국군부대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평화유지 상비체제에 참여 발표
- 3. 9 한국 미국 일본 3국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발족 문서 서명(뉴욕)
- 3.28 국내기술로 개발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K-SAM)「천마」시험발사 성공
- 4.10 미국 북한 간 직통전화 개통
- 4.28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101명 사망 150여명 부상)
- 4.29 정부, 지하 매설물 포함 전국 시설물 종합적 전산관리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GIS) 1998년까지 구축기로
- 5.11 핵 확산 금지조약(NPT) 무기연 연장 175개국 합의로 결정
- 5.14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 민영TV 개국
- 5.15 국제 언론인 협회(IPJ) 제44회 연례 총회 서울서 개막
- 5.19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 5.26 나옹배 통일원장관, 식량난 북한에 조건 없이 쌀 제공 제의 / 6.19 남북한 협상단, 쌀 5만t 무상제공 합의
- 5.31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안 발표, 19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 사립대 입시 정원 자율화. 초·중·고교 종합생활기록부 도입
- 6.29 서울 서초 삼풍백화점 5층건물 2개동 중 1개동 붕괴(사망 실종 458명 부상 307명)
- 7. 1 서울에 오존 경보제 시행 / 22일 강북지역 첫 오존주의보 발령
- 7. 7 정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의결
- 7.18 서울지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5·18 피고소고발인 58명 전원엔 '공소권 없음' 결정 불기소 처분
- 7.23 8만여t 원유 적재한 유조선 시 프린스호, 여천군 해상에서 좌초 원유 유출.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 발생
- 8. 5 국내 첫 상용 방송통신위성 무궁화 1호 발사
- 8.11 중국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 개관
- 9. 5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제1야당)
- 9.14 남북한 컴퓨터자판 배열 합의

- 6.2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특종 보도
- 7. 8 국회 대정부 질문 · 답변 생방송(~7.12, 방송사상 첫 생방송) YTN 테마기획 「세계속의 한국인」 25부작 방송시작(매주 토 · 일 방송)
- 7.11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매몰된 유지원씨 생존 소식 첫 보도
- 7.14 대학생 언론실습교육 실시(7개 대학 신문방송학과 학생 26명 선발)
- 8. 4 광복 50주년 특집테마기획 「신대동아 공영권」 20분물 30부작 방송 시작(매주 월~금 방송)
- 9.11 편성 부분 개편
출범 6개월 맞아 낮 뉴스 강화, 오후 5시 종합뉴스 신설(35분) 밤 12시 뉴스 시간 확대
- 9.18 YTN 스페셜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생중계
- 10.13 러시아 국영TV 사장 방문
- 10.15 광고사업국(연통), 삼성화재와 시보광고 계약
- 11. 4 현소환 사장, 미국 CNN 레드 터너 회장과 만나 양사 협력 합의
- 11. 5 영어 뉴스(Korea Report) 홍콩 수출, 홍콩 ATV에서 방송 시작
- 11.23 해외지국 특파원 겸 지국장 파견(위싱턴 : 문재철, 동경 : 김사모, 런던 : 신동윤)
- 12. 3 YTN 테마기획 「세계의 명차」 20분물 10부작 방송 시작(매주 일요일)
- 12. 5 YTN 뉴스 국내 최초로 PC 통신 통해 문자로 동시 생방송 시작
시청자 뉴스퀴즈 방송 시작
- 12.11 케이블 TV 「우수프로그램 대상」 수상
- 12.1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특별취재팀 제6회 「대한언론인상」수상

[1996]

- 1. 1 YTN 스페셜 「원로와의 대화」방송(~4일)
조병화 시인 · 송월주 스님 · 강원룡 목사 · 안병욱 교수 출연
- 1. 3 공채 4기 신입사원 20명 입사(방송경영 2 방송기자 9 촬영기자 5 방송기술 2 그래픽 2명)
- 1. 4 케이블 TV 협회 실시 케이블 TV 시청 행태조사 결과 YTN 채널인지도 1위 기록(79%)
- 1. 8 주식시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하단 스크롤 서비스 시작
- 1. 9 YTN 스페셜 「각료에게 듣는다」 방송(~15일)

- 9.15 대한적십자사, 북한에 수재 지원물자 제공 성명
- 9.16 서울지법, 대기 수질 등 자연적 환경뿐 아니라 문화재 등 역사적 환경도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에 포함된다고 판시(서울 강남 봉은사 주변 건물 15층으로 고도 제한)
- 9.25 안기부 서초구 내곡동 새 청사로 이전 - 34년간의 '남산시대' 마감
- 9.29 서울시, 새마을기 계양 안 해(19년4개월 만에)
- 10.19 민주당 박계동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4000억원 비자금 계좌보유 의혹제기(국회본회의 대 정부 질문서)
- 10.27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중 약5000억원의 통치자금 조성 퇴임 당시 1700억원 남았다고 밝혀
삼성전자, 국내 제조업체 처음 수출 100억달러 돌파
- 10.28 수출, 처음으로 1000억달러 넘어서
- 11.10 분단 후 처음 부산~북한 나진항 잇는 정기 직항로 개통
- 11.11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민노총) 출범
- 11.15 한 · 일 민간 차원 「역사 공동연구위원회」설치 합의
- 11.16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수감 / 12.5 검찰, 노태우 전 대통령 36개 재벌 총수로부터 2839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 11.30 정부, 굴업도 핵 폐기장 건설계획 백지화
- 12. 3 검찰, 소환 불응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 12. 6 제1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석굴암 팔만대장경 종묘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
- 12. 7 공업진흥청, 한글자모 240자 한글 1만1172자 수용 KS코드 체계(KS5700유니코드)를 국가 표준으로 고시
- 12. 8 서울고법, 북한주민도 한국국민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 공민권 소지 이영순씨에 대한 강제퇴거 취소 판결
- 12.15 헌법재판소, 5 · 18사건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종료 선고.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 반대의견 통해 '집권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위헌이라고 지적
- 12.19 국회, 5 · 18특별법 공소시효 특례법 통과(관련자 처벌 본격화)

[1996]

- 1. 1 정부, 54개 농수산물 가공식품 146개 국산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빌딩 · 2000㎡ 이상 복합상가 건물에 별도 흡연구역 지정 의무화
- 1. 9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결과 발표, 전씨가 1980년부터 1988년 3월까지 재임중 거둔 자금 총액은 9500억원. 그 가운데 2159억원은 뇌물
- 1.23 검찰 5 · 18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두환 노태우 전 대

- 1.21 대입합격자 안내 24시간 전화 서비스(1월 말까지)
- 1.31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기자회견 단독 생중계
- 2. 4 채널24 집중조명 「해외공관장에게 듣는다」방송(~13일)
- 2.중순 증자 여력 없는 연통과의 분리작업 착수
- 2.28 YTN 개국 1주년 기념리셉션 개최(힐튼 호텔)
이수성 총리, 이시윤 감사원장, 이순 조단 CNN 부사장 등 1000여 명 참석
- 2.29 개국 1주년 특집프로그램 「케이블 TV 1년, 미국은 케이블 TV시대」방송
- 3. 5 제1회 케이블 TV의 날 기념행사(서울 하얏트 호텔)
이대섭 상무이사 겸 보도국장 동탑 산업훈장 수상
- 3.13 채널24 집중조명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에게 듣는다」 방송
- 3.21 제3기 정기 주주총회
- 3.30 YTN 스페셜 「96 총선 유세 현장」 방송(~4.10)
관심지역 후보자 연설 녹화 요약 방송
- 4. 11 15대 총선 투·개표 생방송
- 6. 1 YTN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http://www.ytn.co.kr>)
PC 통신 천리안 나무누리 유니텔 통해서도 문자 뉴스 제공
- 6. 초 연합통신에서 한국전력으로 대주주 교체 결정
- 6.10 '700 음성 정보서비스' 실시. 700-2424 걸어 1번 누르면 현재의 방송내용, 2번 시간대별 당일 뉴스, 3번 3일전 뉴스 청취
- 6.21 케이블 TV 시청가구 100만 돌파(케이블TV협회 기념 축하 쇼 개최)
- 6.28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특집기획 「삼풍 사고, 그 후 1년」 방송
- 7. 초 100대 광고주 설문조사에서 PP 중 선호도 1위 기록(케이블 뉴스 지 조사)
- 7. 8 YTN 중계식 「산업경쟁력을 살리자」 매주 월~금 밤 9시~9시 50분 방송(~12.16)
- 7.11 15대 국회 각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 답변 생방송
- 7.18 애틀랜타 올림픽 스포츠 특화 뉴스 방송(~8.4)
- 8.26 이사회 개최
차기 대표이사 사장에 정주년 국제교류협력단 총재 내정
YTN·연통 분리작업 본격화
- 8.29 현소환 사장 IPI 총회 참석(~31일)
- 9. 8 테마기획「미국의 경쟁력」30분물 시사 다큐멘터리 10부작 방송 시작
- 9. 9 하와이 한인 기독교TV(KCBH-TV)와 뉴스 공급계약 체결
- 9.12 임시 주주총회·이사회 개최
제2대 사장에 정주년 국제교류협력단 총재, 전무에 오근영 선임
- 5.213 국회 통일외무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결의문 채택
외무장관 국제 해양법 발효 앞두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
전면 설정 발표 / 9.10 발효
- 3.13 MBC 노조, 강성구 사장 연임 철회 요구 무기한 파업 / 18일 19개 지방 MBC 연대 파업
- 3.23 서울지검,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구속(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 4.1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신한국당 139 국회의원의 79 자민련 50 민주당 15 무소속 16석
- 5.22 공보처 「케이블TV 백서」 종합유선방송국(SO)에 지역 정치 뉴스 포함한 보도기능 허용. SO구역 광역화
- 5.23 북한 공군 이철수대위 미그19기 몰고 귀순. 서울시 경보 사 이렌 안 울려 파문
- 5.31 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회, 2002년 월드컵 한국·일본 공동 개최 결정
- 6. 4 보건복지부, 인구 억제책 산아제한 35년 만에 폐기 따라 두 번째 자녀까지만 지급하던 공무원 학비 보조수당 지급 제한 조치 1997년부터 폐지키로
- 6. 8 정부, 미래 정보화사회 대비 초·중·고에서도 인터넷 사용 가능하도록 1998년까지 5000억원 투입, 학교 낙후된 컴퓨터 기종 교체키로
- 6.18 노동부에 근로여성국 신설
교육부, 해외유학 전면 자유화
- 7.10 음성 꽃동네 운영 오용진 신부 1996년 막사이사이 상 공공 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
- 7.16 교육부, 학점은행제 도입
- 7.30 교육부, 교육부문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 확정(8월말부터 교육정보화 종합 서비스 시스템 개통, 교육 관련 통계 및 학습 자료 등 각종 교육정보 컴퓨터 통신망 통해 제공)
- 8.13 국무회의, 1997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가르치기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 9. 1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1670km) 공사 통수식
- 9.18 국방부, 강릉해안 침투 좌초된 북한 잠수정 1정 발견 무장간첩 수색발표(11명 자폭 1명 생포 14명 도주)
- 10. 7 LA타임스 보도 '미국 80년 광주사태 때 한·미연합사 소속 병력 차출 승인'
- 10.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 한국 가입 승인 / 11.26 국회본회의 가입 비준동의안 기립 표결로 처리
한국·미국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워싱턴)

- 9.18 북한 잠수정 무장공비 침투 사건 첫 보도(아침 6시 40분)
- 10. 1 일본 위성방송 한국어채널 KNTV에 하루 10차례 뉴스 제공 계약 체결
- 10. 7 미국 대통령후보 1차 TV토론 동시통역 생중계
- 10.28 이사회 개최
연통과 체결한 4개 계약 해지 안건 표결로 승인(기본관리약정·광고 영업대행계약·뉴스제공 및 방송계약·인사교류협약)
- 11.15 연통과의 인사 교류·광고 대행 협약 해지에 따라 연통 직원 59명 중 42명은 남고 17명은 돌아감

[1997]

- 1. 1 신년특집「원로와의 대화」방송
김태길 교수·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고은 시인·고병익 서울대총장·양호민 교수·김형석 교수 출연(~6일)
- 1. 6 공채 5기 신입사원 14명 입사(방송기자 9 촬영기자 5명)
- 1.10 삼일회계법인에 YTN 경영 컨설팅 의뢰(1500억 원으로 증가하면 5년 뒤 손익분기점 통과 예상 등)
연초 특별 대담(집중조명)「각료에게 듣는다」방송(~31일)
- 1.21 클린턴 미국 대통령 취임식 동시통역 생방송
YTN KBS MBC SBS 보도 중계담당 부장, 한일 정상 회담 풀시스템 협력 위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회의
YTN, 대통령 해외 방문 행사에 최초로 위성방송 풀 참여
- 2.22 이사회 개최, 운영자금 차입 안건 처리
운영자금 150억원까지 상업은행에서 차입 승인
- 3. 1 개국 2주년 특집 「케이블 TV 2년」 방송
- 3. 초 연통, 광고영업 YTN 이관 조건으로 전재료 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인상(계약기간 1997. 4. 1~1998. 3. 31)
- 3. 3 봄철 프로그램 개편
밤 8시 프라임뉴스 38분에서 45분으로 확대, 낮 11시·밤 11시 뉴스 확대, 스포츠 메모 신설
- 3.12 개국 2주년 기념 시청자 퀴즈 당첨자 226명에게 상품제공
- 3.17 채널 24 집중조명 특별기획「통일 관련 특집」 40편 방송 시작
- 3.20 국회 한보특위청문회 생중계 방송 시작(230시간 생방송 기록)
- 3.26 정기 주주총회
- 4.중순 한전 증자 참여 확정
- 4.16 이사회 개최
조직개편: 광고부 신설 등 2국 17부 26개 팀을 2국 1실 15

- 10.14 김영삼 대통령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정보화전략 발표
- 10.19 첫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영광원전 1·2호기 준공
- 10.23 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씨 인천 자택 아파트서 피살(범인은 버스 운전사 박기서씨)
- 11. 1 일본 정부, 독도 부두공사 중단 한국정부에 요청
- 11. 6 공보처, 2차 지역 민영TV방송 4개 운영주체 발표(인천 동양화학·울산 주리원·전주 세풍·청주 뉴맥스)
- 12. 9 북한 탈출 홍콩서 한국 망명 신청한 김경호씨 일가족 등 17명 44일 만에 김포 도착
- 12.11 정부, 독도에 유인등대 설치 계획(1998년까지 26억원 들여)
- 12.26 신한국당, 새벽 국회 본회의 단독 소집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안 6분40초만에 통과시켜
- 12.29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관련 한국에 '깊은 유감' 표명

[1997]

- 1. 9 미국, 한국 미사일개발을 사정 300km 중량 500kg으로 상향 양해(중전180km 300kg)
- 1.16 헌법재판소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 지지 않은 사실로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고 결정
- 1.23 한보철강 부도, 금융부채 5조원 / 31일 대검 중앙수사부, 한 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구속
- 2.12 외무부, 황장엽 북한노동당 비서 중국 베이징의 한국영사관 찾아와 한국 망명 신청했다고 발표 / 4.20 서울 도착
통산부, 2월중 무역적자 55억달러 넘어섰다고 보고
- 3. 5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298억달러. 20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3.10 재정경제원, 1996년 말 순외채 300억 달러 돌파 밝혀
- 4. 1 금융연구원 '인화 평가절하 지속·높은 통화 증가율·외환 보유액 감소 등 모든 지표 상승세 보이고 있어 국가위험도 우려할 만한 수준 육박'
- 4.17 대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노태우 전 대통령 징역 17년 추징금 2638억원 최종 선고
- 5.17 대검 중수부,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 구속 수감
- 5.29 공보처, 미 허가 23개 권역 케이블TV 2차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자 선정
- 5.30 김영삼 대통령 1992년 대선자금 관련 잘못 시인
- 7.16 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간 혼인금지 민법 제809조 제1항 헌법 불합치 결정
- 7.18 종합유선방송위원회, 8월1일부터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 시

개 팀으로 개편

- 7. 7 여름철 편성개편
일요일 집중조명 폐지, 「날씨와 정보」 「건강 24」 신설
- 8. 6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 발생 특종 보도(새벽 2시 23분 CNN 인용)
- 8.19 북한 경수로 착공식 북한 신포 현지 생중계(SNG 활용)
일본 방송사에 중계방송 화면 제공
- 9. 2 연통 김영일 사장·한전 정보네트워크(주) 최대용 사장,
YTN 지분 30% 양도·양수 기본합의서 서명
- 9.25 「채널24 집중조명」 500회 특집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에게 듣는다」방송
- 10. 1 인천방송에 YTN 뉴스 유료 제공
연간 2억원, 2003년에는 3억6000만 원으로 인상
- 11.26 동아일보 주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생방송. 첫 수화 생방송
도 실시
- 12. 2 한전 KDN, 연통 보유 YTN 주식 90만주 정식 인수. 인수대
금 230억 원
- 12. 8 이사회 개최
IMF로 자금차입 불가능함에 따라 100억원 증자키로
- 12. 대통령 후보(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TV연설 방송 유치
- 12.15 고 변덕수 기자 사우장 영결식
- 12. 한국기자협회 YTN 지회 결성(초대 회장에 이홍렬 차장)
- 12.15 임직원 연말 보너스 미지급
- 12.23 임시주총·이사회 개최
100억원 증자 1차 연기 결정

[1998]

- 1.12 한전 직원 5명, 주식인수 실사작업 위해 파견 근무 시작
- 1.15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전 5명 YTN 5
명)
- 1.18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과의 대화」생방송
- 1.25 1997년 임직원 연월차 수당 미지급
- 1.31 사보 발행 중단(1998. 1~1999.11)
- 2. 6 이사회 개최
100억원 증자 2차 연기 결정
- 2.20 연통, 전재료 미수금 지급 요구
-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생방송 등 뉴스 특별체제 운영
2월분 월급 미지급
- 3. 6 연통에 미지급 전재료 전액 당감·임대료 대폭 인하 요청

청금지 고지방송·유해마크 표시하기로

- 8. 6 대한항공 747여객기 괌 추락 226명 사망(244명 탑승)
- 8.19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서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
- 8.25 EBS 위성과의방송 개국, 케이블TV로 재전송 의무화
- 9. 1 기업 9월 발행신청 회사채 8월보다 39.6% 증가
방송위원회, 지상파TV 방화 외화 청소년 유해등급제 실시
- 9. 4 금융통화위원회, 제일은행과 21개 종합금융사에 1조원씩
특용 의결
- 9.22 기아그룹, 4개 계열사 범법에 회의 신청
- 10.21 김태정 검찰총장,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비자금 의혹 고발사
건 수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발표
- 11.18 한국은행, 외환위기 극복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 조속 요청
- 11.20 정통부, 2001년 시작 디지털TV 방송 방법 미국식 확정
- 11.21 임창열 재정경제원장관, 정부 외환위기 극복 위해 국제통화
기금에 20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요청했다고 밝혀
- 11.28 환율 1달러 1170원 - 사상 최고치로 올라
- 11.29 주식시장에 재벌그룹 포함 대규모 연쇄부도 임박설 등으로
주가 390선까지 폭락 /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 240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줄어'
- 12. 3 정부·국제 통화기금, IMF 직접지원 자금과 미국 일본 등
협조용자 포함 550억달러 긴급 자금지원 합의
- 12. 9 KBS MBC SBS, 경제위기 관련 낮 방송시간 단축
- 12.10 병무청 직원 이재왕씨, 이회창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가 군
입대 피하기 위해 고의로 감량했다고 밝혀
- 12.18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투표자의
40.3%인 1032만6275표로 당선
- 12.22 정부, 수감 중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석방
- 12.23 환율 사상처음 2000원 선 넘어. 총외채 규모 3400억 달러

[1998]

- 1. 1 종합유선방송국 취재·보도 허용
- 1. 2 재정경제원, 1997년 11월말 실질 총외채 1569억 달러(연
말 기준 환율 1415.20원으로 계산하면 222조449억 원)
- 1.12 전국 106개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외채상환 금 모으기 범
국민운동」 - 금 모으기 캠페인 전개
- 1.14 국무회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금융
산업부터 정리 해고 도입)
국민회의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를 차기 대통
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 합의
- 1.15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제일은행·서울은행 부실금융기관 지
정 자본금 감자 명령
- 1.23 일본 정부, 19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 일방적 폐기 통보

- 3.17 연통, YTN의 전재료 당감 요청에 '수용 불가' · 지급 거둬요
요구
- 3.19 노사 협의회, 무급휴직제 1개월 이상 실시 · 지역 SNG 사용
포기 · 연월차 수당 반납 등 합의
- 3.27 이사회 개최
100억원 증자 6월 30일로 연기 결정
연통에 전재료 월 2000만 원으로 재계약 제안, 수용하지 않
을 경우 계약 해지 의사 통보
- 3.31 제5기 정기주주총회
- 4. 1 무급 휴직제 본격 실시(4월 31명 5월 42명 6월 44명 7월
49명 8월 57명)
- 4. 6 봄철 편성 개편
경영 악화과 무급 휴직제 실시로 「정치광장」 「토크월드」 「월
드 뉴스 매거진」 폐지, 「뉴스 출발」 1시간 단축
- 4.20 연통, 전재료 재계약에 위한 협의 제안 · 미수급 지급 촉구
- 5. 1 노조 설립 여부 찬반 투표(~2일), 노조 설립 찬성 73%
- 5.18 노조 창립총회 개최(초대 위원장에 김호성 기자 선출)
- 5.21 서울 중부지방노동사무소, YTN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 5.25 정주년 사장 사임
- 6. 4 서울시장 등 지자체선거 뉴스 특보체제 운영
- 6. 8 YTN 노조, 경영정상화 지연에 한전 방문 항의
- 6.12 임직원 1인당 미지급 임금 20만원 지급
- 6.18 사회부 안형준 기자, 환경오염 문제 취재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 6.29 이사회 개최(100억원 증자 9월 30일로 연기 결정)
- 7. 1 노조, 체불임금에 관한 사측의 협상 불응에 쟁의발생 신고
- 7. 7 노조, 파업 찬반 투표 실시(사측의 단체협상 불응 관련)
- 7.21 제 · 보궐선거 뉴스 특보체제 운영
- 8.초순 주요주주 영입 공기업 확정(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마사회)
- 9.14 임시 주주총회 · 이사회 개최
대표이사 사장에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 선임
- 9.15 장명국 사장 취임식
- 9.17 제2창사 실현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장명국 사장)
- 9.22 제2창사 실현위원회, 회사 회생 방안 마련
전 사원 급여 50~70% 반납 결의
런던지국 폐쇄 등 기구 30% 축소
보도국장 임명하지 않고 부국장 3명으로 국장단 운영
영상 제작팀 신설 등 마케팅 분야 강화
아침 7시 출근 · 무급 휴직자 전원 복귀
사무실 대폭 감축 · 출연료 삭감 · CNN등 외신 사용료 50%
삭감

- 1.29 정부 · 국제채권단, 단기외채의 중장기채 전환 협상 일괄 타결
- 1.30 채경원, 영업정지된 14개 증권사 중 10개사 폐쇄 조치
- 2. 6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 30대 그룹 대표자 재계개혁 5개항
합의
- 2. 7 한국케이블TV협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53개 케이블
방송국과 29개 프로그램 사업자 1997년까지 누적 적자
8049억원(SO 1546억 PP 6502억원)
- 2.12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동북아 안정 위해서는 4자회담에 러
시아 일본 참여하는 6자회담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 2.13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 데이콤과 3월 중 디지털 위성방송사
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합의 / 3.29 데이콤 외자본의 위성
방송 참여 사실상 불허하는 새 방송법안 따라 머독과의 합작
계획 철회키로
- 2.15 30대 그룹,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제출 완료
- 3.24 금융감독위원회, 부채비율 내년 말까지 200% 이내로 낮출
수 없는 재벌그룹 계열사 대폭 정리키로
- 3.31 정부, 2000년에 발생할 컴퓨터 연도인식 오류 대책 마련위
해 「밀레니엄 버그 대책 협의회」 구성
- 4.10 정부, 4개 금융감독기관 3개 국책은행 등 12개 금융관련기
관 구조 조정 단행
- 4.28 부동산 투기 의혹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 5. 6 2002년 월드컵 관계 장관회의, 상암동에 월드컵 주경기장
신축 결정
- 5.18 대검 중수부,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
수석 구속(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 1999. 8. 20 서울지
법 무죄 선고
- 5.29 바티칸 교황청, 김수환 추기경 사퇴의사 받아들여(후임 서울
대교구장에 정진석 청주교구장 임명)
- 6.16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트럭에 소 500마리 신고 판문점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방문
- 6.29 은행감독위원회,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5개 은행 퇴출
- 7. 6 여당, 경영난 케이블TV · 지역민방 활성화 위해 「방송 산업
활성화 정책기획단」구성
- 7.27 법무부, 현행 민법 상속조항 고쳐 노부모 모시는 자녀는 고
유 지분 외에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 예고
원 · 달러 환율 1209원까지 떨어져
- 7.30 상업은행 · 한일은행 합병 발표
- 8. 4 현대그룹, 북한과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 합영회사 설립계
획 체결
- 8.26 7월 실업률 7.6%, 1966년 4분기 8.4% 이후 31년 만에 최
고치 기록

- 9.25 삭감된 사원 월급 지급
- 9.28 이사회 개최(100억원 증자 11월 24일로 또 연기)
- 10. 7 연통에 미지급금·전재료 재계약을 위한 협의단 구성 요청
- 11. 2 가을철 편성 개편
「뉴스포럼」 「통일로」 「산업뉴스」 「생활법률」 「건강강좌」 신설
저녁 8시 「프라임뉴스」 60분으로 확대
- 11.18 신입 사장 경영방침·연통 전재료 중단 문제 놓고 사원 찬반
투표 실시(사장 경영방침: 찬성 86%, 연통 기사 전제 중단:
찬성 80%)
- 11.23 연통, 교환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11.24 100억원 증자 실현으로 자본금 400억원으로 증액
임직원 체불임금 중 46.9%인 32억5000만원 출자
녹십자·고려아연 등 민간기업 출자액 37억5000만원
- 11.27 이사회 개최
1100억원 증자 결정(주금 납입일 12월 18일)
- 11.30 YTN 「제2장사」 소식 사보 발행
- 12.17 이사회 개최(1100억원 주금 납입일 12월 30일로 연기)
- 12.26 한전, 이사회 열어 YTN 증자 참여 결정
- 12.30 한국마사회의 최종 증자 참여 결정으로 1100억원 증자 완료
- 12.31 차입금(방송장비 리스료 포함) 전액 상환, 대출금 일부 출자
전환·이자 일부 탕감

[1999]

- 1. 4 신년 편성 개편(30분대 15분 뉴스를 5분 축소, 「인사 정보」
「공향정보」 신설, 「증권 스크롤」 축소 운행)
- 1. 5 주주사원운영위원회 구성
- 2. 2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연합 텔레비전 뉴스」에서 「와이티엔」(YTN)으로 상호변경
- 3.26 정기 주주총회 개최
- 6. 8 제2대 노조위원장 이재철 기자 선출
- 6.17 YTN, 방송진흥원과 방송영상콘텐츠 디지털화 등 상호 협력
제휴
- 7.12 여름철 편성 개편(「밀레니엄 경제」 신설 등)
- 7.16 이사회 개최, 장명국 사장 사의 표명
- 8. 3 임시주총·이사회 개최, 제4대 사장에 백인호 MBN 대표
이사 선임
- 8.13 특별기획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방영(북한 위안부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
- 8.18 하나로 통신과 제휴,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실시
- 8.23 1실 4본부제로 조직 개편
기획조정실 보도본부 기술본부 영업본부 사업본부
- 9. 6 가을철 편성 개편(경제뉴스 대폭 강화)

- 9. 4 북한 '8월31일 3단계 로켓으로 인공위성 지구궤도 진입 첫
성공' 밝혀
- 9.17 대검 중수부, 국세청서 한나라당에 전달한 불법모금 대선자
금은 모두 76억8000만원(임채주 전 청장 61억8000만원·
이석희 전 차장 15억원 모금)
- 10. 8 경찰 확대간부회의, 경찰 총기발사 대상을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으로 제한
- 10.19 문화관광부, 방송 영상산업 진흥계획 보고(2003년까지
2043억원 지원·규제 완화)
- 10.26 서울지검,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계자들이 이 후보 지지율 만회 위해 북한 측에 총
격 요청한 혐의로 한성기 오정은 장석중씨 구속 기소
- 11.18 금강산 관광객 태운 현대 금강호 동해항에서 첫 출항 / 19일
아침 북한 장전항 정박
- 12. 7 5대재벌 구조조정방안 확정(현재 264개인 계열사를 130개
안팎으로 줄여 3~5개의 핵심 분야 중심 재편)
- 12.30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 / 1999.1.6 국회통과

[1999]

- 1.18 국회 국제 통화기금(IMF) 환란 조사 특위, 국민회의·자민
련 위원들만 참석 여당 단독 경제청문회
- 1.22 새 한·일 어업협정 발효
- 2.13 첩보 영화 「쉬리」 개봉(전국 관객 597만명 흥행 신기록)
- 2.28 서울시 교육청, 학급 반장제 폐지(새 학기부터)
- 3. 3 김대중 대통령 "북한이 원하면 정상회담을 포함한 어떤 회담
에도 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4.13 국민회의·자민련, 통합방송법 제정안 확정
- 4.19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방한(~22일) / 21일 하회마을 방문
- 5.10 대한의사협회·약사협회, 의약 분업 합의문 발표
- 5.11 밤11시10분께 MBC TV의 PD 수첩 방송내용을 미리 알고
난입한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에 의해 방송 5분 만에 중단
- 5.20 서울지검, 홍두표 한국관광공사 사장 구속
- 6.15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한 합성 포격전
- 6.24 김대중 대통령, 2만달러 격려금 수수 파문 관련 손속 환경부
장관 사표수리
헌법재판소, 신속보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보는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결정
- 6.30 화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놀이동산 씨 랜드」에서 불이 나 유
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강사 4명 등 23명 사망

- 9. 9 인터넷 회사 드림라인과 초고속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 실시
- 9.15 SKT와 제휴 「YTN 뉴스 실시간 청취 서비스」(15-2424) 시작
- 9.28 중국특집 「붉은 별의 대장정」 3부작 방송 시작
- 9.29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조인
- 9.30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특종상: 대우계열 12개사 워크아웃(경제부 박성호 차장, 김장하 이광업 기자)
 기획 보도부문:「이대로 죽을 순 없다」(정치부 이종수 영상취재부 한원상 기자)

- 10.21 「특별대담-바그와티 교수에게 듣는다」 방송(~22일)
 YTN 스페셜 「화교 자본을 잡아라」방송(~24일)
- 10.23 제1회 YTN 체육대회- 경기도 일산 대화운동장
- 10.28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업체 「후이즈」와 전략적 제휴 체결
- 11.12 야후 코리아와 인터넷 방송사업 공동진출 위한 전략적 제휴
- 11.30 제1회 FIRA-KOREA 로봇 축구대회 개최(~12.1)
- 12. 1 YTN 사보 12월호부터 다시 발행
- 12. 6 새 프로그램 「헬로우 인터넷」 방송
- 12.13 1998년 11월부터 1년 동안 YTN 「생활법률」을 진행한 8명의 변호사에게 감사패 · 기념품 전달
- 12.16 서울타워 공개입찰에서 701억6000만 원에 낙찰(취득세 등 등록세 등 포함해 742억 원)
- 12.23 급여와 함께 연말 상여금 300% 지급
- 12.27 특별 다큐「21세기 한국농업 사이버시대가 열린다」 40분물 2편 방송(~29일)
- 12.31~「아듀 1999!」「새천년맞이 생방송」 32시간 실시

[2000]

- 1. 1 신년 특별대담 외교 · 통일 · 경제편 각 40분물 방송(~3일)
 YTN 메일센터 오픈
 YTN 연중 캠페인 「한국의 민물고기」 방송 시작
 몽골 · 유라시아 뉴 밀레니엄 특집 「새 천년을 꿈꾼다」60분 7부작 방송 시작(~20일)
 뉴 밀레니엄 특집 「디지털 세계대전」 45분 4부작 방송 시작
- 1. 8 서울타워 인수 본 계약 체결
- 1.10 「훈장 찾아주기」 YTN 연중 캠페인 방송 시작
- 1.17 한국전화광고와 무료 전화 이용한 뉴스 서비스 시작
- 1.18 기구 개편(문화 스포츠부를 문화부와 스포츠부로 분리, 특집팀 신설)
- 1.24 공채 6기 신입사원 15명 입사
- 2. 8 TBBS 스나하라 유키오 사장, YTN 본사 방문

- 7.13 KBS MBC 노조 중심 전국방송노조연합, 통합방송법안 관련 「방송법 개악저지」 전면파업 돌입 / 8.26 파업 중단
- 7.15 인천지검, 경기은행 퇴출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 받은 혐의로 임창열 경기도지사 부인 주혜란씨 구속 / 16일 임창열 지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
- 7.16 탈옥수 신창원 은신 중이던 순천시 금당 대주파크텔 아파트에서 검거(부산 교도소 탈옥 2년6개월 만에)
- 8.22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 삼성이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위해 2조4500억원을 2000년 말까지 지급한다는 원칙에 합의
- 8.26 대우그룹 24개 계열사 중 12개사 워크아웃
- 9. 9 서울지검,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구속
- 9.28 국회본회의, 국군부대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 여당 단독 통과(420명 규모)
- 10. 1 문화관광부, 케이블TV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
- 10. 2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대책위원회 대책회의 : 한 · 미 양국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 10. 7 김대중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 조폐공사 노조파업 유도사건 수사 담당 강원일 변호사, 옷 로비 의혹사건 수사담당 최병모 변호사
- 10. 8 김우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퇴 / 11.1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사퇴
- 10.28 「교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 자수
- 12.21 국내 첫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1호 발사 성공
- 12.23 제일은행 매각 타결, 뉴 브리지 캐피탈 경영권 인수
- 12.28 통합방송법 국회통과 / 2000 . 3 . 13 발효
 법무부, 재소자도 머리 기르게 허용(새해부터)

[2000]

- 1.12 412개 시민사회단체 참여「2000년 총선 시민연대」발족, 총선개입 선언
- 1.22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로 붕괴 사고
- 1.27 헌법재판소 「교육적 목적 체벌은 정당」 D중학교 교사 기소 유예 취소 결정
- 1.30 민주노동당 출범
- 2.13 서울지법 세입자 감액청구권 첫 인정 「경제사정에 큰 변동 있다면 세입자의 월세 깎아 주어야 한다」고 판결
-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발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 항구적 평화 및 남북간 화해 협력(베를린 자유대학 연설)
 아시아 · 유럽 63개국 92개 사업자 참여한 해저케이블 개통
- 3.16 정보통신부, 「사이버 범죄 특별법(가칭)」 제정키로

- 2.29 3·1절 특집 기획 「끝나지 않은 전쟁」 방송(~3.1)
- 3. 연중기획 「물은 생명이다」 방송 시작
- 3. YTN 제정 「이달의 우수 벤처 디자인상」 첫 시상
- 3. 2 「YTN 디지털 방송시스템 추진위원회」 발족
- 3. 6 봄철 편성 개편
「코스닥 투데이」「증권 와이드」「이 기업을 주목하라」 등 신설
새천년 연중기획 「하나뿐인 지구」 주 1편씩 방송 시작
광고 시급 조정과 요금 인상 단행
- 3. 9 3R와 방송 장비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제휴
- 3.10 정기주주총회·이사회 개최
서울타워 구입 자금 마련 위한 600만주 증자 결의(발행가액
1020억원)
증자액 중 20%(204억원) 우리사주 배정
- 3.25 급여 인상 조정(12.3%)
- 3.28 1020억원 공모 증자 완료(~29일)

- 4. 4 아침뉴스 「뉴스 출발」에 뉴욕 증시 생방송 연결
- 4. 8 서울타워 경영권 인수(초대 본부장에 조봉환 국장)
- 4.17 「눈을 사랑합시다」 캠페인 전개
- 4.19 해외연수 선발위원회 첫 구성
- 4.27 백인호 사장, 미국 보스턴 IPI총회 참석
보도국 정치부에 북한팀 신설
- 5. 1 백인호 사장, CNN 이스 조단 사장 만나 양사 협력 논의
제3대 노조 위원장에 이재철 기자 재선
- 5. 8 기획특집 「21세기 원자력을 말한다」 25분 4부작 방송 시작
- 5.25 일본 투자환경조사단 YTN 방문
- 6.12 남북 정상회담 뉴스특보 체제 운영(~15일)
- 6.15 영상자료 관리시스템, 개가식에서 폐가식으로 개선
- 6.17 3R와 공동으로「YTN 디지캐스트」법인 설립
대표 이사 장성익 3R 사장, 이사 강진이 YTN 이사 대우
초기 자본금 5억원(YTN 지분 51%, 임직원에 1억원 배정)
- 6.24 전 사원 한마음 MT(분당 새마을운동본부 중앙연수원)
- 6.29 문화일보와 상호 홍보 협력 강화 합의

- 7. 1 홈페이지 개편, 본격 서비스 시작
- 7.18 「채널 24 집중조명」 지방자치 5주년 특집 「민선 단체장에게
듣는다」(고건 서울시장 등 5명 특별 대담)
- 7.18 해외연수(교육훈련) 규칙 제정
- 7.22 지역정보 포털업체 타운뉴스에 3억 원 출자
- 7.23 제1회 YTN배 특별경주 생방송
- 7.24 특별취재팀 발족, 심층뉴스 강화
- 7.24 파워콤 주식입찰에서 3만주 주당 3만원에 확보
- 7.29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 뉴스특보 체제 운영
- 8. 초 마약 캠페인 방송 시작(월 1회, 대검찰청과 공동)
- 8. 4 백인호 사장, 한국 언론사 사장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 방문
- 8.13 제1회 YTN배 대상 특별 경륜대회 생방송

- 4.10 서울·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 동시 발표
AP 최성운 기자 등 「노근리」보도 플리처 상 선정
- 4.1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의석 273석 중 133석으로
제1당. 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등
- 4.27 헌법재판소, 과외금지 위헌 결정 - 과외 20년 만에 전면 허용
- 5. 3 방송위원회, 케이블TV 15개 신규채널 사업자 선정 발표(국
내 케이블TV 채널 모두 44개)
- 5. 8 훈련 중 주한 미공군기(A10) 화성군 농섬 인근 매향리에 폭
탄 투하, 주민들 보상 요구(8.18 일부 훈련 중단 등 종합대
책 발표)
- 5.17 박태준 국무총리 증여세 재판과정서 부동산산 6건 명의신탁
드러나(19일 김대중 대통령, 박총리 사표 수리)
- 6. 5 김대중 대통령 환경의 날 기념사에서 동강댐 건설 백지화 선언
- 6.13 김대중 대통령 평양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
담 / 14일 남북 정상 2차 단독회담 / 15일 남북정상 공동선
언 발표
- 6.19 미국,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50년 만에)
- 6.20 전국 병원 집단폐업 / 25일 폐업 철회 의약분업 참여 결정 /
26일 정상화
- 6.26 헌정사상 첫 국회 인사 청문회(이한동 국무총리 서리)
- 6.27 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을 중점분야로 선정 2004년까지
800억원 지원·관세감면·광고제도 개선 등 적극 추진, 디
지탈 지상파 TV방송 9월 시험방송·내년1월 본 방송 실시
키로
- 6.30 남북한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교환방문·면회소 설치·비전
향장기수 송환등 합의

- 7.28 정보통신부, 내년 수도권 디지털TV 본방송 대비 KBS 1TV
에 채널15번 MBC에 14번 SBS에 16번 할당
- 7.30 첫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서울) / 31일 공동합의문 발표
엄홍길씨 히말라야 8000m급 14곳 등정 성공
- 8. 5 언론사 사장단 북한 방문(~12일)
- 8. 6 국회,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 열어
- 8. 8 방송위,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 밝혀(시청자들에게 선정·폭
력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사전 제공 폐해 막게)
- 8.11 의료계 재 폐업, 대형병원 외래진료 중단. 동네의원 휴폐업
동참(9.11 의료계 진료 복구)
- 8.20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분단 후 처음으로 서울 공연
- 9. 2 비전향장기수 63명 판문점 통해 북송
- 9.15 시드니 올림픽 개최식에서 남북한 선수단 함께 입장
- 9.18 경의선 복원공사 기공식
- 9.22 일본 방문 김대중 대통령,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 일본 공
중파방송 개방 밝혀
- 9.28 정부, 대북 식량지원책 발표(식량60만 t 연내 북한 지원)

- 10. 3 검찰, 옛 안전기획부 자금 수백억 원 1996년 제15대 대통령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특별 생방송(~18일)
- 9. 1 조직 개편(북경 지국 · 통일 외교팀 · 방송 정책팀 · 데이터 정보실 등 신설)
- 9. 4 특별 기획 「꿈의 통신 IMT-2000」 40분 물 3부작 방송 시작
- 9. 7 YTN 노조 · 기자협회 YTN지부 · 방송기술인협회 YTN지부 · 카메라 기자협회 YTN지부 등 YTN 직능단체와 편성개혁 전 사원 토론회 개최
- 9.18 FM방송 설립 위한 준비와 제반업무 다룰 FM방송 추진위원회 구성
「사이버 세상, 무엇을 할 것인가?」20분 물 10부작 방송 시작
- 10. 1 홍익대 입구 등 전광판에 YTN 뉴스 속보 서비스 실시
- 10.12 제1기 YTN 시청자위원회 구성
- 10.23 가을철 편성 개편(「통일로」 「시청자의 눈」 신설)
- 11. 8 특별 기획 「천혜의 자원, 습지」 4부작 방송 시작(~29일)
- 11.18 서울타워 혁신 1차 공사 완료, 기념행사 · 축하공연(~19일)
- 11.20 특별 기획 「이대로 죽을 순 없다 -후속편」 방송
- 11.23 YTN 노조, 지상파의 임대료 협상 지연에 항의해 서울타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11.24 제2회 FIRA KOREA CUP 로봇 축구대회 개최
- 11.27 YTN 노조, 서울타워 지상파 송신시설 점거 시도 · 경찰 저지로 1차 현장시위
- 12.18 특별기획 「패션 대국의 길」 2부작 방송 시작(~25일)
- 12.24 서울타워 판촉활동 일환으로 '빛의 축제' 열어(~31일)

[2001]

- 1. 8 노조, 흑한 속에 서울타워 2차 철야 시위
- 1. 4 특별기획 「김치의 재발견」 3부작 방송 시작(~18일)
- 2. 8 「경찰, 롯데 호텔 노조원 폭력 진압」(영상취재부 한원상 기자), 한국기자상 방송영상부문 수상
- 3. 9 방송위원회, 「서울타워 임대료 분쟁 관련 방송위 중재안」을 YTN과 KBS MBC SBS에 통보. 임대료 분쟁 사실상 타결. 방송 3사 2000~2002년 3년간 97억8600만원 부담
- 3.12 신세기통신과 전략적 제휴, 017 통해서도 뉴스 음성정보 서비스 시작
YTN Logo song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제작
- 3.14 제8기 정기 주주총회
김광일 상임감사 · 이동근 상무 선임(상임감사 선임 코스타 상장 요건)
액면가 1만원 주식을 5000원으로 분할

- 선거 전 신한국당 선거자금 유입 사실 밝혀
- 10.12 북한 조명록 특사 미국방문 클린턴 대통령 면담, 북한 · 미국 정상화 방안 합의 등 공동성명 발표
- 10.13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발표 / 12.10 김대중 대통령 오슬로 수상식 참가 수상 연설(상금 약12억 원)
- 10.16 한국 · 미국 미사일 협상, 사거리 300km로 연장 합의
- 10.17 재정경제부,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확정
- 10.20 아시아 · 유럽 정상회의(ASEM) 서울서 개막(~21일)「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 채택
- 10.23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북한방문(~25일) / 25일 한 · 미 · 일 외무장관 회담 올브라이트 방북 결산
노사정위원회,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 합의
- 11.11 정부 · 의료계, 약사법 재개정 합의
- 11.22 방송위,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승인 방안 발표
- 12.12 200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만점자 66명
- 12.18 대한축구협회, 히딩크 '영입' 정식계약 / 2000년 1월 한국 대표팀 감독 맡음
- 12.19 방송위, 위성방송 사업자로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 선정
- 12.27 방송위,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확정 발표(새해 2월 1일부터 지상파 및 케이블TV 시행) 등급체계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 가, 12세 이상 시청 가, 19세 이상 시청 가 등 4개. 방송사업자가 15세 이상 시청 가 추가도 가능
- 12.28 한국 · 미국,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타결(5년 만에)

[2001]

- 1. 3 방송위원회,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발표(서울 소재 방송사는 올해 말, 광역시 2003년, 도청 소재지 2004년, 기타 시 · 군 지역은 2005년까지 연차적 시작)
- 1.12 한 · 미 「노근리 사건」 공동조사 결과 발표, 클린턴 대통령 "1950년 7월말 노근리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 잃는데 대해 깊은 유감" 표명
- 2. 1 지상파 · 케이블TV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영화 수입 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네 가지)
- 2. 8 국세청, 23개 언론사 세무 조사 시작
- 2.26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28일)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 - 7개항 공동성명
- 3. 6 김대중 대통령 미국방문(~11일) 부시 대통령과 8일 정상회담 - 햇볕정책 미 정부 지지 등 논의
- 3.13 정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PP 등록 요건 완화 등)

4.13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 지역 실시간 위성 방송 실시 (300만 동포 시청 가능)	방송위, 케이블TV 방송국의 녹음·녹화 재전송 금지 해제
4.23	봄철 편성개편(「최동호의 토크라인」 「뉴스의 현장」 「해외 연예뉴스」 신설)	3.29 인천 국제공항 개항(21세기 동북아시아 중추 공항 목표)
4.27	코스닥 등록 위한 예비심사 청구	4.10 정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항의 최상룡 주일대사 소환
5. 1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타워를 「현장 체험학습 지정기관」으로 공인	4.11 서울지법, 미 공군기 폭격훈련 소음피해 매항리 주민들에게 국가배상 판결
5.14	제4대 노조 위원장에 임수근 기자 선출	4.17 이봉주 보스턴 마라톤 우승(2시간 9분 43초)
5.23	방송위가 KBS에 보도채널 추가 승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조 「비상 대책위원회」구성	4.23 박세리 롱스드릭스 챌린지 1위(통산 LPGA 10승)
5.25	노조 집행부, 방송위원회 위원장 항의 방문	4.26 기초 단체장 재·보선 여당 민주당 참패
6.14	특별기획 「세계의 게임 산업」 3부작 방송 시작	5.10 방송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6.20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동남아시아 5개국에 위성방송 실시(시청자 50만 명)	6. 4 방송위, 남북 방송교류 추진위원회 설치
6.23	KBS, 보도채널 추가 신청 유보 발표	6.15 문화관광부, 디지털 시대 방송 영상산업 진흥정책 발표
6.25	공채 7기 신입사원 21명 입사(방송기자 10 앵커 6 촬영기자 5명)	KBS, 6·15 남북 정상회담 1주년 맞아 「9시 뉴스」 일부 평양 조선중앙 TV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7. 9	특별기획 「선진 의료의 조건」 3부작 방송 시작(~23일)	6.20 국세청, 23개 언론사 5056억원 탈루세금 추정
7.12	특별기획 「2001 한국 금융의 선택」 3부작 방송 시작(~14일)	6.21 공정거래위원회, 13개 언론사에 242억원 과징금 부과
7.26	코스닥 예비 심사 통과	6.27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 브랜드 「Sky Life」로 확정
7.30	특별 기획 「도시와 강」 3부작 방송 시작(~8.13)	6.29 국세청, 조선 동아 국민일보 법인 및 사주 검찰에 고발
8. 9	제1회 대학생 영상 공모전 시상(주제 : 엑스포)	7. 1 공정거래위, 신문고시 시행
8.23	YTN 미디어 넷에 출자(무선 전광판 이용 24시간 문자뉴스 서비스) 서울타워 옥상 광장에서 축하 리셉션 개최(이한동 총리 등 1000여명 참석)	7. 7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 유럽형 데이터 방식 채택
8.28	코스닥 등록 앞두고 기업 설명회 개최(63빌딩 코스모스홀)	7.10 김대중 대통령, 일본 교과서 왜곡 단호대처 천명
9. 4	코스닥 등록 첫 거래(9·11 테러 발생 불구 8일 연속 상한가)	7.16 한국·중국 8월부터 한국 TV프로그램 완전 개방 합의
9.10	고품질 동영상 서비스 가능한 홈페이지 오픈	7.18 국회, 일본 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안 채택
9.11	미국 9·11 테러사건 뉴스 특별체제 73시간 운영	7.19 박찬호,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완봉승
9.15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취재 위해 파키스탄에 이종수 기자 등 4명 특파	7.22 산악인 박영석 씨 히말라야 고봉 14좌 완등
10. 5	YTN 자회사 「YTN 디지털 캐스트」 사장에 강진이 전 YTN 기술국장 취임	8.16 정보통신부, KBS1·2 EBS MBC SBS 등 4개 방송사 5개 채널에 디지털 방송국 허가
10.18	조직 개편(「본부」 폐지·편성심의실 정책기획팀 신설·통일 외교팀 정치부에 흡수·CG팀 그래픽팀으로 변경)	8.17 서울지검, 언론사 대주주 3명 구속(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 회장·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10.22	가을철 편성 개편(「피플 인 뉴스」 「웰컴 사이언스」 신설)	9.11 미국 뉴욕·워싱턴 「9·11테러」
10.22	특별기획 「우주시대가 열린다」 2부작 방송(~10.29)	9.20 대검, 「이용호 게이트」 검찰 내 비호의혹 전면 수사 위한 특별감찰본부 설치
10.27	YTN 기술인협회 체육대회	9.23 미·영 특수부대 아프가니스탄 진입
11. 3	영상제작단 신설	9.24 정부, 미국의 대 테러전쟁 지원조치 확정
11.19	고르바초프, YTN 본사 방문	10.10 방송위, 방송법 시행 후 유선방송 사업자의 불법방송에 과징금 첫 부과
11.28	초대 공정방송 위원장에 송태엽 기자 선출	10.17 아리랑TV, 미국전역 실시간 중일방송 개시
11.30	제2회 YTN 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주제 : 관광)	10.22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 「11월부터 시험방송. 2000년 1월부터 시범방송 거쳐 3월부터 본 방송 실시」(12.3 정보통신부, 디지털 위성방송국 허가)
12. 3	특별기획 「중국에 부는 패션 바람」 2부작 방송(~10일)	10.25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발족
		10.26 SBS, 국내 첫 디지털 방송 개시(KBS 1TV와 EBS 11월 5일, MBC 12월 2일, KBS 2TV 는 12월 31일부터)
		10.31 초음속 고등훈련기 검 경공격기(T-50/A-50) 국내 첫 개발

[2002]

1. 9 한국기자협회 YTN 지회, '고 변덕수 기자상' 제정 결정
- 1.18 민주당 대선주자 7명 초청 토론회(~29일, 노무현 김근태 이인제 후보 등)
- 1.20 「YTN 머니라인」 신설
2. 1 전국 9개 지역 취재팀 명칭을 '팀'에서 '지국'으로 변경
2. 8 임직원, 서울 역촌동 만성 결핵 환자촌 등에 위문품 전달
2. 제3기 시청자위원회 출범(위원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
2. 특집 프로그램 「김치의 재발견」등 아시아나 항공 기내 방송 실시
3. 1 '스카이 라이프' 위성방송 시작(YTN, 채널 524번)
노사 합의에 따라 토요일 휴무제 실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실시(011 Nate Air 서비스)
3. 5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토론회(5일: 김근태 김중권 정동영 한화갑, 6일: 노무현 유종근 이인제)
- 3.18 특별기획 「해의건설 특집」(천상규 차장 등 취재) 7부작 방송(~26일)
- 3.26 제9차 정기 주주총회 개최
4. 1 뉴스 음성서비스 청취 방법 통일(200-2424)
- 4.12 YTN-울산 UCTV 전략적 제휴 협약 체결
- 4.15 뉴스 편집PD 5명 입사
- 4.15 봄철 편성 개편(「World Now」 등 신설)
- 4.16 한나라당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생방송
- 4.30 서울시장 후보 특별대담 방송(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당: 김민석 후보)
5. 6 특별 기획 「새로운 도전, 21세기 전력 산업」(박경석 기자 등 취재) 3부작 방송(~20일)
- 5.10 YTN 전용 모니터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등에 설치
- 5.12 제 30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친선축구대회 첫 우승
- 5.23 2002 FIRA컵 로봇축구대회 개최(~5.30)
- 5.24 제5대 노조위원장 우장근 기자 선출
- 5.27 특별기획 「디지털 위성방송, 미래를 바꾼다」 3부작 방송(~6.10)
- 5.30 채널 24 집중조명 2000회 특집 「이한동 총리에게 듣는다」

11. 2 국무회의, 미국의 대 테러전쟁 지원 국군부대의 대 테러전쟁 파견 동의안 가결(의료 지원단·해 공군 수송지원단 파병)
- 11.15 검찰,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
- 12.21 서해안 고속도로 완전 개통(인천~목포 353km)
- 12.22 검찰 진승현 게이트 관련 신광옥 전 법무차관 구속 / 24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구속

[2002]

- 1.10 특검, 이용호 게이트 관련 신승남 검찰총장 동생 승환씨 체포 / 13일 신승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 1.18 한·미, 미군 용산기지 반환 합의
- 1.23 재정경제부,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은 2001년 12월 말 현재 155조3000억원
건설교통부, 충남 아산에 876만평 규모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 1.29 부시 미국대통령 연두교서, 북한 이란 이라크는 '악의 축'
- 2.16 서울고법, '사내부부 여성 직원에게 사표 강요는 부당해고' 판결
3. 1 국내 첫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 라이프 본 방송 시작
- 3.28 한국 국가신용등급 A3 등급으로 회복
4. 9 최규선씨, 김대중 대통령 셋째아들 홍걸씨에게 대가 없이 거액 제공 주장 / 5.19 검찰, 대가성 15억원 수수혐의로 홍걸씨 구속
- 4.15 중국 민항기 김해공항 추락 사망127명 실종2명
- 4.27 민주당 대선후보에 노무현씨 선출
5. 1 방송위, 국내 제작 드라마에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
5. 2 이기준 서울대총장 사외이사 겸직·판공비 과다지출 등으로 사퇴
5. 9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회창씨 선출
- 5.25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첫 회의(서울)
- 5.26 「취화선」 임권택 감독 제5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 5.31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6.30) 개막경기 프랑스 - 세네갈(승리) / 6.4 한국, 폴란드에 2대0으로 월드컵 첫 승리 / 6.18 한국, 이탈리아에 2대 1 역전승 8강 진출 / 6.22 한국, 스페인에 승부차기 승 4강 진출 / 6.25 한국, 독일에 0대1 패배 결승 진출 좌절 / 6.29 한국, 터키에 2대3 패배 4위 / 6.30 브라질, 독일에 1대 0 승리 우승 / '붉은 악마' 한국팀 경기 거리응원 - 독일전 700여만명 등 전국 연인원 2000여만명
- 6.13 경기 양주군 효촌리 도로에서 여중생 신효순(14) 심미선(14)양 훈련중인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겨
- 6.21 검찰,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 청탁명

- 방송
- 6.11 특별기획 「관광 한국, 카지노를 다시 본다」방송
 - 6.21 일 미야자키 현 BTV 대표단 YTN 방문
 - 6.27 재외동포재단과 교민 대상 방송 지원 MOU 체결
예산 10억원 지원 받아 해외 위성방송망 공동 구축키로
 - 7. 1 특별기획 「2002 월드컵 신화」 2부작 방송(~2일)
 - 7. 8 특별기획 「금융-글로벌 경쟁시대」(김중균 기자 등 취재) 3부작 방송(~22일)
 - 7.19 제3회 YTN 대학생 영상 공모전 시상(주제 : 월드컵)
 - 7.23 특별기획 집중조명 「민선 3기 광역 단체장에게 듣는다」 방송(~30일)
 - 7.28 YTN배 대상 경륜대회 개최(잡실 경륜장)
 - 8. 2 임시 주주총회 · 이사회 개최, 백인호 사장 재선임
 - 8.23 이사회 개최(이동근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선임)
 - 9. 2 특별기획 「세계 산의 해」(김동민 기자 등 취재) 5부작 방송(~16일)
 - 9. 7 태풍 '루사' 뉴스 특보 생방송
 - 9.12 YTN 주관 「2002 여성 신 직업 페스티벌」 개최(여의도 종합전시장)
 - 9.23 한중 수교 10주년 YTN 특별기획 「시장 경제로 달리는 신중국」 3부작 방송 (~10.7)
 - 9.24 노사, 노조 보도국장 후보 3배수 추천제 합의
 - 9.27 이슨 조단 CNN 사장, YTN 방문(양사 협력 다짐)
 - 10. 7 YTN 미디어넷, 중앙대학교 IBS 게시판 통해 YTN 뉴스 공급 시작
 - 10. 9 김관상 보도국장 임명
 - 10.15 YTN 추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생방송(~29일, 정몽준 노무현 권영길 이회창 후보)
 - 10.16 노·사 합의 전략기획팀 신설
 - 10.25 제2기 YTN 시청자위원회 출범(위원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 등 10명)
 - 10.26 북한 태권도 시범단, YTN 서울타워 방문
 - 11.20 EBS와 뉴스 교류 합의 해외 동포 언론인, YTN 방문
 - 12. 1 YTN 동영상 뉴스, SKT June 서비스 개시
 - 12. 2 특별 대담 「대선 후보 부인에게 듣는다」 특별 생방송(~4일)
 - 12.13 제1회 '고 변덕수 기자상' 수상자로 사회1부 함형건 기자 선정, 수상작은 '수돗물속 발암물질 검출' (1.11 보도)

[2003]

- 1.17 북한 조선화 작가전 개최(세종문화회관 세종관)
- 1.23 YTN - NHN 업무제휴
- 1.30 조직 개편(보도국 경제2부와 문화 산업부를 문화과학부로 통합, 제작국 기획제작부는 제작1·2팀으로 확대)

- 목 22억8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 김대중 대통령, 대 국민성명 통해 아들문제 직접 사과
- 6.29 북한 경비정 서해 연평도 해상 북방한계선(NLL) 침범 기습 포격, 해군 고속 경비정(참수리 호) 침몰 장병 5명 전사
- 7.31 장상 총리서리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00 반대 142표)
- 8.27 방송위 · 북한 조선 중앙방송위원회, 정부차원 공식적인 방송 교류 합의
- 8.28 장대환 국무총리서리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12 반대 151표)
- 9.10 김대중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서리에 김석수 전 중앙 선거관리위원장 임명 / 10.5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찬성 210 반대 31표)
- 9.18 남 · 북한, 경의선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착공
- 9.21 KBS교향악단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합동공연
- 9.30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 청와대와 중앙부처 충청권 이전 공약 제시
- 10.15 국무회의, 2003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 단계적 주5일 근무제 도입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 10.23 서울시, 강북 재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왕십리뉴타운 길음뉴타운 은평뉴타운 선정
- 10.24 한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 11. 4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 책임 김정길 법무 · 이명재 검찰총장 사표 / 5일 국무회의서 김대중 대통령 대 국민사과
- 11. 5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회담 후보단일화 합의 / 12.18 정몽준 대표,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 선언
- 11.20 미8군 군사법원, 「여중생 사망 사건」 미군장갑차 관제병 무죄 판결 / 22일 운전병도 무죄 판결
- 11.28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독자적 개발 액체추진 로켓(KSR-Ⅲ) 충남 서해 기지서 성공적 발사
- 12. 7 광화문 비웃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만여 명 촛불 시위(여중생 추모집회서 발전)
- 12. 8 남 · 북한, 개성 공업지구와 남측 지역 간 통신 · 통관 · 검역에 합의
- 12.12 북한, 동결 핵시설 재가동 선언
- 12.19 제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후보 당선(득표율 48.9%, 득표 1201만4227표)

[2003]

- 1.10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 1.28 이종욱씨,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당선
- 2. 7 케이블TV 윤리위원회 발족
- 2.11 서울시,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 확정(2005년 완공) / 7.1 공

2. 5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사업 제휴 협약 체결(과학 프로그램 공동제작)	사 돌입
2. 7 제4회 YTN 대학생 영상 공모전 시상(주제 : 이웃 사랑)	2.12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결의
3. 1 전 세계 실시간 위성 방송 시작(팬암셋 3개 위성 임차)	2.18 대구 지하철 객차 방화참사 198명 사망
3. 6 백인호 사장, 사임 발표	3. 6 검찰, 법무부 인사지침에 집단 반발 / 19일 노무현 대통령 '검사들과의 대화' 공개 토론, 김각영 검찰총장 사퇴
3.10 봄철 편성 개편 ('백지연의 정보 특종', '뉴스 퍼레이드', '과학과 미래', '뉴스 포커스', '뉴스 투데이', '생방송 박찬숙의 쟁점 토론', '뷰티풀 라이프', '씨네버스' 신설)	3.11 검찰,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2명 구속기소, 1조5587억원 규모 분식회계 적발 / 6.13 서울지법, 최태원 회장 징역3년 선고
3.13 이라크 전쟁 취재 위해 쿠웨이트에 천상규 차장 등 2명 파견	3.14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대북 비밀송금 특검법 수용
3.20 이라크 전쟁 개전 소식 CNN보다 2분 빨리 보도	
3.25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2건 수상 경제부 김영수 · 사회부 류충섭 기자, SK 최태원 회장의 부당내부거래 의혹 전주지국 조영권 여승구 기자,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CCTV 화면 단독 입수 보도	4. 2 국회 이라크 파병안 통과, 256명 표결 :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표
3.28 제10기 정기 주주총회	4.12 춘천시 한 경찰관 로또 당첨 407억2300만원 받아.
	4.16 유엔 인권위원회, 대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 채택(제네바)
4. 8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에 표원수 전 경인방송 사장 내정 보고	4.17 방송위, TV 장애인 위한 수화 · 자막 해설 방송 확대
4.12 이라크 전쟁 취재 위해 2차로 이종국 기자 등 3명 특파	4.18 대통령 별장「청남대」충청북도에 반환 / 4.22 부터 일반 공개
4.18 제외동포재단과 해외 위성방송망 구축 관련 협약서 체결	4.28 정부, 평택 오산에 미군 제2사단 · 용산기지 이전 확정
5.22 상반기 벤처디자인상 시상	4.30 이라크 파병 서희 · 제마 부대원 출국
5.23 임시주총 · 이사회 열어 표원수 신임사장 선임	6.14 남 · 북한, 경의선 · 동해선 철도 연결식
5.26 차회사 디지털 YTN 설립(10억원 투자)	6.18 대북송금 송두환 특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현대 비자금 수수혐의로 구속
6.20 노사, 윤리 강령 · 10대 실천 요강 선포	6.25 송두환 특검 대북송금 수사결과 발표, 정부 1억 달러 · 현대 3억5000만 달러 지급 약정. '대북송금은 사실상 정상회담 대가'
6.23 공채 8기 16명 입사(방송기자 9 스포츠기자 1 촬영기자 2 기술 2 마케팅 1명 등)	7.15 서울 행정법원,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 16일 김영진 농림부장관 법원결정에 항의 사표
6.25 앵커 연수 첫 실시	7.21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여 · 야 16대 대선자금 밝히고 검증받자" 제안 / 23일 민주당 대선자금 공개, 수입 402억원 지출 361억원
6.28 전 사원 한마음 MT 개최(경기도 양평 남한강 연수원)	7.24 산업자원부, 전북 부안군 위도를 핵 폐기장 부지로 확정 / 주민 촛불집회 고속도로 점거 등교거부 등 반발 5개월 / 12.10 윤진식 산업부장관 '부안사태' 대 국민사과 - 백지화
7. 1 브라질 한국TV방송 통해 상파울루 지역에 YTN뉴스 실시간 공급	8. 4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투신 자살
7.10 제11차 남북 장관급회담 참석 북한 대표단 서울타워 참관	8. 8 전남 고흥 우주센터 기공
7.11 중국 가화문화경기유한공사와 합자 회사 설립 계약 체결	8.19 헌법재판소 첫 여성 재판관 탄생(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7.19 제5회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주제 : 환경 · 경기도 문화 등)	8.27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이징서 6자회담(~29일)
7.22 한 · 일 불교 복지협회와 양해각서 체결(북관대접비 이전사업 공동추진)	8.29 「주5일제」국회통과(2004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학교는 2005년부터 월1회 주5일 수업)
8. YTN 시청행태 조사(사건 사고 뉴스 YTN 선호도 1위)	9. 3 국회,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찬성 150 반대 7표)
8. 1 새 보도정보시스템 본격 가동 YTN 주관 「농림부 러브미 가족 체험 캠프」개최	9.22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37년 만에 입국 / 10.22 검찰, 송두율씨 구속 수감
8.20 DMB 사업 추진 위해 전략기획국안에 'DMB 추진팀' 신설	
8.27 YTN 주관 「Nano-Korea 2003」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0. 2 강감출 보도국장 임명
- 10. 6 가을철 편성 개편(오후 4시 「뉴스 와이드」 신설 등)
- 10.27 YTN 매체설명회 개최(오피니언 리더 등 시청자 행태조사 결과 소개)
- 10.28 NHN과 합작, 중국 가화그룹과 티켓판매 회사 설립
- 10.29 YTN-CCTV 업무 협력 협정 체결
- 11.18 전 사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2. 1 신입 · 경력 앵커 6명 선발
- 12. 9 제2회 '고 변덕수 기자상' 수상자로 「에이즈 수혈사고 등 혈액관리 문제점」 보도한 김승재 기자(사회1부) 선정 · 시상
- 12.12 노사 2004년 임금협상 합의
- 12.18 하반기 벤처디자인상 시상
- 12.31 YTN 주관 「2003 경기도 제야행사」 개최

[2004]

- 1. 2 신년 방송 지표 「다시 뛰는 코리아」 선정
- 1. 7 고속철도 서울역사에 YTN 전용 모니터 설치
- 2. 3 일부 기구 개편(보도국 기동취재팀 등 신설 · 보도국 디지털 뉴스팀 폐지)
- 2. 7 YTN 주식, 관리종목 편입(~3.31)
- 2.13 제6회 대학생 영상 공모전 시상(주제 : 효, 나눔의 실천)
- 2.29 남대문 신사옥 「YTN 타워」 스튜디오 공사 완료 · 사무실 이전
- 3. 1 남대문 신사옥 「YTN 타워」에서 방송 개시(오전 6시)
- 3. 2 임시 주주총회 개최
 - 1/5 감자(자본금 210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줄어듦)
 - 액면분할(액면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 3.12 신 사옥 「YTN타워」 입주 기념식
- 3.15 봄철 편성 개편
 - 「백지연의 뉴스 Q」 「언론과의 대화」 등 신설
- 3.18 「YTN 인터내셔널」 방송 개시(오전 9시)
 - 창사 10년 · 「YTN 인터내셔널」 출범 기념식(하얏트 호텔)
- 3.26 정기 주주총회
 - 김희중 상임 감사 선임
- 3.30 코오롱 그룹과 「월드 와이드 넷」(「코미디」와 「무비플러스」 채널) 인수계약 체결(51억원에 지분 51% 확보)
- 4. 1 17대 총선 앞두고 여야선거대책위원장 초청 합동토론회 생방송
- 4.20 김승재 기자, 「혈액 관리 문제점 추적 보도」로 제 20회 서울 언론인클럽 언론상 기획 취재부문 수상
- 4.22 YTN 주식 일반종목 환원(관리종목 지정 해제)

- 10. 2 이승엽 선수, 아시아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 수립(56호)
- 10.10 노무현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재신임 전격 제안
- 10.18 정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 11. 3 검찰, 5대 기업 대선자금 전면 수사
- 11.10 국회, 대통령 측근 특검법안 의결
- 11.27 헌법재판소,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헌법소원 각하 결정
- 12. 8 남극 세종과학기지 연구원 8명 탄 보트 2척 조난, 실종 7명 극적 구조, 전재규씨(서울대 대학원생) 숨진 상태로 발견
- 12. 9 검찰,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 서정우 변호사 구속
- 12.14 검찰, 대선 불법자금 수수혐의 안희정씨(노무현 대통령 측근) 구속 수감
- 12.15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을 교무 · 학사, 보건, 입학 · 진학 등 3개영역별로 시스템 구축 · 운영 결정 /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 사의 표명
- 12.26 건설교통부, 판교신도시 계획 확정
- 12.29 국회, 신행정수도 특별법 가결
 - 검찰,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결과 발표

[2004]

- 1. 9 손길승 SK그룹 회장 구속
 - 서울지법, 독극물 방류 미군 군무원 징역 6월 실행 선고(한국 형사재판 관할권 행사 첫 판결)
- 1.10 대검중앙수사부, 정대철 · 김영일의원 등 여야의원 6명 구속
- 1.15 노무현 대통령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경질
- 2. 4 안상영 부산시장 구치소 감방서 목매 자살
- 2.12 미국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서울대 황우석 문신용 교수팀 복제된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 추출 성공 밝혀(세계 처음)
- 2.13 국회 본회의 이라크 추가파병안 통과
- 2.17 교육부, EBS강의서 수능출제, 4월부터 24시간 방송
- 2.19 영화 「실미도」 관객 2000만명 돌파
- 3. 2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3. 3 선관위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어겼다' -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위법 결정
- 3. 9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발의(한나라당 의원 108 민주당 의원 51명 등 159명 서명)
- 3.12 국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의원 195명 투표 193명 찬성)/노대통령 권한정지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 3.30 서울 중앙지법, 재독학자 송두윌씨 징역7년 선고
- 3.31 경부고속철도 개통식(4.1 운행 시작)
- 4. 1 한국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4.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열린우리당 152 한나라당 121 민주노동당 10 민주당 9 차민련 4석 등)
- 4.22 북한 용천역에서 큰 폭발사고 - 북 비상사태 선포
- 4.29 박태영 전남지사 한강 투신 자살

- 4.27 한농 한기석 화백 특별 초대전 개최(~5.31)
- 5.22 제32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일선기자 친선축구대회 우승
- 5.25 제6기 노동조합 출범(위원장 김상우)
- 5.26 20대 광고주 가족 YTN 방송시설 견학·체험행사 실시
- 6. 7 「월드 와이드 넷」정식인수, 「YTN 미디어」로 사명 변경
- 6. 8 도로시 뮤직(가수 신승훈 소속회사)과 중국 연예사업 공동 진출 업무계휴 조인
- 7. 12 편성 일부 개편
「백지연의 뉴스Q」 방송시간을 오후 4시로 1시간 앞당기고
「뉴스 와이드」는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
- 7.27 YTN - TBN, DMB 협약 조인
- 8.29 YTN 인터내셔널 해외통신원 교육(~9.2)
- 9. 1 노사합의기구 「방송품질 향상위원회」출범
- 9. 7 YTN 미디어, 대한전선으로부터 20억원 투자 유치
- 9.15 북경 지국 사무실 개설
- 9.21 제 7회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주제: 2005 경기방문의 해, 쌀사랑, 신뢰사회, 음주문화)
- 9.23 청주대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 10. 5 지어소프트와 DMB 콘텐츠 공동개발 합의
- 10.10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이상화 교수 초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0.10 「YTN 가족의 날」 행사 개최
- 10.18 가을 편성 개편(젊은 시청자 층 위한 「클릭연예파일」 등 신설)
- 10.19 YTN 주관 「제12회 동아시아 경제인 회의」국제컨퍼런스 개최
- 11. 4 제3기 시청자위원회 출범(위원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
- 11.25 지상파 DMB 법인 (주) YTN DMB 설립
- 12. 2 2004 벤처디자인상 시상
- 12.10 광고주협회, YTN 초청 설명회
- 12.10 연예정보 채널 「YTN STAR」(옛 「월드 와이드 넷」의 무비플러스) 개국
- 12.15 노사, 2005년 주5일 근무제 실시 협약 체결
- 12.31 YTN 주관 「2004 경기도 제야행사」 개최

[2005]

- 1.24 공채 9기 신입사원 29명 입사(방송경영 4 방송기자 13 촬영기자 6 그래픽 2 방송기술 3 마케팅 1명)
- 2. 1 제일한인방송 「TV-J코리아」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 체결 퍼펙TV 위성 통해 일본 전 지역에 YTN 방송 서비스
- 2.15 DMB 사업 신청서 방송위원회에 제출

- 5. 8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육군대장 구속수감
- 5.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각 결정 - 노무현 대통령 직무 복귀
- 5.17 미국, 주한미군 4000명 이라크 파견 결정
- 5.21 서울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 5.23 영화「올드 보이」(박찬욱 감독·주연 최민식) 칸 국제영화제 심사원 대상 수상
- 5.24 고건 총리 사표 제출
- 6. 8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청와대 국회 대법원 행정부처 등 85개 국가기관 신행정수도 이전 잠정 확정
- 6.21 이라크 테러단체, 납치한 김선일씨 "한국군 철수 않으면 처형하겠다" 위협 / 22일 김선일씨 살해
- 7. 1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북한·중국의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결정
- 7.14 경찰, 11개월간 20명 살해한 30대 살인범 검거
- 7.23 최종영 대법원장, 김영란 판사 대법관 임명 제정한·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타결
- 8.11 정부, 신행정수도 입지 연기·공주지역 확정
- 8.24 정부, 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일대 대체부지 발표
- 9.12 법원 조망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 9.28 미국 상원, 북한 인권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 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 11.22 군 검찰 육군 '장성진급 비리' 피문서 발견, 육본 인사관련 부서 압수 수색
- 12. 6 방송위, 연말로 허가 유효기간 끝나는 SBS에 조건부 재허가 추천 의결
- 12.16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주미대사 내정
- 12.21 방송위, 연말 전파 사용기간 만료 경인방송(i TV) 재허가 추천거부 의결
- 12.29 동남아 지진해일(쓰나미), 한국인 36명 사망 국회, 일제하 반민법 통과
- 12.30 정보통신부, TU미디어에 위성DMB 방송국 허가
- 12.31 국회, 신문관련법(신문법·언론평해구제법) 통과

[2005]

- 1. 7 이기준 교육부총리 57시간만에 사퇴(도덕성 논란)
- 1.10 노무현 대통령, 박정규·정찬용 수석 경질
- 1.17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조경권고
- 1.20 해경합정 북한 수역서 첫 구조활동
- 2. 3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호주제 없어졌다'

- 제8회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주제: 땅, 꿈, 정)
- 3.28 제12기 정기 주주총회(교광남 상무이사 선임)
방송위원회, YTN DMB 등 3개 법인을 비지상파 DMB 사업
자로 선정(지상파 DMB 사업자로는 KBS 등 3개 법인 선정)
- 3.29 노조, DMB 사업자 선정 관련 사장과의 대화 개최
- 4. 1 기구개편
전략기획국 보도제작국 편성심의실 폐지, 기획조정실 신
설 등
- 4.11 봄철 편성 개편
DMB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위해 「뉴스 7-9」 등 신설
- 5. 1 위성 DMB 본 방송 시작(YTN, 채널 12번 배정)
- 5. 3 YTN DMB 주주간담회(25개 주주사 대상 300억원 증자 등
설명)
- 5. 8 호주 SBS TV에 YTN 뉴스 공급
- 5.30 제7대 노조위원장 이광엽 기자 선출
- 6. 9 YTN DMB 주주총회
대표이사 사장에 표완수 YTN 사장 선임
300억원으로 증자(YTN 76억원 투자)
- 6.14 이사회 개최(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사장에 표완수 사장 내정)
- 6.15 YTN DMB 증자·임원 변경 등기 완료
- 6.29 사회1부 이대건 기자 '한국 노총 25억원 발전기금 수수' 보
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결정

- 2. 4 국방백서, 북한 주적 표현 삭제(10년만에)
- 2.16 온실가스 감축 '교토 의정서' 발효 '녹색전쟁' 돌입
- 2.23 여·야, 연기·공주 행정중심도시 12부 4처 2청 이전 합의
- 3. 2 국회, 신행정도시 관련법안 통과(177명 표결, 찬성 158 반
대 13 기권 6표)
- 3. 7 이헌재 부총리 사퇴(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 3.16 일본 시마네현 의회, '2월22일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안 가결
- 3.26 전국 초·중·고 첫 토요일 휴업 - 학교 안 가
- 4. 8 청와대, '유건의혹' 검찰에 수사의뢰
- 4.30 열린우리당, 4.30 재·보선 25곳 한 곳도 당선자 못내
- 5. 1 산악인 박영석씨와 탐험대원(3명) 북극점 도달
- 5. 3 김세호 건교부차관 사표 / 11일 구속
- 5.19 황우석 교수팀, 환자세포로 본인 치료용 줄기세포 대량 배양
성공 발표 / 6.15 황 교수, 명동성당 주교관에서 정진석 대
주교와 '생명 윤리' 의견 나뉘
- 5.24 검찰, 이남순 전 한국노총위원장 체포 / 25일 구속
- 5.30 세계신문협회(WAN) 제 58차 총회 및 제12회 세계편집인
포럼(WEF) 개막(서울 코엑스) 80여개국 1300여명 참석
- 5.31 한·일 경비정 13척 울산 앞바다서 대치(~6.2)
- 6. 3 경찰, 인터넷 뱅킹 해킹 5000만원 인출한 2명 구속 영장
- 6. 5 박찬호(텍사스 레인저스) 메이저리그 통산 100승
- 6. 9 한국축구,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 6.14 김우중 전 배우그룹 회장 해외도피 끝에 귀국
- 6.17 평양 통일축전(6.14~16) 참가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
- 6.19 연천 최전방 초소(GP) 내무반에 일병이 수류탄 던지고 K-1
소총 44발 난사 장교1명 사병7명 사망, 2명 중상
- 6.22 박지성,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확정
- 6.24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안 확정

(2005. 6. 30 현재)